6·25戰爭史 4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4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 문

전쟁은 인류가 이룬 번영과 행복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며 고귀한 인간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6·25전쟁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과 인류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2003년부터 6·25전쟁의 실상과 교훈을 담은 『6·25전쟁사』 편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10년간 총 11권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번에 발간한 『6·25전쟁사』 제4권에는 한국정부와 국군의 재편성, 미군의 참전 결정과정 및 참전, 축선별 지연작전, 북한군의 상황 등에 관한 내용이 소상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세계냉전이 종식된 이후 관련 당사국들이 새롭게 공개한 비밀문서들에 수록된 풍부한 사료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 및 학계와 연구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국민과 장병들에게 국가안보와 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쟁 중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우다 산화하신 전몰장병과 무명용사들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 계속해서 6·25전쟁의 실상과 교훈을 더욱 정확하게 기록하여 군사편찬연구소가 명실상부한 국방사와 전쟁사의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각고 끝에 출간되는 본서가 6·25전쟁에 대한 연구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켰다고 확신하며, 책이 나오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군사편찬연구소장과 집필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8년 2월

국방부장관 김 장 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 간 사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및 건군 60주년이자 6·25전쟁 발발 5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미 1990년대에 접어들어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되었고 한반도에서도 평화정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적 교훈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점을 소중하게 간직하여 다시는 한반도에서 6·25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라 할 수 있는 1967년부터 10여년에 걸쳐 6·25전쟁사 전집을 발간하였으며, 또 국내외적으로 6·25전쟁사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집은 시기가 오래되어 그동안 군을 비롯하여 참전원로, 관련학자 등 각계에서 개정판 편찬을 요망하여 왔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따라 군사편찬연구소는 이미 발행한 전쟁사에 기초하되, 그 이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특히 최근에 전쟁당사국들이 공개한 사료와 참전자의 증언자료 등에 의거하여 기존의 6·25전쟁사를 총 11권 규모로 10여년에 걸쳐 증보하기로 계획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6·25전쟁사』제4권(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은 그 계획의 네 번째 결실로서 금강-소백산맥 방어선에서부터 낙동강방어선으로 물러나면서

북한군을 지연시킨 1950년 7월 14일부터 31일까지의 작전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정부와 국군의 재편성, 미군의 참전 과정, 축선별 지연작전, 북한군의 상황 등의 내용도 소상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6·25전쟁사의 편찬은 미·소와 남·북 관계에 관한 역사적 접근이 가능한 시점에서 추진되고 또 당사국의 새로운 비밀문서들이 공개된 시점에 추진되어 사실에 의한 객관적인 분석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고 끝에 출간되는 본서가 이런 면에서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군내는 물론 국내외 관계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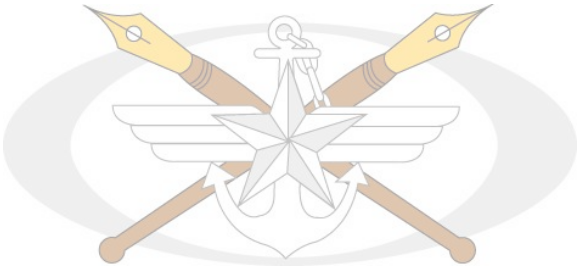
모쪼록 본 전쟁사가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자유수호의지, 미국을 비롯한 유엔 우방국들의 지원, 그리고 국군의 용전분투상 등 전쟁의 실상을 바르게 인식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값진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끝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분석과 집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집필자 여러분들과 작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준 조사연구부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원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애써주신 연구소 백선엽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동호, 정용근 위원님, 그리고 군 원로 및 관련학자 여러분의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 2월

군사편찬연구소장 김 홍 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1), 2), 3)

2.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 ) 안에 넣었다.

3. 한자 및 외국어로 표기하는 인명·지명·직위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표기하였다.
   (1) 각 절에 처음 나올 경우에 ( ) 안에 원어로 표기하였다.
   (2) 지명의 경우, 저명한 지명은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만을 ( ) 안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3) 외국 인명·지명은 이를 한국 음으로 표기하고 ( ) 안에 원어를 넣었다.

4. 주기(註記)는 인용된 원문의 전거(典據)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어 각 장 말미에 실었으며,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붙였다. 또 각장 마지막 부분에 담당 집필자명을 명기하였다.

5. 이 책의 본문에 인용된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평이한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독자의 이해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원문 제작 당시의 관용어나 제도어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6.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지명・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 완결된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린 표시
   『 』 : 저술이나 서명을 표시

7. 이 책의 부록으로 연표・관계 자료 목록을 책 끝에 실었다.

8. 이 책에서 상황도는 1950년대 1 : 5만 군사지도를 사용하였으며, 독도법과 군대부호 등은 종전의 방식을 따라 작성하였다. 개요의 상황도는 개요 마지막 부분에, 본문의 상황도는 해당 부분에 각각 넣었다.

9. 북한군과 관련한 용어는 군의 ‘정신교육지침’과 국방부의 대외 공식간행물인 『국방백서』의 수준에 준하여 전쟁사의 맥락에 맞도록 북한군, 공산군, 인민군 등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목 차

▌장관 서문

▌발간사

▌일러두기

제 1 장 총 개요 / 1

제 1 절 양측의 상황 ····· 3
제 2 절 지상 작전 ····· 5
제 3 절 해·공군 작전 ····· 8

제 2 장 유엔군의 지휘권 통합과 국군의 재편성 / 13

제 1 절 국내외 정세 ····· 15
제 2 절 유엔군 통합과 국군의 지휘권 이양 ····· 23
제 3 절 국군의 재편성과 후방지역 상황 ····· 32
제 4 절 전쟁지원체제의 정립 ····· 52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63

제 3 장 금강선 지연작전 / 71

제 1 절 작전 개요 ····· 73
제 2 절 공주-대평리 전투 ····· 84
제 3 절 대전 전투 ····· 126
제 4 절 영동-김천 지연전 ····· 172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20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제 4 장 소백산맥선 지연작전 / 221

제 1 절 작전 개요 ····· 223
제 2 절 미원 - 함창 전투 ····· 235
제 3 절 문경 - 점촌 전투 ····· 286
제 4 절 풍기 - 안동 전투 ····· 324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363

제 5 장 동해안지역 지연작전 / 383

제 1 절 작전 개요 ····· 385
제 2 절 영덕 부근 전투 ····· 391
제 3 절 진보 전투 ····· 405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418

제 6 장 서남부지역 지연작전 / 423

제 1 절 작전 개요 ····· 425
제 2 절 호남지역 전투 ····· 437
제 3 절 함양 - 합천 전투 ····· 496
제 4 절 하동 - 진주 전투 ····· 532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560

제 7 장 해군작전 / 571

제 1 절 작전 개요 ····· 573
제 2 절 한국해군 작전 ····· 577
제 3 절 유엔해군 작전 ····· 610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63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8 장 공군작전 / 643

제 1 절 작전 개요 ····· 645
제 2 절 한국공군 작전 ····· 648
제 3 절 유엔공군 작전 ····· 659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700

제 9 장 총 평 / 715

제 1 절 준비태세 측면 ····· 717
제 2 절 전쟁지도 측면 ····· 721
제 3 절 작전 및 전술적 측면 ····· 724

부 록 / 729

1. 연 표 ····· 731
2. 국군 작전명령 ····· 73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참고문헌 / 758

▮ 찾아보기 / 765

〈표 목 차〉

<표 2-1> 유엔군사령부의 지휘체제 ····· 26
<표 2-2> 유엔군의 참전상황(1950. 7. 31) ····· 29
<표 2-3> 제2군단의 창설과 지휘체제(1950. 7. 12) ····· 33
<표 2-4> 제2차 국군의 재편성과 병력현황(1950. 7. 20) ····· 34
<표 3-1> 미 제24사단 지휘관 현황 ····· 81
<표 3-2> 미 제1기병사단 지휘관 현황 ····· 82
<표 3-3> 북한군 전투 참가 사단 지휘관 현황 ····· 83
<표 4-1> 북한군 주요 지휘관 ····· 226
<표 4-2> 국군 주요 지휘관 ····· 228
<표 5-1> 북한군 주요 지휘관 ····· 387
<표 5-2> 국군 주요 지휘관 ····· 388
<표 6-1> 호남지역 북한군 주요 지휘관 ····· 427
<표 6-2>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주요 지휘관 ····· 429
<표 6-3> 서남부지역 북한군 주요 지휘관 ····· 496
<표 6-4> 서남부지역 미 제24사단 주요 지휘관 ····· 497
<표 6-5> 경남편성관구사령부 주요 지휘관 ····· 499
<표 6-6> 하동지역 북한군 주요 지휘관 ····· 533
<표 6-7> 경남편성관구사령부 지휘관 ····· 535
<표 6-8> 하동지역 미군 지휘관 ····· 535
<표 7-1> 포항육전대 편성표(1950. 7. 20) ····· 585
<표 7-2> 해상수송 실적(1950. 7. 24～7. 27) ····· 608
<표 7-3> 미극동해군의 기동편성(1950. 7. 21～9. 11) ····· 610
<표 8-1> 공군 후방사령부 조직 편성도(1950. 7. 23) ····· 650
<표 8-2> 공군 조직 편성도(1950. 7. 28) ····· 651
<표 8-3> 한국공군 전투기 작전 종합전과(1950. 7. 14～7. 31) ····· 656
<표 8-4> 정찰비행대 작전 종합(1950. 7. 14～8. 3) ····· 65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목차〉

<상황도 1-1> 지연작전 상황(1950. 7) ····· 11
<상황도 3-1> 금강선 지연작전(1950. 7. 14～20) ····· 77
<상황도 3-2> 공주-대평리 전투(1950. 7. 14～16) ····· 85
<상황도 3-3> 공주 전투(1950. 7. 14～15) ····· 97
<상황도 3-4> 제63포병대대 피습(1950. 7. 14) ····· 101
<상황도 3-5> 대평리 전투(1950. 7. 16) ····· 107
<상황도 3-6> 연대보급로 차단(1950. 7. 16) ····· 113
<상황도 3-7> 대전 전투(1950. 7. 19～20) ····· 128
<상황도 3-8> 대전 시가지전투(1950. 7. 20) ····· 135
<상황도 3-9> 영동-김천지역 작전(1950. 7. 22～31) ····· 173
<상황도 3-10> 영동 전투(1950. 7. 20～25) ····· 186
<상황도 3-11> 영동-황간 전투(1950. 7. 26～29) ····· 193
<상황도 3-12> 김천 전투(1950. 7. 29～31) ····· 196
<상황도 4-1> 소백산맥선 지연작전 ①(1950. 7. 14～31) ····· 231
<상황도 4-2> 소백산맥선 지연작전 ②(1950. 7. 14～31) ····· 233
<상황도 4-3> 미원지구 전투(1950. 7. 14～22) ····· 241
<상황도 4-4> 고은리 부근 전투(1950. 7. 14～16) ····· 249
<상황도 4-5> 상달리 전투(1950. 7. 17) ····· 258
<상황도 4-6> 동관리 전투(1950. 7. 18～22) ····· 262
<상황도 4-7> 갈령 부근 전투(1950. 7. 23～25) ····· 268
<상황도 4-8> 함창 부근 전투(1950. 7. 28～29) ····· 279
<상황도 4-9> 이화령 전투(1950. 7. 14～16) ····· 295
<상황도 4-10> 조령 전투(1950. 7. 15～16) ····· 299
<상황도 4-11> 영강 부근 전투(1950. 7. 17～22) ····· 308
<상황도 4-12> 유곡리 부근 전투(1950. 7. 23～27) ····· 316
<상황도 4-13> 풍기 전투(1950. 7. 14～22) ····· 331
<상황도 4-14> 내성천 전투(1950. 7. 24～26) ····· 3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15> 안동 전투(1950. 7. 28～31) ····· 352
<상황도 5-1> 동해안지역 지연작전(1950. 7. 14～31) ····· 389
<상황도 5-2> 영덕 전투(1950. 7. 14～31) ····· 397
<상황도 5-3> 진보 전투(1950. 7. 28～31) ····· 413
<상황도 6-1> 호남지역 지연작전 상황(1950. 7. 16～26) ····· 434
<상황도 6-2> 호남지역 도로망(1950) ····· 435
<상황도 6-3> 후방지역 상황(1950. 7) ····· 436
<상황도 6-4> 군산-이리 상황(1950. 7. 16～19) ····· 439
<상황도 6-5> 장항-군산 전투(1950. 7. 16～19) ····· 448
<상황도 6-6> 강경-이리 전투(1950. 7. 18～19) ····· 452
<상황도 6-7> 삼례-김제 전투(1950. 7. 19～20) ····· 458
<상황도 6-8> 신태인 부근 상황(1950. 7. 20) ····· 464
<상황도 6-9> 정읍-장성 상황(1950. 7. 20～24) ····· 470
<상황도 6-10> 남원 부근 상황(1950. 7. 24) ····· 483
<상황도 6-11> 순천 부근 상황(1950. 7. 25～26) ····· 488
<상황도 6-12> 여수 부근 상황(1950. 7. 26) ····· 491
<상황도 6-13> 거창-하동지역 상황(1950. 7. 24～30) ····· 498
<상황도 6-14> 운봉-함양 상황(1950. 7. 25～26) ····· 502
<상황도 6-15> 안의-거창 전투(1950. 7. 26～29) ····· 507
<상황도 6-16> 권빈리-합천 전투(1950. 7. 30～8. 1) ····· 524
<상황도 6-17> 하동 전투(1950. 7. 25～27) ····· 534
<상황도 6-18> 진주 전투(1950. 7. 28～31) ····· 548
<상황도 7-1> 정대별 해상경비구역(1950. 7. 26～) ····· 581
<상황도 7-2> 유엔해군의 함포사격・항공강습・근접항공지원(1950. 7. 18～7. 30) ···· 624
<상황도 8-1> 미 극동공군에 의해 파괴 또는 파손된 교량목표(1950. 7. 26) ····· 68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장 총 개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양측의 상황
제 2 절	지상 작전
제 3 절	해·공군 작전

제 1 절 양측의 상황

『6・25전쟁사』 제4권(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에서는 국군과 미군이 금강~소백산맥 방어선에서부터 아군의 최후 방어보루인 낙동강선으로 물러나면서 전개한 지연작전 상황을 수록하였으며, 작전기간은 1950년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포함하였다. 각 개요에 관한 상황도는 개요 마지막 부분에 편집하였으며, 본문의 상황도는 본문 관련내용 부분에 게재하였다.

국군은 1950년 7월 초부터 미국 지원군과 더불어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번다"는 지연작전의 방침에 따라 북한군을 저지하였으나, 7월 14일 시점 다시 미군이 공주~대평리 일대의 금강 방어선으로, 국군이 미원~조령~풍기~영덕 일대의 소백산맥 방어선으로 물러남으로써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다.

북한은 유엔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다음날, 이에 응수하기나 하듯이 전쟁이 새로운 작전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강조하고 소련에 군사고문단과 장비 보충을 요청하는 한편, 전선사령부의 보강, 전투사단의 편성, 그리고 후방지원부대의 신설 등 대폭적으로 전력을 강화하였다.

1950년 7월 14일 북한군은 제2군단의 6개 사단과 제1군단의 4개 사단 전부를 전방에 투입하고, 또 개편중인 사단을 포함한 3개 사단규모의 예비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반적인 상황에 따르면 북한군의 주요 기동축선은 금강 지역으로부터 낙동강 상류지대로 향하였다.

북한군은 초기 공세와 마찬가지로 경부국도 연변을 주공 축선으로 하고 이 축선으로 전투력이 강한 제2・제3・제4・제6사단 등 기존 4개 사단에 제105전차사단을 배속시켜 기동력과 공격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제7・제9・제10사단 등 3개 예비사단이 서울 부근에서 증편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들은 서부전선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동남방으로 지향됨에 따라 후속하여 서남부지역으로 진출하려는 듯하였다.

아울러 조공축선인 소백산맥선 일대에는 제1・제13사단을 서부지역에서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제2군단 예비인 제8・제15사단을 투입함으로써 제1・제8・제12・제13・제15사단 등으로 소백산맥의 회랑지대를 공격할 태세였다. 동해안 방면에서는 여전히 제5사단이 산악지대로 침투한 제766부대와 함께 포항 점령을 기도하였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전투부대의 긴급 증원을 미 본국에 수차례 요청하는 한편, 전선의 급격한 악화로 자신의 상륙작전계획을 변경하여 주일미군 3개 사단을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 맥아더 장군이 증원 요청한 주요 사항은 주일 4개 사단의 완전편성과 미 본토로부터 제2사단의 즉각적 증원, 그리고 공정 및 해병부대와 포병, 전차, 공병 등 전투지원부대의 증원 등이었다.

이에 대한 미 본토에서의 조치는 합동참모본부가 7월 9일 제2사단의 지원을 약속한데 이어,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대장과 공군참모총장 반덴버그 대장이 7월 14일 미 제8군 및 극동군사령부를 방문한 후인 19일에 주일 4개 사단의 완전 편성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가용부대의 규모를 파악한 맥아더 원수는 새로운 상륙작전계획인 '크로마이트 계획'을 완성시켜 23일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금강방어선에서 적을 방어하기로 결심하고 제8군사령부 지휘소 개소와 함께 작전명령 제1호를 하달하였다. 이로써 미 제24사단은 금강일대에서 현 방어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대전이 점령된 이후 영동지역에서부터는 미 제1기병사단에 작전지역을 인계하였다. 미 제25사단은 상주일대로 진출하여 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미원~상주 일대의 한국군을 지원하였다.

한편 국군은 수도・제1・제2・제6・제8사단과 제23연대가 미원~이화령~조령~풍기~영덕 등 소백산맥선으로 물러나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 후방상황에 대처하여 제3・제5・제7사단・제9사단 등 4개 사단을 편성하여 후방지역 경계를 전담시키고 있었다. 동시에 7월 12일 창설된 제2군단(군

단장 김백일 준장) 예하에 제6·제8사단을 배속시키는 등 부대 재편성을 실시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했다.

제 2 절 지상 작전

『6·25전쟁사』 제4권(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에서는 1950년 7월 14일~31일 지상작전 상황을 금강선, 소백산맥선, 동해안지역, 그리고 서남부지역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당시 아군의 방어책임은 한·미군이 작전협의에 따라 크게 미군이 공주~대전 지역의 방어를 맡고 국군이 그 동쪽 일대의 소백산맥 지역의 방어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금강선 지연작전」(제3장)에서는 미 제24사단이 7월 14일 제19연대와 사단포병 주력을 대평리 정면에, 제34연대를 공주정면에 배치하고 북한군 제3·제4사단의 공격을 방어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이 전투와 연결되는 경부가도 축선인 대전 전투 및 영동~김천 전투를 함께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금강선에 방어선을 편성한 미 제24사단은 7월 14일 공주 지역의 미 제34연대가 적 제4사단의, 그리고 7월 16일 대평리 지역의 미 제19연대가 적 제3사단의 도하공격을 받고 부대가 와해된 상황에서 대전으로 철수하였다. 이어 19일 3개 방향으로 접근한 적을 맞이하여 대전을 방어하였으나 다음날 사단장이 실종되는 등 많은 병력 손실을 입고 역시 영동 북쪽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때 포항으로 상륙한 미 제1기병사단이 7월 19일부터 영동 부근으로 진출하여 전선을 인수받아 영동~김천 일대에서 적을 지연시켰다. 기병사단은 7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2일부터 험준한 경부국도변 영동정면에서 북한군 정예사단인 제3사단과 격돌하고, 7월 27일에는 황간 측방의 적 제2사단과 전투를 수행하였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미 제25사단을 상주 부근으로 급히 투입시켜 국군 제1사단과 연결시켜 상주~김천에서 미 제1기병사단과 협조된 작전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격 기세에 밀려 미 제25사단이 7월 31일에 상주 부근에서 철수한 다음, 미 제1기병사단과 함께 김천~왜관으로, 남부통로 주변의 제24사단은 합천~진주로 각각 철수하고 있었다. 이때 아군 전선은 불균형한 형태로 서로 협조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은 전 부대를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시켜 조정하였다. 이 작전계획에 따라 미 제25사단이 마산 서측 지역을 점령하고 지금까지 넓은 방어정면을 담당했던 미 제24사단은 제17연대를 배속 받아 그 북쪽으로 철수하여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소백산맥선 지연작전」(제4장)에서는 국군 5개 사단(수도·제1·제2·제6·제8사단 등)이 주로 중동부 산악지대인 미원~이화령~조령~풍기 일대를 잇는 소백산맥선 일대로 물러나 북한군 제2군단(제1·제8·제12·제13·제15사단 등)의 공격을 지연시킨 상황을 기술하였다.

국군 수도사단과 제2사단은 청주 일대에서 큰 접적 없이 전선조정을 위해 보은 일대로 철수하고 있었으며, 국군 제1사단이 미원~상주 일대에서 적을 지연시키고 북한군 제15사단을 격퇴한 후 함창 정면에 이르러 북한군 제13사단의 일부부대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 무렵 국군 제17연대는 안동으로 이동 중에 7월 17일~23일간 상주 부근 화령장에서 이동 중인 북한군 제15사단을 기습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국군 제6사단은 이화령~조령~문경선에서 북한군 제1·제13사단 등 2개 사단을 견제하면서 영강(문경 남쪽 8㎞)~유곡리~점촌에 이르렀으며, 국군 제8사단이 풍기~영주~안동 일대에서 적 제8·제12사단의 공격을 맞이하여 적을 효과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육군본부는 7월 25일 적의 기동로를 분석하여 방어부대의 배치를 부분적으로 재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1사단은 미 제25사단에 작전지대를 인계한 다음, 7월 26일부터 점촌정면의 국군 제6사단 좌측으로 이동하여 전선의 간격을 조정했다. 그리고 국군 수도사단은 1개 연대로 국군 제6사단을 증원하고, 주력 2개 연대를 통합 편성하여 예천 부근의 미 제25사단 제24연대와 교대하여 적을 저지하였다.

「동해안지역 지연작전」(제5장)에서는 국군 제3사단이 유엔 해군의 지원 하에 적 제5사단과 제766부대의 공격을 지연시킨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3사단은 유엔 해군과 함께 북한군 제5사단의 공격을 지연시켰으며, 7월 21일에는 영덕에 이르러 유엔 해군의 함포지원 하에 수차례 공방전을 거듭하면서 적을 저지하였다. 또한 국군 제3사단에 배속된 독립기갑연대는 진보 일대에서 북한군 제766부대의 내륙 침투를 저지함으로써 아군의 방어선이 양분되는 위기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서남부지역 지연작전」(제6장)에서는 호남 지역과 거창~하동 일대의 지연작전 상황을 기술하였다. 호남지구에서는 방어준비를 갖추고 있던 병력은 재편성 중인 국군 병력과 경찰을 합하여 약 2,500여명에 불과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은 선두부대가 7월 16일 강경부근에 도달하고 급속한 남진을 기도하였다 . 아군 방어병력은 축차적으로 적을 방어하였으나 절대적인 전투력의 열세로 인해 전주~김제~정읍~남원~순천 일대로 힘없이 물러났다.

북한군은 제6사단이 하동~진주로 지향 중이었고, 대전~무주로 진출한 제4사단이 안의~거창으로 향하였다. 아군 서측방의 위기를 느낀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신임 미 제24사단장 처치 소장에게 거창~진주선을 방어하도록 명령하였다. 처치 소장은 재편성중인 사단을 즉시 7월 24~26일간 거창~진주선으로 축차 전개시킴으로써 25일부터 고군분투하여 적의 공격을 지연시켰다.

국군과 미군은 국군이 부대를 재편성하고 미군 후속 지원부대가 진출할 때까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버는' 지연작전을 전개하여 낙동강 일대의 최후의 방어보루까지 철수하게 되었다. 이제 아군은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었으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왜관에서 동해안의 영덕까지의 방어는 국군 제1사단~제6사단~제8사단~수도사단~제3사단이 담당하고, 왜관 서남쪽의 방어는 미 제1기병사단~제24사단~제25사단이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8월 초에 이르러서는 미 제2사단과 제1해병여단, 그리고 제5연대전투단과 3개의 전차대대 등이 계속 증원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제 3 절 해·공군 작전

해군 작전에는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이 전쟁 초기부터 확보한 해양통제권을 유지하면서 1950년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반도 해역에서 수행한 제반 작전을 정리하였다. 이 시기 유엔해군이 한반도 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함으로써 부분적인 침투활동을 제외하고는 적의 해상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국 함정들은 서·남해안에 대한 방어와 봉쇄작전을 통해 적의 무장병력과 군수물자 수송을 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3인치 포를 장착한 PC함들은 서·남해안작전에서 한국해군이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한국함정들이 비록 화력은 약했지만 미 해군의 대형전투함이 수행할 수 없는 연안 작전, 즉 소해작전, 소형선박 검색 등을 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한편 미 극동해군사령관 명령에 따라 7월 10일부터 제96.7기동전대(TG96.7)를 편성하고 그 예하에 한국해군 제96.70단대(TE96.70)를 두었다. 미 극동해군은 함정 규모가 계속 증강되자 효율적 작전지휘를 위해 7월 21일부로 예하의 기동조직을 재편성하였다. 특히 제96기동부대 예하에 있는 제96.5기동전대(동해안지원

전대)를 한·일지원전대로 명칭을 바꾸고, 예하에 호송단대, 제1동해안지원전대, 제2동해안지원전대, 서해안지원전대를 두었다. 제96.7기동전대(TG 96.7)는 변동 없이 한국해군 함정으로 구성되었다.

미 제7함대는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주로 원산·평강·함흥 일대를 폭격하였다. 이 작전에서 가장 큰 전과는 원산정유소를 폭격하여 북한군의 전쟁지속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던 것이다. 아울러 지상군의 근접항공지원 요청에 의해 밸리 포지(Valley Forge)함을 비롯한 항공모함 함재기들을 출격시켜 부대 집결지 등을 폭격하였다.

제96.7기동전대인 한국해군은 주로 북위 37도 이남 해역에서 유엔함정과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 제2정대는 동해, 제1정대는 서해, 제3정대 및 훈련정대는 남해 해역에서 각각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 주로 동해는 미 함정, 서해는 영연방 함정들에 의해 작전이 수행되었다.

한편 한국공군은 대전에 주둔하면서 예하부대를 재편성하였으나 전선이 남하하자 대구로 이동하였다. 공군본부는 이 시기에 잦은 이동으로 건재가 무너진 예하부대를 다시 재편성하여 지휘체제를 확립하였다. 한국공군의 비행단은 미 극동공군으로부터 로켓탄을 보급지원 받아 오산~평택~성환을 비롯하여 단양~충주~문경 방면에 이르기까지 작전지역을 확대하며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미 극동공군은 제5공군과 호주 공군의 제77대대로써 남침 초기부터 근접항공지원을 수행하였다. 미 극동공군은 극동공군 내에서 전술부대를 재편성하는 한편 부족한 병력과 장비 등을 미 공군에 요청하였으며, 미 공군은 극동공군에 F-51전투기 145대, 전략폭격기 전대 및 기타 전술부대 등을 지원하였다.

미 제5공군사령부는 일본의 전방기지를 활용하여 작전을 전개하였으나, F-80 전투기의 항속거리 문제 등으로 인해 대구(제51전투비행대대)·포항(제40전투요격대대)·부산 기지공사를 시작하였다. 제5공군은 7월 14일 제6132전술항공통제전대를 대구에 전개하고 합동작전본부(JOC)에 육군장교를 충원하였으며, 이어 전술항공통제본부(TACC)하여 본격적인 전술항공작전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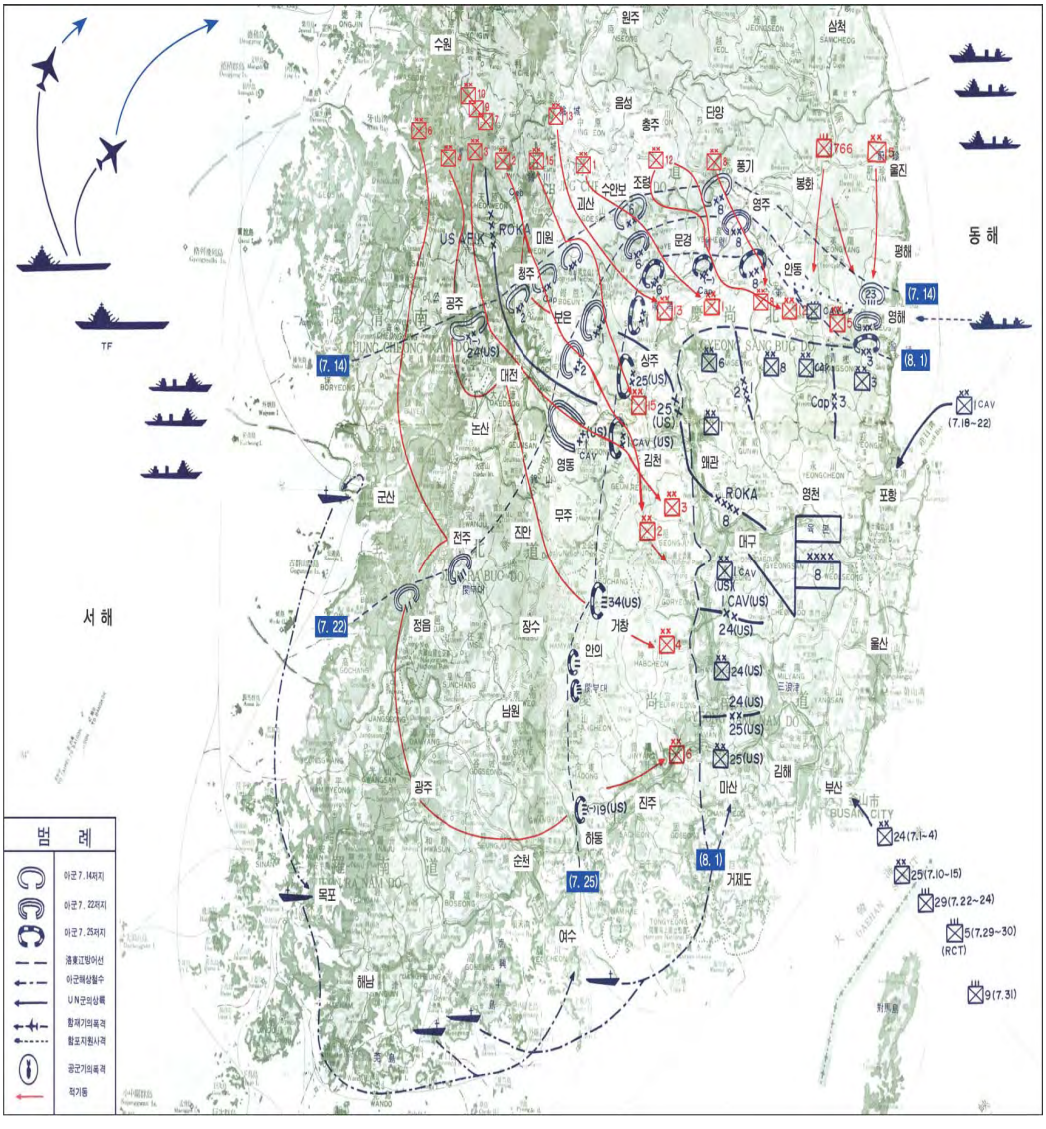
또한 미 극동공군은 해군 제7함대 항공이 참전함에 따라 단일 통제체제를 마련하였고 7월 14일 목표분석단을 설치하여 해·공군의 효과적인 항공력 운용에 만전을 기하였다. 미 극동군사령부는 7월 22일 북한군의 후방차단작전을 계획하여 극동공군 폭격사령부가 7월 27일부터 대대적인 작전을 전개하였고 이후 전략폭격으로 북한 산업시설에 큰 피해를 주었다.

지연작전 기간 동안 국군과 유엔군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버는 혈전고투의 대가로 북한군의 공격예봉을 점차 무디게 하였고 당초의 전투력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나아가 낙동강선에서부터는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맥아더 원수는 훗날 지연작전에서 아군은 균형을 잃고 희생을 강요당하였으나, 그 대신 귀중한 시간을 얻게 되었다고 술회하였다.

(집필 : 양영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1-1> 지연작전 상황(1950. 7)



제 2 장 유엔군의 지휘권 통합과 국군의 재편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국내외 정세
제 2 절	유엔군 통합과 국군의 지휘권 이양
제 3 절	국군의 재편성과 후방지역 상황
제 4 절	전쟁지원체제의 정립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국내외 정세

1. 국내 정세의 추이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군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침 직후 수차례 미국에 지원을 호소하였으며, 1950년 7월 초부터 주한 무초 대사를 통해 재차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장면 주미대사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도록 훈령을 하달하고 유엔한국위원단과도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강조하였다.

유엔의 개입과 대북 제재조치는 유엔 창설이후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침략행위에 대한 최초의 집단안전보장 조치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유엔의 결의와 조치를 근거로 비로소 한국 전선에 투입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지상군, 해·공군이 국제사회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무렵 한국 정부의 전시 조치는 행정부의 각 부서별로 분주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국방부·내무부·법무부 등), 입법부, 사법부 등 정부기관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사전에 준비를 갖추지 못한 신생 정부로서는 전쟁초기 극심한 혼란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인적구성과 경험, 법령 및 제도 등 국가역량 면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구호대책이나 철수계획을 논의하지 못하다가 각 기관이 대전으로 이동한 후에야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국군은 전 국민의 호응을 받아 전시 총력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8일 총참모장 포고 제1호로서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데, 북한군은 이미 금강선에 근접하고 있었다.[1] 7월 13일에는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한반도에 주둔한 모든 미군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하였고, 14일 대구 경북도청에서 사령부를 개소하였다. 이날 육군본부와 함께 있던 국방부도 대구로 이동하여 도청에서 합류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날 7월 15일에 계엄령 선포에 따른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곧바로 백성욱 내무장관의 후임으로 조병옥 박사를 임명하여 전시 치안유지와 피난민 통제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거국개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대통령의 담화에 이어 16일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대민활동에 관하여 <최근 시국과 우리의 각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유엔의 지원, 국군의 선전, 북한군이 점령지역에서 자행된 북한군의 잔학상, 북한의 허위 선전을 경계하라는 것 등이었다. 이 성명서는 10만장의 전단으로 제작되어 배포되었다.[2]

한편 전세의 악화로 말미암아 정부도 7월 14일 대구로 이동하였다. 입법부는 7월 21일부터 제8회 임시국회를 열어 비로소 혼란 속의 입법부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다.[3] 국회기록에 의하면, 당시 국회는 7월초 대통령이 대전에 체류하고 있어서 대전지방법원에 입법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연락체제를 유지하다가 대전으로 이동하여 임시비상회의를 소집하였으나, 과반수가 참석하지 못해 개회하지 못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사태수습을 논의하고 있었다.[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부 및 각국 사절단 등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국회 소위원회'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대 국회는 의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해 우리 손으로 구성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국회 개원 6일 만에 전쟁을 맞이하여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었다.

국회는 이후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국회의원 130명의 참석 하에 7월 27일부터 12일 동안의 회기를 갖고 긴급명령 등 추인을 비롯하여 전시 내각구성의 촉구와 외교진의 강화, 그리고 유엔한국위원단에 보내는 메시지 등 2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국회는 나아가 일선 군경에 대한 지원과 위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선이 더욱 압축되어 왜관 부근까지 북한군이 근접하게 되자 다시 행정부를 따라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한편 남침초기부터 군을 지원한 전선지역의 경찰은 군의 지연작전에 따라 후방으로 철수하고, 도내의 경찰은 치안유지 및 공비 출몰지역에 대한 탐색과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군을 지원하였다. 당시 전투지대내에서 가장 악전고투한 강원도 경찰의 5개 대대병력은 지역별로 경비를 분담하다가 전세가 급전하자 곧 원주 부근으로 집결하게 되었고, 교통과 통신이 곤란한 인제~강릉~홍천~삼척~영월~평창 일대의 경찰은 북한의 유격부대와 조우, 국지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각개 철수하였다.[5)]

서울~경기~충청남북 경찰은 충남지역으로 물러나 시설보호와 물자수송에 전력하였으며 7월 14일에 정부의 각 행정관서가 대전에서 대구로 이전함에 따라 일부병력으로 지원하게 하고, 주력을 대전에 잔류시켜 군을 지원하였다. 경찰주력은 미 제24사단의 작전에 협력한 다음 대구로 집결하였는데, 이때 논산~강경

북한에 의한 소위 인민재판의 모습

선으로 철수한 충남경찰 1개 대대와 전북경찰이 이곳 도계를 연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당시 전라남북도 일원에는 4개 대대규모의 경찰이 산재하고 있었으나, 적이 도계를 넘어설 때까지 계엄지역에서 제외되고 있었으므로 각 서장의 통제 하에 행동하였다.

그러나 7월 21일에 대전이 상실되고 전라남북도에 계엄령이 선포됨으로써 지역 경찰은 각 사단장이 통제하게 되었다.[6] 따라서 대전 부근에서 호남지구로 우회한 북한군 제6사단이 7월 17일 충남과 전북의 도계를 넘어 21일에 전주~정읍선을 공격하였으므로 전북경찰의 2개 대대는 제7사단장 민기식 대령의 통제 하에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남원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전남경찰 2개 대대도 제5사단장 이형석 대령의 통제 하에 국지전투와 치안유지에 임하다가, 25일 구례~순천~여수~목포 일대에서 각기 육로와 해로를 따라 진주~마산~부산선으로 철수하고 일부는 연안 도서에서 유격전을 수행하였다.

한편 북한군은 점령지에서 의용군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선전선동을 꾀하다가 그 성과가 부진하자, 새로운 당 결정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강제 동원에 의한 납치로 그 수법을 전환하였다.[7] 이 무렵 전시동원령에 의해 점령지역의 주민들 가운데 18~36세까지의 장정들을 주로 강제 동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강제로 납치된 남한의 청년수가 20여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북한군은 그들 중에 당원과 친공 분자들을 중심으로 안동, 대전, 광주여단 등을 편성하여 그 일부는 전선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이북으로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이는 부족한 병력을 강제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수법이 무자비하여 각 군 단위로 장정을 강제 동원하여 치안대 병력도 편성하고 있었다.

북한은 국제정치적으로 소련의 유엔주재대표 말리크가 안보리의 의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7월부터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보내는 성명서의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동 성명서에는 미국의 무력간섭을 중지하고 소위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고, 그들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서명을 강요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아울러 북한은 7월 14일에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른 정령(政令)이라 하여 <남반부 해방지구의 군·면·리·동의 인민위원회 선거시행에 관하여>라는 것을 발표하여 전국 각 도·시·군·면·리 등 인민위원회 조직을 준비하였다.[8] 그리하여 7월 25일부터 선거를 실시, 군 위원 566명, 면 위원 2,595명, 리 위원 7,607명을 각각 선출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들은 치안대와 남로당원 중심이었다.

북한은 외부적으로 침략자의 죄상을 은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수법으로 무고한 양민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잔학상을 보였다. 이들이 점령지에서 저지른 잔학상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첫째, 전투부대와 함께 진주한 치안대로 하여금 점령지역을 신속히 행정 조직화하여 주민을 결박하였고, 둘째, 현지 당원 및 적색분자들을 동원하여 이른바 위원회조직과 그 활동사업을 협조 선동토록 하고, 셋째, 각 마을과 각 직장의 하부단위까지 세포망을 확대하여 그들의 요구를 강제로 관철하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그로인해 이른바 반동분자나 비협조자가 색출되면 인민재판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고문하거나 학살하였는데, 적 점령 하의 3개월간 투옥된 인사가 30여만 명에 이르고 병사·아사·행방불명 등을 제외한 납치와 학살로 희생된 인원이 21만여 명을 상회하였다. 이들은 또한 닥치는 대로 재고물자를 먼저 약탈하고 쓸만한 건물과 주택을 몰수하여 당 간부용으로 배당하는가 하면, 심지어 식량과 가구, 그리고 의류 등의 생필품까지 약탈하기도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국제 정세의 추이

유엔안보리가 한국을 지원하기로 결의한 1950년 7월 7일 직후부터 국제무대에서는 두 갈래의 평화를 위한 조정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첫째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인 이집트와 인도, 그리고 유고슬로비아 등이 중심이 되어 미·소

를 설득함으로써 전쟁을 중지하기 위하여 비공식회의를 갖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엔주재의 외교관을 통하여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전자의 경우, 영국대사가 소련 외무차관 그로미코(Gromyko)의 초청과 임의방문 형식으로 1950년 7월 6일 및 11일 두 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영국측은 회담내용에 관하여 "중공의 유엔가입문제와 한국사태를 동시에 취급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정전과 북한의 38 °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선행한 연후에 이 문제를 유엔기구 내에서 해결하자"라고 주장하였음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소련측은 "중공정권의 대표가 참석한 안보리에서 모든 토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고집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9]

후자의 경우는 인도수상 네루(Nehru)가 7월 11일 소련 수상 스탈린(Josep V. Stalin)과 미 국무장관 애치슨(Dean G. Acheson)에게 각각 친서를 보내어 상호 절충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스탈린은 7월 15일 각서형식으로 네루에게 회답을 보냈는데, 동월 18일 발표된 양측의 공한 내용은 인도측이 "중공의 유엔 가입을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지원을 호소하는 장면 주미대사

조건으로 한국전쟁을 안보리 또는 그 밖에서 해결할 것"을 제의한데 반하여 소련측은 "즉시 중공대표를 포함한 5대 상임이사국 참석하의 안보리에서 문제가 토의되는 것을 찬성한다"라는 전제하에 이른바 "조선인민의 대표로부터 사태를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조건을 달았다.[10]

이와 함께 미국측도 7월 17일 네루에게 회답을 보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이 "중공의 유엔가입문제가 전쟁도발에 대한 토의의 대가로 거래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이 뒤에도 절충이 미진하게 계속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이 평화교섭의 노력은 좌절되고 말았다. 다만 유엔은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쟁도발의 배후에 중공의 유엔가입문제가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다.

트루먼은 소련의 의도를 확인한 만큼 한국지원의 결의를 더욱 굳히고, 침략자들을 단호히 분쇄할 것을 다짐하는 특별성명을 7월 19일 발표하였다. 그는 성명을 통하여 개전전후의 일반정세와 유엔 안보리의 결의 및 절대다수국의 지지상황 등을 지적하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방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개 항의 범위 내에서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취지를 천명하였다.[11]

① 한국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병력과 장비보급품을 가급적 빨리 맥아더 원수의 휘하부대에 보낸다.
② 세계정세는 한국에서 필요한 군사력 이상으로 우리 군대의 규모 및 물자보급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③ 공동방위를 위하여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자유제국을 원조하여야 하며, 그들의 군사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국무장관 애치슨과 국방장관 존슨(Louis A. Johnson)은 즉각적으로 병력의 증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육·해·공군 및 주 방위군의 동원령을 하달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19~25세까지의 총 975만 명을 등록시킨다. 4개의 주 방위사단을 7월 31일까지 현역에 편입한다. 사태악화 시에 250

만 명의 예비역을 동원한다. 군사비 증액을 의회에 요청하고 산업동원계획을 부분적으로 단행한다"라는 요지였다.[12)]

이러한 일련의 정책결정에 따라 미 합동참모본부(JCS)와 관계기관은 이를 순차적으로 집행하였는데, 기간 중에 취한 군사조치를 예시하면, 먼저 전 현역의 절반에 동원명령을 내리고, 태평양지구의 해군으로 하여금 별도의 기동부대를 편성하여 하와이 근해로 출동시킴과 동시에 태평양군에 경계를 강화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미 본토에 있는 서부 육군사령부 휘하의 3만 병력에 대하여서도 방공경계태세를 명령하고, 공군에서는 연안에 대한 정찰활동의 강화와 전투기를 증가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강경조치와 더불어 미국은 7월 24일에 "타이완 방위는 팽호 열도를 포함한다"라고 밝힌데 이어, 8월 1일에는 맥아더-장개석 회담이 타이페이에서 개최됨으로써 타이완 문제가 미 극동군의 방위지역으로 다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6·25전쟁의 상황진전에 따라 국부군이 중국의 본토상륙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종전의 기우를 덜게 하고, 공산진영에 대한 견제계획을 행동으로 과시하려는 것이었다.[13)]

1950년 7월말 전국은 낙동강 방어선으로 압축되면서 공방의 결전이 고조에 달하였으며, 유엔안보리에서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소련 대표가 8월 의장이 되어 8월 1일 회의 시작부터 중공대표 승인이라는 엉뚱한 의제를 제기하여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서방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뒤에도 소련은 의장직권을 남용하여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꾀하였으나, 결국 8월중 7회에 걸친 안보리의 회의에서도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유엔군 통합과 국군의 지휘권 이양

1. 유엔군 작전지휘권 통합

국군은 유엔 안보리의 제1·제2차 결의에 따라 미군과 함께 평택~충주~울진을 연하는 선에서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한 다음 조기에 공세 이전한다는 계획 하에 결전을 시도하며 지연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아군은 상대적인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축차적으로 철수하였다. 서부전선의 미군은 금강 연안에 전개 배치하기에 이르렀고, 중부 및 동부전선의 국군은 소백산맥선에서 방어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 무렵 유엔군은 지연작전을 전개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한 후 7월 13일 제8군사령부를 개소하였다. 아울러 국군은 12일 국군을 2개 군단체제로 재편성하고 14일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부에 인계하는 등 부대의 지휘통일조치를 단행하여 작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개전 초 한국 정부는 유엔에 강력한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유엔의 여러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고 미국의 참전에 이어 영국과 호주의 해·공군이 국군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유엔에서는 이미 1950년 7월 3일 이 문제를 검토하여 사무총장 리(Trygve Lie)가 미국이 유엔군을 지휘하되 한국지원협조위원회를 통하여 시행하자는 결의안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이 위원회는 모든 지원을 협조하고 회원국에게 지원을 촉구하며 현지 지휘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14] 그러나 미국 정부와 현지 지휘관 사이에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가 존재한다면 작전지휘상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미국측의 우려로 인해 지연되고 있었다.

한편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의 지휘구조는 미국이 유엔을 대신하여 한국의 작전을 통제하고, 유엔과 현지 사령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배제하며, 정책적인 결정사항은 작전사령관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결의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15]

결국 7월 7일 개최된 유엔 안보리 제3차 결의에서 미국이 작성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유엔군사령부 설치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유엔문서 S/1588)됨으로써 한국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유엔군을 지휘하게 되는 통합군사령부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을 평화의 파괴행위로 확정하고(…) 군사력과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이 미국 책임하의 통합군사령부가 그러한 군사력과 기타 지원을 운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미국이 그러한 군사력을 지휘할 사령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하며, 통합군사령부가 그의 재량으로 인민군에 대한 작전 중 유엔기를 여러 참전국의 국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인가하며, 미국은 통합군사령부의 책임 하에 취해진 작전경과에 관한 적절한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16]

이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유엔은 한국에서 침략자를 격퇴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할 권한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회원국들이 파견한 군대는 미국의 통일된 지휘체제하에 둔다는 것이었다. 유엔의 3차 결의는 유엔 헌장이 채택된 이래 최초의 실권행사로서 유엔사를 편성한 것인 만큼 유엔의 역사상 커다란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유엔결의 직후 미 대통령 트루먼(Truman)은 이를 수락한 후 즉시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MacArthur) 원수를 유엔군통합사령관에 임명하기로 했다고 공표하였고, 이어 유엔 미국대표 오스틴(Austin)도 미국에게 부여된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 국무부는 1950년 7월 12일 유엔군통합사령부가 수행할 다음과 같은 지침을 하달하였다. 즉, “국제정치상의 이유로 우리의 작전임무는 유엔안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리의 지원 하에 수행된다는 사실을 계속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중략) 유엔군의 활동상황을 매주 1회씩 유엔에 보고하되 육군부과 국방부를 경유하여 국무부 및 유엔주재 미국 대표에게 제출하라"는 것이었다.[17]

트루먼 대통령은 곧 합동참모본부를 대통령의 대행기구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 대장이 한국에서의 작전임무에 관한 합동참모본부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합동참모본부가 유엔을 대신하여 한국에서의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핵심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유엔 회원국으로부터의 전투 및 지원부대의 파견제의는 국무부, 국방부를 거쳐 합동참모본부로 전파되었으며, 합동참모본부가 이의 적부를 심사하여 수락여부를 건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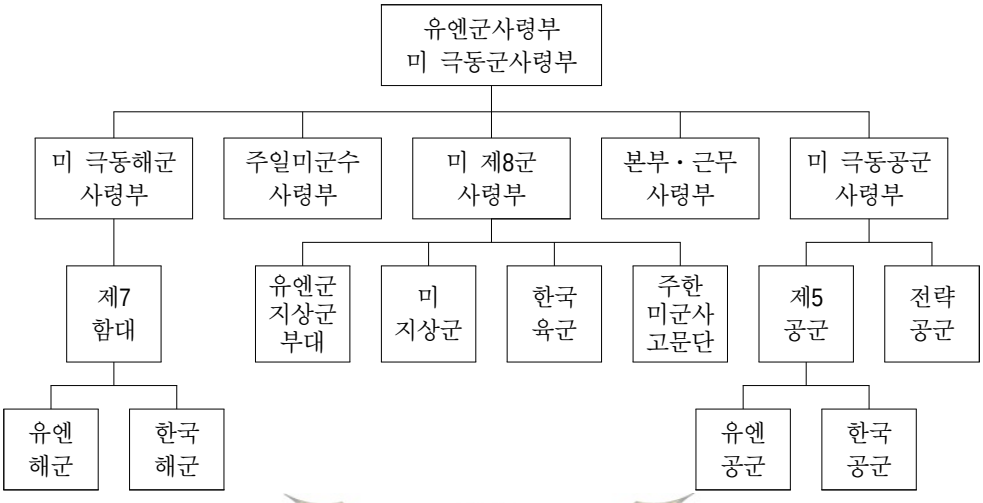
'유엔 제3차 결의'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은 당일 유엔주재 미 대사에게 유엔기를 전달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관에 맥아더 장군을 추천하여 다음날 7월 8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였으며, 10일에는 정식으로 임명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곧이어 미 육군부도 12일 맥아더에게 상세한 지침을 하달하여 "미국의 작전임무는 국제정치상 어디까지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다.[18]

유엔사무총장 드리그브 리(Trigve Lie)는 유엔기를 미국 대표에게 수여하여, 참전국기와 함께 이를 게양토록 하였고, 동년 7월 14일에 육군참모총장 콜린스(Lawton J. Collins) 대장이 동경에서 직접 이를 전달하였으며 제8군사령부에는 17일에 전달되었다.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된 맥아더 장군은 우선 극동군사령부를 통해 유엔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다가 동년 7월 24일 정식으로 유엔군사령부(UNC)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인력의 제한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참모는 극동군사령부의 참모진이 거의 그대로 임명됨으로써 미 극동군사령부가 이중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19]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은 미 극동군사령부의 각 구성군인 제8군사령부(지상군), 극동해군사령부, 극동공군사령부를 통하여 지상군·해군·공군의 작전을 통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2-1> 유엔군사령부의 지휘체제[20]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더불어 한국의 평화회복을 바라는 국제여론은 더욱 높아갔고, 이를 위한 안보리의 결의를 지지하는 국가가 더욱 증가하여 1950년 7월 중순 현재 59개 회원국 중 공산국을 제외한 52개국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전투부대 참전이 16개국, 의무지원이 5개국, 물자지원이 19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8월중으로 가장 요긴한 지상군 전투부대는 7개국으로부터 25,000명의 지원약속을 받기는 하였으나, 거리와 수송관계로 실제 병력의 도착은 예정일자보다 지체되고 그 규모도 확실치가 않았다. 지상군의 참전은 결정 자체뿐만 아니라 수송에도 어려움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다. 여러 회원국의 지원은 병력의 규모면에서보다 유엔군이라는 명분에서 의의가 있었으며, 유엔헌장의 정신에 따라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세계가 공산 침략자를 응징하기 위하여 유엔군의 깃발 하에 결속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다.

이에 앞서 맥아더 원수는 유엔군사령부 창설과 거의 같은 시기인 7월 6일 우선 제8군사령관 워커(Walker) 중장에게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이날 제25사단의 출동을 명령하였다. 이로써 미국 지상군 병력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에 도착한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

제24·제25의 양 사단과 부산의 군수사령부를 합하여 18,000명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참모장 랜드럼(Eugene M. Landrum) 대령과 참모부장 콜리어(William A. Collier) 대령에게 사령부의 한국이동을 지시하고, 9일에는 자신이 직접 한국으로 건너와 전선을 시찰함과 동시에 대구에 미 제8군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선발대를 파견하여 지휘소를 설치할 준비를 하였다. 이때 미 제24사단장은 소백산맥~금강선에서 적을 저지하기로 계획하고 전선을 왕래하던 차에 제8군사령관의 전선시찰로 제8군사령부와 제25사단의 이동을 알게 되었다.

이 무렵 북한군 제4사단은 연기군 전의에서 공주 방면으로 진출할 기세를 보였으며, 전의 정면에서는 제3사단이 조치원~대평리로 지향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미 제24사단은 공주~대평리에서 2개 사단의 적과 대치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부국도 연변에서 미군의 철수가 거듭됨에 따라 국군 제1군단도 7월 11일 이후에 괴산~증평~청주로 물러나서 금강방어선과 연계하여 방어선을 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8, 제6사단이 죽령~조령~이화령을 중심으로 저지선을 형성하였으나 협조된 방어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서부전선의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었으므로 미 극동군사령관은 블루 하트(Blue heart) 계획으로 적 후방에 상륙하기로 계획된 미 제1기병사단을 전선에 투입키로 변경하고, 7월 10일에 이 상륙작전계획을 일단 보류하였다. 이로써 미 극동군의 4개 사단 중 3개 사단이 지원하게 되었으니 미 제25사단은 7월 10일~15일간에 부산에 상륙하였고, 미 제1기병사단은 포항을 목표로 12일부터 승선하기 시작하였다.

워커 장군은 1950년 7월 12일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1950년 7월 13일을 기하여 주한 미 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라"는 구두명령을 전달받고, 동일 도쿄에서 대구로 이동하여 지휘소를 개소하고 미 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워커 중장은 이날 중으로 딘(Dean) 소장으로부터 지휘권을 인수하고 이튿날인 동월 14일에 미 제8군사령부를 대구로 이전하였는데, 이날 카친(Alfred G. Katzin) 대령이 도쿄에서 날아와 유엔기를 전달함으로써 이날부터 미 제8군사령관은 유엔 지상군 사령관을 겸무하게 되었다. 이날 저녁 지금까지 주한미군사령부 참모 역할을 수행해 온 처치 준장을 비롯한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ADCOM) 구성원들은 그 임무를 중단하고 도쿄로 복귀하였다.

한편 유엔군통합사령부의 편성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4일에 한국군 작전지휘권의 이양에 관한 취지를 맥아더 원수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동의 회신이 동월 17일에 확인되었다. 이로써 이때부터 한국군의 작전지휘도 유엔군사령관이 통합 지휘하였고, 맥아더 원수는 구두로 이를 다시 제8군사령관에게 이양하여 행사토록 하였다.[21]

이로써 미 제8군사령관은 주한 미 육군사령관으로서 예하의 미 지상군부대는 물론 한국전선에 참전하는 유엔 지상군부대들을 통합지휘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지원중인 미·영 및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의 해·공군도 유엔군사령부직할부대가 되었고, 제8군사령관도 유엔회원국의 참전병력을 수용할 태세를 갖추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2-2> 유엔군의 참전상황(1950. 7. 31)

구분	국가별 참전부대
육군	미국 제24사단(제19, 21, 34연대), 제25사단(제24, 27, 35연대), 제1기병사단(제5, 7, 8연대) 등
해군	미국(1개 함대 및 지원함대), 영국(항공모함 1척, 구축함 2척, 소형함 3척), 호주(구축함 1척, 소형함 2척), 프랑스(소형함 1척), 네덜란드(구축함 1척), 캐나다(구축함 3척), 뉴질랜드(소형함 2척) 등
공군	미국(1개 전술항공비행단, 2개 전폭비행단, 1개 비행수송단), 영국(1개 전투비행대대, 1개 비행수송중대), 캐나다(1개 비행수송대대), 호주(1개 전투비행대대, 1개 비행수송중대) 등

이날 현재 작전 중인 한·미 지상군은 미 제1기병사단을 합하여 미군 3개 사단 28,027명이고, 국군은 6개 사단 및 일부 전투부대 등 도합 65,000명이었다. 이 유엔군의 발족으로 아군의 전의가 크게 고양되고, 지휘권의 통합으로 작전의 일원화를 기하게 되어 마침내 전 전선의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50년 7월중 유엔군의 육·해·공 참전상황은 <표 2-2>와 같다.[22]

2.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군사령부의 발족으로 극동군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로서 국군을 지원하는 모든 유엔군을 통합지휘하게 되었고, 아울러 제8군사령부도 1950년 7월 13일부터 대구에서 지상군 작전을 직접 담당하는 군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자, 정부는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군은 육·해·공군별로 이미 미군의 각 군과 연합작전을 실질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당시로서는 국군의 중추인 육군본부가 13일 대구로 이전하여 다음날 미 제8군사령부 인접에 개소하여 연합회의를 가짐으로써 사실상 이때부터 국군도 극동군의 각 구성군과 통합작전체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시하의 정책적인 조치로써 먼저 구두로 정일권 육·해·공군총사령관 겸 육군 총참모장에게 유엔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으라는 명령을 하달한 다음, 주한 미 대사를 통하여 맥아더 원수에게 정식으로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양한다는 다음과 같은 공식서한을 전달하였다.[23]

> 대한민국을 위한 유엔의 공동 군사노력에 있어 한국 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작전 중인 유엔의 육·해·공군 모든 부대는 귀하의 통솔 하에 있으며 또한 귀하는 그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음에 비추어 본인은 현 적대행위의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다.(하략)

이리하여 1950년 7월 14일부로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사령관에게 이양하게 되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을 접수한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먼저 17일 미 제8군사령관에게 한국 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재 이양하였다. 해·공군도 각각 미 극동 해·공군 구성군사령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상군은 미 제8군사령관, 해·공군은 미 극동 해·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정식으로 받게 되었다. 이로써 모든 부대의 지휘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맥아더는 7월 18일 무초 대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대통령의 결정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유엔군의 종국적인 승리를 확신한다"는 요지의 답신을 보내왔다.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과 맥아더의 답신 내용은 2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 안보리에 제출됨으로써 사후 공식화되었다.

한편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즉시 육군본부 참모회의를 소집하여 제1군단장 김홍일 장군과 제2군단장 김백일 장군에게 작전지휘권 이양은 유엔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였고, 이를 각 사단장들에게도 일제히 하달하였다.[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실제 작전에 있어 육군의 작전통제는 통상의 경우 육군의 지휘계통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미 제8군사령관이나 그의 참모장이 부대에 어떤 작전통제를 요청하면 육군 총참모장이 예하부대에 명령과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미군부대에 배속된 경우에는 미군 지휘계통으로 통제가 되었으나, 전쟁동안 군사적인 면에서 국군의 작전통제에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다. 다만, 전쟁의 중요한 단계에서 정치적 관심이 상충되었을 때는 작전통제체제의 존속여부가 의문시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었다.[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국군의 재편성과 후방지역 상황

1. 국군의 재편성

국군은 1950년 7월 초 제1차 재편성에서 제1군단의 창설과 더불어 8개 사단에서 5개 사단으로 축소 개편한 다음 미 제24사단과 평택~충주~울진선에서 전선을 분담하여 지연작전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작전 책임정면이 너무 넓은 관계로 5개 사단 모두 전선에 투입함으로써 예비부대가 없어 우발상황 대처나 후방지역 방어에 큰 문제가 수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단에 대한 병력도 급변하는 전선에서 전투 중에 긴급히 보충하고 전력화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뒤따랐다.

따라서 신성모 국방장관은 개전 초와 같은 총 8개 사단을 확보하기 위해 해체된 사단의 재건과 아울러 부대의 추가 창설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육본 임시지휘소가 평택에서 대전으로 옮긴 다음 날인 7월 6일부터 정식으로 거론되었다. 당시 군은 사단의 증강 문제에 관하여 처치 장군과 협의한 다음 해체한 3개 사단을 재편성하고 1개 사단을 신편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후방지구에 지역방위와 병력보충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편성관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26)]

재편성을 위해 이동중인 국군

이에 따라 국방부는 7월 7일 해체한 사단의 고유명칭을 살려 먼저 제3사단(사단장 이준식 준장), 제5사단(사단장 이형석 대령), 제7사단(사단장 민기식 대령)의 3개 사단을 재건하고 이와 병행하여 부산에서 제9사단(사단장 이종찬 대령)을 창설키로 하여 일반명령을 하달하였으나,[27] 가용인원과 장비는 기존사단의 보충에도 부족한 실정이었으므로 당시 사단의 재건이나 창설은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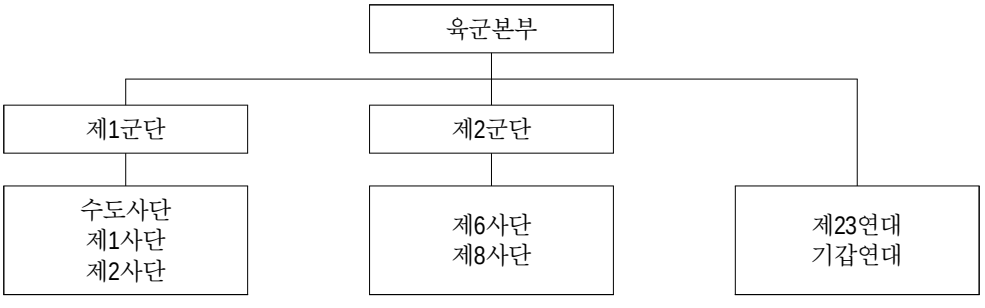
7월 17일에는 서해안지구전투사(사령관 신태영 소장)를 신설하여 전남 및 전북 편성관구와 기타 부대를 관장하게 하는 한편 영남 편성관구를 경북 및 경남편성관구로 분리하여 4개의 편성관구로 개편하였으나, 이들 기구들은 거의 유명무실하였기 때문에 해체되거나 다른 부대 창설시 흡수되고 말았다.

한편 사단의 재건 및 관구의 신설 노력과 아울러 지연작전의 전개에 따라 중동부전선의 제6·제8사단이 이화령~조령~죽령선으로 물러나자, 이들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 제2군단의 주력이 지향됨에 따라 또 다른 군단사령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단과 편성관구의 창설계획과 함께 추진해오던 군단창설계획을 서둘러 마무리하여, 7월 12일 함창에서 제2군단을 창설하고 제6·제8사단을 배속함과 동시에 군단장에 육본 참모부장 김백일 준장을 임명하였다. 이때부터 육군은 2개 군단체제로 지휘체제를 정비하고 소백산맥에서, 금강변의 미군과 함께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28] 당시 육군의 전투부대 편성은 <표 2-3>과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2-3> 제2군단의 창설과 지휘체제(1950. 7. 12)



국군은 제1·제2군단 체제로 지연작전을 치르던 중 추가로 전개한 미군 2개 사단이 추풍령을 중심으로 상주~영동지역에 투입됨으로써 한·미군 간에 전선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국군은 상주 동쪽의 중부 및 동부전선을 방어하게 되었다.

이미 한·미간의 작전협의를 거쳐 전선의 조정과 개편작업을 준비해 온 국방부는 7월 20일을 기하여 지금까지 병력손실이 심한 국군 제2사단을 해체하는 한편 새로이 2개 군단, 5개 사단 체제로 제2차 재편성을 하기로 하였다.

군은 이날 제2군단장 김백일 준장을 다시 육본참모부장으로 복귀시키고, 제1군단 부군단장 유재흥 준장을 제2군단장에 임명함과 동시에 제1군단에 제1·제3사단을, 제2군단에 제6·제8사단을 배속하고 수도사단을 예비로 하는 지휘체제로 개편을 단행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2-4> 제2차 국군의 재편성과 병력현황(1950. 7. 20)[29]

부대구분	재편 상황	병력수
제1군단본부		3,014명
수도사단	- 제1, 제8(해체), 제18(제8연대 편입), 제17연대(배속)	6,644명
제 8 사단	- 제10·제16(제2사단에서 편입), 제21연대	8,864명
제2군단본부		976명
제 1 사단	-제11(제5연대 편입), 제12(제20연대 편입), 제13연대	7,601명
제 6 사단	-제2, 제7, 제19연대	5,727명
육군본부		3,020명
제 3 사단	-제22, 제23연대, 기갑연대	8,829명
직할부대		11,881명
보 충 대		9,016명
전주훈련소		8,699명
광주훈련소		6,244명
부산훈련소		5,356명
비전투병력		8,699명
총 병 력		94,570명

동시에 제1군단은 작전지역을 미군에게 인계하고 사령부가 의성으로, 수도사단과 제17연대는 안동으로, 그리고 제1사단은 춘양으로 각각 이동시켰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제1군단이 동부와 동해안에서, 제2군단이 중동부에서 적을 저지하면서 조기에 반격작전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30]

그러나 이 이동명령에 따라 제1군단사령부와 예하사단이 전선이동을 시작하려 할 때 전선의 상황급변으로 인하여 사단들이 계획대로 이동하지 못하였다. 또한 제1군단이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2개 사단을 통제하는 데는 극심한 지휘통신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7월 24일에 육군의 지휘체제를 재조정하여 제1군단이 수도사단과 제8사단을 지휘하여 영주~안동축선을, 제2군단이 제1사단과 제6사단을 지휘하여 문경~함창~상주축선을 방어하도록 하고, 동해안의 제3사단은 육군의 직접지휘 하에 두었다.

2. 후방지역 상황

1) 피난민 상황과 정부의 조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0년 7월 피난민 문제가 부각되자 정부와 군은 각 부처별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였다. 우선 육본 민사부는 계엄사령부를 통해 군사작전 및 치안유지에 필요한 민·군간의 긴밀한 협조와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난민 관련 임무는 전투지역의 민간인 철수 또는 복귀와 피난민 및 이재민 구호를 담당하였으며, 육군의 각 사단과 해군 통제사령부에 민사과를 두어 위와 같은 민사업무를 수행하였다.[31] 그러나 민사부의 구성이 시기적으로 급박하였던 까닭에 업무가 체계화되지 못했고, 전장의 이동속도가 급변하여 효과적으로 피난민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시기 주로 정훈관련 부서들은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의 사상침투를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32]

전시 피난민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피난민들이 전투지역으로 몰려 군사작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었고, 특히 적 오열의 침투와 피난민의 선동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7월 10일 서둘러 사회부·농림부·국방부·내무부·교통부·보건부 등의 장관 명의로 충청남북도·전라남북도·경상남북도 등의 도지사 앞으로 <피난민 분산에 관한 통첩>을 하달하였다.[33]

이 통첩의 내용은 대전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는 피난민들을 분산 수용하는 것이었으며, 그밖에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 피난민 증명서를 소지한 피난민을 인솔, 안전하게 수용하고 수용된 피난민에게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사상이 불온한 자가 피난민 대열에 섞여 피난민들을 선동하지 못하도록 피난민의 사상과 태도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급박한 전황 속에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서 담당자를 대전에 파견하여 피난민들을 해당 지역으로 이송하여 수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남쪽으로 이동 중인 피난민들의 모습

일이었다. 이 무렵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죄수마저도 교도관의 이탈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난민 통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의 조치와 도청을 비롯한 행정관서, 군경의 검문과 안내에도 불구하고 피난민들이 작전도로를 메우고 있어 부대기동에 제한을 받았으며, 또 적의 오열이 피난민을 가장하여 후방으로 침투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전황이 더욱 악화되어 피난민 대열이 계속 남쪽으로 밀려 낙동강 방어선까지 이르게 되자 국회에서는 8월 1일부로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을 서둘러 가결시켜 시행하였다.[34] 내무부는 각 시도에 긴급히 임시조치 법안을 시달하여 피난민의 수용대책을 마련케 하는 한편 피난민들이 일정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방으로 분산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긴급조치로 충북 37개・충남 55개・전북 43개・전남 162개・경북 66개・경남 117개・제주 24개 등 도합 504개의 수용소를 긴급히 마련하였고 전국에 200개의 치료 및 방역반이 가동되었다. 국방부에서는 남하하는 군인가족 원호에도 노력하여 열차의 알선, 구호 및 수용을 지원하였다.[35] 이러한 임시조치법들은 상인들이 턱없는 가격으로 피난민들을 어렵게 하자, 국회에서 일부 개정되어 피난민수용이 귀속재산만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회부장관이 주택, 여관, 요정 등에 피난민의 수용을 명령하였고, 명령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반자는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3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일차적으로 전시 피난민의 구호에 대한 책임은 보건부와 사회부에 있었으나, 사전에 계획된 물량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가 지속되고 전선이 점차 남하하여 피난민들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구호물자는 전 분야에 걸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37] 이같이 정부는 금강~소백산맥선에서의 지연작전을 실시하는 시기에 피난민 대책을 강구하느라 부산하였으나 전장이 너무나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연작전 시기는 전쟁초기 상황보다 피난민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다.

전쟁 직후에는 급박한 전황으로 인해 서울 시민을 비롯하여 많은 주민들이 피난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으나, 지연작전이 전개되던 시기부터는 시간적 여유를

얻어 많은 피난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어느 지역이라고 할 것도 없이 각 축선에는 소로와 논길을 따라 엄청난 군중이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왔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 유진오 박사는 "어느 사이 피난민 행렬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하나는 큰길을 따라가는 행렬이고 하나는 기차 길을 따라가는 행렬이다"[38] 라고 하여 도로와 철길이 피난민들로 가득하였음을 회고하였다. 따라서 경부 축선의 작전지역에서는 피난민문제로 인하여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사실상 피난민들은 그 행렬이 너무 크고 복잡하여 질서를 유지하거나 정부의 통제를 받아들일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전선의 각 부대들도 피난민 문제를 자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심각한 난제였다. 이들은 적의 공세가 있을 땐 항상 쏟아져 나와 작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었다. 피난민들은 전선의 변화에 따라 피난 가는 방법을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 작전지역 주민들은 유사시에 언제든지 보따리를 꾸려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으며 군이 철수하기 시작하면 주저 없이 군을 따라 떠나기 시작했다. 대열 속에 유포된 유언비어는 홍수처럼 밀려드는 피난행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39] 예컨대 부산 시민들 가운데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피난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부산이 적의 항공기나 군함의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야산이나 지리산 등지로 피난을 나갔다가 오히려 그 지역을 점령한 북한군에게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40]

피난민 대열은 주로 경부가도상에 집중되어 7월 중순에는 경부가도상에 약 38만 명이 남하 중이었고 매일 2만5,000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적의 공격이 심한 지역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였다.[41] 1950년 8월 초순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했을 때 진지 내에는 많은 수의 피난민들이 방황하고 있었다. 정부의 관련기관들은 이러한 피난민들을 연고지나 공공시설 등에 수용하였으나 피난민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정부의 피난민 분산계획에 의해 피난민들은 여러 지역으로 분산 수용되었다. 1950년 7월말까지 대구와 부산에 피난민 및 이재민을 위해 58개소의 피난민 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용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아군이 철수를 거듭하면서 7월말까지 25만여 명의 피난민들이 미군 방어선 안으로 유입되었으며, 낙동강방어선 안쪽에 대구 40여만 명, 부산 80여만 명 등 120여만 명의 피난민이 짧은 기간에 갑자기 집중되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였다.[42]

북한군이 계속 남하하자 정부는 부산을 임시수도로 결정하고 7월 17일부터 입법·사법·행정부의 각 기관이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7월 24일 전시국회가 부산극장에서 개회될 수 있었으며 8월 18일에는 모든 정부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43] 정부 각 기관의 이전과 함께 대규모의 피난민들도 부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임기응변으로 9월 8일 부산에 모여든 피난민들의 추가적인 수용소를 마련하기 위해 가덕도에 임시수용소를 설치하기도 했다.[44]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이 지연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동안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부산 등 후방지역에는 피난민 문제로 큰 난관에 봉착하였다. 대구의 경우 피난민의 유입으로 1950년 7월말 인구가 늘어 80여만 명을 상회하였다.

당시 미 대사관 직원이었던 세바르체는 뒷날 회고에서 "나는 그때 남쪽으로 내려오는 피난민을 돌보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철수가 진행됨에 따라 조그만 길과 논길을 따라 엄청난 군중이 내려왔다"고 당시의 피난민들의 상황을 회상하였다. 그는 미 대사관의 상황에 대해서 "나는 대구도청의 임시정부 건물에서 피난민을 위한 생필품을 한국 보건사회부로 보내주었다. 피난민의 이동을 조정하고 있던 참모차장과 두 부관의 도움을 받아 생필품을 수송할 수 있었다"고 하여 미 대사관에서 국군과 협조하여 피난민을 구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대구 시민들은 미국인들이 시내에서 철수하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고 동요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회고하였다.[45]

당시 부산의 상황은 매일 열차 편으로 수백 명씩 피난민들이 밀려들어오고 있었으며 또 울산이나 해운대, 김해방면 등 서울과 통하는 길을 따라 도보로 걸어들어오는 피난민들도 꼬리를 물고 있었다. 당시 경남도청 전기계장 윤종구는 "새벽 4시만 되면 도청·시청 직원 100여 명이 부산역과 부산진역으로 달려 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갔습니다. 미리 대기한 트럭에 40~50명씩 싣고는 피난민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건물을 찾아 나섰다"[46]고 하여 당시 인원파악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수송하여 어디로 수용하느냐가 큰 문제였다. 부산에는 적어도 하루에 1천여 명 이상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산은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기지이며 정부의 임시소재지로서 정치·행정의 중심지였으며 이재민의 피난처로서 국민의 보건과 치안 상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47] 부산인구는 해방 직후 28만여 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일본, 만주 등지에서 19만여 명의 동포가 밀려들어와 약 47만여 명 정도였으며, 주택 수는 7만여 호 정도로 피난민에게 방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는 1만여 호에 불과하였다. 당시 부산의 인구가 1950년 7월말 68만 2,907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부산으로 들어온 피난민 숫자는 대략 20여만 명을 상회하였던 것이다. 부산시는 어쩔 수 없이 피난민 수용을 위해 피난민수용 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공공건물은 물론 개인건물에까지 피난민을 수용하도록 조치하였다.[48]

따라서 정부는 피난민의 쇄도로 병참보급기지인 부산, 대구 등지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구, 부산 시내의 피난민을 소개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경찰은 군 작전을 지원하거나 또는 합동작전을 전개하여 주보급로 경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나,[49] 피난민을 가장하여 침투한 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므로 경부축선에서 축차적으로 남하하던 군·경 수뇌부는 전방작전과 후방위협을 동시에 풀어 나가야 했다.

정부가 피난민의 구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전쟁에 대비한 구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피난민 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책은 수립되지 못하였다. 다만 7월 중순부터 피난민문제의 대책으로 이들을 분산 수용하고 피난민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1일 2홉의 양곡을 제공하는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어느 정도 급한 불을 끄는 상황이었다. 그 후 점차 미 정부기관에서 제공한 담요, 옷 등의 생활필수품을 보건부와 사회부가 접수하여 피난민에게 분배하였으며, 정부의 양곡을 나누어주어 몇 주 동안 식량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피난민들에게 줄 구호물품의 수송은 군 수송수단을 주로 이용하였다. 또한 내무부는 각 시도에 피난민 수용대책을 마련케 하고 분산하여 남하하도록 지도하였으며, 긴급조치로 전국에 임시 피난민 수용소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지연작전 시기 피난민 수용소는 노천에 가설된 소위 주먹밥수용소에 가장 많은 인원인 15만 3천여 명을 수용하였으며, 경남이 24개 수용소에 10만 5천명, 전남북이 74개 수용소에 12만 8천명을 수용하였다.

당시 사회부장관은 "피난민의 구호를 위해 1개월 분 예산으로 3억 7천만 원이 책정되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당시 시가로 쌀 1만 1천 가마분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는 부산에 피난민이 가장 많이 수용되어 있었던 영도구 봉래동 대한도자기회사에 들러 "국난을 맞아 여러분 말고도 곳곳에서 우리 국민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협조처(ECA)와 협조가 이루어져 식량과 의류, 약품을 더 많이 공급할 것입니다"라고 피난민들을 위로하였다.[51]

한편 유엔군의 피난민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유엔은 안보리 제3차 결의에 의거하여 회원국들로부터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식량, 의류, 기타 금품의 원조 등을

유엔에서 한국지원을 결의하는 모습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7월 13일에는 유엔군사령부의 요청으로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에 대한 원조를 회원국들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 유엔은 한국인에 대한 구호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유엔안보리는 7월 31일 한국 민간인의 구호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민간인의 구호와 급양을 집행하도록 하고 유엔사무총장은 유엔군사령부에 구제와 급양에 필요한 모든 원조를 제공해 주도록 하는 지원체제가 마련되었다.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유엔안보리는 (중략)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한국민의 구제와 급양에 필요한 필요품을 결정하는 임무를 집행할 것을 요청하며,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부에게 구제와 급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원조제공을 전달할 것을 요청하며, 유엔군사령부는 안보리에 대하여 구제사업에 관한 적절한 보고를 요청한다.

즉, 유엔 안보리는 유엔군사령부에 한국민의 구제와 급양을 제공하는 임무를 부여하였고, 이에 필요한 물자 및 지원은 유엔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조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로 하여금 한국 민간인 구호와 관련된 활동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로써 한국인의 구호활동 및 원조에 대한 지원체제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의에 기초하여 유엔사무총장은 한국구제를 위한 지원자금의 확보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의하면 유엔에 의해서 한국민의 구호를 위해 제공된 현금을 포함한 모든 원조는 유엔사무총장의 행정처에 위탁되고, 유엔사무총장은 모든 원조를 유엔군사령관과 협의하여 집행하도록 체계화되었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한국 민간인 구호를 유엔에 요청하였으며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호품도 증가되었다.[52]

2) 미군의 피난민 통제작전과 한·미 협조

미군들은 지연작전 시기 피난민의 증가로 여러 가지 작전상의 차질을 빚게 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피난민들이 전선 가까이 접근하여 작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등장하는가 하면, 피난민들 속에 적의 오열이 침투하여 미군 후방을 위협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난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무초 미 대사는 적의 침입자나 민간인 복장의 오열을 색출하기 위해 경찰 전투대대의 창설을 제안하였다.[53] 미 제25사단의 경우 최초 1950년 7월 18일 피난민으로 위장하여 침투한 오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하 부대들로 하여금 마을이나 작전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피난민들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54] 이러한 조치는 전쟁 중 군이 취하는 통상적인 것이었다. 미 제25사단은 피난민 문제가 부각되자 한국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문소 설치, 민간인의 소개 및 전투지역(Blue Line) 이동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킨 사단장은 7월 20일 "민간인 복장을 한 1개 집단이 마을에 진입하여 군복으로 갈아입고 아군 2명을 체포하였다. 모든 지휘관들은 주요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수색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26일 10:00시경 제8군으로부터 방어선내 피난민 이동을 금지시키도록 강조하는 지시가 있었다. 킨 사단장은 동일 22:00시 피난민 통제에도 불구하고 "전투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모든 민간인은 적으로 간주하여 사살할 것"이라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였고, 7월 27일 "투명도상 청색선(Blue Line) 내의 모든 민간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도록 한국경찰에 통보하였다.

이어 미 제25사단은 한국경찰로부터 모든 주민이 철수를 완료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그 후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모든 민간인은 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하달되었다.[55] 당시 미 제25사단은 한국경찰의 협조를 받아 주민의 소개작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7월 26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의 피난민에 대한 통제 지침이 하달된 이후 각 사단은 방어선내의 피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 제1기병사단도 피난민을 가장한 적의 오열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최초 7월 22일 미 제1기병사단 작명 50-9호(부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B)를 통해 “우군 방어선에 침투하는 민간인은 체포하여 합동심문소로 후송하라”고 하였으며, 23일 02시 45분 기병사단 G-2는 “전선에 들어온 모든 한국인들은 황간으로 후송하라”고 명령하였다.[56]

기병사단 포병사령관 파머(Palmer) 준장은 23일 09시 26분 “일단의 피난민들이 가리 지역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 하면서, 그는 전방의 징후로 볼 때, “피난민 중 많은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있다”고 통보하였다. 거의 같은 시각인 10:00시 미 제8군 작전참모부는 “피난민이 전선을 통과하는 것을 막아라”라고 예하 부대에 하달하였고, 다음날 10:00시 사단 명령이 하달되었다.[57]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은 작전구역으로의 민간인 이동을 금지시키고 피난 이동도 10시부터 12시로 제한하였으며, 7월 26일 10:00시 8군으로부터 피난민 통제지침을 받고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58] 이를 통해 볼 때 기병사단은 통상적인 피난민 통제절차가 23일, 24일 그리고 26일 작전상 심각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무렵 피난민의 이동과 피난민을 가장한 북한군의 오열이 아군 작전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예컨대 미군들은 적 게릴라의 습격으로 마산 북방의 환자수용소가 전멸 당한 일이 있었고, 창원의 탄약보급소는 항상 수색중대와 전차로 방어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함안의 미 제24연대 제1대대 본부가 기습을 당해 부대대장 이하 7명이 부상당하기도 하였다.[5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미 제8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편성하기 전에 강으로부터 8㎞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강제로 소개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낙동강 서측의 창녕과 영산 등 지정된 작전지역으로부터 주민과 피난민들이 소개에 불응할 경우 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 일대 30여만 명을 부산으로 후송하였다.

대구 북방지역에서도 피난민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미 제8군 정보참모가 작전지역을 헬기로 시찰을 나갔다가 근처에서 5만 명의 피난민을 관측하였고, 즉각 그들에게 철수 명령을 하달하였다. 또 미 제8군은 국군과 협조하여 군위 부근에 집결되어 있던 피난민을 남하하도록 설득하였고, 그들은 도로와 논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대구부근에 난민촌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경주~대

구간 도로변에는 약 18만여 명의 피난민이 강변을 따라 남하하고 있었다.[60]

미군들은 피난민들을 먼저 수용소에다 집합시켜 놓고 심문, 신체검사, 소지품 검사 등을 실시한 다음 지정한 경로로 따라 군의 안내 하에 이동하도록 하고 또 주간에만 이동시켰다. 검문소에서는 지뢰탐지기와 여자 검사관을 배치하여 엄격하게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의심스러운 자가 검문될 경우 사단을 거쳐 제8군 수용소로 송치시키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은 지연작전을 수행하면서 철수를 거듭하고 있었던 때라 게릴라들의 침투를 근절시키기에는 많은 난제가 있었다.

당시 미군들에게는 피난민들이 모두 적의 게릴라로 보였다고 할 정도로 피난민 문제는 심각한 것이었다. 결국 미군은 피난민들을 낙동강 동안으로는 도강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수십만의 피난민들이 낙동강 서안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앞으로 나가면 미군 포병의 탄막에 걸려 피해를 보고 정지해 있으면 북한군으로부터 반동분자로 몰려 학대를 받는 등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다.[61]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왜관교 부근에서였다. 이때 미 제1기병사단은 게릴라와 민간복장을 착용한 북한군이 피난민에 섞여서 진지 내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난민이 낙동강 동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조치는 피난민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가혹한 조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낙동강 서쪽 교량 부근에는 강 건너로 피난하려고 하는 수 천 명의 피난민들이 도강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8월 4일 해질 무렵 후위의 미 제8기병연대가 다리를 건너 도강하기 시작하자 피난민들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하였다. 그들을 제지하기 위해 위협사격이 가해졌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 사지에서 벗어나려는 피난민들에게는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다.

피난민으로 인해 교량의 폭파시기를 놓친 게이 사단장은 피난민들을 쫓아버리고 즉각 교량을 파괴하려 하였으나 피난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는 와중에 날은 저물었고 드디어 지근거리까지 접근한 북한군의 사격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단장은 교량 폭파명령을 하달하였다. 폭파시

기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생애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판단의 하나였다고 회고하였다.[62]

왜관교 이외 마산지역에서도 미 제25사단이 마산 서측의 작전에 대비하여 사전에 적 게릴라의 근거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소개작전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협조가 필요한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원을 제외한 12만 명의 시민들을 열차, 자동차, 선박 등으로 부산이나 거제도에 소개시켰다.[63]

한편 한국정부가 피난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 제8군사령부와 피난민 문제에 대하여 공식 회의를 가진 것은 1950년 7월 25일 18:00시 정부청사에서였다. 참석자는 한국측에서는 내무부 차관, 사회부 차관을 비롯하여 경찰국장 등이, 미국측에서는 미 대사관 1등 서기관, 유엔 한국정부 복지담당 고문관, 미 제8군 헌병, 방첩대, 작전 및 정보참모 등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국정부와 미국의 대표들은 피난민의 이동과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 경찰 연락단을 제8군사령부와 각 사단에 배속하고, 군 사령관이 피난민 및 민간인 이동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지며 피난민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합의하였다.[64]

워커 제8군사령관은 이러한 한·미간의 협조토의 결과를 승인하고 한국정부의 신성모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공식적인 지원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어 극동군사령관에게 피난민에 관한 한·미간의 지원협조가 있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6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워커 장군은 이어 피난민 대책에 관한 지시를 하달하였고 여기에는 한국경찰의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이후 미군부대에는 공식적으로 한국경찰이 배치되었으며, 군 작전을 위한 주민들의 소개를 지원하기 위해 각 사단에 3명의 한국경찰 연락담당이 파견되었다.

사단장은 한국 경찰에게 출발시간과 이동경로 그리고 피난민의 대피 장소들을 알려 주었으며, 피난민들이 집결할 장소도 미리 결정해 주었다. 이때 사회부가 주관하여 음식, 식수, 그리고 생필품 등을 피난민들에게 공급하여 주었다. 이 무렵부터 미 제8군은 전선의 전후방 지역에 대해 피난 절차에 관한 내용의 전단을

항공기로 살포하였으며, 경찰이 라디오와 언론을 통해 한국인들에 이러한 사실을 전파하였다.[66]

또한 조병옥 내무장관은 한국 경찰로 하여금 유엔군을 도와 적 게릴라를 소탕하겠다고 계속 설득하여 결국 워커장군도 미 국방부에 이를 건의하여 경찰의 유엔군부대 배속을 승인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신임 내무장관 조병옥은 "나는 미 제24사단이 대전을 상실하고 김천에다 전선사령부를 설치할 무렵 영동전선을 시찰한 바 있다. 나는 그때 영동지구 미군 사령관에게 공산 오열들이 농부를 가장하고 야습할 우려가 있다고 개진한 바 있었다. 나는 워커 장군을 만나 그에게 유엔군 대대·중대별로 우리 경찰대를 배속하여 미군들의 통역을 담당하도록 하고 또 오열을 색출, 탄약보호 등의 임무를 맡기도록 요청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 장관에 의하면, 워커 장군은 처음에는 미 육군 편제상에도 임무가 명시되어 있다고 난색을 보였으나, 자신이 제기한 우려가 적중하여 영동지구에서 공산오열들이 민간복장으로 가장하여 유엔군 진지를 습격하였고, 그 후 워커장군이 마음을 바꾸었다고 하였다.[67] 이후 1만5,000여명의 한국경찰이 유엔군에 배속되어 적 게릴라 토벌과 아울러 소규모 전투를 군과 병행하여 치르게 되었다.[68]

이렇게 지연작전시기의 피난민통제는 전반적으로 피난민 대열에 적 게릴라의 침투를 막고 피난민으로 인해 야기되는 군사작전의 제반 장애를 해결하는데 기여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피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지연작전시 적 게릴라 상황

지연작전 시기 피난민 문제와 아울러 북한 게릴라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었다. 적 게릴라들은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아군작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아군 지휘부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 미군 정보보고에 의하면 적의 오열들이 각지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

개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미 군사고문단이 전쟁발발 이후 7월 18일까지 적 게릴라의 전·부상자 규모가 6,000명에 이르고 있었다고 보고할 정도로 적의 게릴라들이 증가하고 있었다.[69]

이 무렵 주북한 소련대사 스티코프도 "성공적인 인민군의 공격은 빨치산 게릴라 활동을 더욱 고무시켰으며 최근에는 남한군 후방에서의 빨치산 활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70]고 하여 게릴라 활동이 점차 적극성을 띠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 미 제24사단 예하부대들이 경부축선으로 진출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할 때 북한군의 오열로 인해 다소간의 차질을 빚기 시작했으며, 피난민으로 가장한 적 오열들로 인해 종종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예컨대 미군이 천안지역 방어선을 편성하고 처음으로 대전차지뢰를 열차 건널목과 진천~온양 도로에 매설하고 도로를 통제하였으나, 대전차지뢰는 북한군이 침투시킨 민간인과 국군복장으로 위장한 게릴라들이 제거하였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71] 미군은 오산·평택·천안·대전 전투 이후 적 게릴라의 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72]

미군은 대전전투에서 전선으로부터의 정규군 공격과 함께 측면과 배후로부터의 적 게릴라 침투공격을 받고 위협을 실감하였으며, 미 제24사단 예하부대들은 철수하는 도중에도 게릴라들이 설치한 장애물과 복병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군은 통상의 야전 조건하에서는 강력한 화력과 높은 기동성이라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비정규전 상황 하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미 극동군사령부 자료에 의하면, 7월 중순 산악지대에 잔존하고 있던 적 게릴라들이 북한군의 작전에 호응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고, 아군에 큰 피해를 주었다.

북한 게릴라들은 7월 중순경까지는 주로 지리산, 경북 등 산악을 근거로 활동하였으며 일부가 인천, 부산 등 도시에서 파출소를 기습한다든지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서울점령 이후부터 지방 좌익계청년들이 게릴라에 합류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려하면, 각 지구당 빨치산들이 7월초부터 서서히 활동 빈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해서도 거의 비슷하게 확인된다.[7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에 의해 체포된 북한군 게릴라의 모습

따라서 북한 게릴라는 대체로 1950년 7월초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7월 중순 이후 아군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전피탈 이후인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영동~김천간 적 게릴라 상황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74]

이에 따르면 7월 22일경부터 적 게릴라의 활동이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었으며 그 빈도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7월 상황에 대해 미제24사단장 처치 장군은 "이 때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전쟁이며, 게릴라 전쟁"이라고 하였다. 극동군 정보참모부장 윌로비는 북한 "빨치산들은 잘 조직되었으며, 현재 미군에게 가장 크고 유일한 골칫거리이다"라고 하여 적 게릴라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미 제25사단장 킨 소장도 7월 20일 "민간인 복장을 한 1개 집단이 마을에 진입하여 군복으로 갈아입고 아군 병력을 포로로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경계를 하달하였다.[75]

한편 이 무렵 미군 방어축선인 영동~김천 지역에서 북한군이 종종 피난민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세우고 아군의 진지로 접근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전술도 부대 게릴라 병력이나 피난민으로 가장한 오열 등에 의해 지원된 것이었다.

즉, 기병사단 보고에 의하면, "적군은 전형적인 공격형태로 일단의 민간인들을 앞세우고 아군 진지로 접근하는 전술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며, "피난민 대열이 전투진지를 통과할 때 적이 피난민 후미를 따라 전면공격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북한군에 의해 통제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였다.[76]

1950년 7월 중순 이후 북한 게릴라들은 전투부대를 직접 지원한 것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활동하였다. 즉, 주요 보급로 차단, 각 도시 습격, 당정기관 복구, 무장자위대 조직, 인민봉기 선전유도, 각종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여 점차 아군을 위협하였다. 이 무렵 적 게릴라들의 활동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8군 보고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미 제8군은 적 게릴라의 기습이 빈번해지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적은 피난민을 가장하고 분해된 무기와 군복을 꾸러미로 만들어 아군 전선을 침투한다. 이들은 탄약과 물자를 우마차 또는 사람을 동원하여 수송하고 있다. 이들은 때때로 흰색의 농부로 가장한 채 산등성이를 타고 아군 전선으로 이동하며,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종종 이들과 동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적군은 아군후방에서 가지고 온 무기들을 모으는데, 여기에는 소총, 기관총, 박격포, 수류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아군 후방에서 아군을 기습하는데 주로 마지막에 후퇴하는 아군에 대해 강력한 기습공격을 가한다"고 하면서 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77] 더불어 이 보고서는 남파된 게릴라나 정규사단 내에 편성된 유격부대 게릴라들이 아군을 기습하는 사례도 정리하고 있다.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제8군 전 지역에 게릴라활동이 증가되고 있으며 철도, 국도, 기타 통신선 파괴행위와 파업이 발생하고 있다"[78]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7월 중순이후에는 남파된 독립 게릴라부대와 정규사단 내 게릴라부대뿐만 아니라 남로당 지구당 게릴라들의 움직임도 점차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남한 내 남로당계 각 지구당은 대체로 7월초부터 인민위원회 조직을 복구하면서 게릴라 활동을 지도하였으며 또 한국군내 세포조직을 침투시켜 포섭활동을 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었다.[79] 특히 같은 시기인 7월 중순~7월말 북한군 제6사단이 호남 및 경남지역에 각각 도착했을 당시 마을과 도시를 장악하고 있던 많은 남로당계 지구당 게릴라들이 합류하였다.

통상 적 게릴라들은 2~3명 단위로 나뉘어 피난민 속에 잠입한 다음 지시된 지점에 집결하여 무기를 조립하고 주간정찰을 실시한다. 그리고 야간이 되면 후방 군수시설이나 지휘소를 습격하고 해가 뜨기 전에 산 속으로 도피하였다. 이들은 무기와 탄약을 우마차나 광주리, 이불 속에 분해하여 숨겨서 운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적 게릴라들의 기습으로 아군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전쟁지원체제의 정립

1. 인사 지원

국군은 개전초기의 많은 병력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인사지원을 담당하는 국방부 및 각 군 관련기관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충원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80] 국방부는 우선 인사관리 목표를 필요한 병력을 적시에 충당하는데 두었으나,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한 소요병력의 판단과 대책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병력보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방부 당국은 각 지역 방위임무와 병력 확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목적으로 지역별로 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고 신병보충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81] 즉,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 등 4개 지역에 병력확충을 위한 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고, 제1훈련소(대구)·제2훈련소(부산)·제3훈련소(구포)·제5훈련소(제주)·제6훈련소(삼량진)·제7훈련소(진해) 등을 각각 설치하였다.[82]

국방부 제1국인 군무국은 군무인사·병무·무휼·섭외과 등으로 구성되어 인사업무의 전반을 담당하였고, 제2국은 행정실 및 조사·정훈·선전·보도과 등 1실 4과로 편성되어 정훈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제3국인 관리국은 행정·영선·재산관리·후생·예산·경리과 등 6과로 구성되어 국군의 복지와 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육군은 수원에서 대전, 대구로 이동할 때까지 전투부대 재편성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인사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지연작전 시기 인사지원부서는 훈련, 보충, 교육이라는 과중한 임무를 띠고 각고의 노력으로 부산 동래에 육군종합학교를 설치하였고, 병력 보충 대기소를 부산 및 대구에 설치할 수 있었다.[83] 육군본부가 대구에 위치해 있는 동안, 인사지원부서는 전투부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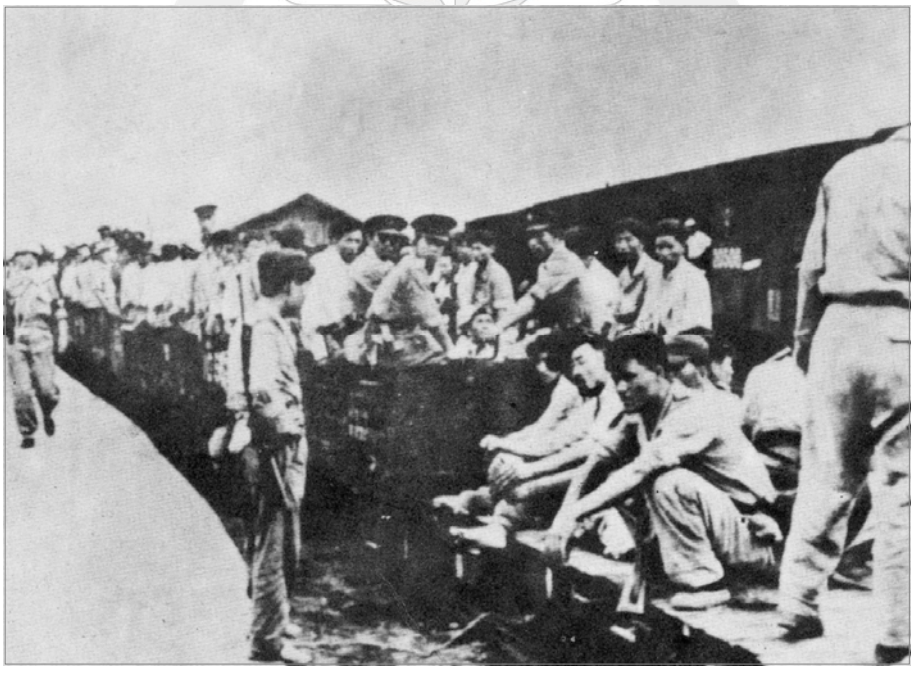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병력보충 및 각종 인사지원에 대한 새로운 기술과 편성으로 지원체제 확립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육군본부는 7월 5일 제1군단과 7월 12일 제2군단을 창설하고 지휘체제를 확립하고 전시체제로의 개편을 감행하였다. 육본 편제기구인 정훈감실이 국방부 정훈국에 흡수 통합되었고, 또한 각 병과학교는 육본 직할로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총참모장이 각 병력의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지구별로 부대를 창설하기 위한 각 지구별 편성관구를 편성, 운영하였다. 편성관구는 전시체제하에서 병력 충원 및 후방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특히 신병보충에 역점을 두고 예비 및 지원부대를 보유하였다.[84]

육본 인사국은 육군요원의 획득 충원, 군기 안전 및 기타 인사활동에 대한 계획업무인 일반 참모의 업무를 담당하여 고급부관실과 업무협조를 통해 병력의 확보와 교육 및 보충에 노력을 기울였다. 영현등록 업무는 각종 원인으로 사망한



신병보충을 위해 집결한 장정들

육군 현역장병 및 군무원, 기타 종군기자의 사체 수집, 화장 및 봉송에 따르는 일체의 기록을 유지 수행함을 주 업무로 하였다.[85]

고급부관감실(당시 명칭)은 인사국과 협조하여 군 기록문서와 개인 서신 등을 담당하면서 특히 문서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재무감실은 7월 12일 육군 야전재무단을 창설하여 경리장교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인사배치와 신속한 자금의 공급 및 청산을 도모하였고, 7월 20일에는 육군본부에 육군중앙국고지출소를 창설하여 육본, 각 직할부대, 그리고 후방지원부대의 자금공급과 청산업무를 관리하였다.[86]

법무감실은 7월 8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경남지구 계엄고등군법회의를 설치하여 후방군기 단속 및 이적, 간첩행위 및 혼란기에 야기되는 일반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담당하였다.[87] 이러한 사실은 7월 20일의 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한 법령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감찰감실은 육군의 군기와 능률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감찰, 보고하며 전투지역에서의 범법 행위를 방지하는데 노력하였다.[88] 헌병감실은 전장에서 무질서하게 후퇴하는 낙오병들을 수습하여 전투수행 임무로 복귀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군의 주보급로에 대한 교통관리도 담당하였다.[89]

후생감실은 7월 7일 부산분실을 설치하고 남하하는 군인가족의 구호에 전력을 경주하고 7월 15일에는 원호과 내에 군예대를 3개 소대로 창설하여 편성한 후 장병에 대한 위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9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7월 22일에는 긴급명령 제7호로서 <비상시 향토방위령>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였다. 이는 각 지역마다 국민의 자위조직을 강화하여 향토를 방위하고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명령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의 국민은 향토방위의 의무를 지고 있었고, 만 17세에서 50세 이하의 남자들은 각 부락별로 자위대를 조직하고, 자위대원은 1주일에 3회 이상 6시간 이상의 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91]

전쟁초기 병력충원이 주로 현지입대와 병역법에 의한 제2국민병 대상자 가두

소집 또는 모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제2국민병 소집이 절차 등이 미비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급박한 전시상황 속에서의 고육지책이었다.

각 군의 간부 양성 교육기관도 이 시기 활발하게 전쟁을 지원하였다. 육군사관학교는 제10기생(생도 1기)이 1년의 과정을 거친 후 7월 14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생도 2기생들은 가입교 교육과정을 마친 상태로 전쟁을 맞게 되었다. 7월 10일 대전에서 거행된 생도 1기생 임관식에는 총원 262명 중 전사 65명, 전상입원 20명, 실종 및 낙오 43명을 제외한 134명만이 참석하였다.[92] 육군종합학교에 편입된 제2기생은 총원 334명 가운데 277명이 참전하였고 이 가운데 85명이 전사 또는 행방불명되었다.[93]

해군사관학교는 생도 약 400명이 7월 13일 진해군항방위사령부의 제3대대에 편입되어 진해 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생도들은 방위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함상실습·육상전투훈련·지역공비소탕작전·미군부대의 통역임무 등을 수행하였다.[94]

공군사관학교는 85명의 사관후보생들이 수원, 대전을 거쳐 7월 15일 대구로 이동하였다. 그 후 후보생들은 대구비행장에서 미 공군 제6146부대로부터 실무교육을 받다가 7월 31일 진해로 이동하였다.[95]

육군종합학교는 7월 8일부의 국방부 일반명령 제4호에 의해 사관학교 및 각 병과학교가 임시 폐교됨으로써 장교 양성기관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또 육군의 증·개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초급장교들을 충당할 필요성이 급해지면서 설립되었다.

이 시기 각 군의 병과교육과 신병 교육내용도 변천을 거듭하였다. 육군보병학교는 갑종 3기생을 교육하던 중 전쟁으로 7월 8일 일시적으로 폐교함과 동시에 전북지구편성관구에 편입되었다가 대구 제1훈련소 내에 재차 개교되었다. 육군포병학교도 임시 폐교되는 동시에 <국본 일반명령 제4호>에 의거 제1포병단으로 개칭되어 7월 14일 대구로 이동하였다.[96]

육군공병학교는 경남 진해에 학교본부가 설치되었고 육군종합학교와 제1801기술공병단 예하에 교육대를 설치하여 공병요원 양성에 주력하였다. 또한 전투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병임무가 증가함으로써 1950년 7월 22일에 경상북도 경산에 공병하사관 교육대가 창설되었다.[97]

육군병참학교는 대전으로 이동한 후 7월 21일 임시 휴교하고 대전지구보급창에 편입되었다. 육군헌병사령부 직할인 육군헌병학교는 7월 13일 임시 폐교되는 동시에 요원과 장비 일체가 헌병사령부에 편입되었다.[98] 군의학교는 제1야전의무단으로 편입되었고, 군악학교는 해체되었다.[99]

여군도 이 시기 크게 발전하였다. 전쟁 초기 김현숙 소령이 여자의용군을 조직할 것을 국방부에 건의하여 제2훈련소 내에 여자의용군교육대를 창설하고 본부를 부산 성남초등학교에 설치함으로써 처음으로 여성이 전선에 참여하게 되었다. 경북 대구에서 1차 모병을 실시하여 3천여 명의 응모자 가운데 500명을 선발하였는데 이것이 여군의 모체가 되었다.[100] 이와 함께 제1훈련소의 모체가 되는 제25연대(교육연대)가 7월 11일 대구에서 창설되었으나, 12일 경북편성관구사령부 제7교육대로 개칭되었다.[101]

한편 전쟁초기부터 포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7월 7일 대전형무소에 처음으로 포로수용소를 설치하였고, 다음날 5명의 북한군 포로가 수용되었다.[102] 그 후 전선의 이동에 따라 수용소는 7월 14일 대구 효성초등학교에 제100포로수용소로 설치되었다. 당시 포로의 수용 및 관리는 헌병사령부에서 파견된 장교 2명과 사병 26명이 담당하였다.[10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시기 미군은 참전이후 미 제24사단이 대전에서 7월 8일 34명의 북한군을 포로로 하였고, 7월 15일 13명을 추가로 포획하였다. 미 제25사단도 7월 15일 최초 북한군을 생포하였다. 미 제24사단은 포로들을 대구의 미 제8군의 수용소로 이송하기 이전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7월 19일 영동에 임시수용소를 개소하였고, 미 제25사단은 7월 16일 영천에 임시수용소를 개소하였다.[104]

미군은 이 시기부터 부산군수사령부는 포로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 7월 13일 관할지역에 수용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7월 18일에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공사를 하였고 이후 1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105] 미 제8군은 7월 24일 이 포로수용소를 완성하여 먼저 27명의 북한군 포로들을 수용

하였다. 이 수용소는 7월 26일 주한 미 제8군사령부 제1포로수용소로 명명되었으나, 통상 제1포로수용소라 칭해졌으며 7월 30일에 동래로 이전하였다.[106]

2. 군수 및 민사 지원

국방부와 각 군 본부의 군수 관련 부서와 기구들은 전시체제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지연작전 동안 역시 작전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 임기응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점차 미군의 지원을 받아 체계화 되었다.

전선 남단에 위치한 부산항이 유엔군의 병참기지인 일본과 가깝게 있어 군수지원 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부산의 항구시설은 내항에 24척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고, 14척의 LST가 동시에 하역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일일 부두능력은 45,000톤이었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 있는 철도와 도로는 각 전선에 보급품을 지원하기에 유용한 병참선이었다. 7월 동안 부산에 총 309,314톤이 양륙됨으로써 1일 평균 10,666톤에 달하였으며, 230여척의 선박이 입항하였다.[10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는 제1국에서 징발업무를 담당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각종 차량, 선박, 노무자 동원 등을 전담하게 되었고,[108] 또한 7월 26일에는 대통령「긴급명령」제6호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공포에 따라 군사작전에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등을 징발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 특별조치령과 함께 발표된「국방부령」임시 제1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시행규칙>에는 징발·징용 영장은 연대장 또는 동등 이상의 부대장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여기서 징발·영장 발부시 고려해야 할 사항, 긴급을 요하는 전시징발, 징발·징용시 집행관이 해야 할 일, 징발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해야 할 일, 징발 면제차량 등에 대한 상세한 시행규칙 내용이 포함되었다.

전쟁당시 부산항의 모습

이 조치는 징발관들이 징발 목적물 소유자나 피징용자에게 징발 징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징발·징용 대상은 식량·식료품·음료수·수송기관 및 그 부속품·의료기구 및 의료약품·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연료·보도 및 선전에 필요한 시설, 건물 및 토지 인적자료 그리고 기타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시설 및 마필 등이었다.[109]

육군은 7월 5일 제1군단사령부의 창설에 이어 7월 12일 제2군단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장비도 미군의 직접군원을 받아 전투력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으며, 병력충원도 조속히 이루어져 9만 4,570명을 유지하여 이미 전쟁 전의 수준이었다.[110] 그러나 군수 관리와 운영은 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되고 미군의 군수지원에 의해 국군 작전이 수행됨으로써 육본의 군수 관련 부서와 기구들은 제한적인 활동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육군의 조달과 획득체계는 대부분의 보급품이 미군의 직접 지원을 받게 됨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따라 1종의 부식류와 2종의 피복류에 한정되었다. 미군이 지원하는 보급품들은 미군의 군단지역 보급소에서 사용부대가 직접 보급을 받았고 국내 변조품목은 국군의 각 기술병과 보급소를 통해 지원되었다.[111]

피복 조달은 주로 국방부가 전남방직공장의 재고품을 부산으로 이송하여 군 피복용으로 충당하였고, 대구와 부산에 있는 방직공장을 총동원하여 군이 소요로 하는 피복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비상계엄하의 군수물자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공부와 부처간의 업무한계를 확정하기도 했다.[112] 이로써 민수공장을 군수공장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타 고무공장, 메리야스 공장 등을 총동원하여 군수물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113]

국군 병력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의 피복은 미 극동군사령부와 협조하여 원단을 군사원조로 들여와 가공비만 정부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해군과 공군의 피복은 특수복만을 제외하고는 국내생산으로 소요량을 전량 확보하도록 하였다. 육군은 가제·붕대·탈지면 등의 의료용품의 국내생산을 위하여 군사원조로 도입된 원면을 이용하여 직접 생산 조달하였으며, 해군과 공군은 원사의 소요량을 외자관리청의 중앙조달계획에 의거 할당받아 보급하였다.[114]

각 군의 병기 생산용 및 연구용 연료는 외자관리청을 통하여 일본 및 대만으로부터 유연탄을 도입하여 공급하였다. 공급 절차는 사전에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수급계획량을 상공부에 통보하고 분기별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여 공급하였다. 한편 각 군의 취사용 연료는 국내의 무연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는 지류수급을 위해 제지용 화학펄프를 수입하여 위탁 가공계획에 따라 제지생산 공장에서 직접 생산 및 공급하려 하였으나, 보유비의 부족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자 상공부와 협조하여 국내 생산지류를 수급하였다. 한편 유지는 유지원료인 미당유를 상공부와 협조하여 각 군에 할당한 후 생산 보급하도록 하였으나, 소유량의 24%밖에 충당하지 못하여 외자 관리청과 협조하여 민수용 유지를 군수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115]

군수분야의 여러 기술병과들도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병참 부대들은 보급창의 보급물자 가운데 긴요한 작업복·내의·군화 등을 거의 100% 후송하

였고, 7월부터 일선 각 전투부대에 대한 보급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사단병참부대의 개편을 단행하고, 부대보급이 유기적이며 강력한 계통 하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병참보급품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국내 조달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군은 부산에 피복창을 설치하여 피복 생산을 재개하는 한편 부산지구 민수용 시설을 이용하여 군 피복 생산에 박차를 가한 결과 7월 4일 기준으로 피복 제조업체가 71개로 증가되고 일일 생산능력도 작업복 3,000착, 작업모 1,000개, 훈련화 3,000족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116]

지연작전 동안 우선 대전·광주지구 보급창의 재고품으로 시급한 소요를 충당하였다. 부식류는 대전 지역에서 소시지·김치류·마른 대구·김·건명태·멸치·통조림·돈육 등을 구매 보급하였으며, 7월 12일부터 부산지구 보급창에서 통조림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생산하였다.[117]

공병부대는 육군본부가 대전으로 이동한 후에는 재정비를 통해 정상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이 기간 적 전차 침공저지, 교량, 도로건설 및 폭파 임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공병단은 7월 22일 김천에 이르렀을 때 본부중대, 제1건설공병대대, 제9야전공병대대, 제1정비중대, 창고중대로 재편성하였다. 이로써 공병단은 비로소 전투공병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118] 미 8군 사령부가 대구에 개소된 7월 14일 이후부터는 보다 많은 군원물자를 인수받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119]

통신부대는 제51통신대대가 육본과 각 사단간의 통신을 유지하면서 지원하였으나 장비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7월 14일부터 부산에 설치된 미 제520기지창으로부터 통신보급을 지원받게 되어 군 지원임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육군은 미군의 직접군원에 의한 통신장비 보급이 증가되자 보병사단의 재편과 증강으로 늘어나는 통신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통신부대의 증·개편을 단행하였다. 7월 20일에 제1군단과 제2군단에 각각 통신 중대를 창설하였다. 한편 육군은 통신시설의 부족으로 대한전신전화공업주식회사, 수도전기통신기기제작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앙전기제작소, 한국전기통신공업주식회사 등에서 통신장비와 기자재를 조달하여 통신을 지원하기도 했다.[120]

병기부대는 많은 개편과 증편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급과 정비기능을 갖추어갔다. 육군은 미군으로부터 105㎜ 포탄을 포함한 탄약을 보급 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포, 차량, 각종 병기장비를 군원으로 지급받아 제1, 제2군단을 지원하였다.[121]

의무부대는 7월 9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1야전의무단이 임시 폐교한 의무학교의 인원과 장비, 육본 직할의 의무대들을 기간으로 하여 야전의무대대, 제1·제2·제3외과치료반을 편성하였으며, 의무지원은 7월 20일부터 미군 약품이 다량으로 입하됨으로써 확대되어 최전선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수도병원도 대전을 경유 김천으로 이동하였다. 제1육군병원은 부평에서 대구로 이동하였고 대전의 제2육군병원도 대구로 이동하였다. 제3육군병원은 여수를 거쳐 진주로 이동하였고 육군요양원은 밀양에서 제6육군병원으로 개편되었다.[122]

한편 육군본부는 대민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여 민사부를 설치하였다. 민사지원 업무는 작전지역 내에서 군 부대와 정부 행정기관 및 주민간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활동으로 민사행정·치안·지원관리·선무활동 등이다.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육군본부는 다음날 민사부를 설치하여 대민관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민사부는 민·군 간의 긴밀한 협조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즉, 전투지구 민간인의 철수 또는 복귀, 필요한 자원 및 인마의 징발, 계엄하의 군사재판 및 일반 사법사무 감독, 피난민 구호, 민간고용인원의 채용, 지방행정 및 기관에 대한 감독, 기타 민간인과의 연락 등이었다.

이 무렵 대민활동은 1950년 7월 16일 국방장관이 '최근 시국과 우리의 각오'라는 성격을 발표한 데 이어 정훈국에서는 민심의 동요를 막고, 군을 신뢰하며, 군 작전에 적극 협력토록 하는 대민공작을 수행하는데 주력하였다.[123] 이밖에 군인가족 원호에도 큰 관심을 보여 열차의 알선, 구호품 및 수용소 제공 및 전재를 입은 군인가족을 위한 구호미 배급 등을 수행하였다.[1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정부의 각 부처는 초기에서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피난민 구호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군·경도 작전지역 밖으로 주민을 소개시키거나 피난민들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육본 민사부는 피난민 대책과 관련하여 전투지역 내 민간인의 철수 또는 복귀와 피난민 및 이재민 구호를 담당하였으며, 육군의 각 사단과 해군의 통제부사령부에 민사과를 두어 위와 같은 민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125] 그러나 민사부의 구성이 시기적으로 위급하였던 까닭에 업무가 체계화되지 못했고, 전장의 이동속도가 급변하여 효과적으로 피난민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들의 사기진작과 적의 사상 침투방지에 주력한 것은 주로 정훈 관련 부서들이었다.[1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5 절 분석 및 평가

한국정부는 개전초기 행정조직이나 각종 법률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혼란을 면치 못하였으나, 지연작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국가위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유사시 국가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정부 등 모든 기관에게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들이 전쟁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군사력 열세를 내부의 결속과 더불어 미군과 유엔 등 외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리하여 한국정부는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부 부처별로 조직력을 회복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정부는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등은 각 부서별로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각 부처 간의 관계와 역할 분담, 군의 행정기관(검찰·경찰)에 대한 통제 등에 주력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부의 전시 전환조치는 행정부의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통령은 유엔과 미국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외교 조치를 전개하였고,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들은 수원,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대전으로 이동한 후 충남도청에 자리 잡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쟁물자의 긴급수송에 협조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등 어느 정도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듯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국회에서는 비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교·정치·군사·정보·식량 등 각 분야에 걸쳐 긴급 조치를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준비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서서히 극복해 나갔다.

전시 후방치안을 위해 내무부, 검찰 및 경찰이 전시기구로 전환하여 노력하였으나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내무부는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통제 및 운영계획이나 주민통제계획 등 구체적인 전시전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당시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 없이 대부분 단독으로 상황을 처리한 측면이 있었다.

검찰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방치안 확보가 긴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 수사력을 치안확보에 집중하여 반민족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단속에 나서서 전 국민들의 임전태세 확립에 앞장섰다. 검찰청에서는 각 지검에 긴급지시하여 국민보도연맹의 조직점검과 아울러 반공계몽의 선봉에 서게 하여 이탈을 예방하거나 재전향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경찰은 내무부 및 치안국의 지휘통제 하에서 후방지역의 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찰은 일부가 전선에서 군을 지원하여 방어하면서 치안을 유지하였고, 후방에서도 치안유지와 피난민 철수통제 임무 등을 수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군을 지원하여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재무부는 예금지불을 제한하여 군사비 조달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또 피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예금대불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금융경색 내지는 경화를 방지하는데 필수적인 조치였다. 체신부는 대전체신청에 임시본부를 두고 남하한 몇몇 간부를 중심으로 잠정적으로 기구를 재편하여 전신전화시설을 보수하면서 군 통신망으로서의 활용에 주력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수반되는 대민 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기간 중 국방부는 육군본부에 민사부를 설치하였는데, 육본 민사부는 계엄사령부를 통해 군사작전 및 치안유지에 필요한 민군간의 긴밀한 협조와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난민 관련 임무는 전투지역 민간인의 철수 또는 복귀와 피난민 및 이재민 구호를 담당하였다. 아울러 각 시·도에 긴급히 임시조치 법안을 시달하여 피난민의 수용시설을 마련하는 한편 일정지역으로의 집중이동을 견제하고 각 지방으로 분산을 지도하였다. 국방부는 인사 관련 기구들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시체제에 맞도록 신속히 체제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체계적인 인사정책을 수립해 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거듭하였다. 초기전투에서 막대한 병력손실과 그 후 계속된 증·개편 및 부대의 창설에는 막대한 병력보충을 필요로 하였고, 인사 관련 기구나 부서들은 임시방편적인 처방이나 대책으로 소요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즉, 가두에서의 강제징집과 불심검문 등에 의한 징집에 크게 의존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점차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정책들로 보완하게 되었고 보다 효율적인 병력확보, 교육, 분배의 체계로 발전시켜 나갔다. 또한 확보된 병력에 대한 교육도 계획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로 전투병 양성 위주의 단기 교육만이 실시되었다. 인사제도와 복무여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진급 또한 근무평정이나 고가표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때 그때 논공행상으로 이루어졌고, 또 너무 많은 임관제도로 인해 장교와 사병의 군번이 복잡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해소되어 체계화되었다.

한편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군수 관련 기구와 부서들은 전시동원이나 징발에 관한 계획도 수립해 놓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쟁 초기의 동원, 징발 행정은 임시방편적 조치로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비록 7월 말경 징발령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혼란기의 무질서를 합법적인 단계로 끌어올리는 조치에 불과하였다. 그 후 어느 정도 안정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미군 지원이후 계획적인 물자지원이 가능해졌다.

초기 국군의 지원 장비와 무기는 주로 미 군사고문단을 통해 신청되었고, 미군이 자체 군수보급체계를 통해 한국군에게 공급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 후 한국군에 필요한 장비와 보급품은 미군으로부터 직접 국군 부대에 지급되었다. 한국군이 필요한 것을 미 군사고문단의 판단에 의해 한국군에 공급됨으로써 적시에 필요한 장비들이 보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인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이 점차 개선되어 지연작전 시기 군수 관련 기구들과 부서들은 업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시작하였고 어느 정도 지원체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각 군수부서는 자체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필요한 보급품을 유엔군에 신청한 후 이 보급품을 수령하여 사용부대에 분배하는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집필 : 양영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 (註)

1) 정부와 국회는 1950년 6월 27일 수원, 29일 대전으로 이동하였고, 7월 8일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1년지』, 국방부, 1951, p. A74.
2) 위의 책, p. A59.
3) 위의 책, p. 147. 제8회 임시국회는 전쟁으로 인해 재적의원 210명 가운데 8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납북 또는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재적의원 175명으로 진행되었다.
4) 대한민국 국회, 『국회50년사』, 1981, pp. 146-147.
5) 경찰사편찬위원회, 『한국경찰사』 제2권, 1973, pp. 260-273.
6) 1950년 7월 21일 전라남북도 계엄선포 직후 국군 제9사단은 신설된 경남지구 계엄사령부에서 지시된 사항을 통제하기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민주신보사, 『민주신보』 1950년 7월 25일자.
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 641. 이들은 소위 의용군를 대대적으로 모집하였으며 교량복구 등에도 많은 인원들을 동원하였다. 「시흥군내 각 면당부 정치정세 보고철」,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제16권, 1989, pp. 162-166.
8)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pp. 651-653.
9)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USGPO, 1972, p. 103.
10) Ibid., p. 103.
11)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상), p. 111. 유엔안보리에서는 1950년 7월 7일 '유엔군사령부 설치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트루먼은 합동참모본부를 자신의 대행기구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차후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유엔을 대신하여 한국에서의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핵심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2) 위의 책, pp. 110-111.
13) 위의 책, p. 112.
14)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100-101.
15) ibid., pp. 115-117.
16)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상), p. 110;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외무부, 1979, p. 185.
17)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103.
18) 전사편찬위원회(역),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상), p. 148.
19)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103.
20)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교학사, 1986, p. 206.
21) U.S. 8th Army, *Operation Order No.3* (1950.7.18),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이하 같음).
22)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국방부, 1979, pp. 127-128.
23)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 서울신문사, 1979, p. 169;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은 1949년 8월 24일 이 대통령과 하지 장군 간에 이루어졌던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보유한다"는 내용에 이어 두 번째이다.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국방부, 1988, pp. 34-38; Robert K. Sawyer & Walter G. Hermes,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 C.: U.S. Dept Of the Army, 1962, p. 34.
24) 정일권,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5, p. 7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USGPO, 1961, p. 112.
26)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995.
27) 육군본부 「특별명령」 제11호(1950.7.7).
28) 정일권, 『전쟁과 휴전』, pp. 67-68.
29) 부대 재편성은 1950년 7월 21일, 지휘체제는 7월 24일 현재를 각각 기준으로 하였다.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140; Roy E. Appleman, 앞의 책, p. 191; 국방부, 「일반명령」 제20호(1950.7.24).
3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7호(1950.7.20).
31)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제2권, 국방부, 1987, pp. 111-115. 민사부의 임무는 전투지구 민간인 철수, 필요 자원 및 인마의 징발, 계엄하의 군사재판 및 일반사법 감독, 피난민 구호, 민간고용인의 채용, 지방 행정 및 치안기관에 대한 감독, 기타 민간인과의 연락 등이었고, 경찰의 활동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았다.
32) 육군본부, 『6·25후방전사』(인사편), 육군본부, 1956, p. 309.
3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1년지』, pp. C49-50.
34) 위의 책, p. C56.
35) 육군본부, 『육군인사역사』 제1집, 육군본부, 1969, p. 604.
36) 이 건의안은 1950년 9월 8일 박면원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동년 9월 12일 제20차 본 회의에서 이의 없이 가결되었다.
37)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3권, 행림, 1990, p. 538.
38) 유진오, 「서울탈출기」, 『고난의 90일』, 수도문화사, 1950, p. 36.
39) 서경석, 『전장 감각』, 샘터, 1999, p. 31.
40) 부산일보사, 『임시수도 천일』, p. 230.
41) Roy E. Appleman, 앞의 책, pp. 251-252.
42) *Eighth Army and ROK Refugees to August 1950*, pp. 2-3; Harold J. Noble, *Embassy at the War*, p. 153;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3권, p. 536. 대구인구는 약 50여만 명이 증가되었다.
43)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1권, p. 1067.
44) 부산일보사, 『임시수도 천일』(하), p. 238.
45) 마르쿠스 셰르바체, 「피난민 구호를 회상」, 나종일,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예진, 1991, pp. 254-255.
46) 부산일보사, 『임시수도 천일』(하), p. 162.
47) 부산시사편찬위원회, 『항도부산』 제16권, p. 38.
48) 위의 책, p. 39. 전쟁초기에는 부산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피난민들을 위한 주거지를 주선하였으나 계속 밀려오는 피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49) 내무부 치안국, 『경찰10년사』, 백조사, 1958, pp. 173-174.
50) 마르쿠스 셰르바체, 「피난민 구호를 회상」, p. 256.
51) 부산일보사, 『임시수도 천일』(하), p. 165.
52)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3권, p. 538.
53) Harold J. Noble, *Embassy at the War*, p. 153.
54) GHQ 8th Army, *Eighth Army and ROK Refugees to August 1950*,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이하 같음), p. 2.
55) 25th Division, *Operations Order and Instructions*, Journal, 20 July 1950; CG EUSAK, *Mail*, 261000K July

군사편찬연구소

1950; Headquarters 25th Infantry Division, *G-1 Journal*, 26 July, 1950; 25th Div., *To Commanding Officers, All Regimental Combat Teams*, 27 July, 1950.

56) 1st Cav Div, *Annex B(Intelligence) to Operations Order 9-50* (1950.7.22); 8th Cavalry Regiment, *Operational Rept.*(1950.7.23).

57) 5th Cavalry Regiment, *War Diary* (1950.7); 8th Cavalry Regiment, *Operational Rept.*(1950.7); 8th Cav Regiment, *Operational Rept.*(1950.7.19～30).

58) 1st Cavalry Division, *War Diary* (1950.6.25～7.29); CG EUSAK, *Mail*, 261000K July, 1950.

59) 육군본부(역),『한국전쟁』제2권, p. 101.

60) 마르쿠스 세르바체,「피난민 구호를 회상」, pp. 257-258.

61) 육군본부(역),『한국전쟁』제2권, p. 108.

62) 위의 책, p. 75.

63) Roy E. Appleman, 앞의 책, p. 108.

64) Eighth Army, *Informal Check Slip, Control of Refugees*, 26 July, 1950.

65) Eighth Army, *Letter to Honorable Mr. Shin Sung Mo, Prime Minister* (1950.7.26); CG EUSAK to CINCFE, *Message*, 261200K July, 1950.

66) *Eighth Army and ROK Refugees to August 1950*, pp. 2-3.

67) 조병옥,『나의 회고록』, 민교사, 1959, pp. 258-259.

68)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한국경찰사』제2권, 광명인쇄공사, 1973, pp. 272-273.

69) U.S. 8th Army, *G-2 PIR NO.6* (1950.7.18).

70)「슈티코프가 핀시 동지에게」(1950.7.1), 대한민국 외무부,『소련비밀외교문서』제3권(미간행, 1994).

71) 전병규,『6·25와 천안』, 인문당, 1988, p. 58.

72) Roy E. Appleman, 앞의 책, pp. 199-252.

73) FEC, *G-2 IR NO.25*(1950.7.210400-220400); 중앙통신사,『조선중앙연감』1951-52, p. 411.

74) U.S. Army, *G-2 Intelligence Report* (1950.7.20～7.30).

75) 25th Division, *Operations Order and Instructions*, Journal. 20 July 1950.

76) U. S. 1st Cal. Div., *Operation Report* (1950.7.28).

77) Headquarters of ROKA-EUSA Office of the Commanding General, *North Korea Army Tactics and Techniques (a-j),* Combat Information Bulletin No.1(1950.7.29).

78) U.S. 8th Army, *G-2 PIR NO.6*(1950.7.18).

79) 육군본부,「정기 정보보고」에 의하면, 이 시기 많은 오열들이 대구, 마산, 부산 등지에 침투하여 지하조직을 편성하거나 선전 및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80) 육군본부,『육군인사역사』제1집, 1969, 육군본부, p. 593.

81) 전사편찬위원회,『국방부사 제1집』, 국방부, 1984, p. 185.

82) 육군본부,『육군인사역사』제1집, pp. 12-13.

83) 위의 책, p. 593.

84) 전사편찬위원회,『국방사 제2집』, 국방부, 1987, p. 110.

85) 육군본부,『육군인사역사』제1집, p. 604.

86) 육군본부,『6·25사변 후방전사 : 인사편』, 육군본부, 1956, p. 298.

87) 위의 책, p. 303.

88) 위의 책, p. 201.

89) 위의 책, p. 517.

90) 육군본부,『육군인사역사』제1집, p. 3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1)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란 1년지』, pp. C49-50.
92) 육군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50년사』, 1996, p. 109.
93) 위의 책, p. 113.
94) 해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 50년사』, 1996, pp. 77-97.
95) 공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20년사』, 1974, pp. 52-55.
96) 육군본부,『6·25사변 후방전사 : 인사편』, p. 178.
97) 육군본부,『군수변천사』, 육군본부, 1995, p. 106.
98) 육군본부,『6·25사변 후방전사: 인사편』, pp. 181-188.
99) 육군본부,『육군인사역사』 제1집, p. 235.
100) 위의 책, p. 471.
101) 육군본부,『육군 제1훈련소 약사』, p. 3.
102) 송효순,『대석방』, 신현실사, 1973, p. 29.
103) 위의 책, p. 30.
104) MHO, G-3, *The Handling of Prisoners of War, During Korean War*, US Army, APO 958, 1953, p. 3.
105) ibid., p. 1.
106) ibid., p. 4.
107)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제3권, 국방부, 1970, p. 38.
108) 육군본부,『6·25사변 후방전사: 인사편』, p. 255.
109)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란 1년지』, pp. C54-55.
110) 전사편찬위원회,『국방사 제2집』, 국방부, 1987, p. 333.
111) 육군본부,『군수변천사』, 육군본부, 1995, p. 1055.
112) 전사편찬위원회,『국방사 제2집』, p. 290.
113) 전사편찬위원회,『국방부사 1집』, p. 220.
114) 전사편찬위원회,『국방사 제2집』, p. 291.
115) 위의 책, p. 292.
116) 위의 책, p. 366.
117) 위의 책, p. 368.
118) 위의 책, p. 344.
119) 위의 책, p. 357.
120) 육군본부,『통신병과사 제1집』, 육군본부, 1982, pp. 550-551.
121) 전사편찬위원회,『국방사 제2집』, p. 361.
122) 육군본부,『6·25사변 후방전사: 인사편』, p. 14.
123)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란 1년지』, p. A59.
124) 육군본부,『육군인사역사』 제1집, p. 604.
125) 전사편찬위원회,『국방사』 제2권, pp. 111-115.
126) 육군본부,『6·25후방전사』(인사편), p. 3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장 금강선 지연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공주·대평리 전투
제 3 절	대전 전투
제 4 절	영동-김천 지연전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1. 개 요

금강선 지연작전은 미 제24사단(사단장, William F. Dean 소장)이 7월 12일 조치원에서 철수하여 금강(錦江)을 연하는 방어선(線)을 점령하면서부터 북한군 제3·제4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금강-갑천-대전지역에서 실시한 전투와 이어서 증원된 미 제1기병사단(사단장, Hobart R. Gay 소장)이 영동-황간-김천에 이르는 경부 국도 축선에서 실시한 지연전을 통합하여 말한다. 이는 공주-대평리 전투, 대전전투, 영동-김천 지연전으로 구분한다.<상황도 3-1 참조>

미 제24사단 제34연대는 7월 8일 천안전투에서 패퇴하여 공주 방향으로 철수하였고, 미 제21연대는 전의-조치원전투에서 큰 손실을 입고 7월 12일에 대평리 방향으로 철수하여 금강방어선을 점령하였다. 이는 딘 소장이 금강(錦江)과 소백산맥을 연하는 선에서 결정적인 방어를 실시하기로 한 작전복안에 따른 조치였다. 딘 소장이 금강-소백산맥선을 결정적 방어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한강 이남에서 방어에 가장 유리한 금강(錦江)이라는 천연적 장애물이 가로로 놓여 있고, 또한 여기서 적을 막지 못하면 낙동강까지는 마땅한 방어지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단 입장에서는 비로소 예하 3개 연대 모두가 전선에 도착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군과 처음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협조된 방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군 제1군단은 전의-조치원전투에 이어서 연속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대전 일대에서 미 제24사단을 소멸시키고자 그들의 제4사단을 공주 방향, 제3사단을 대평리 방향, 제2사단을 청주에서 대전 방향으로 기동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제2사단이 청주에서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제3, 제4사단만으로 대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을 공격하기로 하고, 7월 14일 공주 방향에서 먼저 제4사단이, 7월 16일 대평리 방향에서 제3사단이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제24사단은 딘 소장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군에 의한 후방 기습 차단으로 와해되어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공주 정면에 배치되었던 제34연대와 대평리 정면에 배치되었던 제19연대는 각각 북한군의 공격 당일에 붕괴되어 금강 방어선에서 철수하였다. 또한 제21연대는 예비로서 대전비행장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전의-조치원전투에서 피해가 복원되지 않아 투입할 수가 없었다.

미 제24사단은 이후부터 대전 서쪽의 갑천(甲川)을 연하는 선을 차후방어선으로 선정하여 북한군의 진출을 지연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딘 소장은 가용부대가 여의찮아 지금까지의 전투피해로 전투력이 저하된 제34연대에 대전방어라는 임무를 맡기고, 사단의 전투능력을 고려하여 7월 19일 오후에는 대전에서 철수할 복안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7월 18일 대전비행장에 도착하여 "미 제1기병사단의 전방 전개를 보장하기 위해 대전에서 7월 20일까지는 지탱하라"는 요지의 의견을 제시하여 딘 소장은 대전 철수시기를 7월 20일로 24시간 연장시켰다.

북한군 제3, 제4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은 금강(錦江) 교두보를 확보한 후에 전차 및 포병 등 중장비의 도하를 기다렸다가 7월 19일 야간부터 대전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시작하였으며, 7월 20일 03시에 포병공격준비사격과 함께 본격적인 대전포위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들의 제4사단은 논산-대전 방향에서 정면 공격과 병행하여 1개 연대 규모를 보문산 후방으로 침투시켜 대전 후방의 철수로를 차단토록 하였고, 제3사단은 대평리-유성 방향을 포함한 북서 방향에서 정면 및 측후방 공격을 하도록 하였다.

미 제34연대 예하 대대들은 갑천방어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혼전을 거듭하다가 7월 20일 오전에 연대와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후방이 차단된 것으로 오인하여 연대에 보고도 없이 철수하였다. 그러나 사단장과 제34연대장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대전 시내에 단독으로 침투한 적 전차를 격파하기 위해 동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분서주(東奔西走)하였다. 그 결과 전쟁 발발 후 최초로 보급된 3.5인치 로켓포로 적 전차를 격파하였으나, 적의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적 전차에 탑승하여 시내로 침투한 저격병들의 위협을 고려하여 사단장은 7월 20일 17시경에 철수명령을 내렸다. 이미 대전 후방의 퇴로가 차단된 상황이었다. 이때부터 도로차단선 돌파 작전을 개시하였으나 많은 인명 및 장비 손실만 입고 실패하였으며, 각 부대들은 소부대 단위로 산길을 따라 영동 일대로 철수하였다. 또한 미국전쟁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단장 실종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영동으로 집결한 사단은 미 제1기병사단에 작전책임지역을 인계하고 왜관 일대로 철수하여 부대 정비에 들어갔다.

북한군 제3, 제4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은 7월 20일 야간에 대전을 점령 완료하였다. 이들 부대들은 대전에서 하루를 정비하고 7월 22일부터 제3사단은 경부국도를 따라, 제4사단은 금산-안의-거창 방향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이때 제3사단은 제8연대를 옥천-영동 도로 방향에, 제7 및 제9연대를 금산-무주-영동 도로 방향으로 우회 공격하여 영동을 점령할 계획이었다.

미 제24사단으로부터 방어책임지역을 인계받은 미 제1기병사단은 7월 22일 제8기병연대를 영동 서쪽의 옥천과 무주 방향 도로에 각각 1개 대대씩 배치하고, 제5기병연대를 영동 동쪽의 426고지 부근을 점령하도록 하였다. 이후 미 제8기병연대는 7월 23일부터 북한군의 정면 압박과 후방 침투 공격에 미 제5연대까지 지원받아 대응하였으나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7월 25일에 영동에서 철수하였다. 이후부터는 늦게 도착한 제7기병연대와 전방에서 철수한 제5, 제8기병연대가 축차진지를 점령하면서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영동을 점령한 북한군 제3사단은 26일 새벽부터 29일 사이에 경부 국도 축선을 따라 산발적인 공격을 실시했으나 실패하자, 주력을 남쪽의 무주-지례(김천 서남쪽 16㎞) 방향으로 우회 기동하여 김천을 남서쪽에서 공격하였다. 또한 7월 28일 저녁에 황간 북쪽에서 미 제27연대가 철수하여 측방 위협이 노출되었다. 이에 미 제1기병사단은 포병과 항공지원을 받아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시키기도 하였으나 후방 차단 위협을 느껴 29일 아침에 황간에서 김천으로 철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때 예하 3개 연대는 김천으로 통하는 3개 도로망을 각각 통제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이후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이 8월 1일 15시경에 차후작전을 고려하여 전군에 "낙동강 선으로 철수하라"는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1] 이에 미 제1기병사단은 낙동강을 건너 왜관으로 집결하여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7월 22일에 영동 지역에 투입되었던 미 제1기병사단은 북한군 제3사단을 상대로 지연전을 실시하여 약 10일 간이라는 시간을 획득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기간 중에 미군들은 공중공격과 포병화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군의 전차, 차량, 보급품, 지휘소 및 밀집병력을 공격하여 북한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혔으나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시킬 수는 없었다. 반면 북한군은 계속하여 공격기세를 유지하여 남쪽으로 진출할 수는 있었으나, 미군의 공중공격으로 병력 및 장비를 집중할 수가 없어 전과확대 및 추격으로 확장하지는 못했다.

2. 작전지역의 특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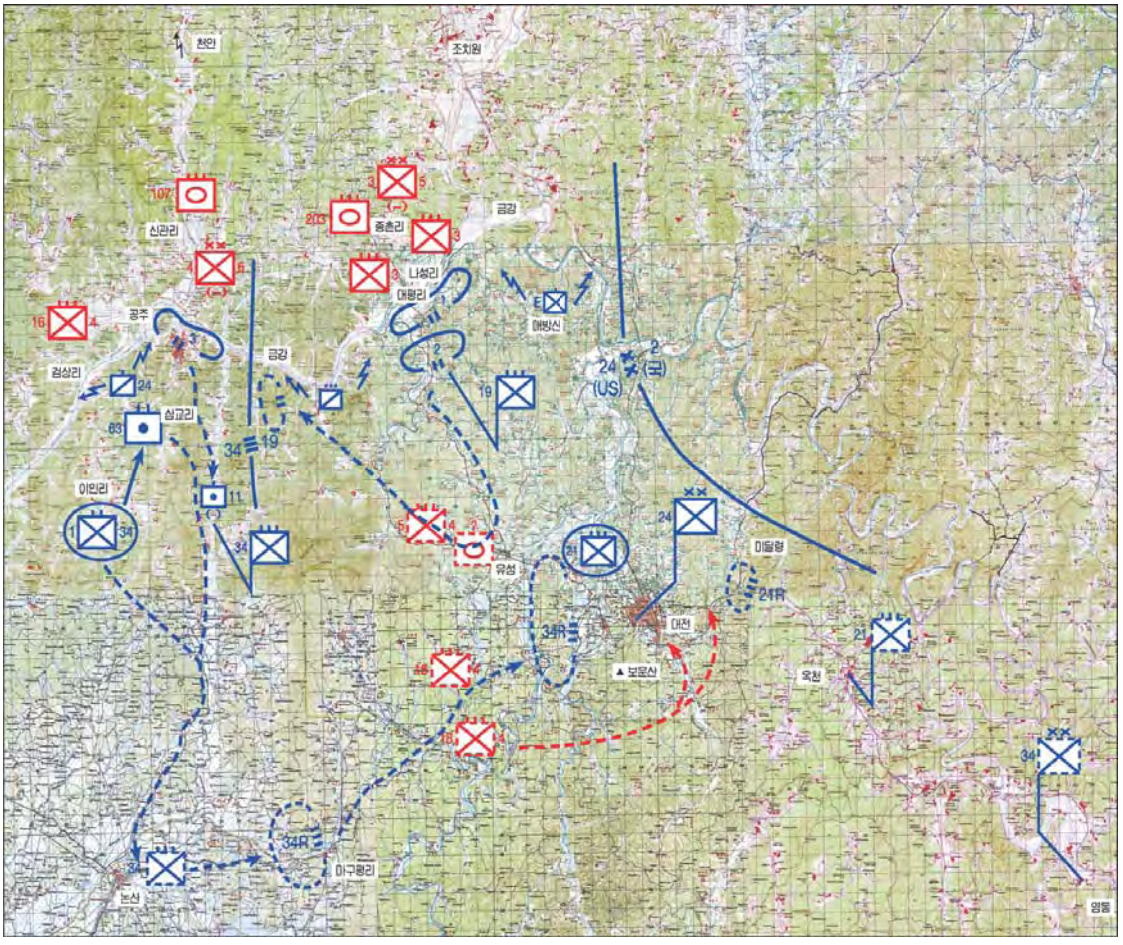
금강선 지연작전은 금강 남안의 공주-대평리에서 경부국도를 따라 대전-영동-황간-김천에 이르기까지 약 100㎞ 구간에서 실시되었다. 이 지역에 대한 작전적인 특징을 주요 하천, 교량 및 도로망, 도시 순으로 알아보고자 한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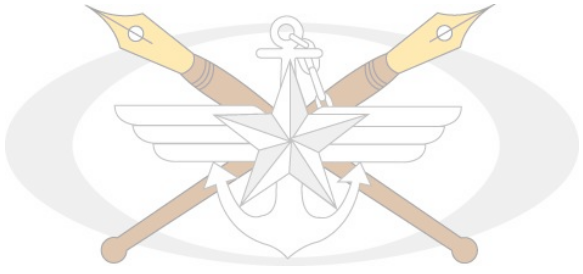
1) 주요 하천

작전지역 내에 양호한 방어력을 제공하는 천연적인 장애물로는 북한군의 공격방향과 수직으로 놓여 있는 금강(錦江)이 있었고, 그 외에 대전 서쪽에 갑천(甲川)과 유등천, 그리고 대전 시내를 관통하는 대전천이 있었다.

먼저 금강은 전북 장수에서 발원하여 산간분지를 곡류하여 대전의 북동쪽에서

<상황도 3-1> 금강선 지연작전(1950. 7. 14~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마제형(U자형)으로 크게 대전을 감싸 돌아 황해로 유입되며, 전장은 401㎞이다. 특히 신탄진 하류지역에서는 동쪽으로는 소백산맥, 서쪽으로는 황해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서 방어시 장애물로서 효과는 매우 컸다. 당시 공주-대평리 일대의 하천 제원은 하상 폭이 500~1,000m, 유수 폭이 200~300m, 수심이 1.5~3.5m, 유속이 시속 5~10㎞이었고, 대평리 부근에는 사주(沙洲)가 발달하여 높이 1.2~2.4m, 길이 4㎞ 정도의 제방이 양안에서 마주보고 있었다, 이 무렵에는 비가 많이 내려 정상적인 도섭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 외 하천으로서 갑천은 남서에서 북쪽으로 흘러 신탄진 일대에서 금강과 합류하고, 유등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갑천과 합류한다. 그리고 대전천은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대전시가를 관통하여 유등천과 합류한다. 갑천을 본류로 하는 이들 하천은 대전 서쪽의 유등천 연변과 갑천 하류는 수전지대이며, 대전시는 대전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유등천과 대전천은 하폭이 좁고 수량도 얼마 되지 않아 방어 장애물로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으나, 갑천은 어느 정도 장애물 효과가 있었다.

2) 주요 도로망 및 교량

대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요 도로망으로서 1번 국도가 조치원-대평리-대전을 거쳐 논산 방향으로 연결되고, 17번 국도가 청주-신탄진-대전을 거쳐 금산 방향으로 연결되고, 23번 국도가 천안에서 공주-논산으로 연결되고, 4번 국도가 군산-논산-대전을 거쳐 영동-김천으로 연결된다. 그 외에 공주에서 남동 방향의 마암리(공주 동남쪽 7.5㎞)를 거쳐 유성에 이르는 32번 도로, 다른 하나는 공주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부여로 연결되는 627번 도로가 있다. 그리고 금산에서 무주를 거쳐 영동에 이르는 19번 도로와 거창에서 지례를 거쳐 김천-상주에 이르는 3번 도로가 당시로서는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었다. 그리고 도로가 강이나 하천을 만나면 교량 또는 선착장이 설치되어 도로를 연결시켜 주었다.

당시 금강 상에는 전차 및 야포 등이 건너 갈 수 있는 교량이 3개 지역에 있었다. 하나는 신탄진 북쪽의 맥포리에 있는 맥포교로서 청주-신탄진-대전-금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에 이르는 17번 국도를 연결하는 인도교와 경부철교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다. 둘은 대평리 북쪽의 나성리에 있는 금성교로서 조치원-대평리-유성에 이르는 1번 국도를 연결하는 인도교였다. 셋은 공주 북쪽의 신관리에 있는 금강교로서 정안-공주-논산에 이르는 23번 국도를 연결하는 인도교였다.

그리고 도보병력이 도하할 수 있는 도선장이 10여 곳에 있었다. 이곳에서 운용되던 나룻배로는 병력과 박격포 등 소화기를 운반할 수 있었으나, 전차 및 야포 등은 도할시킬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에 대평리에서 공주사이는 계룡산에서 뻗어 나온 능선들이 강안에서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어 강폭은 좁은 편이나 수심이 깊은 까닭으로 도보병력의 도섭은 불가능하였다. 당시 주요전투는 이와 같은 도로 축선과 교량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3) 주요 도시 및 마을

작전지역내에 주요도시는 경부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부터 대평리, 유성, 대전, 옥천, 영동, 황간, 김천 등이 있었고, 23번 국도를 따라 공주 및 논산이 있었다. 이들 중에서 대전을 제외하고는 도시라기보다는 작은 읍(邑)이었다. 이러한 곳은 방어 시에 주로 사단 및 연대지휘소로 운용되거나 포병 및 박격포 진지와 전투근무지원시설 등으로 활용되었고, 철수 시에는 부대 집결 장소로 운용되었다.

대전은 1932년 이래로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였으며, 당시 인구 13만 여 명으로서 남한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었다. 그리고 동쪽의 소백산맥과 남쪽의 노령산맥이 표고 450~550m 내외의 고지군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다. 또한 대전은 방사선형으로 집합되는 5개의 간선도로와 경부, 호남의 양개 철도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대전과 같은 큰 도시는 장애물로서 효과도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피·아 지휘관 현황

1) 미 제24사단

<표 3-1> 미 제24사단 지휘관 현황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사 단 장		소장	딘(William F. Dean)	7월 20일 실종
		소장	처치(John H. Church)	7월 22일 부임
부사단장		준장	멘노허(Menhoher)	
제19연대	연대장	대령	멜로이(Guy S. Meloy)	7월 16일 부상
	제1대대장	중령	윈스테드(Otho T. Winstead)	7월 16일 전사
	제2대대장	중령	맥그레일(Thomas M. McGrail)	TF 운용
제34연대	연대장	대령	보챔프(Charles E. Beauchamp)	7월 16일 부임
	부연대장	중령	웰링턴(Robert L. Wadlington)	연대장 대리 (7. 8-16)
	제1대대장	중령	에이리스(Harold B. Ayres)	
	제3대대장	중령	스미스(David H. Smith)	7월 8일 후송
		소령	랜트론(Newton W. Lantron)	7월 20일 실종
제21연대	연대장	대령	스테펀(Richard W. Stephens)	
	제1대대장	중령	스미스(Charles B. Smith)	
	제3대대장	중령	젠슨(Carl C. Jensen)	
포병연대	사령관	준장	바스(George B. Barth)	
	제52포병대대장	중령	페리(Miller O. Perry)	
	제63포병대대장	중령	다우손(Robert H. Dawson)	7월 8일 후송
		소령	드레슬러(William E. Dressler)	
	제13포병대대장	중령	스트래턴(Charles W. Stratton)	
	제11포병대대장	중령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미 제1기병사단

<표 3-2> 미 제1기병사단 지휘관 현황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사 단 장		소장	게이(Hobart R. Gay)	7월 18일 포항
부사단장		준장	알렌(Allen)	
제5기병연대	연대장	대령	크롬베즈(Marcel B. Crombez) Roshensberger	7월 18일 포항
	제1대대장	중령	?	
	제2대대장	중령	클리포드(John Clifford)	
제7기병연대	연대장	대령	니스트(Cecil W. Nist)	7월 22일 포항
	제1대대장	중령	클레인노스(Peter D. Clainos)	
	제2대대장	중령	히치너(Omar T. Hitchner)	
제8연대	연대장	대령	파머(Raymond D. Palmer)	7월 18일 포항
	제1대대장	중령	케인(Robert W. Kane)	
	제2대대장	중령	필드(Eugene J. Field)	
포병연대	사령관	준장	파머(Charles D. Palmer)	7월 18일 포항
	제61포병대대장	중령	앨던(Hatch Alden)	〃
	제77포병대대장	중령	해리스(William A.Harris)	〃
	제82포병대대장	중령	?	7월 22일 포항
	제99포병대대장	중령	?	7월 18일 포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북한군 전투 참가 사단

<표 3-3> 북한군 전투 참가 사단 지휘관 현황

직책	직책	계 급	성 명	비 고
제3사단	사단장	소장	이영호	소련군 소위로 복무
	제7연대장	대좌	김창봉	
	제8연대장	중좌	김병종	
	제9연대장	대좌	김만익	
	포병연대장	대좌	안백성	
제4사단	사단장	소장	이권무	소련군 중위로 복무
	제5연대장	대좌	최인덕	
	제16연대장	중좌	박승희	
	제18연대장	대좌	김희준	
	포병연대장	대좌	?	
제105전차 사단	사단장	소장	유경수	소련군 전차중대장 역임
	제107연대	대좌	?	제4사단에 배속
	제109연대	대좌	?	
	제203연대	대좌	?	제3사단에 배속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공주-대평리 전투

1. 전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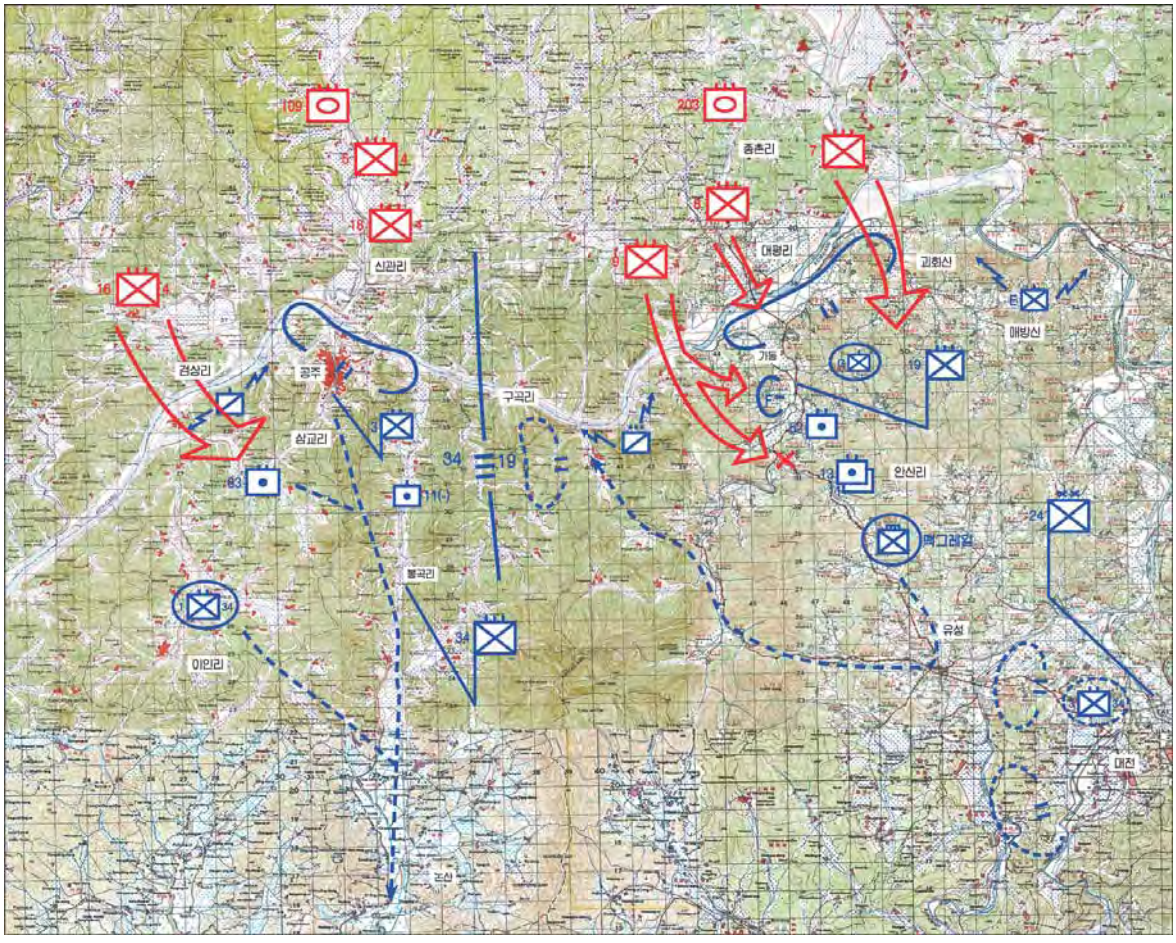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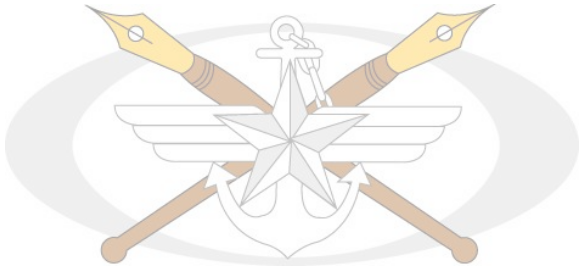
공주-대평리전투는 금강을 새로운 방어선으로 설정한 미 제24사단이 제34연대와 신예 제19연대를 공주와 대평리 정면에 각각 투입하여 북한군 제4, 제3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수행한 전투를 말한다. 그러나 미 제24사단은 금강이라는 천연장애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7월 14일과 16일에 각각 공주와 대평리에서 북한군의 후방 기습 교란에 의해 붕괴되어 하루 만에 금강방어선에서 철수하였다.<상황도 3-2 참조>

미 제24사단이 금강선에서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방어정면이 직선거리로만 약 30㎞로서 1개 사단이 방어하기에는 광정면이었다. 또한 제34연대는 그간의 전투손실로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새로 투입된 제19연대는 타 연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오랜 점령군 생활로 전투준비가 미비하였다. 그리고 제21연대는 전의-조치원전투에서 많은 전투피해를 입고 전투력을 보충할 여건이 되지 않아 사단예비로서 적시에 투입할 수가 없었다.

북한군 제4사단은 공주 북방에서 금강 도하공격 준비를 완료한 후, 7월 14일에 미 제34연대를 정면과 측방에서 공격하였다. 이때 1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은 서측방으로 은밀 도하 공격을 실시하여 검상리 일대로 도하하여 미 제34연대를 화력지원하는 제63포병대대 진지부터 기습 유린하였다. 그 결과 제63포병대대는 조기에 초토화 되어 전방부대에 대한 화력지원을 단 한발도 할 수가 없었다.

<상황도 3-2> 공주-대평리 전투(1950. 7. 14～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리고 앞서 전방 서측에 배치되었던 제3대대 L중대는 검상리 지역에서 측방으로 도하하는 북한군을 보고도 대대와 통신이 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방이 차단될 것을 우려하여 전방진지에서 무단으로 철수하였다.[3] 또한 후방에 예비로 집결되어 있던 제1대대는 뒤늦게 제63포병대대를 구출하기 위해 전방으로 기동하였으나, 날이 어두워지자 임무를 중단하였다. 이로서 제34연대는 적 공격 하루 만에 와해되어 논산으로 철수하였다.

북한군 제3사단은 대평리 북방에서 도하공격 준비를 완료한 후, 7월 16일에 미 제19연대를 정면과 측방에서 공격하였다. 즉 정면에서 소규모로 도하공격을 실시하여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에 대규모 부대는 서측방 공간지역으로 큰 규모의 부대가 도하공격을 실시하였다. 이들 도하한 병력은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연대 주보급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서 미 제19연대는 차단당한 보급로를 개척하기 위해 임시예비대를 편성하여 투입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후방에 위치한 사단장도 연대보급로를 개척하기 위해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여러 차례 투입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이는 하루 전 날 연대 예비대의 2/3 정도를 서측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투입하여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비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서 제19연대도 북한군의 공격 하루 만에 붕괴되었고, 병력들은 소규모부대 또는 각 개인별로 야간에 산악 소로를 이용하여 후방으로 철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34연대와 제19연대는 공주와 대평리 지역에서 금강이라는 천연적인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어진지 후방에서부터 적에게 유린당하거나 주보급로가 차단당함으로써 붕괴되었다. 이로써 미 제24사단은 딘 소장이 가장 중요시 여긴 금강 방어선마저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2) 피·아 전투전 상황

(1) 북한군 상황

북한군 제4사단은 오산 죽미령전투에서부터 평택, 천안, 전의전투에 이르기까

지 경부국도 축선을 따라 선두에서 계속 공격했으나, 7월 9일 전의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일단 전투에서 이탈하였다. 즉 북한군 제3사단의 초월공격을 지원한 후에 하루 동안 부대정비를 실시하고, 7월 10일에는 경부국도에서 분리된 23번 도로를 따라 정안-공주 방향으로 기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한 발 앞서 철수하고 있는 미 제34연대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며 7월 12일에는 공주 북쪽의 신관리 일대까지 진출하였다.[4]

북한군 제3사단은 수원에서부터 북한군 제4사단을 계속 후속하다가 7월 9일 전의에서 초월하여 7월 10일부터 전의전투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전의 및 조치원전투에서 미 제21연대를 공격하여 철수를 강요하였으나, 역시 자신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7월 12일 야간에는 금강 북안(北岸)의 종촌리 및 나성리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제3, 제4사단은 도하공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강(錦江) 상의 교량을 확보하지 못해 신속한 전과확대 및 추격작전은 할 수가 없었다.[5] 또한 계속되는 전투에서 5,000~6,000여 명의 병력 손실을 입어 부대정비가 필요하였고, 특히 7월 7일부터 계속된 미군의 공중공격으로 주간 행동에 제한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보급추진도 어려웠다. 그 결과 그들의 공격지속 능력은 점점 감소되었으며, 사기는 저하되었다. 이들 사단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병력과 장비를 보충 받아 도하공격 직전까지 병력은 60~80%의 수준으로 증강시켰고, 장비는 40~50문의 야포와 30여 대의 T-34 전차를 보유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미 지상군 상황

미 제24사단장은 먼저 투입되었던 제34연대가 7월 8일 천안전투에서 패배하자 차후 방어에 유리한 금강선에서 결전을 실시할 것을 결심하고, 이날 낮 중에 개별적으로 하달한 구두명령을 종합하여 "사단은 어떠한 손실을 무릅쓰고라도 금강선을 고수하려 한다"라는 요지의 작전명령 제3호를 21시 45분에 하달하였다.[6] 이 명령에 따라 금강 북쪽에서 제34연대는 7월 11일 오전에 공주 방향, 제21연대는 7월 12일 오후에 대평리 방향으로 지연전을 수행하면서 철수하여 금강선을

점령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북한군 제3・제4사단과 금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면서 방어준비에 착수하였다. 이어서 딘 소장은 대구에 있던 미 제19연대가 7월 13일 오전에 대평리 일대에 도착하자, 그 때까지 대평리 일대에서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미 제21연대와 교대시켰다. 이로써 사단은 전방연대로 제34연대와 제19연대가 배치되었고, 미 제21연대는 대전비행장으로 이동하여 사단 예비가 되었다.

한편 사단의 동측은 국군 제2사단이 청주 일대에서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으나, 서측은 어떤 부대도 배치되지 않은 방어 공백 상태였다. 더구나 사단의 서측 책임지역을 담당한 미 제34연대는 천안전투에서 지휘관 및 참모요원의 손실이 많았으나 보충되지 않아 부대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사단의 병력 수준은 매우 저조하였다.[7] 그러나 다행한 것은 미 제8군 전체가 한국에 투입하게 되었고, 이에 사령관인 워커 장군이 7월 13일 00시 01분부로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미 지상군 작전지휘를 맡게 되어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은 사단 지휘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8]

3) 피아 작전계획

(1) 북한군의 작전기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은 7월 6일 김일성의 연설에서 3단계 작전방침으로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여 금강과 소백산맥 줄기 계선을 유지하려는 미군의 기도를 파탄시키고 적의 기본집단을 대전과 소백산맥 줄기의 남동부에서 각개 포위 소멸함으로써 남해와 대구 방향으로 신속히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다"라고 발표하였다.[9] 이러한 방침에 따라 북한군 제1군단(군단장, 중장 김웅)은 천안-조치원-대전 축선의 돌파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북한군 제2・제3・제4사단을 대전일대로 집중시켜 미 제24사단과 이를 증원하는 부대를 포위 소멸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1군단은 제2사단을 동쪽의 청주-문의-대전방향으로, 제3사단을 대평리-유성-대전방향으로, 제4사단(을 그 서쪽의 공주-논산-대전방향으

로 우회 기동시켜 대전을 3면에서 포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7월 14일 실제 공격 시에는 북한군 제2사단의 진출이 늦어져 최초 계획을 수정하여 그들의 제3·제4사단만이 대전 포위공격에 가담하였다.[10]

(2) 미 제24사단 작전 복안

사단은 7월 13일의 정보판단에서 "북한군 제3·제4사단의 전투력 수준은 60~80%이며, 각 사단은 전차 5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군 제4사단은 공주 방향 도로를 따라 공격하고, 북한군 제3사단은 조치원에서 대평리 방향으로 공격하여 금강 교두보를 확보한 후에 대전을 분진합격(分進合擊)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군 제2사단은 청주에서 국군 제1군단을 공격한 후에 신탄진 방향으로 공격하여 대전 포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시하였다.[11]

사단장 딘 소장은 위와 같은 정보판단에 따라 조치원-대평리-유성 방향의 1번 국도 축선과 신관리-공주-논산 방향의 23번 도로 축선에 각각 1개 연대씩을 배치하되, 방어중점은 1번 국도 축선에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당시 미 제24사단장의 작전복안은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금강을 연하는 선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적을 저지하려 한다. ② 제19연대는 우일선(동측)으로 7월 12일 일몰시까지 대평리 부근을 점령하고 이를 고수한다. ③ 제34연대는 좌일선(서측)으로 공주 부근의 현진지를 계속 확보한다. ④ 제21연대는 제19연대에 전투정면을 인계한 다음, 대전비행장으로 이동하여 예비가 된다. ⑤ 사단 수색중대는 제34연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⑥ 전방 연대의 측방 전투지경선은 구곡천(공주 동쪽 4㎞)으로 한다. ⑦ 포병 제13대대: 제21연대 직접 지원, 포병 제52대대: 제13포병대대 화력증원, 포병 제63대대: 제34연대 직접 지원, 포병 제11대대(155밀리): 제13포병대대 화력증원, 그중 155미리 2문은 제63포병대대 화력증원, ⑧ 제78전차대대 A중대(-)는 대전시가와 비행장 경계에 임한다. 1개 소대는 제21연대를 지원한다. ⑨ 제26대공포대대 A포대는 비행장의 대공방어에 임한다. 1개 소대는 제21연대를 지원한다. ⑩ 사단지휘소는 계속 대전에 위치한다.』[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러한 사단장의 작전복안은 미 제19연대가 최초 계획보다 하루 늦은 7월 12일 저녁 무렵에 대평리 일대에 도착하여 원래 계획보다 하루 늦은 13일 09시 30분경에 제21연대로부터 방어 진지를 인수한 것 외에는 대부분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당시 사단장 딘 소장은 새로 투입된 미 제19연대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 연대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진지를 고수함으로써 '치카마우가(Chickamauga)의 바위'라는 별칭을 얻은바 있는 연대로서 명성이 높았기 때문이다.[13]

사단 예비인 제21연대는 대전비행장에 위치시켜 북동쪽의 전투상황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사단은 금강을 연하는 선에서 북한군의 도하공격을 저지하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지연전을 수행하면서 대전지역으로 철수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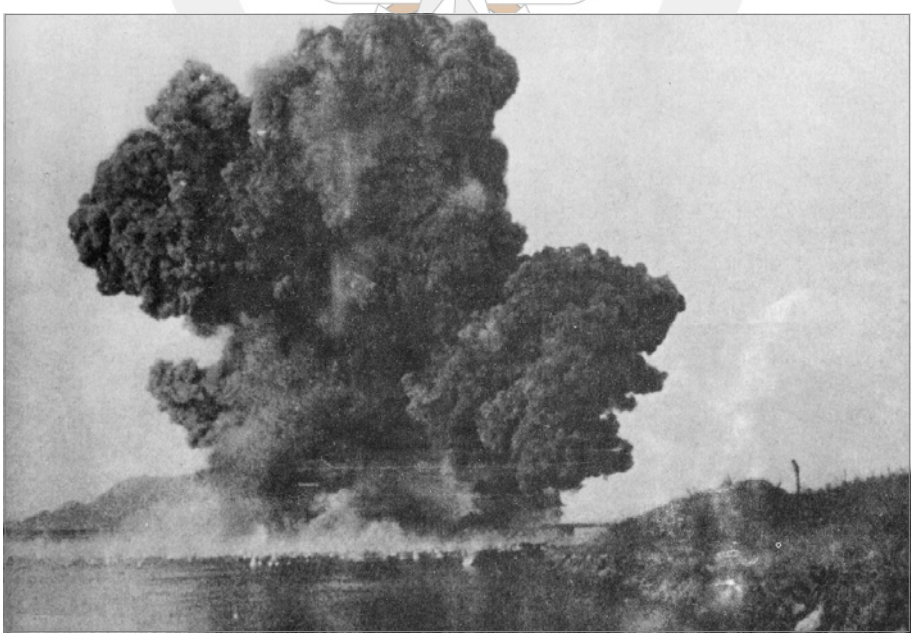
4) 미 제24사단 방어준비

사단의 방어책임 지역은 공주 서측으로부터 신탄진 일대의 경부 철교 동측까지로서 직선거리만으로도 30㎞가 넘으며, 강의 굴곡을 감안한다면 무려 48㎞가 넘는 광정면이었다. 따라서 사단장은 북한군의 도하공격이 예상되는 1번 국도(대평리 정면)와 23번 국도(공주 정면) 방향에 병력을 집중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때 병력들은 진지 구축 위주로 방어준비를 하였고, 철조망 및 지뢰지대는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14]

사단장은 먼저 하천선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도하수단을 모두 파괴하도록 하였다. 이에 7월 12일 주간에 사단수색중대가 공주에서 서쪽으로 약 26㎞되는 부여까지 강상에 있는 도선장을 수색하여 나룻배를 모두 파괴하였고, 이날 밤에는 공병부대가 공주 정면의 금강교를 폭파하여 경간 일부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7월 13일 04시를 기하여 신탄진에서 공주 정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교량을 일제히 폭파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날 대평리 정면의 금성교를 폭파하였고, 7월 15일에 신탄진 정면의 철교를 폭파시켰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폭파된 금강교(공주정면)



금성교 폭파(대평리 정면)

또한 대전으로 접근하는 금강 남쪽의 소하천 상의 모든 교량은 폭약을 장치하여 철수 후에 폭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사단 공병부대가 공주로부터 신탄진까지의 모든 도선장과 이곳에 있던 나룻배를 파괴하여 북한군이 활용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사단 포병들은 예상 도하지점에 제원기록사격을 실시하였고, 북한군 집결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란사격을 실시하여 공격준비를 방해하였다.[15]

당시 사단의 통신수단은 매우 미흡하였다. 대대급 이하에서는 통신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신장비가 있는 경우에도 배터리가 방전되어 사용할 수가 없어 전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미 제34연대는 작전지역의 특징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공주-유성도로의 일부가 적에게 노출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대전에 있는 사단과의 연락은 논산을 우회해야 하는 전령통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16]

다음은 전방방어지역을 담당한 미 제19, 제34연대 방어준비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1) 미 제34연대

연대 방어책임지역은 구곡천(공주 동쪽 4㎞)으로부터 공주 서측 검상리까지이며, 방어정면 직선거리는 약 10㎞가 넘었다. 이에 연대는 제3대대를 공주 정면에 배치하고, 제1대대를 예비로서 공주 남서쪽 10㎞되는 이인리 일대 지역에 배치하였다. 배속된 사단수색중대는 공주 서쪽 강안을 차장하도록 하였다. 연대를 직접 지원하는 제63포병대대는 삼교리(공주와 이인리 중간) 부근에 진지를 점령하게 하여 전방의 제3대대를 화력지원하고, 화력으로써 적의 도하를 저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연대는 공주 정면으로 적이 도하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지역에 병력을 중점 배치하였고, 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은 화력으로 적을 격멸하기 위해 화력계획을 수립하였다.[17]

공주 정면에 배치된 제3대대(대대장, Newton W. Lantron 소령)는 금강교 남쪽 1.5㎞되는 148고지에 대대지휘소를 두고, 예하 3개 중대는 강안을 따라 동쪽부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K, I, L중대 순으로 일렬횡대로 배치하였다. 대대의 방어정면은 동(東)으로 구곡천에서 서(西)로 웅진(곰나루)에 이르기까지 6㎞에 달하였고, 병력이 부족하여 공주-논산 도로에서 동쪽으로 구곡천까지 1.5㎞ 간격에는 병력을 배치하지 못하였다. 예하 중대 병력은 모두 편제 인원의 반으로 감소한 상태여서 병력 보충이 시급하였다.[18]

연대에 배속된 사단수색중대는 검상리(공주 남서쪽 5.5㎞)에 거점을 두고, 강의 남안을 따라 한산(공주 서쪽 2㎞)으로부터 대학리(검상리 서남쪽 7㎞)에 이르는 10㎞ 정면에서 서측방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를 직접지원하는 제63포병대대는 삼교리 부근에 진지를 점령하였고, 제11포병대대 155밀리 곡사포 2문은 봉곡리(삼교리 동쪽 4.5㎞) 부근의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들은 임무를 분담하여 제63포병대대는 공주에서 검상리에 이르는 예상 도하지점에 대한 사격제원을 산출하고, 제11포병대대 2문은 공주 전방의 예상 도하지점에 대한 사격제원을 산출하여 화력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였다.[19]

제34연대가 당시 방어준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손실된 병력 및 장비에 대한 보충이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다. 그 결과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제3대대 K중대원은 7월 13일 밤에 모두가 극도의 심신쇠약으로 전투능력을 상실하여 사단장의 허가를 얻어 중대원 전부가 대전으로 후송되었다. 그리고 손실된 주요지휘관 및 참모가 보충되지 않아 대리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7월 8일 천안전투에서 연대장 마틴(Robert R. Martin) 대령이 전사하고, 제3대대장 스미스(David H. Smith) 중령이 탈진하여 후송한데 이어, 제63포병대대장 도우손(Robert H. Dawson) 중령마저 일사병으로 쓰러져 후송되었고, 그리고 연대의 정보 과장과 작전과장이 그간의 겹친 피로로 말미암아 혼수상태로 후송되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부대가 부지휘관으로 교체되고 연대 주요참모마저 공석으로 그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더구나 K중대까지 진지에서 철수함으로써 결국 제3대대의 2개 중대로써 적 1개 사단규모의 도하를 저지하는 셈이 되었다.[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미 제19연대

연대의 방어 책임지역은 서측으로 구곡천(공주 동쪽 4㎞)으로부터 동측으로 신탄진까지이며, 직선거리가 약 22여 ㎞이고 강안을 따라 곡선거리는 30㎞가 넘는 광정면이었다.[21] 연대는 먼저 도착한 타 연대와 마찬가지로 2개의 대대만 보유하고 있어 전투력 발휘에 제한이 많았다. 따라서 연대는 광정면인 점과 병력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예상도하지점 위주로 병력을 중점 배치하기로 하였다. 즉, 적의 주 공격방향으로 예상되는 대평리 일대에 제1대대(대대장, Otho T. Winstead)를 배치하고, 제2대대(대대장, Thomas M. McGrail)는 예비로 종심지역에 배치하되 일부 병력으로서 좌우 측방의 경계부대로 운용하였다. 또한 연대를 직접지원하는 제52포병대대(장, Miller O. Perry 중령)를 두만리 부근에 진지를 점령하도록 하고, 이들은 제13포병대대장 스트래턴(Charles W. Stratton) 중령의 통제하에 전방의 보병대대를 화력지원하게 하였다.[22]

제1대대는 지휘소를 가동에 설치하고, C중대를 괴화산에, A중대를 석삼리-금성교 사이의 제방에, B중대를 금성교-성덕리에 배치하였다. 연대의 4.2인치 박격포 중대는 장재리(괴화산 남쪽 1㎞)와 윗말(발산리 동북쪽 1㎞) 부근에 각각 1개 소대씩 진지를 편성하여 전방의 보병부대를 지원하게 하였다.

제2대대는 B·C중대를 제1대대 종심지역에 배치 운용하고, E중대는 동측방 공간지대인 매방산에 경계거점을 두고, 신탄진부터 초오개까지 경계를 담당하였다. 제2대대 작전과(S-3) 요원인 몬테스클로스(Melicio Montesclaros) 대위는 연대 정보수색소대(I & R)와 공병 1개 소대, 그리고 제13포병대대 B포대를 통합 지휘하여 연대 서측 전투지경선 부근의 구곡천으로부터 마암리까지 경계임무를 담당하였다.[23] 이러한 진지편성은 워낙 광정면인 관계로 동측의 C중대와 E중대의 사이에는 6㎞ 이상의 공간지대가, 서측의 B중대와 연대 수색소대 사이에 4㎞되는 공간지대가 발생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전투경과

1) 공주전투

(1) 제3대대 전방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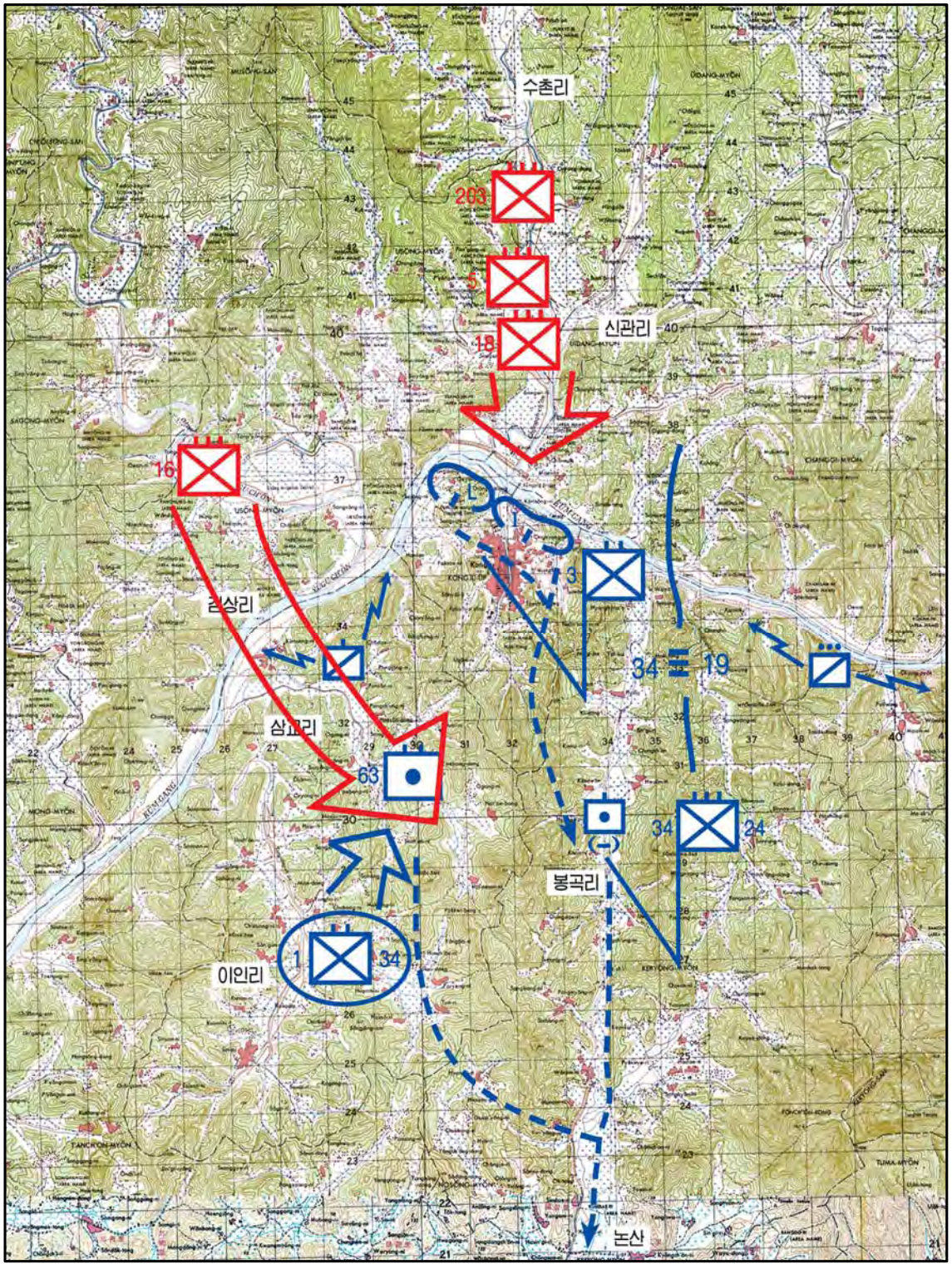
7월 14일은 미 제34연대(장, Robert L. Wadlington 중령)가 6·25전쟁에 참전한 지 10일째 되는 날이었다. 날이 밝자 밤사이 내리던 비가 멎고 하늘은 푸르렀다. 이날 06시부터 북한군 제4사단은 금강교 동쪽의 산성터에 진지를 점령한 I중대 지역에 전차포인 듯한 포화를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금강교 서쪽의 웅진(熊津) 부근에 위치한 L중대 진지 상공에는 포병화력을 집중하였다. 이때 적 포병사격은 시한포탄으로 폭발고도가 높아 실제로 살상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24] <상황도 3-3 참조>

그로부터 얼마 뒤에 L중대지역에서는 남서쪽의 검상리 나루터에서 30여 명이 승선할 수 있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도하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들은 08시에서 09시 30분 사이에 500여 명이 도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북한군이 공주 정면에 포병화력을 집중하여 관심을 유도한 다음에 측방으로 우회 도하를 기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L중대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도하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대대와 통화할 수 있는 SCR-300과 SCR-536 등 무전기는 건전지가 방전되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중대는 사실상 대대와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오전을 보내게 되었다.[25]

북한군의 포병사격은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져서 진내(陣內)의 L중대원들은 머리를 들 수 없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적 도하가 끝난 10시 전후에 중대장 스티스(Stith) 중위는 대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미 후방으로 적이 도하한 상황에서 진지를 고수한다는 것은 적의 포위망에 빠지게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독단으로 철수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11시가 채 못 되어 웅진 부근의 중대방어진지에서 철수하여 공주읍내를 지나 산간 소로를 타고 봉곡리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3-3> 공주전투(1950. 7. 14～15)



목표로 이동하였다. 오후 늦게 중대장이 봉곡리 부근에서 대대장 랜트론(Lantron) 소령을 만나 중대의 철수경위를 보고하자, 대대장은 중대의 무단철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스티스 중위를 중대장직에서 해임하였다.[26]

금강교의 동쪽 산성터 진지를 지키던 I중대는 적의 포병사격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오까지 그대로 진지를 유지하고 있었고, 대대본부와는 일체의 통신이 두절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남쪽의 148고지 부근에 배치되었던 M화기중대원 몇 명이 달려와 "북한군이 이미 후방의 공주-부여 도로를 차단하였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중대장 힉스(Hicks) 중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지만, M중대원의 제보를 반신반의하면서 그대로 진지에서 버티기로 작정하였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정면에서는 적의 도하기도가 별로 보이지 않았고, 검상리로 적이 도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대대로부터의 별다른 명령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 중대가 다시 밤을 새울 준비를 하던 중인 21시 30분경에 연대에서 "봉곡리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전달되어 중대는 야음을 이용하여 남동쪽 산간으로 빠져 봉곡리에 있는 연대본부에 합류하였다.[27]

(2) 제63포병대대의 피습

전방에 배치된 제34연대 제3대대에서는 7월 14일에 적의 포병 및 전차 사격을 받았으나 북한군 보병부대의 공격을 받지는 않았다. 반면에 후방지역인 삼교리 일대의 제63포병대대(대대장, William E. Dressler 소령)에서는 검상리로 도하한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큰 혼란이 있었다.

당시 제63포병대대는 삼교리 일대에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A포대, 본부포대, B포대, 근무포대 순으로 도로를 따라 배치시켰다.<상황도 3-4 참조> 이때 포병대대는 제34연대지휘소와는 통신망이 유지되었으나 전방의 제3대대와는 아무런 통신수단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병대대는 이날 아침에 공중 관측하던 포병관측연락기로부터 "적 병력이 2척의 작은 배를 타고 검상리로 도하 중이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포병대대 작전장교 바-터(Charles T. Barter) 소령은 보다 유효적절한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반면에 봉곡리 일대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11포병대대의 155밀리 곡사포 2문은 포병관측연락기로부터 똑 같은 내용을 무전으로 연락받고 적 도하선박에 대해 포격을 가하였다. 이마저 잠시 후에 나타난 북한군의 야-크(YAK)전투기로 말미암아 포병관측연락기가 이 지역에서 철수함으로써 사격유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28]

북한군 도하병력들은 미군의 포병화력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강 남쪽의 구릉지대를 확보하였다. 이들은 바로 앞서 전방에 배치된 L중대가 목격한 그 도하병력이었다. 이들은 1개 대대규모에 달하자 일부병력으로 먼저 검상리에 있는 사단수색중대 진지를 북동쪽으로 우회하여 수색중대와 포병대대 사이의 유선을 절단하고 삼교리의 포병진지를 향해 이동하였다.

제63포병대대 지휘소에서는 13시경에 처음으로 이들을 발견하였다. 삼교리 북쪽 1㎞ 지점에 있는 무명고지(표고 190m 정도)에 배치된 대대관측소로부터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일단의 병력이 현재 서쪽으로부터 관측소를 향하여 접근 중"이라는 보고를 받음으로서 인지하게 되었다. 이때 대대지휘소에서는 관측소 경계병에게 "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사격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이 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그들이 먼저 대대관측소의 기관총진지를 유린하고, 본부포대를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 다음이었다. 따라서 본부포대원이 적 출현 경보를 울렸을 즈음에는 이미 적의 박격포탄이 본부포대에 집중되어 교환대가 파괴되고 각 포대와 통신이 두절되었으며, 대대사격지휘 무전차량 등도 파괴되어 대대는 통신수단을 모두 잃었다. 또한 탄약을 적재한 트럭이 피격되어 포탄의 연쇄폭발로 본부포대는 미처 어찌할 수 없이 매우 급작스러운 사이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였다.

이런 가운데 적 기관총이 삼교리 마을의 한 민가에 자리 잡은 대대사격지휘소 건물에 집중되어 양쪽의 출입구를 봉쇄하였다. 그 안에 있던 대대장 드레슬러(Dressler) 소령이 교통호 속으로 응급대피 하는 등 지휘체계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병사들은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각자 포대를 이탈하여 남쪽에 위치한 근무포대를 향하여 도망가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대대장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다.[2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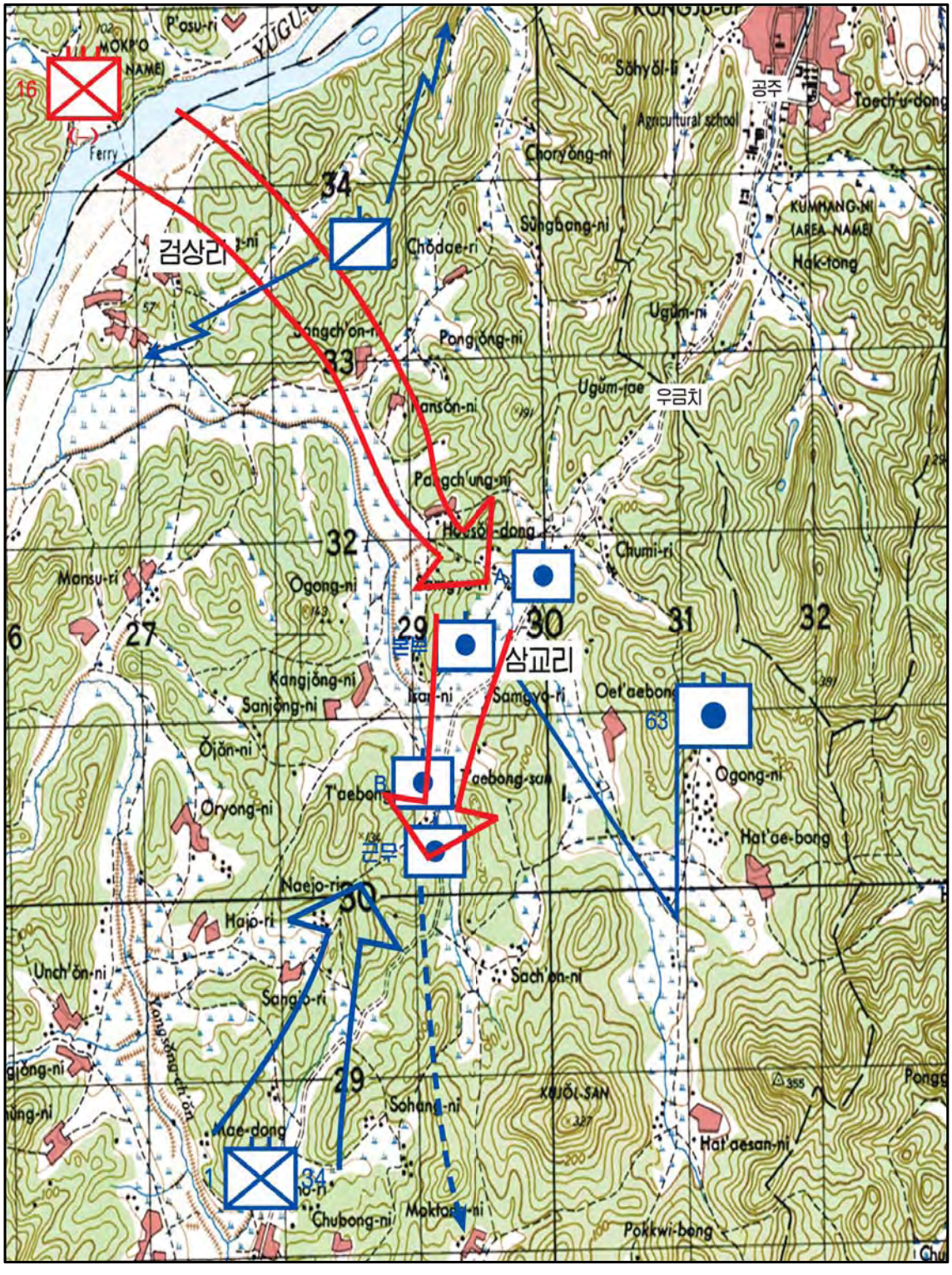
본부포대가 적의 기습을 받아 혼란에 빠져 있을 무렵에 그 북쪽 약 220m 정도 떨어진 곳에 A포대도 적으로부터 기습사격을 받았으나 포대원의 소화기사격으로 격퇴하였다. 그러자 물러났던 적들은 먼저 집중적인 박격포 사격으로 A포대 진지를 혼란스럽게 만든 후에 보병병력들이 재차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포대장 사우더랜드(Lundel M. Southerland) 대위가 전사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이와 같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급작스럽게 전개되자, 나머지 포대병력들은 전포를 미처 파괴하지 못한 채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로서 불과 1시간 동안 진행된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제63포병대대 A포대와 본부포대의 진지는 완전히 유린되었다.

북한군은 검상리로 도하한 병력이 약 400여 명으로 증강되자, 14시 15분경에 남쪽의 B포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주력은 본부포대진지로부터 남으로 도로를 따라 공격하고, 일부 병력은 포대의 남쪽으로 우회하여 B포대와 근무포대 사이에 있는 태봉리 마을 부근에 기관총을 설치하여 위협사격으로 후방을 차단하였다. 이에 포대장 스타헬스키(Anthony F. Stahelski) 대위는 포대의 기관총 2정을 북쪽의 적 방향에 배치하여 공격을 막는 한편, 남쪽의 적 기관총 진지를 파괴함으로서 퇴로(退路)를 개척하고자 모색하였다. 그러나 차단된 남쪽의 도로는 쉽사리 뚫리지 않았다. 반면에 적 박격포 사격의 집중으로 포 2문과 무전 지프 1대, 그리고 2.5톤 견인차 1대가 파괴되는 등 손실이 급증하였다. 이에 포대장은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15시에 포대에 철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도로 일대에 집중된 적 박격포 사격으로 말미암아 포차를 견인할 수가 없어 나머지 포 3문에 대해서는 공이와 조준장치를 제거한 후에 유기하였다. 그리고 부상병을 수습하여 동쪽으로 빠져 공주-논산 도로 상에 있는 봉곡리로 이동하였다. 한편 B포대 남쪽에 위치하고 있던 근무포대는 적이 공격하기 전에 병력을 수습하여 봉곡리로 철수함으로서 병력을 온전히 보존하게 되었다.

미 제63포병대대는 저녁 무렵에 가까스로 논산에 집결하게 되었다. 이날 불과 1시간 30여 분 동안에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A포대 및 B포대는 105미리 야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3-4> 제63포병대대 피습(1950. 7. 14)



10문과 탄약 적재를 포함한 차량 60~80대를 잃고, 11명의 장교와 125명의 사병이 실종되는 참상을 보게 되었다. 특히 A포대의 포 5문은 미처 파괴할 겨를도 없이 탄약과 함께 고스란히 진지에 남겨 두고 철수함으로써 적이 이를 역이용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뒷날 북한군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이날 제63포병대대를 공격한 부대는 북한군 제4사단 제16연대로서 삼교리 부근에서 86명의 미군을 포로로 잡고, 105밀리 곡사포 10문과 기타 총화기류 17정, 그리고 차량 86대와 포탄 다수를 노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과적으로 포병대대는 포구방향을 북쪽으로 향하여 공주 정면에서 적 주 병력도하가 시작되기만을 학수고대(鶴首苦待)하다가 느닷없이 서쪽에서 나타난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30]

(3) 국군 기병중대 증원 실패

국군 기병중대는 7월 12일 밤에 공주 북방에서 유구 전투를 치르고 공주로 복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미 공주의 금강교가 끊어져 있어서 금강 서안(西岸)을 따라 밤새도록 말을 달려 13일 아침에 부여 대안(對岸)지역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배를 구하여 부여로 건너왔다.[31] 그때 기병중대는 부여에서 공주로 가는 도중에 강안(江岸)정찰을 나왔다가 길을 잃은 미군 6명을 만나 함께 제63포병대대가 위치하고 있던 삼교리로 갔다. 기병중대는 그 부근에 포병진지가 있고, 서쪽 강변에는 미군 수색중대와 공주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우금치 남쪽에 중대본부를 두고, 우금치 서쪽 고지에 경계 병력을 배치하였다.

그 후 7월 14일에 기병중대는 점심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서쪽 고지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았으나 공격하여 격퇴하였다. 그리고 삼교리의 제63포병대대 B포대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을 보고, 포대를 구출하려고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포대가 아수라장이 된 뒤여서 적의 후방을 공격하여 포대와 합세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적을 격퇴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포대와 함께 그곳에서 철수하고 말았는데, 철수시에 중대의 말(馬)에 미군 부상병을 싣고, 기병중대의 병사들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걸어서 봉곡리를 거쳐 논산으로 이동하였다. 얼마 후에 미군 부상병들은 도로가에 대기하고 있던 미군 차량들을 타고 갔다. 그리고 기병중대는 논산으로 집결하여 그날 밤을 보낸 뒤에 7월 15일에 미 제34연대의 지휘에서 벗어나 여산-전주로 이동하여 서남지구 전투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32]

(4) 제1대대 역습 실패, 논산으로 철수

제34연대장 웰링턴(Wadlington) 중령은 7월 14일 10시 25분경에 사단장 딘 소장으로부터 "귀 연대는 적이 도하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지연진지를 선정한 다음, 축차진지에서 지연전을 감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33] 이에 연대장은 적의 도하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에 제1대대와 제3대대로써 공주-논산-대전도로를 따라 축차진지에서 지연전을 펴기로 구상하였다. 즉시 그는 연대지휘소를 공주읍내에서 봉곡리로 이전하여 지연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지연진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논산 부근에 직접 지형정찰에 나섰다. 그 후에 현지정찰을 끝내고 15시경에 봉곡리(鳳谷里)의 연대지휘소로 복귀하였다.

연대장은 15시 30분경에 삼교리(三橋里)에서 철수한 제63포병대대원으로부터 대대의 피습상황을 처음으로 보고받게 되었다. 이에 크게 놀란 연대장은 이인리(利仁里)에 집결하고 있던 제1대대장(Harold B. Ayres 중령)에게 "대대는 즉시 삼교리로 진출하여 적을 격멸하고, 포병진지의 병력과 장비를 구출하라. 단 일몰 전까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논산으로 철수하라"는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제1대대는 17시가 지나서야 이인리(利仁里)의 집결지를 출발하여 도로를 따라 제63포병대대 집결지를 향하여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동 중에 별다른 접적이 없었으나, 최초 근무포대 진지로부터 남쪽 100여m에 이르렀을 때에 도로 양측의 길목을 지키고 있던 적의 기관총과 자동화기의 사격을 받게 되었다. 제1대대는 곧 전투태세에 돌입하였으나 이미 황혼 무렵이 되었으므로 "일몰 전까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논산으로 철수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상기하며 포병진지 회복을 단념하고, 이인리(利仁里)의 최초진지로 철수한 다음, 그곳에서 차량편으로 부여를 거쳐 논산으로 철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대대장 아이레스(Ayres) 중령은 연대장으로부터 출동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포병대대의 피습상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훗날 술회하였다. 그러나 포병대대의 통신장교인 스타링(Herman W. Starling) 중위는 14시를 전후하여 그가 제1대대 지휘소로 가서 포병대대의 위급함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다. 여기서 포병대대와 제1대대 사이에 유무선 통신수단이 전혀 없었던 것도 문제였지만, 포병대대 통신장교가 직접 제1대대에 전파한 내용도 어떤 까닭으로 대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나 지휘체계상의 큰 문제점임에 틀림없었다.[34]

이와 같이 제34연대의 공주 방어선은 전방 방어진지보다도 후방의 포병진지가 먼저 유린당함으로써 맥없이 와해되고 말았다. 이날(7월 14일) 저녁에 공주에서 논산으로 철수한 제34연대는 15일 아침에 논산으로부터 도로를 따라 6㎞ 동쪽의 마구평리(馬九坪里)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35]

북한군 제4사단은 14일 낮에 포병진지를 유린한 제16연대에게 그날 야간 중에 공주를 점령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5일 아침부터 나룻배를 수집하여 주력의 도하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들의 전차 등 중장비는 미 공군 전폭기의 공격 때문에 낮 동안에는 강을 건너지 못한 듯 하였다. 이러한 중장비의 도하에 시간이 소요된 까닭에서인지 북한군은 15일 저녁 무렵에야 공주로부터 논산가도를 따라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34연대는 마구평리 진지에서 종일토록 북한군과의 접촉이 없는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이후 7월 16일에 주일 미 제7사단 제32연대장인 보챔프(Charles E. Beauchamp) 대령을 새로이 연대장으로 맞이하였고, 이날 저녁에 마구평리 부근의 진지에서 논산-대전 가도를 따라 갑천방어선으로 이동하였다.

(5) 사단장의 조치

제24사단장 딘 소장은 약화된 제34연대 전투력수준을 고려할 때에 금강이라는 천연장애물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진지고수만을 고집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7월 14일 아침에 딘 소장은 제34연대로 하여금 축차진지를 선정하여 지연전

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4연대장은 지연진지 선정을 위한 현지 정찰을 위해 지휘소를 출발하였다. 그러나 연대장이 지형정찰을 실시하는 동안 전방대대와 후방의 포병진지가 적에게 유린당함으로써 사단장의 조치는 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전투 중에 연대장이 지휘소를 비움으로써 예비대의 투입 등 즉각적인 조치에 제한을 초래하였다.

딘 소장은 제34연대가 패퇴하여 철수하고 있는 상황인 7월 14일 16시 40분경에 사단의 전반적인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 각급지휘관에게 "사단은 곧 재강화될 것이다. 아직도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상황은 나쁜 편이 아니다. 부대간의 협조를 유지하고, 정찰을 강화하라. 현진지를 계속 확보하여 적을 격퇴하라"고 지시하는 등 격려하였다.[36]

또한 딘 소장은 15일 아침에 유기한 제63포병대대의 장비들은 항공폭격으로 파괴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항공폭격은 유기된 아군의 야포뿐만 아니라 금강 상에 있는 보-트나 전차 및 병력 등에 대해 이날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 맹폭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날 낮 동안은 북한군 제4사단의 소규모 병력만이 도하하여 논산에 도착하였다.[37]

2) 대평리전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19연대는 7월 12일 저녁에 대평리 일대에 도착하여 13일 09시 30분경에 방어책임지역을 미 제21연대로부터 완전히 인수받았다. 따라서 연대는 북한군의 공격이 임박한 상태에서 방어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방어정면이 30㎞가 넘는 광정면(廣正面)이었기 때문에 병력 배치도 적의 예상 도하지점인 대평리 일대에만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기타 지역은 경계 병력만 배치하였거나 아예 병력을 배치하지 못했다.<상황도 3-5 참조>

인접부대인 미 제34연대가 공주 정면에서 북한군 제4사단으로부터 전면적인 공격을 받던 7월 14일에 미 제19연대 방어지역에 대한 북한군 제3사단에 의한 전면적인 공격은 없었다. 단지 북한군 전차들이 금강 북쪽의 제방을 이용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13시경에는 방어진지를 향하여 사격을 가하였다. 미 공군은 북

한군 전차들이 엄폐하기 전에 항공 폭격을 실시하였으나 이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는 없었다.

(1) 연대예비대 조기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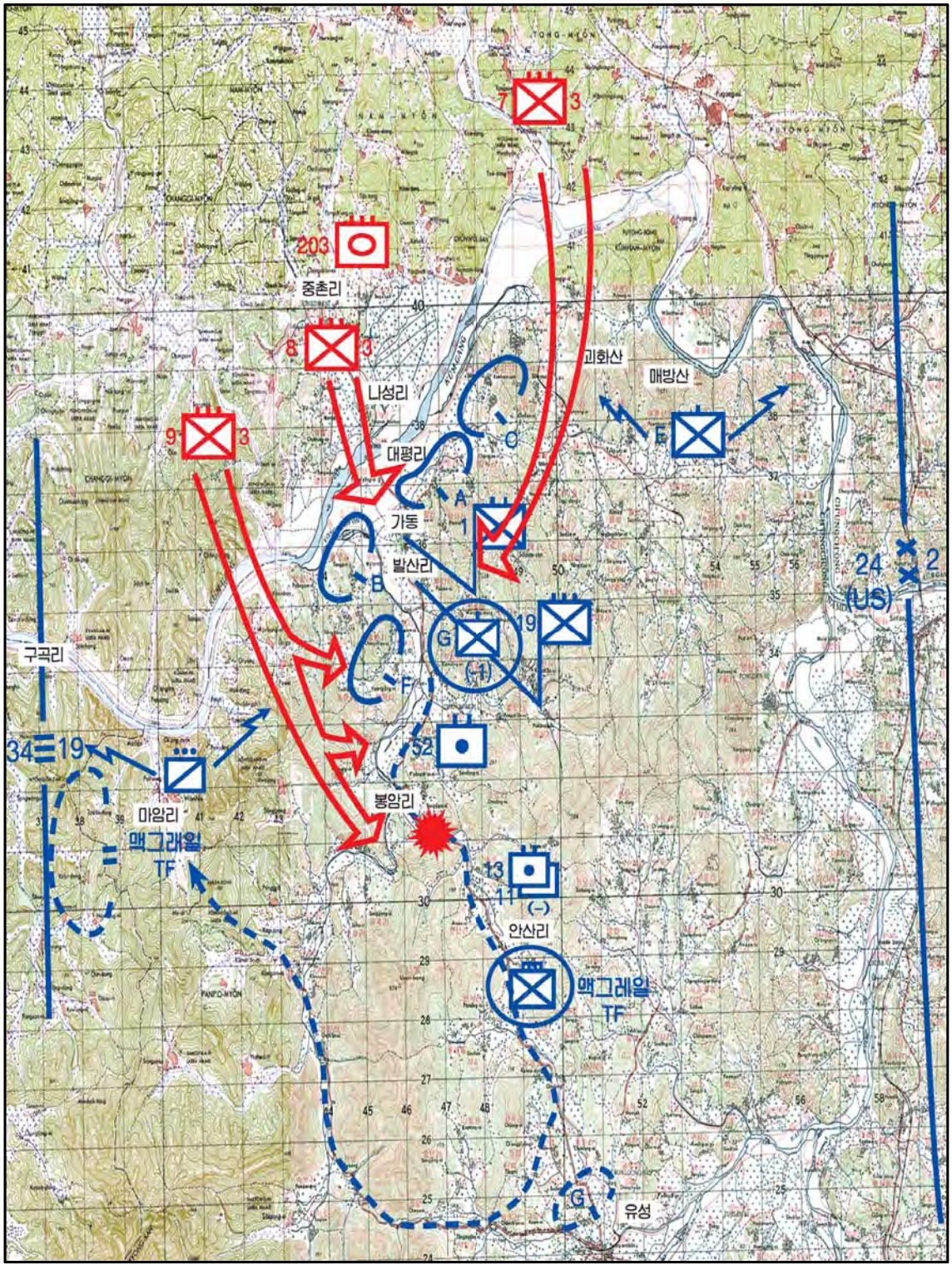
미 제19연대는 7월 14일 오후에 사단의 서측 지역을 담당한 미 제34연대가 붕괴되고 공주가 적에게 피탈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로써 연대는 서측방이 완전히 노출되었고, 서측방에 대한 경계부대의 보강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대장은 7월 15일 07시경에 서측방에 경계부대로 배치된 연대정보수색소대로부터 일단의 북한군들이 진지정면에서 도하를 시도하고 있고, 이에 근접항공지원에 의한 공중공격과 기관총 집중사격으로 도하하는 적 부대를 격퇴시켰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소대를 지휘중인 몬테스클로스 대위로부터 "북한군들이 제34연대 지역을 장악하고, 소대 진지 측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로써 서측방 경계부대는 북쪽과 서쪽, 양면의 적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었다.

연대장 멜로이(Meloy) 대령은 그 시각에 다른 정면에서는 적의 도하 징후가 보이지 않으므로 측방 위협에 대한 조치가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2대대장 맥그레일(Thomas M. McGrail) 중령에게 "대대의 예비 중에서 일부 중대를 차출하여 측방으로 투입하고, 그곳에 배치된 연대정보수색소대를 통합 지휘하여 현 진지를 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아울러 연대본부에서 보유중인 제78전차대대의 M-24 경전차 2대와 제26대공포대대의 M-16반궤도차(Cal 50대공포 4문을 장비) 2대를 긴급 증원하였다.[38]

대대장 맥그레일 중령은 G중대와 H중대의 기관총 1개 소대 및 81밀리 박격포 1개 반, 그리고 연대에서 지원한 전차와 대공포를 이끌고 유성에서 공주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신속히 이동하였다. 그곳에 원래 배치되어 있던 정보수색소대와 공병 1개 소대, 포병 1개 포대까지 통합지휘함으로써 '맥그레일(McGrail)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 이와 같이 연대예비의 2/3에 해당하는 병력을 측방으로 투입함에 따라 연대의 예비는 배치된 F중대밖에 남지 않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3-5> 대평리전투(1950. 7. 16)



(2) 북한군 도하공격

북한군 제3사단 병력들은 7월 15일 하루 종일 대평리 정면에서 도하공격을 위한 준비만 하였다. 이들은 미군의 지속적인 공중공격으로 중장비를 이동시킬 수가 없었고, 병사들은 서서히 공중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여 사기가 저하되었다. 따라서 정치장교들은 대전을 탈취했을 때에 긴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저하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 제19연대장 멜로이(Guy S. Meloy) 대령은 7월 15일 날이 어두워지면 북한군이 반드시 도하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각 대대에 야간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리고 공중공격과 지원야포 및 박격포로써 적 집결 예상 지역 위주로 포격하여 그들의 병력 집결을 방해하였다.[39]

멜로이 대령이 예상한 대로 황혼 무렵에 북한군 전차들이 전방에 배치된 제1대대 진지에 포격을 가함과 동시에 야간 도하공격이 시작되었다.[40] 가동(佳洞)에 위치한 대대지휘소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 본 제1대대장 윈스테드 중령은 공중공격을 요청하여 적의 화력을 제압하도록 하였다. 이에 잠시 뒤에 출격한 전폭기 2대가 적의 상공에 이르자 적 전차 2대는 재빨리 숲 속으로 도주하고 노상에 남아 있던 1대가 공중공격을 받아 격파되었고, 적 포병사격이 침묵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투기가 기지로 사라지자, 북한군들은 보병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나성리 정면의 강변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어둠이 짙어가자 도하를 시작하였는데, 일부 병력은 총기 및 장비를 머리에 얹고 목 부분까지 잠기는 수중으로 도섭을 하기도 하고, 다른 일부 병력은 끊어진 금성교에서 물 속으로 뛰어들어 수영으로 건너기도 하였다. 이에 제1대대는 강변 제방에 추진 배치한 D중대의 무반동총과 기관총이 강을 반쯤 건너오던 적 병력에 대해 동시에 집중사격을 실시하여 괴멸시켰다. 일부 살아남은 적들은 전차포의 엄호 아래 강을 되돌아가거나 그대로 남쪽 강안 하상에 올라붙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쪽 괴화산(200고지)의 C중대에서도 일단의 적 병력이 정면에서 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을 포착하고, 박격포중대의 화력지원과 중대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도하공격을 두 차례나 격퇴시켰다. 이리하여 7월 15일 저녁 무렵에 대평리 정면에서 시도된 적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첫 번째 도하공격은 실패로 돌아갔다.[41]

북한군의 야-크(YAK)전투기 1대가 7월 16일 03시경에 고요에 잠긴 금강 상공에 나타나 조명탄을 투하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공격개시 신호인 듯 적 포병공격준비사격이 연대지휘소와 전방대대 진지에 집중되었다.[42] 이와 같은 강력한 포병 화력의 엄호아래 북한군은 작은 배와 뗏목을 이용하여 도하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적은 도섭과 수영으로 도하하기도 하였다.

미 제19연대는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북한군의 야간도하공격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즉 연대는 조명탄을 쏘아 올려 수면을 대낮같이 밝히는 가운데 제13·제52·제11포병대대(-) 등 3개 포병대대 30여 문의 105미리 및 155미리 곡사포와 연대 박격포중대의 4.2인치 박격포 8문을 비롯한 각종 중화기와 소화기로써 빈틈없는 화망을 구성하여 도강하는 적을 닥치는 대로 격멸함으로써 강 남쪽으로 접안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전투상황에서 결정적인 사태를 야기하게 하는 뜻하지 않은 불행한 사태가 돌발하였는데, 즉 적의 움직임을 낱낱이 밝혀주던 조명탄이 20여분 동안이나 조명지원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강 위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덮이게 되었으며, 미군의 현대식 포병은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반면 북한군 도하병력들은 그 호기를 틈타 속속 남쪽 강안에 올라붙게 되었다. 이로서 적들은 극히 불충분한 장비로써 강행도하에 성공하였다.[4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들은 주로 제1대대 동측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C중대 진지를 먼저 공격하였다. 이들은 미호천이 금강과 합류하는 합강리(괴화산 동북쪽 3.5㎞) 부근에서 강을 건너 C중대와 E중대 사이의 간격으로 우회하였다.[44] 당시 C중대는 괴화산 정상에 중대본부를 두고 북쪽 강변을 향하여 3개 소대를 횡으로 배치하고 있었는데, 동쪽으로부터 달려든 적의 기습공격을 네 차례나 물리쳤다. 그러나 계속되는 적의 공격에 소대장 매허(Maher) 중위가 머리에 경기관총탄을 맞아 전사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여 진지가 무너지고 말았다. 이에 소대 선임하사관이 12명의 소대원을 수습하여 중대본부로 철수하였는데, 중대장은 이들을 수용하여 고지 정상의 진지를 강화하였다. 그런데 적은 더 이상 중대를 공격하지 않고, 고

지의 남동쪽으로 돌아 장재리(長在里)의 중박격포진지로 공격방향을 전환하였다. 즉 적들은 괴화산 일대에 배치된 중대주력을 우회하여 그 배후부터 공격하고자 기도하였다.

이와 동시에 북한군들은 제1대대의 서측방에서도 강행도하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이에 용수천 서쪽 능선에 배치된 B중대(중대장, Monroe Anderson 대위)는 새벽의 어둠이 걷히자 북서쪽 강안으로 적 병력들이 무기와 보급품을 머리에 이고 20~30명씩 무리를 지어 강을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때 이미 300~400명의 적들은 중대진지의 남서쪽 1.5㎞되는 지점의 한 능선을 점령 중에 있었다.[45] 이에 중대장 앤더슨 대위는 그러한 적정을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그들에 대해 포병 제압사격을 요청하여 포격을 집중하였으나, 야산지대라 포병사격의 효과는 미미하였다. 그들 일부는 나뭇가지로 위장한 채 그곳에 계속 엎드려 있는가 하면, 일부는 남쪽으로 뻗은 능선을 따라 이동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군들은 06시가 지나면서 중앙정면에 압력을 가중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파괴된 금성교의 교각을 엄폐물로 삼아 수영과 도섭으로 강을 건너 남쪽 하상에 올라붙게 됨으로써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전차포의 엄호아래 08시경에는 A중대의 서측진지 일부와 B중대의 우측진지를 유린하고 이어 가동(佳洞)의 대대지휘소를 위협하였다. 이에 대대장 윈스테드(Winstead) 중령은 지휘소를 연대지휘소가 있는 발산리로 일단 철수시켰다. 그 후 가동의 대대지휘소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자, 연대장은 연대 본부중대의 일부병력을 포함하여 예비로 확보중인 M-24경전차 1대와 M-16 반궤도차 1대를 급히 뽑아 제1대대를 지원하도록 긴급 조치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받은 대대장은 대대본부와 연대본부중대의 전 장교를 위시하여 취사병과 운전병 등 기술병들과 경계소대 병력들로써 임시예비대를 급편한 다음, 부대대장 쿡(John M. Cook) 소령으로 하여금 이 부대를 지휘하여 역습하도록 하였다. 이에 쿡 소령은 발산리에서 북쪽 가동을 목표로 역습을 감행하여 혈전을 벌인 끝에 09시경에 가동을 다시 회복하고 잔적을 강 건너로 격퇴시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역습 중에 쿡 소령과 대대 인사장교인 해켓(Alan Hackett) 대위가 전사하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연대장은 과감한 역습으로 방어진지 깊숙이 침투한 적을 격퇴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게 되자, 그동안의 전황을 사단장에게 보고하면서 일몰시까지는 현진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일몰시까지 현진지를 고수한 다음 일몰 후 유성 동쪽의 갑천 제방에 새로운 저지진지를 점령하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의 전황은 연대장이 판단한 것과 같이 낙관적이지 않았다.[46]

연대장은 다시 제1대대장을 불러 일몰까지의 진지고수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였을 때에 대대장은 "방어정면에서 공격하는 적은 막아낼 수 있으나, 이미 방어진지 후방으로 침투한 적에 대해 대비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때 연대장 자신도 적들이 B중대와 F중대의 서쪽 능선을 따라 계속 남하중이라는 보고를 입수한 바 있었다. 따라서 연대가 우려한 바는 적의 정면공격이 아니라 배후의 교란이었다.

(3) 북한군에 의한 연대보급로 차단

연대장 멜로이 대령이 가장 우려한 '적에 의한 후방 교란 및 보급로 차단 사태'가 오래지 않아 현실로 닥치게 되었다. 이날 11시경에 제2대대 군수장교인 나쉬(Sobert E. Nash) 소위로부터 "전방부대에 대한 탄약재보급을 위해 유성에서 북쪽으로 차량을 인솔하여 이동 중에 적에 의해 도로가 차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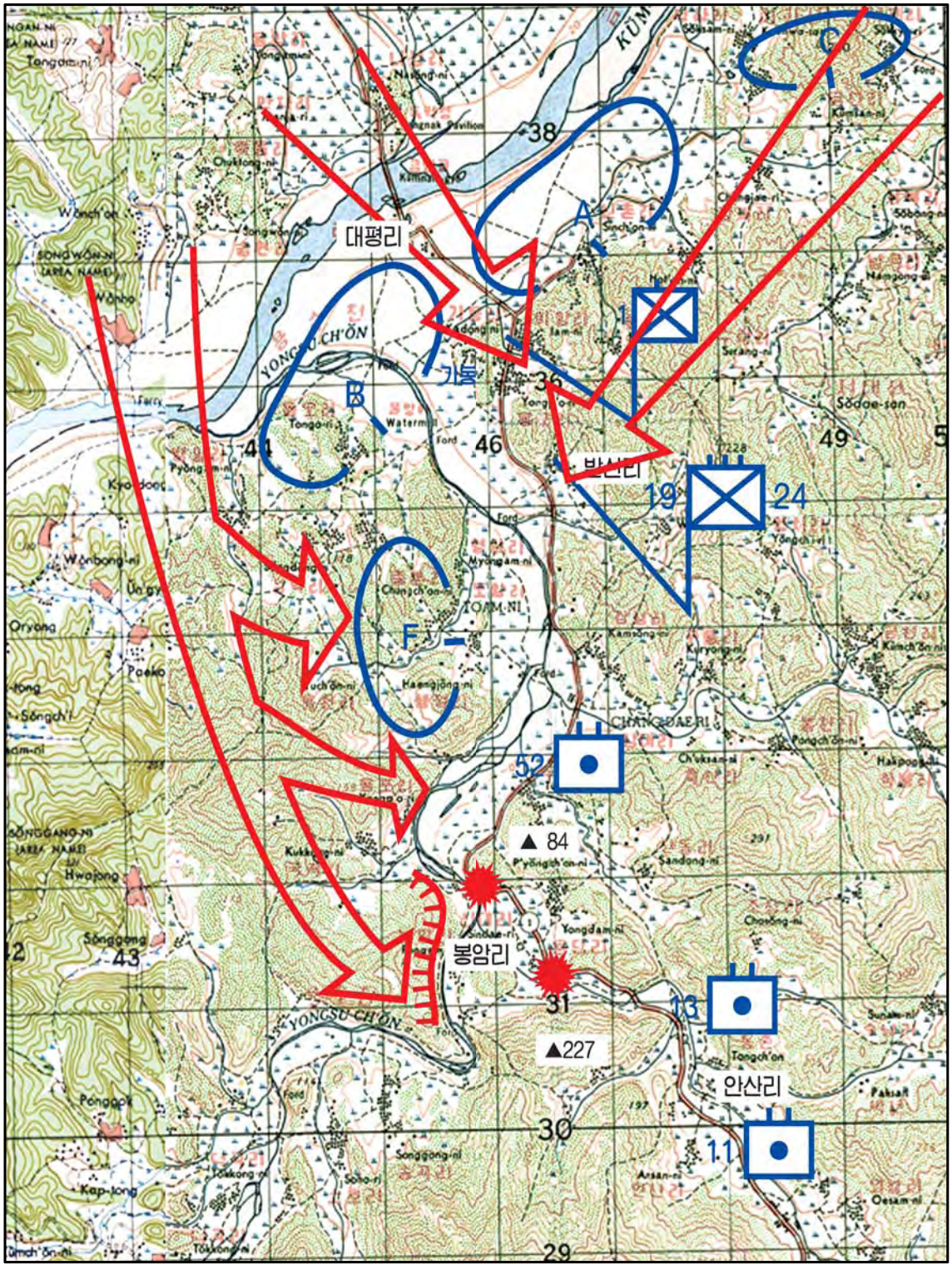
연대장은 대경실색하여 나쉬 소위에게 "구곡천 부근의 제2대대장 맥그레일 중령에게로 달려가서, 제2대대장에게 그곳의 G중대 및 H중대를 지휘하여 적에 의해 차단된 보급로를 개방하라"는 명령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연대장에게는 차단된 보급로 개방을 위해 즉각 투입할 예비 병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날 서측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투입하였던 제2대대 병력을 다시 원래 위치로 전환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연대장은 작전과장 로간(Edward O. Logan) 소령을 대동하고 보급로차단지점의 상황과 후방의 지연진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대 지휘소를 떠났다. 이때 전방의 제1대대장에게는 어두워진 후에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

연대장은 12시경에 보급로차단지점에 도착하였다. 그곳을 차단한 북한군들은 이날 새벽에 20~30명씩 무리를 지어 강을 건너 B중대와 연대 예비인 F중대를 서측방으로 우회하여 후방의 한 능선을 점령하고 있던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보급로를 차단하기 전 10시경에 대대규모로 증강되어 용수천 서쪽 능선을 따라 이동하였다. 이때 연대 후방의 두만리(斗滿里)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52포병대대에서는 이들을 발견하여 지휘소 남쪽에 있는 A포대로 하여금 즉시 포격하도록 하는 한편 후방의 제13포병대대에 적 접근을 경보하였다. 이에 A포대가 적에게 포격을 가하자 적은 남으로 향하던 종대의 방향을 동쪽으로 전환하여 북쪽의 B포대 진지를 공격하였다. B포대는 전방을 지원하고 있던 곡사포 중에서 2~3문을 전환하여 직접 조준사격을 실시하였다. 적도 박격포사격으로 응수하였는데, 그 첫발에 포대장과 선임하사관이 전사하고, 계속 집중되는 포탄에 5~6명의 포반장들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이 포대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선임장교인 스틸(William H. Steele) 중위의 진두지휘 하에 일부 병력은 포사격을 계속하면서 나머지 포대병력은 사주방어(四周防禦)로 전환하여 적의 공격을 막아내었다.[47] 그리고 대대장은 대대지휘소의 통신대와 의무대, 사격지휘반, 그리고 부근의 제19연대 병사들을 통합하여 임시공격대를 편성하였으며, 이를 직접 지휘하여 B포대를 공격하는 적 부대의 측방을 공격하면서 무선으로는 포병화력 지원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단 한명의 경비 병력도 없는 포병부대가 자체병력만으로써 적을 격퇴시켰던 것이다.[48]

북한군들은 포대에 대한 공격을 단념한 듯 서쪽 능선으로 다시 물러나 공격방향을 남쪽으로 돌렸다. 이들은 11시 전후에 포병진지로부터 남쪽으로 750m 떨어진 고지에 나타나 동쪽의 도로를 향하여 사격을 가함으로써 도로를 차단하였다. 이 도로는 전방으로 통하는 유일한 연대의 보급로였으며, 당시에도 탄약 재보급을 위해 유성(儒城)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 중인 차량들이 많았었는데, 북한군들의 사격으로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적의 경미한 화력위협에 갈팡질팡하는 차량들의 당황한 행동에 뒤이어, 북쪽에서 계속 밀어닥친 차량들이 삽시간에 길을 메우게 되어 연대보급로가 차단되었던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3-6> 연대보급로 차단(1950. 7. 16)



연대보급로 차단지점은 연대 후방의 제52포병대대와 제13포병대대진지 사이에 있었다. 즉, 두만리에서 남서방향으로 가던 도로가 급격한 굴곡을 이루어 남동방향으로 굽어지는 굴곡부가 있는 곳이다. 도로의 동측에는 84고지 등 일련의 고지군을 끼고 있고, 서측에는 10여m의 완경사 제방으로 용수천(龍秀川)과 연하여 도로가 협소하였고, 도로의 양측에는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전방진지에서 후방으로 나아갈 수 있은 유일한 출구였다. 북한군들은 이러한 연대보급로 차단지점을 한 눈에 감제할 수 있는 봉암리(鳳岩里) 서쪽의 Y자형 무명고지(표고 110m 정도)를 장악하여 도로를 화력으로 차단하였다. 그 고지는 용수천이 동쪽과 남쪽을 감싸고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연대장이 작전과장 로간 소령과 함께 정오경에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였다. 도로에는 차량들이 길을 메우고 늘어서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지원부대 병력으로서 지휘자도 없이 제멋대로 산개하여 용수천 건너의 고지를 향하여 맹목적으로 사격을 퍼붓는 중이었다. 그때 마침 지원된 6대의 전폭기 편대가 도로를 차단 중인 적의 진지를 공격하였는데, 이것이 이날 유일하게 지원한 공중공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대장은 먼저 전방의 제1대대장에게 "강안진지의 병력은 일몰 후 철수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한 철수계획을 수립하라"는 요지의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49] 그리고 그곳의 병력을 수습하여 직접 공격부대를 편성하던 중에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더 이상 실병지휘를 할 수 없게 된 연대장은 제1대대장을 호출하여 연대의 지휘권을 위임하고, 그로 하여금 보급로차단선의 북쪽에 있는 모든 병력을 통합 지휘하도록 하였는데, 그때가 13시경이었다.

연대 작전과장은 이 시각에 연대 통신차량의 무선으로 대전의 사단장과 교신하여 "연대장이 부상을 입었고, 연대의 지휘권을 제1대대장에게 위임하였다. 제52포병대대 B포대는 시급한 정비를 요하고, 연대보급로가 차단되어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보급로를 개방하기 위하여 증원조치할 것이지만 15시 30분 이전까지는 증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즉시 현 진지에서 철수하여 가능한 많은 병력과 장비를 구출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50] 이러한 교신이 끝나자마자 적의 포탄에 연대 통신차량이 파괴됨으로써 그 뒤로는 사단과의 통신이 일체 두절되었다. 이제 연대는 사단장이 후방에서 별도로 보급로를 개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아래, 제1대대 병력의 철수를 모색하게 되었다.

한편 13시부로 연대지휘권을 위임 받은 제1대대장 윈스테드(Winstead) 중령은 전방 강안 진지에서의 병력 철수보다 보급로의 개방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곧 가동(佳洞)의 대대지휘소에서 연대보급로 차단지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연대작전과장에게 "우선 차단된 보급로를 돌파하여 증원부대와의 연계를 도모하라"고 지시한 다음에 13시 30분을 기하여 전 연대에 철수명령을 내렸다. 이어서 전방 주진지에 있는 대대병력을 직접 철수시키기 위하여 대대지휘소로 돌아가던 도중에 적탄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윈스테드(Winstead) 중령은 연대의 지휘권을 위임받은 지 1시간도 채 되지 못하는 사이에 전사하였다.

모든 포병사격을 협조하는 제13포병대대 사격지휘 본부는 전방의 보병부대 진지에 나가 있는 전방 관측수 및 연락장교와 통신이 두절되어 효과적인 사격지휘는 불가하였지만 포병항공관측기로부터 표적정보를 제공 받아 금강을 도하하는 적 부대에 대해 계속해서 사격을 가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전방 방어진지에서 철수

전방 제1대대 병력들은 대대장이 전사하여 지휘관이 없는 가운데 7월의 폭염과 북한군들의 맹렬한 포병사격 속에서 철수하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 당시 기상으로써 7월 15일은 흐렸으나 16일은 맑게 개어 폭염이 맹위를 떨쳤는데, 한낮의 수은주는 체온보다 높은 화씨 100 (섭씨 37.7)를 가리킬 정도였다. 제19연대 병력은 전쟁에 참가한 뒤로 처음 경험하는 무더위 속에서 적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제1대대장 윈스테드(Winstead) 중령이 철수명령을 내린 13시 30분 그 시각까지 대대병력은 대부분 강안 진지에 그대로 남아 방어 중이었다. 이는 진지를 지탱하고 있기보다는 비가 오듯이 퍼붓는 적의 포화

로 말미암아 진내에 고착된 상태였기 때문에 철수명령이 하달되었지만 진지에서 이탈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괴화산(槐花山)을 점령했던 C중대는 전방진지에서의 전투보다도 철수하면서 더 많은 손실을 보았다. 중대는 오후 늦게 대대지휘소 부근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적의 후방 교란과 간단없는 포격을 받아 소대별로 분산하여 이동하였다. 이후 발산리 부근에 이르러 A, B 양개 중대의 병력이 한데 뒤섞여 국도를 따라 남하 중인 것이 보였다. 이에 C중대원들도 국도에 들어서서 발산리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때 동쪽 능선으로부터 기관총사격을 받아 대오가 흩어지면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도로 서쪽의 F중대는 B중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에 철수하였다. 이로써 전방 제1대대 병력과 F중대 병력들은 연대보급로가 차단된 상황을 모른 채 지휘자도 없이 차단선 북쪽으로 모여들게 되었다.

(5) 연대보급로 개방 시도

미 제19연대는 이날 13시 30분경부터 차단된 보급로 개방을 위해 차단선 북쪽과 남쪽에서 수차례에 걸쳐 임시공격대를 편성하여 투입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에는 소부대 단위로 분산되어 산악 소로를 이용하여 철수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① 북쪽에서 임시편성부대로 공격

연대 작전과장 로간 소령은 13시 30분에 연대장 대리인 제1대대장 윈스테드(Winstead) 중령으로부터 임시공격부대를 편성하여 차단선 북쪽에서 차단선을 돌파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먼저 집결한 제1대대 D중대 박격포 소대장 스미스(Lloyd D. Smith) 소위를 소대장으로 하는 공격소대를 급편하여 봉암리 서쪽 고지의 적을 공격하도록 하였다.[51] 이때 F-51전투기 1개 편대가 지원되어 3~4개소의 적 화력거점에 대하여 기총소사를 가하였으나 위장하고 엄폐된 적 자동화기를 제압하지는 못하였다. 급편된 공격소대는 공중엄호를 받으며 84고지 남서쪽 계곡의 집결지를 출발하여 서쪽으로 용수천을 건넜으나, 적의 거침없는

측사로 적이 점령하고 있는 산비탈 하단에 올라붙기도 어려웠고, 설사 올라붙은 병력도 경사가 급하여 기어오르기는 더욱 어려웠다. 최초에 50여 명으로 편성된 소대원 중에서 소대장를 따라 적 진지 전방까지 도달한 병사는 단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개천가에 엎드려 적 사격을 피하기에 급급하였다. 로간(Logan) 소령은 다시 운전병과 포병병력, 그리고 일부 기술병들을 규합하여 공격조를 재편하여 또 한번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연대작전과장 로간(Logan) 소령은 두 차례에 걸친 보병공격과 전투기에 의한 기총소사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연대가 보유중인 M-24경전차 2대를 동원하여 적의 화력거점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즉 전차가 적진을 향하여 진격하여 적 거점에 사격을 실시하였으나, 위장된 적의 화력거점을 포착할 수가 없어 포탄만을 소모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또한 로간 소령은 두만리 북서쪽의 용수천 건너편에 진지를 점령중인 제2대대 F중대에 남쪽으로 공격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있는 적을 제거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그때 F중대는 진지에서 이탈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적으로부터 포위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남쪽으로의 공격은 불가하였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직접 차량으로 신속한 돌파를 시도하였지만 앞의 차량이 길을 가로막고 엉켜있던 탓으로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로간 소령이 기울인 차단선 북쪽에서의 보급로 개방을 위한 각종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② 차단선 남쪽에서 기갑부대로 공격

로간 소령은 약 1시간 가까이 보급로차단선 돌파를 시도하였지만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다. 즉 자신이 보급로차단선 남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부대들과 협력하여 차단선을 남쪽에서 개방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14시 30분경에 보좌관인 펜스터마처(Edgar R. Fenstermacher) 대위를 그의 대리로 지정하여 북쪽에서 보급로차단선 돌파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고, 자신은 2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동쪽 산악 소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는 산간협로를 2시간 가까이 헤맨 끝에 16시

30분을 전후하여 안산리 부근에 있는 제13포병대대 진지에 도착하였다.

로간 소령은 그곳에서 때마침 일단의 기갑부대를 이끌고 대전으로부터 급히 도착한 사단장을 만나게 되었다. 그 기갑부대는 제78전차대대의 M-24전차 2대를 비롯하여 제26대공포대대의 M-16 반궤도차 2대와 M-19 반궤도차 2대로 편성되어 있었다.[52] 이에 로간 소령은 사단장에게 연대보급로의 차단상태와 북쪽 상황을 보고하였고, 자신이 기갑부대를 지휘하여 직접 차단선 돌파를 위해 선두에 나서겠다고 자청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도로차단 현장의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악화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제2대대장 맥그레일(McGrail) 중령에게 기갑부대를 지휘하여 차단선을 개방하게 하고, 로간 소령에게는 유성 부근에서 새로운 지연진지를 편성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53]

맥그레일(McGrail) 중령은 로간 소령보다 한 걸음 앞서 이곳에 도착하여 대기중이었다. 즉 7월 16일 오전에 대대 군수장교인 나쉬(Nash) 소위로부터 "차단된 보급로를 개방케 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은 즉시로 『① 작전보좌관 몬테스클로스(Montesclaros) 대위는 연대정보수색소대와 공병 및 포병을 지휘하여 계속 현진지를 고수하라. ② 군수장교인 나쉬(Nash) 소위는 대전으로 급히 달려가서 G중대를 수송할 차량을 구하여 마암리 부근으로 보내라. ③ G중대장 바르츠(Barszcz) 대위는 병력을 현진지에서 철수시켜, 마암리 부근에 집결하여 대기하다가 차량이 도착하는 즉시로 나를 따르라. ④ 나는 안산리의 제13포병대대진지에서 기다릴 것이다』라는 조치를 취하였다.[54] 이렇게 하여 구곡천 부근의 연대 서측방진지는 본래대로 연대정보수색소대가 전담하고, 자신은 먼저 안산리로 달려갔다.

그리고 군수장교인 나쉬 소위는 대전비행장에서 부사단장인 멘노허(Pearson Menoher) 준장의 주선으로 수송차량을 구하여 마암리로 달려갔다. 이 무렵 사단장 딘 소장은 13시경에 작전과장 로간 소령과 무선통화에서 도로차단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돌파에 필요한 장갑차량을 추출하여 안산리를 향해 떠났다. 그래서 G중대보다 사단장과 기갑부대가 한 걸음 먼저 제13포병대대 진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13포병대대 진지에서 G중대의 도착을 기다리던 제2대대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맥그레일 중령은 사단장으로부터 “기갑부대를 지휘하여 적의 도로차단선을 돌파하여 제1대대를 구출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6대의 기갑차량을 지휘하여 안산리에서 두만리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래서 맥그레일 중령은 G중대 대신 기갑부대를 먼저 지휘하게 되었다.

맥그레일(McGrail) 중령은 전차 1대를 선두에 내세워 기갑부대를 선도하게 하고 다른 1대로써 후위를 맡도록 하였다. 이 부대가 적 사정거리내로 들어서자 서쪽의 적으로부터 중기관총과 경대전차포사격이 집중되어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었다. 이에 기갑부대는 도로에 멈추어 서서 적진을 향하여 전차포와 대공포로써 응사하였다. 이때 대공포차에 탑승하였던 병력들은 차에서 내려 도로변에 엄폐하여 교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장갑이 약한 대공포차가 적의 대전차포에 맞아 모두 불타고, 전차 2대만이 사격을 계속하였으나 그도 포탄이 모두 소모되어 하는 수 없이 도로변에 엎드려 있는 병력들을 그곳에 남겨둔 채로 18시경에 안산리를 향하여 후퇴하였다. 이로써 기갑부대의 돌파 기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55]

③ 차단선 남쪽에서 G중대 공격

맥그레일 TF로서 연대 서측방에 배치되었던 G중대는 진지에서 철수하여 마암리 부근에서 수송차량을 기다리다가 16시경에 군수장교 나쉬 소위가 이끌고 도착한 차량편으로 대대장이 위치하고 있는 안산리를 향해 이동하였다. 그런데 중대가 유성에 이르니 부사단장 멘노허(Menoher) 준장이 그곳에서 하차하여 유성 남쪽 갑천 지류의 제방에 방어진지를 급편하도록 하였다. 부사단장은 대평리 정면이 와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적 전차가 유성으로 직접 들이 닥칠 것에 대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곳에서 급편진지를 편성하고 있던 G중대는 18시경에 다시 “두만리 부근의 적 도로차단선을 개방해야 하니 전방으로 이동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을 받아 안산리로 이동하였다.[56]

G중대장은 바로 안산리의 제13포병대대 진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사단장 딘 소장을 만났다. 사단장은 적 전투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G중대에게 남쪽에서 도

로의 서쪽 능선을 따라 기동하여 봉암리 서쪽 고지의 적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에 중대가 안산리에서 도로를 따라 북서쪽으로 나아가 227고지(봉암리 동남쪽 1㎞) 동쪽 산비탈의 도로상에서 북으로 도로차단 지점이 바라보이는 산모퉁이를 돌아서자, 적의 장거리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길을 가로 막았다. 이에 G중대는 19시경에 도로 서쪽의 227고지를 기어올라 우선 그 정상에 진지를 점령한 다음, 북서쪽으로 용수천 건너의 적진을 향하여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으나, 이미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사단장은 G중대를 유성으로 철수시켰다. 이와 같이 사단장이 기울였던 도로차단선의 돌파 노력은 모두 뜻을 이루지 못했다.

(6) 연대보급로 차단지점 북쪽의 혼란 상황

연대본부와 제1대대 병력들은 이날 13시 30분에 하달된 철수명령에 따라 두만리 남쪽의 도로차단지점 부근으로 집결하게 되었지만 끝내 도로가 개방되지 않아 그곳에 갇힌 채 시간만을 지체하게 되었다. 또한 남쪽에서는 사단장의 지휘하에 도로차단지점을 돌파하기 위한 공격이 여러 번 시도되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도로차단선 북쪽의 병력들은 정면의 적 공격과 더불어 배후로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날이 저물게 되자 각자 살길을 찾아 흩어져 홀로 또는 소부대 단위로 대전 방향인 남동쪽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① 부상당한 연대장 탈출

도로차단선 북쪽에서는 부상을 입은 연대장과 함께 도로가 뚫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연대참모들은 18시경－맥그레일 중령이 지휘하던 기갑부대의 돌파 기도가 무산되었을 무렵－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정면돌파하기로 결정하였다.[57] 즉 『① 연대장은 경전차에 탑승하고, 그 전차로써 차단선을 강행 돌파한다. ② 전차가 길을 열면 빈 차량만이 그 뒤를 따른다. ③ 나머지 병력은 작전보좌관 펜스터마처 대위가 통합 지휘하여 도보로 철수한다』는 내용이다. 당시에 그곳에 M-24경전차 1대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의 장갑과 돌파력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강행 돌파하기로 한 것이다.

연대장을 태운 전차소대장 라우쉬(J. N. Roush) 중위는 길을 막고 있는 차량들을 밀어내며 길을 열고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그 뒤로 제52포병대대의 105밀리 곡사포 1문을 끄는 견인차 1대를 비롯한 20여 대의 차량이 뒤따르게 되었다. 이때 전차는 적의 화력을 뒤집어쓰면서도 오로지 남쪽 방향으로 전진만 실시하였는데, 적의 화력차단지점을 막 넘어선 227고지의 동쪽 지역에 이르러 기관고장으로 말미암아 노상에 정지되고 말았다. 다행히도 그곳은 적의 화망을 가까스로 벗어난 지점이었다. 그리고 뒤따르던 차량들도 차단선을 넘는 동안에 적 화력에 더러 파괴되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전차와 함께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58] 이에 연대장은 전차에서 내려 라우쉬 중위에게 소이수류탄으로써 전차를 파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27고지에서 유성으로 철수 중이던 G중대(중대장, Barszcz 대위)를 그곳에서 만나 중대장에게 유성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지연진지를 점령하도록 명령한 다음에 본인은 다른 부상병들과 함께 유성으로 후송되었다.

② 도로차단선 북쪽에서 병력 탈출

연대장 일행이 탑승한 전차와 차량종대가 도로차단선을 돌파한 뒤에 북쪽의 연대혼성병력들은 연대작전보좌관 펜스터마처 대위가 이들을 지휘하였다. 그곳에는 500여 명의 병력과 100여 대의 차량이 집결 중이었는데, 어두워진 다음인 20시 30분을 전후하여 철수 준비를 시작하였다. 즉 차량은 모두 파기하기로 하였고, 병력은 1번 국도의 동쪽을 연한 고지의 능선을 따라 유성을 목표로 철수하기로 하였다. 이때 보행이 어려운 중상자들은 들 것으로 나르기로 하였다.

그런데 차량에 휘발유를 뿌려 소각(燒却)하고 불빛이 밝은 가운데 철수제대를 편성하던 펜스터마처(Fenstermacher) 대위가 불행히도 적의 사격으로 목이 관통되어 전사하고 말았다. 또 한 번 지휘자를 잃는 가운데 21시경에 남은 병력들은 각기 제대별로 철수로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야간에 지형조차 생소한 산길을 택하여야만 되었던 그들의 철수상황은 매우 참담하였다.[59] 그 이튿날인 7월 17일에 대전에 집결 재편된 병력은 당초 대평리 정면에 투입된 제19연대 병력 900여 명 중 434명뿐이었다.[60] 이때 연대를 직접 지원하였던 제52포병대대도 도로

차단선 북쪽에 위치하여 큰 손실을 입고 철수하였다.

제19연대 병력 중에서 온존(溫存)한 병력은 적과 직접 접촉이 없었던 제2대대 E중대와 G중대, 그리고 정보수색소대이었다. 즉, E중대는 경부선철교(금강철교) 서쪽의 매방산 진지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종일토록 적 병력의 그림자도 보지 못한 채로 있다가 밤에 철수명령이 하달되어 대전으로 집결하였고, G중대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적과 별다른 전투 없이 동분서주하다가 유성으로 집결하였다. 그리고 구곡천 부근의 연대정보수색소대도 역시 전투 없이 이날 밤중으로 대전으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도로차단선의 남쪽인 안산리 부근에 있던 제11·제13포병대대 2개 포병대대도 별다른 손실은 없었다. 당시 각 포병대대의 사격을 통제하던 제13포병대대의 FDC가 11시 무렵부터 전방관측수나 보병진지의 연락장교와의 통신이 두절되어 사격요청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금강의 적 도하 예상지점에 대하여 미리 확보한 제원에 따라 사격을 계속하다가 오후 늦게 대전비행장으로 철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19연대는 G중대를 유성에 남겨 경부국도를 따라 진출하는 적 부대의 진출을 지연하게 하고, 연대 주 병력은 대전비행장에서 부대수습 및 정비에 들어갔다.

북한군 제3사단은 화력도 열세하고 정상적인 도하장비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측후방 도하공격으로 미 제19연대의 후방을 차단하는데 성공하였고, 이에 미 제19연대는 전차를 동반하지 않은 북한군과의 전투에서도 패배하였다. 결국 미 제24사단은 금강 방어선을 구축한 7월 12일부터 4일만이 7월 16일 밤에 붕괴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제21연대 전투 상황

미 제21연대는 7월 13일 미 제19연대에 대평리 방어진지를 인계하고 대전비행장으로 이동하여 부대 정비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7월 15일 저녁에 청주 부근의 국군 제2사단이 북한군 제2사단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퇴각함으로써 대전 북동쪽이 적에게 노출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단장 딘 소장은 제21연대장에게

7월 16일 아침 일찍이 대전비행장에서 이동하여 대전에서 동쪽으로 5~6㎞ 떨어진 마달령 부근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61] 이로써 대전의 북동쪽을 방호하고, 아울러 대전에서 영동으로 이르는 경부국도를 확보하여 미 제24사단의 철수로를 보장하게 하였다.

연대장은 7월 16일 아침 6시에 제11포병대대의 C포대와 공병 1개 중대를 배속받아 마달령 일대에 예하대대를 배치하고 연대지휘소는 남동쪽으로 16㎞ 떨어진 옥천에 개설하였다. 그리고 배속된 공병 중대에게 대전에서 옥천에 이르는 도로상의 모든 교량과 터널에 폭파 준비를 지시하였다.[62] 이때 연대는 그야말로 이름뿐인 것으로서 제1대대가 517명, 제3대대가 132명, 그리고 연대본부인원으로 편성한 임시대대가 466명으로 총 1,100명을 넘지 못하는 상태였다. 더욱이 11일에 전의전투에서 대대장이 전사하는 등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는 제3대대는 잔여인원으로써, K, M 양개 중대로 재편되어 제1대대장 스미스(Charles B. Smith) 중령이 통합지휘하였다.

3. 전투결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피·아 피해 현황

미 제24사단이 공주-대평리전투를 치루면서 입은 피해는 컸다. 특히 신예부대로 투입된 미 제19연대의 손실이 컸었는데, 피해 현황을 연대별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미 제19연대가 입은 총 손실은 총 3,401명 중에 650명이었다. 그 중 제1대대원은 785명 중 338명, 제2대대원은 777명 중 86명, 제52포병대대원은 393명 중 55명이었으며, 연대본부는 191명 중에 57명이었다. 그리고 기타 지원배속부대와 포병부대에서 100여 명의 손실이 있었다. 그 가운데 제1대대 C중대의 경우에는 171명의 중대원 중 122명의 손실이 있었다. 연대 본부와 근무중대, 의무중대 및

중박격포중대는 장교 34명 중 17명이 이날 실종되었는데, 그 중 13명이 전사로 밝혀졌다.[63] 또한 장비 손실도 막대하여 연대본부와 제1대대는 대부분의 차량과 중장비를 상실하였으며, 제52포병대대는 지난 7월 5일 죽미령 전투에서 포 5문을 잃은 데에 이어, 이날도 9문의 105밀리 곡사포 중 8문을 유기하였고, 포 1문과 차량 3대만이 구출되었다.[64]

미 제34연대는 조기에 후방의 제63포병대대가 기습당하여 붕괴되자, 기타 부대들은 북한군과의 전투가 없는 상황에서 철수하였던 관계로 손실이 적었다. 반면 제63포병대대는 105미리 야포 10문과 적재된 탄약을 포함한 차량 60~80대를 잃고, 11명의 장교와 125명의 사병이 실종되는 참상을 보게 되었다. 특히 A포대의 포 5문은 미처 파괴할 겨를도 없이 탄약과 함께 고스란히 진지에 남겨 두고 철수함으로써 적이 이를 역이용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2) 전투 후 전황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은 금강을 연하는 방어선에서 새로 투입된 제19연대마저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제63·제52포병대대마저 큰 손실은 입게 되자 결전의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초에 금강방어선에서 조직적으로 철수하여 갑천방어선에서 제34연대와 제19연대로 또 한번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했던 계획을 포기하였다. 이제 결전을 시도할 곳이 없다는 판단아래 경부국도를 따라 축차진지에서 지연전을 펴기로 작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34연대를 7월 16일 저녁에 논산 동쪽 마구평리 진지에서 대전 서쪽의 갑천 일대로 이동시켰고, 7월 17일에는 대전비행장에서 부대를 수습 중인 제19연대를 영동으로 이동시켜 지연진지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전 갑천의 제34연대와 마달령의 제21연대, 그리고 영동의 제19연대가 축차로 지연전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대전비행장에서 병력을 수습한 제19연대는 17일 오후에 영동으로 이동하였고, 대전 외곽 갑천을 연하여 방어편성을 하고 있던 제34연대는 B중대로써 유성의 제19연대 G중대의 엄호진지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34연대의 대전방어는 유성-대전 가도상의 만연교와 논산-대전 가도상의 가수원교의 차단에 주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을 두고 방어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반면 금강을 도하한 북한군 제4사단은 16일에 논산을 점령하였고 그 일부로써 남서쪽의 강경을 장악하여 후방의 위협을 제거한 다음 대전을 목표로 차후 공격을 준비하였으며, 북한군 제3사단은 16일에 대평리 부근에서 밤을 새우고 유성으로 직접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대전 전투

1. 전투개요

1) 개 요

대전전투는 7월 16일 야간에 미 제34연대가 갑천선 일대에 배치되면서부터 7월 20일 야간에 대전에서 철수할 때까지 북한군 제3·제4사단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갑천을 연하는 방어선과 대전 시내에서 실시한 전투를 말한다. 이 전투에서 미 제24사단은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이 요구한 7월 20일까지 대전에서 지탱하였으나, 철수시기가 늦어진 연유로 대전 후방이 차단되어 철수 과정에서 많은 병력 및 장비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미국 전쟁 역사상 최초로 전투 중 사단장이 실종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딘 소장은 대전의 제34연대와 마달령의 제21연대, 그리고 영동의 제19연대로 하여금 축차적으로 지연전을 실시하고, 대전에서는 대략 7월 19일 야간에 제34연대가 철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7월 18일 아침에 대전비행장에 도착한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이 “현재 포항에서 상륙 중인 미 제1기병사단이 영동 일대에 전개하는데 최소한 2일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딘 소장은 철수시기를 1일 더 연장하여 7월 20일 야간으로 변경하였고, 아울러 대전방어를 담당한 제34연대에 제19연대 제2대대를 배속시키는 등 전투력을 증강시켰다.

북한군은 금강교두보를 확보한 후에 이틀간의 공격준비를 실시하고, 7월 19일 오전에 유성지역에서 제일 먼저 공격이 시작하였고, 이날 밤이 깊어지자 북한군의 공격 징후는 더욱 짙어갔으며, 사전 침투부대들은 대전 후방지역의 곳곳에 도달하였다. 북한군은 7월 20일 03시경에 드디어 유성 방면에서 맹렬한 공격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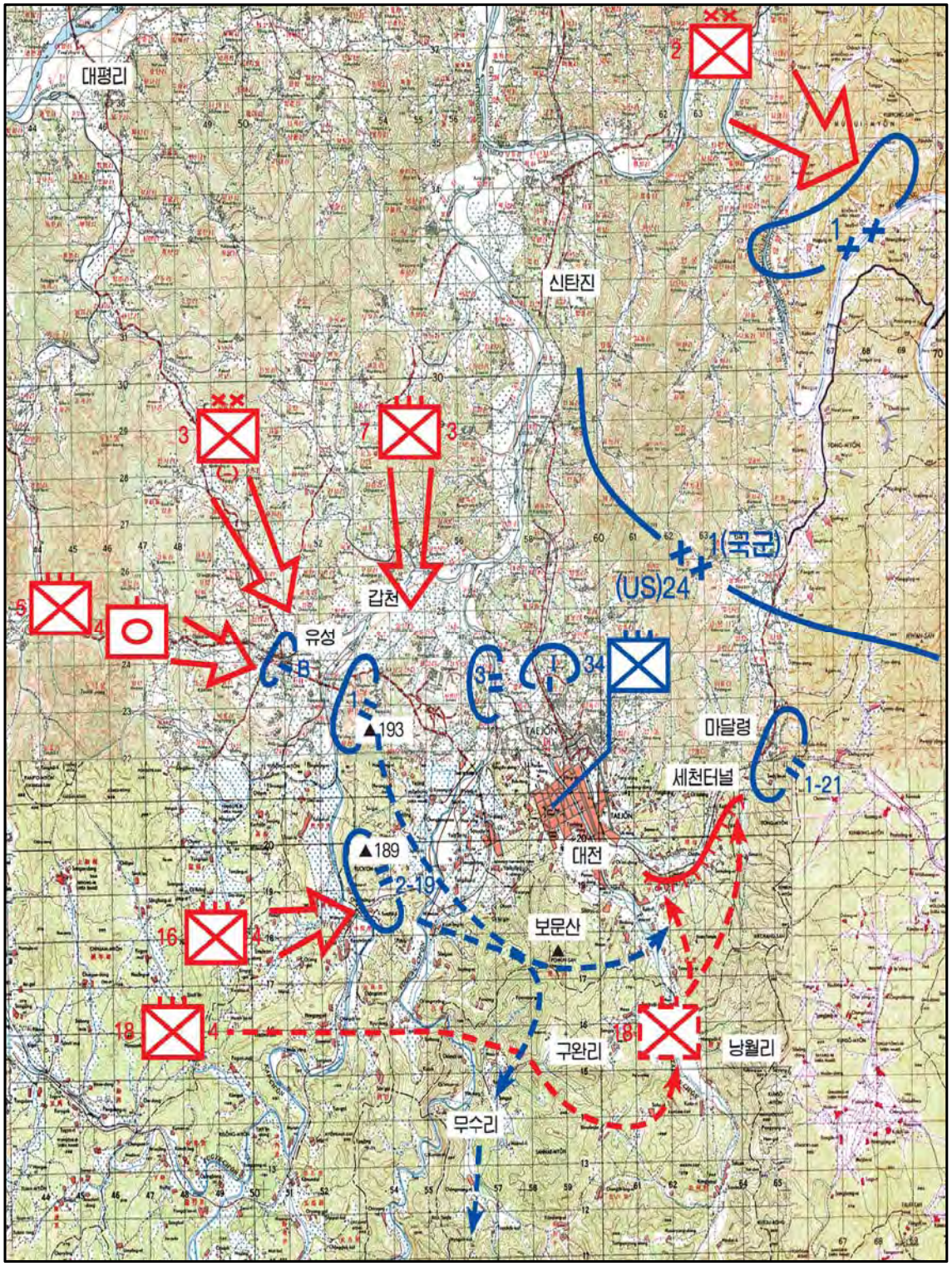
비사격에 이어 전차와 함께 보병병력들이 공격하였다. 이에 북한군 전차들은 단독으로 미 제34연대 제1대대 방어진지를 통과하여 후방으로 이동하였다. 이를 확인한 제1대대장은 연대와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철수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제19연대 제2대대도 연대와의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대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북한군 전차가 차단하고 있다는 잘 못된 보고를 받고 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65] 이로서 전방의 2개 대대는 7월 20일 오전 중에 방어진지에서 모두 이탈하였다.

북한군 전차들은 보병을 탑승시키고 제34연대 제1대대가 철수하고 없는 유성가도를 따라 대전 시내로 진입하였다. 보병들은 하차하여 건물 속으로 들어가 저격병으로 활동하고, 전차는 연대 본부 시설 및 주요 시설에 대해 전차포와 기관총을 난사하여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보병 없이 단독으로 활동하던 전차는 사단수색중대와 공병중대 3.5인치 로켓포조에 의하여 대부분 파괴되었다.

사단장은 적 전차들을 격파한 후 14시경에 연대지휘소로 들어와서 연대장과 C-레이션을 들면서 전황을 검토하였는데, 이때까지도 전방대대는 진지를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시각에 전투상황이 평온했던 것은 북한군이 금산 및 옥천 가도를 완전히 차단할 때까지 정면에서의 공격을 늦추었기 때문인데, 사단장과 연대장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전방방어가 정상인 것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서 사단장이 제34연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한 시간은 17시 30분이었고, 행군 본대가 출발한 시간은 18시였다. 이때 북한군 침투부대들은 이미 금산 및 옥천방향 도로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다. 반면 제34연대 철수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달령에 배치되었던 제21연대는 적이 차단한 세천터널과 떨어져 있어서 철수로 개방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에 철수병력들은 도로차단선을 끝내 돌파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산악 소로를 이용하여 개인 또는 소부대별로 사단 지휘소가 있는 영동으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미 제1기병사단에게 방어책임지역을 인계하고 후방으로 이동하여 부대정비를 실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3-7> 대전전투(1950. 7. 19~20)



이로서 미 제24사단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7월 5일 오산 북방 죽미령에 투입되어 전투가 개시된 이래 7월 20일 대전전투까지 100여 ㎞라는 공간을 내어주면서 많은 병력 및 장비 손실을 입었으나, 15일 간이라는 시간을 획득하였다. 이는 후속 증원부대들이 전방지역으로 전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공중폭격으로 북한군의 작전지속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

2) 피·아 작전계획

(1) 북한군 작전기도

북한군이 평택을 점령한 뒤에 7월 7일부터 실행할 작전에 대한 김일성의 「제3단계 작전지침」의 핵심목표는 대전이었다.[66] 이에 따라 북한군 제3·제4사단이 금강 방어선을 돌파한 후에 연속하여 대전을 공격하려 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당시 북한군들은 '한국군과 미군이 대전에서 사생결단으로 저항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대전 공격에 신중을 기하여 7월 17일 및 18일 양일 동안은 공격준비를 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은 그들의 제3사단을 대전 북서쪽에서 공격하게 하고, 제4사단을 대전 서쪽에서 정면 공격하되, 그 중 1개 연대로 하여금 1일전 보문산 남쪽의 산길 소로로 침투 기동하여 금산가도와 영동가도를 차단하도록 하여 대전에서 미 제24사단을 완전히 소멸시키고자 기도하였다.[67]

북한군의 전투경과를 토대로 재구성해 봤을 때, 그들의 기동계획은 『① 제3사단은 제203전차연대의 지원 하에 대평리-유성-대전 도로를 주공격축선으로 하여 대전의 북서쪽을 공격한다. ② 제4사단은 제107전차연대의 지원하에 공주-유성-대전 도로와 논산-대전도로를 주공격축선으로 하여 대전의 남서쪽을 공격하되, 1개 연대 규모는 도로 남쪽의 야지로 침투 기동하여 금산 및 옥천 방향의 도로를 차단한다. ③ 공격부대는 7월 19일 일몰까지 갑천의 연하는 선에서 도하공격준비를 완료한다. ④ 공격개시시간은 7월 20일 03시로 한다』로 추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공격개시시간을 7월 20일 새벽으로 선정한 것은 북한군 제4사단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후방 침투부대가 금산 및 옥천방향의 두 퇴로를 차단하는 것과 시간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68]

(2) 미 제24사단 작전 복안

딘 소장은 금강방어선에서의 작전과 연계하여 대전방어를 위한 작전복안을 수립하였다. 즉 사단이 금강 방어선에서 철수할 경우에 제19연대는 대평리로부터 유성을 거쳐 월평동 부근으로 철수하고, 제34연대는 논산에서 정림동(월평동 남쪽 5㎞) 부근으로 철수하여 갑천을 연하여 저지진지를 점령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최대한으로 저지한 다음에 축차적으로 경부국도를 따라 철수하면서 지연전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69]

이러한 작전복안은 제19연대가 대평리 방어선에서 어이없게 붕괴되면서 전투수행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단장은 갑천을 연하는 선에서 2개 연대가 점령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제34연대 1개 연대만 점령하도록 하고, 방어 형태는 저지하는 개념에서 지연전 개념으로 변경하였다.

사단은 지연전 수행을 위해 우선 7월 16일에 제34연대를 경부국도상의 월평동 부근에 투입하여 당면한 북한군 제3사단의 공격을 지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7월 17일 아침에 제19연대를 영동으로 이동시켜 부대정비 후에 지연진지를 점령하도록 하였고, 17일 오후에는 하루 전날부터 마달령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21연대로 하여금 대전-옥천간의 도로와 터널에 대해 폭파준비를 지시하였다. 이날 저녁에는 충남 도청 내에 설치 운영하였던 사단지휘소를 영동으로 옮기고, 옥천의 제21연대지휘소에 사단의 전방지휘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제34연대가 대전에서 철수하는 시기는 북한군 전차가 금강을 건너 대전으로 기동하기 직전으로 계획하였는데, 7월 19일 야간으로 예상하였다.[70]

그런데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7월 18일 아침에 대전비행장에 항공기로 도착하여 제34연대 지휘소에서 전황을 보고받은 뒤, 사단장에게 "지금 미 제1기병사단이 포항으로 상륙 중에 있다. 이 사단은 영동 부근에 투입하여 방어력을 증강할 방침이다. 그러므로 이 부대가 영동부근에 전개할 시간적 여유를 획득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것이 당면한 급선무이다. 따라서 향후 2일간의 대전고수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라고 주의를 주었다.[71] 이에 사단장은 7월 19일 야간에 철수하려던 계획을 24시간 연장하여 7월 20일 야간에 철수하기로 하였다.

워커 중장과 딘 소장

이에 따른 부대운용 개념은 『① 사단은 7월 20일 일몰 전까지 대전에서 고수방어하여 증원부대의 진출을 엄호한다. ② 제34연대는 대전 지역의 모든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적 공격을 저지한다. ③ 제21연대는 현진지에서 대전 북동쪽의 방호와 제34연대의 철수로를 확보한다. ④ 제19연대는 제2대대를 제34연대에 배속 조치한다. 동 대대는 19일 12시까지 대전에 집결토록 한다. ⑤ 사단 수색중대는 제34연대에 배속운용한다. ⑥ 제3전투공병 C중대는 제34연대를 직접 지원한다. ⑦ 포병혼성대대는 제34연대를 직접 지원한다. ⑧ 사단장은 제34연대와 함께 대전에 남는다』라는 내용이다.[72] 그리고 사단장은 부관인 클라크(Arthur M. Clarke) 중위와 사단 작전보좌관인 로우랜드(Richard A. Rowlands) 대위 및 군수보좌관 겸 수송장교인 햇필-드(Raymond D. Hatfield) 대위 등 참모장교 2명과 운전병 2명, 그리고 통역관 김길준과 함께 대전시내에 잔류하여 현장에서 전투를 지도하기로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미 제24사단 방어준비

대전 방어에 대한 책임을 진 미 제34연대는 7월 16일 새로 부임한 신임연대장 보챔프 대령의 지휘아래 17일 아침에 대전비행장에 연대지휘소를 개설하고, 오전 중에 예하 대대병력들을 배치시켰다. 이때 유성가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1

갑천을 내려다보는 기관총진지

·제3대대는 종심으로 배치하고, 논산가도에는 제3대대 L중대에서 1개 소대를 차출하여 배치시켰다. 즉 유성-대전 방향의 도로에 중점을 두고 배치하였다.

제1대대는 갑천을 연하는 월평동 일대에 주방어진지를 편성하였는데, A중대는 138고지 일대에 배치하였고, C중대는 그 남쪽 193고지 일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B중대는 유성으로 추진하여 운용하였다.[73] 또한 B중대의 1개 소대는 주진지에서 유성-대전 도로 북쪽의 개활지에 배치하여 우측방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대대지휘소는 갈마동에 개소하는 한편 대대의 81밀리 박격포와 연대에서 지원된 4.2인치 박격포 진지는 지휘소 주변에 배치하였고, 3.5인치 로켓포는 도로변에 배치하여 대전차공격을 준비시켰다.

제3대대(-)는 제1대대 종심지역인 대전비행장 동쪽의 구릉지대에 배치하였고, 그 중에서 I중대는 대전천 동쪽의 오정동 부근에 배치하여 신탄진 도로(17번 도로)와 경부철로를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논산-대전 가도에 제3대대 L중대에서 1개 소대를 차출하여 가수원교 일대에 배치하였다.

제34연대장은 논산가도의 전투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단장이 배속 전환시킨 사단 수색중대와 제19연대 제2대대를 7월 19일에 투입하였다. 이에 먼저 도착한 수색중대에서 1개 소대를 차출하여 이 축선에 대한 수색정찰임무를 부여하였고, 그리고 영동으로부터 대전에 이날 오후에 도착한 제19연대 제2대대를 가수원교(만년교 남쪽 5㎞) 일대에 투입하였다.[74]

제21연대장은 대전 북동쪽의 방호와 제34연대의 철수로 확보라는 두 가지 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무 가운데 철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진지(마달령 증약터널 진지)에서 세천 터널 부근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소신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북동쪽의 방호에 중점을 두고 마달령 진지를 계속 확보하도록 하였고, 대전-마달령 간의 도로는 정기적인 도로정찰을 실시하여 통로를 보호하도록 지시하였다.[75] 그리고 터널에 배치되어 있는 공병 폭파조에게도 철수시기가 24시간 연기되었다는 것을 전파하는 등 지연전을 준비하였다.

2. 전투경과

대전전투는 북한군들이 7월 19일 아침에 대전지역 일대에 대한 공중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야-크(YAK)전투기로 대전 후방의 보급로를 강타하였다. 야-크(YAK)전투기 6대가 07시 20분경에 미 제21연대 상공을 지나 옥천 북서쪽 3.2㎞ 지점에 있는 철교에 폭탄 4발을 투하하여 그 중 한발이 교량에 명중되어 파괴되었다. 다행히 제3전투공병대대 B중대에서 12시까지 복구 완료하였다. 그리고 야-크(YAK)전투기들은 연대지휘소 부근을 폭격하고, 2주전 오산전투에서 포로가 된 미군 장교 및 부사관 각 3명이 서명한 선전 전단을 투하하였다. 또한 4대의 항공기가 대전 비행장을 폭격하였다. 이에 미 제26방공포병대대 A포대에서 대공사격을 실시하여 유성 부근에서 야-크(YAK)전투기 2대를 격추시켰다.

북한군 야-크(YAK)전투기는 이날 미 공군기들이 투입됨으로써 퇴각하였다. 이날 미 공군기들은 대전 서쪽과 남서쪽에서 북한군들이 집결한 지역이나 집결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공중폭격하였다. 그리고 12시경에 북한군들이 대평리 교량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전차 및 포병들이 교량을 건너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격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북한군 야크 전투기들은 미 공군기들에 의해 제압당하여 이날은 더 이상 출현하지 않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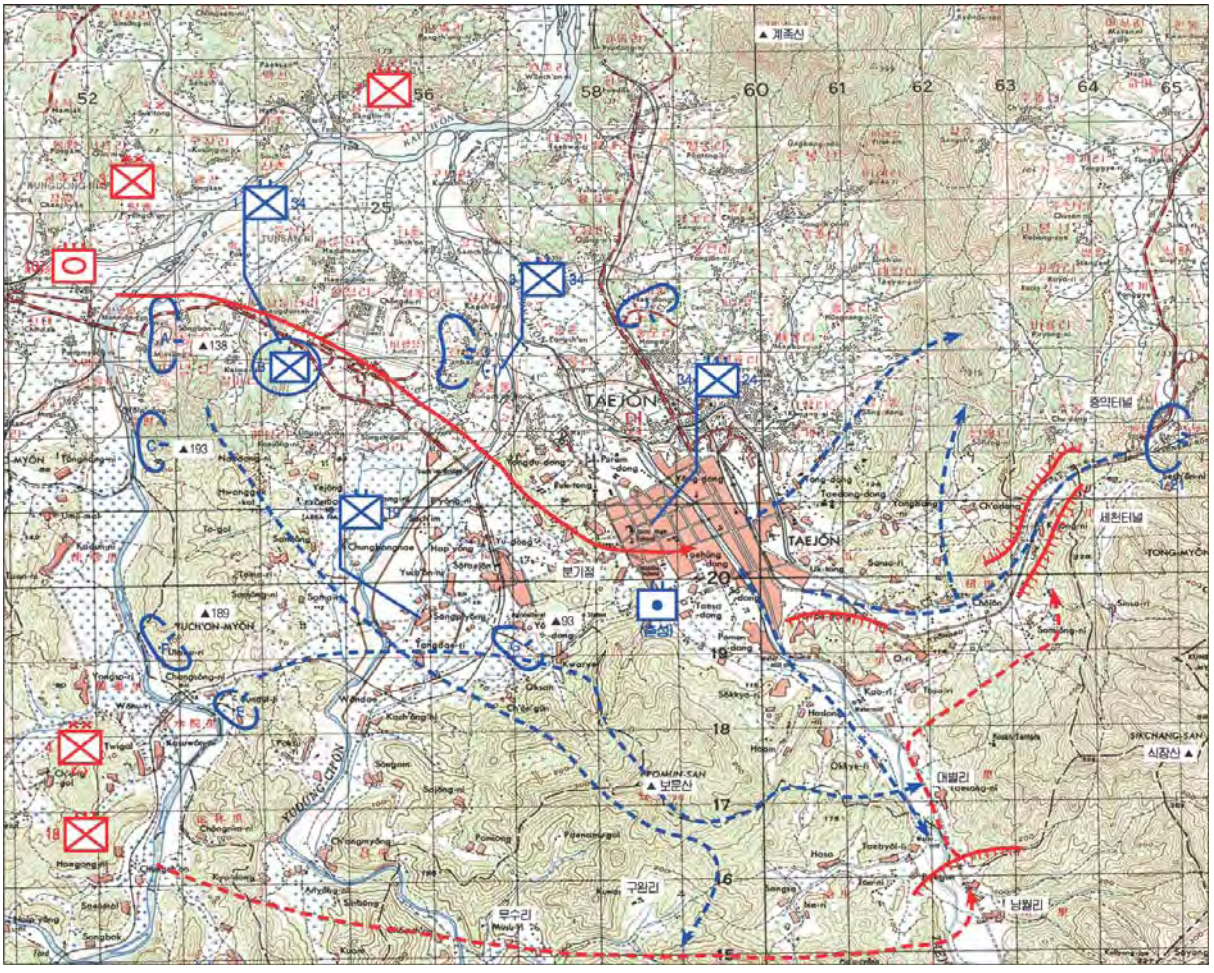
공중에서 본 대전비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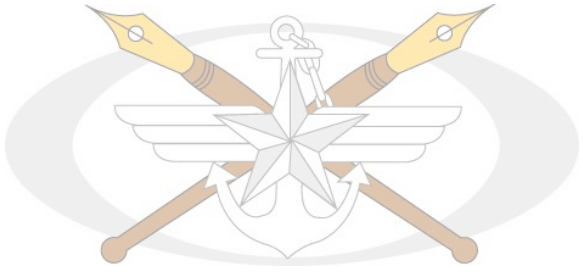
한편 미 공군은 한국 내에 F-51전투기 및 C-47수송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적합한 비행장으로는 대구에 있는 비포장 활주로인 K-2비행장과 포항 연일에 있는 K-3비행장 등 2곳 밖에 없었다. 진주 남쪽의 사천에 있는 K-4비행장은 긴급시 운용할 수 있는 비행장으로 가용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술항공기들은 일본으로부터 이륙하여 운용되었기 때문에 한국내에서 작전시간이 제한되어 적시적인 지상작전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북한군들은 공중지원 없이 지상병력으로만 유성 가도와 논산 가동에서 공격을 실시하였다. 이에 미 제34연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7월 20일 본격적인 공격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적 침투부대에 의한 후방 차단과 상하 제대간의 통신두절로 조기에 붕괴되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미 제34연대가 수행한 전투를 전초지역전투, 갑천방어선 전투, 대전 시가지 전투, 그리고 대전 철수 작전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3-8> 대전 시가지전투(1950. 7.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전초지역 전투

(1) 유성-대전 가도

북한군(제4사단 제5연대)들은 7월 19일 오전에 유성 방향에서 미 제34연대 제1대대 주진지와 대전비행장에 위치한 연대지휘소 부근에 포병화력을 집중하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대대규모의 적 보병들이 유성에 추진 배치되었던 B중대(-)를 공격하였다.[76] 대대관측소(138고지 부근)에서 이를 보고 있던 대대장은 즉각 포병과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적들을 제압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B중대(-)에서는 소대장 2명이 모두 부상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대대장은 이러한 전투상황을 연대장 보챔프(Beauchamp) 대령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B중대(-)의 철수를 승인을 받았다. 이리하여 유성을 적에게 넘겨주게 된 대대는 이제 갑천을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하게 되었으며, 이날은 더 이상 적의 공격이 없는 가운데 날이 저물게 되었다.

105미리 곡사포 사격

제1대대장 아이레스(Ayres) 중령은 철수한 B중대로부터 접적보고를 받고 이날 야간에 적의 강력한 공격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이럴 경우에 대대병력으로서는 진지를 지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속출할 것으로 판단하여 14시에 "그 날 밤중으로 연대를 철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연대장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연대장은 "7월 20일까지는 현진지를 고수하여야 한다"라고 천명함으로써 거절하였다.[77]

이날 낮에 비행장의 연대지휘소 부근에 적의 포화가 집중되고, 또 남서쪽 논산가도의 적정이 심상치 않게 되자 연대장은 사단장의 승인을 얻어 제34연대지휘소 및 포병진지를 어두워진 다음에 시내 및 그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연대지휘소는 대전비행장에서 전방에 배치된 대대와의 연락을 고려하여 유성가도와 논산가도가 만나는 지점 부근에 있는 충남도청사 맞은편(남쪽)의 목조건물(현 대전시청)에 새로이 개설되었고, 포병진지도 북쪽과 서쪽, 그리고 남서쪽의 3방향에 화력지원이 용이한 문창동(공설운동장 부근) 일대로 이동되었다. 그리고 제1대대장은 날이 어두워졌을 때에 대대수송장교로 하여금 대대지휘차량과 무전차량, 그리고 각 소총중대에 짚-차 1대, 중화기중대에 짚-차 2대만을 남겨놓고, 전 차량을 시내로 이동시키도록 하였다.

이날 밤이 깊어지면서 별다른 접전은 없었으나 제1대대장은 대대진지 간격사이로 적 병력들이 침투하는 것 같았으며, 22시경에는 유성 부근에서 적 전차의 요란한 소음이 칠흑의 밤하늘을 뒤흔드는 소리가 들려 심상치 않은 징조가 보였다. 따라서 제1대대장은 순찰조를 보내 적 전차이동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나 순찰조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연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적 병력들이 야음을 이용하여 대전 시내로 이동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대의 철수를 또다시 건의했으나 거절당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논산-대전 가도

논산가도에는 7월 19일 오전까지 제34연대 L중대의 1개 소대가 갑천의 가수원교에 대한 경비를 맡았을 뿐 거의 무방비상태로 방치된 형편이었다. 따라서 연

대장 보챔프 대령은 사단장의 조치에 따라 증원될 제19연대 제2대대를 이곳에 보강하기로 하였다.

연대장은 이보다 먼저 10시 전후에 금산(대전 남쪽 24㎞)에서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사단수색중대가 시내로 집결하자 1개 소대를 차출하여 논산가도를 기동정찰토록 하였다. 이에 정찰임무를 부여받은 수색 2소대는 10시 30분경에 39명의 병력을 차량에 태워 가수원교를 지나 논산가도를 따라 정찰을 실시하였는데, 서쪽으로 4㎞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도로 양쪽에 매복한 적으로부터 기습사격을 받아 갑천 동안(東岸)으로 철수하여 적정을 연대장에게 급히 보고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L중대(장, Jack E. Smith 대위)의 주력을 급히 정림동 가수원교로 증원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정오가 못미처 L중대가 도로 북쪽의 189고지에 진지를 점령하여, 갑천을 건너려는 적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한편 사단장은 19일 아침에 영동의 사단지휘소로 향하다가 옥천의 제21연대지휘소에 이르렀을 때에 제34연대의 배치 상태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 발길을 돌려 급히 대전으로 되돌아갔다. 그가 도착한 바로 그때에 논산가도에서는 189고지의 L중대가 갑천을 사이에 두고 적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사단장은 바로 정림동 일대 L중대 방어진지로 달려가 사단에서 지원된 M-24 경전차 2대에 대해 직접사격을 지휘하면서 L중대의 분전을 독려하였으나, L중대는 중과부적으로 진지 일부가 유린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마침 제19연대 제2대대는 정오가 지난 이 시간에 대전역 광장에 도착하고 있었다. 즉시 제34연대장은 이 대대에 "정림동으로 급히 이동하여 논산가도를 방어중인 L중대의 진지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였다.[78] 이에 제19연대 제2대대는 13시경에 유등천의 유천교를 건넌 다음부터 F중대를 우측(도로 북쪽), E중대를 좌측(도로 남쪽), G중대를 예비로 하는 전투대형으로 전개하여 갑천 방향으로 공격하였다. 그리고 189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적을 무찌르고 L중대 방어진지를 회복하였다. 그 후 대대는 지휘소를 유천교 동쪽의 유천동에 개설하고, 도로의 북쪽 189고지 부근의 능선에 F중대를, 도로 남쪽 정림동 부근에 E중대를 배치하고, 예비인 G중대를 E중대 후방에 있는 유등천 동안(東岸)의 93고지에 집결시켰다. 그

리고 L중대와 수색중대 제2소대는 각각 본대로 복귀하였다. 이와 같이 제19연대 2대대는 새로이 논산-대전가도의 방어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대의 F중대와 북쪽의 제34연대 제1대대 C중대와 1㎞ 이상 되는 간격을 메울 수는 없어 방어의 취약성은 남아 있었다.[79] 이후 날이 저물게 되었고, 제19연대 제2대대는 갑천을 사이에 두고 밤새 적과 화력전을 반복하였다.

(3) 북한군의 후방차단 기도

북한군들은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하기 하루 전에 그들의 제4사단 제18연대 병력들을 경무장시켜 대전 후방으로 침투하게 하여 미 제24사단의 철수로를 차단시키고자 하였다. 미 제34연대장 보챔프 대령은 7월 19일 밤에 북한군 침투부대 일부가 대전 후방 지역에서 활동하는 징후가 포착되었으나, 이를 무시함으로써 7월 20일 대전전투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연대장은 7월 19일 자정 무렵에 남쪽의 금산도로가 차단되었다는 불안한 보고를 받았다. 이는 사단수색중대의 크리스타노프(George W. Kristanoff) 중위가 9명의 대원을 이끌고 차량으로 금산가도를 정찰하기 위하여 남하하다가 상소리(대전 남쪽 9.6㎞) 부근에서 적의 사격을 받아 차량이 파괴되고 사상자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연대장은 수색중대 제3소대를 다시 급파하여 적정을 확인하게 하였다. 이 소대가 7월 20일 03시경에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에 의해 진출을 저지당하였다. 그러나 야음으로 말미암아 적의 규모나 도로의 차단상태 등은 밝히지 못한 채로 그곳에 진지를 점령하여 밤을 새우게 되었다. 그러나 연대장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일부의 적 병력이 아군의 심리적 교란을 획책한 것'이라고 가볍게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적정수집과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연대장이 그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이보다 앞서 02시경에 옥천가도에서도 짚-차 1대가 적의 매복병을 만났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그 후로 도로 통행에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이날 야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적이 사단의 퇴로가 될 옥천가도와 금산가도를 차단하고자 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음이 분명하였으나, 어떤 이유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인지 적 침투부대에 의한 대전 후방도로의 차단 징후는 사단장에게는 보고조차 되지 않은 채 날이 밝았다.[80]

2) 갑천방어선 전투

북한군 제3, 제4사단은 7월 20일 03시에 공격준비사격과 함께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이미 7월 19일 야간까지 주력은 갑천 서쪽에 전개시키고, 후방 침투부대들은 도로 차단목표 지점까지 거의 도달한 상황이었다.

이에 비해 미 제24사단장과 제34연대장은 북한군의 후방 차단 기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전방대대와는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시내로 진입한 적 전차를 격파한데 만족하고 전반적인 전장 상황을 오판하여 대전에서의 철수시기를 놓치게 되고, 그 결과 철수시에 많은 병력 및 장비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전투상황을 유성-대전가도와 논산-대전가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 유성-대전가도 전투(제34연대 제1대대)

① 전방방어전투

제34연대 제1대대가 방어하고 있던 유성가도에서는 대전 남쪽의 금산가도에서 적 출현이 확인되었을 무렵인 7월 20일 03시경에 북한군의 전면적인 공격이 개시되었다. 먼저 적의 보병이 야음을 이용하여 은밀히 갑천을 건너서 일부는 도로 북쪽으로 우회하고 일부는 도로 남쪽의 A중대진지로 올라붙은 다음에 포병의 공격준비사격과 동시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전차는 갑천을 건너 도로를 따라 종심 깊이 통과하여 후방을 교란하였다.[81]

제1대대장은 전날부터 대대관측소에 대기하였던 정보장교로부터 관측소가 적에게 유린되었고 전방방어선이 돌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갈마동의 대대지휘소에서 전선 상황을 파악하였다. 이때 서측의 C중대 정면에서는 별다른 접적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적의 전면적인 공격이 아니라 방어 강도 탐색을 위한 부분적인 공격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도로에 배치되어 적 전차 공격에 대비하던 A중대 화기소대의 윌리엄(Williams) 중사를 비롯한 3명의 로켓포조가 진지 후방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도로 북쪽 부근의 고지(표고 90m 정도)를 기어오르는 적 병력을 발견하고, 뒤이어 A중대 주진지인 138고지 후방에도 그와 같은 적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에 당황한 그들은 진지를 버리고 부근의 대대지휘소로 달려가 적이 배후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대대장이 적정을 확인하고자 지휘소를 나서는 순간 조명탄이 피어오르면서 적의 포화가 지휘소 주변에 집중되었다. 뒤이어 04시경에 적 병력이 대대지휘소에 인접한 박격포 진지를 유린하고, 지휘소를 향하여 기관총사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대대장은 대대본부 요원을 지휘하여 적과 대항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방 중대를 호출하였으나 이미 통신이 모두 두절된 상태였다. 이때 전방 중대병력들은 벌써 진지를 이탈하여 대대본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도로를 지키던 3.5인치 로켓포조가 철수한 상황에서 적의 전차는 갈마동 앞 도로를 돌파하여 비행장 방향으로 돌진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대대진지가 돌파되었고, 적의 전차가 눈앞에서 시가(市街)로 향하고 있다"고 급히 보고한 후에 백방으로 부대를 수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곳에서 대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심하였다.

대대장은 부대대장 던햄(Lelant R. Dunham) 소령에게 "나는 우선 적의 예봉을 피하여 부대를 수습한 다음에 차후 방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미 도로에는 적의 전차가 통과하였으므로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귀관은 먼저 대대본부요원과 연대중박격포중대 및 대대화기중대원을 인솔하여 남쪽 논산가도로 남하한 뒤에 그곳에서 도로를 따라 대전 시내로 철수하라. 나는 작전장교(S-3)와 더불어 나머지 병력을 수습하여 뒤 따르겠다"라고 지시하였다.[82] 이에 던햄 소령은 대대본부 지역에 집결한 2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05시경에 대대장이 지시한 방향을 향해 출발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지난 7월 5일 평택 북쪽에서 있었던 패전의 양상이 또 한 번 반복되었다. 즉 적에 의한 단 한번 공격으로 대대는 붕괴되고 공황상태에 빠져 연대장에게 보고조차 제대로 못하고 철수하였던 것이다. 이후로 연대에서는 대대의 행방은 고사하고 철수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② 연대장의 조치

연대장 보챔프 대령은 7월 20일 새벽에 대전 남쪽의 금산가도에 나타난 적정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유성가도로부터 방어진지 붕괴라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제1대대장으로부터 적의 전차가 시내로 돌진 중이라는 보고를 접한 연대장은 재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로 대대장을 불렀을 때에는 이미 유선이 두절된 뒤였다. 이에 통신대의 가설반(架設班)을 급파하여 선로를 복구하도록 하였는데, 잠시 뒤에 그 가설반원들이 되돌아와 "비행장 부근의 도로에서 적 병력이 거리낌 없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연대장은 직접 짚-차를 타고 도로를 따라 비행장 쪽으로 정찰을 나갔는데, 연대지휘소에서 서쪽으로 1㎞ 떨러진 지점에 있는 유성에서 오는 도로와 논산에서 오는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하 도로 분기점)을 지났을 무렵에 유성 방향에서 시내로 돌진 중인 적 전차와 정면으로 부닥치게 되었다. 연대장이 급히 차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에 적 전차에서 기관총이 난사되어 차량이 대파되었으나 다행히

3.5인치 로켓포 사격

그는 가벼운 부상만을 입었다. 간발의 차이로 위기를 모면한 그는 도로분기점으로 달려가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제3전투공병대대 C중대의 3.5인치 로켓포조를 이끌고 적 전차를 격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윽고 적 전차가 분기점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로켓포가 먼저 사격하여 적 전차에 명중시키니 마침내 무적을 자랑하던 적 전차는 화염에 휩싸였다. 이것은 3.5인치 로켓포가 대전에 도착한 이래 최초로 적 전차를 격파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연대장은 급히 지휘소로 돌아가서 사단수색중대의 로켓포조에게도 도로분기점에서 경계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후 06시 전후에 그들도 수침교(도로분기점 북서쪽 1.8㎞, 유등천다리)를 건너오는 적 전차 2대를 연이어 격파하였다.[83]

연대장은 전선의 제1대대와의 통신연락을 다시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통신이 불통이었다. 이때 어떤 참모가 "제1대대와 무선교신을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건재하며 진지를 지탱 중이라고 하였다"라는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내용은 뒷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북한군이 제1대대의 지휘차량을 노획하여 그 무선으로 위장 통화한 것이었다. 이러한 통신 교란은 연대장으로 하여금 상황 파악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즉 연대장은 북한군의 전차만이 유성가도 방면에서 제1대대 진지를 돌파하였을 뿐 보병은 아직 갑천을 건너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다.[8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③ 제3대대의 증원 실패

연대장은 제1대대가 전방 방어진지를 잘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로서 비행장 동쪽 고지에 배치되어 있던 제3대대에 제1대대와 제19연대 제2대대 사이의 간격을 보강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제3대대는 K중대와 M화기중대 일부를 증강시켜 그곳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K중대가 현 진지에서 출발하여 지정된 목표 방향으로 가기 위해 비행장을 지나던 중 T-34 전차 6대를 앞세운 적 1개 보병대대 규모와 접적하게 되었다. 이로써 K중대는 부여된 임무를 포기하고 적과 싸우면서 원래 진지로 철수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7월 20일 04시에

비행장을 점령한 후에 이동을 정지했는데, 이는 대전 후방으로 기동한 그들의 침투부대가 후방 퇴로를 차단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다.[85]

연대장은 이러한 북한군의 기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때까지도 전방대대가 잘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사단장에게 제3대대가 역습에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전방대대가 철수한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황을 보고하였다. 사단장은 잘못된 정보보고를 토대로 이날 어두워진 후에 대전에서 철수하도록 지시하였다. 물론 사단장은 북한군의 후방차단 기도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④ 제1대대 철수

제34연대 제1대대 병력 일부는 부대대장 던햄(Dunham) 소령이 지휘하여 7월 20일 새벽 06시 전후에 논산 가도를 방어하고 있는 제19연대 2대대 방어진지 후방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선두 제대가 유등천 서쪽의 논길을 따라 남하하여 제19연대 제2대대 지휘소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던햄 소령은 제19연대 제2대대장인 맥그레일(McGrail) 중령으로부터 대전으로 들어가는 후방통로(도로분기점)가 적의 전차에 의하여 차단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던햄 소령은 논산가도를 따라 대전 시내로 들어가기로 한 원래의 계획을 바꾸어 도로 남쪽의 보문산 기슭을 타고 우회하기로 하였다.

제1대대장 아이레스(Ayres) 중령은 11시 무렵에 보문산 정상에서 부대대장 일행과 합류하였다. 대대장은 정상에서 사방을 관망하다가 남쪽의 금산 가도를 따라 북상중인 피아를 알 수 없는 큰 규모의 부대를 목격하였다. 이 도로의 확보가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그곳에서 수습된 150여 명의 대대병력을 부대대장이 지휘하여 대별리(보문산 남동쪽 3.5㎞) 부근에서 차단하도록 하였다. 이에 부대대장 일행은 금산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보문산의 남동쪽 산기슭을 타고 대별리로 이동하던 중에 얼마 가지 못하여 수 미상의 적 유격대를 만나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 후에 접적 이탈하여 구완리(보문산 남쪽 1.5㎞)로 방향을 바꾸었으나, 거기에서도 적의 기습 사격을 받아 부대대장 던햄 소령이 목에 치명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병력은 서쪽의 계곡을 따라 유등

천변의 무수리(구완리 서쪽 2㎞)로 밀려나게 되었다.

한편 대대장 자신은 대대 작전장교(S-3)인 쿠퍼(Curtis Cooper) 소령과 중화기중대장 스폴딩(Malcolm C. Spaulding) 대위, 그리고 전령 1명과 무전병 1명 및 통역 1명, 그리고 타임지의 피일더(Wilson Fielder, Jr.) 기자를 대동하고, 시내의 연대본부를 찾아 금산가도로 이동하였다. 이들이 도로에 미처 올라서기 전인 호동(보문산 북동쪽 2.2㎞)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동쪽 고지에 숨어 있던 적으로부터 불의에 급작 사격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다. 이때 대대장과 작전장교(S-3) 및 중화기중대장과 통역만이 근처의 숲 속에 종일토록 숨어 있다가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그곳을 탈출하였다. 피일더(Fielder) 기자는 몇 개월 뒤에 시체로 그곳에서 발견되었다.[86]

연대와 연락을 취하려던 대대장 아이레스 중령의 노력과 금산가도로 이동하고 있는 적을 차단하려던 부대대장 던햄 소령의 노력은 함께 좌절되었다. 이와 같이 제1대대는 이날 와해되어 석양과 더불어 저마다 활로를 찾아 분산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대전 시내에 위치한 연대지휘소에서는 알 길이 없었다.

(2) 논산-대전가도 전투(제19연대 제2대대)

① 전방방어전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논산-대전가도에서는 7월 19일 오후에 투입된 제19연대 2대대가 밤새도록 적과 화력전을 전개하였고, 20일 새벽부터는 갑천을 넘어서려는 적의 공격으로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때 도로 북쪽의 F중대는 적의 압력을 지탱하지 못하여 갑천변의 주진지에서 물러나 189고지 부근을 점령하게 되었으나, 이마저 06시를 전후하여서는 지켜낼 수 없게 되었다.

그 무렵 유등천 동쪽에 위치한 대대지휘소에서는 대대원 한 명이 시내 쪽에서 달려와 "적 전차 3대가 시내 입구의 도로분기점에서 길을 막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사실 적 전차 3대는 공병중대와 수색중대 3.5인치 로켓포조에 의하여 이미 격파된 전차였는데, 그러한 상황을 몰랐던 보고자는 멀리서 전차의 형태만을 보

고 오판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대장 맥그레일 중령은 크게 놀랐고, 비로소 후방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멀리 보이는 시내의 상공은 아침 안개에 뒤덮인 채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간간히 폭음마저 들리기도 하여 보고의 신빙성을 더하여 주었다. 이에 대대장은 우선 지휘소 남쪽의 93고지에 예비로 대기 중인 G중대(중대장, Michael Barszcz 대위)에서 1개 소대를 차출하여 후방과의 통로를 개척하기로 하였다. G중대에서는 제2소대(소대장, Robert L. Herbert 소위)가 3.5인치 로켓포 1개조와 함께 시내 쪽 도로분기점으로 이동하였다. 이미 그곳에는 수색중대의 리틀(Little) 소위가 이끄는 1개 분대가 3.5인치 로켓포 2문으로 지키고 있어, 그들과 합세하여 경계를 강화하게 되었다.

대대장은 도로 차단 상황을 연대장에게 보고하려 하였으나 이미 통신이 두절되어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허버트 소대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더욱 착잡한 심경에 빠져들었다. 그때 북쪽에서 철수하고 있던 제34연대 제1대대 병력의 선두제대가 대대지휘소에 도착하였는데, 대대장은 그 대대로부터 붕괴된 전투상황을 듣고 대대의 후방통로가 차단되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였다. 그 무렵 대대의 북측에 배치되었던 F중대가 189고지 부근에서 철수하여 대대지휘소로 집결하였다. 대대장은 그들과 함께 지휘소 부근에 급편진지를 마련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면서 연대와의 연락을 모색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② 제19연대 제2대대 철수

연대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11시가 가까워지도록 상황은 오리무중인 상태가 계속되자, 대대 참모들은 후방통로가 차단되었을 것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에 대대작전보좌관 몬테스클로스 대위가 나서서 자신이 후방통로를 정찰하여 시내의 연대본부와의 연락을 시도하겠다고 자청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그를 떠나보낸 얼마 뒤 그와도 통신이 두절되자 후방통로가 차단되었음이 분명하다는 판단을 굳히고 대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87] 대대장은 그때까지도 방어진지를 지키고 있는 E중대를 무전으로 호출하여 "대대지휘소를 보문산 중턱(정상 북서쪽 1.5㎞ 200능선)으로 옮길 예정이다. 중대는 즉시 현 진지에서

철수하여 보문산 중턱으로 집결하라"는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 명령이 발신된 뒤로 무전기의 고장이 일어나 E중대와는 더 이상 교신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대대장은 정오가 가까울 무렵에 F중대원과 함께 지휘소를 남쪽의 보문산 북쪽 산기슭으로 옮기고, 정보장교 위갈(William Wygal) 중위에게 연대지휘소로 가서 대대의 이동 상황을 연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작전장교 우즈(Kenneth Y. Woods) 대위에게는 대대 예비인 G중대(-)로 가서 철수명령을 하달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에 대대장은 대대본부요원과 F중대원을 이끌고 앞서간 제34연대 제1대대와 합세하고자 보문산 정상으로 재차 이동하였다. 한편 도로 남쪽에 배치되었던 E중대(중대장, Lindsay 중위)는 북한군과의 큰 접전이 없는 가운데 한나절을 보내다가 대대의 철수명령에 따라 13시 전후에 진지를 이탈하여 대대지휘소를 찾아 보문산 북쪽 산기슭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의 대대지휘소는 이미 산 정상으로 이동한 뒤여서 합류하지 못했으나, 뜻밖에도 작전보좌관 몬테스클로스 대위를 만나게 되어, 그와 함께 정상으로 올라가 대대본부와 합세하였다.

몬테스클로스 대위는 이날 오전에 연대본부와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후방의 통로가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내로 들어갔었다. 그가 시내 쪽의 도로분기점에 도착했을 때에 앞서간 G중대의 허버트 소위가 경계임무를 맡고 있었고, 거기로부터 시가까지의 통로는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시내에 있는 연대지휘소로 가서 대대의 전황을 보고하자, 연대로부터 "대대는 곧 병력을 수습하여 시내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88] 그는 급히 대대지휘소로 되돌아갔으나 그곳에는 어떤 민간인 한 사람이 죽어 넘어져 있을 뿐 인기척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었다. 대대지휘소가 이미 남쪽의 보문산 중턱으로 이동한 뒤였던 것이다. 그리고 E중대 진지를 확인하였으나 병력이 모두 철수하고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차를 돌려 시내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도중에서 대대 이동 상황을 연대에 보고하기 위해 연대본부를 찾아가던 대대 정보장교 위갈(Wygal) 중위를 만나 대대지휘소의 이동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차를 버리고 도보로 산 정상을 향해 이동하였다. 그는 끝내 지휘소와 합류하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못하고 다시 시가를 향하여 능선을 내려가다가 때마침 그곳으로 철수 중이던 E중대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E중대와 함께 논산가도로 내려가 시내로 들어가기로 하였으나, 이미 눈 아래로 굽어보이는 도로가에 대대규모로 추산되는 적이 종대를 지어 시내 쪽으로 이동 중이고, 멀리 도로분기점 부근에는 전차 1대가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발길을 돌려 보문산 정상으로 올라갔었다. 그런데 의외로 그곳에서 대대장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몬테스클로스 대위가 동분서주하는 동안에 대대가 연대본부와 합세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한편 대대 예비인 G중대는 93고지에서 오전 동안 계속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중대는 날이 밝자 시가입구의 도로분기점에 적 전차가 출현한 것을 목격하고, 대대장의 지시에 의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2소대를 출동시켰다. 그 뒤로 별다른 접적이 없는 가운데 중대는 60밀리 박격포로써 전방중대를 지원하면서 진지에 남아 있었는데, 정오가 지난 직후 대대 작전장교 우즈(Woods) 대위가 달려와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로써 13시경에 G중대는 중대장 바르츠(Barszcz) 대위가 인솔하여 진지에서 철수하였다. 이때 중대는 제1소대로 하여금 선도하게 하고 화기소대, 제3소대 순으로 철수하도록 하였으나, 그때까지 60밀리 박격포사격을 계속 중이던 화기소대장이 중대장에게 "소대의 박격포탄이 아직 남았으니, 이를 모두 사용한 뒤에 뒤따르겠습니다. 제3소대와 철수 순서를 바꾸어 주십시오"하고 건의하였다. 이에 중대는 제1·제3소대만으로써 먼저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화기소대는 그곳에서 박격포사격을 계속하다가 적의 공격을 받고 소대장과 18명의 소대원이 모두 그곳에서 옥쇄하고 말았다.[89]

이에 논산가도는 13시 부로 제19연대 제2대대 병력이 전부 철수함으로써 북한군에게 완전히 개방되고 말았다.

3) 대전 시가지 전투

대전 시가지 전투는 갑천방어선 전투와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 즉 유성 가도에서 북한군 전차가 04시경에 일부 보병만 탑승시켜 제34연대 제1대대를 돌파하여 시내로 진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미 제34연대 제1대대 병력들은 05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경에 철수하였고, 북한군들은 10시경에 대전비행장을 점령하였다. 여기서 북한군들은 전면적인 대전 시가지 공격을 실시하지 않고 포병사격과 전차 단독 공격으로 교란 작전만 실시하였다. 그들의 후방 침투부대가 철수로를 차단할 때까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딘 소장과 보챔프 대령은 전방대대가 계속 방어진지를 잘 지탱하고 있고, 적은 일부 보병만 전차에 탑승시켜 시내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내로 진입한 적 전차를 격파하고 순간적으로 평온상태인 것을 전반적인 전황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그 결과 후방침투부대들이 후방 도로를 모두 차단할 때까지 주력부대들은 대전 시내에 남아 있었다. 이들은 결국 차단된 철수로를 돌파하지 못하고, 소부대 또는 개별 단위로 산악 소로를 따라 철수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적 전차에 의한 대전 시내 교란으로부터 철수상황까지 전투경과를 세부적으로 기술하였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대전시내

(1) 적 전차 대전 시내 교란

딘 소장은 7월 19일 제34연대 지휘소에서 부관인 클라크 중위와 육본연락장교인 김종평[90] 대령 등과 함께 밤을 새웠다. 이들은 7월 20일 05시 30경에 연대지휘소 주위에서 새벽안개를 뒤흔드는 소화기의 총성을 듣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우선 전황을 파악하였는데, 유성가도에 배치된 제34연대 1대대는 진지를 확보중이고, 논산가도의 제19연대 2대대도 정면에서 약간의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전날 밤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잠시 뒤에 연대장 보챔프 대령으로부터 도로분기점까지 접근한 적의 전차를 격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그도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날이 어두워지면 연대를 대전에서 철수시키라고 명령하고, 영동의 사단지휘소에도 유선으로 알려 사전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91]

전선 상황이 혼미한 가운데 06시 30분을 전후하여 제34연대 제1대대가 철수하고 없는 유성가도를 따라 적 전차 3대가 보병을 탑승시켜 대전 시내로 들어왔다. 적 보병은 전차에서 내려 골목과 건물 속으로 숨어들어 저격병으로 변하여 종일토록 시내를 교란하였고, 적 전차는 닥치는 대로 총포탄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적 전차는 다시 되돌아 시가를 빠져 나가다가 제34연대의 취사장과 수송대가 함께 자리 잡은 근무중대지역을 습격하였다. 그곳에는 제19연대 제2대대의 취사차량도 있었고, 대대 군수장교(S-4)인 나쉬 소위를 비롯하여 150여 명의 병력도 모여 있었다. 거기에 적 전차 2대가 한꺼번에 들이닥쳐 전차포와 기관총을 난사하게 되니, 한쪽에서는 탄약차량이 폭발하고, 한쪽에서는 식량차량이 불타올라 어찌할 겨를도 없이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였다.[92]

그때 3.5인치 로켓포가 그곳에 있었으나 당황하여 아무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착안하지 못한 까닭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였다. 한동안 그 지역을 휘저어 놓고 적 전차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 다음에 어떤 병사가 3.5인치 로켓포를 찾아들고 전차를 따라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 사이 적 전차는 다시 의무중대 본부 앞에 이르러 부상자를 만재한 2대의 짚-차에 주포 사격을 가하여 그 부상

병을 모두 살해하고, 그 중에서 부상을 다시 입고 길바닥에 방치된 생존자를 그대로 깔아뭉개고 지나가는 잔학성을 보였다. 그곳까지 쫓아간 수색중대 병사 2명이 3.5인치 로켓포를 연달아 사격하여 한 발은 첫 번째 전차의 측면을 명중시키고, 또 한발은 두 번째 전차의 철갑 한 조각을 부수었으며, 뒤이어 나타난 세 번째 전차에 대해서는 포탑을 명중시켰다. 그 결과 첫 번째 전차는 약간 멈칫하면서 서는 듯 하더니 그대로 앞으로 달려 나가 역 광장에 이르러 그 일대에 산재된 장비와 보급품 등에 사격을 가하다가 그곳에서 무한궤도가 끊어져 정지하였고, 전차에서 기어 나오던 적 전차병은 즉시 사살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불타버리고, 세 번째는 포탑을 덜렁거리면서 간신히 그곳을 피하여 달아났으나, 얼마를 가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리하여 수색중대의 로켓포조가 적 전차 2대를 격파하고, 1대에 타격을 가하였다.[93]

이 무렵 연대지휘소에 있던 사단장은 전차 소음을 듣고 확인하니, 도망간 적 전차 1대가 바로 연대지휘소 앞 도로를 지나 비행장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에 그곳에 있는 2.36인치 로켓포 사수 1명을 이끌고 부관 클라크 중위와 함께 짚-차로 적 전차를 뒤쫓아 갔으나, 그 전차는 도로(道路)분기점을 지나 비행장 쪽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바로 사단장은 도로분기점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는 제19연대 제2대대 G중대의 제2소대장 허버트(Herbert) 소위 일행이 막 도착하여 있었는데, 그들은 아군 전차인 줄로만 알고 대전차공격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94]

사단장은 그들에게 계속 그곳을 경계하도록 하고, 자신은 비행장 쪽으로 나아가다가 노상에서 화염에 휩싸인 아군의 탄약차 뒤에 있는 적 전차 2대를 발견하여 가까이 접근한 다음 로켓포 사수에게 사격하도록 하였으나, 로켓포 사수가 조준을 잘못한 탓으로 첫발이 빗나가고 말았다. 당시에 사단장 일행이 휴대한 포탄이 1발뿐이어서 하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하였는데, 이리하여 사단장이 시도한 첫 대전차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후 정오에 적 전차 1대가 다시 시내로 돌입하였으나 이는 제3전투공병대대 C중대의 3.5인치 로켓포조에 의하여 격파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단장 딘 소장 지휘 하에 파괴된 적 전차(1950년 7월 20일)

그리고 13시경에 또 다른 적 전차 1대가 시내로 돌입하여 위풍을 자랑하면서 연대지휘소 앞을 태연히 지나갔다. 이를 본 사단장이 이번에는 공병중대의 3.5인치 로켓포조를 이끌고 뒤쫓아 갔다. 즉 사단장은 로켓포 사수와 탄약수 그리고 2~3명의 소총수를 거느리고 적의 저격탄이 날아다니는 가운데 짚-차를 타고 시내를 질주하면서 1시간 가까이 추적 끝에 어느 막다른 골목에서 그 전차를 따라잡게 되었다. 이에 딘 소장은 로켓포 사격이 실패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클라크 중위로 하여금 대전차공격용 화염수류탄(Molotov cocktail)을 준비하여 건물 모서리에 대기하게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사수와 탄약수를 이끌고 어느 상점건물의 이층으로 올라가 85밀리 주포가 바로 그 건물 쪽으로 향하고 있는 적 전차를 포착하여 사격을 지시를 하였다. 이에 3.5인치 로켓포 사수가 첫발을 발사하니, 집이 무너지는 듯한 후폭풍과 함께 날아간 초탄이 적 전차의 포탑과 동체의 연결부위를 관통하였다. 이어 사단장이 2발을 연달아 더 쏘게 하여 그 전차를 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히 파괴하고 말았다.[95]

이로써 사단장 자신이 3.5인치 로켓포로써 적 전차와 대결하여 능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한 시가지에서 보병의 엄호를 받지 않는 전차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실증하게 되었다. 적은 시내에서 보병의 엄호 없이 전차단독으로 위세를 부리다가 이날 중으로 모두 10대가 격파되었는데, 그 가운데 8대는 3.5인치 로켓포, 2대는 야포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96] 이와 같이 사단장이 직접 진두에 나서 적의 전차를 격파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날 낮에 시내에 돌입한 전차를 모두 파괴하여 시내는 그런대로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실어다 놓은 저격병과 외곽에서 침투한 편의대 등이 거리의 중요지역에 출몰하여 소화기 사격을 퍼붓는 등 대전 시내를 교란하였다.

한편 미 제5공군 예하 항공기들도 역시 대전전투에서 적 전차 수십 대를 격파했다. 이날 아침에 적 전차 15대가 유성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공격하여 그 중 5대를 대전 시내에 도착하기 전에 격파시켰다. 미 공군들은 대전에서 적어도 15대 이상의 전차를 격파하였다. 이날 포로가 된 적 전차 승무원들은 미 항공기가 대전 북쪽에서 또 다른 전차를 격파시켰다고 진술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였다.

(2) 대전 철수 준비

① 잘못된 상황 판단의 연속

사단장 딘 소장은 7월 20일 14시경에 적 전차를 파괴하고 연대지휘소로 복귀하여 연대장과 함께 전투식량(C-Ration)을 들면서 전투상황을 검토하였는데, 그때까지도 갑천방어선이 지탱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이미 북한군들은 제34연대 A중대와 제19연대 F중대의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은폐하여 더 이상의 공격징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판한 것이다.[97]

딘 소장은 연대예비였던 제3대대가 연대장이 하달한 제1대대에 대한 증원명령이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것과 제3대대장 랜트론(Lantron) 소령의 행방이 09시 30분 전후에 짚-차를 타고 지휘소를 떠난 뒤로 묘연하다는 것이 있었으나, 크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걱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98] 이 시각에 북한군들은 미 제24사단을 섬멸시키기 위해 대전 동쪽의 옥천 방향 도로와 남쪽의 금산 방향 도로를 차단할 때까지 정면에서의 압력을 유예하고 있었다. 이러한 적의 간계를 미처 깨닫지 못한 사단장은 전황이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만 잘못 인식하게 되었다.[99] 이에 사단장 전황이 그렇게 나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연대장 보챔프 대령에게 일몰 후로 예정한 철수시간을 앞당겨 주간철수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시내에 남아 있는 적 저격병들의 교란활동을 감안하여 차량의 통행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100]

제34연대장은 즉시 작전과장 맥대니엘(William T. McDaniel) 소령에게 철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연대의 모든 유무선망을 통하여 각급부대에 철수준비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리고 철수명령서 3부를 작성하여 통신이 두절된 전방대대로 전령을 파견하였으나 이미 방어진지를 이탈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행장 동쪽의 제3대대만이 15시경에 철수명령을 받아 병력을 진지에서 철수시켜 시내로 이동하였다. 이때 연대 작전과장이 세운 철수계획은 "대전 시내에 대한 적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전원 차량이동으로 경부국도를 따라 영동으로 철수하되, 그 순위는 제3대대-의무중대-연대지휘부-제19연대 제2대대-제1대대 순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34연대 제1대대와 제19연대 제2대대는 이미 방어진지에서 철수하여 보문산 기슭을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수계획대로 시행될 수가 없었다.[101]

사단장은 철수준비가 갖추어지는 동안 제34연대지휘소와 같은 지역에 위치한 전술항공통제소(TACP)로 가서 항공지원상황을 알아보았다. 그곳에서 전술항공통제 조정관 힐러리(Hillery) 중위는 "지상군으로부터 표적을 얻을 수가 없고, 공중의 항공기로서는 지상병력에 대한 피아를 식별할 수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당시 제34연대 지휘소에서는 예하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고 스스로 철수준비를 위해 정신이 없어서 공중폭격을 활용할 처지가 아니었다. 이에 사단장은 한참 동안 전술항공통제소(TACP)에 머물면서 공중 공격은 집결된 적의 전차와 포병에 역점을 두도록 촉구하였다.[1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단장은 이 무렵에 항공관측자로부터 20여대로 구성된 차량종대가 금산에서 대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사단장은 그 차량종대가 필시 금산에 나가 있는 사단수색중대가 시내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속단하고 그에 대한 공중공격을 실시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후에 알았지만 그때 이미 사단수색중대는 제34연대장의 명령에 의거 대전시내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날 새벽에 금산도로의 적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소리 부근으로 출동한 제3소대만이 낮 동안 도로를 지키고 있다가 연대의 철수명령에 따라 시내로 복귀하였을 뿐이다.

연대장 보챔프 대령은 이보다 앞서 정오 무렵에 포병관측기로부터 "대전 동쪽으로부터 큰 부대가 대전으로 접근중이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 방향이 '동쪽'이라는 데에 옥천가도를 연상하였다. 따라서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가 마달령 진지에서 연대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부대는 우군부대이니 포격을 가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21연대는 마달령 진지를 떠난 적이 없었으며, 또한 항공관측자가 보고한 병력은 동쪽이 아니라 '남동쪽'으로 금산 방향의 도로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던 북한군이었다.[103]

이날의 대전 상황은 착각과 오류가 연속된 혼미 속을 헤매는 가운데 제34연대의 상황은 점점 불행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② 사단장 철수명령 하달

대전에 머물고 있던 제34연대 예하부대 및 지원부대들은 연대장의 철수명령에 따라 15시 30분경에 병력들이 연대지휘소 부근으로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뜻밖에도 미 제1기병사단 소속 M-24경전차 1개 소대(5대)가 사단의 장비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영동으로부터 연대지휘소에 도착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지휘소 부근에 먼저 집결된 제34연대 I중대와 제13포병대대 B포대 및 제63포병대대 B포대 등으로써 선발대를 편성하여 전차소대 엄호 하에 즉시 영동을 향해 출발하도록 지시하였다.[104] 그리고 사단장은 16시경에 영동의 사단지휘소를 유선으로 호

출하여 기관차를 대전역으로 올려 보내어 그곳에 대기 중인 화물차를 영동으로 회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역구내에는 10여 대의 화물차에 탄약과 보급품이 만재된 채 남아 있었으나 그것을 끌어갈 기관차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대전시내에 함께 남아있던 사단 군수보좌관 해필드(Raymond D. Hatfield) 대위로 하여금 기관차가 도착하는 즉시로 화물차를 회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사단장은 연대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대지휘소로 가서 연대장을 찾았으나, 연대장은 15시 30분 전후에 혼자 짚-차를 타고 지휘소를 떠났으며 아무도 그 후에 연대장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사단장은 연대장이 통신이 두절된 제1대대를 찾아간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오전에 있었던 제3대대장 랜트론(Lantron) 소령의 실종에 이은 두 번째의 일이어서 불길한 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105] 그 무렵에 사단장은 제1기병사단의 전차소대와 함께 먼저 떠난 선발대가 시내 동쪽 끝 부분에서 적의 사격을 받아 선두차량의 2~3대가 파괴되어 차량종대가 돈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즉시 그는 영동의 사단사령부에 "전차를 보내라. 대전시내의 동쪽 끝 부분에서 적이 도로를 차단하였다"라는 요지의 전문을 보내고, 충남도청사의 옥상에 올라가 사방을 살펴보니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은 짙은 연기이고, 들리는 것은 총포성 뿐이었다.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깨달은 사단장은 다시 연대지휘소로 달려가 부연대장 웰링턴(Wadlington) 중령에게 "즉시 지휘소를 폐쇄하고, 옥천가도를 따라 철수하라"라고 명령하였는데, 그때가 17시 30분경이었다.[1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③ 철수병력 엄호

제34연대 제3대대가 그보다 앞서 16시경에 시내로 철수하자, 연대 작전과장 맥대니엘(Mcdaniel) 소령은 대대에 1개 중대로써 용두동(도로 분기점 동쪽, 도로 북쪽) 부근의 구릉지대에 엄호진지를 점령하여 본대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대대장 대리 스미스(Smith) 대위는 자신이 지휘하던 L중대를 직접 이끌고 도로분기점 부근에 엄호진지를 점령하여 본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이에 앞서 도로 분기점을 지키던 제19연대 G중대의 제2소대(소대장, Herbert 소위)는 논산가도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 중인 대대규모의 북한군을 발견하고, 도로분기점에서 남동쪽으로 800m 떨어진 작은 구릉(표고 100m 정도)으로 이동하여 호를 구축하면서 급히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북한군은 분기점 남쪽에 이르러 공격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소대진지의 동쪽 후방에는 마침 제11포병대대의 155밀리의 곡사포 1개 포대가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소대장은 즉시 포대로 달려가서 당면한 적정을 알리고 지원사격을 요청하였으나, 포대장은 북동쪽의 보은도로와 북쪽의 청주도로, 그리고 북서쪽의 경부도로 등 3개 방향으로만 포구를 지향하고 있어서 남서쪽 논산가도 방향으로는 사격을 할 수 없으며, 대대 작전장교(S-3)의 지시가 없는 한 사격방향 변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소대장은 야전전화로 대대 작전장교와 직접 통화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적이 먼저 박격포사격을 포대와 소대의 진지에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허버트 소위는 연대지휘소에 전령을 급파하여 그 상황을 보고하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때 연대지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제19연대 제2대대 정보장교(S-2) 위갈(William Wygal) 중위가 달려와 "포대가 철수할 때까지 현진지를 고수하라"라는 연대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이리하여 소대는 이때부터 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적의 진출을 지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투상황을 연대지휘소에서 지켜본 딘 소장은 이 소대를 맥그레일(McGrail) 중령이 지휘하는 제19연대 제2대대의 주력인 것으로 알고 안도의 숨을 쉬기도 하였다. 이는 전장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107]

허버트 소대가 용전분투하여 대대 규모의 적을 한동안 지연시켰지만 어찌된 까닭인지 후방의 포대가 사격에만 열중하였을 뿐 철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역부족으로 적의 압력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된 소대가 먼저 진지에서 이탈하면서 포대의 철수를 재촉하였다. 소대가 진지에서 이탈하자 북한군은 재빨리 그곳을 점령하여 시가를 향하여 박격포탄을 퍼부으면서,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포대를 공격하였고, 곧 포대를 점령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부연대장 웰링턴 중령에게 "즉시 역습하여 포대진지를 회복하고, 포대를 구출하라"고 명령하였다. 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웰링톤 중령의 지시를 받은 연대 작전과장(S-3) 맥대니엘 소령은 역습부대를 급편하여 직접 그 포대진지로 역습을 감행하여 진지를 탈취한 다음에 포차로 포를 견인하여 그 일부를 구출하였다.[108]

(3) 후방 퇴로 차단 및 철수

① 연대장의 세천터널 확보 실패

제34연대 제3대대 L중대가 7월 20일 16시경에 마지막 엄호부대로 남아 북한군의 시내 진입을 저지하는 동안에 연대지휘소 부근에 집결한 병력은 부연대장 지휘하에 차량으로 철수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때 연대의 철수로인 옥천 방향 도로에 대한 적의 차단기도가 노골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처음 확인한 사람은 이날 15시 30분경에 연대지휘소를 떠난 후에 소식이 없던 연대장 보챔프(Beauchamp) 대령이었다.[109]

보챔프 대령은 철수부대 선발대가 제1기병사단 전차소대의 엄호아래 출발하였을 무렵인 15시 30분경에 철수로인 옥천 방향의 도로 상황을 정찰하고자 짚-차를 타고 대전 시내에서 동쪽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단수색중대와 경전차 4대를 만나게 되었다. 그 전차들로 하여금 옥천방향 도로의 길목(금산 방향 도로와의 분기점)을 경계하도록 조치하고, 지휘소로 복귀하다가 되돌아보니, 그들은 그가 지정한 위치를 떠나 옥천가도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이에 연대장은 차를 돌려 그 전차를 뒤쫓아 갔는데, 시내를 벗어나 동쪽으로 1.5㎞되는 지점인 판암동 부근에 이르러서야 전차를 따라 잡게 되었다. 그 전차를 시내 쪽으로 되돌리려는 순간에 느닷없이 적의 소화기사격을 받게 되었다. 이때 연대장은 도로 북쪽의 구릉에 올라가 적정을 살펴보니 도로의 남쪽 구릉지대에 적 일부가 숨어들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때 멀리 남쪽의 금산가도로부터 가오동(판암동 남쪽 1㎞) 마을을 지나 북상 중인 큰 규모의 적을 발견하였다. 그는 적이 연대의 철수로인 옥천가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차를 재촉하여 북동쪽의 세천터널로 달려갔다. 이 터널이 연대 철수 작전에 요충지가 될 것으로 판단한 까닭에서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전과 옥천 사이의 도로에는 경부 국도와 철도가 나란히 이어지고 있으며, 마달령 부근에는 증약터널과 세천터널(증약터널 서쪽 1.3㎞)로서 두 개의 철도터널이 있으며, 길이는 각각 1㎞와 500m를 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도로는 터널위의 고개에서 협곡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곳은 모두 도로를 차단하기에 절호의 장소였다. 이러한 지형적인 조건을 감안하여 제21연대가 증약터널 부근에 진지를 점령하여 애로와 터널을 함께 이미 확보하였다. 이제 보챔프 대령이 남은 한 곳인 세천터널 지역을 장악하려 한 것이다. 보챔프 대령이 세천터널 부근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는 공병폭파조가 터널을 폭파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폭파조에게 "곧 연대의 철수가 시작될 것이니, 그곳을 통과할 때까지 폭파를 하지 마라"고 지시하고, 마침 고개를 지나던 M-16대공포차 2대를 세워서 전차와 함께 도로와 터널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곳에 진지를 점령할 보병병력을 찾고자 모색하였으나 철수 본대가 도착하기까지는 보병병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도로와 터널을 왕래하는 동안에 철수부대의 선발대인 연대의 I중대와 포병부대 일부가 협로를 지나 그대로 옥천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보챔프 대령은 이미 그곳에 가까워진 적의 사격소리를 들으면서 16시 30분경에 마달령 부근에 진지를 점령 중인 제21연대 제1대대(장, Charles B. Smith 중령)를 찾아갔다. 그는 증약리(증약터널 동쪽 500m)의 대대지휘소에서 제1대대의 전환 운용을 협의하고자 옥천의 제21연대본부를 긴급 호출하였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부사단장 멘노허(Pearson Menoher) 준장과 교신을 하게 되었다. 이때 부사단장이 그를 옥천으로 불러 대전 상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그는 다시 옥천으로 달려가서 대전에서의 철수상황과 도로차단의 위험상황 등을 보고하였다. 이에 부사단장과 그곳의 제21연대장 스테판(Stephens) 대령이 비로소 제34연대가 위기에 직면한 것을 알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21연대로서는 마달령의 제1대대를 진지 전환하는 데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촌각을 다투는 세천터널 확보에 나설 형편이 못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 대신에 제34연대장 보챔프 대령은 제21연대로부터 경전차 1개 소대를 지원받아, 그곳에 먼저 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결된 I중대원 60명과 함께 세천터널로 되돌아가 자신이 직접 그 지역을 통제하기로 하였다.[110]

연대장이 I중대원을 이끌고 터널로 급히 달려갔으나, 이미 그곳에 있던 공병폭파조가 모두 적에게 사살되어 사체가 길을 덮고 있었고, 전차와 대공포차는 적 화력을 피하여 동쪽으로 물러나 있었다. 북한군 침투부대가 연대장보다 한걸음 먼저 터널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이에 연대장은 I중대를 지휘하여 터널을 확보하고자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함께 공격하던 전차 1대가 적이 매설한 폭약으로 말미암아 도로에 정지되었고, 어느새 박격포 진지까지 마련한 적의 화력에 터널로의 접근이 저지되었다. 이곳에서 연대장은 2시간 가까이 적과 접전을 벌이면서 터널지역을 장악하려고 애를 썼으나, I중대원의 탄약이 모두 소모되어 하는 수 없이 마달령의 진지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이로써 적의 도로차단선을 분쇄하려던 연대장의 노력이 끝내 무위로 끝났고, 이러한 그의 행적을 대전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② 대전역 보급품 후송 실패

영동의 사단지휘소에서는 16시경에 내린 사단장 명령에 따라 대전역의 보급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가까운 이원역(세천역 남동쪽 7.5㎞)에 있는 기관차 1대에 대전기관사무소 소속의 승무원(기관사) 3명과 열차호송병 30여 명을 탑승시켜 대전으로 올려 보내었다.

기관차가 탄수차(炭水車, tender)를 앞세운 역진형태로써 16시 30분경에 세천터널을 지나게 되었는데, 탄수차가 터널 속에서 서쪽으로 머리를 내밀자 그 남쪽 능선으로부터 적의 사격을 받아 급수조가 파열되었다. 이에 기관차는 비처럼 쏟아지는 적 화망을 돌파하여 대전역에 도착하였지만 수압이 저하하여 화차를 견인할 추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기관차만이 16시 45분경에 호송병과 함께 옥천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삼정리(세천터널 남서쪽 1.5㎞) 부근으로부터 터널에 이르기까지 대동천(대전천 지류) 계곡을 따라 부설된 철로의 좌우를 연한 능선을 점령한 적으로부터 집중적인 화력을 받았다. 이에 탄수차에 탄 호송병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에 응사하였으나 사상자만 속출하게 되었다. 기관차가 1.5㎞나 되는 적의 차단선을 돌파하여 터널을 빠져나가는 동안 기관사 김재현이 죽고, 현재영이 부상을 입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황남호가 혼자서 간신히 기관차를 운행하여 옥천역으로 귀환하였는데, 그때까지 살아남은 호송병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111]

사단장의 조치에 따라 대전역에서 이 기관차를 기다린 사단 G-4 보좌관 해필드(Hatfield) 대위는 기관차가 빈차로 되돌아가게 된 상황을 사단장에게 보고하였고, 사단장은 17시경에 다시 영동의 지휘소를 불러 다른 기관차를 대전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해필드 대위가 계속 역구내에 남아 기관차를 기다리게 되었으나, 그는 끝내 기관차의 도착을 보지 못한 채 북한군이 들이닥쳐 그곳에서 전사하였다. 이와 같이 보급화물차의 구출기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로 미루어보면 연대가 시내에서 아직 철수 종대를 편성하고 있던 17시경에 적은 이미 세천터널 부근에 견고한 차단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③ 연대 본대 철수

부연대장 웰링톤(Wadlington) 중령은 옥천 가도에서 진행되는 적의 세천터널 확보 움직임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지막 철수준비에 들어갔다. 그가 지휘소 앞 도로에서 차량종대를 편성하던 중 적의 박격포탄이 집결지에 떨어져 사상자가 발생했다. 어느덧 적의 포병화력이 여기까지 위협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무렵 서쪽의 도로분기점 부근에서 엄호진지를 점령중인 L중대로부터 "큰 규모의 적들이 비행장 쪽에서 시가를 향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라고 급히 보고되었다. 이에 사단장 딘 소장은 행군본대의 출발을 재촉하는 한편, L중대로 하여금 본대가 철수개시 후 45분 동안 적의 이동을 지연한 다음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런 연후에 사단장은 부관 클라크 중위를 대동하고 호위차량(짚-차) 1대를 앞세워 17시 55분에 연대지휘소를 출발하였으며, 뒤이어 행군본대가 18시에 출발하였다.[112]

부연대장 웰링턴 중령은 행군본대를 2개 제대로 편성하여 각각 병사 5명을 탑승시킨 2대의 짚-차로써 행군종대를 선도하게 하였다. 이때 자신은 선두제대를

맡고 연대 작전과장(S-3) 맥대니엘 소령은 후위제대를 맡아 뒤따르게 하였다.

웰링톤 중령은 행군종대의 선두에서 화염이 소용돌이치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느 탄약차가 도로의 전신주와 충돌하여 거리를 불바다로 만들어 길을 막아 행군본대의 이동로를 최초 계획에서 바꾸었다. 이때 거리의 곳곳에서 적의 기관총 사격이 있어 선도 짚-차는 적 화력을 제압하여 통로를 개척하면서 이동하였다. 그러던 그 선도차가 길을 잘못 들게 됨으로써 대전역 남동쪽의 어느 막다른 골목을 거쳐 학교운동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웰링톤 중령의 선두제대와 작전과장의 후위 제대 차량 50여 대는 그곳에서 길에 막혀 늘어서게 되었다. 그때 이미 대전역을 점령한 적 병력들이 그곳에 화력을 집중하는 바람에 철수부대는 하는 수 없이 차량을 버리고 120여 명의 병력만이 동쪽 126고지(판암동 북쪽 1.2㎞) 방면으로 올라가 남동쪽 방향으로 산길을 타게 되었다. 이 병력들은 흩어져 철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병력손실을 입으면서 다음날 아침에 우군 방어지역으로 도착하였고, 일부 병력은 7월 22일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대전에서 철수 대기 중

실종되거나 영영 돌아오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연대작전과장 맥대니엘 소령도 적의 포로가 되었다.

④ 도로차단선에서의 혈전

제19연대 제2대대 H화기중대가 선도하는 제대는 대전역 광장에서 곧장 남으로 뻗어 금산가도와 이어지는 간선도로를 따라 철수로를 선정하여 내려오다가 옥천가도와의 분기점에 이르러 동쪽으로 꺾어 경부 국도로 진입하여 이동하였다. 그러자 철로와 도로가 상하로 교차되는 세천터널 전방지점을 차단 중이던 적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류탄을 던져 앞을 가로막고, 박격포탄이 선두차량을 전복시켜 도로를 차단하였다. 이에 뒤따르던 M-2 반궤도 차량으로 파괴된 선두차량을 밀어 제치고 전진을 계속하여 그곳을 돌파하였으나, 얼마를 못가서 운전병이 전사함으로써 도로상에 정지하고 말았다. 이에 뒤따르던 차량이 진로를 막게 되자, 중대원들이 차에서 내려 논둑을 타고 적과 사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때 스지토(Joseph S. Szito) 상사가 도로변에 60밀리 박격포를 설치하여 도로 남쪽의 적을 향하여 사격하였고, 잠시 뒤에는 81밀리로 대치하여 30여 발의 연막탄을 사격하여 적의 시야를 가린 다음에 다른 반궤도차로 길을 열게 하여 부대가 나아가도록 하였다.[113] 그러나 세천터널 부근의 차단선에서 다시 한 번 적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아 부대의 일부만이 간신히 옥천으로 빠져 나가게 되었다. 그를 미처 따르지 못한 일부는 차량을 소각하고, 병력만이 도로 북쪽의 능선으로 기어올라 각각 철수로를 찾았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제대가 도로상에 불타고 있는 차량들을 밀어 제치면서 세천터널 부근의 적 차단선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또 한번 적의 집중화력으로 길이 막히게 되었다. 그 결과 사생결단으로 차단선을 돌파한 몇 대의 차량만이 도로를 따라 빠져 나갔을 뿐 나머지 차량들은 대부분 그곳에 유기되고, 병력만이 사방으로 분산하여 제각기 이동하였다.[114]

⑤ 사단장 딘 소장의 실종

대전 동쪽의 옥천가도에서 이러한 혈전이 벌어지고 있을 무렵에 남쪽의 금산

가도에서는 이 전쟁기간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사단장 딘 소장의 실종이다.[115]

사단장은 18시경에 시내의 도로상에서 철수부대의 출발을 확인한 다음에 호위차와 함께 옥천 방향 도로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앞섰던 호위차가 옥천방향 도로 입구를 지나쳐 곧장 남쪽의 금산 방향 도로로 잘못 들어서게 되었다. 사단장 일행은 그 분기점을 지나치는 즉시 진로를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적의 사격이 집중하고 있어 달리는 짚-차를 되돌릴 수가 없었다. 따라서 금산도로를 따라 계속 남하하다가 옥천방향으로 접어들기로 작정하고 도로를 따라 계속 남하하였는데, 그것이 운명의 갈림길이었다.

사단장 일행이 옥천 방향 도로 분기점에서 5㎞여를 남하하여 낭월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금산 방향 도로도 적에 의하여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을 먼저 지나치려다가 적의 습격을 받아 파괴된 차량과 부상병 몇 명을 보게 된 것이다. 이에 사단장은 부상병을 그의 전용차와 호위차에 실어 부관 클라크 중위로 하여금 앞서 떠나도록 하고, 자신은 남아있는 병력을 수습하여 때마침 그곳으로 내려온 반궤도 포차 1대에 나머지 병력을 태워 클라크 중위 일행을 뒤따랐다. 그들이 1.5㎞를 더 남하하여 도로의 굴곡부에 이르렀을 때에 기관총 진지까지 설치한 적의 차단선에 걸려 진출이 저지되었으며, 이때 클라크 중위가 어깨에 적탄을 맞아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장은 그곳의 병력 17명을 수습하여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 서쪽으로 우회하여 활로를 찾기로 하고, 어두워질 무렵 부상병을 부축하여 도로의 서쪽 고지로 올라갔다.

사단장은 고지의 정상에 이르러 부상병을 응급치료 한 다음에 클라크 중위를 앞세워 남향길을 찾던 중에 부상병들이 갈증을 호소하므로 손수 수통을 들고 어둠 속을 더듬어 물을 구하려고 계곡을 내려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실신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사단장 딘 소장이 클라크 중위의 철수대와 이탈하게 되었다. 반면 클라크 중위는 앞서서 길을 인도하다가 뒤늦게야 사단장이 물을 구하려 간 것을 알고 발길을 멈추어 기다렸으나, 그 이튿날 03시가 넘도록 사단장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비로소 당황하여 사단장의 행방을 찾아 나섰으나 어둠 속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 찾을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클라크 중위는 그 이튿날 종일을 그 부근의 숲 속을 더듬어 사단장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였다. 그는 사단장 찾는 것을 포기하고 금산가도를 건너 동쪽의 산길을 따라 영동 방향으로 이동하여 23일에야 우군 지역인 영동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단장 딘 소장의 행방은 오래도록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사단장은 이날 밤 낭떠러지에 떨어져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으나, 어깨와 머리에 상처를 입어 운신이 어려웠던 데다 야음이라 클라크 중위 일행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이튿날부터 단신으로 산야를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다.[116] 그런데 다행히 이튿날 같은 산에서 제19연대 제2대대 E중대의 테이버(Stanley Tabor) 중위를 만나 서로 의지하면서 길을 찾아 남하하게 되었으나, 금산 부근에서 적 병력을 만나 응급 피신하면서 다시 헤어졌다. 테이버 중위는 뒤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8월 4일에 적의 포로가 되었고, 압송되는 도중에 우군기의 오폭을 받아 크게 부상을 입은 데다 영양실조가 겹쳐 북한의 포로수용소에서 아까운 일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딘 소장은 그 뒤로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박종구 등의 도움을 받아가며 1개월을 더 산속을 헤매고 천신만고 끝에 진안까지 남하하였으나, 그가 도움을 청하였던 한두규(진안군 안천면 노성리)의 밀고로 완주군 상전면 운산리에서 적 자위대원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그날이 8월 25일로 대전을 떠난 지 36일이 되는 날이었다.[117] 이리하여 적 점령지역을 돌파하여 아군전선으로 이탈하려 한 그의 노력이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그 동안에 그는 낯선 땅에서 적에게 쫓기면서 언어마저 통하지 않아 음식물을 얻기도 어려웠고, 음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식성에 맞지 않는 까닭에 방황 36일 동안을 거의 냉수로 연명하였다. 그의 초인적인 의지는 당초 86㎏이던 그의 체중이 적에게 붙잡히게 될 당시에 58㎏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은 그해 10월말 아군이 북진하여 평양 부근에서 포로로 잡은 한 북한군 병사의 진술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생사여부를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마침내 생존이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3년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포로생활을 마친 뒤인 1953년 9월 4일에 판문점을 통하여 귀환하게 되었다.[118]

(4) 부대의 수습

대전의 전투상황은 7월 20일 일몰과 함께 제34연대의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써 각 부대는 소부대 및 개인별로 살길을 찾아 산길을 헤매다가 후방의 우군 지대로 모였다.

먼저 제34연대의 제1대대는 보문산으로 우회하여 대전으로 철수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수리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 북쪽의 93고지로부터 철수한 제19연대 G중대와 합세하여 400여 명으로 증강되었다. 이들 주력은 옥천 가도가 적에게 차단당했을 것으로 보고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였다. 이들은 금산-전주를 거쳐 열차편으로 23일에 남원에 도착하여 그곳의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사령관, 신태영 소장)의 철수병력과 함께 25일에 여수에서 해군 YMS-504, 512 두개의 함정을 이용하여 부산으로 회항한 뒤 대구로 집결하였다.[119] 그리고 제19연대 제2대대 주력은 보문산에서 금산으로 남하하였다가 산길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7월 21일에 영동에 도착하였다. 여기에는 제19연대 제2대대장 맥그레일 중령, 제34연대 제1대대장 아이레스 중령, 몬테스클로스 및 슬랙 대위가 포함되어 있었다.[120]

부연대장 웰링톤 중령이 지휘하여 철수하던 본대는 시내의 동쪽 끝에서 흩어져 산길로 옥천을 향하여 발길을 재촉하여 7월 22일 아침에 영동에 도착하였고, 곧 대구로 이동하여 부대를 수습하게 되었다. 한편 옥천 가도로 들어섰던 병력들은 그 중의 몇 명만이 적 차단선을 돌파하였을 뿐 나머지 병력은 판암동 부근과 세천터널에서 적의 사격으로 분산되어 밤길을 더듬어 옥천과 영동을 향하여 탈출하였는데, 7월 23일까지도 이어졌다.

마지막까지 본대의 철수를 엄호한 제34연대 L중대는 본대가 모두 떠난 뒤 접적을 끊고 차량으로 본대를 뒤따랐는데, 이 역시 시내의 도처에서 화력을 퍼붓는 적의 교란으로 길을 잘못 들어 금산도로로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 앞서의 사단장 일행이 만났던 적의 도로차단선에서 그곳에 유기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차량과 장비들을 수집하고, 50여 명의 부상병을 포함한 150여 명의 병력을 수습하게 되었다. 이들 병력이 견인차 1대와 2.5톤 트럭 2대 및 짚-차 4대에 분승시켜 그 차단선을 돌파하였다. 이때 사단장 일행은 그곳을 막 떠나 도로 서쪽 고지의 산비탈을 오르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 후 L중대장 스미스 대위 일행은 그 차단선을 돌파한 뒤로는 별다른 접적 없이 금산-안의를 거쳐 진주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부산의 병원열차를 불러 그 열차로 부산을 경유, 대구로 집결하게 되었다.[121]

연대장 보챔프 대령은 세천터널 부근의 도로개통을 시도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옥천으로 되돌아갔다. 이에 부사단장 멘노허 준장은 마달령선에서 철수한 병력을 수용하여 추후 작전에 대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마달령의 제21연대 제1대대는 적의 차단선과 불과 2㎞ 남짓한 거리에서 그 진지만을 지켜 철수로 개통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한편 제21연대장 스테판 대령은 밤이 깊도록 사단장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사단장에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적은 내일 아침에 반드시 마달령 진지마저 포위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대로 마달령 진지를 고수하기 보다는 그 진지에서 철수하여 지연전을 벌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요지로 철수를 건의하였다. 이에 부사단장은 승인하고, 철수시기와 방법에 대하여서는 연대장에게 위임한 후에 그는 자정에 영동의 사단지휘소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마달령의 제21연대 제1대대는 그 이튿날 아침에 북한군의 공격을 맞이하여 진지에서 철수하였다.[1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전투결과

1) 피·아 피해 현황

미 제24사단은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대전전투에서 당초 참가한 병력 3,933명 가운데 1,150명이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48명이 전사로 확

인되고, 22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단장을 비롯한 874명이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다.[123]

이중 3개 보병대대의 손실을 보면, 제34연대 제1대대는 712명 중 203명을, 제3대대는 666명 중 256명을, 그리고 제19연대 제2대대는 713명 중 211명을 잃은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철수엄호를 맡았던 제34연대 L중대의 경우 총원 153명 중 107명을 잃었으며, 공병 C중대의 경우 161명 중에서 85명의 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또한 차량은 65%를 상실하였으며 제11포병대대 A포대는 155밀리 야포 모두를 잃기도 하였다. 단지 대전에서 무사히 탈출한 부대는 옥천 가도에 도로차단선이 미처 형성되기 전에 선발대로 빠져나간 제34연대 I중대와 제13포병대대 B포대, 제63포병대대 B포대뿐이었다. [124] 사단이 이 전투에서 거둔 전과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뒷날 사로잡힌 한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적의 보병에게는 그리 큰 타격을 가하지 못한 반면 그들 중장비에는 다소의 출혈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76밀리 포의 15문과 120밀리 중박격포, 그리고 전차 15대가 파괴되었다고 진술하였다.[125]

2) 전투 후 전황

(1) 북한군의 동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월 20일 저녁에 대전을 점령하게 된 북한군은 전승을 자축하는 축제분위기에 쌓여 그 이튿날은 정비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었다.[126] 이에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이 전투에서의 공헌부대라고 판단한 이른바 「서울 제3보병사단」, 「서울 제4보병사단과 동 사단의 제18연대」 그리고 「서울 제105전차사단」과 공군 제1추격기연대에 「친위부대」라는 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하여, 그들의 사기를 고무하였다. 특히 제18연대에 그러한 칭호를 붙여준 것은 그 연대가 대전 남쪽으로 우회하여 후방을 차단함으로써 대전을 포위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이루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27]

반면 김일성은 그들 전선사령부(사령관, 대장 김책)에 호된 질책을 가하였다는

후문이 있었다. 왜냐하면 7월 16일에 이미 금강선을 돌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에야 대전을 점령함으로써 4일이란 시일을 허비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들 제1군단이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지 않고 너무 조심성을 나타내 보인 데에 원인이 있다고 간주한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7월 22일부터 다시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이때부터 제3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의 일부만이 경부국도를 따라 대구를 목표로 기동하고, 제4사단은 대전에서 남쪽의 금산가도로 이동하여 안의-거창 방향으로 기동하였다.[128]

(2) 미 제24사단의 동향

미 제21연대장 스테판 대령이 우려한 바대로 7월 21일 날이 밝자, 1개 연대 규모로 추산되는 북한군이 세천터널 부근에서 동쪽으로 마달령을 포위하려 하였다. 이에 그곳의 제1대대는 연대장의 철수명령에 따라 즉시 공병으로 하여금 중약터널을 폭파하도록 한 다음에 제52포병대대의 엄호하에 진지에서 이탈하여 옥천으로 철수하였다가, 11시경에 다시 영동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에 영동 북서쪽 6.5㎞에서 국도를 가로지르는 금강의 양정교를 건넌 후에 그 교량을 마지막으로 폭파하고, 강의 동쪽에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129] 그 이튿날인 7월 22일 정오에 제8군 명령에 따라 대대 진지를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에 인계하고 영동에 집결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24사단은 영동에서 수습된 8,660명으로써 김천을 거쳐 대구로 이동하여 부대를 정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딘 소장의 실종이 확실하여짐에 따라 사단이 대구에 집결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제8군은 이날 7월 22일부로 일본 도오쿄오(東京)에 있던 처치(John H. Church) 소장을 사단장으로 보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사단장 처치 소장의 지휘하에 그간의 상처를 씻고 부대정비에 임하게 되었지만, 급변하는 전쟁 상황은 그러한 재편의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즉, 항공정찰결과 북한군 제4사단이 대전에서 공격방향을 남으로 돌려 금산도로를 따라 안의-진주쪽으로 지향하고 있음이 밝혀진 까닭이다.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7월 24일에 미처 결손보충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 미

제24사단을 진주방면으로 전환시켜 그 방면의 적 공격을 막도록 조치함에 따라 사단은 그날 야간에 진주로 급히 달려가 낙동강의 서남부전선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영동-김천 지연전

1. 전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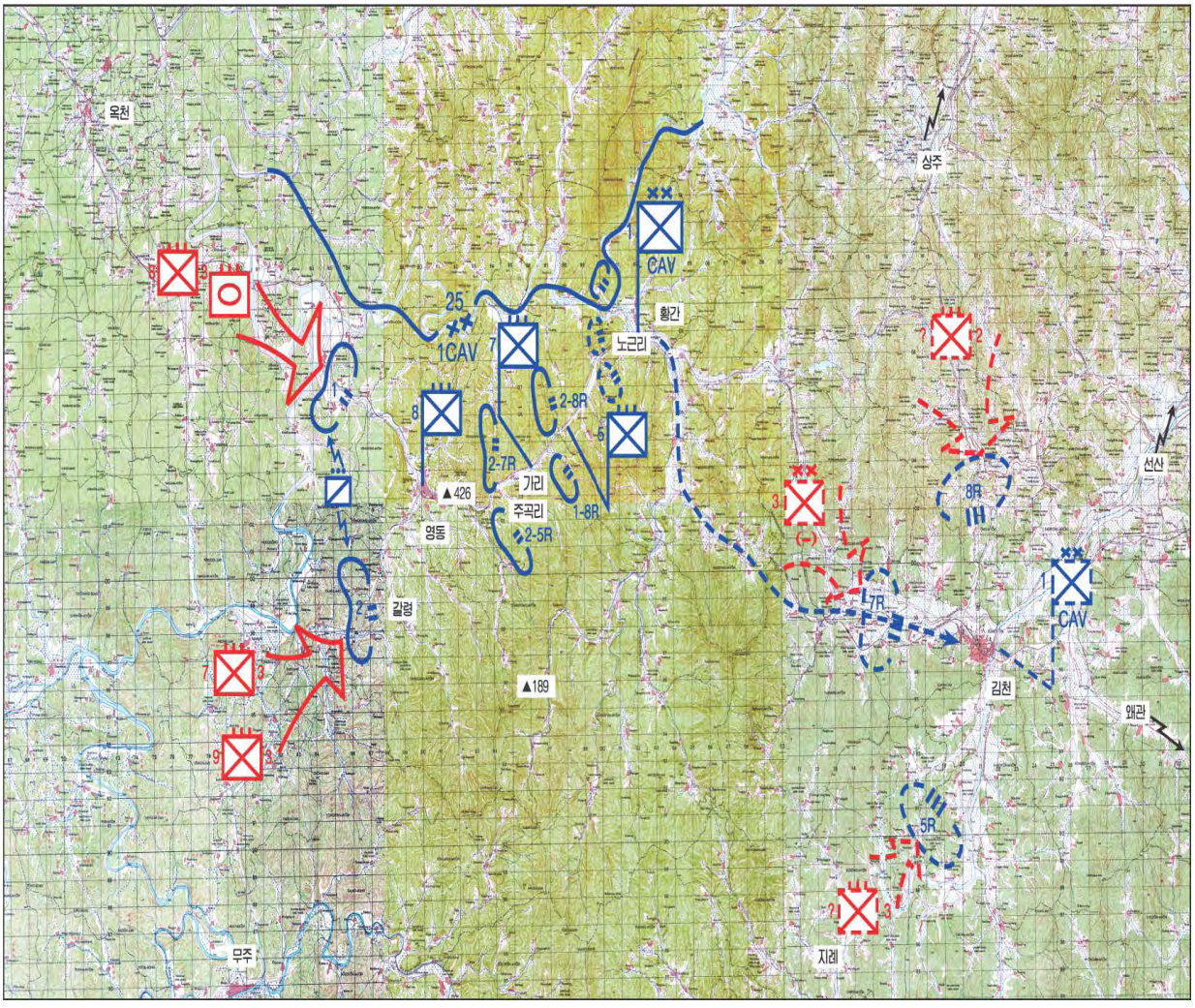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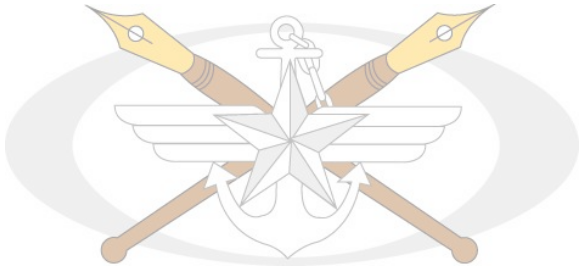
영동-김천 전투는 미 제1기병사단이 미 제24사단을 증원하여 영동 일대에 투입된 7월 22일부터 7월 31일 김천에서 철수할 때까지 북한군 제3사단의 공격을 지연하기 위해 경부국도 축선을 중심으로 실시한 지연전을 말한다. 이 축선에서 사단은 결정적인 전투는 없었지만 공중공격과 포병화력에 힘입어 북한군의 주력을 약 9일간 지연시킴으로써 미 제8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다.

미 제1기병사단은 맥아더 장군의 작전구상에 따라 7월 초에 인천상륙작전부대로 선정되었으나, 먼저 투입된 미 제24사단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증원하기 위해 7월 18일 포항으로 상륙하였다. 사단은 포항에 상륙하자마자 미 제8군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영동 일대로 투입되었고, 예하 제8기병연대가 7월 22일 정오에 영동 북서쪽에 위치한 금강의 동안(東岸)에서 미 제21연대로부터 방어진지를 인수함으로써 경부축선에서의 작전을 담당하게 되었다. 반면 북한군은 대전전투에서 와해된 미 제24사단을 계속 추격하지 못하고 대전에서 하루 동안 부대정비를 실시한 후에 7월 22일부터 기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그들의 제3사단은 영동을 목표로 옥천 방향에서 정면 공격과 동시에 주력은 금산-무주 방향으로 우회 공격을 기도하였다.

미 제8기병연대는 제8군의 정보판단에 따라 옥천 방향과 무주 방향에 각각 1개 대대씩 배치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은 주로 항공

<상황도 3-9> 영동-김천지역 작전(1950. 7. 22~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및 포병화력을 활용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잘 저지하였으나 결국에는 방어진지 후방의 도로가 차단되어 방어진지가 붕괴되었다. 즉 7월 25일 오전에는 방어진지에서 철수하였고, 17시경에는 영동에서 철수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은 이후 영동에서 황간 사이의 지역에서는 추가로 투입된 미 제7기병연대와 이미 투입되었던 제5·제8기병연대가 축차진지를 점령하면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 중에 치열한 지상전투는 없었으나 소규모 교전은 계속 있었고, 특히 적 밀집부대 및 전차에 대한 공중공격은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 제1기병사단은 7월 29일에 황간 북서쪽의 보은 방향에서 미 제27연대가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으로 철수함으로써 측방이 노출되었고, 또한 김천 남서쪽의 지례 방향에서 북한군의 기동이 감지되어 후방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황간에서 철수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은 사단사령부를 김천으로 이동하고, 예하 제5기병연대는 김천 남서쪽의 지례 방향, 제8기병연대는 북쪽의 상주방향에 투입하고, 제7기병연대는 계속해서 경부국도 축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후 사단은 7월 31일까지 치열한 지상전투는 없었고, 다만 지례 방향에서 공격하는 적 부대와 소규모 근접전투는 계속되었다.

그 후 8월 1일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전군에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미 제1기병사단도 미 제25사단과 상호 엄호 하에 왜관으로 철수하여 낙동강 동안(東岸)의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미 제1기병사단은 7월 22일 영동 전방에 투입되어 미 제24사단으로부터 전투지역을 인수받은 후부터 7월 31일 낙동강 동안으로 철수할 때까지 약 10일 간의 지연전을 수행함으로써 미 제8군이 낙동강방어선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피·아 작전계획

(1) 북한군의 작전기도

북한군은 7월 20일 대전을 점령한 다음에 제4차 작전방침으로 "연속적인 타격

과 대담한 기동작전으로 미군과 한국군을 김천, 함창, 안동 지역들에서 포위 소멸하고, 마산-대구-영천-포항 계선에 진출함으로써 최종적인 미군을 격멸시키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다"는 것을 제시했다.[130] 그러나 전선사령부 차원에서 실제로 연속적인 타격과 대담한 기동에 의한 집중을 달성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주공축선으로 선정된 경부국도 축선에 전투력을 집중 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전 전선에 균등하게 전투력을 배분하여 공격하도록 하였다.

북한군 제3사단과 제105전차사단(-)만이 경부국도 축선을 따라 기동하고, 북한군 제4사단은 대전에서 남쪽의 금산가도를 따라 무주-안의-진주 방향으로 기동하고, 북한군 제2사단은 보은-황간 방향으로 기동하고, 북한군 제15사단은 괴산에서 상주로 기동하고, 제1사단은 문경 새재 방향으로 기동하도록 하였다.[131] 이 단계에서 북한군들은 연속적인 타격과 대담한 기동작전을 수행하기보다는 미군 방어진지 후방으로 침투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후방의 지휘시설과 포병진지를 교란함으로써 전방부대의 철수를 강요하고자 기도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3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은 경부국도 축선을 따라 공격하면서 일부 부대는 금산-무주를 거쳐 영동 방향, 그리고 무주-지례를 거쳐 김천 방향으로 우회공격을 기도하였다.[1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미 제1기병사단 전방전개 및 작전 복안

① 영동지역 전투 전개

미 제1기병사단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맥아더 장군에 의해 7월 초에 구상된 최초의 인천상륙작전계획인 블루하트 계획(Operation Bluehearts Plan)에 의해 인천상륙작전부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먼저 투입된 미 제24사단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대전으로 밀려나자 7월 10일 취소되었고, 아울러 미 제1기병사단은 전선의 안정을 위해 북한군의 전진을 저지하는 부대로 투입되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요코하마(橫濱, Yokohama) 지역에 주둔 중에 한국으로 출동

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5, 제8기병연대를 포함하는 1차 상륙부대가 7월 12~14일 사이에 승선을 끝내고, 7월 15일에 요코스카(横須賀, Yokosuga) 항을 출발하여 7월 18일 포항으로 상륙하였다. 그리고 제7기병연대를 포함하는 제2차 상륙부대가 7월 17일에 선적을 완료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해 출항을 미루다가 7월 22일에 포항으로 상륙하였다. 그리고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7월 18일 대전으로 가서 제24사단장 딘 소장에게 제1기병사단의 전방전개를 보장하기 위해 7월 20일까지 대전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구로 이동하여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을 불러 부대를 영동으로 신속히 투입하여 제24사단을 증원하도록 명령하였다.[133]

사단은 7월 19일부터 포항에서 영동 방면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제5기병연대가 7월 19일 포항을 출발하여 20일 오전 9시에 김천 일대 관리에 도착하였고, 제8기병연대가 7월 20일 13시에 열차로 포항을 출발하여 7월 20일 야간에 영동 일대에 도착하였고, 21일 오전 중에 영동 서쪽 부근에서 미 제24사단 제21연대와 방어진지를 교대하였다. 그리고 제8연대는 23시경에 영동 남서쪽(무주 방향)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전방 전개를 완료하였다.[134] 사단사령부 및 지원부대는 7월 21일에 김천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때 미 제24사단에 배속되었던 제71전차대대 A중대가 사단으로 원복되었다. 그리고 사단 포병연대는 7월 20일 16시 40분경에 김천에 도착하였으며, 그 중에서 제8기병연대를 직접지원할 제77포병대대와 제99포병대대는 7월 22일 아침에 영동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7월 20일 관리에 도착해 있던 제5기병연대는 제8군의 명령에 의해 7월 22일에 영동-황간 사이의 가리 일대에 배치하게 되었으며, 이 연대를 직접지원하는 제61포병대대와 제8공병대대 A중대가 황간에 배치되었다.

7월 22일 포항에 뒤늦게 상륙한 제2차 상륙부대들은 당일 하역작업을 끝내고 7월 23일부터 사단사령부가 있는 김천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7기병연대 본부와 제2대대는 18시 30분에 열차로 포항을 출발하여 7월 24일 14시 20분에 황간 지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포항에 잔류하여 영덕 방면을 방어하고 있는 한국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13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기병사단 지휘소 부근

② 미 제1기병사단 작전 복안

사단장 게이(Hobart R. Gay) 소장은 7월 18일 사단포병사령관 파머(Charles D. Palmer) 준장에게 먼저 상륙을 끝낸 제5, 제8기병연대를 지휘하여 제24사단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본인은 제8군 사령관의 명령을 수령하기 위해 대구로 달려갔다. 이때 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사단장에게 "제1기병사단은 영동을 방어하라. 그 후방에는 우군이 없으므로 후방보급로의 확보에 주의를 요한다. 식량이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탄약이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영동-대구의 도로가 폐쇄되었을 때에는 이미 탄약이 소진된 뒤일 것이다"라는 명령을 내렸다.[136]

미 제5, 제8기병연대는 7월 20일 저녁에 포병사령관 지휘아래 부대이동 및 배치를 하였다. 그리고 7월 21일에 사단장 게이 소장이 영동으로 가서 이들 연대의 진지점령을 지도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8군 작전처 소속의 맥린(MacLean) 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령이 도착하여 "1개 대대는 영동 북서쪽으로 경부국도를 따라 가다가 금강 동안(東岸)에 진지를 점령하도록 하고, 다른 1개 대대는 영동 남서쪽 무주도로에 배치하라"라는 제8군사령부의 구체적인 명령을 전하였다. 즉, 대전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17번 국도를 따라 금산-무주를 거쳐 영동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북한군이 우회공격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기초로 내린 명령이었다.

포병사령관 파머(Palmer) 준장은 병력을 분산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방어력의 약화를 가져와 적에게 쉽사리 각개 돌파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부 국도를 확보하여 제24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는 것이 당면한 급선무인 만큼, 영동 동쪽에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선정하여 병력을 집중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를 사단장에게 피력하였다. 사단장도 이에 동의하고, 제8군사령부에 맥린(MacLean) 중령이 휴대한 명령의 실행 여부를 재확인하였으나, 사령부에서는 "명령대로 실행하라"고 회신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제8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부대를 경부 국도와 무주 방향 도로에 나누어 배치하게 되었다. 이때 사단에서 수립한 방어계획은 대략 다음과 같다.[137]

『① 포병사령관 Palmer 준장은 제5·제8연대 2개 연대를 지휘하여 영동을 방어하며, 적을 최대한 지연시킨다. ② 제8기병연대의 제1대대는 경부 국도에, 제2대대는 무주 방향 도로에 진지를 점령하여 적을 저지한다. ③ 제5기병연대는 영동 동쪽 426고지(영동 동쪽 3㎞) 부근에 예비진지를 점령하여 제8기병연대를 지원한다. ④ 제77포병대대 및 제92대공포대대 A포대는 제8기병연대 제1대대를 직접 지원한다. ⑤ 제99포병대대 및 제61포병대대는 제8기병연대 제2대대를 직접 지원한다. ⑥ 제72전차대대 A중대는 제8기병연대 제2대대를 지원한다. ⑦ 사단지휘소는 황간에 위치한다.』

전방방어를 맡게 된 제8기병연대는 22일 주간에 제1대대를 영동 북서쪽 5.5㎞ 되는 지점의 금강 동안(東岸)에, 그리고 제2대대를 갈령(영동 남서쪽 5㎞) 부근에 각각 진지를 점령하게 함으로써 방어배치를 끝냈다.<상황도 3-10 참조>

③ 전투준비태세

미 제1기병사단은 6·25전쟁에 참전하기 이전에는 미 제8군사령부 예하 4개 사단 중 하나로서 일본 관동지방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사령부 주둔지인 캠프 드레이크는 도쿄(東京) 주변에 있었다. 이 사단 역시 미 극동사령부 예하 타 부대와 마찬가지로 편성과 장비, 훈련 등에서 전혀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했다.[138] 즉 편성에 있어서 보병연대는 3개 연대 공히 2개 대대로 편성되었으며, 포병대대는 2개 포대로 편성되어 있었고, 사단에는 경전차 1개 중대가 전부였다. 그리고 장비는 신형으로 대치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쓰던 노후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었으며, 따라서 고장이 잦았다. 한편 1949년 워커 중장이 미 제8군사령관으로 부임한 뒤 강인한 훈련을 강조함에 따라 제1기병사단도 기본적인 전투 훈련을 주기적으로 받았으나 장기간 이완된 점령지의 분위기 속에서 훈련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139]

그리고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최초로 투입되는 미 제24사단에 병력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였기 때문에 제1기병사단의 전투력은 큰 손실을 가져왔다. 즉 전투경험이 많은 부사관들을 제24사단으로 전속조치 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사관의 숫자가 극히 부족하였고 이 빈 자리는 병사들로 채워야만 했다. 그리고 사단은 1950년 6월 25일 병력수가 10,374명이었는데, 6월 30일 경에는 12,340명이었다. 전쟁 발발과 동시에 전투경험이 많은 부사관과 장교들은 제24사단으로 전출가고, 그 빈 자리는 다른 부대로부터 새로운 인원들을 보충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부대의 응집력과 군기가 저하되고 하급 제대에서의 리더십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었다.[14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인접부대 상황

미 제25사단은 제24사단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된 주일 미 제8군 소속의 사단으로서 오오사카(大板, Osaka) 지역에 주둔 중에 제8군의 명령으로 7월 10~15일 사이에 한국에 도착하였다. 예하 제27연대가 7월 10일에 먼저 부산에 상륙하였으며 제24연대는 12일, 그리고 제35연대는 13~15일 사이에 각

각 상륙을 완료하였다. 이 당시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은 7월 12일 24시 이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 제25사단에 대하여 『제25사단 주력은 한국군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라. 그리고 1개 대대는 포항비행장을 경비하도록 하고, 1개 연대를 김천에 예비로 확보하여 대전 또는 청주방면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는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7월 13일 00시 01분부터 한국에서 주한미지상군의 지휘권을 부여받고, 미 제24·제25사단에 임무를 명시하는 작전명령을 하달함으로써 구체화하였다. 즉 『① 군은 당면한 적을 저지하여 현 방어선을 확보한 다음에 차기의 공세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려 한다. ② 제24사단은 금강선에서 적을 저지하라. ③ 제25사단은 중부지역에서 적을 지연 중인 한국군을 지원하라. 1개 대대로써 포항비행장을 경비하라』는 내용이다. 이로서 미 제24사단장은 사단작전 지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제25사단장은 제8군사령관의 작전명령에 따라 13일에 제27연대를 안동으로 추진하고, 상주로 올려 보낸 제24연대에서 제2대대를 뽑아 포병 1개 포대와 함께 예천에 투입하여 제천-풍기-안동 축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군 제8사단(사단장, 이정일 대령)과 충주-문경-함창 축선을 담당하고 있는 제6사단(사단장, 김종오 대령) 사이의 간격을 보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35연대는 제1대대로써 포항비행장을 경비하게 하는 가운데 연대(-)는 김천으로 이동하여 예비로 운용하였다.

미 제25사단은 이때까지 별다른 접적 없이 한국군 후방의 제2선에서 지원태세를 갖추고 대기 중에 있었는데, 7월 18일에 미 제1기병사단의 주력이 포항에 상륙함으로써 임무가 변경되었다.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이 미 제1기병사단으로 하여금 경부국도의 제24사단을 지원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제25사단은 상주 정면의 한국군 지원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에 사단지휘소를 영천에서 상주로 이동하고, 김천의 제35연대를 함창으로 추진하여 예천의 제24연대 제2대대는 통합지휘토록 하는 한편, 제24연대로써 상주 서쪽의 괴산-화령장-상주도로의 방어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안동의 제27연대를 보은-황간 도로로 이동시켜 그 정면의 적을 지연토록 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상주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어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부대편성에 있어서 제27, 제35연대는 2개 대대로 편성되었으며, 다만 제24연대만은 제8군내에서 유일하게 3개 대대로 편성된 유일한 연대였는데, 이 연대는 연대장 화이트(Horton V. White) 대령만이 백인이고 나머지 연대원은 모두 흑인으로 구성된 부대였다. 또한 포병부대는 2개 포대로 편성된 3개 105밀리 곡사포대대(제8·제64·제159포병대대)와 155밀리 곡사포 1개 포대(제90포병대대 A포대)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사단 직할부대로 M-24경전차 1개 중대(제79전차대대 A중대)가 편성되었다.

2. 전투경과

1) 영동 전투(7. 22~25)

대전을 점령한 북한군 제3사단, 제4사단, 제105전차사단은 21일에 부대정비를 하면서 보내고, 7월 22일부터 기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그들의 제3사단과 제203전차연대는 경부 축선을 중심으로 기동하였는데, 예하 제8연대와 전차부대 일부는 옥천-영동 가도를 따라 남동쪽으로 공격하고, 제7·제9연대와 전차부대 일부는 금산-무주 방향 도로로 우회 공격하여 영동을 우선 탈취하고자 하였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미 제8기병연대에서 제1대대는 옥천-영동 가도에, 제2대대는 무주-영동 가도에 각각 배치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므로 적이 공격함에 따라 자연스레 전투가 발생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옥천-영동 가도(街道)

7월 22일 전투는 금강을 도하하고자 하는 북한군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미 제8연대 사이의 포병사격전이었다. 이날 아침 제77포병대대는 김천 북서쪽 7㎞ 지점에서 이동하여 9시 30분에 영동 주변의 진지에 도착하여 제8기병연대 제1대

대를 직접지원할 준비를 하였다. 드디어 12시경에 금강 대안에 북한군 병력의 움직임을 관측하였고, 13시경에 영동에서는 처음으로 북한군에 대한 포병사격을 실시하여 북한군의 도하를 방해하였다.[141] 그리고 미 제8기병연대 제1대대(장, Robert W. Kane 중령)의 전초부대가 18시경에 북한군 보병이 진지 전방 5㎞ 지점의 교량 상에 출현함으로써 적과의 최초의 소규모 교전이 있었다.[142] <상황도 3-10 참조>

북한군 제3사단은 7월 23일 새벽부터 야음을 이용하여 경부국도 축선에서 본격적인 도하공격을 실시하였다. 즉 야포 및 박격포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에 전차와 보병부대를 투입해 제8기병연대 제1대대 방어진지 정면에서 공격하는 한편, 일부 부대는 진지 좌우측면으로 우회하여 침투공격하였다. 이에 미 제8기병연대 제1대대는 3.5인치 로켓포로써 북한군 전차 3대를 격파하고, 이어 제77포병대대의 105밀리 곡사포와 제92대공포대대 A포대의 Cal 50 및 37밀리 포 등을 활용하여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북한군의 도하공격을 저지하였다. 그리고 미 제1기병사단장은 제5기병연대를 제8기병연대 제1, 제2대대 사이의 중앙 산악지대에 투입함으로써 방어지대의 간격을 메우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제8기병연대 제1, 제2대는 서로 9㎞정도로 이격되어 있어 북한군은 그 간격을 이용하여 침투시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제5기병연대 제1대대는 사단명령에 의해 이날 13시 25분에 전방으로 출동을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실제 출동은 늦은 시간에 이루어졌다.[14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은 7월 24일 아침에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박격포와 전차포 사격이 제8기병연대 제1대대 지역으로 지향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날 사단에서는 제8기병연대 제1, 제2대대가 처한 곤경을 덜기 위해 황간에 있던 제5기병연대 제1대대를 이곳에 투입하였다.[144] 이 대대는 아침에 영동에 진출하여 약 3㎞ 뒤로 물러선 제8기병연대 제1,제2대대의 간격으로 13시경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제5기병연대 제2대대의 2개 중대(F, G중대)가 영동에 진출하여 F중대는 제1대대 후방에 머무르면서 다음날 공격을 준비했고, G중대는 영동의 제77포병대대 주변에 배치되어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145] 따라서 제5기병연대 지휘소가 있던 가

리에는 연대본부 요원과 제2대대 E, H중대만이 남게 되었다. 이날 제8기병연대 제1대대는 금강이라는 하천 장애물과 포병 및 박격포 화력 등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여 영동 북서쪽에서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2) 무주-영동 가도(街道)

7월 22일에 무주방향을 담당한 제8연대 제2대대 전방에는 적정이 없었다. 단지 이날 이 대대에 대한 직접지원 임무를 맡은 제99포병대대는 영동 남쪽에 진지를 점령하였고, 사단 일반지원 및 화력증원을 담당한 제61야전포병대대는 이날 황간에서 영동으로 이동하여 사격임무에 가담하였다.[146]

북한군 제3사단 예하 제7, 제9연대는 마침내 7월 23일 아침에 미 제8기병연대 제2대대 진지를 공격하였다. 미 제8기병연대 제2대대는 낮 동안 방어진지를 잘 지켜 내었으나, 야간에 북한군이 대대 정면을 압박하면서 일부부대가 북서쪽으로 우회하여 진지 후방의 교동(갈령 북쪽 2.5㎞) 부근의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다음날 7월 24일 아침에 후방이 차단되었음을 인지한 대대장 필-드(Field) 중령은 M-24경전차 3대를 동반한 일부부대를 지휘하여 도로차단지점 돌파를 시도하여 탈출에는 성공하였지만, 도로 개통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대대장 필드 중령은 중상을 입고 급히 후송되었다.

도로차단지점을 탈출하지 못한 나머지 대대원들은 이날 내내 후방이 차단된 채로 버텨야 했다. 이에 사단에서는 고립된 부대를 구출하기 위해 영동 방면에서 제5기병연대 제1대대 일부와 제16정찰중대 일부를 투입시켰으나 실패하였다. 이날 제8연대 제2대대를 구출하기 위해 하루 종일 네 차례에 걸쳐 북한군의 도로차단점을 돌파하고자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7월 25일 새벽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결국 제8기병연대 F중대와 제5기병연대 F중대, 제16정찰중대 일부 병력은 적의 도로차단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219명의 사상자를 내었다.[147] 이날 실종된 제8기병연대 제2대대 F중대는 적을 피해 산악을 헤매다가 고장난 무전기를 수리하여 7월 27일 연대와의 접촉이 이루어져 구출되었으나, 제5기병연대 F중대의 대부분 병력들은 영영 실종되어 돌아오지 못했다. 이 전투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 미군은 전차 7대를 포함한 다수의 차량을 잃고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148]

북한군들은 전투과정에서 피난민을 가장하여 아군 전선 후방으로 침투함으로써 포병진지의 기습과 통로의 차단 등 교란을 획책하였다. 이로 인해 미 제8연대 제2대대를 지원 중이던 제99 및 제61포병대대가 적의 습격을 받기도 한 것이다. 또한 한 피난민 부부를 검색한 결과 임신부로 보이는 여인의 옷 속에 소형 무전기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발각되었는데, 그 무전기로써 진지배치상태와 포진지의 위치 등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사단은 한국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피난민의 검색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야간에만 지정된 통로를 사용토록 통제를 함으로써 피난민을 가장한 오열의 침투방지에 힘썼다.

(3) 영동에서 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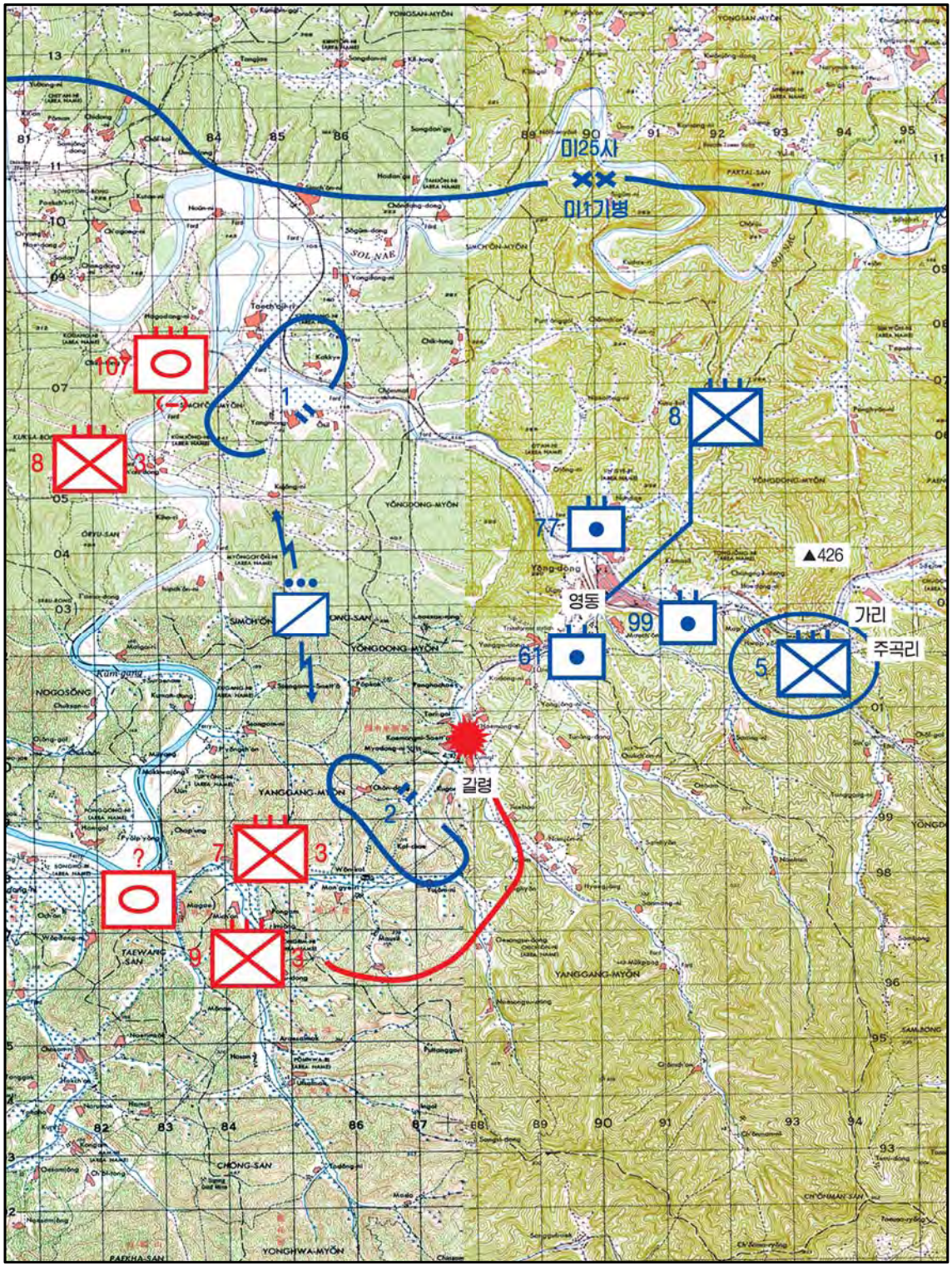
제1기병사단장은 7월 24일 오후에 북한군이 방어진지 좌우 측방으로 깊숙이 우회 침투하여 후방을 차단 및 교란하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자, 영동 전방에서 더 이상 지탱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23시 15분경에 작전명령 10호로 사단철수 준비명령을 내려 예하 부대에 철수를 준비시키고, 25일 2시경에는 수정 명령 10.1호를 하달하여 철수를 명령하였다.[149]

사단의 철수 명령은 철수간의 엄호와 대대별 철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철수 후에 각 대대들이 점령할 진지 위치를 명시하였다. 즉 제5기병연대 제1대대의 엄호하에 제8기병연대 제1대대, 제2대대 순서로 철수하고 맨 마지막에 제5기병연대 제1대대가 철수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리고 철수 후에 제8기병연대 제1대대는 영동 동쪽의 주곡리 부근에서 도로 북쪽에, 제5기병연대 제2대대는 도로 남쪽의 고지를 점령하여 새로운 제1방어선을, 제8기병연대 제2대대는 가리 마을 부근에서 도로 북쪽의 고지대를, 제5기병연대 제1대대는 도로 남쪽의 고지대를 점령하여 제2방어선을 구축하도록 계획하였다. 제7기병연대(-)는 가리 마을 후방에서 사단예비로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영동-황간 간의 고지에 공세적인 정찰을 수행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150]

북한군 제3사단은 7월 25일에 영동 서쪽에서 영동을 목표로 여명 공격을 가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3-10> 영동전투(1950. 7. 20~25)



왔으며, 이날의 공격은 가장 강력하였다. 미 제8기병연대는 전날 영동 전선에 투입된 제5기병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의 F, G중대의 지원을 받아 영동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7월 24일과 25일 야음을 이용해 제8기병연대 제1, 제2대대의 남쪽과 북쪽으로 적의 대부대가 우회하여 측면을 위협하였고, 적의 침투 병력이 진지 후방의 도로상에 또 다시 강력한 도로차단점을 형성함에 따라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옥천 방면을 담당하고 있던 제8기병연대 제1대대는 일찍부터 적의 공격을 받고 8시경에 철수를 개시했다. 철수하는 동안 제92방공포대대의 지원을 받아 적의 도로차단점을 강행 돌파하고, 주변의 적을 제압함으로써 큰 손실 없이 영동 시가로 철수할 수 있었다.

무주 방면을 담당하고 있던 제8기병연대 제2대대와 이를 지원하고 있던 제5기병연대 F중대는 끝내 적의 도로차단점을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부대는 그룹별로 주변 산악지대를 통해 탈출로를 모색해야 했다. 사단사령부는 이 도로차단점을 뚫고 전방에 고립된 제8기병연대 제2대대를 구출하기 위해 제16정찰중대, 제71전차대대 A중대를 투입시켰지만 이 부대들 역시 적의 침투부대와 대전차공격조의 매복에 걸려 일부 인원들이 실종되고 많은 수의 사상자를 내었다. 이날 10시 30분경에는 적의 침투부대와 게릴라 병력이 영동읍 북방 1㎞ 지점에 있었던 제77포병대대와 영동읍 남쪽 500m 지점의 제61포병대대 진지까지 접근해와 사면에서 소총 및 기관총 사격을 가하였다. 제77포병대대는 적에게 직접사격을 가해야 할 정도의 위기 상황에 빠졌다. 이날 대대는 적의 침투공격으로 대대에 배속된 제92방공포대대 제7중대, 제8중대 인원을 포함하여 15명의 사상자를 냈다. 제61포병대대 역시 이날 철수 시에 진지 200m까지 접근한 적 침투부대들로부터 직접사격을 받았고 후퇴하는 중에도 적의 사격을 받았다.[151]

제8기병연대 제1대대는 혼란 중에 영동 읍내에 도달하여 오후에는 전방의 철수부대를 엄호하고 있었으나 16시 30분경에 적의 대부대가 영동 남동 방향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항공정찰 결과에 따라 17시경에 마지막 부대가 영동 시내를 떠남으로써 영동은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북한군이 영동에 들어온 것은 7월 25일 20시경이었다.[1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1기병사단은 3일간의 영동전투에서 북한군 제3사단과 제105전차사단(-)에게 항공공격과 포병사격을 통해 큰 타격을 입혔지만 사단의 희생도 컸다. 미 제1기병사단의 총사상자 수는 415명이었으며, 그 중 전사 49명, 부상 234명, 실종 118명, 확인된 포로 14명이었다. 또한 북한군도 미군의 강력한 공중공격과 포병사격에 의해 약 2,000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북한군 포로들이 진술하였다.[153]

2) 영동-황간전투(7. 26~29)

(1) 제1 지연진지 점령

영동에서 철수한 미 제1기병사단 예하 부대들은 사단작전명령10.1에 의거 영동 동쪽 3마일(4.8㎞) 지점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영동에서 철수한 마지막 부대인 제8기병연대 제1대대는 7월 25일 17시에 영동읍을 빠져나온 후에 예정된 방어진지를 점령하고자 하였으나 제7기병연대 제2대대가 먼저 도착하여 점령하였다. 즉 제7기병연대 제2대대는 황간 부근 노근리 일대에서 사단 예비로 있다가 이날 18시 50분경에 이곳을 출발하여 제5기병연대가 있던 가리를 통과하여 제8기병연대 제1대대가 점령하기로 했던 주곡리 북쪽(도로 우측)의 진지를 점령하였다.[154]

제5기병연대 제2대대는 최초 영동 동쪽 3㎞되는 지역의 화신리-임계리 능선에 배치되었으나, 이날 저녁에 주곡리 남서쪽(도로 남쪽)의 능선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사단의 제1선 방어는 주곡리 마을을 중심으로 경부 국도 북쪽은 제7기병연대 제2대대, 남쪽은 제5연대 제2대대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단의 제2선 방어는 제5기병연대 제1대대가 가리 전방의 고지(도로 남쪽)를 점령하고, 제8기병연대 제2대대가 영동에서 후퇴한 후 백마산 북동쪽(도로 북쪽) 기슭의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담당하게 되었다.[155]

(2) 제1 지연진지 전투

북한군 제3사단 주력은 7월 25일 20시경에 영동을 점령하였고, 그들은 곧 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동 동쪽의 고지대에 진지를 점령하여 역습에 대비하는 듯하였다. 그들은 포병이 아직 금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규모 공격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북한군 제3사단 제8연대를 직접지원하는 포병은 이날 23시경에 금강을 도하하여 심천으로 이동하였고, 영동에 들어온 것은 이틀 후인 7월 27일 5시경이었다. 이에 북한군은 보병정찰대와 전차로 미군 전선을 돌파하려고 기도하였다.

미 제7기병연대 제2대대는 새로 점령한 지연진지에서 방어에 임하였으나, 25일 24시까지 정면에서는 아무런 적의 공격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단사령부는 사단의 우측 인접부대인 제25사단 제27연대가 후방으로 긴급 철수함으로써 차후 벌어질 수 있는 사태를 우려하였다. 즉 미 제27연대가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황간 서측에서 저지하지 못하고 황간이 적의 수중에 떨어질 경우에 영동 바로 동쪽의 유일한 간선 도로인 경부 국도에 의지하고 있던 예하 연대들의 퇴로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단에서는 예하 연대 작전과장(S-3)들을 26일 00시 45분에 황간의 사단사령부로 급히 불러들여 사단 우측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예하 부대들에게 즉시 철수하라는 명령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사단사령부는 01시 30분에 김천 북방 관리로 철수하였다.

전방의 제7기병연대 제2대대장 헤이어(Heyer) 중령은 7월 26일 01시 20분에 연대에 "아마 전차인 듯한 정체불명의 차량 1대가 대대 지역을 통과하였다"고 전화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가 있은 후 약 10분 뒤에 제7기병연대 작전과장(S-3)은 상황의 긴박함을 인식하고 사단사령부에서 01시 30분에 연대에 전화를 걸어 연대를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는 사단명령을 전달하였다. 따라서 연대에서는 전방에 있던 제2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마침 01시 30분경에 제2대대는 북한군의 침투 공격을 받았는데, 정면공격이 아닌 침투공격을 받은 장병들은 공포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분산되었고,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156]

북한군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02시 20분경에 제7기병연대 제2대대 진지 건너편에 있던 제5기병연대 제2대대 전초부대를 적 전차와 보병들이 공격하였다. 이에 제5기병연대 전초부대에서는 이들을 포병사격으로 격퇴하였다. 이날 적들은 경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도를 따라 01시경부터 04시경까지 계속되었고, 사단 제82포병대대 및 제61포병대대 등은 지속적인 사격을 실시하여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날 야간에 제7연대 제2대대는 연대와 통신이 두절된 채 철수하여 08시경에 약 300명의 병력이 안대리 근처에 집결하였다. 이날 제7연대 제2대대 장병들은 첫 전투에서 적의 야간 침투공격을 받아 혼란에 빠졌고, 이어서 철수과정에서 많은 장비를 유기하였다.

제5기병연대 제2대대는 이날 늦은 아침에 철수하여 안대리 능선상에 중대를 배치하고 대대지휘소는 12시 30분경에 마산리 남쪽 1㎞ 지점에 설치했다. 그리고 제5연대 제1대대는 그 후에 철수를 개시하여 제2대대 동측 후방인 소계리 능선(황간역 남동 고지군)의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또한 백마산 북동쪽 도로 북쪽 능선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8기병연대 제2대대는 이날 오후 접적이 없는 상황에서 황간 동쪽으로 철수하였다.

(3) 제2 지연진지 점령

제1기병사단 예하 연대들은 7월 26일 오후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여 부대를 재편성하면서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었다. 제8공병대대 제A중대는 제5기병연대가 철수한 이후 13시경에 서탄막과 서송원 입구에 적이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을 파괴한 뒤 주변에 대전차지뢰를 매설하고 도로대화구를 설치하는 등 대전차장애물을 집중 설치하였다.[1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들은 7월 26일 아침에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주곡리 근처에서 숨어 버려 관측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낮 동안 제1기병사단 예하 연대병력들은 재편성 및 방어준비를 할 수 있었다. 제7기병연대 제2대대는 서송원 입구-노근리 주변지역에 그룹별로 참호를 파게하여 철길과 도로를 가로질러 급편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때 노근리에서 영동 쪽을 향하여 F중대가 철길 좌측(동쪽)에, G중대가 우측(서쪽) 경사가 높은 고지대에 배치되고, H중화기중대가 철길 좌우에 배치하고, E중대는 예비로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158]

제5기병연대는 가리 진지에서 철수하여 제2대대가 12시경에 노근리 쌍굴 동측 능선을 점령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1대대는 제2대대를 엄호한 후에 철수하였다.

이때 부대배치를 약간 조정하여 7월 26일 정오부터 노근리 주변에는 쌍굴 북동쪽과 쌍굴과 인접한 능선상에는 제7기병연대 제2대대가, 쌍굴 동쪽 안대리 능선상에는 제5기병연대 제2대대가 배치되었다.

이러한 부대 배치는 이날 저녁에 또 한번의 부대 변동이 이루어졌다. 제7기병연대 제1대대는 이날 새벽에 기차로 포항을 떠나 12시경에 황간역 남쪽에 도착하였으며, 18시경에 제5기병연대 제2대대 진지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5기병연대 제2대대는 제5기병연대 제1대대의 동측 소계리 남쪽 능선으로 철수하였다.[159] 이와 같이 부대 교대로 인해 노근리 근처에는 철도와 도로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월류봉의 남쪽 능선 부근에는 제7기병연대 제2대대가, 노근리 쌍굴 동쪽 능선 진지는 제7기병연대 제1대대가 점령하게 되었다.

(4) 제2 지연진지 전투

북한군 제3사단은 7월 27일 이른 새벽부터 포병사격과 함께 후반야 야간공격을 개시하였다. 제7기병연대 제1대대는 02시 50분경에 적의 포격을 받았고, 얼마 후에 제2대대는 서탄막에서 노근리 방향으로 접근하는 적 보병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포병화력과 소화기 사격으로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06시 30분경에 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격퇴하였다. 이날 새벽에 제7기병연대 제1, 제2대대를 공격하던 북한군은 07시경에 전면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아침에 서탄막 방향에서 재개된 적의 공격은 격퇴되어 제7기병연대 방어진지선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날 서탄막에서의 북한군 제3사단 공격은 포격과 전차, 그리고 보병의 소규모 탐색공격이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진지선을 탈취하려는 공격은 취하지 않았다.

황간 북쪽과 황간-관리-김천 도로 축선에서도 이날 야간에 침투한 적 정찰병과 300여 명의 게릴라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미 제1기병사단 진지 간격, 측방,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여 후방을 교란하였고, 특히 지원포병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었다.[160] 북한군 제3사단의 일부 부대가 황간 남동의 노천리 계곡쪽으로 접근해 왔으며, 이들은 후방지역에 있던 제77포병대대와 제7기병연대 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 지역에 박격포와 포병사격을 실시하여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제7기병연대 제2대대와 제27연대 제1대대 사이의 간격으로 북한군들이 침투해 옴으로써 제27연대 제1대대는 격렬한 전투를 치러야 했고, 제7기병연대 제2대대는 측후방 위협에 대비해 진지 전방으로 추진되었던 병력을 철수시켜 측방으로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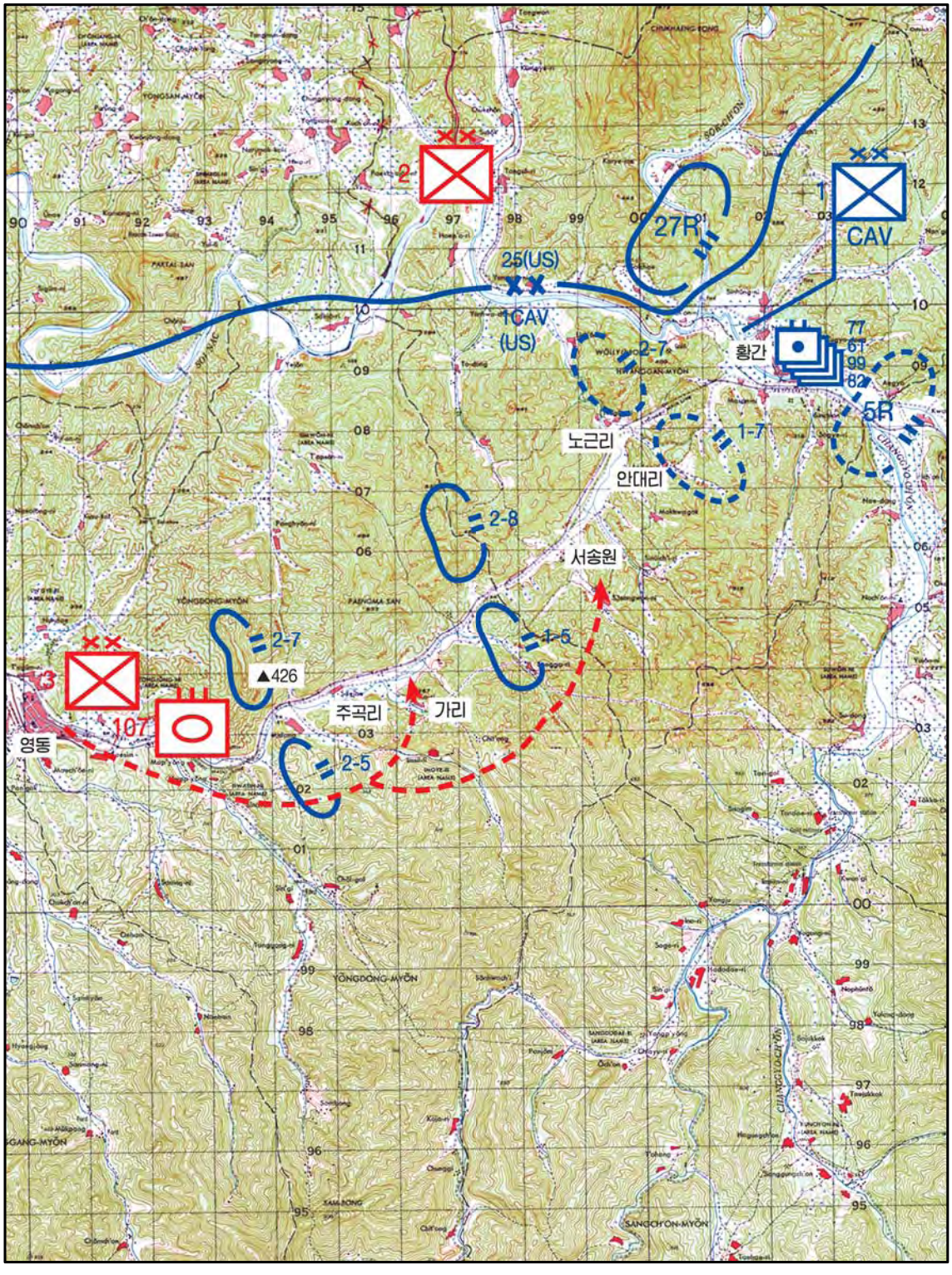
북한군 제2사단은 7월 28일 이른 새벽부터 황간 서측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실시하였다. 전날 북한군의 공격에 의해 월류봉 정상 고지를 포기하고 물러선 제27연대 제1대대는 02시 50분경부터 강력한 포병사격과 함께 제7기병연대 제2대대와의 간격으로 돌파해 온 북한군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방어진지를 상실할 위기에 빠졌으나, 다행히 제7기병연대 제2대대와 제27연대 제1대대의 반격으로 저지되었다.[161] 한편 북한군 제3사단 선두 부대는 이날 아침 06시 15분경에 경부 국도 방향에서 제7기병연대 제1대대 정면을 향해 강력한 포병사격과 함께 공격하였고, 방어진지 좌우측 측면으로는 소규모 부대에 의한 침투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오후에는 전차와 보병부대들이 노근리 방향으로 공격해 왔다. 이에 미 제1기병사단에서는 이러한 북한군의 공격을 항공폭격과 포병사격 등으로 격퇴시켰다.

미 제1기병사단은 이날 낮 북한군의 공격을 정면과 측방에서 저지하였지만, 방어진지가 돌파될 위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의 요지는 『제8기병연대가 황간 북방의 고지대를 점령하고 제7기병연대가 월류봉 남쪽 고지대를 장악하고 있는 동안 제25사단 제27연대가 먼저 철수를 개시한다. 제27연대가 완전히 황간 동쪽으로 철수하면, 제7기병연대가 29일 새벽에 철수를 개시한다. 이때 제5기병연대는 현재 진지를 유지하면서 제7기병연대의 철수를 엄호한다』[162]는 내용이다.

예상대로 이날 야간이 되자 북한군은 재차 강력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에 제27연대는 20시경에 철수를 개시하였고, 제7기병연대는 다음날인 7월 29일 05시 30분경에 철수를 개시하였다. 그 후 08시 45분경에 예정된 차후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영동-황간 도로 상에서의 지연전에서 미 제1기병사단은 북한군 제3사단의 측후방 침투 및 교란에 의해서 많은 곤욕을 치렀던 전투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3-11> 영동-황간전투(1950. 7. 26~29)



3) 김천 전투

(1) 방어진지 편성

북한군은 7월 26일부터 경부 국도축선에서 정면 돌파를 단념하고, 이 축선에는 일부병력만을 남겨 미 제5·제7기병연대를 견제하는 가운데 주력을 남쪽의 무주로 전환시켜 지례(김천 서남쪽 16㎞)-김천으로 우회공격하려 하였다. 이러한 적의 기도는 미군의 항공정찰 결과 확인되었다.

따라서 황간에 사단지휘소를 두고 있던 사단장 게이 소장은 북한군에 의한 후방 차단을 염려하여 병력을 김천으로 철수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사단장은 철수시기를 고민하던 중 7월 28일 저녁에 전술한 바와 같이 제27연대가 적의 압력에 더 이상 지탱치 못하고 송천을 건너 철수할 때에 그 뒤를 이어 사단도 29일 아침에 김천으로 철수시키게 되었다. 이때 미 제8군에서는 김천 남서쪽의 지례 방향에서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 적을 감안하여 대구에서 정비 중이던 미 제24사단 제21연대 제3대대를 제1기병사단에 배속하였다.

제1기병사단은 김천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배속된 제21연대 제3대대는 하원리(지례 북동쪽 6㎞) 부근에 투입하여 지례 방향의 적 공격에 대비케 하였다. 그리고 제7기병연대는 김천 북서쪽 9㎞의 275고지 부근에 배치하여 황간에서 김천에 이르는 경부 국도를 통제하고, 제5기병연대는 김천 남서쪽 4㎞의 185고지 부근에 배치—제21연대 제3대대의 후방에 축차진지를 점령—하여 지례에서 김천에 이르는 3번 국도를 통제하고, 제8기병연대는 김천 북쪽 5㎞의 남산리 부근에 배치하여 상주에서 김천에 이르는 3번 국도를 통제하도록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지례(知禮) 부근 전투

사단장 게이 소장은 김천으로 철수한 29일 아침에 사단수색중대로 하여금 김천 남서쪽의 지례 방향 도로를 정찰하여 적정을 수집하도록 하였다. 이에 수색중대는 라우에(Lester Lauer) 중위가 이끄는 1개 소대 규모의 차량정찰대를 지례로 보냈는데, 09시경에 지례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경찰병력으로부터 "지례에 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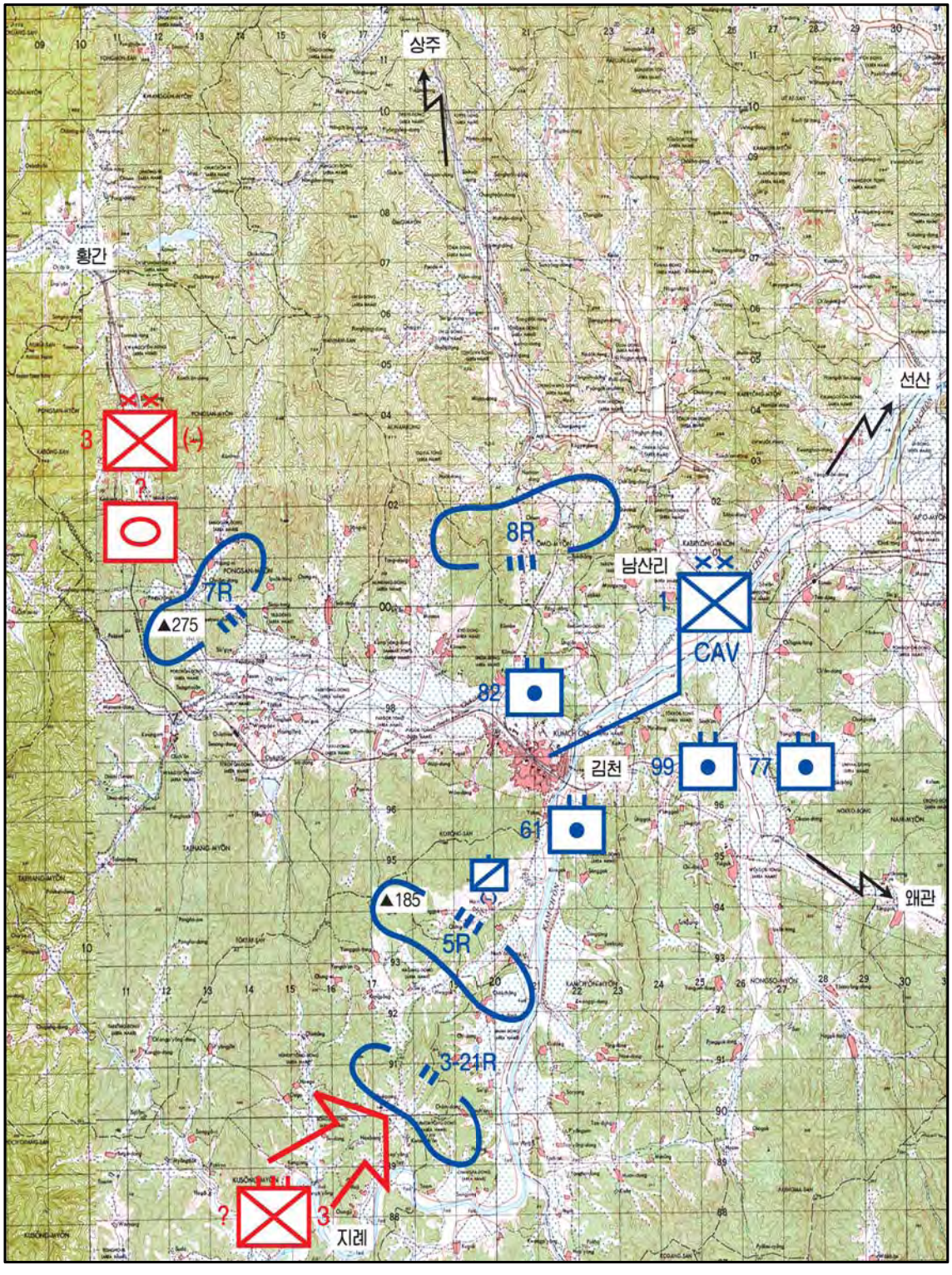
개 대대가 진입하였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이에 라우에 중위는 무전으로 중대장 하아비(Charles V. H. Harvey) 대위에 보고하였고, 이 보고를 받은 중대장은 다른 1개 소대를 직접 지휘하여 경찰병력 14명과 함께 차량으로 지례(知禮)로 달려갔다. 그 후 중대장 일행은 지례마을을 지나 마을 어귀에서 라우에 중위의 소대와 합세하였다.

수색중대 2개 소대는 그때 정면에 나타난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응을 하다가 정오경에 지례로 철수하여 마을 북단에 차량들로써 도로를 가로막아 차단선을 설치하고 적의 동정을 지켜보았다. 이때 적의 기관총사격이 차단선에 집중하면서 200~300명이 남쪽으로부터 나타나 정찰병들은 마을로 들어왔다. 이에 수색중대는 81밀리 박격포 3문으로써 적의 기관총진지를 파괴하였으나 적의 대응도 만만치 않아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때 중대장 하아비 대위는 적의 기관총에 한쪽 팔에 부상을 입었지만 응급치료를 거절하고 전투지휘를 계속하다가 턱에 적탄을 다시 맞아 전사하였다. 그리하여 중대의 남은 장교 3명과 병사 41명이 차량과 장비를 노상에 유기한 채 그 근처의 고지로 올라가서 진지를 점령한 후에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밤이 된 다음에 산길을 타고 김천으로 철수하여 그 이튿날인 30일 아침에 사단지휘소에 도착하여 지례의 적정을 알렸다. 한편 수색중대는 전투에서 중대장을 포함하여 2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1명이 실종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단장 게이 소장은 7월 30일에 북한군이 지례까지 도달했다는 수색중대의 보고에 따라 전날 하원리에 배치된 제21연대 제3대대와 그 후방에 진지를 점령중인 제5기병연대 제1대대를 지례로 추진하여 제99포병대대의 지원 하에 적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이들 2개 대대가 포병과 함께 지례로 급히 이동했을 때에 적은 마을을 비워 놓은 채 남쪽의 고지대를 점령하여 박격포 사격만 실시하였다. 이에 2개 보병대대는 제99포병대대 지원 하에 지례 마을 북쪽 고지를 점령하여 적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런데 뒷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례에 먼저 당도한 북한군은 제3사단 제7연대로서 그들 후속부대의 도착을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들은 후속부대를 기다리며 지례에서 대치한 채로 31일까지 보냈다.

<상황도 3-12> 김천전투(1950. 7. 29~31)



(3) 경부 국도 축선 전투

북한군 제8연대는 경부 국도 축선에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7월 31일에 황간으로부터 전차 24~25대를 앞세우고 공격하였다. 이에 미 제7기병연대는 김천 북서쪽 9㎞의 275고지 부근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포병과 항공지원을 받아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이날 하루 동안에 공중공격으로 13대의 전차를 파괴하였고, 다른 6대는 도로상에서 불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까지 북한군 제3사단 병력 및 장비뿐만 아니라, 병행 공격한 제105전차사단의 전차들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

제8군사령관 워커(Walker) 중장은 7월 25일에 제1기병사단이 영동을 상실했을 때에, 이미 방어에 유리한 낙동강선으로 철수해야겠다는 작전복안을 수립하였다. 그래서 이튿날인 7월 26일에 철수준비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다.[163] 이 명령의 요지는 『① 군은 준비된 진지로 이동하여 전황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차기 공세작전에 필요한 지역을 확보하려 한다. ② 각급부대는 철수 간에 최대한으로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여 지연케 하라. ③ 철수시기는 후달한다』라는 내용이다.

워커 중장은 철수준비와 더불어 대구의 군사령부를 부산으로 이동하고자 일본 동경의 UN군사령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맥아더 원수가 7월 27일 10시에 직접 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워커 중장으로부터 전황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서 현 전선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절대로 한국에서 제2의 덩케르크(Dunkerque)는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물론 미 제8군사령부는 대구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워커 중장은 이틀 뒤인 29일에 상주의 제25사단사령부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훈령을 하달하였다.[164] 이 훈령의 요지는 『2일전에 맥아더 원수가 군을 방문하였다. 원수는 우리 군이 처한 현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가를 강조하였다. 또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적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원수가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 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증원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수일 내에 해병 1개 여단과 보병 2개 연대가 증원될 것이며, 앞으로도 가능한 증원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므로 후퇴는 있을 수 없다. 모든 부대는 최대한의 역습으로 전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라. 바탄(Bataan)과 덩케르크(Dunkerque)에서의 비극을 상기하라. 부산으로의 후퇴는 그와 같은 살육만이 따를 뿐이다. 최후까지 싸워라. 촌토라도 양보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간 전우의 죽음은 반드시 보상되어야 한다. 나는 사단의 전 장병이 나의 뜻에 따라주기를 바란다. 현 전선은 확보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우리는 승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 훈령은 곧 '고수(固守)냐, 죽음이냐(Stand or Die)'라고 표현되어 전군에 전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실행 가능성 여부를 놓고 받아들이는 반응은 각인각색이었지만, 어떻든 현전선의 고수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게 되었다.[165]

한편 북한군들은 이틀 뒤인 7월 31일에 경부 국도와 3번 국도(지례도로)를 따라 김천을 목표로 압력을 가하고 있을 무렵에 미 제8군은 제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을 상주에서 철수시켜 김천 후방(동쪽 6㎞)에 축차진지를 점령하게 함으로써 대구정면의 방어력 증강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일 새벽 제25사단이 상주 남쪽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은 상주-김천-왜관도로로 철수하여 김천 동쪽에 집결하였다.

미 제8군은 15시경에 다시 전군에 낙동강 동안(東岸)으로 철수 명령을 하달하였고, 이와 거의 동시에 제25사단으로 하여금 삼랑진에 집결하도록 하는 수정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제25사단은 김천을 확보중인 제1기병사단의 엄호하에 이날 왜관으로 집결한 다음, 곧 열차편으로 삼랑진을 목표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는 낙동강 서남부지구의 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고육책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제1기병사단은 8월 1일까지 김천을 고수하여 제25사단의 철수를 엄호한 뒤에 낙동강을 건너와서 왜관 일대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전투결과

1) 피・아 피해 현황

북한군 제3사단은 그들을 지원하는 전차연대가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 외에도 2,000여 명의 사상자를 본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로서 그들의 병력은 5,000명 내외로 감소되었다. 북한군들은 대부분 미군의 공중공격과 포병사격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7월 23일 적과의 첫 교전을 치른 뒤로 31일까지 입은 손실은 모두 793명이었는데, 그 중 전사가 64명, 부상이 355명, 그리고 실종이 374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단은 제25사단의 철수를 엄호한 뒤 마지막으로 사단의 주력을 뽑아내던 중 제8기병연대의 1개 대대와 후미 엄호부대인 제5기병연대의 1개 대대가 큰 손실을 보았다.

2) 전투 후 전황

미 제1기병사단은 8월 3일 밤에 왜관철교와 인도교를 폭파하고 낙동강의 동안(東岸)에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왜관 북쪽 3㎞ 지점을 전투지경선의 기점으로 국군 제1사단과 책임지역을 분할하였다. 사단 방어배치는 북쪽으로부터 제5・제8・제7기병연대의 순으로 3개 연대를 횡으로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왜관을 중심으로 동쪽은 국군이, 서쪽은 미 제8군이 담당하게 되었다. 미 제8군은 8월 4일부터 낙동강선을 따라 북쪽으로부터 미 제1기병사단이 적 제1・제3사단 등 2개 사단과, 중앙의 미 제24사단은 적 제4사단과, 그리고 제일 남쪽은 미 제25사단이 적 제6사단과 각각 대치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앞서 7월 29일에 제8군의 예비로 전환되었던 제25사단 제27연대는 그 이튿날 30일에 제24사단에 배속되어 진주지구에 투입되었고, 또한 같은 날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었던 제24사단 제21연대 제3대대는 원복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전반적인 작전상황에 미친 영향

1) 미 제24사단 지연작전

미 제24사단은 딘 소장이 최후방어선으로 생각했던 금강 방어선에서 너무 쉽게 붕괴되었고, 대전 방어를 위한 갑천방어선에서도 어이없이 무너졌다. 이미 제3권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전 전투준비가 미흡했던 사단은 북한군과 대적한 각각의 전투에서 모두 패배하는 등 전술적 차원에서는 완전한 패배였다. 그러나 미 제24사단의 전투행위는 1개 사단이 수행한 전투이지만 맥아더 극동군 사령관에 의해 한국전쟁에 투입이 결정된 만큼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분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미 제24사단의 작전 결과를 작전적 차원에서 검토해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북한군의 남진을 15일 간(7. 5~20) 지연하여 후속부대인 미 제25보병사단, 제1기병사단의 전개시간을 보장하였고, 북한군에게는 심대한 손실을 입혀 작전지속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는 결국 낙동강방어선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인천상륙작전과 총반격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즉, 맥아더 장군의 작전적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작전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2) 미 제1기병사단 지연작전

미 제1기병사단은 영동 서쪽에서 미 제24사단으로부터 책임지역을 인수받아 영동-황간-김천에 이르는 경부 국도 축선을 따라 지연전을 수행하였으나, 미 제

24사단과 같은 치열한 전투는 없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우회공격이나, 진지 간격 및 측방으로의 침투공격, 그리고 피난민을 가장한 게릴라 운용 등 후방 교란 활동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는 미 제24사단과 마찬가지로 전투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투입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투를 수행하지 못하고 쉽게 철수하는 등 전술적 실패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 제1기병사단이 지연전 기간 중에 전술적 실패가 많았지만, 붕괴된 미 제24사단을 대신하여 경부 국도 축선에서 북한군 제3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의 진출을 10일간이나 지연시켜 차후작전의 여건을 조성했다는 작전적 평가는 성공적이다. 즉 7월 22일부터 8월 1일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할 때까지 북한군 주력을 약 10일 동안 지연시킴으로써 미 제24사단과 함께 미 제8군이 낙동강방어선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지휘통제

1) 딘 사단장의 지휘조치에 대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24사단은 대전전투에서 전방 및 후방 전투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후방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철수하다가 엄청난 병력 및 장비 손실을 입었다. 이와 같이 후방이 완전히 차단된 원인은 첫째는 사단 전투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7월 19일 저녁에 철수하기로 한 계획을 워커 장군의 요구로 7월 20일까지 연기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금산 가도에서 적정 파악을 위해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사단수색중대를 제34연대에 배속시킴으로써 북한군의 후방침투 상황을 사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먼저 대전에서 철수시기를 최초 계획대로 7월 19일 저녁에 하였더라면 후방이 차단되기 전에 대전에서 철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19일에 철수하였더라도 북한군이 대전을 점령한 날짜는 20일 낮이어야 할 것이니, 실제로 20일 저녁

의 철수와 비교할 때에 지연효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미 금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호남지역이 유린된 시점에 작전적인 차원에서 대전을 고수하여야 할 의의가 반감된 상태였으며, 전술적인 견지에서도 그곳은 방어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었으므로 대전에서 굳이 7월 20일까지 고수방어할 필요가 없었다. 북한군이 목표를 대전에 두고 온 힘을 다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 이런 곳에서 결전을 시도한다는 것은 많은 출혈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제1기병사단의 전개시간을 얻고자 함이 목적이라면 마달령 진지와 같은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지연전을 수행했어야 했다. 그리고 미 제8군사령관인 워커 장군이 비록 7월 20일까지 대전을 방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딘 소장은 재 건의하여 19일 저녁 또는 20일 오전에 철수하는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했다.

다음은 사단수색중대의 지휘권을 제34연대장에게 넘겨줌으로써 당초 그가 구상한 복안과는 달리 연대장은 그 중대를 논산가도로 전환 배치하여 금산가도 및 대전 후방을 차단하려는 적정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대전방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연대장으로 하여금 지휘의 단일화와 현지 적정수집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배속 전환조치 자체는 타당하였지만, 금산가도 일대에서의 적정과 사단수색중대의 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침을 줬어야 옳았을 것이다.

사단장 딘 소장도 뒷날 그의 회고록에서 "① 당초 자신의 계획대로 19일 저녁에 부대를 대전에서 철수시키지 않았다는 점, ② 사단수색중대를 제34연대에 배속조치한 점" 이 두 가지가 대전에서 취한 자신의 지휘조치상의 실수로서 깊이 후회한다고 술회하였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교훈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2) 사단장 딘 소장의 대전 잔류 평가

대전전투도 전투양상으로 볼 때에는 앞서의 천안-전의-대평리 전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패전의 연속일 뿐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게 한 극적인 전투로 알려진 이유는 딘 사단장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여 사단장이 왜 마지막 순간까지 대전에 남아 있었는가 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딘 사단장이 자신의 회고록을 통하여 "① 제34연대와 그 배속부대 전투원들의 사기를 고무시키고, ② 한국군지휘관들에게 지휘도의 시범을 보임과 아울러 한국군부대의 전의를 앙양케 하는데 기여하며, ③ 북한군의 전투방식을 직접 관찰하여 차후의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무에 너무 접근한 탓으로, 숲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사단장의 대전잔류는 그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실행한 것이지만, 이미 대전방어의 책임을 제34연대장에게 일임한 당시로서는 사단장이 반드시 대전에 남아 있어야 할 상황도 아니었고, 또 사단의 전반적인 배치상태를 보아서도 남아 있어야 할 곳은 아니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사단장의 대전잔류 중의 행적에도 비판의 소지가 없지 않다. 즉, 7월 20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사단장이 적의 전차를 쫓는 사냥꾼 노릇을 하였는데, 이는 그가 실종이 아니라 전사로 기록될 뻔한 모험이었다. 이미 7월 8일 아침에 천안전투에서 제34연대의 신임연대장인 마틴(Robert R. Martin) 대령이 2.36인치 로켓포를 메고 적의 전차와 대결하다가 전사한 예로 능히 유추할 수 있는 일이다. 시가지전투에서 적전차를 격멸하는 일은 유능한 부사관이면 할 수 있는 일이며, 또 당연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위험한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단장의 용감한 행동을 찬양하기보다 사단의 최고책임자로서 맡은 소임을 스스로 저버린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좀 더 빨리 옥천 사단지휘소로 이동하여 전방전투부대에 대한 보급지원과 철수로의 확보, 차후지연진지 정찰 등 사단급 차원에서 지휘를 했어야 했다.

한편 당시에 한국군 지휘관 중에서 과연 그와 같이 용감하게 적의 전차에 맞서 보려는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있었던가 하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 직면하여 마땅히 지휘관이 진두에 나서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허물은 있지만, 일단 위기를 만나 보여준 그의 행동과 낙오된 뒤의 36일간의 행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은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미 육군참전공간사인 애플만의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에서 미 제24사단이 참전한 7월 5일부터 대전전투가 끝나는 20일에 이르기까지 15일 동안에, 그들은 남북전쟁이래로 고급장교의 손실이 가장 많았다고 기록하였다. 즉 사단장의 실종을 비롯하여 연대장 2명(전사 1명, 부상 1명), 대대장 6명(전사 3명, 입원후송 2명, 실종 1명), 연대 작전과장(S-3) 실종 2명이 있었다. 이는 짧은 전쟁기간에 비해 미국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숫자인데, 이들 모두가 진두지휘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단장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고 할 것이다.

3) 미 제19연대 예비대 운용 미비-서측방에 조기 투입

연대장 멜로이 대령은 서측방에 배치되었던 연대 수색소대로부터 7월 15일 07시경에 미 제34연대가 붕괴된 지역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연대장은 아직 타 지역에서는 적의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연대 예비병력의 대부분을 이곳에 투입하였다. 즉 제2대대장 맥그레일 중령을 지휘관으로 하는 TF를 편성하여 투입하였는데, 맥그레일 TF는 연대본부에서 보유중인 제78전차대대의 M-24 경전차 2대와 제26대공포대대의 M-16(Cal 50대공포 4문을 장비) 반궤도차 2대, 그리고 G중대(-)와 H중대의 기관총 1개 소대 및 81밀리 박격포 1개 반으로 편성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러한 조치는 7월 16일 적 주력이 공격한 대평리 지역에서 후방의 도로가 차단당했을 때에 이를 즉각 구축할 예비대가 없어 결국 도로차단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연대는 큰 혼란 속에서 많은 병력과 장비손실을 입고 각자 후방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대해 연대장 자신도 뒷날 "예비대의 2/3를 측방에 투입하지 않았더라면 적에게 후방보급로를 차단당하는 그러한 곤경에는 빠지지 않았을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하였다. 예비대 투입시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 국면이라 할 수 있다.

4) 미 제19연대의 적시적인 임시예비대 편성운용 미흡

미 제19연대는 7월 16일에 실시한 대평리전투에서 북한군의 정면돌파에 의해서가 아니라 측방도하에 이은 후방차단에 의하여 붕괴되었다. 이날 아침에 연대장은 전방에 배치된 B중대와 종심에 배치된 F중대로부터 적이 강을 건너 서남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운용할 예비병력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연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적들은 연대의 후방보급로를 차단하였다. 그 후에 연대는 보급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예비대를 편성하여 투입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전방부대들은 도로 동쪽의 산악소로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철수하였다.

연대장은 측후방으로 이동하는 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즉 F중대 병력을 투입하거나 또는 본부 병력으로 신예비대를 편성하여 투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했어야 했다. 후방의 도로가 차단당한 후에 투입된 노력의 절반 정도만 최초 측방으로 이동하는 적에 대해 조치하는 적극성을 보였더라면 훨씬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5) 미 제27연대와 작전협조 문제

미 제27연대는 보은-황간 도로로 진출하는 북한군 제2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7월 20일에 안동에서 급히 황간 북서쪽 지역으로 투입되었다. 이 지역에 투입된 미 제27연대는 미 제25사단 소속이었으나 사단과 멀리 떨어져 있어 미 제8군의 직접지시를 받아 전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대는 포병과 전차를 포함한 연대전투단(RCT)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 제27연대가 대구에 있는 미 제8군으로부터 명령을 직접 수령하여 전투를 수행하게 했던 것은 문제가 있었다. 제27연대장이 7월 28일 밤에 연대의 철수를 결심한 후, 그 통로의 사용 문제를 제1기병사단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제1기병사단장이 철수허가 여부를 제8군에 확인하였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보은-황간 도로는 황간에서 경부국도와 합쳐지는 점을 감안하여 제27연대

는 경부국도 방어책임을 지고 있는 제1기병사단장에게 배속하여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6) 미 제1기병사단 포병사령관에 의한 전투지휘

제1기병사단의 포병사령관인 파머(Charles D. Palmer) 준장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영동전투에서 제5·제8기병연대를 지휘하였다. 이는 당시 사단에 부사단장이 없어 포병사령관이 부사단장의 임무를 겸한 것이었으나, 포병사령관이 보병 2개 연대를 지휘할 할 만큼 사단장은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기병사단 포병사령관이 포항에 상륙한 제5·제8기병연대를 이끌고 사단장보다 먼저 영동에 도착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뒤 사단장이 황간에 지휘소를 개설한 뒤에도 포병사령관이 계속 2개 연대를 지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단장은 제5·제8기병연대가 전방에 배치될 시기에는 당연히 전방으로 이동하여 진두지휘를 했어야 했다. 미 제5·제8기병연대는 그동안 미 제24사단과의 전투로 많은 피해를 입은 북한군 제3사단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접전 사흘 만에 영동에서 철수한 것은 전투준비태세가 미비한 상태에서 전장에 투입된 영향이 크겠지만, 포병사령관에 의해 비효율적이고 소극적인 지휘의 탓도 있으리라 본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방어진지 편성

1) 미 제34연대의 분산된 방어진지 편성(공주전투)

미 제34연대는 북한군 제4사단이 금강 북안(北岸)에 이르기 전인 7월 12일에 대체로 진지편성을 끝냈다. 당시 부대를 배치함에 있어 공주정면에 제3대대를 배치하고, 후방 10여 ㎞되는 지점에 제1대대를 예비로 집결 보유하였으며, 그 중

간에 연대 직접지원 포병인 제63포병대대를 배치하였다. 제34연대장 웰링톤(Wadlington) 중령은 기동방어 형태로 광정면을 방어하기로 하고, 전방의 방어진지가 돌파되든가 측방으로 적이 침투할 경우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러한 방어배치는 제63포병대대가 검상리로 도하한 적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유린당할 때까지 후방의 예비 병력인 제1대대는 알 수 없었고, 아울러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었다. 이는 당시의 통신수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부대배치가 잘못되었던 것으로 봐야하겠다. 결과론이지만 예비인 제1대대를 제63포병대대 부근에 배치하여 경계를 제공하도록 했어야 한다. 즉 자체경계가 취약한 화력지원부대들은 가급적 보병부대의 경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미 제21연대의 마달령 배치

대전전투 후에 철수시 많은 손실을 입게 된 요인은 옥천-영동으로 연결되는 마달령 일대에 있는 세천터널과 그 위를 지나는 협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마달령 고개에는 철로가 지나가는 세천터널과 증약터널이 있었는데, 제21연대는 고개 정상에 있는 증약터널만 확보하고, 그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세천터널에는 병력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대전에서 철수하던 병력들은 세천터널 차단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각 부대 및 개인별로 산악소로로 철수하게 되었다.

제21연대장이 7월 18일 저녁에 사단장에게 건의한 바와 같이 세천터널을 반드시 확보했어야 옳았다. 병력이 부족하여 두 개 터널을 모두 확보할 수 없었더라면 대전에서 가까운 세천터널을 먼저 확보했어야 했다. 그러나 사단장은 당시 세천터널의 존재를 몰랐고, 또한 북동쪽 방향의 적 위협을 더 고려하여 마달령 정상진지만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즉 사단장은 지형과 적정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마달령간의 도로확보에 대한 책임이 미 제21연대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대는 옥천가도에 정기적인 도로정찰을 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시하였는지, 또 정찰로써 적의 도로차단기도가 들어날 경우 그에 대한 대응책을 여하히 강구하여 두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결론적으로 진지 점령시기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진지에 눌러앉아 눈앞의 참경을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지휘조치이다.

4. 포병화력 운용

1) 제63포병대대의 적 도하 보고 무시

미 제34연대를 직접지원하던 미 제63포병대대는 7월 14일에 공주전투에서 포병관측 정찰기가 "적이 서측방 검상리로 도하한다"고 표적을 제공했으나, 포병대대에서는 측면에서 도하하는 소규모 적이라고 판단하여 사격을 실시하지 않았다. 추후 정면에서 나타날 더 큰 적(큰 목표)에 사격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북한군들은 아무 피해 없이 도하하여 삼교리 부근에 배치된 제63포병대대를 기습공격하였다. 이로써 포병대대는 도하하는 적에 대해서 사격 한번 실시하지 못하고 포 10문을 모두 잃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장의 긴박한 상황에서 적에 관한 첩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규모 적이라도 측후방으로 움직인다면 이들의 작전기도를 파악하고, 전체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제63포병대대에서는 최초의 판단에만 집착하여 측방으로 도하하는 적에 대해서는 사격을 실시하지 않은 우(愚)를 범했던 것이다. 포병은 보병과는 달리 융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격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지 않는다.

그리고 대대 주둔지 관측소에서도 적의 접근을 경보하였으나, 대대본부에서는 "피아를 확인할 때까지 사격을 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였을 뿐 그 경보에 따른 대응태세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피·아 구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적으로 간주하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전투부대의 당연한 조치인데 이를 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써 포병은 전방부대에 대한 포병화력 지원뿐만 아니라 자체보호를 위한 경계태세 유지도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2) 하천선 방어시 화력운용 검토

대평리전투에서 미 제19연대는 가용포병으로 직접지원 포병인 제52포병대대와 화력증원 포병인 제11, 제13포병대대가 있었는데, 이들 포병은 도하하는 적을 강상에서 격멸하기로 하고 화력계획을 수립했으나 적은 야음을 이용하여 은밀히 도하하는 바람에 포병사격 기회를 놓쳤다. 여기서 포병운용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천선방어에 있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적이 강을 건너는 중간에서 이를 격멸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적 병력의 반 정도가 건넌 상황으로서 전투태세가 미비하고, 보병협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각개 격파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를 오해하여 적이 강을 건너는 수중에서 격멸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 제19연대도 대평리에서 적이 강을 건너는 수중에서 격멸하라는 것으로 잘못 적용하였던 것이다. 즉 연대는 도하하는 적을 강상에서 격멸시키기 위해 적이 도하하리라 예상되는 대평리 교량 좌우로 병력을 집중하고, 강둑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야음을 이용하여 서측방으로 은밀히 도하하였고, 도하 후에는 계속 후방으로 침투하여 주보급로를 차단하였던 것이다. 이때 포병들은 최초 계획대로 주 병력의 도하만 기다리다 제대로 사격을 실시하지 못했던 것은 포병운용의 큰 실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도하 중인 적을 강상에서 격파하려면 적은 반드시 아군이 방어 배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하해야 한다. 그러나 적은 아군이 배치하지 않은 지역으로 도하하려고 할 것이고, 도하한다 하더라도 강둑에 배치된 방어병력을 무력화 시키고 도하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강상에서 적을 격멸하기 위한 병력 및 화력운용은 효과적인 방법이 못된다. 따라서 도하지점을 우선 감시하는데 주력하고 도하병력을 발견하면 도하전 집결장소와 도하를 완료하고 강 언덕에 올라붙는 병력을 격멸하는데 감시능력과 기동력, 그리고 타격력의 세 가지를 조화 있게 운용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결론적으로 광정면에서의 하천선 방어는 적 도하 기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포병은 먼저 도하준비 중인 적의 주력에 대하여 요란사격을 계속해야 하고, 도하한 적에 대해서는 교두보 형성을 하기 전에 화력과 병력으로서 일시에 타격해야 한다.

5. 적정 파악 미흡

사단이 대전에서 적의 포위망에 빠진 것은 적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데다 통신두절로 말미암아 적절한 지휘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금산가도의 적정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7월 20일 새벽에 사단수색중대의 도로정찰대가 금산도로에서 적 출현을 보고한 바 있으나 제34연대장은 이에 대한 확인과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며, 사단장에게는 그 사실이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연대장이 금산가도의 적 출현에 대한 도로정찰대의 보고를 좀 더 심각히 받아들여 조치를 취했다면, 사단장에게 보고만 했더라도 이에 대한 적 위협을 제거하던가 아니면 철수시간은 앞당겨졌을 것이다. 당시 철수시간을 3시간만 앞당겼더라면 적의 포위망에 갇히기 전에 주력은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7월 20일 아침에 제34연대 제1대대의 무전기를 통한 적의 위장보고에 연대지휘부가 기만되었다는 것이다. 그 뒤 제1대대와는 통신이 계속 두절되었는데도, 전령 등을 활용하여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단장은 오후의 철수시간이 임박하였을 무렵까지도 제1대대가 건재한 것으로 알고 철수시간을 지연시켰던 것이다.

셋째, 제19연대 제2대대와 제34연대 제1대대가 “대전 시가 서쪽의 도로분기점을 적 전차가 차단하였다”는 불확실한 보고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실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속단하고 서둘러 보문산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또 07시경에 도로분기점이 적에게 차단되지 않았다는 상황을 확인한 제19연대 제2대대 G중대 제2소대는 그 분기점에서 2㎞에 불과한 거리에 있는 대대지휘소에 보고를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전방에 배치되었던 2개 대대는 연대와 연락이 두절된 채로 전방방어진지에서 조기에 철수함으로써 대전방어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대전전투는 전반적인 적정 파악 미흡으로 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하지 못해 적의 포위망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전장에서 적정 파악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교훈으로 삼아야겠다.

(집필 : 서규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 (註)

1)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June-November 1950) (Washing, D.C., 1986), pp. 205-206, 이미 준비명령은 7월 26일에 하달하였다.
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지연작전기)(1979), p. 45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1, 131.
3) 제3대대는 I, L, K, M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K중대는 전투손실이 너무 심해 하루 전날 철수시켰다. 따라서 L중대 마저 철수함으로써 전방은 I중대와 화기 중대인 M중대만 배치되어 있었다.
4)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2001), pp. 199-201;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p. 459-461.
5)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61.
6) 군사편찬연구소,『한강선방어와 초기지연작전』3권(2006), p. 390.
7)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61. 제19연대-2,276명, 제21연대-1,100명, 제34연대-2,020명.
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0, 워커 중장이 주한 미지상군에 대한 전반적인 작전지휘권을 맡기 전까지는 미 제24사단장인 딘 소장이 맡았다.
9)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조선전사』제25권(1981), p. 169. 이 책은 김일성 우상화에 광분되어 있던 북한의 사정을 고려할 때에 내용의 신뢰도는 낮다.
10) 위의 책, p. 176.
1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2;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조선전사』제25권, p. 176. 당시 북한군에 대한 미군의 정보판단은 정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p. 462-463.
1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30-131.
14) 당시 지뢰 및 철조망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21-123, 131;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조선전사』제25권, p. 175. 북한군들은 교량이 폭파되고 나룻배 등 도하수단이 모두 파괴되었고, 강물이 불어나 도하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인정하였다.
1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3.
1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3; 국방군사연구소,『오산-대전전투』(서부지역 지연전)(서울, 1993), pp. 138-141.
1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3.
19) 국방군사연구소,『오산-대전전투』, p. 141.
2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5; 국방군사연구소,『오산-대전전투』, p. 139.
2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31.
22) 국방군사연구소,『오산-대전전투』, p. 162.
2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31-132; 국방군사연구소,『오산-대전전투』, pp. 159-163.
2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5. 제3대대 K중대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인 7월 13일에 전 중대원이 후송되어 실제 방어진지에는 L중대와 I중대만 배치되어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3. 중대 내 통신수단으로는 야전용 TS10 전화기가 1대뿐으로 중대본부와 오직 1개 분대만이 통신이 유지되었다.
2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6.
27)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68.
2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68. 이날 사단장의 지시로 연대지휘소를 공주읍내에서 봉곡리로 이동시켰다. 그 이유는 전투력이 저하된 제34연대로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공주-논산-대전 축선을 따라 지연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대지휘소를 후방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유효적절한 목표란 전방 제3대대 정면으로 도하하는 대규모 부대를 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29)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2권, p. 468. 대대장은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1953년에 대대사격지휘소 부근의 한 참호 속에서 그의 유해가 발견됨으로써 이날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8;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조선전사』제25권, p. 177. 이 자료에 북한군은 1시간도 못되는 시간에 대대장을 비롯한 136명의 적을 살상 및 포로로 하고, 105미리 곡사포 12문, 차량 86대를 노획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31) 군사편찬연구소,『한강선방어와 초기지연작전』3권(2006), p. 406.
3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71. 당시 국군 기병중대 조돈철 소위 증언.
33)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7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9.
3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72.
35)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78, 49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30. 공주에서 철수한 제34연대가 논산 바로 동쪽에 지연진지를 점령한 것은 확실하나, 마구평리에 지연진지를 점령하였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여기서 마구평리(논산 동쪽 6㎞)로 추정한 것은 논산에서 마구평리까지는 논산천과 함평천을 낀 평야지대여서 방어진지를 편성할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6일 저녁에 대전으로 철수할 때까지 그곳에서 지탱하였는지, 아니면 논산-대전 도로를 따라 지연전을 벌였는지도 분명하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투 없이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3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7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30.
37) 위의 책, pp. 130-131.
3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33.
39) 위의 책, p. 134.
40)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조선전사』제25권, p. 178.
41)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7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35.
4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7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35. 이때 쏟아진 적 화력의 치열도는 연대장 Meloy 대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전선에서도 경험한 바 없는 것이었다고 술회했다.
43)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8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35. 당시 제11포병대대의 155밀리 곡사포 1문이 제1대대장의 지휘하에 조명지원을 전담하였는데, 대대가 조명지역을 약간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잘못 이해하여 포의 가신을 이동하면서 방위각을 과도하게 수정한 결과였다.
4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35.
45) 위의 책, p. 136.

육군 군사편찬연구소

46) 위의 책, p. 137.
47)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8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38. 당시 제52포병대대 B포대를 수습한 선임장교 Steele 중위는 이때의 공적으로 그 해 9월 5일부로 사단일반명령 제120호에 의거 은성무공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4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38.
49)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84.
5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39;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84.
51) 당시 적(敵)은 봉암리 서쪽의 고지를 점령하여 자동화기로서만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52) M-16 반궤도차는 차량당 Cal 50 중기관총 4정을 갖추고 있고, M-19 반궤도차는 차량당 40밀리 대공포 2문을 갖추고 있었다.
53)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8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41.
5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87. 이미 대대 군수장교 나쉬 소위는 연대장이 "제2대대를 도로차단지점으로 투입하라"는 명령을 받는 즉시로 이동하였으나,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정오가 지나서 구곡천 동쪽의 맥그레일(McGrail) 특수임무부대 진지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맥그레일(McGrail) 중령에게 도로차단상황을 알리고, 연대장의 구두명령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맥그레일 중령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55)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9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40-141. 맥그레일 중령이 기갑부대를 이끌고 출동했다가 다시 돌아온 시간이 16시로 되어 있는데, 기록을 종합 검토한 결과 맥그레일 중령이 포병진지에 도착한 시간을 16시30으로 보고, 그로부터의 기갑부대의 출동시간과 거리, 교전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시 돌아온 시간을 18시로 정정하였다.
5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42.
57)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89.
5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43.
59)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9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43.
6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44.
61)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479. 당시 전방지역에 투입하지 않았던 것은 대전 동측방의 위협을 크게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6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33-134.
6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44.
64)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 p. 202;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조선전사』제25권, p. 181. 각 자료의 내용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공주-대평리전투에서 미군이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
65) 실제는 유성 방면에서 내려온 북한군 전차가 도로분기점에서 미군 3.5인치 로켓포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어 정지하고 있었다.
66)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조선전사』제25권, p. 169. 김일성은 작전지침에서 "적(미 제24사단)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여 금강과 소백산맥 선을 신속히 돌파하여 적의 기본집단을 대전지역과 소백산맥 줄기의 남동부에서 각개 포위 섬멸함으로써 남해와 대구 방향으로 신속히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67)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조선전사』제25권, p. 183. 북한군의 최초계획에서는 옥천방향 도로 차단은 북한군 제2사단이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2사단이 청주일대에서 국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어 전진이 늦어지자, 제4사단으로 하여금 양쪽 방향 도로 모두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

6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78. 북한군 전차는 38선을 침공할 때부터 제203전차연대는 제3사단, 제107전차연대는 제4사단에 배속운용되었다.;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00

69)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0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47-148.

7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47.

7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48-150;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01. 당시 워커 장군은 딘 장군에게 7월 20일까지 대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7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p. 501-50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50. 사단장은 제34연대가 대전에서 24시간 더 지탱하기 위해 영동에 있는 제19연대 제2대대를 제34연대에 배속시키고, 옥천 부근에 있던 제13포병대대 B포대를 대전비행장으로 이동시켜 전투력을 증강시켰다.

73) 유성 진지는 제19연대의 G중대가 연대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점령하고 있었는데, 7월 17일에 제34연대 B중대가 진지를 인수하였다.

7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51.

75) 사단장은 당시 마달령에는 증약터널이 1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그와 같은 조치하였다고 후일 술회하였다.

7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05. 당시 적 포병사격으로 대전비행장에 포탄이 떨어지는 광경을 본 사단장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전선의 1일 포격량보다 많은 양"이라고 할 정도로 적의 포병사격은 치열하였다.

7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49-150. 연대장은 7월 20일까지 대전을 지탱해야 한다는 사단장의 명령을 준수했다.

78) 위의 책, pp. 153-154.

79) 위의 책, p. 15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p. 506-507.

80)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조선전사』제25권, p. 183. 이날 야간에 후방에서 마주친 북한군의 매복조들은 보문산 방향으로 우회 기동한 퇴로차단부대였었다.;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00. 당시 우회기동부대였던 북한군 제4사단 제18연대는 각개병사가 1.5기수의 탄약과 3일분의 식량 및 1~2발의 박격포탄을 휴대하고 은밀히 산악의 험로를 따라 이동하였다.

8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55-156, 158;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 p. 203. 북한군은 04시30분부터 30분간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제4보병사단 예하부대들이 서남쪽으로부터, 제3사단 예하부대들이 서쪽으로부터, 제105전차사단 예하부대들이 북서 및 북쪽으로부터 대전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8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0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56.

83)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0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56.

8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1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57.

8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57; 러 국방부 편(김종국 역),『러시아가 본 韓國戰爭』(대전: 오비기획, 2002), p. 42.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 p. 203. 북한군은 이날 06시에 제105전차사단의 선두 전차부대들이 대전 경계선으로 돌입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8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66.

87)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1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60

-161.

8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60.

89) 위의 책, p. 161.

90) 뒤에 개명, 김종면.

9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58.

92) 러 국방부 편(김종국 역),『러시아가 본 韓國戰爭』, p. 42;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의 6·25 전쟁 보고서』제1권, p. 203. 이날 06시에 북한군 제105전차사단의 선두 전차부대들이 대전 경계선으로 돌입하였으며, 오전 11시에는 제3, 4사단과 제105전차사단 예하부대들이 대전 시가전을 전개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93)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1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62. 당시 수색중대 로켓포조의 용감한 두 병사는 Robert B. Watkins 하사와 Jack E. Lowe 일병이다.

9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62.

95)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27. 당시 연락장교 김종평 대령은 7월 20일 날이 밝자마자 적의 전차가 시내로 뛰어들었는데, 이때 딘 소장이 Rocket 로켓포조를 이끌고 전차를 쫓아갔다고 증언하였다. 그때 김종평 대령은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의 명령으로 17일에 대전에 들어가 20일까지 딘 소장과 함께 지냈다.

9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63.

9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64. 그 시간에 전방대대들은 모두 진지를 이탈한 상황이었다.

98)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18. 이날 11시경에 부연대장 웰링턴(Robert L. Wadlington) 중령이 제3대대 진지에 갔을 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즉시 L중대장 스미스(Jack E. Smith) 대위를 대대장 대리로 지명하여 대대를 지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날 대대장 Lantron 소령은 K중대의 증원실패 상황을 연대장에 직접 보고하기 위하여 연대지휘소로 가다가 적에게 포로가 된 것으로 뒷날 밝혀졌다.

9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58. 북한군은 7월 20일 04시에 대전비행장을 점령한 후에 이동을 정지한 것은 대전 후방으로 침투한 후방차단부대가 퇴로를 차단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다.

10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64.

101) 위의 책, p. 165.

102) 위의 책, p. 165.

103) 위의 책, pp. 165-166.

104) 위의 책, p. 165;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20. 당시 제1기병사단은 7월 15일에 일본의 요코슈가(橫須賀, Yokosuga)항에서 승선하여 18일 아침에 포항으로 상륙하였다. 이때 전차소대(제71전차대대 A중대 소속)는 선발대로 제일 먼저 투입되었던 것이다.

10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67-168.

10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2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69.

107)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167.

108)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22. 이 전공으로 뒷날 Mcdaniel 소령에게 은성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사단 일반명령 제121호, 1950.9.5부).

109)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p. 522-52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68.

11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73-1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11)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24, 536. 7월 20일 오후에 대전역에 열차가 돌입하였다가 다시 돌아 간 상황에 대한 기록과 증언들에 차이가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열차회송작전」의 목적이 딘 소장의 구출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전역의 보급품을 적재한 화차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11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2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71. 사단장이 대전을 포기하고 대전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취한 마지막 지시였다.

11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72.

11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27. 당시 이 대열에 포함되어 있었던 연락장교 김종평 대령은 7월 20일 18시쯤 딘 소장의 지시로 제19연대 철수병력과 함께 시가를 빠져나가 옥천가도에 들어섰다가 적의 매복에 걸려 차를 버리고 부근의 산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 후 밤새도록 산길을 헤맨 끝에 도중에서 만난 병사 10여 명과 함께 21일 새벽에 옥천에 도착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장병들은 분산되어 탈출하였다.

11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76.

116) William F. Dean, *General Dean's Story* (New York, 1954), p. 5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77.

117) William F. Dean, *General Dean's Story*, p. 80.

118) 위의 책, p. 82. 딘 소장을 밀고한 한두규는 1953년 9월에 경찰에 체포되어 1954년 9월 23일에「불법체포죄」로 서울지법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서대문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그 뒤 1957년 5월 21일에 좌익수전향자로 감형되어 출소하였다.

11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78.

120) 위의 책, p. 178.

121) 위의 책, pp. 175-176.

122) 위의 책, p. 175.

123)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33.

124) 러 국방부 편(김종국 역),『러시아가 본 韓國戰爭』, p. 43;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의 6·25 전쟁 보고서』제1권, p. 203. 자료마다 피해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미군의 피해가 컸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125)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3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79.

126)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 p. 203. 이 자료에는 7월 21일 06시 무렵에 대전을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미 제24사단이 7월 20일 18시경에 철수한 대전 시내를 이날 야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점령하였음을 의미한다.

127)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p. 532-53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78.

128)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 p. 213.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33.

12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75.

130) 북한사회과학역사연구소,『조선전사』제25권, p. 231. 북한군은 대전을 점령한 후에 소위 그들의 제3차 작전방침을 완수하고 대구방향으로 신속히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았다.

131) 북한군이 대담한 기동으로 부대를 집중 운용할 수 없었던 것은 그동안의 전투에서 미군 공격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과 미 공중공격으로 인해 어느 한 축선에 부대를 집중 시킬 수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없었기 때문이다.

13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39.

133) 1st Cav. Div., War Diary(14-22 July 195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49-150. 이 부대는 최초에 부산으로 상륙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부산항이 보급품의 양륙으로 말미암아 병력의 상륙이 여의치 못하여 포항으로 상륙하였다. 그리고 7월 18일은 미 제24사단이 금강 방어선에서 철수하여 갑천 방어선을 제34연대가 점령하고 있었다.

13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97.

135) 7th Cav. Regt., War Diary(22-24 July 1950).

13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48.

137)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548. 제8군사령부에서는 항공정찰결과를 기초로 명령을 하달하였다.

138)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3권 제5장 제2절, pp. 333-336.

139)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Washington D.C.: GPO, 1972), pp. 58-60.

140) 1st Cav. Div., War Diary(2, 4, 7 July 1950).

141) 77th Field Artillery Battalion, Daily War Diary Summary(22 July 1950).

142) 노근리사건조사반,『노근리사건 조사결과보고서』(국방부, 2001), p. 62;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 pp. 213-214.

143) 제8연대 제1, 제2대대 진지 사이에는 연대 수색소대만 배치되어 적 침투에 취약하였기 때문에 제5기병연대 제1대대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였다.

144) 제5기병연대는 이미 7월 23일에 출동명령을 부여 받고 이날 늦게 전방으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145) 5th Cav. Regt., War Diary(24 July 1950).

146) 61st Field Artillery Battalion, Daily War Diary(22 July 1950).

14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98-200.

148) Clay Blair, The Forgetten War, p. 158.

149) 1st Cav. Div. War Diary(24, 25 July 1950), 1st Cav. Div. G-3 Section, Operation Plan No.10.1-50.

150) 1st Cav. Div. G-3 Section, Operation Plan No.10-50. 이 계획은 추후 No.10.1-50 수정명령에 의해 제8기병연대 제1대대가 점령하기로 했던 진지를 제7기병연대 제2대대가 점령하였다.

151) 77th Field Artillery Battalion, Daily War Diary Summary(25 July 1950); 61st Field Artillery Battalion, Daily War Diary(25 July 1950); 92nd AAA(AW) Battalion, War Diary Summary(25 July 1950).

152) 8th Cav. Regt., 1st Battalion Journal(25 July 195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00;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 p. 214.

153) 노근리사건조사반,『노근리사건조사결과보고서』, p. 70;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 p. 214. 이 보고서에는 "미 제25사단(실제 제1기병사단)이 900명의 병력 손실과 6대의 전차가 파괴되었고, 아울러 야포 및 박격포 27문, 전차 8대, 차량 26대, 무전기 4대를 노획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200.

154) 노근리사건조사반,『노근리사건 조사결과보고서』, pp. 73-75. 사단 작전명령대로라면 제8기병연대 제1대대가 제1지연진지에서 도로 우측(북쪽)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 지역을 제7기병연대 제2대대가 점령하였다.

155) 위의 책, p. 75.

156) 위의 책, pp. 83-85. 이날의 전투는 대대장의 01시 20분 보고와 참전자들의 증언으로 볼 때 북한군들은 전차 1대와 일부 보병들이 진지 후방으로 진입하여 후방을 교란하고, 또한 피난민 대열

에 침투한 게릴라들과 피난민을 가장한 북한군 정찰병들이 후방을 교란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57) 위의 책, pp. 86-88, 149.

158) 위의 책, pp. 88-89. 이때 중대별 정확한 부대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참전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것이다.

159) 위의 책, pp. 150-151.

160) 위의 책, p. 153; 방선주, "한국전쟁 당시 북한 자료로 본 '노근리' 사건", 『정신문화연구』(2000, 여름), pp. 38-39.

161) 노근리사건조사반, 『노근리사건 조사결과보고서』, p. 183.

162) 1st Cav. Div. Operations Order Number 10.3-50(281700K July 1950).

16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554.

164)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554.

165)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사수를 의미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장 소백산맥선 지연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미원-함창 전투
제 3 절	문경-점촌 전투
제 4 절	풍기-안동 전투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1. 개 요

소백산맥선 지연작전은 7월 14일 이후 국군 2개 군단 5개 사단(수도사단, 제1·제2·제6·제8사단)이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형성하여 기계화 부대로 증강된 북한군 제2군단 예하 5개 사단(제1·제8·제12·제13·제15사단)과 제1군단 예하 1개 사단(제2사단) 등 총 6개 사단의 공격을 17일간 방어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작전이다.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진출하던 초기의 위력이 점차 약해지고 기동력이 크게 저하되자 제3단계 작전 중반[1]부터는 국군 방어지역인 3번과 5번 도로 축선에 전투력을 집중하려고 했다. 이 무렵 김일성은 충주 남쪽 전선사령부에 나타나서 "정면으로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산길이나 산등성이를 따라 우회기동하여 측면과 후방으로부터 타격함으로써 적의 유생역량을 포위 소멸하고 방어를 와해시키면서 공격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전선사령관인 김책은 사령부를 충주에서 수안보로 추진하고 7월 21일부터 총공격을 개시했다. 북한군 제2군단은 제15사단을 미원-상주 방면에, 제1사단과 제13사단을 문경-함창 방면에, 제8사단과 제12사단을 풍기-안동 방면에, 그리고 제1군단의 제2사단을 청주-보은 방면에 각각 투입해 소백산 줄기의 동남부지역에서 국군을 포위 섬멸하고 대구 방향으로 신속히 진출하고자 하였다.[3]

북한군의 공격을 맞아 지연전을 수행한 미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국군을 통합지휘하여 영동-함창-안동-영덕을 연하는 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낙동강선으로 철수, 이 방어선을 고수하면서 공세 이전을 위한 병력을 집

결시키려고 했다. 이를 위하여 7월 19일 미 제1기병사단을 영동에, 미 제25사단을 상주 정면에 각각 배치하고 미 제24사단을 김천-군위-의성지역에 집결하게 하는 한편, 국군을 재편성하여 8개 사단을 2개 군단 5개 사단으로 개편해 함창-예천-안동-영덕 선을 방어하게 하였다.[4)]

이러한 미8군사령관의 작전개념에 따라 소백산맥선의 국군은 수도사단과 제1사단이 고은-미원-화령장-함창 부근에서, 제6사단이 문경-점촌 부근에서, 제8사단이 풍기-안동 부근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게 되었다.

결국 이 시기 중동부전선에서는 "최대한 타격을 주면서 신속하게 진격하여 국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북한군의 공격개념과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시켜 유엔군의 증원 하에 전세를 반전시킨다"는 국군의 방어개념이 맞서게 되었다.

작전지역내의 지형은 형제봉(兄弟峰, △1,178)·소백산(小白山, △1,440)·국망봉(國望峰, △1,421)·도솔봉(兜率峰, △1,314)·주흘산(主屹山, △1,106)·속리산(俗離山, △1,058) 등 1,000m 내외의 준령으로 이루어진 소백산맥이 남한의 중부와 남부를 가름하는 분수령으로 위치하고 있어 방자에게 유리하였다. 특히 갈령, 이화령, 조령, 죽령은 북한군의 전차와 야포들이 기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지들이었다. 또한 작전지역 내에는 함창 부근의 이안천, 문경 부근의 영강, 영주 부근의 내성천 등이 흐르고 있어 하천선 방어에 유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도로망은 미원-보은-영동으로 이어지는 19번 도로, 괴산-문경-함창으로 이어지는 3번 도로, 단양-풍기-영주-안동으로 이어지는 5번 도로 등이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였으며, 보은-상주간 25번 도로, 문경-예천-안동간 34번 도로가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였다.

소백산맥선에서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는 국군의 좌측에는 미 제24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경부축선상에서 북한군 제1군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으며, 우측에는 국군 제3사단이 동해안을 따라 남진해 포항과 부산을 점령하려는 북한군 제5사단과 제766부대를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2. 북한군과 국군 상황

1) 북한군 상황

국군이 담당하던 소백산맥 지역의 정면에는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1·제8·제12·제13·제15사단과 제1군단 예하 제2사단이 투입되었다. 북한군 제1사단의 총병력은 약 8,000명이었으나 이른바 '의용군' 병력이 30%에 이르렀으며, 전체 병력 중 비무장 병력도 15%에 이르렀다. 주요 장비로는 76밀리 자주포 12문을 비롯하여 122밀리 곡사포 7문과 76밀리 곡사포 21문, 45밀리 대전차포 43문, 120밀리 박격포 40문, 82밀리 박격포 80문 등을 보유하였다.[5)]

북한군 제2사단은 개전 이후 춘천과 이천 등지에서 전체 병력의 약 40%에 이르는 인명손실을 보았으나 이른바 '의용군'으로 병력 보충을 시도해 총 병력이 약 1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주요 장비로는 76밀리 자주포 12문, 122밀리 곡사포 26문, 76밀리 곡사포 13문, 45밀리 대전차포 43문, 120밀리 박격포 12문 등을 보유하였다.[6)]

북한군 제8사단은 7월 초 강릉에서 제1경비여단을 기간으로 하여 증편된 사단으로 총 병력이 약 10,000명이었다. 주요 장비로는 122밀리 곡사포 12문, 76밀리 곡사포 21문, 45밀리 대전차포 42문, 82밀리 박격포 36문, 120밀리 박격포 12문 등을 보유하였다.

북한군 제12사단의 총 병력은 약 10,000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주요 장비로는 76밀리 자주포 16문, 122밀리 곡사포 12문, 76밀리 곡사포 24문, 45밀리 대전차포 48문, 37밀리 대전차포 12문, 120밀리 박격포 20문 등을 보유하였다.[7)]

북한군 제13사단은 예천지구 전투에서부터 참전한 관계로 편성 당시의 병력인 11,000명을 유지하였으며, 주요 장비로는 122밀리 곡사포 8문, 76밀리 곡사포 30문, 45밀리 대전차포 41문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8)]

북한군 제15사단의 총 병력은 약 9,000명이었으며, 주요 장비로는 122밀리 곡사포 12문, 76밀리 곡사포 8문, 120밀리 박격포 12문, 82밀리 및 61밀리 박격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4-1> 북한군 주요 지휘관

구 분		계 급	성 명
제1군단	군단장	중장	김 웅
	부군단장	소장	김재욱
	참모장	소장	유 신
제2사단	사단장	소장	최 현
	참모장	총좌	현 파
	제4연대장	대좌	이성호
	제6연대장	대좌	김익현
	제17연대장	대좌	전관수
	포병연대장	대좌	마동결
제2군단	군단장	중장	김무정
	부군단장	소장	임 해
	참모장	소장	김광협
제1사단	사단장	소장	최 광
	참모장	총좌	한 경
	제2연대장	대좌	김양춘
	제3연대장	대좌	이창권
	제14연대장	대좌	황 석
	포병연대장	대좌	현학봉
제8사단	사단장	소장	오백룡
	제81연대	총좌	이학래
	제82연대	대좌	사 생
	제83연대	중좌	오윤섭
	포병연대장	중좌	김영항
제12사단	사단장	소장	최충국
	참모장	총좌	지병학
	제30연대장	대좌	최학순
	제31연대장	대좌	이원성
	제32연대장	대좌	황동화
	포병연대장	대좌	손응삼
제13사단	사단장	소장	최용진
	제19연대장	대좌	김병철
	제21연대장	대좌	이성준
	제23연대장	대좌	태병렬
	포병연대장	중좌	정봉욱
제15사단	사단장	소장	박성철
	참모장	대좌	김 욱
	제45연대장	대좌	이철룡
	제48연대장	대좌	김치규
	제50연대장	대좌	이을설
	포병연대장	대좌	김연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문, 76밀리 자주포 4문, 45밀리 대전차포 24문 외에 자동차 15대와 마필 60여 두를 보유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강행군과 보급 차질로 인해 부대 사기는 날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9]

2) 국군 상황

한강선 방어 이래 서부전선을 미군에게 맡기고 중부 및 동부전선을 담당하게 된 국군은 제1군단 창설에 이어 7월 12일 함창에서 제2군단을 창설하였다. 제2군단 창설은 북한군의 공격이 함창-영주 선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한 육군본부가 이화령-조령-죽령 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할 제6·제8사단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1군단은 수도·제1·제2사단을, 제2군단은 제6·제8사단을 지휘하게 되었다.

이 무렵 각 사단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사단은 7월 10일까지 진천 남쪽에서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저지한 후 국사봉-매봉 선으로 이동해 좌로부터 제8·제1·제18연대 순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배속된 제17연대를 예비로 하였다. 수도사단 총 병력은 6,700여명이었으며, 105밀리 곡사포 4문, 81밀리 박격포 16문, 60밀리 박격포 27문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1사단은 7월 12일까지 음성-괴산 부근 전투를 종결하고 13일 미원 지구로 이동해 제11연대를 추정리에, 제12연대를 용곡리에, 제13연대를 부흥리에 각각 배치하여 북한군 제15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제1사단의 총 병력은 5,600여명이었으며, 105밀리 곡사포 4문(배속), 81밀리 박격포 24문, 60밀리 박격포 20문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사단은 7월 13일 국군 수도사단과 미 제19연대의 간격인 문의 일대에 방어진지를 급편하였다.

제6사단은 7월 9일 수안보에서 보은으로 이동하였다가 10일 육군본부로부터 문경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7월 12일 문경지역에 집결하였다. 제6사단은 제2연대를 이화령에, 제19연대를 조령에, 그리고 제7연대를 사단 예비로 문경에 집결 대기시켜 북한군 제1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국군 제6사단의 총 병력은 6,500여명이었으며, 장비는 편제상의 70% 수준을 유지하고, 징발차량 1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4-2> 국군 주요 지휘관

직 책			계 급	성 명	비 고
제1군단장			소장	김홍일	
제2군단장			준장	김백일	1950.7.12부
			준장	유재흥	1950.7.20부
수도사단	사단장		준장	김석원	
	제1연대	연대장	중령	이희권	윤춘근 중령(7.15부)
		제1대대장	소령	장태환	
		제2대대장	소령	이의명	
		제3대대장	소령	김황목	
	제8연대	연대장	중령	이현진	
		제1대대장	대위	강정희	
		제2대대장	소령	정승화	
		제3대대장	소령	박태원	
	제18연대	연대장	중령	임충식	
		제1대대장	소령	박철용	
		제2대대장	소령	장춘권	
		제3대대장	소령	김봉로	
제1사단	사단장		준장	백선엽	7.25. 준장 진급
	제11연대	연대장	대령	최경록	권동찬 중령(7.14부) 김동빈 중령(7.26부)
		제1대대장	대위	장근술	김재명 소령(7.26부)
		제2대대장	소령	정영홍	이두황 소령(7.26부)
		제3대대장	대위	김 소	정영홍 소령(7.26부)
	제12연대	연대장	중령	김점곤	박기병 대령(7.26부)
		제1대대장	소령	신현홍	한순화 소령(7.28부)
		제2대대장	소령	조성래	
		제3대대장	소령	이무중	
	제13연대	연대장	대령	최영희	
		제1대대장	소령	김진위	
		제2대대장	소령	안광영	
		제3대대장	소령	최병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직 책			계 급	성 명	비 고
제2사단	사단장		대령	이한림	7.21부 해편
	제5연대	연대장	중령	김동빈	실 병력 1개 대대, 7.25. 제11연대에 편입
	제16연대	연대장	중령	김동수	7.21. 제8사단에 편입
		제1대대장	중령	유의준	
		제2대대장	중령	김 헌	
		제3대대장	대위	최민섭	
	제20연대	연대장	대령	박기병	실 병력 1개 대대, 7.26. 제12연대에 편입
제6사단	사단장		대령	김종오	
	제2연대	연대장	대령	함병선	
		제1대대장	중령	박노규	
		제2대대장	소령	서정학	
		제3대대장	소령	이운산	
	제7연대	연대장	대령	임부택	
		제1대대장	중령	김용배	
		제2대대장	중령	김종수	
		제3대대장	중령	이남호	
	제19연대	연대장	대령	민병권	
		제1대대장	소령	최병묵	이계순 대위(7.15부)
		제2대대장	소령	김용기	
		제3대대장	소령	김한덕	
	제16포병대대	대대장	소령	김 성	제3포병대대와 교체 (7.17부)
	제3포병대대	대대장	소령	박영식	
	공병대대	대대장	소령	박정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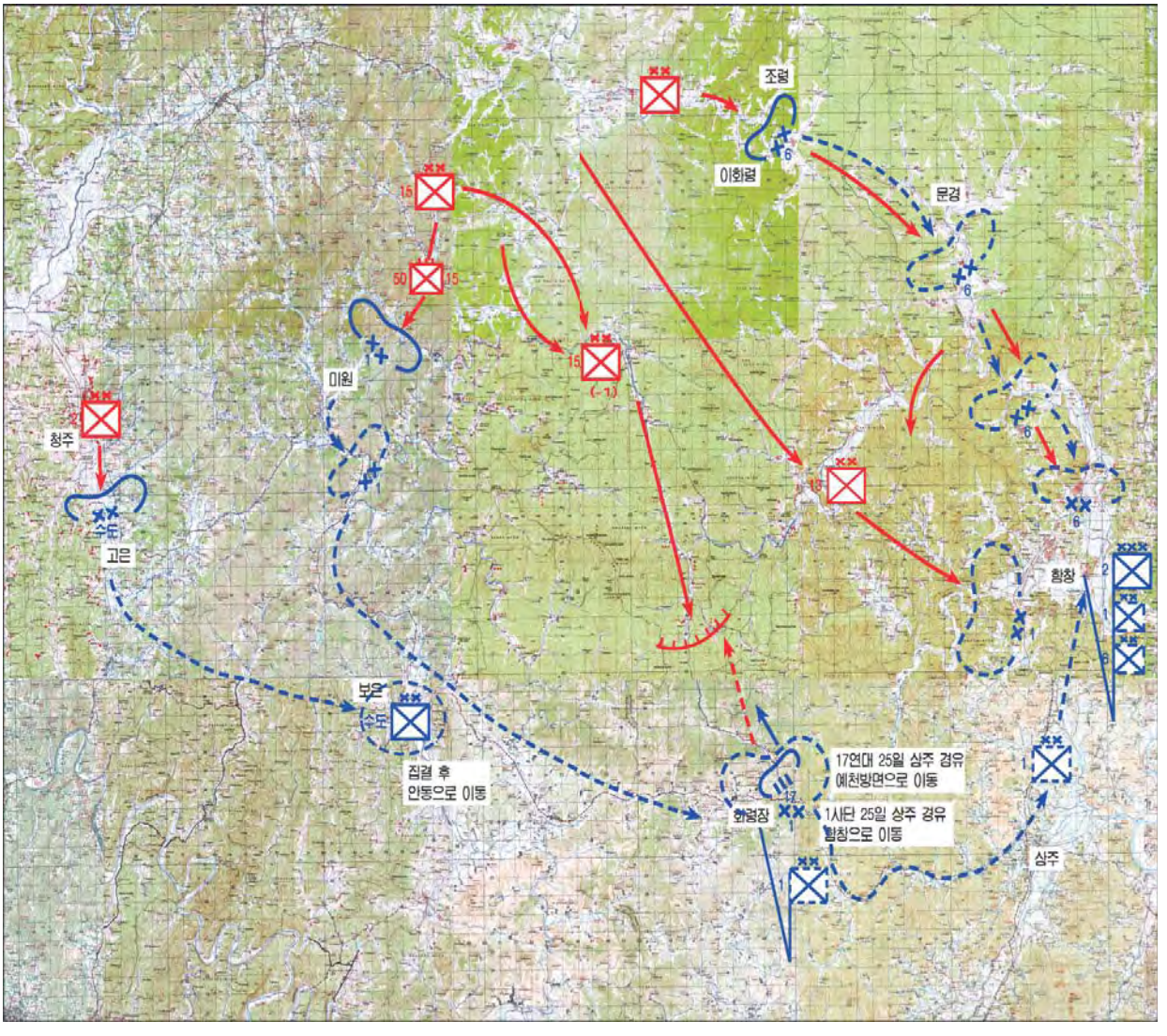
직 책			계 급	성 명	비 고
제8사단	사단장		대령	이성가	
	제10연대	연대장	중령	고근홍	
		제1대대장	소령	박치옥	
		제2대대장	대위	정순기	
		제3대대장	대위	김순기	
	제21연대	연대장	중령	김용배	
		제1대대장	소령	윤태현	조규영 소령(7.18부) 임익순 소령(7.24부)
		제2대대장	대위	박영섭	조규영 소령(7.24부)
		제3대대장	소령	이창진	김도진 소령(7.24부)
	제18포병대대	대대장	소령	장경석	제50포병대대 제1중대 배속(7.17부, 중대장 정균환 소령)
	공병대대	대대장	대위	김 묵	
육본직할	17연대	연대장	중령	김희준	
		제1대대장	소령	이관수	
		제2대대장	소령	송호림	
		제3대대장	소령	오익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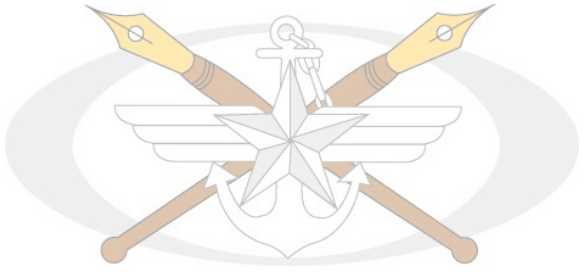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여대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식량과 연료의 보급은 현지 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방에서의 추진으로 충족하였으며 탄약의 보급도 원활하였다.

제8사단은 7월 12일 단양 전투를 종결하고 죽령을 넘어 풍기로 철수한 후 5번 도로를 중심으로 좌측에 제10연대를, 우측에 제21연대를 각각 배치하여 V자형의 살상지대를 만들고 북한군 제12사단의 진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제8사단의 총 병력은 약 6,000명이었으며, 장비는 편제상의 70%를 유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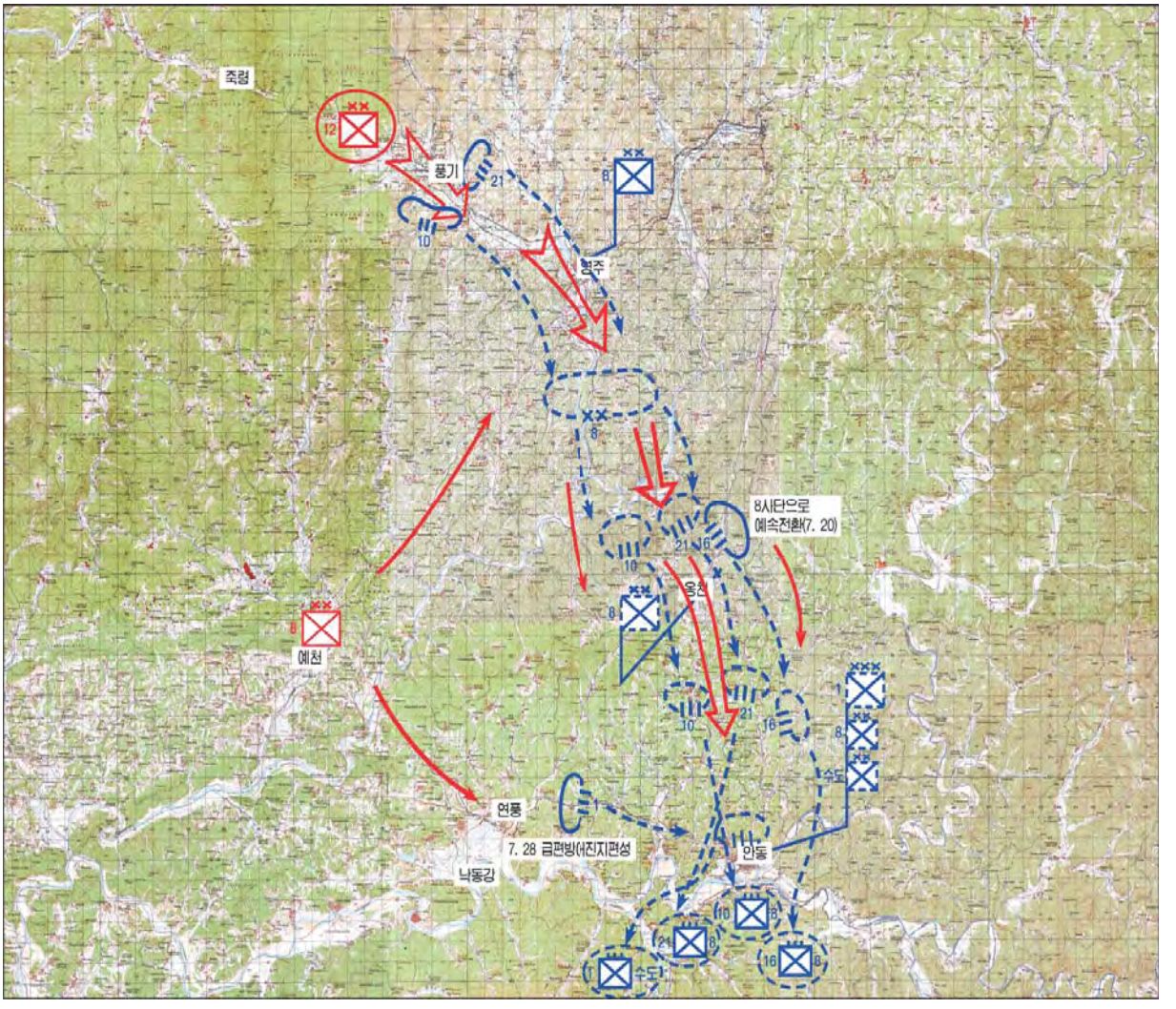
<상황도 4-1> 소백산맥선 지연작전 ①(1950. 7. 1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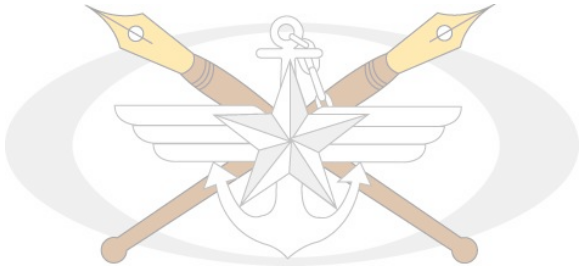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2> 소백산맥선 지연작전 ②(1950. 7. 14~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미원-함창 전투

1. 전투 개요

미원-함창 전투는 국군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 및 그 배속부대가 상주방면으로 남진하는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2사단과 제2군단 예하 제15사단에 맞서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미원, 고은, 화령장, 함창 일대에서 치른 방어전투이다.

국군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한·미 양군이 금강과 소백산맥을 연한 새로운 방어선에서 북한군을 지연하기로 결정하고 미 제24사단이 금강 남안으로 철수하자 이와 협조된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보은-미원 간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3일 제1군단은 청주-괴산 선에서 철수하여 제1사단이 미원 북방에, 수도사단(제17연대 배속)과 제2사단이 고은리와 문의 일대에서 각각 방어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국군 제1군단 정면의 북한군은 제2사단과 제15사단이었다.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2사단은 청주 점령 후 옥천 방면으로, 제2군단 예하 제15사단은 괴산 점령 후 상주 방면으로 진출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국군 제1사단 방어지역으로는 북한군 제15사단이, 국군 수도사단과 제2사단 방어지역으로는 북한군 제2사단이 공격을 담당하였다.

고은리의 수도사단과 제2사단은 14일부터 북한군 제2사단과 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16일경 미군의 금강방어선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군 제1군단은 전선을 재조정하기로 하고 제2사단과 수도사단을 각각 회인과 보은으로 철수시켰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무렵 국군 제1사단은 1개 연대가 16일부터 괴산 방면에서 남하하는 북한군 제15사단을 거리고개 일대에서 저지하는 가운데 주력을 미원 일대에 배치하였다. 북한군 제15사단은 괴산 남쪽에서 국군 제1사단을 공격하는 한편, 상주를 기습 점령하기 위해 주력 부대를 속리산 동쪽의 산간도로를 따라 진출시켰다. 이때 문경 부근의 국군 제6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보은에서 상주로 이동 중이던 제17연대가 화령장에서 이들을 포착하고 매복 공격을 시도해 큰 전과를 올렸다. 육군본부에서는 화령장 부근의 전투가 확대되자 전선조정 계획에 따라 춘양으로 진출하려던 국군 제1사단을 화령장에 투입하였다.

제1사단은 22일 화령장에 도착해 이틀간 북한군 제15사단과 공방전을 펼쳤다. 그 후 제1사단은 25일에 미 제25사단 제24연대에게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제2군단으로 소속이 변경돼 함창으로 이동하였다. 제1사단은 8월 1일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할 때까지 제6사단과의 협조 하에 함창지구 전투를 수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7월 20일에 보은에 집결 중이던 수도사단이 전선조정 계획에 따라 안동으로 이동하였으며, 제2사단이 회인에서 황간지역으로 철수하였다가 7월 21일부로 해체되어 제16연대가 제8사단에, 제5연대와 제20연대가 제1사단에 각각 편입되었다.[10)]

이 기간 중 국군 제1군단은 약 90㎞의 공간을 포기하면서 17일이라는 시간을 획득하였다. 기간 중에 2개 사단의 미군이 추가로 전개하였고 국군도 전열을 정비하였다. 이로써 한·미 양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전투 경과

1) 미원 전투

(1) 국군 제1사단의 미원지구 전개

국군 제1사단(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7월 12일 03시경 제11연대의 신기리(新基里)-가장동(佳壯洞)선 철수를 계기로 음성지구 전투를 종결하고, 12시경에 사령부를 미원(米院)에 개설하였다. 제1사단장은 미원지구 방어를 위해 12일 20시경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미원 일대에서 적의 전진을 저지하려 한다.
② 제11연대는 괴산에서 13일 03시에 철수, 사단 좌전방 연대로서 추정리-이목리 선에서 청주로부터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라.
③ 제12연대는 괴산에서 12일 22시에 철수, 사단 중앙 연대로서 용곡리 일대에서 증평-용곡리-미원으로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라.
④ 제13연대는 사단 우전방 연대로서 거리고개 일대에서 괴산 및 증평에서 부흥리 경유, 미원으로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라. 12일 22시까지 부흥리 전방에 경계부대를 배치하고, 제11연대 및 제12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라.[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명령에 따라 제11연대는 괴산에서 철수하여 14일에 추정리-이목리 선에 병력을 배치하였으며, 제12연대도 7월 15일부터 병력을 용곡리 일대에 배치하였다.[12] 그리고 제11연대와 제12연대의 철수를 엄호하게 된 제13연대는 7월 12일 지경리(地境里)를 경유해 13일 01시경에 이르러 부흥리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였다.[13]

이 기간 동안 제1사단은 연대장 1명과 작전참모를 교체하는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지금까지 제11연대를 지휘하던 최경록 대령과 사단 작전참모인 김덕준 소령이 수도사단으로 전출되고, 그 대신 제11연대 부연대장인 권동찬 중령이 연

대장 직무대리로서 연대를 지휘하게 되었으며 제7사단 작전참모였던 문형태 중령이 사단 작전참모로 부임하였다. 이러한 인사이동은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한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이 현역복귀 시 주요 인사권을 자신이 직접 행사한다고 신성모 국방부장관과 약속한 것을 실행했기 때문이었다. 김석원 수도사단장은 최경록 대령과 김덕준 소령을 참모장과 작전참모로 각각 지명했다.

국군 제1사단이 미원일대에서 방어준비를 갖출 무렵, 미원 방면으로는 북한군 제15사단(사단장 박성철 소장) 제50연대(연대장 이을설 대좌)가 청안(증평 동쪽 5㎞)을 거쳐 보은을 목표로 진출 중에 있었다. 북한군 제15사단은 7월 11일에 군단으로부터 "제50보병연대는 청안과 미원리를 경유하여 보은으로, 사단 주력(제45·48연대)은 괴산-상주 방면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에 따라 북한군 제50연대는 7월 12일부터 보은 방면으로의 공격을 개시해 7월 13일에 마송리(음성 서남쪽 3㎞)를, 7월 15일 02시경에는 청안을 점령하고 미원리로 향했다.[14]

(2) 거리고개 공방전

7월 15일 청안을 점령한 북한군 제15사단 제50연대는 16일 05시경부터 19번 도로상의 국군 제13연대 제3대대를 삼면에서 포위 공격하였다. 당시 제13연대는 제3대대를 부흥리 일대에, 제2대대를 거리고개에, 제1대대를 연대예비로 쌍이리에 각각 배치하여 종심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15]

부흥리의 제3대대는 북한군을 맞아 3시간 동안 교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군의 포위망이 좁혀짐에 따라 08시경 분산 철수하였다. 이때 제3대대는 대대보급차량 1대와 81밀리 박격포 4문을 철수시키지 못하였다. 제3대대 진지를 점령한 북한군은 계속해서 거리고개의 제2대대 진지를 공격하였다.

국군 제13연대는 거리고개에서 전투가 가열되자 15시경에 예비인 제1대대를 거리고개 동쪽의 588고지에 배치하고, 부흥리에서 분산 철수한 제3대대 병력을 수습하여 거리고개 남서쪽의 425고지에 배치하였다. 이날(16일) 북한군은 21시경까지 공격을 계속하였지만 거리고개를 돌파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거리고개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는 동안 국군 제1사단은 제1군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제1군단 작전명령 제12호(1950. 7. 16부)'를 수령하였다.

① 군단은 일부 병력을 이동하여 대전으로 철수하는 연합군과 연결하고 계속 적의 남진을 저지하려 한다.
② 제1사단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의명, 국사봉-미동산간을 점령 방어하라.
③ 제2사단은 문의 북방에서 적의 진출을 저지하다가 야간 이동하여 군단 좌일선 부대로서 17일 06시까지 염티재-547고지 간을 점령 방어하라.
④ 수도사단은 현 선에서 철수하여 7월 17일 12시까지 보은에 집결하고 군단예비가 되어 차후 명령을 대기하라.
⑤ 제17연대는 육본 계획에 의거, 7월 16일 24시부로 배속해제와 동시 제2군단에 배속한다.[17]

미동산 정상에서 바라본 미원리

이와 같은 군단의 명령에 따라 제1사단장은 23시경에 접적이 없는 용곡리의 제12연대를 먼저 대안리로 철수시켜 살티재를 점령하게 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나머지 2개 연대를 국사봉(△587)-미동산(△558) 선으로 철수시키기로 하였다.

전날(16일) 거리고개 돌파에 실패한 북한군은 7월 17일 06시경 전차 3대와 장갑차 12대를 앞세우고 거리고개의 좌우측에 위치한 426고지와 588고지를 우회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군 제13연대는 제2대대의 1개 중대(제5중대)를 북한군의 전차와 장갑차를 저지하는 데 투입하고, 제2대대(-)와 제1대대에게 각각 426고지와 588고지를 고수하게 하였다.

거리고개 서쪽으로 우회한 북한군 주력은 470고지를 무혈점령한 후 426고지와 거리고개 방면으로 계속해서 진출하였으며, 동쪽으로 우회한 북한군은 588고지를 목표로 공격하였다. 426고지의 제2대대(-)와 588고지의 제1대대는 근접전을 전개한 끝에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제13연대장은 425고지의 제3대대에게 "470고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3대대는 계속되는 격전으로 병사들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받은 즉시 470고지로 진격했다. 이때 426고지의 제2대대(-)도 470고지 탈환공격에 가세해 북한군의 동측방을 압박하였다. 제3대대와 제2대대(-)의 협공을 받은 북한군은 마침내 이날 19시경 470고지를 포기하고 부흥리로 철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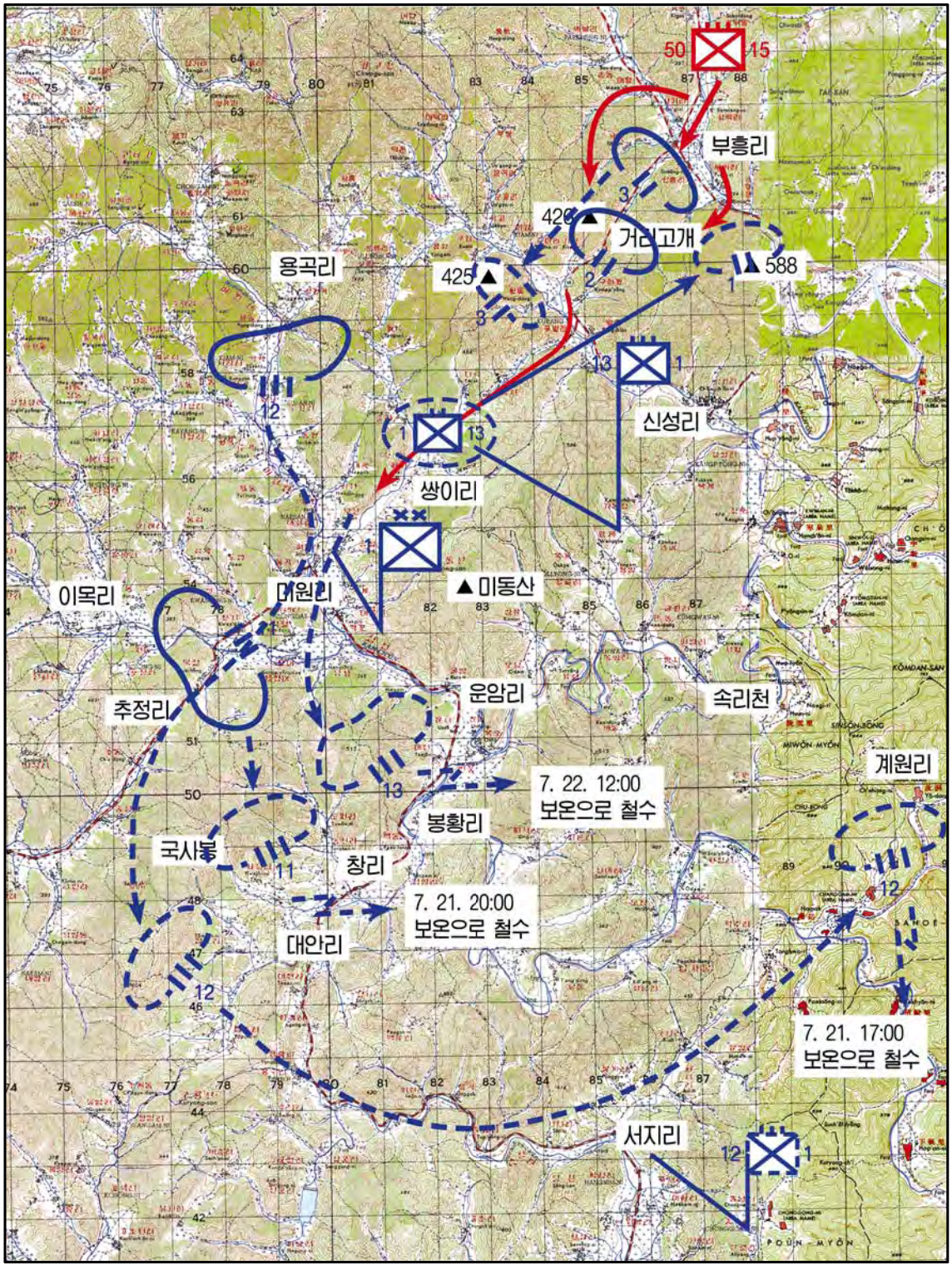
이 보다 앞서 17시경에는 북한군의 전차 및 장갑차 진출을 저지하도록 임무가 부여된 제2대대 제5중대가 13명으로 구성된 전차파괴 특공조를 투입해 거리고개로 진출하던 북한군 전차 2대를 파괴하기도 하였다.[18)]

부흥리로 물러선 북한군은 예비대를 투입해 부대를 재편한 후 20시경에 각종 포화를 동원하여 제13연대 정면으로 재차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 공격으로 제13연대는 진지를 고수하지 못하고 21시경 사단장의 철수 명령에 따라 운암리의 517고지로 철수하였다.

제12·13연대가 철수를 완료하자 제1사단장은 18일에 추정리의 제11연대를 창리로 철수시켜 국사봉 일대를 점령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1사단장은 19일에 접적이 없는 살티재의 제12연대를 10㎞ 동쪽에 위치한 계원리로 이동시켜 산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3> 미원지구 전투(1950. 7. 14~22)



소로로 침투하는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7월 19일 아침, 제1사단에는 군단에서 보낸 장갑차 2대가 도착하였다. 제1사단장은 이들 장갑차를 미원으로 전진시켜 이 지역에 출몰하는 북한군에게 위협사격을 가하게 하였다. 장갑차 2대가 미원교 부근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국군 제1사단 공병대대가 미원교 폭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장갑차는 전진을 멈추고 위장을 한 후 북한군 전차가 접근하기를 기다렸다.[19] 13시경 북한군 전차 3대가 미원교에 도착하자 공병대대는 교량을 폭파하고 장갑차는 북한군 전차에 집중 사격을 가하였다. 이 때 북한군 전차 1대가 괘도 절단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탈출하는 전차병 4명이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다.

(3) 화령장으로의 철수

7월 18일 국군 제1사단이 국사봉-517고지 선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한 후 21일까지 3일간 북한군은 정찰활동만 강화할 뿐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 이는 이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 공격부대의 임무가 일부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북한군 제15사단 제50연대는 7월 16일 사단으로부터 덕가산(△858) 고개를 통해 용유리(상주 서북방 22㎞) 방면으로 진격하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는 소백산 동쪽의 산간도로를 이용해 괴산-상주 방면으로 남하하는 북한군 제15사단의 주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20] 그리고 대신 청주 방면의 북한군 제2사단(사단장 최현 소장)이 국군 제1사단과 수도사단의 전투지경선을 따라 보은을 향해 동남진하도록 임무가 수정되었다. 본래 북한군 제2사단은 청주-옥천 방면으로 진출해 대전 후방지역을 차단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진출 속도가 늦어져 국군 제1군단을 고착 견제하는 임무로 전환되었다.[21] 즉 변경된 북한군 제2사단의 주임무는 북한군 주력이 대전 공격을 수행하는 동안 국군 제1사단과 수도사단이 대전 방면으로 부대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22]

그 동안 국군 제1사단은 미원리 일대에 대한 적정 탐지를 위해 수색정찰을 강화하였다. 그런데 7월 20일 제1사단장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7호[23]에 의거 군단장으로부터 "춘양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제1사단장은 제13연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의 엄호하에 제11·12연대를 보은에 집결시킨 후 차량으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단의 철수명령에 따라 7월 21일 제12연대가 17시에 계원리를 출발하여 20시에 보은에 도착하였으며, 제11연대가 20시에 창리를 출발하여 보은으로 철수하였다.

예하부대가 보은으로 철수하고 있을 때 제1사단은 군단으로부터 "즉각 화령장으로 이동하라"는 수정명령을 받게 되었다. 제1사단이 춘양으로 이동하지 않고 화령장으로 이동하게 된 까닭은 화령장에서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수도사단에서 제2군단으로 배속 전환된 제17연대가 함창으로 이동하던 중 화령장 부근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의 선두부대를 두 차례 공격하여 큰 타격을 입히자 그 주력이 제17연대 진지를 포격하면서 갈령 일대에 전개하였기 때문이었다. 육군본부에서는 북한군 제15사단(-)의 화령장 전개를 국군 제2군단 서측방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였으며, 나아가 이들이 국군과 미군을 분리하면서 상주-대구 방면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육군본부에서는 철수 중인 제1사단을 급히 화령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화령장으로의 이동 명령을 받은 제1사단은 철수 중인 제11연대를 화령장으로 직행하게 하고 제12연대를 다음날 아침에 이동하게 하였다. 제11연대는 행군을 계속한 끝에 22일 07시경에 화령장에 도착하여 오후에 화령장 동쪽 4㎞ 지점의 상곡리 일대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21일 20시경 보은에 도착한 제12연대는 22일 09시경에 보은을 출발, 17시경에 화령장 서쪽 5㎞ 지점의 평온리에 도착하여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한편 사단 엄호부대로서 517고지에 있던 제13연대는 22일 아침에 공격을 감행해 온 북한군과 교전을 펼치다가 사단의 철수 명령을 받고 12시경에 봉황리를 출발하여 보은으로 향하였다. 보은에 도착한 제13연대는 얼마간의 휴식을 취한 후 20시경에 보은을 출발하여 23일 08시경에 화령장 남쪽 2㎞ 지점의 봉촌리에 집결하였다.[24]

화령장에 이동을 완료한 제1사단은 제12연대를 좌, 제11연대를 우, 제13연대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예비로 하여 23일부터 화령장 일대에서 북한군 제15사단과 전투를 재개하게 되었다.

2) 고은리 부근 전투

(1) 국군 수도사단의 국사봉-태봉선 진지 점령

청주 방면의 국군 수도사단(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7월 13일 04시경부터 시작된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으로 5시간 만에 청주 미호천 남안의 주저항선을 포기하고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의 명령에 따라 미리 계획된 국사봉(△282)-고은리-성무봉(△431) 선으로 물러났다.[25] 수도사단은 14일 오전까지 계획된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방어태세에 들어갔는데, 이때 사단의 우일선으로 성무봉에 배치된 제18연대가 중앙의 제1연대와 간격을 줄이고 도로 통제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태봉(△210)으로 진지를 전환하였다. 이로써 수도사단은 좌로부터 제8연대를 249고지-282고지 간에, 제1연대를 282고지-가산리 간에, 제18연대를 210고지-370고지 간에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유관리에 사단예비로 제17연대(-2)가 집결대기하고 은행리에 사단지휘소가 위치하였다. 이날 282고지 북쪽 기슭에 배치된 제8연대에는 중대 규모의 진주경비대대가 증원되었다.[26] 이 무렵 수도사단 좌측에는 제2사단이 봉무산 일대에서, 그리고 우측에는 제1사단이 미원 일대에서 각각 방어준비를 하고 있었다.[27]

북한군 제2사단은 13일 자정 무렵 청주를 점령한 후 14일 아침에 정찰활동을 실시하고 오후부터 고은리와 부강리 방면으로 병력을 남하시켰다. 청주에서 고은리 방면으로 남하한 북한군은 14시경 선두부대가 4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남일초등학교(고은리 북쪽 1.2㎞) 전방 1㎞ 지점까지 접근하였다. 이에 수도사단의 105밀리 야포와 제1·8연대의 박격포가 포문을 열고, 남일초등학교 동쪽의 제1연대 경계진지에서도 기관총과 소총 사격을 가하였다. 북한군은 한동안 전차포와 야포로 대응사격을 하였지만 더 이상의 전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듯 도로 동쪽 1㎞지점의 190고지로 공격 방향을 전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의 공격이 190고지로 지향되자 210고지(190고지 남쪽 1㎞)의 제18연대 제2대대(대대장 장춘권 소령)가 제7중대(중대장 우덕수 중위)를 투입해 190고지를 선점하였다. 그러나 제7중대는 곧이어 진행된 북한군의 공격으로 고전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지켜보던 대대장이 철수명령을 하달함에 따라 원위치로 복귀하였다.[28] 190고지를 점령한 북한군은 계속해서 능선을 따라 병력을 기동시켜 431고지를 점령하였다. 제18연대는 431고지가 사단 방어진지를 감제하는 가장 높은 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동쪽 방어선에서 약 1㎞ 가량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이곳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제18연대장은 북한군이 431고지를 점령하자 그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370고지(431고지 남쪽 1㎞)의 제1대대를 투입해 431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 190고지에서 남서쪽 능선을 따라 진출한 북한군이 남일초등학교를 점령함으로써 국군 제1연대와 500m의 거리를 두고 대치하게 되었다.

한편 청주에서 부강 방향으로 남진하던 북한군 제2사단 예하부대는 15시경 수대리-고치리 선까지 진출하였다. 국사봉의 북쪽 기슭인 수대리에서 새터간 3㎞의 광정면을 담당하던 국군 제8연대는 주력인 제2대대(대대장 정승화 대위)가 진주경비대대를 독려하면서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 공격을 저지하였다.[29] 이후 전투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밤이 되면서 북한군의 공격이 재개돼 제2대대 진전에서는 수류탄전이 전개되었다. 제8연대 제2대대는 진전까지 밀려든 북한군을 가까스로 격퇴하였지만 이 전투과정에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렇듯 북한군이 14일 14시경부터 전차를 앞세우고 2개 방향에서 공격을 개시하자 수도사단장은 군단에 항공지원과 병력증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8시경 F-51전투기 1개 편대가 작전지역 상공에 나타나 북한군 집결지와 남하하는 북한군 병력을 집중 공격하여 그들을 분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피아식별을 잘못한 전투기들이 수도사단 제18연대 진지를 공격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30] 그리고 군단에서는 수도사단의 병력증원 요청을 받아들여 공주 대평리에서 미 제24사단과 임무를 교대하고 13일 보은에 도착해 대기 중이던 제17연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무심천과 남일면 190고지

제2대대(대대장 송호림 소령)를 사단에 배속 조치하였다. 제17연대 제2대대는 15일 08시에 차량 행군으로 두산리(고은리 동쪽 2.5㎞)에 도착하였다.

한편 14일 사단에서는 제1연대장과 사단참모장의 인사이동이 있었다. 7월 11일에 오근장에서 제1연대와 제9연대가 통합할 때 제1연대장이었던 이희권 중령이 연대장이 되고 제9연대장이었던 윤춘근 대령이 사단참모가 되었다. 그런데 통합 당시 제1연대보다 제9연대 병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인 제1연대장이 연대장직을 맡게 되면서 부대 내에 다소간의 알력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대를 지휘하기가 어려웠던 이희권 중령이 사단장에게 '연대장 교체'를 건의하고 사단장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윤춘근 대령이 제1연대장에 새로 부임하고, 이희권 중령은 군단사령부로 전출되었다.[31] 그리고 이날 사단장이 육군본부에 요청했던 최경록 대령과 김덕준 소령이 사단에 도착하여 각각 참모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과 작전참모로 보직되었다.[32]

(2) 효촌리-장암리 전투

7월 15일 06시부터 북한군 제2사단은 전날에 이어 제1연대와 제8연대 정면에 포격을 집중하면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 2개 대대 병력이 고은리 방면으로, 1개 대대 병력이 수대리에서 부강리 방면으로 남하하였다.

수도사단은 집중포격으로 남하하는 북한군을 일단 저지하였지만, 10시경 전열을 재정비한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렇듯 제일선에서 전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평소 방어보다 공격을 중시하던 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북한군의 허를 찌르는 공격을 계획하였다. 즉 보은에서 사단 방어지역으로 이동중인 제17연대 제2대대가 도착하면 사단예비로 있던 제17연대 제3대대와 더불어 장암리-효촌리 방면으로 공격을 감행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08시경 제2대대가 도착하자 사단장은 곧바로 제17연대(-)에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7연대장 김희준 중령은 제2대대장 송호림 소령과 제3대대장 오익경 소령을 불러 피아의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① 연대는 7월 15일 13시에 제1연대와 제8연대를 초월공격, 적을 효촌리-장암리 선으로 격퇴시키려 한다.
② 제2대대는 연대 우일선으로서 제1연대를 초월공격, 효촌리를 점령하라.
③ 제3대대는 연대 좌일선으로서 제8연대를 초월공격, 장암리를 점령하라.
④ 공격개시선은 282고지-고은리-210고지 선이다.[33]

효촌리를 목표로 한 제2대대는 13시에 105밀리 야포와 81밀리 박격포의 지원하에 제5중대(중대장 이일수 중위)를 좌, 제7중대(중대장 조경학 중위)를 우, 제6중대(중대장 곽성범 중위)를 예비로 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제2대대장은 정면으로 공격하는 제5중대와 예비인 제6중대를 직접 지휘하고, 우측으로 우회

기동하는 제7중대를 부대대장 이동호 대위가 지휘하도록 하였다.[34]

제5중대는 박격포 사격 지원하에 제1연대 진지인 170고지를 출발하여 전진하였으나 남일초등학교 앞 소하천 부근에서 북한군 전차 2대와 190고지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제2대대장은 제5중대로서는 북한군을 고착 견제만 하도록 하고 예비인 제6중대를 투입해 190고지를 점령하기로 결심하였다. 대대장이 직접 공격을 독려하는 가운데 제6중대는 빗발치는 기관총탄 속을 뚫고 15시경에 목표인 190고지를 점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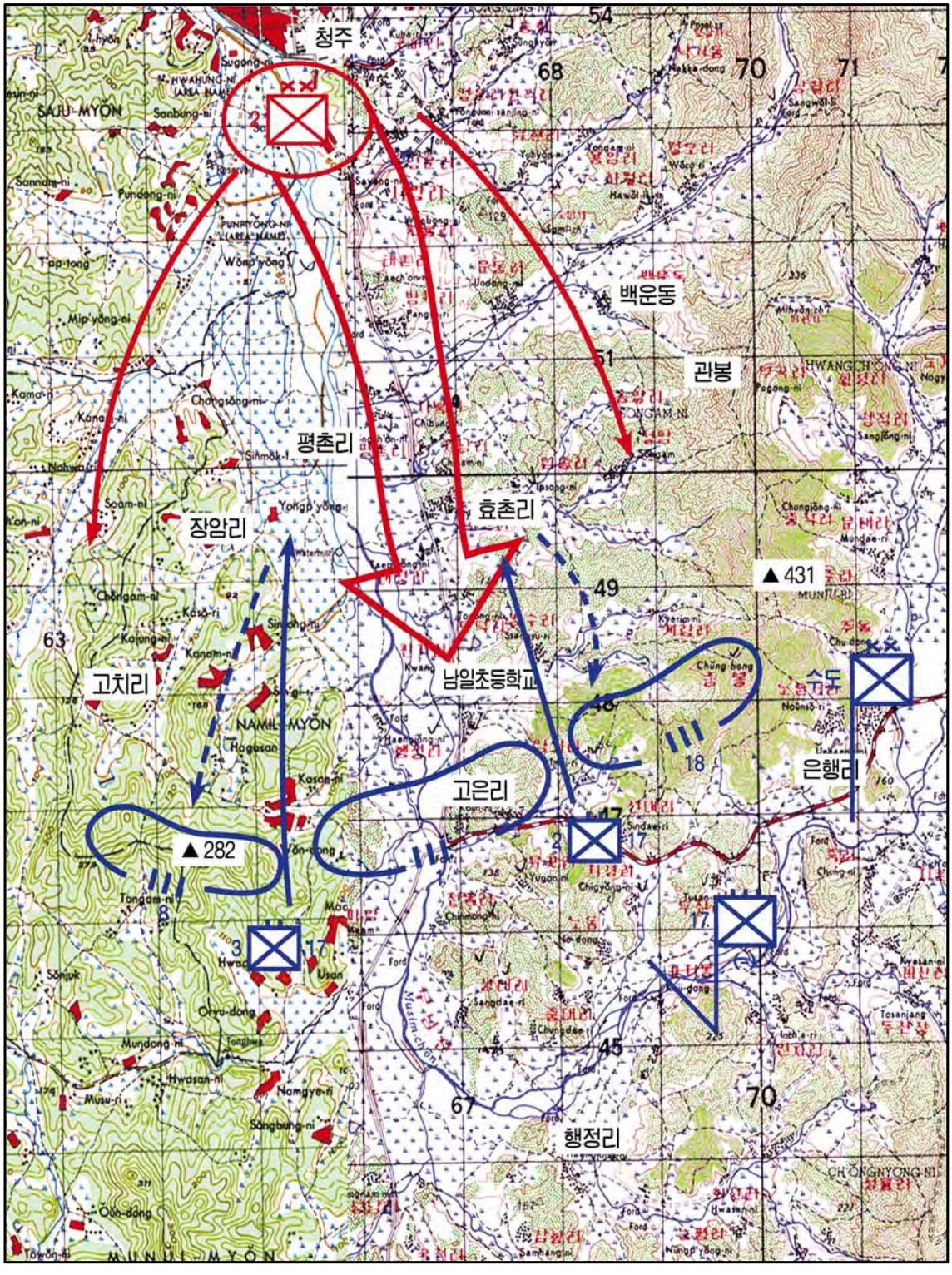
제6중대가 190고지를 점령하자 남일초등학교 일대에서 저항하던 북한군은 포위될 것을 우려해 효촌리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최초 목표 지점을 점령한 제2대대 제5중대와 제6중대는 효촌리 방향으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110고지에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였다. 제17연대 제2대대 제5·6중대가 남일초등학교 일대를 점령하자 제1연대가 이곳으로 진출하여 병력을 배치하였다.[35]

이렇듯 효촌리 정면으로의 공격이 시작될 무렵 우회 공격부대인 제2대대 제7중대도 13시경에 제18연대의 진지인 210고지를 출발해 152고지를 경유, 별다른 저항 없이 송암리의 130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제7중대가 진지를 강화하기도 전에 북한군이 역습을 감행해 왔다. 대대 주력의 진출이 저지당해 고립상태가 된 상황에서 중대가 북한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부대대장 이동호 대위는 방어구역을 할당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각 소대장들을 집합시켰다. 이때 포탄 1발이 떨어져 부대대장을 비롯해 3명의 소대장이 전사하였다. 지휘체제가 마비된 제7중대는 더 이상 130고지를 고수할 수가 없어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채 이 고지에서 철수하였다.[36]

한편 장암리를 공격 목표로 한 제17연대 제3대대는 국사봉 동쪽 능선에 전개한 후 13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대대가 공세를 취하자 북한군은 용평 방향으로 일시 철수하였다가 용평초등학교 부근에서 전차를 동원하여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이때 F-51전투기 2개 편대가 작전지역 상공에 나타나 북한군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투기들이 제3대대 진지까지 공격을 가해 대대보급소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4> 고은리 부근 전투(1950. 7. 14~16)



파괴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사단에서는 1개 대대만으로 용평리 일대를 고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서 19시경에 제3대대를 철수시켰다.[37]

(3) 고은리-국사봉 전투

북한군 제2사단장 최현 소장은 진천, 청주를 점령하고 대전 공격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청주 남쪽에서 국군 수도사단에 의해 전진이 막히자 예하부대들에게 "신속히 진격하라"고 독촉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공산군측 문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2사단장의 결정적이지 못한 행동 및 보병과 포병간 협조체제의 미비로 인하여, 7월 10일 진천을 점령한 제2사단에 대하여 적은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2사단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제105전차사단과 제3사단 예하부대들이 조치원을 점령하자, 적은 포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제2사단 정면에서 저항을 약화시켰고, 이에 따라 사단 예하부대들은 7월 13일부터 진격을 재개할 수 있었다. 사단은 7월 13일 오후 늦게 청주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곳에서 재차 적의 조직적인 저항을 받고 진격을 멈추었다."[38]

진격속도가 늦어지자 북한군 제2사단장은 예하부대들에게 수대리, 고은리, 성무봉 등 3개 방면으로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6일 10시경부터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백운동을 경유해 관봉(효촌리 동북쪽 3㎞)을 오른 다음 능선을 따라 성무봉(△431)으로 공격하였으며, 또 전차로 증강된 1개 대대가 고은리 방향으로 공격해 190고지를 점령하려 하였다. 그리고 장암리에서 국사봉 방면으로도 북한군의 공격이 있었다.

북한군의 성무봉 공격은 국군 제18연대 제1대대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지만 전차를 동반한 고은리 방면의 공격은 피아간에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북한군 공격제대는 전차 6대로 남일초등학교 부근까지 접근해 주변의 진지에 포격을 가하였으며, 수도사단도 남일초등학교 부근에 배치한 57밀리 대전차포 4문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는 한편 군단에 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13시경, 국군의 57밀리 대전차포와 북한군의 전차 간에 교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사단의 요청에 의해 출격한 F-51전투기 편대가 작전상공에 나타나 기관총 사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과 네이팜탄 공격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군 전차 1대가 파괴되고 나머지 5대는 북쪽으로 도주하였다.[39]

16시경, 전열을 재정비한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들은 먼저 190고지를 점령한 보병부대와 합세하여 170고지를 목표로 공격하였다. 이 무렵 170고지에는 제1연대와 190고지에서 철수한 제17연대 제2대대가 급편방어 중에 있었다. 북한군은 보병부대를 정면에 투입하고 전차를 고은삼거리 동쪽으로 우회시켜 170고지 배후를 공격하게 하였다. 전투정면에만 몰두하던 제1연대와 제17연대 제2대대는 전차의 170고지 후방공격으로 인해 지휘체제가 순식간에 붕괴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무질서하게 철수하였고, 그 결과 17시 30분경 170고지가 북한군에게 피탈되었다.[40] 이에 수도사단은 군단에 항공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이곳에서 물러난 제1연대 및 제17연대 병력을 수습하여 노동리-분터골고개-시루봉 선에서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 무렵 사단 좌측에 위치한 국사봉(△282)의 제8연대도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고전하고 있었다. 제8연대는 장암리-가산리 방향으로 공격하는 북한군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밀리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 후퇴하면 방어거점인 국사봉이 위태롭다고 판단한 제8연대장 이현진 중령은 북한군에게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하고 이날 아침에 새로 배속된 제17연대 제10중대를 북한군이 점령한 방어선 전방의 무명고지 점령에 투입하였다. 제17연대 제10중대는 이날 밤 공격을 개시해 지금까지 국군으로부터 야간공격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이곳의 북한군을 제압하고 고지를 탈환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10중대는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을 섬멸하였으며, 기관총 9정과 소총 67정을 노획하였다. 제10중대는 노획품을 연대로 후송한 후 진지를 확보하고 있다가 17일 02시경 연대의 철수명령에 따라 본대로 복귀하였다.[41]

(4) 보은으로의 철수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7월 16일 아침에 북한군이 전 전선에 걸쳐 공세를 취하자 전황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후속조치를 고려하였다. 이날 국군 제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단은 제1사단이 거리고개에서, 수도사단이 고은리에서, 제2사단이 봉무산에서 각각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지만, 금강 남안에서 방어하고 있던 군단 좌측방의 미 제24사단 제19연대가 대평리 일대에서 북한군 제3사단의 도하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유성 쪽으로 철수함에 따라 전선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제1군단장은 대전의 미 제24사단과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문의의 제2사단을 염티재-547고지 선으로 재배치하고, 수도사단을 보은으로 철수시켜 군단예비로 전환하며, 제17연대를 7월 16일 24시부로 제2군단에 배속한다는 내용의 '제1군단 작전명령 제12호(1950. 7. 16부)'를 예하 부대에 하달하였다.[42]

군단으로부터 철수명령을 받은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사단 철수계획을 수립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단 작전명령을 각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군단의 전선조정 계획에 의거, 당면한 적에게 타격을 가한 후 16일 19시에 철수하여 17일 12시까지 보은에 집결하려 한다.
② 제1연대는 사단 제1제대로서 미원 경유, 보은으로 철수하여 풍취리에 집결하라.
③ 제18연대는 사단 제2제대로서 미원 경유, 보은으로 철수하여 이평리에 집결하라.
④ 제17연대(-)는 사단주력의 철수를 엄호한 다음 제3제대로서 보은으로 철수하여 제2군단에 배속한다. 배속해제 시간은 1950년 7월 16일 24시이다.
⑤ 제8연대는 현 선에서 적에게 타격을 가하고 의명, 보은으로 철수하여 교암리에 집결하라.
⑥ 사단사령부 및 직할부대는 제1제대로서 미원 경유, 보은으로 철수하라.
⑦ 포병중대는 제1 및 제2제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의명, 군단으로 복귀하라.
⑧ 각 제대는 철수간 기도비닉에 유의하라.[43]

사단의 철수명령에 따라 제1연대는 항공지원과 포병중대의 엄호사격 하에 16일 19시경부터 접적 이탈하여 미원 방면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그 뒤를 이어 제2제대인 제18연대가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 철수는 북한군의 강압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혼잡하였다. 이에 따라 지휘통제하에 있는 병력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은리-미원-보은으로 철수하였지만, 분산 또는 낙오된 병력은 고은리-회인-보은 통로를 이용해 철수하였다. 엄호부대인 제17연대(-)는 분터골고개 일대에서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다가 사단주력이 철수한 후 야간 이동으로 17일 10시경 보은에 도착하였다.[44]

한편 국사봉의 제8연대는 제1연대와 제18연대와는 달리 사단으로부터 철수명령을 받지 못해 17일 04시까지 진지를 계속 고수하다가 연락병을 통해 전달된 철수명령에 따라 국사봉-작두산(△430)-문의-회인을 거쳐 17일 오후에 집결지인 교암초등학교(보은 서쪽 3㎞)에 도착하였다.[45]

이로써 수도사단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고은리 부근 전투를 끝내고 17일 오후 제8연대가 최종적으로 보은에 집결함으로써 군단의 전선조정 계획에 따른 철수를 완료하게 되었다. 보은에 집결한 수도사단의 병력은 48% 수준이었는데, 이는 같은 날의 제1사단 57%, 제2사단 55%보다 낮은 수준이었다.[46] 수도사단은 보은에서 이틀간 부대정비를 실시한 후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제1연대가 함창으로, 제18연대가 예천으로, 그리고 제8연대와 사단사령부가 안동으로 각각 이동하였다.[47]

3) 화령장 전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국군 제17연대의 화령장 이동과 상달리 전투

화령장은 경상북도 상주군 화서면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보은과 괴산에서 상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다. 북한군 제2군단은 음성-괴산 방면으로 남하한 제15사단을 상주 점령을 위해 이곳에 투입하였다. 제45・제48・제50연대로 편성된 북한군 제15사단은 7월 10일 음성을 점령한 후 제50연대를 청안-미원을 경유해 보은으로 진출시키고, 그 주력(제45・제48연대)을 괴산-상주 방면으로 남하시켰다. 북한군 제15사단 주력은 7월 15일 12시경 괴산을 점령한 후, 16일 04시경에 괴산 동남방 22㎞ 지점의 삼송리까지 진출하였다. 이곳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은 유엔 공군의 폭격으로 진출이 늦어진 포병의 도착을 기다리면서 진지를 구

축하였다. 같은 날 북한군 제15사단은 미원 방면으로 진출한 제50연대에게 덕가산(괴산 동남방 16㎞)을 경유, 용유리(상주 서북방 22㎞)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50연대는 미원에서 국군 제1사단과의 접촉을 피한 채 16일 20시부터 상주 방면으로 우회 진출을 기도하였다.[48]

이 무렵 육군본부에서는 국군 제6사단이 담당하고 있는 문경지역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47호(1950. 7. 16, 24:00 부)'를 제1군단에 하달하였다.

① 가. 적 주력의 일부는 문경에 침입, 계속 남하를 기도 중임.
나. 제6사단은 이 적에 대하여 맹렬한 반격을 가하고 있음.
② 군은 일부 병력을 이동하여 이 전투를 지원하려 함.
③ 제1군단장은 예하 사단 중 보병 제17연대를 명조(明朝) 06시까지 함창에 도착시켜 제2군단장은 전기(前記)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군예비대로 사용하라.
④ 연락 및 보고는 유선과 전령을 병용하라.[49]

이 명령에 따라 국군 제17연대는 제1군단에서 제2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됨과 아울러 17일 06시까지 함창에 도착해야만 했다. 그러나 16일 현재, 보은에 집결한 제17연대의 병력은 1개 대대 뿐이었으며, 고은리 부근 전투에 참가한 2개 대대는 아직 보은으로 철수하지 못한 상태였다. 제17연대장은 이러한 사실을 제1군단장에게 보고하고, 우선 보은에 집결한 제1대대(대대장 이관수 소령)를 함창으로 출발시키는 한편 제2대대(대대장 송호림 소령)와 제3대대(대대장 오익경 소령)가 집결하는 즉시 후속하도록 조치하였다.[50]

제17연대 제1대대는 17일 04시경에 병력을 차량화하여 함창으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제1대대의 차량행렬이 관기리를 지날 무렵, 제1군단 작전참모 김종갑 대령이 뒤쫓아 와 차량행렬을 멈추게 하고 "적이 괴산에서 갈령으로 진출했으니 조심해서 행군하라"는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07시경 차량행렬이 화령장을 지날 무렵에는 주민 한명이 행군 대열을 제지하면서 "북한군이 상주 쪽으로 내려갔다"고 말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괴산-화령장-상주를 연결하는 977번 도로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던 제1대대장은 처음에는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으나 그 주민이 중달리에 사는 엄봉림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지금 화서지서에 신고하러 가는 중”이라고 함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엄봉림과 함께 화서지서로 간 제1대대장은 지서장으로부터 “어젯밤에 북한군이 상주쪽으로 내려갔으며, 군・경・청년단으로 구성된 정보팀이 현재 북한군의 이동로를 감시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나아가 이곳에서는 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정보대가 14일부터 정찰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군의 이동사항이 이미 상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51]

정황상 북한군의 출현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국군 제17연대 제1대대장은 부대를 화령초등학교에 집결시키고, 지역 상황을 연대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적정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단장 김기영의 안내를 받아 상곡리로 향했다.

봉황산(△740)에서 바라본 화령마을

대대장 일행이 상곡리 일대를 정찰할 무렵 상주 방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북한군 병사 1명을 상곡교에서 생포하였다. 이 병사는 지난 밤 상주 방면으로 진출한 북한군 선발대대의 전령으로 연대에 보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신문을 지니고 있었다. "대대는 지난 밤 소수의 국방군으로부터 사격을 받았으나 그들을 물리치고 17일 08시에 상주를 바라볼 수 있는 273고지를 점령하였음." 또한 전령을 신문한 결과, 소속이 상주 점령을 임무로 하는 북한군 제15사단 제48연대(연대장 김치규 대좌)로 연대 주력이 이날 오후에 후속하여 금곡리에서 휴식할 예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국군 제17연대 제1대대장은 상주로 향한 북한군을 뒤쫓아 가지 않고 북한군의 휴식 예정지인 이곳에 매복하여 그들의 주력을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대대장은 이 결심을 차후에 연대에 보고하기로 하고, 우선 12시경에 예하 중대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52]

① 적은 아 후방지대로 침투할 목적으로 이미 그 일부를 상주 방면으로 침투시킨 데 이어 후속부대를 계속 남하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② 대대는 7월 17일 14시 343고지를 점령하여 화령장으로 침입하려는 적을 저지 격퇴하려 한다.
③ 제1중대는 343고지 동측 남반부를 점령하여 남하하는 적을 격멸하라.
④ 제3중대는 343고지 동측 북반부를 점령하여 남하하는 적을 격멸하라.
⑤ 제2중대는 대대의 예비로써 343고지에 집결하고 역습에 투입될 준비를 갖추라.
⑥ 제4중대는 343고지에서 소총중대를 사격 지원하라.
⑦ 협조지시
  ㉮ 각 중대는 3부 능선에 진지를 편성하고 위장을 철저히 하라.
  ㉯ 진지 진입 이후에는 진내에서의 이동을 금한다.
⑧ 보급 및 행정
  ㉮ 개인소지품은 집결지에서 회수 보관한다.
  ㉯ 탄약은 집결지에서 지급한다.
⑨ 지휘 및 통신
  ㉮ 통신은 유선으로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사격개시는 적색 오성신호탄으로 한다.
㈐ 대대장은 343고지에 위치한다.”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각 중대는 14시경 진지편성을 완료하고 북한군이 접근하기를 기다렸다.[53] 16시경에 이르자 예상한 대로 갈령계곡으로부터 북한군의 행군대열이 나타났다. 이들은 16일 삼송리에 도달해 17일 오후 전투행동을 개시한 북한군 제15사단 주력의 선두부대였다.[54] 도보부대와 더불어 40여대의 우마차에 각종 포와 탄약을 실고 남하한 북한군은 국군의 매복지역 정면인 하송리의 송계초등학교(현 화령초교 송계분교)와 상곡리 일대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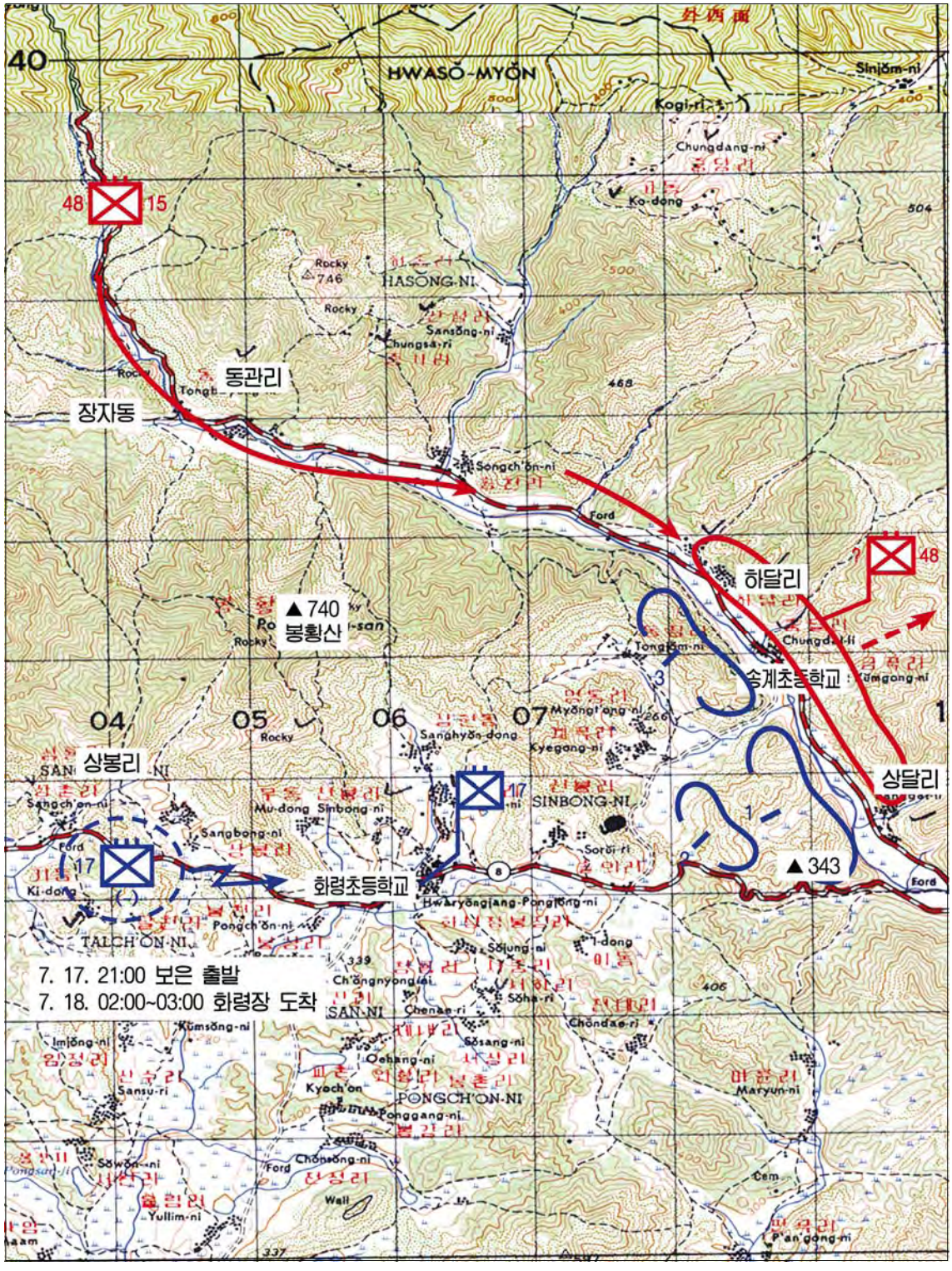
북한군의 동태를 관찰하던 제1대대장은 81밀리 및 60밀리 박격포와 기관총 등 공용화기의 탄약운반이 완료되는 대로 공격을 개시하기로 결심하였다. 19시 30분경 제1대대장은 북한군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저녁 식사를 위해 집결지에 모여들기 시작하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사격명령을 하달하였다. 대대장의 사격명령에 따라 400여 정의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었고, 박격포와 기관총도 쉴 사이 없이 사격을 가하였다.

국군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은 북한군은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가 쓰러졌으며, 40여 필의 말과 소들이 포성에 놀라 날뛰으로써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제1대대가 1시간 가량 북한군을 섬멸하는 사이에 제17연대장 김희준 중령이 전투현장에 도착하였다.[55] 제1대대장은 연대장에게 “격멸전을 전개하여 적을 완전히 섬멸하겠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연대장은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격멸전은 내일 아침 본대가 도착한 후에 하고 우선은 적이 야음을 이용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장은 예비인 제2중대를 제3중대 북쪽으로 우회시켜 977번 도로를 차단, 북한군의 북상을 막게 하고 제1중대와 제3중대를 저지대로 이동시켜 북한군의 퇴각을 견제하게 하였다.

한편 제17연대의 주력이 18일 02시~03시 사이에 화령장에 도착하자 연대장 김희준 중령은 제3대대를 상주방면으로 진출한 북한군을 추격하는 데 투입하고, 제2대대를 연대 예비로 화령초등학교에 집결 대기시켰다.[5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5> 상달리 전투(1950. 7. 17)



제3대대는 아침 일찍부터 행동을 개시해 07시경 갈방리(화령장 동남쪽 12㎞)까지 진출하였다. 이곳에서 제3대대는 상주 방면에서 북상하는 미 제25사단 예하의 포병대대를 만났다. 그들은 "상주 서쪽을 지날 때 북한군으로부터 기습사격을 받았으나 마침 그곳에 출동한 국군 제6사단 예하의 보병 1개 대대가 북한군을 격퇴하였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곧 화령장으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제3대대장은 이러한 상황을 연대장에게 무전으로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제17연대장은 상주 방면으로의 병력 투입이 불필요함을 깨닫고 제3대대에게 복귀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대장은 제3대대장에게 585고지(상달리 북쪽 1㎞)를 공격하여 점령한 후, 510고지(585고지 북서쪽 2㎞)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즉각 행군방향을 되돌려 상곡리로 향했다.[57]

제3대대가 화령장으로 복귀하는 사이, 제1대대는 이미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제1대대는 제2중대가 중달리 부근에서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가운데 제1·제3중대가 마을과 감밭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소탕전을 전개하였다.[58] 제1대대는 17~18일 양일간에 걸쳐 북한군 250여 명을 사살하고 30여 명을 생포하였으며, 박격포 20문, 45밀리 대전차포 7문, 소총 1,200여정 등을 노획하였다. 그 후 제1대대는 제3대대가 585고지를 점령하자 연대예비가 되어 화령초등학교에 집결하였다.[5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국군 제17연대의 동관리 전투

7월 18일 10시경 제17연대장은 상곡리의 격전지를 돌아본 후, 북한군의 후속부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연대 정보주임 유창훈 대위에게 갈령 부근의 적정을 수집하도록 지시하였다. 명령을 받고 갈령 부근으로 향한 연대수색대는 12시 30분경 자전거를 타고 갈령을 넘어오는 북한군 병사 2명을 생포하였다. 이들은 북한군 제15사단장이 제48연대장에게 보내는 전령으로서 중요한 문서 2통을 소지하고 있었다. 1통은 북한군 제15사단장이 제48연대장에게 중간보고를 독촉하는 내용이었으며, 또 다른 1통은 작전명령서로서 후속하는 제45연대(연대장 이철

룡 대좌)와 함께 김천방면으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라는 내용이었다.[60]

이 노획문서를 통하여 제17연대장은 북한군 제15사단장이 아직 제48연대가 기습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조만간 북한군의 후속부대가 이곳을 통과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제17연대장은 화령초등학교에 대기 중이던 제2대대를 봉황산 북쪽 기슭으로 진출시켜 매복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하였다.[61] 연대장은 15시경 제2대대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포로의 진술에 따르면, 적 제15사단 제45연대가 동 제48연대에 이어 이 지역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② 제2대대는 7월 18일 20시까지 봉황산 북사면을 점령하고 이 적을 격멸하라.
③ 각 화기의 탄약 기본 휴대량은 집결지에서 지급하고 추가소요분은 요청에 의거 추진 보급한다.
④ 불필요한 휴대품은 집결지에 남겨두라.
⑤ 통신수단은 유선으로 하고, 상황이 전개되면 무선 사용을 허용한다.[62]

당시 제2대대는 대대장 송호림 소령이 고은리 전투 이후 철수과정에서 차량 전복사고로 인해 요양 중이었고, 부대대장 이동호 대위도 고은리 전투에서 전사하였기 때문에 대대 작전장교인 이형주 중위가 대대를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동명령을 받게 되자, 요양 중이던 제2대대장은 참모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차량에 올라 지형정찰을 실시한 후 지역 청년단원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동관리-하송리 간의 3㎞ 어간에 진지를 선정하였다.[63]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2대대 병력은 화령장에서 봉황산 동측 능선을 넘어 동관리로 진출하여 20시경부터 좌로부터 제7중대, 제6중대, 제5중대 순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중화기 중대의 기관총 소대는 중대간의 간격을 메우도록 하였고, 81밀리 박격포는 갈령 쪽에 사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대관측소는 대대 전 지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봉황산에 설치하였다.

다음날인 7월 19일 제2대대장은 전날 늦게 진지 점령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06시경에 각 중대장들에게 “전투준비태세를 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지역 주민들을 소개하여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중대장들은 경계병의 위치, 개인호의 구축상태, 공용화기 위치, 탄약 및 수류탄의 보유량, 위장상태, 중대간의 교차사격의 중첩도 및 사각지대의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동관리와 송원 마을을 수색하여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제2대대가 매복한 지역에서는 19일 오후 무렵 북한군의 보급 우마차 10여 대를 격파한 것 이외에 특별한 적정이 없었다.[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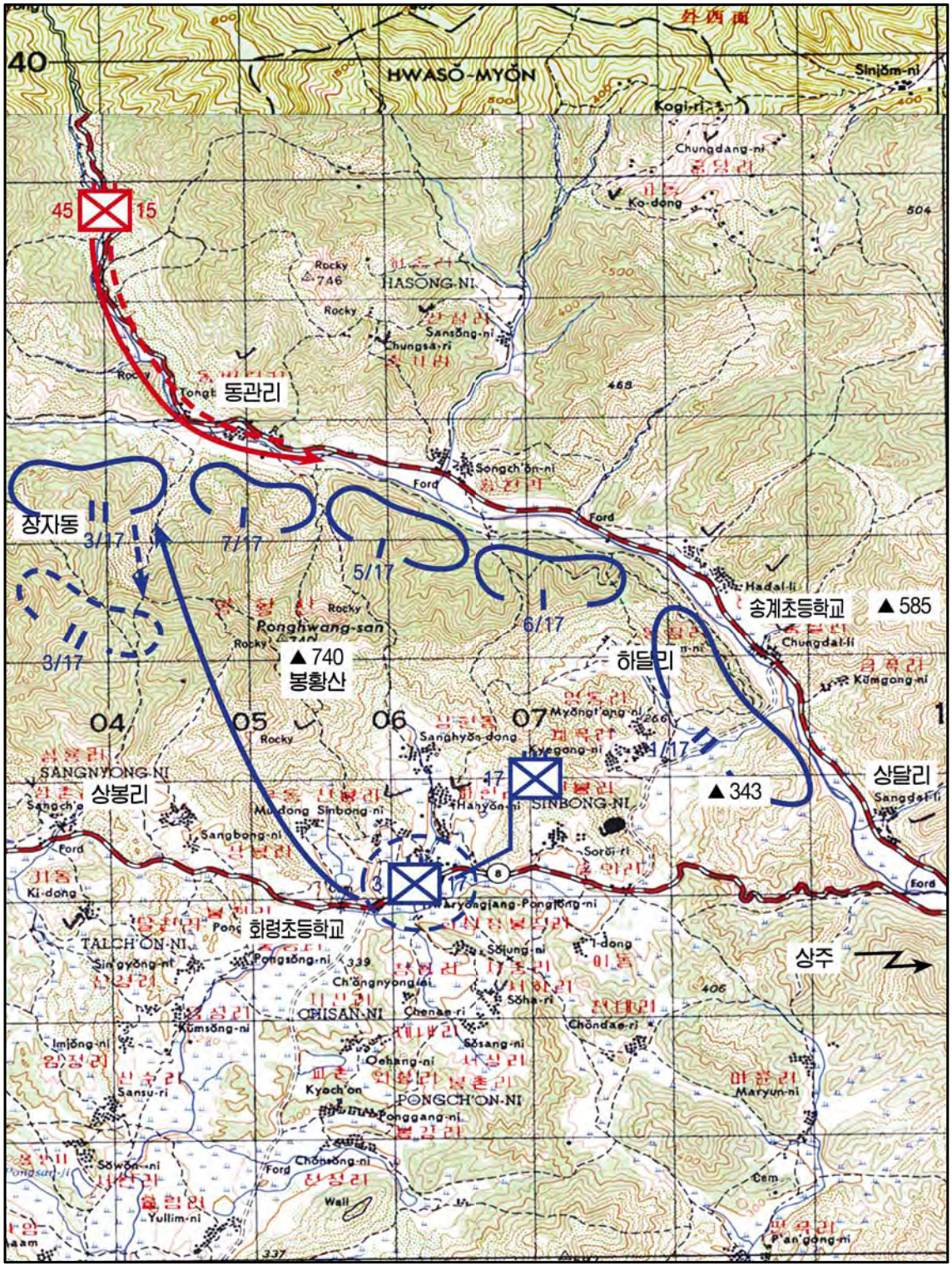
한편 이날 18시경 제17연대를 방문한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제17연대는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5호(1950. 7. 19)에 따라 제1군단의 지휘 하에 화령장으로 침입하는 적을 계속 저지 격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7연대장은 이 사실을 각 대대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예비인 제3대대를 제2대대 좌측인 장자동으로 이동시켜 방어력을 강화하였다.[65]

7월 20일, 제17연대는 진지공사와 탄약보충 등을 실시하면서 북한군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날 저녁까지도 북한군의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이에 제17연대장은 노획문서가 허위이거나 아니면 국군의 배치상황을 알고 북한군이 진로를 바꾸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대장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21일 새벽녘 별안간 봉황산 너머에서 총성과 폭음이 들려왔다. 연대장은 즉시 참모들을 소집하고 통신장교 김기주 대위에게 전방 상황을 확인하게 하였다. 김기주 대위는 "제3대대 지역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제2대대는 유무선이 불통"이라고 보고 하였다. 이로써 제17연대장은 제2대대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2대대가 교전을 시작한 것은 대대장이 연대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한 지 30여분이 지난 05시 30분경이었다. 교전에 앞서 대대본부에는 제7중대로부터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부대가 진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가 전해졌다. 이에 대대장은 "아군일지도 모르니 피아 식별을 철저히 하고 변동되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라. 그리고 나의 명령 없이는 절대로 사격하지 말라"고 지시한 다음 다른 중대에도 현 상황을 알려주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다.[6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6> 동관리 전투(1950. 7. 18~22)



제2대대장 송호림 소령은 예하 중대로부터 “배낭 같은 것을 등에 메고 있다”, “총에 송곳 같은 것을 꽂았다”, “바퀴 달린 기관총을 끌고 가고 있다”는 등의 보고를 받고서 이들이 북한군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연대장에게 보고하여 그의 조치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때가 늦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대대장은 앞으로 전개될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감수하기로 작정하고 통신병에게 연대와의 유무선망을 차단하게 한 다음 사격개시 명령을 하달하였다.[67]

대대장의 사격명령에 따라 적색 오성신호탄 3발이 발사되면서 대대의 모든 화기가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08시경 안개가 걷히어 시야가 확보되자 도로변과 논바닥에는 시체와 장비가 즐비하고, 사방으로 도주하는 자들이 목격되었는데 이들은 분명 북한군이었다. 제2대대장은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대 관측소에서 빨간 수기를 이용해 북한군의 도주 방향을 지시하면서 부대를 지휘하였다. 이 무렵 연대장 김희준 중령이 참모들과 함께 대대관측소에 도착해 이 광경을 목격하였다. 당시 연대장과 함께 온 미 고문관은 “30년 군 생활 동안 이처럼 통쾌한 전투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크게 감탄하였다.[68]

제2대대는 14시경에 소탕작전을 종결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2대대는 북한군 356명을 사살하고 26명을 생포하였으며, 박격포 16문, 대전차포 2문, 기관총 53정, 소총 186정, 무전기 1대, 전화기 1대 등을 노획하였다. 반면에 제2대대는 전사 4명, 부상 30명의 피해를 입었다.[69] 제2대대는 노획한 장비 가운데 소총, 기관총, 박격포 등을 2.5톤 차량 3대에 적재하여 연대본부로 보내고, 탄약과 기타 군수품은 폐기 또는 소각처리 하였다. 전장 정리를 끝낼 무렵인 15시경에 갈령너머로부터 북한군의 포탄이 날아오자, 제2대대는 북한군이 역습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봉황산 주능선 우측의 고지대로 이동하여 진지를 편성하였다.

북한군 제15사단은 예하인 제45연대가 동관리 일대에서 기습을 받고 큰 타격을 입자 15시경부터 동관리의 제17연대 제2대대 지역에 포격을 가하더니 17시경에는 제3대대 지역에도 무차별 포격을 가하였다. 대포병화기가 없던 제17연대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북한군의 포격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포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점차 증강되면서 손실이 커지자 제3대대장은 대대 병력을 582고지 후사면으로 이동시켜 호를 파고 들어가 있게 하였다.

제17연대장은 북한군이 전면공세를 취할 경우 이를 막아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군단사령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군단에서는 제1사단이 화령장에 투입될 것임을 알려왔다. 이와 더불어 제17연대 미 고문관도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지휘계통을 통해 얻은 미군 투입 계획을 연대장에게 전하였다. 그것은 미 제25사단 제24연대의 선발대 1개 대대가 21일 20시경 평온리 북쪽에 투입된다는 것이었다.[70] 미고문관의 말대로 이날(21일) 저녁에 상주 정면의 방어 임무를 부여받은 미 제25사단 제24연대[71] 제2대대가 상주에서 화령장으로 북상하였다. 미군이 투입됨에 따라 국군 제17연대 제3대대는 봉황산 능선의 좌측 고지대로 진지를 이동하였다.

7월 22일, 북한군 제15사단은 미명부터 동관리 계곡을 포함한 582고지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였다. 이에 미 제24연대를 지원하는 155밀리 포병중대도 미 제24연대 제2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582고지 북방을 향하여 포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전개된 포격전으로 582고지-봉황산 일대는 지축이 진동하였으며 피아간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포격전 과정에서 국군 제17연대 제3대대는 부대대장 강은덕 대위를 비롯해 장교 3명과 사병 16명이 전사하고, 대대장 오익경 소령을 비롯해 2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에 제17연대장은 제3대대를 화령초등학교로 철수시키고 대신 제1대대를 투입하였다. 그런데 포격전 과정에서는 국군보다 미군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였다. 평온리에서 582고지로 전진하던 미 제24연대 제2대대는 북한군의 포격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평온리로 분산 철수하였는데, 이들은 전쟁공포증에 걸린 듯 공용화기는 물론 개인화기마저 내팽개치고 무질서하게 철수하였다.[72]

이렇듯 국군과 미군이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철수하는 상황에 직면할 무렵, 국군 제1사단(사단장 백선엽 대령)이 화령장에 도착해 제17연대의 양 측방에서 공격 준비를 갖추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국군 제1사단의 갈령 부근 전투

① 제1사단의 화령장 전개와 하송리 전투

1950년 7월 20일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7호에 의거 춘양으로 이동하기 위해 보은에 집결한 국군 제1사단은 화령장에서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한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화령장으로 이동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제11연대가 22일 07시에 화령장에 도착하였고,[73] 제12연대가 17시까지 평온리에, 제13연대가 23일 08시까지 화령장 남쪽 2㎞ 지점의 봉촌리에 집결하였다.

7월 22일 오전 화령장으로 이동한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미 제24연대장 화이트 대령으로부터 "투입된 부대를 철수시켜 재편성할 계획이니 엄호해 달라"는

괴산과 상주를 연결하는 갈령고개, 좌측으로 내려가면 동관리와 화령장으로 연결된다.

요청을 받았다. 제1사단장은 화령장에 집결한 제11연대의 1개 대대를 미 포병대 엄호를 위해 송계초등학교 부근에 배치하고, 나머지 병력을 상곡리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이동 중인 제12연대의 선두부대가 도착하는 대로 장자동 계곡에 투입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15시경에는 제11연대 제1대대가 송계초등학교 부근에 배치되었고 제12연대 제1대대가 582고지에 투입되었다.

제1사단장은 병력 전개가 일단락되자 제17연대로부터 적정을 확인한 후 갈령고개 북방으로 북한군을 격퇴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봉황산의 제17연대 엄호하에 제12연대를 좌, 제11연대를 우, 제13연대를 예비로 하여 23일 09시에 공격, 묘막리-갈령-갈동 선을 점령 확보하려 한다.
② 공격간 미 포병대(155밀리 1개 중대)가 사단을 지원한다.
③ 제11연대(배속 : 제13연대 제3대대)는 사단의 우일선 제대로서 23일 09시 공격, 871고지-673고지 선을 점령 확보하라.
④ 제12연대는 사단의 좌일선 제대로서 23일 09시에 공격, 형제봉을 점령 확보하라.
⑤ 제13연대는 사단예비로서 봉촌리에 집결대기하고, 제3대대를 이동과 동시에 제11연대에 배속하라.
⑥ 사단지휘소는 화령장(화서지서)에 위치한다.[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대대를 송계초등학교 일대에 배치하고 연대 주력을 상곡리에 대기시키고 있던 제11연대는 사단공격명령이 하달되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대 공격계획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제2대대를 좌, 제3대대를 중앙, 제13연대 제3대대를 우, 제1대대를 예비로 하여 7월 23일 09시에 공격, 746고지-650고지-530고지 선을 확보하고, 의명 871고지-673고지 선을 점령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연대 좌일선 제대로서 23일 09시에 공격, 746고지를 점령하고, 의명 871고지를 점령하라.
③ 제3대대는 연대 중앙제대로서 23일 09시에 공격, 650고지를 점령하고, 의명 791고지를 점령하라.
④ 제13연대 제3대대는 연대 우일선 제대로서 공격, 530고지를 점령하고, 의명 673고지를 점령하라.
⑤ 제1대대는 연대예비로 제2대대 및 제3대대의 전진을 지원하라.[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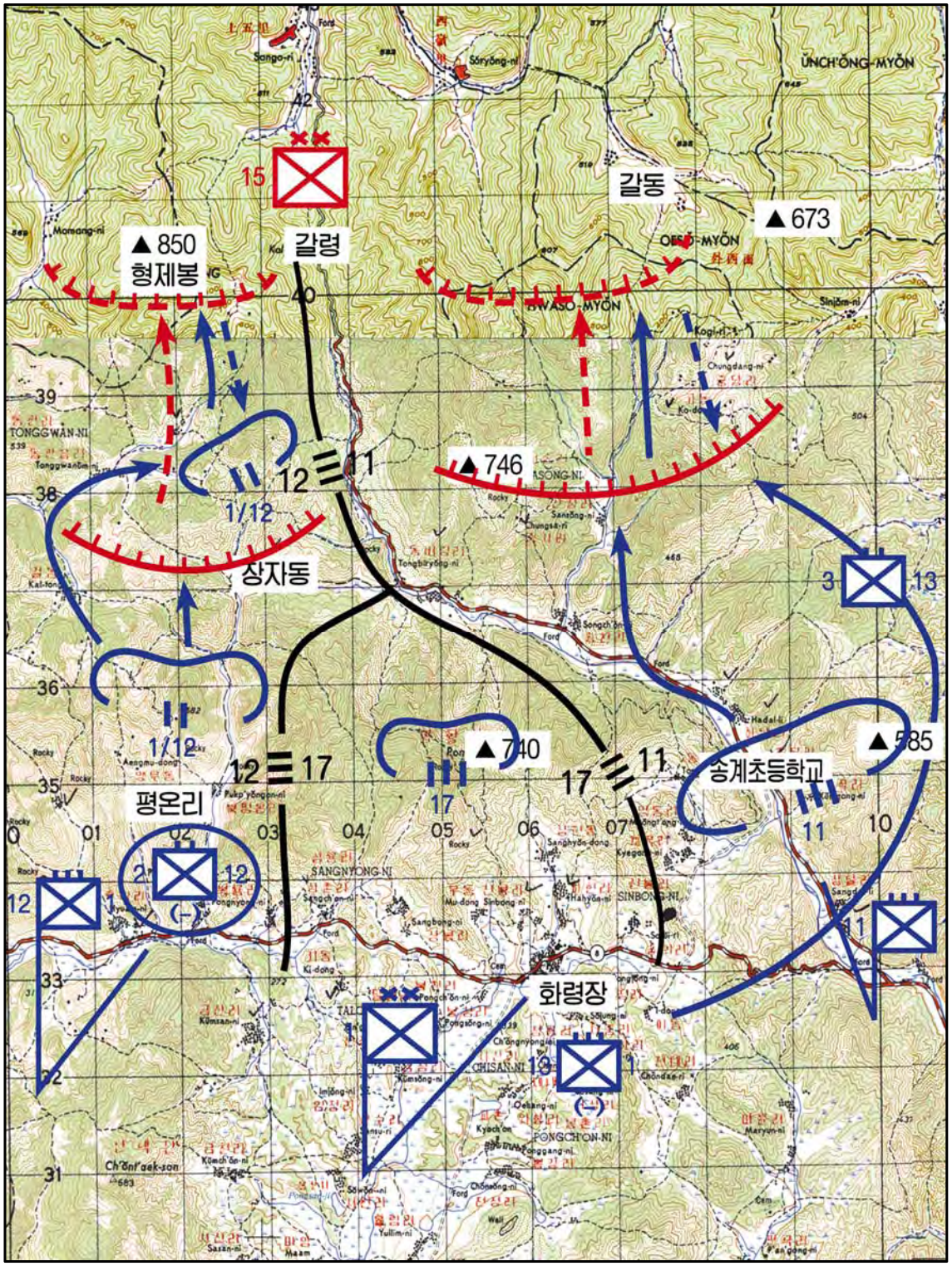
7월 23일 09시로 계획된 공격을 준비하던 제11연대는 08시경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585고지에 나타나자 연대예비인 제2대대를 투입해 이들을 격퇴하게 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박격포와 기관총 사격을 가하면서 국군의 공격에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공격 준비 중에 있는 제3대대와 제1대대를 585고지 남동쪽과 남서쪽에서 각각 공격하게 하고, 사단에 야포사격 지원을 요청하였다. 얼마 후 사단 포병중대와 미 포병대의 야포 지원사격하에 제3대대와 제1대대가 양측방으로 공격을 가하자 585고지의 북한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510고지-650고지 방향으로 물러섰다. 제3대대는 북한군을 계속 추격해 이날 오후 650고지를 점령하였다. 계획된 진출선인 650고지를 점령한 제3대대는 일단 전진을 멈춘 채 좌측부대인 제2대대의 746고지 공격을 지켜보았다.

연대의 좌일선 제대인 제11연대 제2대대는 제17연대 제2대대의 지원 하에 09시에 공격을 개시, 순조롭게 전진하여 12시경에 370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날의 목표 지점인 746고지에 대한 제2대대의 공격은 일몰시까지도 북한군이 완강하게 저항함으로써 7부 능선에서 공격이 지연되었다. 그리고 연대의 우일선 제대인 제13연대 제3대대는 봉촌리에 집결한 후 23일 08시에 작전지역으로 출발, 17시경에 예의리에 도착하여 야간공격을 감행해 23시경 이날의 목표 지점인 530고지를 점령하였다.

전날의 공격에 이어 24일에도 제11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3개 대대가 04시경부터 일제히 공격을 재개하였다. 좌측의 제2대대는 특공대를 편성하여 바위틈에서 저항하는 북한군을 수류탄 공격으로 제압한 후 746고지를 점령한 후 능선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7> 갈령 부근 전투(1950. 7. 23~25)



따라 전진을 계속해 23시경에 최종목표인 871고지를 점령하였다. 중앙의 제3대대도 04시경에 공격을 재개하여 23시경에 최종목표인 791고지(갈동 서쪽 1㎞)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우측의 제13연대 제3대대는 530고지에서 공격을 재개하여 673고지를 향해 전진하던 중 좌우측 고지대에 배치된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다가 연대장의 철수 명령에 따라 공격을 중지하고 철수하였다. 당시 제13연대 제3대대의 목표지점인 673고지는 좌측의 791고지로부터 3㎞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제3대대는 좌인접 부대와 상호지원이 어려웠다. 때마침 미 제24연대와의 진지교대가 있을 것임을 알게 된 제11연대장은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전투 중인 제13연대 제3대대의 철수를 결심하고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부대는 24일 22시경에 야간철수를 단행하여 금곡리에 집결하였다.[76]

② 장자동 전투

7월 22일 17시에 화령장 서쪽 4㎞ 지점의 평온리에 도착한 2개 대대 편성의 제12연대(연대장 김점곤 중령)는 사단 명령에 따라 제1대대(대대장 신현홍 소령)를 장자동 일대에 투입하고, 제2대대(대대장 이무중 소령)를 상용리에 집결시켰다.

연대 선발대로서 평온리-장자동 계곡에 투입된 제1대대는 대대관측소를 582고지에 두고 510고지-490고지 선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본래 제1대대는 비무장 인원이 많았지만 진지 진입시에 점마 부근에서 버려진 각종 무기들과 보급품들을 수집해 전투력을 보강하였다. 이것들은 이날 아침 북한군의 포격으로 인해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버리고 간 것들이었다.

이 무렵 북한군 제15사단은 1개 대대 병력을 510고지-512고지 선에 배치하였다. 16시경부터 피아간에는 치열한 포격전이 1시간 가량 전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제1대대가 장자동 뒷산에 배치된 북한군의 직사포 3문을 발견하고 81밀리 박격포 사격을 가하여 이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이와 같이 진지 투입과 동시에 사격전을 전개한 제12연대는 사단으로부터 "23일 09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형제봉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제12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장은 제17연대 제3대대와 협동작전을 펼치기로 합의한 후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제1대대를 전방, 제2대대를 예비로 하여 7월 23일 09시에 공격, 685고지를 확보하고, 의명 형제봉을 점령하려 한다.
② 공격간 제17연대 제3대대가 연대 우측에서 512고지를 공격한다.
③ 제1대대는 연대 전방대대로서 7월 23일 09시에 공격, 510고지 및 685고지를 점령하고, 의명 형제봉을 점령하라.
④ 제2대대는 연대예비로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하고, 의명 투입될 준비를 갖추라. 그리고 1개 중대를 연대본부에 파견(연대본부 경계근무)하라.[77]

이 명령에 따라 우선 연대예비인 제2대대가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05시에 제5·7중대를 상용리에서 앵무동 북방 고지인 630고지 일대로 이동시키고 대대 81밀리 박격포도 점마의 제1대대 81밀리 박격포 진지 부근에 배치시켰다.

제2대대의 공격지원 준비가 끝나자 제1대대는 09시를 기하여 510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는 장자동-갈골 간의 428고지에 배치된 북한군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였다. 1차 공격이 실패하자 제1대대장은 부대를 정비한 후 13시경에 공격을 재개하여 428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510고지 점령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제1대대의 우측에서는 제17연대 제3대대가 미군의 155밀리 야포 지원사격하에 512고지를 공격하여 격전 끝에 목표를 점령하였지만 곧이어 북한군의 공격에 의해 512고지는 다시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다.[78]

이렇듯 연대의 공격상황이 지지부진하자 제12연대장은 제1대대장에게 야간공격으로 510고지와 512고지를 점령하라고 지시하였다. 명령을 받은 제1대대장은 22시 30분에 이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해 2개 중대를 투입하였는데, 제1중대가 510고지를, 제2중대가 512고지를 각각 담당하였다. 그러나 양개 중대의 공격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다음날인 24일 05시경에 제3중대가, 10시경에 제2대대 제5중대가 추가로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공격은 510고지에 3개 중대, 512고지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강된 1개 중대가 투입되게 되었는데, 이날 13시까지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초조해진 제12연대장은 제7중대마저 510고지에 투입하는 한편, 제1·3중대를 510고지 후방으로 진출시켜 512고지와 형제봉 중간에 있는 685고지를 서쪽에서 공격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제1·3중대는 갈골에서 동관음으로 우회하여 15시경부터 685고지를 공격하게 되었고 630고지의 제7중대도 갈골로 진출하여 제5중대와 함께 510고지를 공격하게 되었다. 510고지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던 북한군은 정면에서 제5·7중대가 공격하고 후방인 동관음으로 제1·3중대가 전개하자 포위되는 것을 우려한 듯 685고지 방향으로 퇴각하였다.

이 무렵 512고지를 공격하던 제2중대도 제5중대의 1개 소대가 장자동 계곡으로 진입하여 북한군의 측방을 기습 공격함에 따라 공격에 박차를 가하여 16시경에 이 고지를 점령하였다. 512고지를 점령한 제2중대는 북방의 685고지로 물러나는 북한군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였다.

한편 685고지를 서쪽에서 공격한 제1·3중대는 남쪽에서 제2중대가 공격하는데 힘입어 17시경에 동 고지를 점령하였다. 685고지를 점령하고 재보급을 받은 제1대대는 "24시까지 목표를 점령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20시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형제봉의 북한군은 증원을 받은 듯 완강한 저항을 하다가 역습을 시도함으로써 제1대대의 공격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에 제1대대는 23시경에 공격을 중지하고 685고지로 철수하였다.[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국군 제1사단과 제17연대의 화령장 철수

국군 제1사단과 제17연대가 화령장 부근에서 북한군 제15사단과 교전을 벌이고 있던 7월 24일 제1군단에서는 작전지역을 미 제25사단에 인계하고 제1사단은 안동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날 하달된 제1군단 작전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적은 영주를 점령하였으나 춘양 방면에서는 아군의 공격으로 후퇴하였다.

② 군단은 육군본부 지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동 및 대구로 이동하려 한다.

가. 제1사단장은 미군과 교대 즉시 예하 1개 연대를 상주, 김천, 왜관 경유, 안동으로 선발시키고 주력은 상주에 집결, 별도 수송계획에 의하여 안동으로 이동한다.

나. 제2사단장은 미군과 교대 후 황간에 집결하여 수송계획에 의거, 대구로 이동, 배속포병은 군단에 복귀시키고 국방부 일반명령 제20호를 실행하라.[80]

미 제24연대와 진지교대 명령을 받은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미군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제12연대 제2대대 작전장교인 전자열 중위를 연락장교로 임명하여 화령장에 도착한 미 제24연대와 진지교대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조하도록 하였는데, 양측은 교대 일시를 25일 05시로 합의하였다.[81]

그러나 제1사단은 이날 밤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으로부터 "제1사단은 화령장 진지를 미 제25사단에 인계하고 육본작명 제66호(1950. 7. 24, 24시)에 의거 함창으로 이동하라"는 부대이동 정정 명령을 하달 받았다. 당시 제1사단에 하달된 육본작명 제66호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① 군은 침투한 적을 섬멸하고 1950년 7월 25일 05시를 기하여 공세이전 하려 한다.

② 상주에 집결 중인 제1사단은 1950년 7월 24일 야간을 이용하여 함창으로 전진, 1950년 7월 25일 05시를 기하여 함창 일대의 적을 소탕하고 문경을 탈취 점령하라.[8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명령으로 중동부 전선인 춘양, 안동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제1사단은 계획을 바꿔 함창으로 이동하여 제2군단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1사단이 함창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문경-점촌 간을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이 북한군 제1사단으로부터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함창으로의 이동 명령을 받은 제1사단은 미 제24연대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일단 상주로 이동하여 육본작명 제57호에 의거 제2사단의 제5연대와 제20연대를

흡수 통합하여 부대재편을 단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계획 하에 사단 예비인 제13연대가 25일 아침에 먼저 상주로 출발하고, 제11연대가 미군에게 진지를 인계한 후 후속하며, 제12연대가 13시에 철수하여 상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사단의 철수명령을 받은 제11연대는 확보 중인 871고지와 791고지를 미 제24연대에게 인계하고 08시~11시경에 상곡리에 집결하여 11시 30분경에 상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제12연대는 13시경에 진지에서 철수하여 상용리에 집결하였다가 19시에 화령장을 경유해 상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제1사단은 상주에서 제5연대와 제20연대를 흡수 통합해 병력이 7,600여명에 달하게 되었으며, 비무장 병사들에게도 소총이 지급되었다. 또한 공석 중인 지휘관도 충당되어 지휘체제가 정비되는 등 부대 재편을 실시하였다.

한편 봉황산에 포진하여 제1사단의 공격을 엄호했던 제17연대는 제1군단으로부터 "7월 25일에 미군과 진지교대 후 함창 경유, 예천에 도착하여 제3사단의 지시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봉황산 우측에 있던 제17연대 제2대대는 7월 25일 아침에 미군에게 진지를 인계하였다. 그리고 봉황산 좌측에 있던 제1대대는 미군과의 교대 없이 화령장으로 철수하였는데, 이는 미 제24연대가 977번 도로 좌우측에 병력을 중점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령장에 집결한 제17연대는 상주로 일단 이동했다가 안동지역으로 출발하였다.

이로써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전개된 화령장 전투는 국군의 대승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은 2개 연대가 괴멸되는 참패를 당하였으며, 병력과 장비의 대부분을 상실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뚫고 상주를 점령한 후 일거에 대구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전선사령부의 야심찬 계획도 좌절되었다. 북한군 제15사단은 이로 인하여 사단장 박성철 소장이 면직되었으며, 약화된 전투력을 만회할 수 없어 이후에 펼쳐진 낙동강선 전투에서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전공을 세운 제17연대는 연대장 김희준 중령 이하 연대 전 장병이 1계급씩 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개전 이래 연대 전 장병의 1계급 특진은 동락리에서 전승한 제6사단 제7연대에 이어 두 번째였다.[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함창 부근 전투

(1) 국군 제1사단의 함창 부근 전개

상주에서 재편성을 마친 국군 제1사단은 7월 26일 12시경 함창에 도착하여 국군 제6사단의 전면을 위협하는 북한군의 후방차단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84]은 제11연대를 금룡리(함창 북동쪽 4㎞), 제12연대를 막곡리(금룡리 북쪽 4㎞)로 이동시켜 공격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제13연대(연대장 최영희 대령)는 검안리(함창 서쪽 5㎞)에 전개시켜 제2군단의 서측방을 방어하게 하였다.

7월 27일 06시에 국군 제1사단은 제11연대를 우일선, 제12연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영강 동쪽에서 문경 탈환을 목표로 공격하여 제12연대가 오정산(△870)을 거쳐 10시경에 오천리에 이르고, 제11연대가 부운령(△692, 금룡리 북쪽 12㎞)을 거쳐 11시경에 외어리(부운령 서쪽 4㎞)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부터 각 연대는 북한군으로부터 집중 포격을 받아 진출이 지연되었다.

이 무렵 국군 제6사단은 제1연대를 증원 받아 북한군을 조봉-작약산 선에서 저지하고 있었으며, 미 제25사단 예하의 포병대도 점촌-함창 간에 포진하여 제6사단 정면을 지원하고, 유엔 공군도 계속해서 폭격을 가하여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따라 북한군은 제1사단이 국군 제6사단과 정면 대결을 피한 채 석현리(문경 동남방 8㎞) 일대에서 방어로 전환하는 대신 제13사단 병력을 함창 서북쪽의 농암리 방면으로 우회시켜 아군의 후방을 교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북한군의 움직임을 간파한 제2군단장 유재흥 준장은 군단 서측방에 대한 방어 상태가 허술함을 확인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군단 우익의 제1사단을 좌익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하였다. 23시경에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군단장 유재흥 준장으로부터 “귀 사단은 문경 공격을 중단하고 함창으로 철수하여 군단 서측방 방어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좌일선의 제12연대가 신현리 일대에서 북한군 후속부대를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철수가 어

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제1사단장은 제6사단장과 협의하여 제12연대를 이 지역에 계속 남겨두고 제6사단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하는 대신, 제6사단 제19연대의 1개 대대를 배속받기로 하여 군단장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85]

제1사단장은 제11연대와 배속된 제19연대 제2대대(대대장 최석락 소령)를 함창으로 철수시키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① 적은 제6사단 전면을 엄습하는 일방, 그 일부로서 아 후방지대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992번 도로를 따라 동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사단은 7월 28일 06시를 기하여 현재 제13연대가 점령하고 있는 국사봉(△338, 함창 남서쪽 7㎞)-366고지(함창 서쪽 6㎞) 간의 방어진지를 보강하고, 992번 도로를 따라 공격하는 적을 저지 격퇴하고자 한다.
③ 제13연대는 이안천 남쪽 진지를 28일 06시부로 제11연대에 인계하고, 국사봉의 1개 대대를 동시부로 동 연대에 배속하라. 연대(-)는 212고지-366고지를 점령하여 동진하는 적을 저지 격퇴하라.
④ 제11연대(제13연대 제3대대, 제19연대 제2대대 배속)는 동막리-지평리 간을 점령하여 동진하는 적을 저지 격퇴하라.
⑤ 제12연대는 27일 22시부로 현지에서 제6사단의 작전통제를 받아라.
⑥ 협조지시
  ㉮ 인접부대와 상호 협조하라.
  ㉯ 포병지원은 3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⑦ 보급 및 행정 : 현행 절차에 따른다.
⑧ 지휘 및 통신
  ㉮ 유선을 주 통신수단으로 한다.
  ㉯ 사단사령부는 제2군단사령부와 같이 함창중학교에 위치한다.[8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이로써 국군 제1사단은 28일 06시부로 제2군단 서측방의 동막리-366고지 간의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경들저수지 부근 전투

7월 26일 15시경 함창에 도착한 제13연대(연대장 최영희 대령)는 제5연대(연대장 김동빈 중령)로부터 진지를 인수하여 992번 도로를 중심으로 제1대대(대대장 김진위 소령)를 366고지에, 제2대대(대대장 안광영 소령)를 212고지에 각각 전개시키고, 제3대대(대대장 최병순 소령)를 연대 예비로 패릉동(함창 서쪽 3㎞)에 집결시켰다. 그런데 27일 저녁 무렵에 왕릉리(함창 북서쪽 12㎞)와 가은리(왕릉리 남쪽 1㎞) 부근의 주민들이 몰려와 "북한군이 마을에 집결해 있으며, 오늘 밤에 도로를 따라 남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보하였다. 이러한 북한군의 동정은 연대 정찰대로부터도 전해졌는데, 연대 정찰대는 "22시에 장갑차를 동반한 1개 연대 규모의 적이 주막동(함창 서쪽 12㎞)에서 2개 제대로 나뉘어 1개 제대는 992번 도로를 따라 아천리 방면으로, 다른 1개 제대는 주막동에서 무명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무명도로는 주막동-동막리(함창 남서쪽 7㎞)를 거쳐 3번 도로에 연결되어 함창이나 상주로 향할 수 있는 도로였다.

경들저수지

992번 도로에 방어 중점을 두고 366고지와 212고지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던 제13연대는 연대 정찰대로부터 동막리 방면으로 북한군의 침투가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자, 패릉동에 연대 예비로 있던 제3대대를 국사봉(△338)으로 급진시켜 중소리(국사봉 서쪽 2㎞)-동막리 간의 이안천(利安川)[87] 도하지점을 봉쇄하게 하였다.

992번 도로를 따라 동진한 북한군은 28일 04시경에 아천리의 감바우에 도달하였다. 이들은 2개 대대 규모로서 장갑차 4대를 동반하였다. 366고지 남쪽기슭에 배치된 제1대대 제3중대(중대장 백남원 대위)는 이들이 20m 가까이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57밀리 대전차포 2문을 비롯한 각종 화기를 동원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북한군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날이 밝으면서 점차 저항이 약해지고 병력이 분산되었다. 이 전투가 끝났을 때 992번 도로상에는 파괴된 북한군 장갑차 1대와 30여 구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다.

이들 분산된 북한군 병력 중 170여 명이 도로 남쪽 산으로 피신하여 경들마을로 숨어들었다. 제1대대의 좌인접 부대로 경들저수지 정면을 담당하고 있던 212고지의 제2대대는 마을로 숨어 든 북한군을 소탕하기 위해 08시경 2개 중대를 투입하여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곳의 북한군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쓰러져 갔으며, 제2대대는 북한군 15명을 포로로 하였다.[88]

이보다 앞서 제13연대장 최영희 대령은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이안천 이남의 진지와 국사봉의 제3대대를 06시부로 제11연대에 인계하고, 366고지-212고지 간에서 992번 도로를 따라 동진하는 북한군을 격퇴시켰는데, 이들 중 일부 병력이 428고지를 점거하고 우인접의 제6사단 제2연대(연대장 함병선 대령)와의 간격 지역을 따라 침투를 시도하였다. 이에 제13연대는 366고지의 제1대대에게 428고지를 공격 점령하게 하고, 212고지의 제2대대를 366고지로 이동시켜 제6사단의 좌측방을 위협하는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게 하였다. 아울러 제11연대에서 배속 해제된 제3대대를 181고지(366고지 동쪽 3㎞)로 이동시켜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게 하였다.

북한군은 7월 29일 여명에 760고지(428고지 북서쪽 3㎞) 방면에서 대대적인 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격을 감행하였다. 지금까지 3번 도로상에 중점을 두고 국군 제6사단 정면으로 공격해 오던 북한군 제1사단은 일부 병력을 760고지와 장암리(366고지 서쪽 5㎞) 쪽으로 우회시켜 제13사단 제21연대 병력과 더불어 이날(29일) 05시를 기해 428고지 서북쪽으로 공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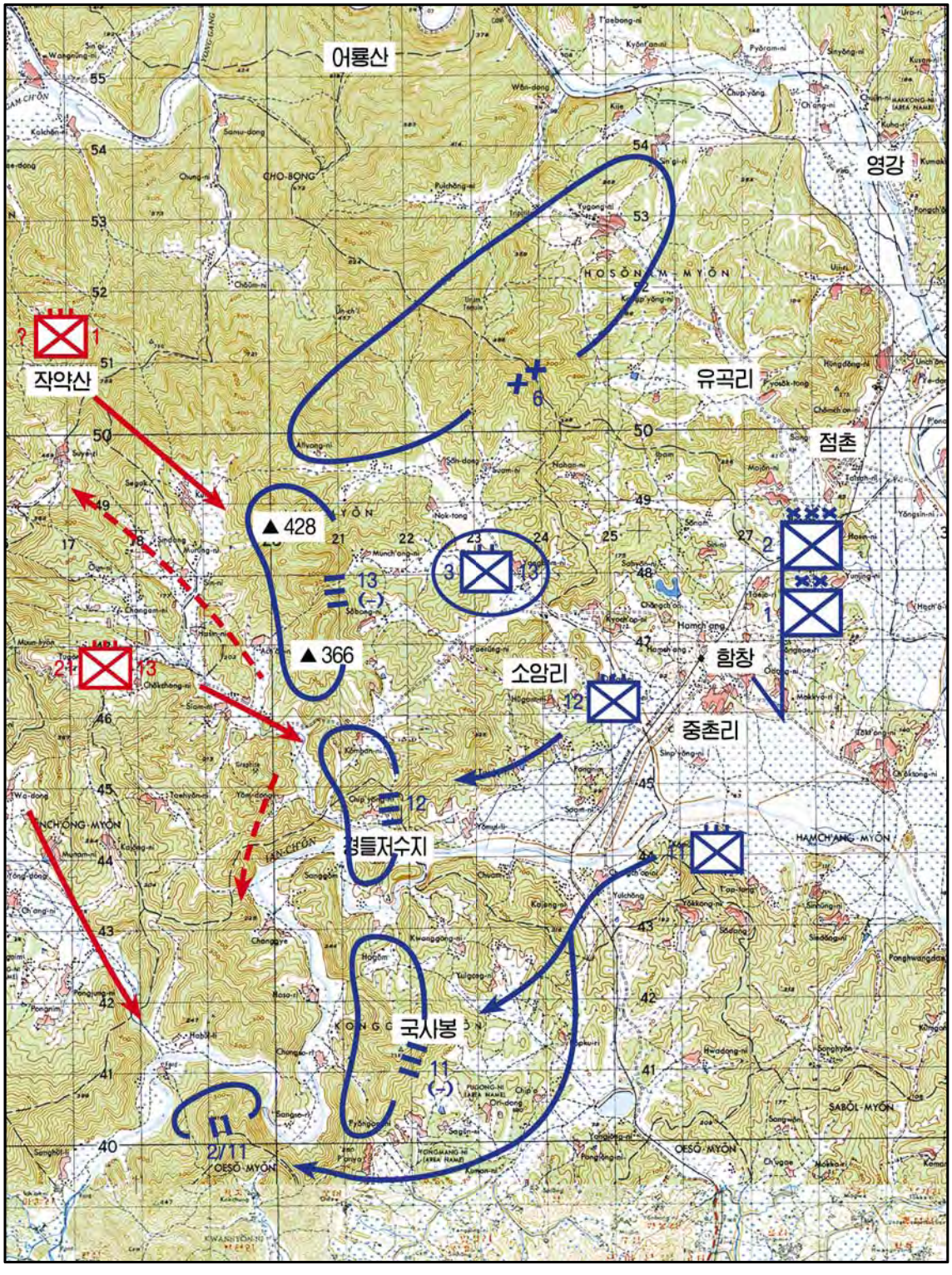
428고지의 제13연대 제1대대(대대장 김진위 소령)는 즉각 사격을 가하는 한편 연대를 통하여 제6사단 포병대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8문의 105밀리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던 제6사단 제3포병대대로서는 소속 사단의 화력지원 요청에도 모두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89] 제1대대로서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81밀리 박격포 2문, 60밀리 박격포 6문, 2.36인치 로켓포 8문, 기관총 8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포병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은 안개가 걷힐 무렵에 428고지의 7부 능선까지 진출하였으나 제1대대의 끈질긴 저항으로 인해 100여 구의 시체만을 유기한 채 구미리(428고지 서북쪽 1㎞) 북쪽으로 퇴각하였다. 이 때 사로잡은 북한군 포로에 의하면, 당시 동원된 북한군 병사들은 대부분 점령지인 남한에서 강제 동원한 소년병들로 구성되었으며, 계속된 전투와 불충분한 보급으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에서도 북한군의 포격으로 인해 장교 3명과 사병 36명이 부상을 당하였다.[90]

제1대대가 428고지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을 무렵, 366고지의 제2대대도 4대의 장갑차를 앞세운 1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북한군은 전 화력을 366고지 남단부에 집중시키고 992번 도로를 따라 일거에 돌진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366고지와 경들저수지가 접하는 500m 구간의 도로를 통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2대대는 북한군의 선두 장갑차가 100m거리로 접근하자 57밀리 대전차포 2문, 2.36인치 로켓포 10문, 81밀리 박격포 6문 등 대대가 보유한 전 화력을 집중하여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이에 북한군은 좌충우돌하면서 퇴로를 찾아 사방으로 분산되었다. 날이 밝으면서 이곳에서의 총성도 멎었는데, 992번 도로상에는 불에 탄 장갑차 3대가 있었고 도로변에는 북한군의 시체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으며, 경들저수지에도 30여 구의 시체가 떠 있었다. 이는 이곳을 돌파하려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8> 함창 부근 전투(1950. 7. 28~29)



북한군의 집념이 얼마나 집요했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 전투에서 제2대대는 7명의 북한군 포로를 생포하여 그들의 소속이 북한군 제1사단이라는 것과 소속 부대가 국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여 우회기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제2대대에서도 김희요 중위를 포함해 11명이 전사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해 후송되었다.

한편 제12연대(연대장 박기병 대령)가 29일 04시경 사단장의 긴급명령에 따라 경들저수지 동쪽의 212고지 일대로 진출하였다.[91] 제12연대는 26일 제20연대(실병력 1개 대대 규모)와의 통합으로 한강 북방에서 철수한 이후 비로소 3개 대대의 편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28일 20시부로 제6사단에서 배속 해제되어 23시경 소암리(함창 남서쪽 1㎞)에서 부대 정비를 마친 후 곧바로 이곳에 배치되었다.[92]

(3) 국사봉 전투

사단의 좌일선으로 지평리-동막리 간의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된 제11연대가 28일 06시경에 국사봉을 점령하였을 때, 안개로 가득한 이안천변에서 총성이 요란하였다. 이는 06시부로 작전을 통제하게 된 제13연대 제3대대(대대장 최병순 소령)가 이안천을 도하하여 예주리(국사봉 북쪽 1㎞)로 침입하려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교전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제11연대장 김동빈 중령은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우선 제19연대 제2대대(대대장 최석락 소령)에게 제13연대 제3대대를 지원하도록 하고, 제1대대(대대장 김재명 소령)를 국사봉 고지 북쪽에, 제3대대(대대장 정영홍 소령)를 그 남쪽에 각각 전개시켜 방어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제11연대는 7월 26일 제5연대와 통합 재편된 부대로 제5연대장이었던 김동빈 중령이 연대를 지휘하였다. 제11연대에 통합된 제5연대는 진천, 청주, 문의지구 전투를 치르는 사이 많은 사상자와 이탈자가 생겨서 함창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2개 중대 병력에 불과하였다. 제5연대는 문의지구 전투를 끝으로 안동으로 이동하였는데, 육군본부로부터 “제5연대는 함창에서 제1사단의 지휘를 받으라”는 명

령을 받고 7월 24일 함창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제1사단은 아직 화령장에서 이동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단에 결합하지 못하고 대기하던 중 제2군단장 유재흥 준장으로부터 “제5연대는 신속히 옥녀봉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 명령에 따라 제5연대는 992번 도로를 따라 서진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전선이 조봉-작약산 선으로 물러선 후였기 때문에 검안리에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제6사단의 좌익에 연하여 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 그 후 26일 14시에 현지를 방문한 제2군단 작전참모 이주일 대령으로부터 “제5연대는 즉시 현진지를 제1사단 제13연대에 인계하고 함창으로 돌아가 제1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 함창으로 돌아갔으며, 함창에서 제1사단 제11연대에 통합되었다.[93]

제13연대 제3대대가 국사봉을 점령한 것은 28일 04시경이었으며, 그 후 1시간이 지났을 무렵 국사봉 고지 양측방의 이안천변에서 안개로 인해 피아 식별이 불가능한 병력의 도하가 제10중대에 의해 목격되었다.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이곳으로 진출하기에 앞서 연대장 최영희 대령으로부터 “아군 후방지대를 교란하고자 동진하는 적의 일부가 주막동에서 무명도로를 따라 동막리 쪽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적정을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북한군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계속해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게 하는 한편, 국사봉 서측에 각 중대를 집중 전개시켰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후속부대가 계속해서 도하하는 가운데 1차 집결을 완료한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예주리 방면으로 향하자 대대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 각 중대에 사격개시 명령을 하달하였다. 순간 이안천변의 적막은 깨지고 총포성이 산천을 진동시켰는데, 이때 제19연대 제2대대가 여기에 가세하였다. 예주리로 향하던 북한군은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고서 분산 도주하였으며, 중소리(국사봉 서쪽 1㎞)에서 도하를 서두르고 있던 북한군도 도하를 중지하고 대응사격만을 가하였다. 날이 밝았을 때에는 50여 구의 시체만이 강변에 흩어져 있었고, 북한군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렇듯 제13연대 제3대대와 제19연대 제2대대가 이안천을 도하하려는 북한군을 격퇴시키자 제11연대장은 도주하는 북한군을 추격 격멸하기로 결심하고 제1대대와 제3대대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가 지평리쪽으로 도주하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추격하였지만 225고지(지평리 서쪽 500m)에 집결한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연대장은 부대를 정비하여 지평리-동막리 간에 전개시켰는데, 이날 저녁 무렵에 연대 정찰대로부터 북한군이 봉중리(동막리 서쪽 4㎞)에서 하흘리(봉중리 남쪽 2㎞)로 도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연대본부가 위치한 중촌리(함창 남쪽 3㎞) 부근에 집결하고 있던 제2대대(대대장 이두황 소령)를 413고지(동막리 서쪽 3㎞)로 이동시켜 이들을 격퇴하게 하였다.

7월 29일 922번 도로를 따라 진출하던 북한군 제1사단 병력이 국군 제13연대로부터 공격을 받아 각개 분산되면서 그 중 일부 병력이 992번 도로 남쪽으로 스며들어 경들저수지의 제12연대와 소규모 교전을 벌인데 이어 225고지(지평리 서쪽 1㎞)에서도 북한군의 활동이 목격되었다.

제11연대장 김동빈 중령은 그들이 분명 북한군 패잔병이라고 확신하고 이를 사단장 백선엽 준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국사봉의 제1대대의 엄호 하에 제2대대와 제3대대를 이안천 서쪽 지대로 이동시켜 제3대대가 225고지-247고지 간을, 제2대대가 399고지를 각각 점령하게 하고 지역내의 잔적을 수색 격멸하게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제3대대는 예주리에서 이안천을 도하해 29일 10시경까지 각 중대가 225고지와 247고지를 접적 없이 점령하였다. 당시 300여 명으로 추정되던 북한군은 봉중리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은척산(△632-봉중리 서쪽 2㎞) 방향으로 잠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2대대도 이안천을 도하하여 흑연광산인 399고지에 진지를 편성하고, 우인접 부대인 제3대대와 무명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게 되었는데, 북한군은 아군의 배치상황을 탐색하려는 듯 소규모의 정찰대를 파견해 몇 차례 접전을 시도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의 끊임없는 항공폭격과 포격 등으로 인해

병력 손실이 커지고 국군 후방지역으로의 침투도 용이하지 않게 되자 이날(29일)부로 은척산에 잠입해 병력수습과 재편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4]

(4) 낙동강 방어선으로의 철수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예하부대의 보고를 통해 북한군 주력의 공격축선이 3번 도로상에서 992번 도로선상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3번 도로선상에 지향되고 있는 항공지원 및 화력지원의 우선권을 군단 서측 정면으로 이전시켜 줄 것을 군단장 유재흥 준장에게 건의하는 한편, 3개 연대를 428고지-413고지 간에 전개시켜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군의 주공방향이 국군 제1사단 정면으로 옮겨짐에 따라 제1사단에 대한 항공지원도 이때부터 본격화 되어 중대 단위까지 황·백의 대공포판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30일에는 신형 105밀리 곡사포 6문으로 편성된 1개 포대의 직접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그동안 부상 또는 낙오로 부대를 이탈했던 병력이 속속 복귀함으로써 사단의 전력은 날로 증강되어 갔다.

그런데 이 무렵 좌·우 인접한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선은 다시 한번 남쪽으로 이동해야만 했다.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8월 1일을 기하여 자신의 작전통제하에 있는 한미 양군을 현 전선에서 철수시켜 낙동강선에 방어진지를 형성하게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따라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31일 우인접한 제6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는 한편, 북한군과의 접촉이 경미한 제12연대로 하여금 사단의 도하지점과 도하장비를 확보하도록 낙동리로 선발시켰다. 그리고 사단 주력은 8월 1일 야음을 이용하여 함창지구를 철수해 8월 3일 낙동강을 도하 완료하였다. 제1사단은 제2군단의 좌익으로서 낙정리(상주 남동쪽 15㎞)-왜관 선에 제12, 제11, 제13연대 순으로 전개시키고, 사단 우측의 국군 제6사단, 좌측의 미 제1기병사단과 개전 이후 처음으로 협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

3. 전투결과

1950년 7월 5일 수도사단, 제1사단, 제2사단을 예하부대로 하여 창설된 국군 제1군단은 7월 13일경 미군의 금강방어선에 연결하여 부강리-국사봉-고은리-미원 선에 3개 사단을 투입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쪽으로는 험준한 소백산맥으로 인하여 제2군단의 제6사단과 연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수도사단과 제2사단은 14일부터 맹렬히 공격하는 북한군 제2사단과 격전을 벌였으나 16일 아침에 수도사단 방어선의 중심부인 고은리 일대가 돌파되자 군단은 제2사단을 보은 서쪽 15㎞의 회인에 재배치하고 수도사단은 보은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이때 국군 제1사단은 거리고개 일대에서 북한군 제15사단 병력의 미원 진출을 저지하였다.

북한군 제15사단은 괴산 남방에서 제1사단을 공격하는 한편, 일부병력으로는 제2군단의 후방인 상주를 기습 점령하기 위해 속리산 동쪽의 산간도로를 따라 괴산-화령장-상주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상주를 점령함으로써 국군 제6사단의 퇴로를 차단하고 북한군 제1사단과 함께 대구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군의 기도를 철저하게 좌절시킨 것이 국군 제17연대와 제1사단의 화령장 전투였다. 국군 제17연대와 제1사단은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북한군 제15사단의 2개 연대를 거의 궤멸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이와 관련해 공산군측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15사단은 7월 17일 오후에 전투행동을 재개하였다.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은 보병은 많은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사단은 적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7월 20일 20시 무렵에 제50연대가 상용리, 제48연대가 선곡리까지 진출하였다. 사단은 이 지역에서 7월 23일까지 전투를 벌였다. 적의 강력한 역습으로 인하여 7월 22일과 23일 사단은 확보한 지역으로부터 서북방면으로 8㎞~10㎞ 지점까지 철수하여 도장산과 746고지에서 방어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지역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단 예하부대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은 7월 28일까지 방어전을 전개하였다."[95]

공산군측의 자체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군 제15사단은 국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공격을 중단하고 방어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소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뚫고 상주를 점령한 후 일거에 대구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전선사령부의 야심찬 계획도 좌절되었다. 전투 후 북한군 제15사단은 사단장 박성철 소장이 면직되었으며, 약화된 전투력을 만회할 수 없어 이후에 펼쳐진 낙동강선 전투에서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1950년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국군 제1군단은 약 90㎞의 공간을 포기하는 대신 17일이라는 시간을 획득함으로써 성공적인 지연작전을 수행하였다. 기간 중에 2개 사단의 미군이 추가로 전개하였고 국군도 전열을 정비함으로써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곧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문경-점촌 전투

1. 전투 개요

문경-점촌 전투는 국군 제6사단이 1950년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문경-점촌 일대에서 북한군 제1·제13사단과 맞서 축차적인 진지를 점령하면서 지연전을 벌인 전투이다.

수안보에서 북한군을 지연하다가 철수한 국군 제6사단은 금강-소백산맥선 방어계획에 따라 소백산맥의 요충인 이화령과 조령을 포함한 문경 정면을 전담하였다. 이 일대는 평균 700~1,000m의 소백산맥 준봉들이 뻗어 있어 충주-점촌간의 도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산간 소로로 도로망이 매우 빈약하였다.

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도로상의 관문인 이화령과 조령에 방어중점을 두고 제2연대를 이화령에, 제19연대를 조령에 각각 배치하였다. 반면 수안보에 집결한 북한군 제1사단은 문경-점촌-함창 축선으로 진출하고자 공격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북한군 제2군단장은 배속된 제13사단을 이화령 서측방으로 침투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7월 14일 북한군 제1사단은 국군 제2연대가 방어하는 이화령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군 제2연대는 진지를 고수하고 있다가 역습을 단행하여 연풍삼거리까지 진출하였다가 다시 원래의 진지로 복귀하였다. 7월 15일에는 북한군의 대규모 공격이 제19연대가 방어하는 조령 방면으로 지향되었다. 제19연대는 북한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문경 쪽으로 밀리기 시작함으로써 조봉이 피탈되었다.

이 무렵 이 지역에는 북한군 제1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제13사단이

투입되었다. 북한군 제1사단과 이를 증원하고 있던 제13사단의 병력들은 7월 16일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조령을 점령한 북한군은 문경 정면으로 공격을 계속하면서 2개 연대를 양측방으로 우회시켜 국군 제6사단을 포위 공격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문경 방어를 포기하고 병력을 철수시켜 영강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하천선 방어에 돌입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북한군 제1·제13사단과 7월 25일까지 문경-유곡-점촌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조봉, 오정산 등지에서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 전차의 위협이 가중되고 적의 포화가 점촌의 사단지휘소까지 미치면서 제6사단의 방어진지가 붕괴될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무렵, 때마침 국군 제1사단 주력이 함창으로 진출함으로써 제6사단은 돌파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이 일대의 작전은 군단규모로 발전하였고, 제6사단과 제1사단은 27일부터 반격 작전에 나서 오정산 일대를 탈환하고 북한군의 퇴로를 위협하였다. 이에 북한군 제1사단과 제13사단은 퇴로차단의 위협을 받아 일시에 와해되기 시작하였으며, 병력과 장비 면에서 큰 손실을 입고 영강 북쪽 고지 일대로 철수하였다.

북한군 제1사단과 제13사단의 상주 진출을 차단한 국군 제2군단은 7월 31일 육군본부로부터 낙동강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제6사단과 제1사단은 이 지역의 작전을 종결하고 제6사단이 성주 용기동으로, 제1사단이 낙동리로 각각 철수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전투 경과

1) 문경 부근 전투

(1) 국군 제6사단의 이화령-조령 방어진지 편성

수안보에서 북한군을 지연하던 국군 제6사단은 7월 9일 23시에 보은으로 이동하였다가 10일 11시에 육군본부로부터 "문경지역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96] 이 때 국군 제6사단은 제2연대(연대장 함병선 대령)가 충주에서, 제7연대(연대장 임부택 대령)가 유현 일대에서. 그리고 제19연대(연대장 민병권 대령)가 진천에서 각각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70여㎞의 광정면에 3개 연대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6사단으로서는 각 연대의 집결과 방어진지의 점령이 무엇보다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제6사단은 보은에서 기동계획을 마련하는 즉시 작전참모 양중호 중령을 현지로 급파하는 한편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이날(10일) 15시경에 문경으로 선행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문경초등학교에 사단 지휘소를 마련하고 7월 12일 05시까지 사단의 주력을 문경지역에 집결시켰다.[97] 이와 더불어 제16포병대대(대대장 김성소령)와 공병대대(대대장 박정채 소령)도 이곳에 집결시켜 지원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제16포병대대는 충주에서부터 시행해 오던 포대 단위별 연대 지원의 형태를 유지하였는데, 제1포대(포대장 김장근 대위)가 제2연대를, 제2포대(포대장 이만호 대위)가 제7연대를, 그리고 제3포대(포대장 정오경 대위)가 제19연대를 각각 직접 지원하였다. 각 포대는 105밀리 곡사포 5문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병대대는 각 연대에 배속된 공병중대를 이곳에서 통합해 대대장 지휘 하에 괴산-이화령 간의 주요 교량을 파괴한 후 제1중대(중대장 김영근 중위)만을 제2연대에 재배속시켰다.[98]

이 무렵 국군 제6사단의 총병력과 장비는 편제상의 70%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징발차량 100여대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식량과 연료의 보급은 현지 관서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적극적인 협조와 후방에서의 추진으로 충족하였으며 탄약의 보급도 원활하였다.

한편 국군 제6사단 정면의 북한군은 제1사단(사단장 최광 소장)으로 그 예하에는 제2연대(연대장 김양춘 대좌), 제3연대(연대장 이창권 대좌), 제14연대(연대장 황석 대좌) 등 3개 보병연대에 이를 지원하는 사단 포병연대(연대장 현학봉 대좌)가 있었다. 북한군 제1사단은 7월 9일 밤 20시경 충주 동쪽 10㎞ 지점의 황강리 지역에 집결하여 문경-함창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북한군 제1사단은 7월 10일 공격을 개시하여 20시경 문강리(충주 동남방 9㎞)를 점령하고 11일 오전에 화천리의 362고지(문경 서북방 12㎞, 소조령)에 도달하였다. 북한군 제1사단은 산악 소로와 다수의 계곡을 통해 우회 기동하여 7월 12일 이화령 부근까지 진출하였다.[99]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제105전차사단 소속의 제109전차연대가 충주로 후속하였으며, 북한군 제13사단이 은성(문경 서남쪽 11㎞) 방면으로 기동중이었다. 북한군 제1사단의 총병력은 약 8,000명이었으나 이른바 '의용군' 병력이 30%에 이르렀으며, 전체 병력 중 15%가 비무장 병력이었다. 주요 장비로는 자주포 12문을 비롯하여 122밀리 곡사포 7문과 76밀리 곡사포 21문, 45밀리 대전차포 43문, 120밀리 박격포 40문, 82밀리 박격포 80문 등을 보유하였다.[100]

문경 일대에 집결한 국군 제6사단은 7월 12일 00시 01분 부로 창설된 제2군단에 국군 제8사단과 더불어 편입되었다.[101] 제2군단장 김백일 준장의 작전계획은 제6사단과 제8사단을 이화령, 조령, 죽령 일대에 배치해 북한군이 소백산맥을 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제6사단은 진지를 점령하기에 앞서 문경지역의 지형을 분석하고 부대이동에 따른 소요시간을 산출하는 한편, 병력의 사용계획과 제한된 기동조건하의 화력운용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이화령과 조령에 방어중점을 두고 기동예비대를 보유한 거점방어태세를 취하기로 결심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전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제19연대를 우일선으로, 제2연대를 좌일선으로, 그리고 제7연대를 예비로 한 방어태세를 취하여 문경지역으로 침공하는 적을 저지격멸하려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② 제19연대는 현 위치 화천리로부터 즉시 조령으로 이동하여 평천리와 조령 제1, 2관문에 경계의 중점을 두고 우일선을 고수하라.
③ 제2연대는 현 위치 신풍에서 즉시 이화령으로 이동하여 3번도로에 경계의 중점을 두고 좌일선을 고수하라.
④ 제7연대는 현 위치 괴산으로부터 이동하여 문경에 도착하는 즉시로 기동태세를 갖추고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
⑤ 제16포병대대는 사단을 일반 지원하되 화력의 우선권을 이화령 정면으로 지향케 하라.
⑥ 공병대대장은 사단의 주력이 통과하는 즉시로 연풍-괴산간과 이화령-연풍간의 요소를 파괴하고, 별도의 명령에 따라 지역내의 주요 교량을 폭파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⑦ 통신중대장은 각 연대의 진지 점령과 동시에 유무선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
⑧ 의무중대장은 진안리에 사단 수용소를 설치하라.
⑨ 나는 문경초등학교에 위치할 것이다.[102]

사단의 좌일선으로 이화령을 점령하기로 계획된 제2연대가 사단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은 7월 12일 오후 원풍리(수안보 남쪽 7㎞)에서였다. 이때 연대의 주력은 화천리(수안보 남쪽 5㎞) 부근의 586고지-637고지 선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명령상에 명시된 신진지와 12㎞나 떨어진 곳이었다.

명령을 받은 제2연대는 이날 해질 무렵 제1대대(대대장 박노규 중령)의 엄호하에 제3대대, 제2대대 순으로 도보이동을 시작하였다. 21시경 선두부대인 제3대대(대대장 이운산 소령)가 연풍 삼거리에 도달했을 때 연풍-괴산간 도로 남쪽의 행정리(杏亭里)부근에서 수 미상의 북한군이 불시에 총격을 가하였다. 이 북한군 병력은 수안보-오가리-송덕리-적석리 방면으로 우회한 북한군 제1사단의 일부 병력이었다. 이때 제2연대는 서측방의 국군 제1사단이 이미 11일 밤에 미원으로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괴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측방의 경계대책이 미흡하여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북한군도 병력 일부만이 연풍에 도달했기 때문에 국군 제2연대의 진로를 막아서지 못하고 측방에서 위협사격만을 가하였다. 이를 간파한 연대장 함병선 대령은 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곳에서 북한군과 격돌하기 보다는 신진지의 점령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서 선두부대인 제3대대로 하여금 접적을 유지하게 하면서 후속대대의 철수를 서둘렀다.

제2연대는 7월 13일 02시경 이화령을 중심으로 급편진지 편성을 완료하였는데, 제3대대를 681고지에, 제1대대를 이화령 동쪽의 요광리 일대에, 그리고 제2대대를 이 보다 북쪽으로 1.7㎞ 떨어진 633고지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화령에 진지를 급편한 제2연대는 날이 밝음과 동시에 진지 재편성 작업에 착수하여 제3대대를 681고지의 서북쪽 능선 하단까지 추진 배치하고, 제1대대를 1,017고지에 연한 능선에 전개시켰다. 그리고 제2대대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633고지의 전진거점을 확보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2연대는 각 대대마다 불필요한 장비를 이화령 남쪽의 각서리(문경 서북쪽 5㎞)로 후송하고 개인장비 및 공용화기만을 휴대하게 하는 한편, 배속된 공병 제1중대로 하여금 도로파괴와 장애물 부설에 주력하게 하였다. 또한 사단에서는 제16포병대대의 2개 포대를 요광원(要光院) 부근과 각서리(各西里) 서북쪽의 야지에 각각 배치하여 제2연대를 직접 지원하게 하였다.[103]

한편 제19연대는 7월 12일 오후까지 화천리(貨泉里)에 연대본부를 두고 수안보 동남쪽 1.5㎞의 안보리(安堡里) 일대에 주력을 배치하고 있다가 사단장으로부터 "병력을 조령 부근으로 이동시켜 갈평리-조령산 간의 지역을 방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명령을 받은 제19연대는 야간에 도보기동으로 제1대대와 제2대대를 먼저 조령관(鳥嶺關)으로 철수시키고, 후속하여 제3대대를 갈평리 계곡으로 철수시켰다. 제1대대(대대장 최병묵 소령)는 안보리-화천리를 거쳐 부봉(釜峰) 서쪽 계곡을 넘어 상초리 부근의 제1관문(문경 서북쪽 5㎞)에 이르러 그 서쪽의 459고지와 혜국사 입구에 진지를 편성하였으며, 제2대대(대대장 김용기 소령)는 제1대대를 후속하여 상초리 북쪽 2㎞ 지점의 제2관문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대대장장 김한덕 소령)는 주흘산 동북쪽의 평천리에 도착한 즉시 동쪽으로 통하는 갈평리 계곡을 막아 급편진지를 마련하였다.[1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2연대와 제19연대가 진지를 강화하는 동안 사단사령부에서는 거점방어태세로 인해 18㎞에 달하는 정면의 절반 이상이 공백지대로 남게 된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당시 각 연대는 편제상 55~60% 수준의 병력만을 확보한데다 광정면을 맡았기 때문에 절대병력의 부족으로 인해 방어공백이 불가피하였다. 특히 인접사단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못한 좌우 측방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사단장은 측방 경계를 강화하고자 예비인 제7연대장 임부택 대령에게 2개 대대를 차출하여 양측방으로 1개 대대씩 각각 추진 배치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작전참모 양중호 중령에게 하사관교육대와 공병, 통신 등 사령부 직할의 가용병력을 집결시켜 신예비대를 편성한 후 문경 동측방에 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7연대는 13일 오후에 제3대대(대대장 이남호 중령)를 문경 동북쪽으로 진출시켜 주흘산 동측의 654고지를 점령하게 하고, 제1대대(대대장 김용배 중령)을 황계산(△563) 서록에 진지를 편성하게 하여 분지리에서 문경으로 넘어가는 측방도로를 경계하게 하였다. 그리고 직할대의 병력으로 임시 편성한 3개 소대 84명은 하사관교육대장 서정학 소령의 지휘하에 문경 동쪽의 단산으로 올라가 측후방의 경계임무를 맡았다.

한편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제1포대와 제3포대로 제2연대를 직접 지원하게 된 제16포병대대는 괴산에서 뒤늦게 도착한 제2포대(포대장 이만호 대위)를 문경 과수원(문경역 북쪽 500m)에 위치시키고 5문의 포를 방렬하여 일반지원태세를 갖추게 하였다.[10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국군 제2연대의 이화령 공방전

7월 14일 04시 30분경, 7월 중순 고산지대 특유의 짙은 안개가 산과 계곡을 뒤덮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기상조건 하에서 북한군 제1사단의 주공 부대인 제2연대가 이화령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면서 국군 제2연대 정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연대장은 각 대대에 즉각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전방에 추진된 청음초에게 경계강화를 지시하였다. 점차 날이 밝으면서 짙은 안개가 걷히자

이화령 고갯길에서 연풍삼거리에 이르는 도로상에는 북한군의 전차와 자주포, 병력 등으로 가득 메워져 있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수미상의 북한군이 이른 새벽의 짙은 안개를 이용해 각 대대의 진전 가까이 침투하여 일제히 사격을 가하면서 진내로 돌입하고 있었다. 제2대대는 불시에 들이닥친 북한군과 격전을 벌였으나 중과부적으로 633고지의 후사면으로 밀려났으며, 제3대대도 방어진지의 일부가 돌파되어 병력 일부가 진지를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우일선의 제1대대도 진전 가까이 밀려든 북한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제2연대장은 연대관측소에서 전방을 관측하고 있었지만 북한군이 쏘아대는 포탄의 작렬음 소리만 들릴 뿐 짙은 안개로 인해 각 대대의 전투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 더욱이 제2·제3대대와는 무전이 두절되어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다. 08시경 짙은 안개가 걷히자 제2연대장은 진지를 고수하고 있을 것으로 믿었던 제2·제3대대 장병들이 이화령의 고갯마루로 철수하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이를 지켜본 제2연대장은 이화령 고갯마루로 나가 철수하는 병력을 제지하는 한편 제1대대장 박노규 중령을 전화로 불러 "역습으로 633고지를 탈환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섰다.

제1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3번 도로의 북쪽 능선으로 역습을 개시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화령 고갯마루로 철수 중인 병력들이 역습 대열에 가담하기 시작하였다. 이화령 일대에 대한 북한군의 집중 포격에도 불구하고 제2연대장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직접 선두에 나서서 공격을 독려하였다. 이 때 제16포병대대도 북한군의 증원을 차단하기 위해 연풍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였다.[106]

이 무렵 제2대대는 아직도 이화령 후사면에서 북한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제2대대 장병들은 적중에 고립된 채 실탄과 수류탄이 거의 고갈된 상황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연대의 주력이 노도와 같이 밀려들게 됨에 따라 적진에서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오히려 이곳은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길목이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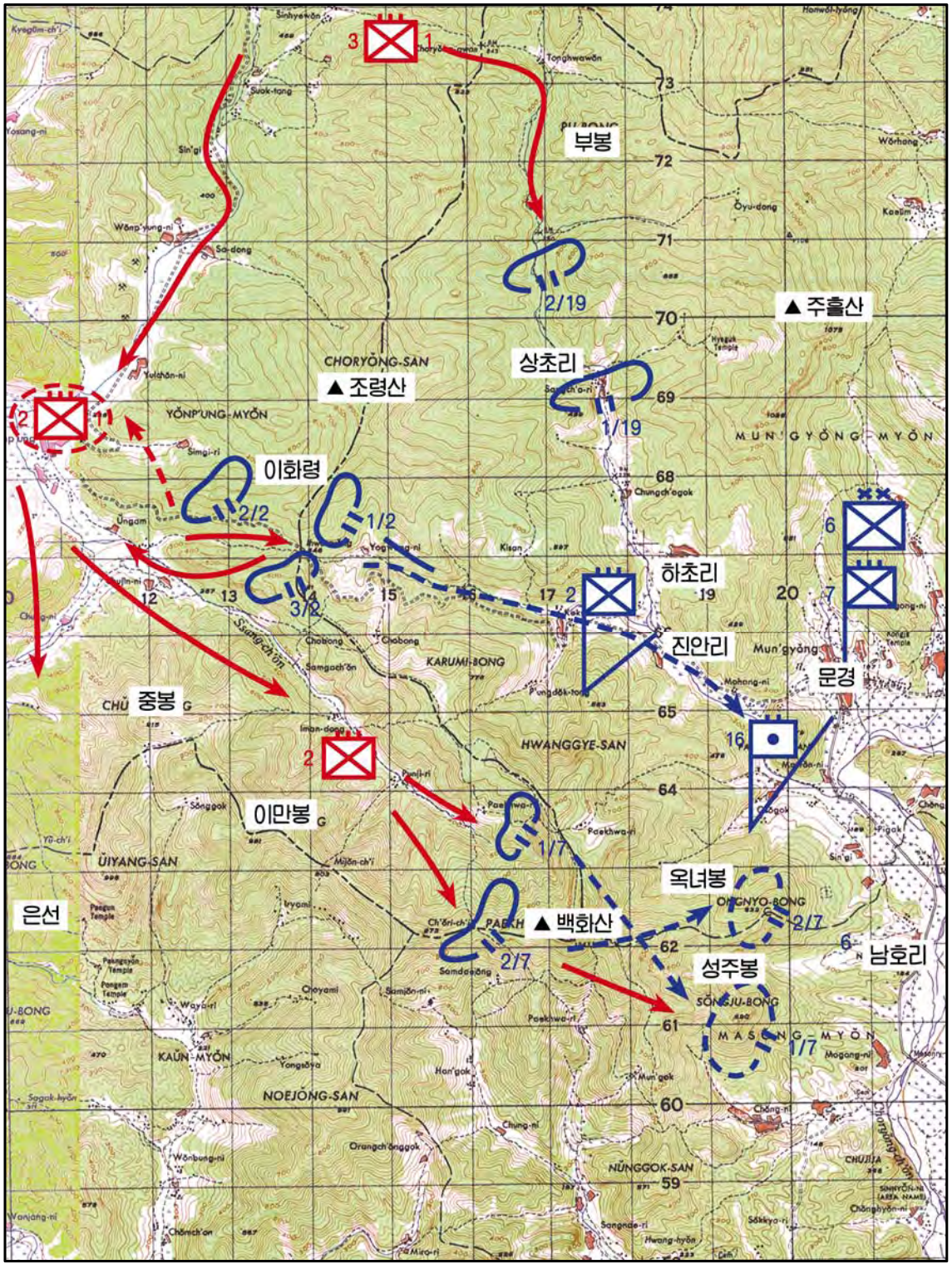
국군 제6사단 제2연대가 배치된 이화령

제2연대는 무질서하게 퇴각하는 북한군을 공격하면서 빼앗긴 진지를 탈환하였다. 이화령 진지를 탈환하자 제2연대장은 이날(14일) 11시 30분경에 각 대대장들에게 “연풍삼거리까지 진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로부터 불과 70여분이 지난 12시 40분경에 제1대대가 연풍을 탈환하였다. 연대장은 제1대대의 공격을 중지시키고 연풍-299고지간에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게 하게 하는 한편 각 대대장들에게 북한군의 재공격에 대비한 재편성과 진지 강화를 지시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2연대는 장갑차 3대를 비롯해 트럭 10대, 개인화기 13정을 노획하고 포로 7명을 생포하였다. 반면에 제2연대서도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제2연대장은 제19연대와의 협조된 방어를 위하여 이화령으로의 복귀를 검토하던 중 때마침 사단장으로부터 “원 진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제2연대는 도로 사정상 견인할 수 없는 노획 장비를 모두 파괴하고 이날 22시경 이화령으로 복귀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9> 이화령 전투(1950. 7. 14~16)



제2연대가 이화령 일대에서 북한군과 격전을 치르는 동안 제19연대는 진지보강 공사를 실시하면서 적정을 탐색하였다. 이날 제19연대 방어지역에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다.

한편 국군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북한군 제1사단이 문경 점령을 목표로 할 경우에 이화령 서쪽의 주진리(周榛里) 계곡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사단장은 제7연대장에게 제2대대를 백화산(△1,062)으로 이동시켜 주진리-시루봉을 넘어 분지리로 통하는 사단의 서측방을 방어하게 하고, 문경에 위치한 사단지휘소를 3㎞ 남쪽의 남호리 일대로 이동시켰다. 제7연대 제2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이날(14일) 14시경에 백화산에 도착하여 진지를 편성하고 북한군의 예상 접근로인 평전치에 1개 중대를 배치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 제13사단(사단장 최용진 소장)의 주력이 은성 방면으로 은밀히 진출하고 있었으며, 그 예하의 제21연대(연대장 이성준 대좌)가 주진리-분지리-백화산쪽으로 침투 중에 있었다. 그러나 국군 제6사단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저녁에 제7연대 제2대대로부터 북한군이 이만봉 일대에 출현했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사단 서측방에 위협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군 제6사단은 서측방의 경계 강화와 더불어 22시경에 사단지휘소를 신현리로 이동시켰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조령 방어진지 붕괴

7월 14일 밤에 전투태세로 돌입한 조령의 제19연대 장병들은 북한군의 야간공격에 대비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15일 여명을 맞았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른 새벽의 짙은 안개가 산과 계곡을 뒤덮어 전방을 제대로 관측할 수 없었다.

7월 15일 06시 30분경 제19연대장 민병권 대령은 조령 제2관문을 지키고 있던 제2대대장 김용기 소령으로부터 북한군의 공격 사실을 보고 받았다. 제2대대장의 보고 내용은 짙은 안개로 인해 북한군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대대급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진내에서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 북한군은 제1사단 제3연대(연대장 김양춘 대좌) 병력으로

1개 대대가 원풍쪽에서 조령산의 북쪽 능선을 넘고, 그 주력이 소조령(수안보 동남쪽 5㎞)에서 부봉(△915) 계곡으로 우회해 국군 제19연대 제2대대를 공격하였던 것이다.

당시 제2대대는 제5중대가 수안보 방면에서 적중에 고립되어 조령으로 이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병력이 40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107] 제2대대는 진내로 돌입한 북한군과 치열한 백병전을 벌였으나 08시경에 진지가 무너지고, 대대장마저 대퇴부 관통상을 당해 지휘체제가 마비되었다. 이 무렵 북한군은 이미 그 선두가 제2관문을 돌파하여 상초리의 제1관문 쪽으로 진출 중이었다.

이때 제2대대에는 연대장으로부터 중초리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제2대대는 중상을 입은 대대장을 대신해 대대교육장교 이진암 중위가 병력을 수습하여 주흘산 서쪽 산기슭을 따라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제2대대가 진지를 이탈 할 무렵 제16포병대대의 포격이 제2관문 일대에 집중되었다. 제16포병대대(대대장 김성 소령)는 제19연대장의 요청에 따라 진내 포격을 실시하여 북한군 선두부대의 진출을 지연시켰지만, 이 포격으로 인해 제2대대에서도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108]

조령 제2관문을 점령한 북한군은 그 여세를 몰아 11시경에 제1대대가 방어하고 있던 조령 제1관문까지 진출하였다. 제1대대는 개전 초기 홍천에서 제1중대를 제2·제3중대에 통합한 뒤로 아직까지 병력을 보충 받지 못하여 재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제1대대는 진내로 돌입한 북한군과 백병전을 벌였지만, 대대장 최병묵 소령을 비롯해 제3중대장 김택수 중위, 제3중대 제3소대장 송기종 소위, 제2중대 제1소대장 김용한 중위 등이 전사하고 병력마저 분산되어 무질서하게 하초리 쪽으로 철수하였다.

하초리 부근까지 나와 상황을 주시하던 제19연대장은 제1대대 교육장교 이계순 대위로부터 제1관문의 상황을 보고받자 대대 작전주임 이주근 소령에게 병력을 551고지로 철수시키라고 지시하고 제16포병대대장에게 화력지원을 요청하였다. 제16포병대대가 제1대대의 방어진지 전방인 상초리 일대에 집중 포격을 가하는 동안에 제1대대는 신속히 551고지 일대로 철수하여 급편방어진지를 편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가 배치된 조령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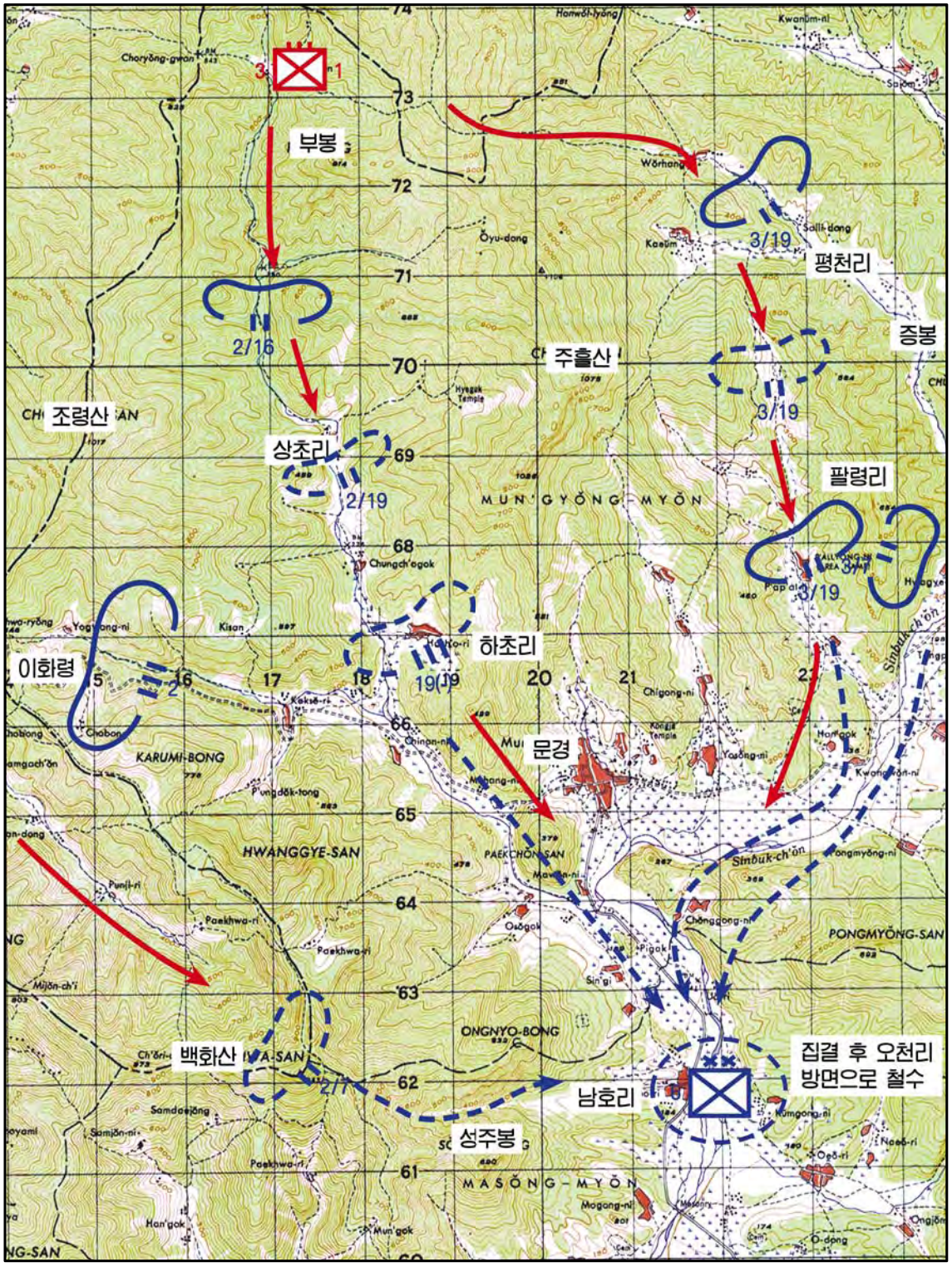
하였다. 상초리의 제1관문까지 침투한 북한군은 이 곳에서 재편성 상태로 들어간 듯 한동안 진출을 정지하였다.

제19연대의 주력이 조령 일대에서 격전을 치르는 동안에 사단의 동측방을 방어하고 있던 제3대대(대대장 김한덕 소령)는 방어선의 균형유지를 위해 갈평리의 비지재고개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 진지는 연대의 주력이 점령한 551고지와 4㎞나 떨어져 서로 전선을 연결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제3대대가 연락을 취할 수 있던 부대는 2㎞ 후방의 팔령산(△654)에 위치한 제7연대 제3대대(대대장 이남호 중령) 뿐이었다.[109]

한편 이화령의 제2연대는 우인접인 제19연대가 문경 쪽으로 밀리게 됨에 따라 양측방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화령 진지를 고수하기로 하였다. 제2연대장은 각서리에 위치한 연대 보급소만을 문경 남쪽의 남호리 일대로 이동시키고 야간방어태세에 들어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10> 조령 전투(1950. 7. 15～16)



이화령과 조령에 대한 북한군의 압력이 가중되고, 설상가상으로 사단 서측방에 새로운 북한군이 출현했다는 보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비대를 보유하지 못한 제6사단은 부득이 일부 진지를 재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110] 즉, 제7연대장에게 서측방의 2개 대대를 서남쪽으로 이동시켜 1개 대대로서 백화산과 그 서쪽의 평전치를 점령하게 하고 다른 1개 대대로서 성주산(남호리 서쪽 2㎞)을 방어하도록 하는 한편 제2연대에서 1개 중대를 차출해 제19연대를 증원하게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제7연대 제2대대가 백화산에, 제1대대가 성주산에 각각 배치되었다.

제7연대 제2대대는 17시까지 진지 편성을 마치고 진전 정찰을 실시하던 중 18시경에 2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백화산 서쪽의 평전치를 향해 침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북한군은 평전치 고개를 넘어 남호리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2열 종대로 고갯마루를 올라오고 있었는데, 9부 능선에 배치된 제6중대가 이들을 진전 가까이 유도하여 일제히 기습사격을 가해 1시간 만에 격퇴하였다. 제7연대는 북한군의 선두부대를 격파하고 백화산을 확보함으로써 그 남쪽의 성주산까지 이르는 사단의 서측방을 지켜냈다. 그러나 이 무렵 북한군 제13사단의 주력이 제7연대 진지 서쪽 6㎞ 지점의 원북리(구왕봉 남쪽 마을)로 집결하고 있었다.[111]

(4) 문경방어선 붕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 제1사단은 7월 16일 06시를 기해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조령 제1관문을 점령한 제3연대를 문경 정면에 투입하고, 제2연대를 이화령 점령 후 문경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1사단의 예비인 제14연대와 제13사단 예하 제21연대를 각각 좌우측으로 우회 공격하게 하였다.

특히 북한군은 국군 제19연대 제3대대가 방어하고 있던 갈평리 계곡으로 우회 침투하여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112] 북한군은 제3대대 방어진지는 물론 그 후방의 대대관측소와 팔령리 일대에 포격을 가하면서 2개 대대 병력이 비지재고개로 밀려들었다. 제3대대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북한군의 파상공격에 진지가 돌파되고 주력이 포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연대와의 교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제3대대장은 방어진지를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서 병력을 영산-654고지선으로 철수시켰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북한군의 주력이 용연리(갈평리 동남쪽 2㎞) 부근까지 진출해 654고지 동쪽으로 우회하고 있었다. 11시경 제3대대가 팔령리 남쪽의 동구 밖에 집결했을 때에는 병력이 300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제3대대는 문경의 마지막 보루인 460고지(영산 남쪽 능선)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제7연대의 제3대대와 연락을 취하면서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북한군은 공격 속도를 늦추지 않고 철수하는 제19연대 제3대대를 추격해 진전까지 도달하였다.

이 무렵 제7연대 제3대대는 654고지 동쪽으로 우회한 북한군과 교전 중에 있었는데, 제19연대 제3대대가 460고지로 철수하자 좌일선의 제9중대로 하여금 연결 유지하도록 일부 진지를 조정함과 아울러 81밀리 박격포 소대를 광원리 부근으로 철수시켜 우일선의 제10중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13시경 제19연대 제3대대의 방어진지가 돌파됨으로써 제7연대 제3대대마저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였다.

제19연대장은 제3대대가 460고지에 이르러서야 무선교신이 소통되어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사단장에게 병력 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예비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사단에서는 장병들의 선전만을 당부할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551고지의 제1대대와 제2대대가 15시경부터 북한군과 격전을 벌이다가 18시경 문경 서쪽의 진안리 부근까지 밀려 사실상 연대의 방어진지가 무너지고 말았다. 바로 이때 사단으로부터 "제19연대는 남호리로 집결하고 1개 대대를 봉명산 북쪽 기슭에 배치하라"는 철수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 명령에 따라 제19연대장은 지곡리로 철수 중인 제3대대장을 무선으로 불러 병력을 수습하는 즉시 봉명산으로 이동하여 우무실 부근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리와 진안리 일대에 분산된 제1대대와 제2대대를 남호리로 집결시키고, 동측방의 제7연대 제3대대를 남호리 일대로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제19연대가 고전하고 있는 동안에 사단의 좌일선인 제2연대는 접적이 없이 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화령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양측방에서 북한군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점차 고립상태에 빠져 들게 되었다. 특히 이화령 서남쪽의 분지리 계곡에 북한군이 출현하여 백화산 쪽으로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 좌측방의 위협은 물론 퇴로마저 차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제2연대장은 633고지에 배치한 제2대대를 분지리와 인접한 갈미봉 서쪽에 재배치하고 제3대대를 이와 연결시켜 북한군의 서측방 위협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9연대 제3대대의 팔령리 철수로 조령 방면이 위기에 놓이자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16일 12시경에 "제2연대는 남호리에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2연대의 철수를 감지한 북한군은 국군의 철수 병력에 타격을 가하고자 포격을 더욱 증강하였다. 이로 인해 제2연대는 상당한 병력손실을 입었지만 최대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문경 서쪽의 잣발산 계곡을 통해 19시경 남호리 일대에 집결하였다.

제2연대가 철수하는 동안 서부전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던 유엔공군의 F-80전폭기 1개 편대가 14시경 이 지역에 처음 출격해 제2연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그러나 유엔공군의 근접항공지원 과정에서 19시경 오인사격이 발생해 10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등 큰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113]

한편 백화산의 제7연대 제2대대는 분지리-황계산을 넘어온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대대의 전 화력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였지만, 북한군의 주력이 갈미봉 동쪽 능선으로 우회해 황계산을 넘고, 일부 병력이 평전치 방면으로도 공격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19시경 제7연대장은 이곳에서 북한군과 대결하는 것보다 3번 도로와 남호리의 집결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서 제2대대를 옥녀봉으로 철수시켜 성주산의 제1대대와 협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북한군의 주력이 이미 평전치-백화산을 지나 성주산 쪽으로 향해 제1대대와 교전 중이었으며, 황계산을 넘은 대대 규모의 북한군도 문경 남쪽의 잣발산 쪽으로 쇄도하여 옥녀봉 북쪽의 방어대책이 시급하였다. 제7연대 제1·2대대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을 무렵인 20시 30분경에 제19연대로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터 배속이 해제된 제3대대가 남호리에 도착하였다. 제7연대장은 제3대대를 곧바로 마원리(남호리 북쪽 2㎞)로 이동시켜 옥녀봉 북쪽 능선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게 하였다.

7월 16일 21시경 문경을 점령한 북한군 제1사단은 3번 도로를 따라 공격하는 대신 성주산과 옥녀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여 국군 제7연대 방어진지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114]

이 무렵 제16포병대대도 각 보병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다가 신현리로 철수하였다. 제16포병대대는 문경역 북쪽 과수원 부근에 포진하여 제1포대가 하초리 일대를, 제2포대가 갈평리 일대를, 제3포대가 이화령 일대를 포격하였다. 그리고 16일 오후에는 제19연대 제3대대가 팔령리 쪽으로 철수하자 제2포대가 이를 엄호하고, 제1포대와 제3포대가 사단의 서측방으로 쇄도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분지리와 백화산 일대에 포격을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16시경 북한군의 82밀리 박격포탄 10여발이 제2포대에 떨어져 김정희 중위를 비롯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보병과 포병이 상호 협조하지 않아 적정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7월 중순의 폭염을 견디지 못한 포병대원들이 철모와 상의를 벗고 포를 조작하다가 머리 및 가슴에 파편 관통상을 입어 피해가 컸다. 제16포병대대는 제2포대의 기능이 마비되고 북한군이 목전에 다다르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신현리(남호리 남쪽 3.5㎞)로 철수하였다.[115]

그리고 사단공병대대는 제2연대가 철수한 후 진안교를 폭파한데 이어 문경으로 넘어오는 아리랑고개에 대전차호를 구축하였다. 또한 공병대대는 각평리에서 문경으로 들어가는 향교다리를 폭파하였으며, 문경이 함락되자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남호리 남쪽의 소야교, 영강의 철교, 진남교 등을 폭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일부병력을 차출해 사단지휘소가 개설될 예정인 점촌의 호서남초등학교를 경비하게 하였다. 그 후 공병대대는 지휘본부와 더불어 점촌으로 이동하여 영강선 방어전을 지원하였다.

한편 문경 정면의 방어진지가 돌파될 무렵인 7월 16일 15시경에 미 제25사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35연대의 특수임무부대(제2대대 F중대, 제79전차대대 A중대 1개 소대, 제90포병대대 A포대)가 국군 제6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남호리로 북상하였다.

그러나 특수임무부대의 F중대가 남호리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국군 제6사단이 문경 이남으로 철수 중에 있었다. 이에 특수임무부대는 F중대를 국군 제19연대 제3대대가 점령하고 있는 봉명산의 좌측방에 급편진지를 편성하게 하고, A포대의 155밀리 야포를 서쪽 도로변에 포진시켰으며, 전차소대를 다시 진남교 남쪽으로 내려 보내 불정리에 대기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특수임무부대는 국군 제6사단의 철수를 화력으로 엄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날 밤 미 포병대와 전차소대는 국군 제6사단의 주력이 철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점촌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봉명산의 미 특수임무부대 F중대는 철수 명령을 받지 못하고 다음날 북한군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고서야 국군 제19연대 제3대대와 더불어 오정산으로 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F중대원 10여 명이 조령천을 건너다가 익사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미 특수임무부대는 문경전투에 참가하였다는 의의만을 남긴 채 병력을 수습하여 상주쪽으로 철수하였다.

2) 점촌 북방의 영강 전투

(1) 국군 제6사단의 영강 방어선 형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화령과 조령에서 물러난 국군 제6사단은 7월 16일 21시에 개최된 작전회의에서 문경을 고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6사단장은 “더 이상 후퇴하느니 차라리 이곳에 뼈를 묻자”는 결의를 표명하고, 남호리에서 병력을 수습하는 즉시 성주산-옥녀봉-봉명산에 이르는 저지진지를 점령하기로 결심하였다. 제6사단장은 성주산-옥녀봉에 제7연대를, 남호리 정면에 제2연대를, 봉명산에 제19연대를 각각 배치한다는 계획을 제2군단 사령부에 보고하고 병력과 화력의 증원을 요청하였다.

군단에서는 국군 제6사단 인접부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제6사단이 현 전선을 고수할 경우 적중에 고립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제6사단의 계획을 유보시켰

다. 국군 제6사단은 일단 진지점령을 중지하고 기동태세를 취한 채 대기하던 중, 7월 17일 01시경 군단으로부터 "영강(潁江)선으로 철수하여 신진지를 편성하라"는 명령을 수령하였다.[116]

이 때 국군 제6사단은 북한군 제1사단과 제13사단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었다. 북한군 제1사단은 문경에서 3번 도로를 따라 유곡쪽으로, 그리고 서측방의 북한군 제13사단은 상괴리에서 은성쪽으로 각각 쇄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군 제6사단으로서는 신속한 이동과 적절한 방어진지 점령이 당면한 문제였다. 18㎞에 달하는 방어정면에서, 그것도 북한군과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 연대의 동시 철수와 동시 진지 점령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더욱이 군단에서 명령한 영강선에 진지를 편성할 경우 영강의 특성상 사단의 좌우 측방이 북한군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컸다.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 제19연대장 민병권 대령, 제16포병대대장 김성 소령, 정보참모 김안일 중령, 작전참모 양중호 중령 등과 숙의한 끝에 다음과 같은 작전개념을 수립하였다.[117]

① 3개 연대를 모두 일선에 전개하여 영강 부근의 주요 고지와 능선에 진지를 점령한다.
② 제7연대는 은성지역을 맡아 좌일선을 방어하도록 하며, 제2연대는 중앙지역의 어룡산을 포함한 강 남안의 돌출 능선을 담당할 것이며, 제19연대는 우일선을 맡아 3번 도로 동쪽의 오정산과 견탄리(犬灘里)를 방어한다.
③ 제16포병대대는 안불정에 포진지를 선정하여 사단을 일반 지원한다.
④ 공병대대는 1개 중대를 제2연대에 배속하되, 사단의 주력이 철수하는 즉시 소야교와 진남교를 우선적으로 폭파한다.
⑤ 기타 지원부대는 일단 유곡으로 집결하여 별도의 명령을 대기한다.[118]

이 작전 개념은 영강선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편성하되, 영강 북안의 옥녀봉과 413고지, 그리고 오정산을 여기에 연결시켜 일자형의 진지를 구축한다는 것이었으며, 병력은 축차로 철수시켜 3개 연대를 모두 일선에 배치한다는 것

이었다.[119]

이에 따라 제7연대 제1대대, 제19연대 제3대대, 미군 F중대의 엄호 하에 사단 지휘부와 제16포병대대가 먼저 유곡리로 출발하고 제2연대, 제7연대, 제19연대 순으로 후속하였다. 철야로 실시된 국군 제6사단의 철수는 17일 05시경에 완료되었는데, 제2연대가 어룡산-378고지에, 제7연대가 옥녀봉-413고지에. 제19연대(-)가 628고지-오정산에, 제16포병대대가 유곡리 부근에 각각 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봉명산에 위치한 제19연대 제3대대와 미군 F중대에는 철수명령이 전달되지 않아 그곳에서 하루를 더 머물다가 17일 오후에 오정산으로 철수하였다.

7월 18일까지 계획한 진지점령이 완료되자 제6사단은 지휘소를 유곡에서 점촌의 호서남(戶西南)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제6사단은 함창중학교에 위치한 군단사령부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방어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날 오후에는

영강과 진남교

제16포병대대가 육군본부의 105밀리 신형포(M-2) 교체계획에 따라 제3포병대대(대대장 박영식 소령)와 임무를 교대하고 대구로 떠났다. 이 무렵 국군 제6사단의 병력은 경찰병력 200명을 포함해 약 6,500명이었다.[120]

이 무렵 국군 제6사단 전투정면의 북한군은 영강을 돌파하려는 기도하에 제1사단이 3번 도로를 따라 신현리 일대에, 제13사단이 문경 서쪽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하여 은성 방면으로 남하, 상괴리 일대에 집결하고 있었다.

(2) 옥녀봉-413고지-424고지 전투

7월 19일 06시경, 북한군은 국군 제2연대와 제7연대의 공간지대를 따라 413고지(왕릉리 동쪽 1㎞)와 어룡산의 2개 방향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증강된 대대규모의 북한군이 413고지 방면으로 공격을 가하고, 2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하내리에서 동쪽으로 우회해 424고지(어룡산 서쪽 1.5㎞)를 공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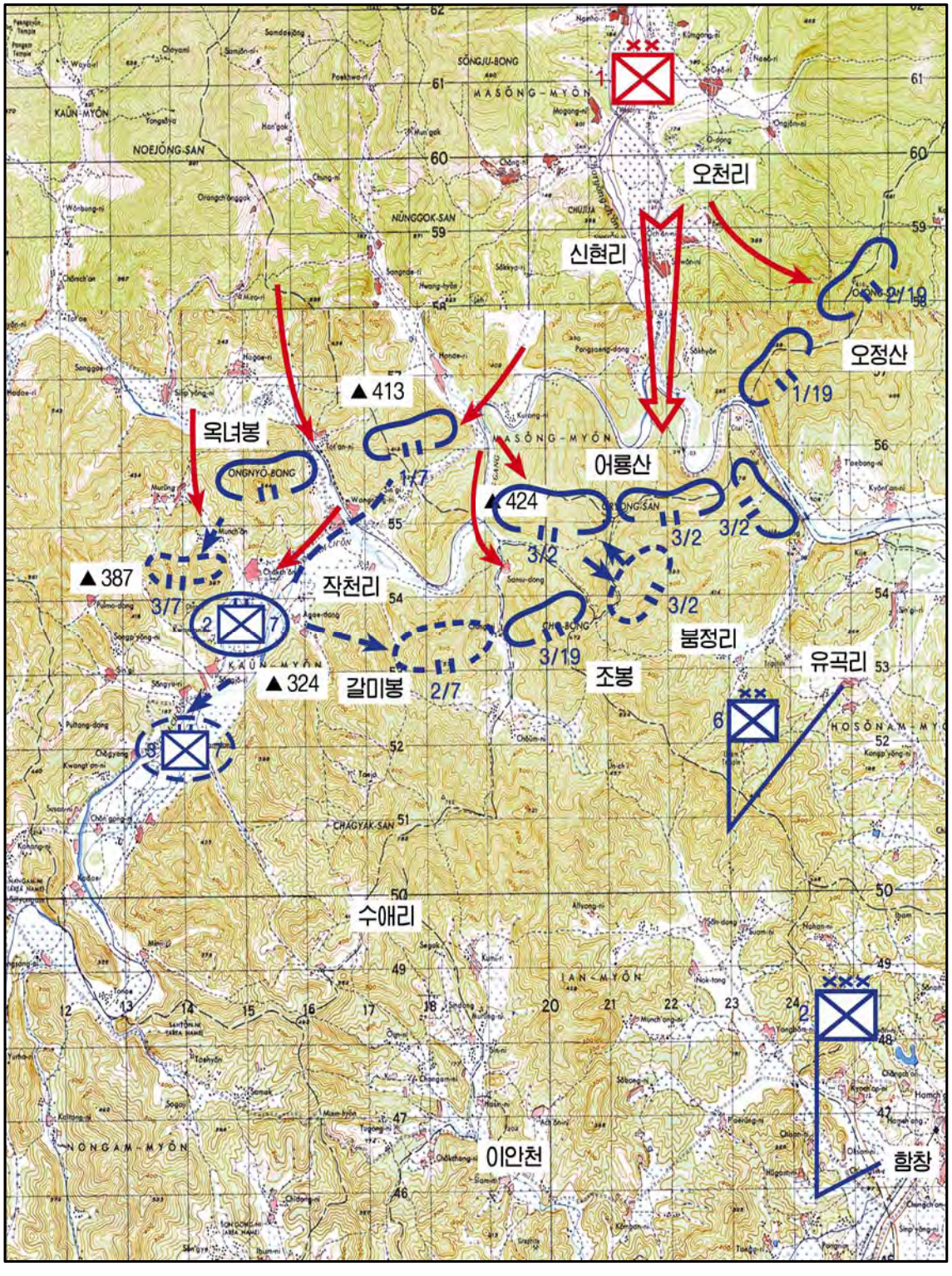
413고지의 제7연대 제1대대는 2시간 가량 격전을 벌였지만 북한군의 병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08시경에 방어진지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북한군이 977번 도로를 따라 우회 침투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제7연대장은 북한군의 영강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예비로 작천리에 집결하고 있던 제2대대를 갈미봉으로 이동시키고, 제1대대를 413고지에서 철수시켜 성저리에 집결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무렵 유곡 남쪽의 공평리에서 추진된 포병대대의 제2포대가 무릉리(갈미봉 남쪽 5㎞)에 포진지를 구축하고 12시경부터 413고지 일대에 포격을 시작하였다.

한편 424고지로 공격한 2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은 공격 개시 2시간 만에 제2연대 제3대대에 의해 하내리 방면으로 격퇴되었다. 국군 제6사단장은 연대예비대를 보유하지 못한 제2연대의 전투력을 보강하기 위해 이날 09시경에 봉명산에서 철수한 제19연대 제3대대를 제2연대에 배속시켰다. 제2연대장은 제7연대와의 공간지대를 메우기 위해 제19연대 제3대대를 조봉에 배치하였다.[121]

413고지를 점령한 북한군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14시경에 국군 제7연대 제3대대가 위치한 옥녀봉을 3개 방향에서 포위공격하였다. 옥녀봉은 977번 도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11> 영강 부근 전투(1950. 7. 17~22)



축선상의 요충으로, 만일 이곳이 돌파되면 농암(함창 서쪽 15㎞)과 사곡(함창 서쪽 8㎞)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방되어 국군 제6사단의 서측방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제3대대는 3시간 동안의 격전을 치루면서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1차 공격에 실패한 북한군은 7월 20일 05시 30분경부터 포병의 강력한 화력지원 하에 연대 규모의 병력을 옥녀봉에 재투입하였다. 북한군은 30분 동안에 걸쳐 옥녀봉 일대에 포격을 집중한 후, 06시를 기해 은성천 부근의 개활지를 건너 무두실 방면에서 공격을 감행하였다.[122)]

옥녀봉 동쪽의 977번 도로 축선에 화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던 제7연대 제3대대는 무두실 계곡을 통한 예상 밖의 북한군 공격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2시간 30분가량의 치열한 교전에도 불구하고 08시 30분경 작천리 계곡이 북한군에게 송두리째 노출되었다. 상황을 보고받은 제7연대장은 성저리에 집결해 있던 제1대대를 무두실 계곡으로 투입해 역습을 감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가 무두실 계곡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전세가 크게 기울어 북한군의 화망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때부터 제1대대는 옥녀봉의 서측방에서, 제3대대는 그 우측방에서 북한군과 5시간 동안 혈투를 벌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1대대는 세 차례의 역습을 감행하였지만 모두 무위로 끝났으며, 제3대대는 혼전 중에 40여 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이에 더하여 14시경 유엔공군의 F-80전폭기 1개 편대가 옥녀봉의 국군을 북한군으로 오인해 공격함으로써 제3대대 관측소가 파괴되고 중앙일선의 제10중대 진지에서 일대혼란이 야기되면서 제3대대 진지가 돌파될 위기에 이르렀다.

제7연대장은 더 이상 옥녀봉 사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서 제1대대와 제3대대를 각각 성저리의 324고지와 작천리의 387고지로 철수시켜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게 하였다. 제7연대는 20일 17시경 387고지-324고지-갈미봉에 이르는 선에 새로운 방어진지 편성을 완료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도 옥녀봉을 탈취한 후 부대를 재편성 하는 듯 제7연대의 진지 편성을 방해하기 위해 간간히 포병사격만을 가할 뿐 더 이상의 진출을 시도하지 않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387고지-어룡산-진남교 공방전

북한군은 7월 21일 02시부터 387고지와 어룡산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포병과 전차를 동원해 국군 제6사단 전 정면에 걸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387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북한군은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해 08시까지 6시간 동안에 걸쳐 반복공격을 시도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1개 대대 병력을 추가로 투입해 우회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격은 제7연대 제3대대가 387고지에서 혈투를 벌이는 사이에 제1대대의 1개 중대가 성저리에서 동쪽으로 우회 공격하고, 제3포병대대 제2포대의 지원사격이 강화되면서 09시경에 일단락되었다.

제3대대가 북한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 농암리 부근에 위치한 제7연대 지휘소에는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곳은 전방진지와 7㎞ 떨어진 후방으로서 연대본부 병력들만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날 03시경에 200여 명의 북한군이 기습공격을 가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화령장에서 남하한 북한군 제15사단 제48연대의 선두부대로서 함창에 이르는 진출로를 탐색하다가 이곳에서 연대본부 병력과 조우하게 되었던 것이다.[123] 연대지휘소 경계를 맡고 있던 대전차포 중대원들이 3시간 동안의 격전 끝에 이들을 상율리(농암리 남쪽 1.5㎞) 계곡으로 물리쳤지만, 사단의 서쪽 측후방 경계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사단에서는 농암리-함창간의 도로 경계를 위해 경찰병력 200명을 문암리(농암리 동남쪽 6㎞)로 급파하였고, 제7연대에서도 대전차포 중대를 상율리에 배치하였다.[124]

제7연대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 어룡산의 제2연대 지역으로는 03시경에 2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하내리 부근에서 영강을 건넌 후 424고지의 계곡을 이용해 어룡산 서측방으로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제2연대장의 요청에 따라 한작골(유곡 남쪽 500m)과 아천리(함창 서쪽 6㎞)에 각각 위치한 제3포병대대의 제1, 제2포대가 동시에 포문을 열어 진전으로 다가서는 북한군에게 집중포격을 가하였다.[125] 이와 더불어 제2연대 제3대대의 최후방어사격으로 인해 북한군은 영강 부근으로 철수하였다. 이들은 영강 남안에서 병력을 연대 규모로 증강한 후 05시를 기해 어룡산을 포위 공격하였다. 제2연대 제3대대는 40분 동안에 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쳐 총검을 주고받는 백병전을 벌였으나 2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583고지 부근으로 물러났다. 어룡산을 점령한 북한군은 조봉을 목표로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였지만, 이 고지를 방어하던 제19연대 제3대대가 사단으로부터 시기적절한 포격지원을 받아 이들을 물리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

조봉에서 제19연대 제3대대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자 제2연대장은 어룡산을 탈환하기로 결심하고 07시경 제3대대에게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5시간에 걸쳐 역습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룡산을 탈환하지 못하던 제3대대는 12시경 유엔공군의 F-80전폭기 1개 편대가 어룡산을 폭격하여 북한군을 일시 무력화시키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역습을 감행해 13시경 어룡산을 탈환하였다.[126]

한편 북한군 제1사단의 주공이 지향된 3번 도로상에서는 7월 21일 06시경에 연대 규모의 북한군이 4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신현리에서 도로를 따라 진남교 부근으로 진출해 영강 도하를 시도하였다. 이들은 제2연대 제1·2대대의 저지사격과 제3포병대대 제1포대의 집중 포격에도 불구하고 영강을 도하해 그 선두부대의 일부가 문경탄광 부근까지 접근하였다.

사단 방어정면의 중앙이 돌파될 위기에 처하자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군단에 155밀리 야포와 항공지원을 긴급히 요청하였다. 제2군단장 유재흥 준장은 미 제25사단장 킨(Willian B. Kean) 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야포와 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80전폭기 1개 편대가 출격해 진남교, 석현리, 문경탄광 일대에 폭격과 기총소사를 가하여 북한군을 무력화시켰다. 이에 더하여 미 제79전차대대 A중대 소속의 전차 3대와 점촌 서쪽의 양지마을에 추진된 미 제90야포대대의 A포대가 제2연대를 화력 지원하였다.[127] 미군으로부터 화력지원을 받은 제2연대는 11시 30분경 북한군을 격퇴시켰다.

이 무렵 영강 동북쪽 628고지-오정산 간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19연대는 7월 21일 07시경 오천리(오정산 북쪽 1.5㎞) 계곡과 신현리 계곡으로 침투한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3시간 만에 이를 물리쳤다. 이후 이 지역의 북한군은 제2연대 정면에서 그들의 주력이 고전하자 더 이상 재공격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섰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날(21일) 국군 제6사단이 영강방어선에서 북한군 제1사단과 격전을 치르고 있을 때에 윤춘근 중령이 지휘하는 수도사단 제1연대가 제6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함창에 도착하였다. 제1연대는 고은리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하다가 국군의 전선조정 계획에 따라 동부전선으로 이동하던 중 7월 19일 16시부로 제2군단에 배속되어 이날(21일) 16시경 함창에 도착하였다.[128] 제2군단에서는 작전명령 제3호(1950. 7. 22)로써 제1연대를 제6사단에 배속시켰다.

(4) 어룡산-오정산 방어진지 피탈

7월 22일 이른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북한군 제1사단은 어룡산과 오정산을 탈취하기 위해 2개 방향으로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2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은 이날 04시에 어룡산의 가파른 능선을 타고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어룡산에 위치한 제2연대 제3대대는 예상치 못한 북한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교전 1시간도 못되어 고지를 상실하고 583고지로 물러났다.

어룡산 정상에서 바라본 문경

어룡산을 탈취한 북한군은 그 여세를 몰아 제19연대 제3대대가 방어 중인 조봉으로 쇄도하였다. 제19연대 제3대대는 진전까지 접근한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 끝에 10시경 북한군을 격퇴하고 조봉을 고수하였다.

어룡산과 조봉에서 교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서쪽의 제7연대는 제3대대를 투입해 옥녀봉을 탈환하기로 계획하였다. 제7연대 제3대대는 05시를 기해 옥녀봉 공격을 개시하여 07시경 고지를 탈환하고 북한군을 하괴리 쪽으로 격퇴하였다. 그러나 1시간 후 북한군이 역습을 감행해 또다시 고지쟁탈전이 전개되었으며, 이후 옥녀봉을 두고 피아간에 뺏고 빼앗기는 혈전이 벌어졌다. 결국 제3대대는 13시에 연대장의 철수명령에 따라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이 전투에는 대전에서 편성된 학도의용군 제1진 180명이 7월 21일 오후 점촌에 도착하여 그 중 일부가 참가하기도 하였다.

한편 신현리 계곡에서 오정산의 서측방으로 침투한 북한군은 1개 대대 병력으로 제19연대 제2대대의 좌일선인 제6중대 진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견탄리로 진출하고자 했다. 제6중대는 백병전을 전개하면서 고지를 사수하고자 했으나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교전 2시간 30분 만에 진지를 포기하고 견탄리 쪽으로 분산 철수하였다.[129] 당시 제19연대는 1개 대대가 제2연대에 배속되어 예비대가 없었기 때문에 적시에 역습을 감행하지 못하고 집중화력으로서 돌파구 확장을 방지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09시경 제19연대는 사단에서 지원된 공병대대 제3중대(중대장 임수일 대위)와 예하의 제1대대 제2중대(중대장 황종구 중위)를 차출하여 역습을 감행, 4시간 동안에 걸친 공방전 끝에 제6중대 진지를 탈환하고 628고지-오정산 간의 진지를 다시 연결하였다.[130]

제7연대는 이날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1연대와 진지를 교대하고 20시에 성저리를 거쳐 함창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제7연대는 옥녀봉과 387고지에서 4일 동안의 격전을 끝내고 사단 예비로 전환되었다.

제7연대의 진지를 인수한 제1연대는 324고지-갈미봉에 제2·제1대대 순으로 배치하고, 제3대대를 사단예비로 점촌에 집결 대기시켰다. 그리고 492고지-760고지 일대에 새로운 경계진지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제6사단은 영강 북쪽의 옥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봉과 387고지를 포기하고 영강 남쪽의 진지를 서남쪽으로 더욱 연장하여 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131]

3) 전선 정비와 유곡리 부근 전투

(1) 조봉의 피탈과 국군 제6사단의 전선정비

문경에서 점촌으로 이어진 3번 도로는 사단 작전지역내에서 기계화 부대가 기동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로써 공격 및 방어상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보전협동부대를 투입하여 3번 도로를 장악하고자 하였으며, 반대로 국군과 미군은 제6사단 제2연대와 미 제79전차대대 A중대로 하여금 북한군의 공격을 막고자 하였다.

7월 23일 05시경, 북한군 제1사단은 국군 제6사단의 중앙방어선을 돌파하려고 2개 방향에서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 공격은 북한군이 3번 도로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군의 보전협동부대는 전차 7대를 동원해 진남교까지 진출한 후 교량 상류 쪽에서 영강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영강 남안에 배치된 국군 제2연대의 대전차포중대와 미군 T-24전차 3대, 그리고 미군의 155밀리 야포까지 합세하여 집중포격을 가하였지만 북한군 전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강을 도하한 후 문경탄광 방면으로 기동하였다. 북한군 전차에 대적할 수 없었던 미군 T-24전차 3대는 유곡 쪽으로 철수하고, 뒤이어 대전차포중대마저 분산됨에 따라 북한군의 선두부대는 국군 제2연대 제1대대의 진전으로 밀려들었다.

제2연대 제1대대는 우선 북한군 전차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화기중대의 81밀리 박격포를 3번 도로 주변에 추진시켜 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 중화기중대의 공격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중화기중대는 북한군 전차로부터 공격을 받아 박격포마저 유기한 채 분산되고 말았다.

북한군 전차 4대가 외불정(탄광촌 남쪽 1㎞)을 통과한 후 07시경에 북한군 보병 2개 대대가 국군 제2연대 제1대대 진지와 583고지의 제3대대 진지를 위협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였다. 제2연대 장병들은 북한군과 혈투를 벌였지만 09시경에 제19연대 제3대대가 담당하고 있던 조봉이 피탈되면서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빠졌다. 조봉의 제19연대 제3대대는 23일 05시에 불정리 계곡과 저음리 계곡의 양 방향에서 공격해 온 북한군과 백병전을 벌이면서까지 고지를 사수하고자 했으나 전투력의 열세로 인해 끝까지 진지를 지탱하지 못하고 09시경에 각개 분산하여 은점재-651고지 선으로 물러났다.[132] 이로써 제19연대의 전 방어지역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봉과 기동로인 불정리 계곡이 북한군에게 장악됨으로써 국군 제6사단은 새로운 위기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조봉의 피탈로 인해 제2연대의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자, 국군 제6사단장은 제2연대를 유곡리로 철수시키고 사단예비로 전환되어 함창에 집결 중인 제7연대를 점촌 북방으로 이동시켜 제2연대의 철수를 엄호하게 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게 하였다. 이때가 23일 10시경으로써 전선이 돌파된 지 1시간 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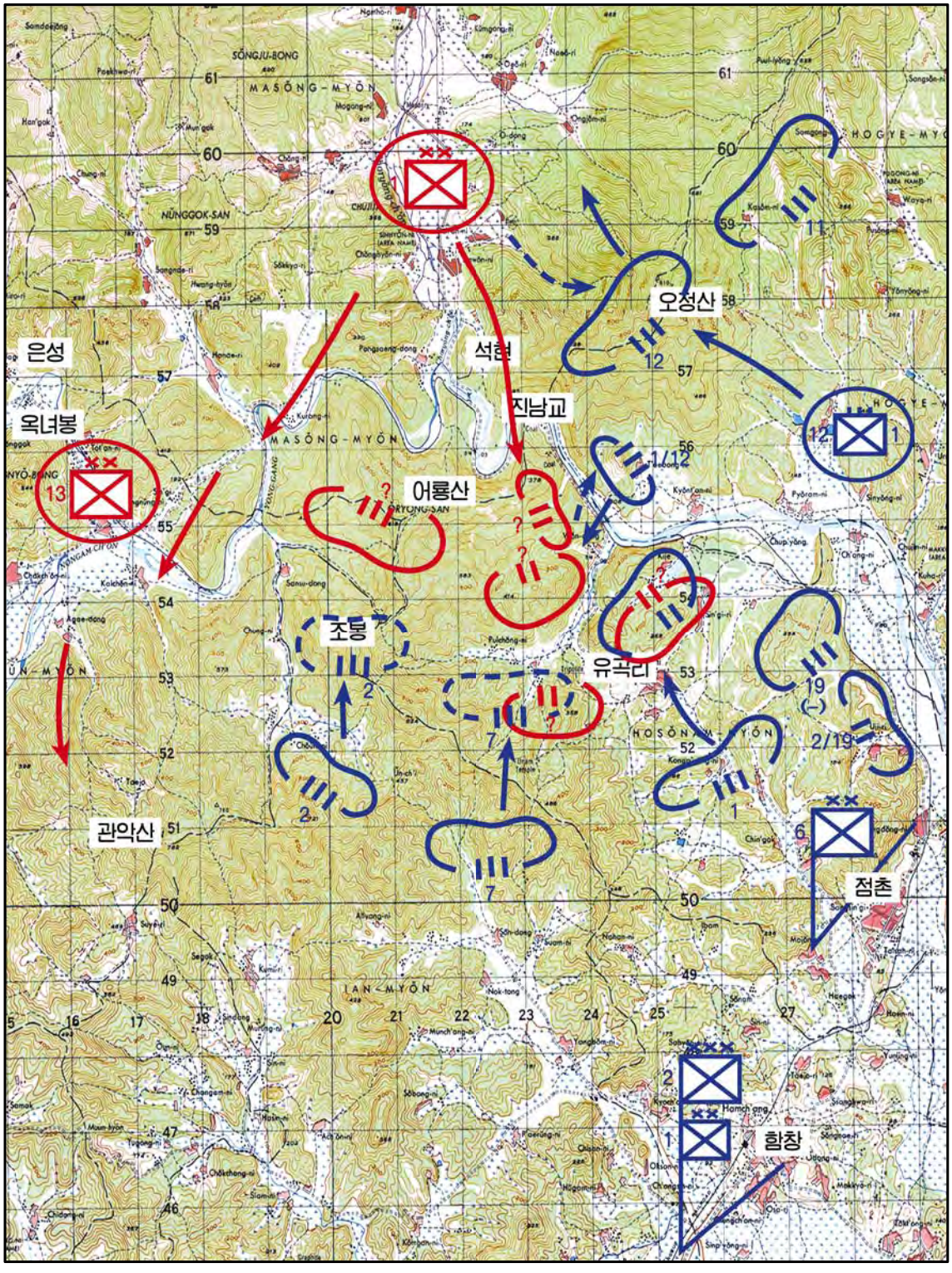
제7연대는 사단 예비로 전환되어 서측방의 진지에서 물러난 지 14시간 밖에 되지 않아 부대정비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즉각 유곡리로 이동하였다. 제7연대는 제2대대를 358고지에, 제1대대를 267고지에 각각 배치하고, 제3대대를 연대예비로 공평리 부근에 집결시켰다. 제7연대는 사단 공병대대와 미 전차중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3번 도로 축선으로 지향한 북한군과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무렵 원동(유곡리 북쪽 3㎞) 부근까지 진출한 북한군은 유엔공군의 폭격으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어룡산-불정산(△378) 선에서 부대 재편성에 들어갔다. 그동안 국군 제2연대는 유곡리로 집결하여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현 전선을 제7연대에 인계하고 조봉 남쪽의 651고지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제2연대는 제19연대 제3대대의 진지를 인수하고 조봉 탈환을 위한 반격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제19연대 제3대대는 이날(23일) 24시부로 배속이 해제되어 원대로 복귀하였다.[133]

이와 같이 사단의 중앙방어선이 돌파되어 제2연대가 3㎞ 후방으로 물러나게 되자, 사단의 좌일선인 제1연대와 우일선인 제19연대도 각각 492고지-760고지와

<상황도 4-12> 유곡리 부근 전투(1950. 7. 23~27)



신기리-우지리 선으로 물러났다. 324고지-갈미봉 간의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1연대는 7월 23일 11시에 사단장으로부터 2㎞ 후방인 492고지(문창리 서쪽 고지)-760고지(작약산 북쪽 고지) 간의 새로운 진지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14시경에 제1대대를 492고지에, 제2대대를 760고지에 각각 배치하였다. 제19연대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21시에 철수를 개시하여 24일 01시까지 제1대대를 신기리에, 제2대대를 우지리에 각각 배치하고 5㎞에 이르는 방어정면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19연대는 24일 03시에 제2연대에서 배속이 해제되어 복귀한 제3대대를 연대예비로 점촌에 집결하게 하였다.[134]

이로써 국군 제6사단은 대체적으로 492고지-760고지-651고지-267고지-신기리-우지리 간의 반월형 진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2) 국군 제6사단의 반격과 북한군의 역공격

국군 제6사단은 7월 23일 밤이 늦도록 피탈된 조봉과 불정산(△378)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회의를 개최하였다. 사단장은 이 자리에서 관계 참모들의 보고를 청취한 후 7월 24일 06시를 기해 제2연대와 제7연대를 각각 조봉과 불정산 공격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일부 진지를 조정하였다.[135]

조봉 탈환 임무가 부여된 제2연대는 조봉 일대의 협소한 기동공간을 고려해 제3대대를 선두제대로, 제1대대를 후속제대로 하여 반격을 하기로 계획하였다.[136] 제2연대는 06시에 포병의 지원사격하에 공격을 개시해 조봉에 배치된 북한군과 7시간에 걸친 일진일퇴의 공방전 끝에 13시경 조봉을 탈환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2연대는 약 300명의 북한군을 사살하고, 각종 소화기 128정, 기관총 18정, 실탄 3,500여발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린 반면에 70명의 인원 손실을 보았다.

조봉을 탈환한 제2연대는 제1대대와 제3대대를 조봉에 배치하고, 연대예비인 제2대대를 조봉의 동북쪽으로 진출시켜 583고지를 탈환하게 하였다. 15시 40분경에 조봉을 넘어 초월공격에 나선 제2대대는 어룡산에 배치된 대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2시간 가량 교전을 벌이다가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조봉 남쪽으로 철수하였다.[137] 이후 밤이 깊어갈 무렵 수 미상의 북한군이 조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을 공격해 자정무렵까지 피아간에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제2연대는 주야간 연속된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2㎞에 이르는 조봉 일대를 완전히 탈환하지 못하고 정상 일부만을 확보한 채 북한군과 대치상태에 들어갔다.[138]

한편 불정산 탈환 임무를 부여받은 제7연대는 3번 도로 동쪽의 267고지를 제19연대 제2대대에게 인계하고, 그 서측의 358고지를 제2대대가 확보하는 가운데 제1·제3대대가 역습을 시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7연대는 제1대대가 583고지를, 제3대대가 414고지를 탈환한 후 양측방에서 378고지를 탈환한다는 목표 하에 06시를 기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10시 30분경에 이르러 제3대대는 중간목표인 414고지를 탈환했으나 제1대대는 적진을 돌파하지 못하고 대대 규모의 북한군과 사격전만 되풀이하였다.

이 무렵 원골에서 남하한 북한군의 공격으로 우측의 제19연대가 밀리게 되면서 제7연대의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빠졌다. 267고지의 제19연대는 07시에 2대의 전차를 앞세운 대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10시경에 진지가 돌파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제7연대의 불정산 공격을 중지시키고 원위치로 복귀시켰다. 제7연대는 즉시 병력을 철수시켜 제3대대를 358고지에 배치하고 제1대대를 한적골에 집결시켰다.

267고지의 제19연대는 12시경에 출현한 F-80전폭기 2개 편대의 항공지원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고지를 사수하였다. 그 후 제19연대는 15시경에 사단장으로부터 "267고지 부근의 진지를 제1연대에 인계하고 사단의 동측방 진지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았다. 명령을 받은 제19연대는 17시까지 267고지를 제1연대 제2대대에게 인계하고, 제2대대를 우지리 일대에, 연대 예비로 점촌에 위한 제3대대를 북상시켜 제1대대와 함께 227고지 전방의 영강 차안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로써 제19연대는 돌모산-신기리-227고지-우지리를 연해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한편 유곡리 정면으로의 북한군 공격이 강화되자 국군 제6사단장은 3번 도로 축선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여 북한군과 정면대결을 벌이기로 결심하고 제1연대의 2개 대대를 358고지-267고지로 이동시켰다. 15시경에 사단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제1연대장은 제2대대와 제3대대를 유곡리 정면으로 추진하여 17시까지 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지편성을 완료하였다.[139] 제1연대 제3대대는 제7연대 제3대대의 진지를 인수하여 358고지에, 제2대대는 제19연대 제1대대 진지인 267고지를 점령하여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제1연대(-)가 358고지-267고지로 이동할 무렵 좌인접인 제7연대가 651고지-358고지 서측방에 이르는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고 우인접인 제19연대가 돌모산 북쪽 능선까지 진지를 연장함으로써 유곡리 정면에 국군 3개 연대가 배치되어 3번 도로로 남하하는 북한군 제1사단을 저지하게 되었다.

제1연대 지역으로는 이날 21시에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267고지 서측방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지만 제2대대가 이들을 원골 부근으로 격퇴하였다. 그리고 24시에는 492고지-760고지의 제1대대가 제5연대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연대에 복귀하자 제1대대를 공평리의 연대지휘소 부근에 집결시켜 연대 예비로 하였다.[140]

(3) 국군 제6사단의 전선 재조정과 국군 제1사단의 증원

7월 25일 북한군 제2군단(군단장 김무정 소장)은 제13사단까지 동쪽으로 이동시켜 국군 제6사단 방어정면의 중앙지대를 돌파하고자 집중공격을 감행하였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봉에서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고 3번 도로 축선에서도 쌍방간에 공방전이 반복되었다.

02시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조봉의 제2연대 제1·3대대는 2시간만에 고지를 상실하고 은점재 부근으로 철수하였지만, 05시 포병의 지원사격하에 제2연대의 예비인 제2대대가 역습을 감행하여 07시에 조봉을 탈환하였다.[141]

이 때 3번 도로 상에서는 제19연대 대전차특공대가 원골-유곡리 쪽으로 남하하던 북한군 전차 4대를 돌모산 기슭에서 매복 공격해 파괴하였다. 제19연대 제3대대 보급관인 박노봉 중위의 지휘하에 7명으로 구성된 대전차특공대는 때마침 이루어진 항공지원과 57밀리 대전차포중대의 지원 사격으로 북한군 전차 4대를 파괴할 수 있었다.[142]

돌모산 서쪽에서 유엔공군의 항공폭격과 제19연대 대전차특공대의 기습 공격을 받아 원골 쪽으로 물러선 북한군은 이날 10시에 또다시 3번 도로를 따라 26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지 방향으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267고지의 제1연대는 22시경까지 북한군과 치열하게 고지쟁탈전을 전개했지만 끝내 진지를 고수하지 못하고 유곡리 남쪽의 장승백이 부근으로 철수하였다.[143]

국군 제6사단은 이날(25일) 조봉을 탈환하고 북한군의 전차를 파괴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지만 3번 도로상의 요충인 유곡리를 상실함으로써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7월 26일, 국군 제6사단은 3번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제7연대와 제19연대를 각각 수창봉(△487)과 227고지 일대로 이동시켜 제1연대 진지와 연결시켰다.

한편 국군 제6사단이 영강선의 주저항선에서 수창봉(△487)-227고지 선으로 물러나 북한군과 대치 중이던 7월 26일 16시에 제1사단(사단장 백선엽 준장)이 함창에 도착하였다. 제2군단장은 현 상황의 위기에 대처하고 3번 도로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사단을 군단의 서측방으로 투입, 전선의 일부조정을 단행하였다. 즉 조봉을 중심으로 동쪽은 국군 제6사단이 담당하고, 그 서쪽은 제1사단이 담당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6사단은 방어정면이 9㎞로 축소되었으며, 제1사단은 제5연대를 배속받아 함창 서북쪽의 이안면 일대를 담당하게 되었다. 함창의 서북쪽 측방을 담당하게 된 국군 제1사단은 이날 해질 무렵에 제5연대를 제13연대와 교대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밤부터 국군 제1사단은 제13연대(연대장 최영희 대령)가 함창 서북쪽의 212고지-366고지를 점령하고, 제11·제12연대가 차후 임무수행에 대비하였다.[1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낙동강 방어선으로의 철수

제2군단장 유재흥 준장은 군단의 전투력이 증강되자 7월 26일 야간에 함창으로 집결한 국군 제1사단으로 하여금 영강 동측방으로 우회하여 북한군 제1사단의 전투력을 와해하고 이를 포위하기 위해 북한군의 전선 배후를 공격하게 하였다.

국군 제1사단장은 제11연대와 제12연대를 함창-점촌을 거쳐 영강 동쪽의 금룡리(점촌 동쪽 2㎞)와 막곡리(점촌 동북쪽 5㎞)에 각각 추진 배치한 후 26일 06시

를 기해 일제히 반격을 개시하게 하였다.

막곡리에서 서북진한 제12연대(연대장 박기병 대령)는 오정산을 향하여 약진한 끝에 2시간 동안 북한군과 격전을 벌여 이날 08시에 제3대대가 오정산을, 제2대대가 견탄리를 넘어 628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리고 금룡리에서 약진한 제11연대는 이보다 1시간 후인 09시에 제1대대와 제2대대가 부운령을 탈환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사단은 북한군 제1사단의 집결지로 알려진 신현리와 오천리 일대를 한눈에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

오정산-부운령까지 진출한 국군 제1사단(-)은 반격을 일단 멈추고 북한군의 역습에 대비한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날 18시경에 사단에서는 부운령의 제11연대에 함창으로 복귀하라는 긴급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은 군단의 지시에 따른 사단장의 긴급 조치로써 이는 국군 제1사단이 반격에 나선 시간과 거의 같은 무렵에 북한군 제13사단 예하의 제21연대가 함창 서북쪽으로 우회하여 국군 제1사단 제13연대 정면으로 진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12연대만은 계속해서 오정산을 확보함과 아울러 제6사단 정면의 북한군을 배후에서 공격하게 하였다. 제12연대는 제1대대를 투입해 북한군 집결지로 알려진 유곡리 북쪽의 원골을 기습 공격하는 등 북한군의 배후를 위협하였다.[145)]

국군 제1사단의 공격과 더불어 국군 제6사단도 27일 07시부터 반격에 나서 제2연대가 조봉을, 제7연대가 358고지를, 제1연대가 267고지를 각각 탈환하였으며, 제19연대도 신기리까지 진출하였다. 267고지의 제1연대는 이날 밤 20시 40분에 군단으로부터 "제1연대는 제6사단으로부터 배속을 해제한다. 함창으로 집결하는 즉시 안동에 위치한 수도사단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수령하였다. 제1연대는 탈환한 267고지를 제19연대에 인계하고 함창으로 출발하였다. 이로써 제1연대는 7월 22일 군단작명 제3호에 의거 제6사단에 배속되어 6일간의 전투를 수행한 후 비로소 이날 원대로 복귀하게 되었다. 제6사단은 3번 도로 축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1연대의 철수와 동시에 사단 공병대대의 1개 중대를 267고지 서쪽 도로 부근에 배치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7월 28일에도 어룡산과 414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반격에 나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지만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제2연대 제3대대만이 어룡산 남쪽의 583고지를 점령하고 다른 부대들은 원대로 복귀하여 북한군의 동태를 감시하면서 진지보강에 임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 제2군단은 제1사단이 문경-점촌-함창 축선으로 진출하는 데 실패하자 국군 제6사단과의 정면대결을 피한 채 석현(문경 동남방 8㎞) 일대에서 방어로 전환하게 하였으며, 대신 북한군 제13사단을 함창 서북쪽으로 투입해 상주 방면으로 진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제6사단이 담당하고 있던 점촌 북방 지역에서는 이후 큰 전투가 전개되지 않았다. 국군 제6사단은 7월 31일 오후에 미 제8군사령부로부터 직접 "제6사단은 용기동으로 집결하라"는 철수명령을 수령하고 18시에 지휘부가, 23시에 제2연대와 포병대대가, 24시에 제7연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1일 02시 20분에 제19연대가 각각 용기동을 향해 출발하였다. 이때 국군 제6사단의 집결 병력은 5,727명으로 개전 초기에 비해 1/3가량이 줄어든 상태였다.[146)]

3. 전투결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6사단은 7월 17일 01시에 영강방어선으로 철수를 개시하여 진지마저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채 7월 19일부터 전투력이 월등히 우세한 북한군 제1·제13사단과 맞서 8일 동안 격전을 벌였다. 비록 7월 26일에는 3번 도로의 요충인 유곡리마저 상실하는 중대고비를 맞게 되었지만, 국군 제1사단의 시기 적절한 증원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후 국군 제6사단은 함창 동북쪽의 조봉-358고지-267고지-신기리-227고지 선을, 국군 제1사단은 함창 서북쪽의 국사봉-212고지-366고지 선을 점령하여 함창-상주 방면으로 진출을 기도하는 북한군 제1사단과 제13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따라서 7월 28일 이후에는 좌일선인 국군 제1사단이 함창 서북쪽에서 북한군과 대결하게 되고 국군 제6사단 지역에서

는 차차 포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풍기-점촌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약 1,000명 다다르는 병력 손실을 입을 만큼 치열한 전투를 벌여 북한군의 점촌-함창 진출을 저지하였다. 공산군측 문서에 의하면, 북한군도 이 전투에서 병력 40%, 자주포 및 차량 50% 등 병력과 장비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군 제6사단은 북한군 제2군단이 함창-상주-대구 축선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북한군의 남진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으며, 반대로 국군에게는 중동부전선의 제1, 제2군단의 재편성을 단행하여 전력을 정비한 후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해 공세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풍기-안동 전투

1. 전투 개요

풍기-안동 전투는 국군 제8사단이 중앙선 축선을 따라 남진하는 북한군 제8·제12사단과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풍기-영주-안동 일대에서 치른 방어전투이다.

국군 제8사단은 풍기로 철수한 다음날인 7월 13일 풍기분지에 살상지대를 형성하고, 14일에 공격을 개시한 북한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여 이를 격퇴시켰다. 이로 인해 북한군 제12사단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부대정비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어 강릉에서 증편된 제8사단이 제12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중·동부전선을 책임진 북한군 제2군단은 안동 점령이 계획보다 지연되자, 제8사단을 문경-예천 방면으로 투입해 국군 제8사단을 협공하게 하였다.[147]

이에 맞선 국군 제8사단은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열세했지만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과감하게 공세적인 방어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풍기-영주 일대에서는 쌍방간에 일진일퇴가 거듭되는 공방전이 계속 되었다. 그러나 영주 정면과 예천 방면으로 우회한 북한군으로부터 협공을 받게 되자 국군 제8사단은 7월 24일 옹천-안동 지구로 철수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24일 밤에 내성천 방어선을 형성하고 3일간 북한군과 대치하였다. 이후 28일 새벽 내성천 방어선이 돌파되자 제8사단장은 옹천-안동 간에 2개의 방어선을 설정하고 축차적으로 지연전을 펼치며 북한군을 저지하였다.

한편 이 무렵 지연작전 초기부터 중부전선을 담당했던 국군 제1군단이 7월 25일을 기해 안동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군단예비로서 21일에 수도사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보은에서 안동으로 이동하였다.[148] 안동읍에 위치한 수도사단은 28일에 원대 복귀한 제1연대를 풍산에 배치하였다가 31일 안동읍 뒷산(북쪽)에 재배치하여 제8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7월 31일 오후 국군 제1군단은 육군본부로부터 낙동강-반변천 남안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때 국군 제1군단은 이에 대한 작전명령을 예하부대에 너무 늦게 하달한 탓으로 제8사단과 수도사단간에는 철수와 엄호에 관한 협조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양개 사단은 8월 1일 새벽에 북한군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철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대혼란이 야기되었다.

더욱이 철수부대의 주력이 안동교를 미처 건너기도 전에 안동교가 폭파됨으로써 낙동강 북쪽의 3개 연대는 도섭과정에서 북한군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아 수없이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특히 제16연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장교 21명, 사병 814명이 전사 또는 실종되는 손실을 입었다.

이후 도하 철수를 완료한 제8사단과 수도사단 병력은 군단명령에 따라 낙동강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구미동-상아동에 이르는 낙동강 방어선 진지로 철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전투경과

1) 풍기-영주 전투

(1) V자형 진지 편성

7월 12일 저녁, 죽령 선에서 물러선 국군 제8사단은 풍기초등학교에 집결해 부대 정비에 들어갔다. 이 때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북한군 제12사단과 정면대결로 일관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불리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개활지로 이루어진 풍기에서 적을 유인, 격멸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국군 제8사단은 7월 12일 자정 무렵, 사단 내의 모든 차량을 동원해 풍기-영주간의 도로를 왕복 운행하게 하면서 갈 때에는 전조등을 켜고 복귀할 때에는 전조등을 끄는 방식으로 북한군에게 국군이 풍기에서 철수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그리고 7월 13일 이른 새벽에 풍기를 중심으로 제10연대(연대장 고근홍 중령)와 제21연대(연대장 김용배 중령)를 V자 형태로 배치하고, 그 중간지대에 사단의 전 화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149] 이때 제10연대는 제2대대(대대장 정순기 대위)를 장군봉 일대에, 제1대대(대대장 박치옥 소령)를 426고지 일대에, 제3대대(대대장 김순기 대위)를 연대 예비로 971고지(풍기 서남쪽 6㎞)에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21연대는 제1대대(대대장 윤태현 소령)를 258고지 일대에,[150] 제2대대(대대장 박영섭 대위)를 377고지 일대에, 제3대대(대대장 이창률 소령)를 연대예비로 309고지에 각각 배치하였다.[151] 그리고 7월 10일 청풍지구에서 철수한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제21연대 제7중대(중대장 김성빈 대위)가 제9중대와 더불어 예천에 집결 대기 중이라는 상황이 13일 사단에 보고되자 제8사단장은 사단사령부 요원으로 편성된 1개 중대를 예천에 파견하여 제21연대 제7중대장으로 하여금 3개 중대로 예천혼성대대를 편성하게 하였다.[152] 경찰병력을 포함해 500여 명으로 구성된 예천혼성대대는 노상동 부근 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1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무렵 북한군 제12사단은 단양전투에서 입은 병력의 손실을 보충하고 부대 재정비를 위해서 장촌리 부근에 주둔 중이었다. 이 때 충주 방면으로 공격하던 제31연대가 7월 13일에 원대 복귀함으로써 북한군 제12사단은 완전 편성을 갖추게 되었다.[154]

북한군 제12사단은 제30연대와 제32연대를 공격제대로 하고 제31연대를 예비로 하여 7월 14일 07시경부터 차량을 이용해 죽령을 넘기 시작하였다. 선두부대인 북한군 제30연대는 10시경 창락초등학교에 집결한 후 13시경부터 5번 도로를 따라 남하하였다. 북한군 제30연대는 전날 밤 국군 제8사단이 펼친 풍기-영주간 차량 왕복 운행을 국군이 영주로 후퇴한 징후라고 오인한 듯 적정 수집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행군하였다.

북한군의 첨병부대가 망전산 기슭에 이르고 후미부대가 풍기교를 건넜을 때 국군 제8사단은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은 봉화골-풍기교의 약 2㎞ 구간에 형성된 탄막지대 내에서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병력의 대부분이 분산 격멸되고 후위부대의 일부 병력만이 탄막지대에서 겨우 빠져나갔다. 이 아비규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북한군 첨병중대가 새기실에 위치한 제8사단 전방지휘소를 습격해 사단 지휘체제가 일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 북한군 첨병부대는 제10연대 제3대대에 의해 격퇴되었다.[155]

이날의 전투는 불과 30분도 안되어 끝이 났다. 살상지대내의 북한군이 지리멸렬된 상황을 확인한 국군 제8사단은 전장을 정리하고 사단 전술지휘소를 영주로 옮겼으며, 제10연대는 연대 전술지휘소를 살포정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전투 중에 나타난 방어진지 편성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10연대 제3대대에서는 1개 중대를 망전산에 배치해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7월 14일 첫 번째 공격에 실패한 북한군은 15일 02시경 트럭 34대에 1,000여 명의 병력을 태운 채 국군 제8사단 방어진지를 돌파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이것마저 실패하고 많은 병력 손실을 입었다.

북한군은 2차례의 공격이 실패하자, 국군 제8사단 방어진지의 정면 돌파를 단념한 듯 국군 방어지역의 측방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7월 15일 12시경부터 북한군은 국군 제8사단 전 정면에 대해 포격을 집중한 후, 16시에 1개 대대를 서쪽으로 우회시켜 국군 제10연대 제2대대가 배치된 장군봉(△733)을 점령하였다. 북한군은 이 고지를 확보함으로써 국군 제10연대 방어진지를 좌측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군 제10연대는 연이어 두 번이나 살상지대에서 크게 승리하자 측방경계를 다소 소홀히 한 탓으로 중요한 감제고지인 장군봉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10연대는 장군봉을 점령한 북한군이 재편성하는 기회를 포착하고 지체없이 제2대대를 투입해 장군봉을 탈환했으며 그 여세를 몰아 362고지까지 진출하였다. 이에 앞서 장군봉이 피탈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국군 제8사단장은 예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대장에게 방어지역 좌우 측방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10연대는 제3대대(-)를 426고지 후방으로 이동시켰으며, 제21연대는 예비인 제3대대를 299고지에 배치하여 순흥 방면에서의 북한군 공격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사단사령부에서는 사단 공병대대를 주축으로 한 직할대 병력으로 예비대를 편성하는 한편, 봉화 일대의 경계임무를 수행중인 제25연대 제1대대의 제2중대(중대장 채명신 대위)를 차출하여 영주에 집결 대기시켰다.[156]

한편 국군 제8사단은 7월 17일 순흥 방면으로 침입한 북한군이 동원리로 우회하자, 사단공병대대를 268고지-동촌리로 진출시켜 제21연대를 지원하게 하였다. 이 무렵 포병의 재정비를 서두른 육군본부에서는 신편한 제50포병대대의 1개 중대를 7월 17일부로 국군 제8사단에 배속하였다. 105밀리 M-2포 6문으로 무장한 이 중대의 배속으로 국군 제8사단은 화력 면에서 크게 증강되었다.

(2) 장군봉-426고지-258고지-377고지선 전투

북한군이 풍기분지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데 이어 장군봉-426고지에 대한 공격도 실패하게 되자 15일 이후 이틀간 풍기 일대에서는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그 동안 북한군 제12사단은 후속부대인 제32연대를 풍기로 진출시켜 공격부대의 병력을 증강시켰다. 국군 제8사단은 곧이어 북한군의 강력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서 7월 17일 예하부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전명령 제19호를 하달하였다.[157]

① 단양에 집결 중인 북한군 제12사단은 당면의 적 제8사단을 초월공격할 것으로 판단한다.[158]

② 사단은 새로이 투입되는 적의 공격을 저지격멸하고 현 진지선을 계속 확보하려 한다.

③ 제21연대는 제25연대 제2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지동리(池洞里)-속칭 흠다리-△377-속칭 산으실-△258선을 계속 확보하라. 단, 동촌동(東村洞)으로 진출한 사단공병대대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동쪽 측후방 방호에 유의하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④ 제10연대는 생현동(生峴洞)-△426-장군봉(△733)선을 계속 확보하라. 단, 예천 혼성대대의 복귀로 노출되는 서쪽 측후방 방호에 유의하라.
⑤ 예천에 파견중인 혼성대대는 17일 24시까지 영주로 복귀함과 동시에 해편(解編)한다.
⑥ 제25연대 제1대대(-)는 내성(乃城)에서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⑦ 제18포병대대는 제50포병대대 제1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⑧ 사단공병대대는 주력으로서 동촌동-△268선을 계속 확보하고 1개 중대는 영주에 집결 대기하라.
⑨ 적은 SCR-300 및 609무전기를 탈취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교신은 반드시 암호를 사용하라.
⑩ 사단지휘소는 계속 영주에 위치한다.

7월 18일 02시를 기해 북한군 제12사단은 국군 제8사단 전 정면에 걸쳐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공격으로 제21연대에서는 제1대대가 대대장의 잘못된 지휘조치로 인해 258고지에서 무단 철수하면서 377고지의 제2대대마저 연쇄적으로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제21연대 제1대대 장병들은 북한군의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진내전을 전개하면서 진지를 고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제1대대장 윤태현 소령은 북한군의 소수 병력이 대대 관측소 부근까지 접근하자 이를 격퇴할 조치는 취하지 않고 조급하게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대대 장병들은 진내에서 사투를 벌여 간신히 북한군의 제1공격제대를 격퇴한 시점에서 철수명령을 전달받자 허탈감에 빠져들었다. 그 직후 258고지는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국군 제8사단 방어진지 중앙에 돌파구가 형성됨으로써 사단 전체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258고지에서 임의 철수한 제21연대 제1대대는 안심리의 250고지에 새 방어진지를 편성하였지만, 이 때에도 제1대대장은 피탈된 258고지에서 북한군이 재편성하는 호기를 포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습을 포기한 채 소극적으로 방어에만 치중하였다. 사단에서는 작전 실패와 명령 불복종의 책임을 물어 제1대대장 윤태현 소령을 엄중 문책하고 연대 연락장교 조규영 소령을 후임 대대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으로 보임하였다.[159]

제21연대 제1대대의 무단 철수는 곧바로 377고지를 방어하던 제2대대에도 영향을 미쳤다.[160] 제2대대는 교촌동 능선을 따라 진지 정면으로 공격하는 북한군을 저지하는 데에는 일단 성공했지만, 258고지를 탈취한 북한군 일부 병력이 동쪽 계곡을 따라 309고지와 산법동으로 우회해 배후를 위협하면서 포위될 위기에 처하였다. 전황의 추이를 주시하던 연대장 김용배 중령은 방어선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서 제2대대에게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제2대대는 제25연대 제2중대의 엄호하에 주력이 05시 30분에 신촌(풍기 동남쪽 4㎞) 일대로 철수하여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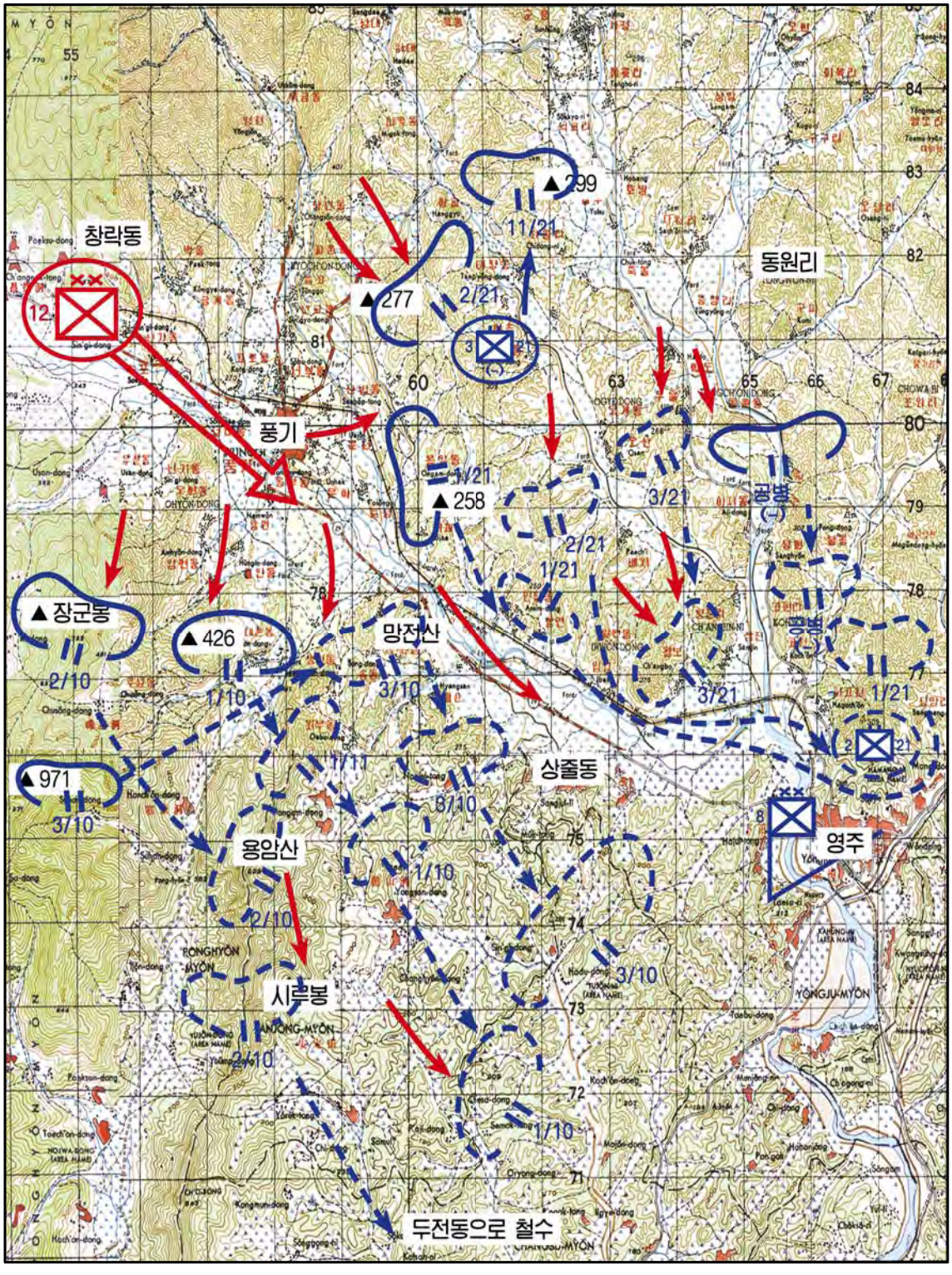
제1, 2대대가 철수하자 지동리의 제3대대(대대장 이창률 소령)도 연대의 방어선 조정에 따라 사단 공병대대가 확보하고 있던 동촌동의 268고지로 물러났다. 원래 제3대대는 연대예비로 309고지에 있다가 7월 16일 순흥(풍기 동북쪽 7㎞) 동측방 경계를 위해 지동리로 이동하였는데, 이날(18일) 04시경 서쪽의 제2대대가 철수함에 따라 동서 양측방이 노출되어 고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때 연대장의 철수 명령이 하달됨으로써 제3대대는 06시까지 동촌동 서쪽의 268고지로 철수를 완료하였다.[162]

제21연대 제3대대가 268고지로 이동하자 사단공병대대는 268고지의 제3중대(중대장 오명환 중위)를 동촌동으로, 동촌동의 제1중대(중대장 이우팽 중위)를 죽계천 건너 295고지 일대로 이동시켜 북한군의 우회 공격에 대비하였다. 이때 사단공병대대 제2중대(중대장 이용구 중위)는 영주에서 주보급로의 확보와 사단사령부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천혼성대대가 7월 18일 10시에 영주에 도착해 휴식을 취한 후 14시에 제21연대로 복귀하였다.[163]

한편 5번 도로 좌측의 장군봉-426고지-생현동 선을 확보하고 있던 제10연대도 7월 18일 02시에 북한군으로부터 기습을 받았다. 426고지-오향골을 담당한 제1대대는 02시에 426고지의 북쪽 능선과 오향골 방면으로 북한군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자, 2.36인치 로켓포와 60밀리 박격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화력을 집중해 이를 격퇴하였다.[16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13> 풍기 전투(1950. 7. 14~22)



그러나 북한군은 03시 30분경부터 1개 대대를 생현동-소리골 방면으로 투입해 우회 공격을 시도하는 한편, 기습에 실패한 병력을 재차 426고지-오향골 방면으로 투입해 양면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에 제1대대는 즉시 거점방어로 진지를 전환하고 백병전까지 전개하면서 북한군과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다.

426고지에서 제1대대가 분전하고 있는 동안 장군봉 일대의 제2대대(대대장 정순기 대위)도 362고지(풍기 서남쪽 3.5㎞)에서 계곡을 따라 침투한 북한군과 격전을 벌였다.[165] 하지만 시간이 경과 할수록 북한군의 세가 더욱 증가하고 장군봉 서쪽으로 우회한 북한군의 일부 병력이 971고지와 주성골을 점령해 제2대대의 좌측방을 위협하기에 이르자, 제2대대장은 거점만을 계속 확보하기로 결심하고 05시에 모든 병력을 장군봉으로 철수시켜 고지 정상을 중심으로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

이처럼 일선 대대의 전황이 위급해지자 제10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예비인 제3대대를 대촌동-조성골로 이동시켜 제1대대와 제2대대의 후방을 엄호하면서 역습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규모가 점차 증강되고 혼전 속에서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자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제10연대장에게 철수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는 제21연대의 진지전환을 고려하여 사단방어선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 사단장의 조처였다. 이에 제10연대장은 제1대대와 제2대대를 18일 09시 30분까지 용암산-망전산 선으로 철수시켰다. 제10연대 병력이 철수를 완료하자 연대장은 북한군이 진지를 보강하기 전에 장군봉-426고지에 대한 역습을 감행하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① 1개 연대 규모의 적은 장군봉-△426를 점령하고 거점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공격을 대책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② 연대는 이 적을 물리치고 진지를 회복하려 한다.
③ 제3대대는 16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971-장군봉을 축차 탈취하라.
④ 제1대대는 제3대대의 △971 탈취와 동시에 △426를 공격하라.
⑤ 제2대대는 공격간 용암산을 계속 확보하되 장군봉-△426 탈취와 동시에 △971로 진출하여 자후 명령을 대기하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⑥ 공격간 제18포병대대 및 제50포병대대 제1중대는 연대를 직접 지원할 것이다.
⑦ 연대 지휘소는 용산동에 설치한다.[166]

국군 제10연대의 역습은 15시 40분부터 시작된 제18포병대대(대대장 장경석 소령)와 제50포병대대 제1중대(중대장 정균환 소령)의 공격준비사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포병은 971고지-장군봉-426고지 일대를 집중 포격하고, 16시부터 포격거리를 늘려나갔다. 이러한 포병의 지원사격아래 제3대대는 용암산의 공격개시선을 출발해 천부산을 점령하고 동쪽과 동남쪽 능선을 따라 계속해서 공격하였다. 그런데 이때까지 포병 사격에 제압되어 침묵을 지키던 북한군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집중 사격을 가하면서 제3대대의 공격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전황의 추이를 주시하던 연대장은 제2대대의 1개 중대를 증원 투입하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제3대대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속출하자 제10연대장은 19시에 제3대대의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21시에 용산동으로 물러났으며, 그곳에서 재편하는 즉시 생현동으로 진출해 망전산 일대를 방어하게 되었다.

(3) 용암산-망전산-250고지-268고지선 전투

국군 제8사단이 용암산-망전산-250고지-268고지를 연하는 선에 새 방어진지를 편성한 다음날(19일) 새벽, 북한군 제12사단은 국군 제8사단의 전 방어정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 제12사단은 제10연대 제2대대가 배치된 용암산과 제21연대 제2대대가 배치된 신촌 일대를 먼저 공격함으로써 국군의 관심을 이 지역으로 돌리게 한 후 그들의 주공부대를 망전산에 집중 투입해 목표를 탈취할 때까지 파상공격을 반복하였다.

망전산에 배치된 제10연대 제3대대는 02시 20경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공격을 맞아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화력과 병력의 열세로 교전 2시간 만에 매봉산(△275)으로 철수하였다. 이로 인해 방어지대 우측방이 노출된 제1대대는 제3대대와의 연결을 위해 256고지로 철수하였으며, 용암산의 제2대대도 시루봉(△493)으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철수하였다.

한편 250고지-신촌-268고지-동촌동선에서 방어선을 정비한 제21연대는 01시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공격을 진전에서 격퇴하였지만, 통이 틀 무렵 재개된 북한군의 집중 공격으로 인해 신촌 일대의 제2대대가 오계동 서쪽 구릉지대로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12사단은 영주 공격의 중요한 발판이 되는 258고지와 망전산을 완전히 확보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한 유리한 입장에서 공격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국군 제8사단장은 수세 일변도의 방어만으로는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습을 통해 북한군의 허를 찌르기로 결심하였다.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각 연대에 다음과 같은 구두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적은 공세를 또다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② 사단은 선제공격으로 적을 교란하고 공세기도를 분쇄하려 한다.
③ 제21연대는 일부 병력으로 지동리-△309-△377-△258로 공격을 감행하라. 단, 공격의 진전에 따라 별명이 있을 때에는 전 주력이 공세로 이전할 태세를 갖추라.
④ 제10연대는 일부 병력으로 용암리-△971로 공격하되 진전에 따라 주력으로 △426-장군봉을 공격한다.
⑤ 제18포병대대는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단, 화력의 우선권은 제21연대에 부여한다.
⑥ 사단공병대대 및 내성(乃城)대대(제25연대 제1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⑦ 통신은 필히 암호를 사용하라.
⑧ 사단지휘소는 영주에 위치한다.[167]

사단장의 공격 명령에 따라 제10연대는 16시 30분을 기해 971고지를 목표로 제2대대를 공격에 투입하였다. 제18포병대대의 공격준비사격 후 493고지를 출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제2대대는 용암산을 점령하고 천부산을 거쳐 971고지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제2대대는 971고지에 배치된 북한군으로부터 기습사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를 내고 공격을 중단하였다. 원래 제10연대는 제2대대의 공격 진척상황에 따라 나머지 2개 대대도 반격작전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제2대대가 971고지에서 고전하고 있을 무렵, 망전산에 집결한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용암산으로 향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에 제10연대는 971고지에서 교전 중인 제2대대의 퇴로가 차단되기 전에 대대를 시루봉으로 철수시켜 시루봉-256고지-매봉산을 연하는 연대 방어진지를 보강하였다.[168]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21연대는 16시 30분에 3개 대대 병진대형으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제1대대가 258고지를, 제2대대가 309고지-377고지를, 그리고 제3대대가 지동리를 각각 점령하도록 목표가 부여되었다. 제1대대는 250고지와 258고지에 설치된 북한군의 강력한 탄막지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방어진지로 되돌아왔다. 또한 제2대대와 제3대대도 377고지와 지동리선까지 진격했으나 북한군의 화망을 뚫지 못하여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원 진지로 복귀하였다.

(4) 영주 외곽 방어선의 형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월 19일 16시 30분부터 감행한 제10연대와 제21연대의 역습이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전선부대가 복귀하자,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현 방어선을 계속 확보하면서 북한군을 격멸하기로 결심하고 7월 19일 21시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전명령 제20호를 하달하였다.

① 적은 영주를 목표로 계속 공격할 것이다.
② 사단은 현 진지선을 확보하여 적을 저지, 격멸하려 한다.
③ 제21연대는 사단공병대대를 7월 19일 23시부로 통합 지휘하여 현 진지선을 계속 확보하라. 단, 제25연대는 제2중대를 공병대대에 배속하라.
④ 제10연대는 현 진지선을 계속 확보하라.

⑤ 제25연대 제2중대는 7월 19일 23시부로 제21연대로부터 사단공병대대로 배속을 변경한다.

⑥ 제25연대 제1대대(-)는 7월 20일 미명을 기하여 순흥 쪽의 적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라.

⑦ 제18포병대대는 제50포병대대 제1중대를 통합 지휘하여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단, 화력의 우선권은 제21연대에 부여한다.

⑧ 사단 공병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되 7월 19일 23시부로 제21연대에 배속한다.

⑨ 통신은 현행 통신규정에 의거한다.

⑩ 사단지휘소는 영주에 위치한다.[169]

이 명령에 따라 국군 제8사단이 현 진지를 계속 고수하는 가운데 7월 20일 01시부로 제2사단 소속의 제16연대가 제8사단에 배속되었다. 또한 이날 국군 제8사단에는 개전 초기 일본으로 떠났던 캐슬러(George D. Kessler) 소령을 비롯한 주한미군사고문관들이 사단에 복귀하였다.[170]

풍기-영주 방면으로 투입된 북한군 제12사단은 매번 그렇듯 20일에도 여명(黎明)을 이용해 공격을 가하였다. 그들은 주공을 5번 도로 양측방의 275고지와 250고지에 투입하고, 2개 공격제대로 편성된 조공을 좌우 측방에 투입해 병진대형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날의 전투에서 국군 제10연대는 제3대대가 북한군의 주공이 지향된 매봉산(△275)에서 포병의 우선 지원을 받으며 힘겨운 저항을 지속했지만 끝내 진지를 고수하지 못하고 191고지-226고지 일대로 철수하였으며, 시루봉의 제2대대도 용암산 쪽에서 유전동으로 우회 침투한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두전동으로 철수하여 이곳에서 연대장 명령에 의거 연대 예비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256고지를 방어하던 제1대대는 좌·우측에 배치된 2개 대대가 모두 철수한 뒤에도 방어진지를 계속 고수하다가 매봉산과 시루봉을 점령한 북한군이 가세하면서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자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208고지로 철수하였다.[171]

한편 제21연대는 250고지의 제1대대가 옹암동 방면에서 능선을 따라 진내로

밀어닥친 북한군과 백병전을 전개하여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을 막아냈지만 점차 증원되는 북한군이 대대를 포위하고 혼전이 거듭되자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05시에 276고지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이때 순흥 방면으로 집결한 북한군이 동측방으로 우회하여 영주로 기습할 징후가 보이자 시급히 하달된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17시경 265고지(영주 북쪽 3㎞)로 이동하였다.[172]

250고지 북동쪽 신촌 부근의 야산지대에 배치된 제2대대는 교전 초기에 이미 방어진지 배후로 침투한 북한군에게 교란되어 병력이 분산된 상황 하에서 276고지로 철수한 후 17시에 하달된 연대장의 명령으로 276고지를 제3대대에 인계하고 309고지(영주 북쪽 1.5㎞)로 이동하여 연대 예비가 되었다. 그리고 268고지에서 276고지로 이동한 제3대대는 진지를 점령하고 30여 분이 경과되었을 즈음, 영주를 목표로 진출 중인 북한군 제12사단 주공부대에 기습적인 일격을 가하여 이들을 격퇴함으로써, 영주가 함락될 위기 국면을 타개할 수 있었다. 이 무렵 동촌동에 배치된 사단공병대대가 창진동-307고지로 철수하여 이곳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173]

이로써 국군 제8사단은 영주에 사단 전술지휘소를 두고 제10연대가 208고지-191고지, 제21연대가 276고지-265고지, 사단 공병대대가 307고지에 각각 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7월 20일 제8사단에 예속된 제25연대 제1대대가 223고지에 위치하였다.[1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방어선을 정리한 국군 제8사단은 21일 매복과 반격작전을 시도하였다. 제10연대장은 북한군 제12사단이 판에 박힌 듯한 심야 기습공격을 전개하여 해 뜰 무렵에 목표를 탈취한 후 일단 공격을 중단하였다가 다음날 다시 심야 기습공격을 재개하는 형태의 작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즉 국군 제8사단은 어둠이 깃든 직후 방어진지 전방에 대대 규모의 병력을 은밀하게 매복시켜 심야에 침투 접근하는 북한군을 조기에 포착 격멸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 매복 공격 계획에 따라 제10연대 제2대대가 21일 01시경에 묵동(墨洞) 뒷산으로 진출하여 북한군이 침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접근로 상에 병력을 배치하

였다. 그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03시 30분경 제2대대는 매복지대로 접근한 2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에게 기습사격을 가하여 이를 격퇴하고, 계속해서 제18포병대대의 포격지원 하에 06시 30분경 256고지를 탈환하였다. 이 고지에서 재편성을 마친 제2대대는 07시경부터 다시 용암산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13시에 256고지로 되돌아와 방어진지 보강작업에 착수하였다.[175]

제10연대가 매복 기습 공격을 감행할 무렵 제21연대는 자정 무렵부터 각 대대에서 1개 중대씩을 차출해 위력수색대를 편성하고 북쪽으로 추진시켜 적정 탐색과 기습 공격을 병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기습 공격은 즉각 증원된 북한군의 반격으로 실패하고 위력수색대는 본래의 위치로 복귀하였다. 잠시 전투가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21일 06시경 야포와 박격포, 직사포 등을 동원한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제21연대 제3대대가 위치한 276고지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3대대는 제2대대의 1개 중대를 증원받아 276고지로 침투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북쪽으로 1㎞ 지점의 230고지까지 추격해 그 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포격이 집중되고 안심리-오계동선의 북한군이 동서 양측방으로 위협하자 제3대대는 230고지를 포기하고 12시에 276고지로 철수하였다.

제10연대와 제21연대가 매복 또는 선제공격으로 북한군의 심야 공세를 봉쇄하고 큰 타격을 주면서 사단 전투력을 과시하기에 이르자 국군 제8사단장은 공세이전에 관한 논의를 위해 참모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 사단장은 참모장 최갑중 중령과 작전참모 권태순 중령이 제기한 '공세이전 보다는 방어를 위주로 하되, 국지적인 반격으로 적을 교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사단작명 제21호를 하달하였다.

① 적은 계속된 사단의 선전으로 그 전투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사단은 현 방어선을 계속 확보하면서 선제공격과 위력수색, 그리고 매복을 강화하여 적을 교란, 격멸하려 한다.
③ 제21연대는 사단공병대대를 계속 통합지휘하여 △265-△307-창진리-△276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르는 현 진지선을 확보하고 동촌리-△268-안심동에 이르는 적역(敵域)에 선제공격 또는 위력수색대를 추진, 접적(接敵)을 유지하며 적의 공격을 견제하라.

④ 제10연대는 △191-△226-△208(두전동)에 이르는 현 진지선과 △256의 전진진지를 확보하고 취봉산(△275)-용암산 선으로 위력수색대를 추진하여 적침(敵侵)을 견제하라.

⑤ 제10, 제21연대는 57밀리 대전차포를 사단 병기부에 반납하고 해(該) 중대를 소총중대로 개편하라.

⑥ 제18포병대대는 제50포병대대 제1중대를 계속 통합지휘하여 속칭 원챙이 부근에 포진하여 적포(敵砲)를 제압하면서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⑦ 사단 공병대대는 제21연대의 통합지휘하에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⑧ 내성(乃城) 대대(제25연대 제1대대(-))는 △281-△223의 현 진지선을 계속 확보하고 사단 동측방에 대한 방호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⑨ 통신은 필히 암호를 사용하라.

⑩ 사단지휘소는 계속 영주에 위치한다.[176]

이 작전 명령은 첫째 북한군뿐 만이 아니라 사단도 그동안의 격전으로 적지 않은 병력 및 장비의 손실을 입었으며, 병사들도 피로가 누적되어 전투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점, 둘째 전 전선에 걸친 반격작전이 아닌 사단만의 국지적인 반격작전이 과연 전 전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의심스럽다는 점, 셋째 신병이나 신임장교의 보충이 거의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반격전을 수행할 경우 큰 병력 손실로 인해 사단에 부여된 지연전의 임무마저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만들어진 것이었다.

(5) 영주 외곽 방어선의 붕괴와 영주 피탈

7월 22일 전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호우로 변하여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러한 날씨를 이용해 북한군 제12사단은 주공 부대를 5번 도로에 투입하여 276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276고지를 방어하던 국군 제21연대 제3대대는 어둠과 장대비로 인해 북한군이

돌격대형으로 산개할 때까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결국 진지가 돌파되어 영주로 분산 철수하게 되었다. 연대 전술지휘소에서 제3대대 전투상황을 지켜보던 제21연대장은 즉시 제2대대를 영주 서쪽 서천교 부근에 배치하여 제3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분산 철수 중인 병력을 수습하였다.[177] 제21연대장은 276고지의 상실이 영주 피탈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길은 국부적인 반격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서 예하부대에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7월 22일 17시 50분을 기하여 역습을 감행하려 한다.
② 사단 공병대대(제25연대 제2중대 배속)는 오계동-동촌동-△268을 탈취하라.
③ 57밀리 대전차포중대는 창진리를 탈취하고 제25연대 제1대대의 △276 공격을 지원하라.
④ 제25연대 제1대대(-)는 △276을 탈취 후 계속 확보하라.
⑤ 제2대대는 제25연대 제1대대(-)의 △276 탈취 후, 별명에 따라 안심리로 공격할 태세를 갖추라.
⑥ 제1, 제3 양대대는 △265-△309를 계속 확보하고 별명에 따라 진격할 태세를 갖추라.
⑦ 제18포병대대는 공격간 일반 지원할 것이다.
⑧ 무전은 여하한 경우에도 암호를 사용하라.
⑨ 연대지휘소는 △309에 위치한다.[17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명령에 따라 제21연대는 268고지와 276고지를 목표로 사단공병대대(+)와 제25연대 제1대대(-)를 공격에 투입하였다. 307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사단공병대대(+)는 17시 50분경에 포병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일제히 공격을 개시해 19시 20분경 268고지를, 20시경 오계동 고지를 탈환하였다. 이로써 사단공병대대는 오계동-동촌동-268고지에 이르는 진지선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포병은 그 주변 일대에 포격을 가하여 북한군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사단공병대대의 공격과 때를 같이하여 제25연대 제1대대(대대장 임익순 소령)도 276고지 탈환전을 전개하였다. 제25연대 제1대대(-)는 죽계천을 도하한 후 창

진리로 공격하는 57밀리 대전차포중대를 지원하면서 276고지를 공격하기로 계획하였다.[179] 그러나 공격에 앞서 죽계천을 정찰한 결과 전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 수심이 깊고 급류가 심해 도섭이 불가능함을 알고 제1대대장은 제21연대장에게 영주교를 건너 도화동으로 진출하겠다고 건의하여 승인받았다. 영주교를 돌파한 제25연대 제1대대(-)는 제18포병대대가 276고지-250고지 일대에 포격을 가하는 가운데 공격을 개시해 20시 30분경 276고지를 탈환하였다.

한편 제10연대 방어지역에서는 이날(22일) 02시경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256고지의 제2대대가 두전동으로 철수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날이 밝으면서 북한군의 공격이 중단돼 한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0연대 제3대대는 수색대를 봉황골-망전산 부근까지 진출시켜 북한군의 동정을 살폈는데, 수색대로부터 북한군 전차가 망전산 부근으로 남하 중이라는 보고가 전해졌다. 보고를 접한 제3대대장은 즉시 2.36인치 로켓포 2문을 장비한 1개 분대를 상줄동 앞 개천상에 가설된 목교 부근에 배치하고 이 다리를 파괴하였다. 북한군 전차가 출현했다는 소식은 국군 제8사단의 전 예하부대에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장병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북한군 제12사단은 7월 22일 23시에 SU-76 자주포 4문을 앞세우고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과 맞선 국군 제8사단은 사력을 다해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끝내 방어진지를 고수하지 못하고 제10연대가 226고지-191고지선에서 철수해 두전동의 야산지대에 급편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제21연대가 276고지-268고지 선에서 영주로 철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제8사단장은 차기 방어지역인 옹천으로 철수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23일 새벽 제10연대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제21연대를 영주 남쪽 5㎞ 지점의 적동리로 이동시켜 5번 도로 좌우측에 지연진지를 편성하게 하고 사단 전술지휘소를 금광리로 이동시켰다.

북한군 제12사단은 23일 새벽에 영주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8사단 병력을 포위 공격할 목적하에 제30연대를 두전리-영주 방면으로, 제32연대를 동촌동-영주 방면으로 투입해 총공세를 시도하였다. 이들은 서천과 죽계천을 도하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교두보를 확보한 후, 18시부터 포병과 박격포의 지원사격하에 1개 자주포 대대로 증강된 제30연대가 서쪽에서, 그리고 제32연대가 북쪽에서 영주로 돌입해 자정 무렵 영주 점령을 완료하였다.[180]

한편 7월 23일 10시경 육군본부는 소속 불명의 북한군이 예천 북방에서 영주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항공관측보고를 받았다. 이들은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 병력으로 7월 19일 풍기에서 예천으로 진출했다가 사단 주력을 지원하기 위해 안동방면으로 전환된 부대였다.[181] 육군본부는 영주 지구에서 고군분투 중인 국군 제8사단의 퇴로가 차단될 사태에 대비하여 예천에 배치된 수도사단 제18연대로 하여금 제8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조치하고, 제8사단에게 웅천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182]

명령을 받은 제8사단장은 23일 저녁에 제18연대 제1대대가 적동리 시느레마을에 도착하자 즉시 휴천동 지천마을로 진출시켜 제10연대의 서천 도하를 엄호하게 하고 적동리 일대에 배치된 제21연대를 웅천으로 이동시켜 내성천 연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두전동 일대에서 고립된 제10연대장에게는 24일 새벽까지 현 방어진지를 고수한 후에 철수를 개시하도록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제10연대는 두전동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한 후 24일 새벽 제18연대 제1대대의 엄호하에 서천을 건너 금광리로 철수하였으며, 그 직후 제18연대 제1대대도 예천으로 되돌아갔다.[1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안동 부근 전투

(1) 국군 제8사단의 부대정비와 내성천 방어선 형성

7월 24일 금광리로 철수한 국군 제8사단은 부대정비와 더불어 내성천 연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날 제8사단은 사단에 새로 배속된 제16연대를 방어지역 중앙에 배치하였다. 제16연대는 7월 21일 제2사단에서 제8사단으로 예속이 변경된 부대로 의성-안동을 거쳐 24일 오전 웅천에 도착하였다. 당시 제16연대의 병력은 1,340여 명이었으나 그 중 1,000명이 의성에서 모집한 신병이었기 때

문에 전투력은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날 제21연대가 제25연대 제1대대를 통합하여 전투력을 증강시켰다.[184]

이로써 국군 제8사단은 창설 이후의 숙원이었던 3개 연대로 증편되고, 병력도 6,800여 명에서 8,15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날로 사단 예하 3개 연대 대전차포중대가 57밀리 대전차포 4문씩을 장비하게 되었다.

재편성을 완료한 국군 제8사단은 3개 연대를 석탑동-364고지 간의 20㎞에 달하는 내성천 연변에 배치하고 영주-옹천-안동 축선 방어에 중점을 둔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사단 전술지휘소는 옹천초등학교에 위치하였으며, 좌전방 부대로 제10연대가 석탑동-불로동간 7㎞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중앙 전방 부대로 제16연대가 강동리-275고지간 6㎞를 담당하였으며, 우전방 부대로 제21연대가 천본리 내매마을-364고지간 7㎞를 담당하였다. 제18포병대대는 제50포병대대 제1중대와 더불어 옛고개에 포진하였다.[185]

국군 제8사단이 하천 방어선을 형성한 내성천

이 무렵 육군본부의 국군 전선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육본작명 제67호에 의거 국군 제8사단이 7월 25일부로 제2군단에서 제1군단(군단장 김홍일 소장)으로 배속이 변경되었다.

이렇듯 국군 제8사단은 강릉전투 때의 연곡천 방어선과 단양전투 때의 남한강 방어선을 형성하여 성과를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성천을 중심으로 하천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사단 장병들은 계속된 전투로 인해 피로가 쌓여 사기가 다소 저하되어 있었다. 제16연대의 예속으로 사단 병력이 늘어났지만 그 전투력은 이전에 비해 약화된 면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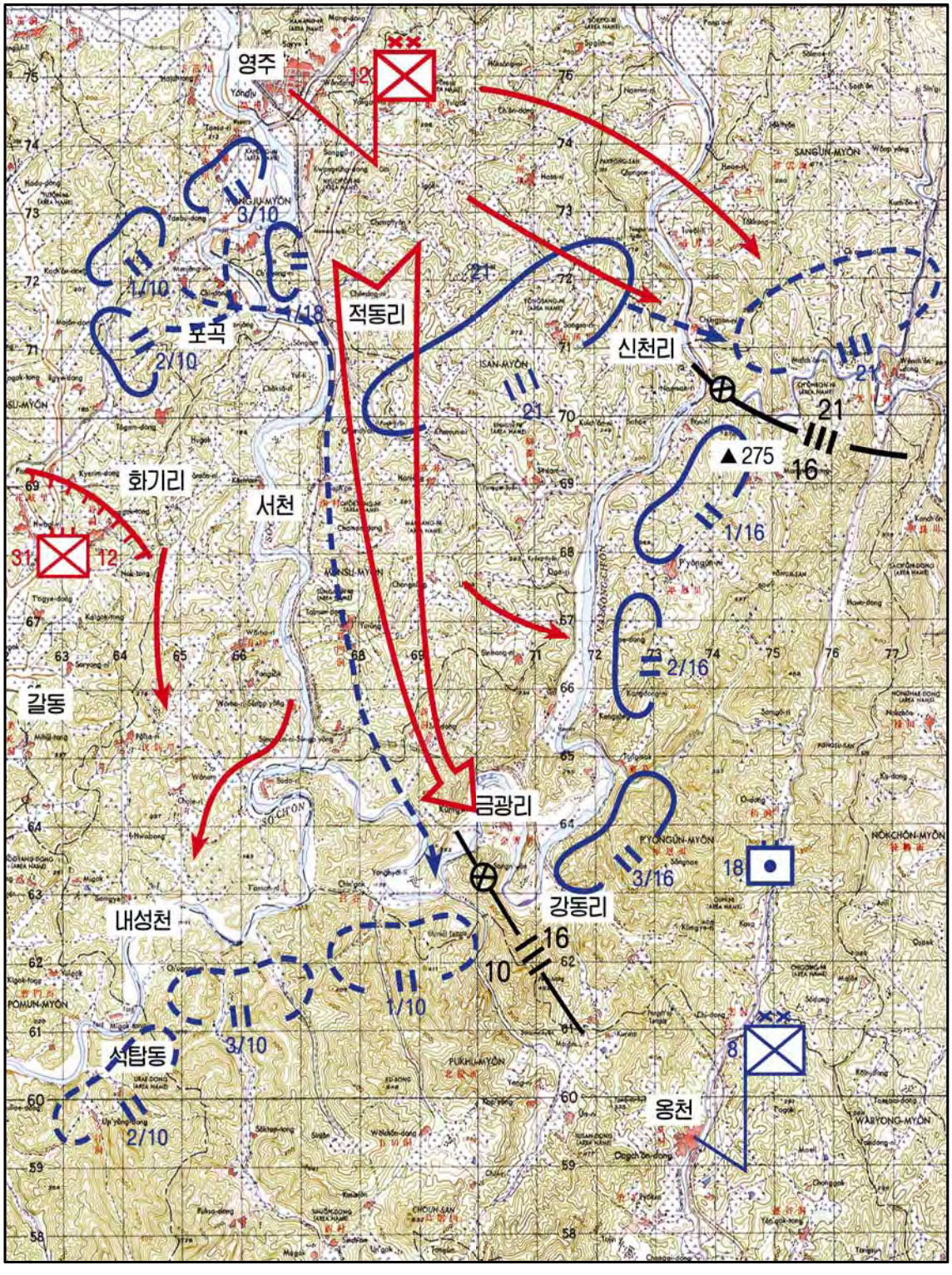
국군 제8사단은 북한군 제12사단이 영주 점령의 여세를 몰아 계속 추격할 것으로 판단하고 서둘러 내성천에 방어진지를 편성했지만, 의외로 북한군의 진출이 지체되어 옹천 일대에서는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국군 제8사단은 이 기회를 이용해 방어진지를 보강하고 장병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면서 적정을 살피는 여유마저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 제10연대 제1대대는 금광리 북쪽의 334고지에 북한군의 관측소가 설치된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 고지는 5번 도로와 국군 제8사단 방어지역 중앙 일대를 감제할 수 있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고지였다. 제1대대장 박치옥 소령은 334고지에 북한군이 증강되기 전에 이를 탈취하여 그들의 공격을 지연시킬 복안을 세우고 연대장의 승인을 받은 후 26일 15시에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친데다 때마침 5번 도로상에 나타난 SU-76 자주포 3대와 45밀리 대전차포 2문의 집중 포격을 받게 되어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약 30분이 경과되었을 때, 제1대대장은 연대장으로부터 백색 대공포판[186]을 공격제대가 산개한 선상에 깔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자 얼마 뒤에 유엔군 전폭기와 B-26폭격기 편대가 작전지역 상공에 나타나 영주 일대를 폭격하였다. 다음날(27일) 새벽에 제1대대는 은밀하게 목표지점까지 접근한 후 돌격을 감행해 334고지를 탈취하였다. 그 후 제1대대는 334고지에 1개 중대만을 남겨 놓고 대대 주력은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4-14> 내성천 전투(1950. 7. 24~26)



한편 예천 방어임무를 수행 중인 수도사단 제18연대(연대장 임충식 중령)는 예천 북쪽 용산동-생천동에서 북한군 제8사단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대호 미상의 북한군 1개 연대가 예천-안동 중간 지점에 있는 풍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 항공관측으로 확인되어 국군 제1군단 지휘부를 긴장시켰다. 만약 북한군이 풍산을 점령하고 안동을 서쪽에서 협공한다면 현 방어태세로는 도저히 안동을 사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국군 제1군단은 제6사단에 배속되어 영강 전투에 투입된 수도사단 예하 제1연대의 배속해제를 육군본부에 건의해 승인을 받고 다음날(28일) 제1연대를 풍산으로 이동 조치하였다.[187]

(2) 내성천 방어선의 붕괴와 안동 외곽 방어선 형성

북한군 제12사단은 국군 제10연대 제1대대가 334고지를 점령하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은 국군 제8사단 방어지역 중앙지대에 맹렬한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병력을 내성천 건너편 제방까지 진출시켜 국군의 반응을 살피기도 하였다. 그리고 봉화-옹천 도로 주변에 전개한 1개 연대병력을 은밀하게 국군 제21연대의 방어정면으로 침투시켰다. 그러나 국군 제21연대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가 7월 28일 04시 30분경 방어진지 동쪽으로 우회한 북한군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불의의 습격을 받은 제21연대는 진내전을 펼치면서 북한군과 싸웠지만 교전이 개시된 지 30분도 채 못되어 지휘체제가 와해된 가운데 남쪽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때 제2대대와 제3대대는 그런대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봉수산에서 철수병력을 수습해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였으나 제1대대는 대대장의 상황판단 착오로 11㎞ 남쪽의 예안까지 후퇴하게 되어 연대작전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 제21연대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1대대장 임익순 소령을 직위해제하고 부대대장 허순오 대위를 대대장 대리로 임명하였다.[188]

한편 제8사단 중앙 전방연대인 제16연대는 우측방의 제21연대가 철수한 얼마 뒤 이 방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자 대혼란이 야기되었다. 전투경험이 전무한

신병들이 대부분인 제16연대는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무작정 남쪽으로 철수하기에만 바빴다. 제16연대장 김동수 중령은 영지산에서 분산된 병력을 수습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제10연대의 엄호하에 397고지에서 간신히 철수병력을 수습하였다. 제16연대는 11시경 이 고지를 제21연대에 인계하고 옹천에서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7월 28일 12시경 국군 제8사단장은 제21연대가 397고지-봉수산 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하자 이 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무렵 예천-풍산 부근으로 진출한 북한군 제8사단이 안동을 좌측방에서 위협하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예안 북쪽에 단대호 미상의 새로운 북한군이 나타나 국군 제8사단 방어지역 우측방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8사단장은 397고지-봉수산 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할 계획을 취소하고 5번 도로와 예안-안동 도로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안동 외곽 선상에 2개의 방어선을 설정하여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로 하였다. 제8사단장의 작전개념은 지형상 안동을 오랫동안 지탱하기 어려운 만큼 조만간 낙동강-반변천 선으로의 철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8사단은 7월 28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전명령 제26호를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189]

① 당면의 북한군 제12사단은 속칭 텃골-옹천-오운리 선에서 정면으로 침공하는 한편 일부가 예안쪽으로 우회하여 동측방을 위협할 것이다. 또한 예천쪽으로 우회한 북한군 제8사단 일부는 옥천동-신월동에서 내성천을 도하하여 서측방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한다.
② 수도사단 제1연대는 풍산 부근에서 사단 서쪽 측후방을 엄호할 것이다.
③ 사단은 이 적을 저지 격멸하여 안동을 방어하려 한다.
④ 제16연대는 우일선으로서 293고지-282고지-280고지 선을 확보하고 예안-안동에 이르는 제919번 작전도로를 방어하라.
⑤ 제21연대는 중앙일선으로서 319고지-연곡동-217고지에 이르는 일대를 확보하고 적의 정면공격을 격쇄하라.
⑥ 제10연대는 좌일선으로서 도계촌-204고지-394고지를 확보하고 학가산(△7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으로 잠침(潛侵)한 유격대의 도량(跳梁)을 분쇄하면서 적을 포착 섬멸하라.

⑦ 사단 공병대대는 속칭 구정기 부근의 고지를 확보하고 옹천에 이르는 도로 파괴와 장애물의 부설로 적의 기갑부대 침공에 대비하고 대전차공격을 전담하라.

⑧ 제18포병대대는 제50포병대대의 제1중대를 통합지휘하여 군단 화력계획에 의거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⑨ 통신은 여하한 경우에도 암호를 사용하라.

⑩ 사단지휘소는 신기리에 위치한다.[190]

이로써 국군 제8사단은 천등산-204고지-연곡-오로봉-233고지를 잇는 선상에 새 방어선을 설정하고 28일 밤 이 선에 좌로부터 제10연대, 제21연대, 제16연대 순으로 3개 연대를 재배치하였다. 이때의 사단 방어정면은 14㎞로, 내성천 방어정면보다 6㎞가 축소되었다.

한편 28일 오후 풍산으로 진출한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는 상리천 서쪽 연변의 267고지와 228고지에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예천-안동 도로 주변에 출몰하는 북한군과 접촉하게 되었다. 29일 03시에 제1연대는 제8사단이 새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자 1개 대대를 천등산 서쪽에 있는 조운산에 배치하여 내성천-397고지에서 철수하는 제8사단을 엄호하게 하였다.[191]

7월 29일 이른 새벽 북한군 제12사단은 금광리-조제리 일대에서 내성천을 일제히 도하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미 국군 제8사단이 약 8㎞ 후방에 새 방어선을 형성한 다음이어서 큰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다.

다음날(30일) 04시 무렵 북한군은 국군 제8사단 전 정면에 걸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였다. 384고지-향골-204고지-도계촌 선에 방어선을 형성한 제10연대는 30일 04시 무렵 천등산-도촌동 방면에서 침투한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북한군은 개목사(開目寺)쪽 능선을 타고 국군 제1대대가 위치한 도계촌의 204고지와, 봉정사(鳳停寺)쪽 능선을 타고 제3대대가 위치한 개실과 향골 방면으로 공격하였다. 그리고 학가산에 거점을 둔 유격대로 추정되는 병력이 232고지까지 진출해 국군 제2대대가 위치한 384고지를 배후에서 위협하였다. 이에 제10연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는 제1대대와 제3대대가 연계를 유지하면서 적의 공격을 적절히 차단하였다. 그리고 이홍진 중위가 지휘하는 특공대를 232고지에 투입해 제10연대의 배후를 위협하는 북한군을 격퇴하고 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우인접인 제21연대가 제16연대의 방어진지 붕괴로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긴급히 시달된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1대대의 엄호하에 제2, 3대대가 축차로 철수하였다. 제10연대는 이송천동(二松川洞)에서 병력을 수습한 후 정오 무렵에 능동-200고지-보리고개에 이르는 일대에 새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제10연대의 우인접 부대로 217고지-319고지를 연해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던 제21연대도 제10연대와 마찬가지로 30일 04시 무렵 옹천 방면에서 남하한 2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북한군의 공격은 제2대대가 확보하고 있던 5번 도로상의 217고지에 집중되었다. 백병전까지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앙 돌파의 위기를 맞게 되자 제21연대장 김용배 중령은 연대 예비로 279고지에 있던 제1대대를 투입해 제2대대와 더불어 진내까지 밀고 들어온 북한군을 격퇴시켰다. 그러나 08시경 우인접인 제16연대 진지선이 무너지면서 우회한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319고지의 제3대대 동측방으로 공격해 오자 제3대대가 연대장의 긴급명령에 따라 텃골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군의 공격이 강화되자 제21연대는 10시경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1대대가 적과 접촉을 유지하는 사이 제3대대, 제2대대의 순으로 축차 철수를 시작하여 12시경 187고지-오산동-새골 선에서 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

제21연대의 우인접인 제16연대도 04시경 예안 방면에서 남하한 1개 연대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북한군은 2개 대대가 919번 도로를 연하여 중앙돌파를 기도하는 가운데 1개 대대가 산간소로를 따라 용두골로 깊숙이 우회해 동쪽 측면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속칭 장수골 일대에서 북한군 주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제3대대는 08시경 중앙이 돌파되면서 278고지로 철수하였으며, 이로 인해 좌우인접인 제1대대와 제2대대도 진지선에서 물러났다. 그후 제16연대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12시경 278고지에서 1~2㎞ 남쪽에 위치한 지리산(△335)-240고지 선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19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8사단은 우전방의 제16연대가 지리산-240고지로 철수하자 방어선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21연대와 제10연대를 1㎞ 남쪽으로 철수시켜 안동방어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형성된 제8사단의 안동 외곽 방어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군 제8사단은 이천동 미두루에 사단 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좌로부터 제10연대, 제21연대, 제16연대 순으로 배치하였다. 제10연대는 미두루에 연대전술지휘소를 두고 제3대대가 200고지, 제1대대가 보리고개 좌측 고지에 위치하고 제2대대가 연대예비로 이송천동에 집결 대기하였다. 제21연대는 미두루에 연대전술지휘소를 두고 제1대대가 보리고개 우측 고지에, 제3대대가 269고지에, 그리고 제2대대가 태동에 위치하였다. 제16연대는 서지동 가시내마을에 연대전술지휘소를 두고 제3대대가 지리산, 제1대대가 240고지, 그리고 제2대대가 연대예비로 235고지 부근에 집결 대기하게 되었다.[193]

이 무렵 사단공병대대는 구장기(옹천 남쪽 2㎞)에서 보리고개를 거쳐 안동 동북쪽 2㎞ 지점의 258고지로 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단공병대대는 북한군 기갑부대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도로를 파괴하고 대전차 장애물을 가설하였다.

그런데 국군 제8사단이 마지막 안동 외곽 방어선으로 철수하자 전선에서 불과 6㎞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안동읍이 북한군의 야포 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국군 제1군단은 전술지휘소를 30일 24시에 운산(안동 남쪽 10㎞)으로 이동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안동 외곽 방어선의 붕괴

7월 31일 06시경 T-34전차 4대를 앞세운 증강된 1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이 중앙일선인 제21연대 정면으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은 모시밭(187고지 북쪽 1㎞) 부근의 강변까지 전차를 투입해 187고지에 대해 포격을 집중하면서 187고지와 오산동 정면으로 공격을 집중하였다.

187고지의 제1대대는 북한군 전차의 위력에 눌려 고지 반대쪽 경사면으로 이동하였으며, 이 틈을 이용해 북한군은 187고지 후사면까지 진출하였다. 이에 제21연대장은 예비인 제2대대를 투입해 제1대대와 더불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

고자 했다. 그러나 점차 북한군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제1, 2대대가 포위될 위기에 처하자 제21연대장은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21연대는 제1대대의 엄호하에 제2대대가 포위망을 뚫고 269고지로 물러나 북한군의 추격을 저지하는 가운데 제1대대와 제3대대가 축차로 철수하였다. 제21연대는 09시경 187고지 남쪽 3㎞ 지점의 264고지에서 병력을 수습하였다.

이 무렵 187고지-오산동 일대를 점령한 북한군의 일부 병력이 전차의 지원 하에 좌인접인 제10연대를 공격하고, 이와는 별도로 북한군 1개 연대가 우인접인 제16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긴급요청으로 출격한 유엔 공군의 F-80 전폭기 2개 편대가 북한군 T-34전차와 노출된 북한군 병력에 대해 폭격을 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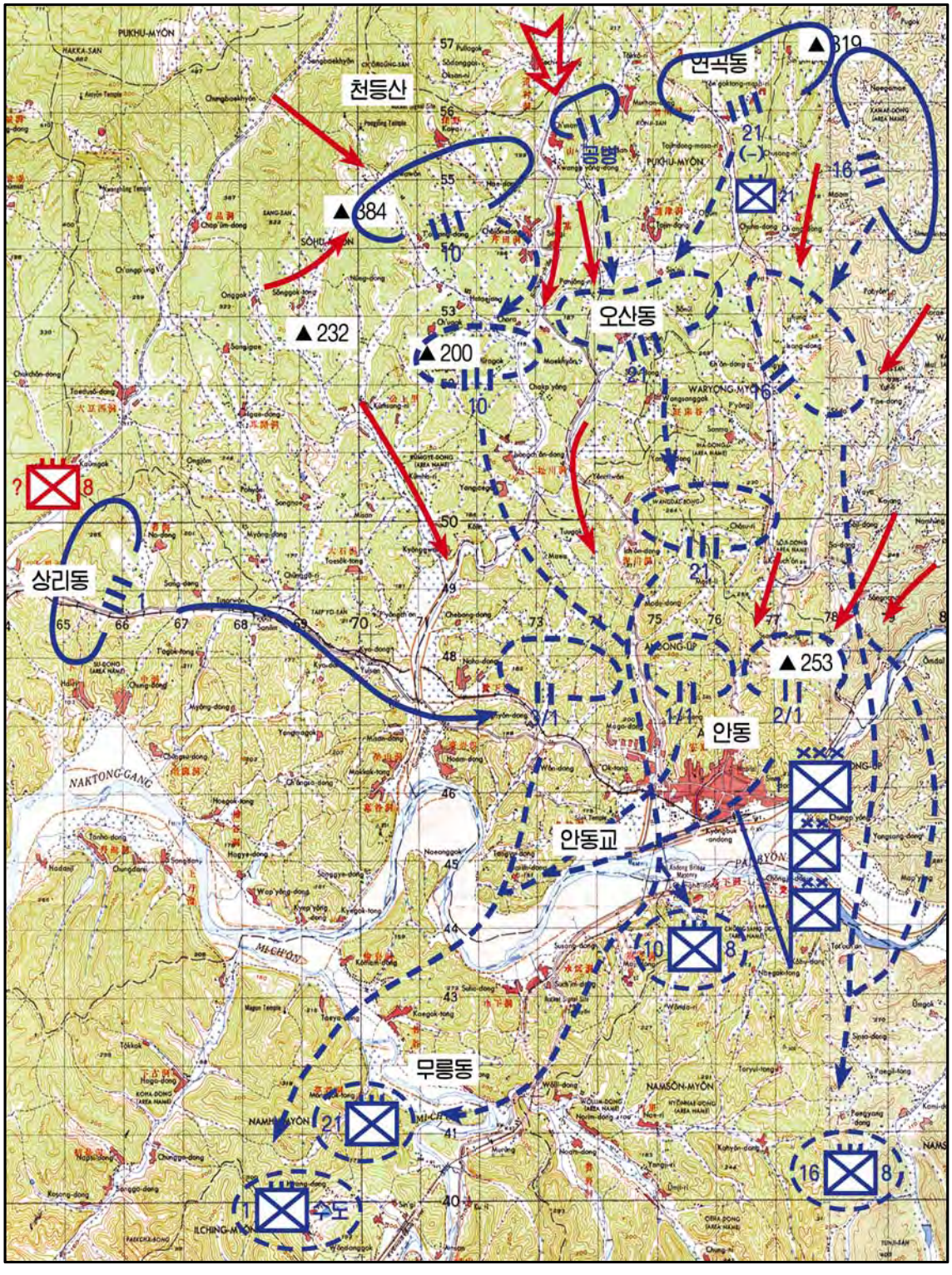
이 기회를 이용해 제21연대장 김용배 중령은 제2대와 제3대대에게 역습을 감행해 187고지-오산동 진지를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가 269고지로 진출한 후 곧바로 오산동 고지로 진격해 항공폭격으로 궤멸상태에 빠진 북한군을 격파하고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에 사기가 충천한 제2대대는 그 여세를 몰아 후속한 제3대대와 더불어 반격전에 나서 2㎞ 북쪽의 208고지까지 진격하여 전과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때 진지선을 정비하고 새로운 북한군의 공세에 대비하기로 한 연대장의 긴급명령에 따라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오산동 일대로 복귀해 187고지-오산동 선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21연대의 역습이 이루어질 무렵 제16연대도 반격을 시도하였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거점방어를 수행하던 제16연대는 항공폭격으로 북한군의 공세가 약화되고 좌인접 제21연대의 역습이 이루어지자 즉시 각 대대의 주력을 투입해 반격전을 전개하였다. 이 공격으로 제16연대는 278고지-239고지 선을 탈취하였지만, 사단의 방어선 정비 계획에 따라 제21연대와 더불어 물러서 원진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일전으로 제16연대 병사들은 그 동안 누적된 적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한편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예천에 주둔 중인 제18연대를 차출하여 안동 동측방 방어에 전용하고자 박창암 중위가 지휘하는 군단 직할 수색대를 예천

<상황도 4-15> 안동 전투(1950. 7. 28~31)



방면으로 투입해 제18연대의 철수를 엄호하게 하는 한편 안동방어를 위해 풍산 부근에 배치된 수도사단 제1연대를 안동외곽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육군본부에서는 낙동강-반변천-오십천 연변에 방어선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전투지경선을 재조정하여 예천을 제2군단 작전지역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예천에 배치된 제18연대는 육본 작명 제89호에 의거 31일 09시부로 제2군단에 배속되어 이날 저녁 함창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예천은 북한군 제8사단 수중에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안동에 대한 북한군의 압력도 한층 가중되어 갔다.[194]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 제1군단은 낙동강-반변천 연안으로의 철수 시기가 임박해졌다는 판단하에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제1연대를 안동읍 뒷산(북쪽 고지)에 배치하도록 명령하였다. 제1군단의 이 조치는 안동 철수작전을 실시하게 될 경우 제1연대로 제8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게 하려는 군단장의 작전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195]

이러한 군단계획에 따라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부사단장 김응조 중령의 지휘아래 보병 1개 중대(+)와 57밀리 대전차포 1개 소대로 편성된 특수임무부대를 풍산으로 추진하여 북한군의 측방 침투에 대비하고 이곳에서 차단임무를 수행 중이던 제1연대를 안동으로 이동시켰다. 제1연대는 10시경 부사단장이 지휘하는 특수임무부대가 풍산에 진출하자 즉시 풍산을 출발해 안동을 거쳐 15시경 안동 북쪽 2㎞ 지점의 석수암-253고지에 이르는 일대에 전개하여 안동 외곽방어와 더불어 제8사단에 대한 지원태세를 갖추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안동철수

① 안동철수 명령의 하달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7월 29일 반격준비를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될 낙동강-반변천-오십천 연변에 설정한 새 방어선으로의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196]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7월 31일 작전명령 제91호로 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에게 낙동강-반변천 연변 방어선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작전명령은 19시경 연락기편으로 제1군단 사령부에 전달되었다. 이때 제1군단사령부는 운산에서 단촌(의성 북쪽 8㎞)으로 이동한 직후였다. 제1군단은 20시경 제8사단과 수도사단 참모장을 군단전술지휘소로 소집하고, 군단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철수에 대한 작전회의를 열었다.

당시의 육군본부 작전명령에는 "7월 31일과 8월 1일간의 야음을 이용해 낙동강 남쪽 연안으로 철수"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군단은 안동 철수 시간이 임박한 무렵에 가서야 작전명령 하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탓으로 철수작전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욱이 이 작전회의에서는 제8사단과 수도사단 간의 철수 순위와 철수 방법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어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가 계속되었다. 뒤늦게 회의에 참석한 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수도사단의 엄호하에 제8사단이 먼저 철수하도록 결정하였다.[197] 제1군단은 8월 1일 01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군단작명 제40호를 하달하였다.

① 군단은 낙동강 남쪽 해안으로 이동하여 적을 저지 격멸하려 한다.
② 제8사단은 8월 1일 02시를 기하여 수도사단 제1연대의 엄호하에 현 접적선을 이탈, 동일 04시까지 안동교를 통과 완료한다. 단, 지휘소를 운산리에 개설하고 주력은 일대를 확보하여 수도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적 공격에 대비하고 1개 연대는 군단예비로 하라.
③ 수도사단은 제1연대로 하여금 현 진지를 수용진지로 하여 제8사단을 수용하는 즉시로 이동 개시하여 낙동강을 도하, 삼거리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안동-청송 가도를 확보하여 적 공격을 저지하라. 단, 신풍 부근에 집결 중인 제18연대를 즉각 삼거리로 이동시켜 낙동강 남쪽 해안을 확보하게 하라.
④ 군단포병은 원리동 부근에서 제8사단을 직접 지원하라.
⑤ 공병단은 장애물 제18(인도교), 제19(철교) 폭파준비를 완료하고 차후 명령을 대기하라.
⑥ 이 명령 시행 중의 유무선 통신을 엄금한다.
⑦ 군단 지휘소는 단촌에 위치하나 8월 1일 12시 이후 의성에 개설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명령을 받은 제8사단과 수도사단 참모장이 각자 그들의 사단전술지휘소로 되돌아간 시간은 8월 1일 02시 무렵이었다.[198]

② 국군 제8사단의 철수

제8사단 참모장 최갑중 중령이 군단작명 제40호를 휴대하고 사단전술지휘소에 도착한 것은 03시 무렵이었다. 이에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접적이 경미한 제10연대, 제21연대 순으로 철수를 실시하고, 제16연대는 주력 부대가 철수하는 동안 계속해서 접적을 유지한 후 수도사단 제1연대의 엄호 하에 후위로서 철수하도록 계획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단작명 제27호를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군단 작명 제40호에 의거하여 낙동강 남쪽 해안에서 적을 저지, 격멸하려 한다.
② 수도사단 제1연대는 현 진지선에서 사단의 철수를 엄호할 것이다.
③ 제10연대는 명령 수령 즉시 진지선을 이탈하여 제5번 작전도로를 따라 06시까지 안동 인도교를 통과 완료한다.
④ 제21연대는 제10연대를 후속하라.
⑤ 제16연대는 주력의 철수간 접적을 유지하다가 수도사단 제1연대의 엄호하에 제919번 작전도로를 따라 철수하라. 철수후 신기동에 집결하여 사단예비가 된다.
⑥ 제18포병대대는 중대간에 축차철수하면서 보병부대의 철수를 엄호하라.
⑦ 사단 공병대대는 군단 공병단과 긴급한 협조를 유지하여 인도교 및 철교 폭파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⑧ 명령 시행간의 유무선통신을 일체 엄금한다.
⑨ 철수간 사단장은 인도교 남쪽에 위치하여 10시 이후에는 운산리에 지휘소를 개설한다.[199]

제8사단은 군단 작명상에 나타난 철수시행 완료시간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06시까지로 철수 완료시간을 연장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안동철교

이 때문에 제8사단 예하부대들은 04시 이후에야 대치 중인 북한군과 접촉을 끊고 철수를 개시할 수 있었으며, 그나마 전초진지 또는 측방경계진지에 추진 배치한 병력에게는 철수명령을 전달하지도 못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다.

제8사단 예하 3개 연대 중 가장 먼저 철수하기로 계획된 제10연대는 04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작전주임 은형원 소령 편에 하달된 철수명령을 받고서 다음과 같은 긴급명령을 각 대대 연락장교편에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사단작명 제27호에 의거하여 안동 인도교 남쪽 해안으로 8월 1일 06시까지 이동 완료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명령수령 즉시 현 진지선을 이탈하여 제5번 작전도로를 이용하여 안동 인도교를 통과하라.
③ 제3대대는 제1대대와 협조를 유지하여 후속하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④ 제2대대는 현진지에서 주력의 이탈을 엄호하다가 제3대대를 후속하라.
⑤ 연대 집결지는 속칭 먼다리마을이다.
⑥ 이탈 및 이동간의 유무선통신을 엄금한다.
⑦ 연대 지휘소는 8월 1일 05시 30분 이후 안동 인도교 남쪽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04시 50분 무렵부터 제10연대는 제1대대가 보리고개 일대의 진지선을 이탈하기 시작하고 뒤이어 제3대대와 제2대대가 후속하여 06시 40분경 안동 인도교 통과를 완료하였다.

제21연대는 제2대대가 접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3대대가 05시경 오산동 일대의 진지선을 이탈하기 시작하여 제10연대의 후위인 제2대대를 후속하고 뒤이어 제1대대와 제2대대 순으로 축차 철수를 단행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3대대의 제10중대(대대장 황기상 중위)는 구두로 전달된 철수명령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해서 진지를 확보하면서 북한군과 교전하였다. 중대의 철수시기를 놓친 중대장은 뒤늦게 중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고 자신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총으로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200]

제2대대까지 진지선 이탈을 완료한 제21연대는 제3대대(-)를 선두로 안동시내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이 때에는 이미 북한군의 일부가 시내로 들어와 이곳 저곳에서 사격을 가하였다. 더욱이 제21연대가 인도교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북쪽 해안 일대의 구릉을 점령한 북한군이 기관총 사격을 집중하였다.

제3대대(-)와 이를 후속한 제1대대의 일부 병력이 인도교의 통과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의 주력인 제2중대와 제3중대, 그리고 제2대대는 강안에 도착하기 전에 안동교가 폭파됨으로써 강을 건널 수 없었다.

안동교와 안동철교 폭파는 군단이 안동에서 철수한 후 북한군의 낙동강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제1군단은 안동교와 안동철교를 각각 장애물 제18과 제19로 지정하고 엄학섭 중령이 지휘하는 군단 공병단에 폭파준비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공병단은 한강교 폭파를 담당하였던 폭파반이 7월 30일에 이미 폭약장치 작업을 끝내고 폭파작업을 제8사단 공병대대에 인계한 상태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다. 본래 군단에서는 제8사단과 수도사단이 철수를 완료하기로 계획된 8월 1일 06시경에 폭파하기로 결정하고 철수부대와의 현지협조를 위하여 군단 참모장 최덕신 대령을 현장에 급파해 교량폭파를 직접 지휘하게 하였다.

제8사단의 선발 연대인 제10연대와 이를 후속한 제21연대의 일부 병력이 안동교를 무사히 통과하고 제21연대의 주력이 북쪽 강안에 도착했을 무렵 안동교와 안동철교 부근 낙동강변에 있는 구릉지대를 북한군이 점령하고 기관총으로 교량을 제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더욱이 북한군 병력이 안동교를 향하여 빠른 속도로 접근하기 시작하여 몇 분 뒤에는 안동교마저 피탈될 위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덕신 대령은 제8사단장 이성가 대령과 숙의한 끝에 교량을 폭파하기로 결정하였다. 폭파 명령은 사단장에 의해 공병대대장 김묵 대위에게 전달되었으며, 공병대대 작전과장 서정우 중위가 지휘하는 폭파반이 남쪽 해안의 정자에서 폭파 스위치를 눌렀다. 그리고 몇 분의 시간차를 두고 안동철교도 폭파하였다. 이때가 8월 1일 07시 30분경이었다.[201]

낙동강을 건널 수 있는 교량들이 폭파되자 제21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 장병들은 제방쪽으로 밀려 한동안 우왕좌왕하다가 무거운 장비를 모래 속에 묻어버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도하를 강행하기 시작하였다.

강폭이 400m에 이르는 낙동강은 계속된 비로 인해 수위가 불어나 북쪽 해안쪽은 급류를 이루었고, 하상마저 고르지 못하여 깊은 곳은 수심이 2m가 넘는 곳도 있어 도하가 쉽지 않았다. 북한군은 거의 조준사격을 퍼부어 사상자와 익사자가 속출하였는데, 제1대대 제2·제3중대의 경우 약 50%에 이르는 병력이 손실을 입었다.

제1대대(-)를 후속한 제2대대도 선두인 제8중대(중대장 김광철 중위)가 철교를 이용해 도하를 강행하였지만 북한군의 집중공격을 받고 도하가 좌절되었다. 이에 제2대대는 제방을 따라 하류쪽으로 흩어져 무거운 장비를 모래밭에 묻고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이때 뒤따라 도착한 수도사단 제1연대의 병력이 혼합되면서 강을 건너는 철수 병력이 마치 해수욕장의 인파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이처럼 어려운 도하를 강행하여 무릉동에 집결한 제21연대는 제3대대와 제1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2)를 271고지(수하동 남쪽 1㎞)-수상동-227고지(정상동) 일대에 배치하고, 부근의 초등학교에서 주력의 재편성 작업에 착수하였다.[202]

한편 국군 제8사단의 우전방 연대인 제16연대는 06시경에야 겨우 연대 전술지휘소에 도착한 사단 연락장교 박승진 소위로부터 사단의 철수명령을 받게 되었다. 병력의 대부분이 신병으로 채워져 전투력이 매우 약했던 제16연대로서는 북한군과 교전 중에 철수를 강행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제16연대 각 대대는 새벽부터 개시된 북한군의 공격으로 방어진지를 지탱하기가 어렵게 된 무렵에야 철수 명령을 받음으로써 '철수한다'는 말이 전달된 순간부터 겁을 먹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일부 병사들이 질서 없이 진지를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제16연대는 지휘체제가 와해되고 혼란이 일어나 흩어진 상태에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일부 병사들은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퇴로를 찾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연대 주력의 철수 엄호를 책임진 제3대대장 박영철 소령은 제10중대장 안영호 대위와 더불어 동요하는 부하들을 격려하며, 방어정면으로 육박하는 북한군을 저지하면서 철수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두 지휘관이 능선상에서 진두지휘하는 동안 그들의 위치가 북한군에게 노출되어 애석하게도 북한군의 집중사격을 받아 거의 같은 시간에 전사하고 제3대대는 분산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분산된 제16연대 병력이 낙동강변에 도착하였을 무렵에는 이미 안동교가 폭파되고 계속해서 증강되는 북한군이 강변 일대의 고지를 점거한 채 사격을 집중하였다. 이에 병력을 수습할 사이도 없이 제16연대 병사들은 급류에 뛰어들어 도하를 강행하였다.

이렇듯 제16연대는 철수 초기부터 악전고투한 끝에 간신히 낙동강을 도하했지만 이날 계획된 집결지에 모인 병력은 250명 미만이었다. 철수 과정에서 제16연대는 전사 137명, 부상 120명, 실종 594명 등 총 851명의 병력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철수를 개시할 당시 1,100여 명이던 연대 병력의 77%에 해당하는 막대한 피해였다.

국군 제8사단장은 철수작전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든 간에 사단이 입은 피해가 매우 큰 것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주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사단장은 제21연대의 제3대대를 정하동 서쪽 낙동강변에 배치하여 제10연대와 더불어 북한군의 낙동강 도하에 대비하게 하는 한편 철수과정에서 입은 피해로 재편성하지 않고서는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제21연대 주력과 제16연대를 무릉동에 집결시켜 부대정비에 임하게 하였다.[203]

③ 국군 수도사단의 철수

국군 수도사단은 8월 1일 02시경 철수명령을 하달한 후, 군단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방어지역으로 이동할 준비의 일환으로 사단 전술지휘소를 일단 의성으로 이동시켰다. 이 때 제1연대는 석수암-성관현 선에서 제8사단의 철수를 엄호할 태세를 갖추어 대기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되었을 무렵 제8사단 제10연대가 제1연대의 엄호진지를 통과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서 제21연대 병력이 남하하였다. 06시경 제8사단의 2개 연대가 철수를 완료하자 제1연대도 철수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성관현에 배치된 제3대대와는 통신이 두절되어 이 대대의 행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제1연대장은 연대 주력을 지휘하여 안동읍으로 진입하였으나 그때에는 이미 안동읍내에 북한군의 병력 일부가 침투하여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인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미처 피난하지 못한 주민과 제8사단 병력이 혼합되어 도무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다. 더욱이 유일한 퇴로인 안동교가 이미 폭파된 다음이어서 혼란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제1연대장은 그때까지 북한군의 출몰이 없는 안동 서쪽의 합천다리를 거쳐 옥동 아래골로 진출해 이곳에서 피난가는 주민과 함께 물이 얕은 여울로 낙동강을 건너 수하동을 경유 광음동 안심마을에 일단 집결하였다.

한편 성관현에 배치되었던 제1연대 제3대대는 해가 뜰 무렵이 되어서도 제8사단의 제16연대가 철수하지 않으므로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대대 배치지역 우단

으로 우회한 수 미상의 북한군으로부터 측방에서 공격을 받게 되자 대대의 일부 병력이 진지를 이탈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교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대는 분산되었다.

안동교 부근까지 철수한 제1연대 제3대대는 대대장 이하 각급 지휘관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흩어진 병력을 수습한 뒤, 때마침 그 근처에서 낙동강을 도섭중인 제21연대 제2대대와 함께 낙동강을 건넜으며, 이날 22시경 제1연대 주력과 합류하였다. 그리고 7월 31일 풍산에 파견되었던 수도사단 특수임무부대도 이날 오후 의성으로 철수하였다.

이처럼 국군 수도사단은 제1연대의 철수가 지연된 데다가 이날 아침에 사단으로 원대복귀 하도록 계획되었던 예하 제18연대도 행군 시간상의 차질이 생기게 되어 8월 2일 01시경에야 겨우 의성에 도착하였다. 이 때문에 수도사단은 8월 1일 아침에 책임지역인 반변천 연변에 병력을 배치하도록 지시된 제1군단의 작전명령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3. 전투 결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8사단은 풍기-영주 전투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열세한 전투력을 지휘관의 적절한 지형 이용과 임기응변의 용병 그리고 장병들의 불굴의 투지와 용기로 12일 동안이나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함으로써 북한군 제2군단뿐만 아니라 그들 전선사령부 작전 전반에 큰 혼선을 빚게 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8사단이 소속된 국군 제1군단의 안동 철수작전은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철수 시간과 낙동강 도하대책을 등한시 하여 막대한 피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반변천 방어선 형성과 그 이후의 군단작전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군 제8사단은 안동을 철수한 후 운산리에 사단지휘소를 개설하고 육본작명

제90호에 의거한 군단작명 제40호에 따라 X선상의 구미동-상아동 간 20㎞ 정면에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배치하였다. 그 후 8월 3일에는 육본작명 제91호(1950. 8. 2. 03시)에 따른 군단명령 제41호에 의거 Y선상에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는데, 고란동-백자동-입암동-윤암동-상화동에 이르는 24㎞가 방어책임 지역이었다. 이른바 낙동강 교두보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는데 8월 4일에는 군단 참모장 최덕신 대령이 새로 사단장에 부임하였다.

한편 예천을 탈취하고 풍산에 이른 북한군 제8사단 제83연대는 낙동강을 도하하여 인금동을 공격함으로써 8월 2일부터 좌일선인 제21연대와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안동을 탈취한 북한군 제12사단은 김일성으로부터 안동사단의 칭호를 받고 전열을 재정비한 후 8월 4일 01시에 낙동강 도하를 감행해 우인접인 수도사단 정면을 공격하면서 낙동강전선에서의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결과

소백산맥선 지연작전은 7월 14일 이후 국군 2개 군단, 5개 사단(수도사단, 제1·제2·제6·제8사단)이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형성하여 기계화 부대로 증강된 북한군 제2군단 예하 5개 사단(제1·제8·제12·제13·제15사단)과 제1군단 예하 1개 사단(제2사단) 등 총 6개 사단의 공격을 17일간 방어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작전이었다.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전투는 한마디로 표현해 국군의 전력증강 속도와 북한군의 진격속도 사이에서 벌어진 시간과 공간의 확보를 위한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은 이른바 제3단계 작전 이후 제공·재해권을 상실하고 병참선이 300㎞ 이상 신장된 탓으로 보급이 부진한데다 병력 손실과 보충의 균형이 무너져 전투력이 50~60%로 격감되었기 때문에 공세한계점에 이르고 있었다.[204] 이와 같이 모든 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지고 승리의 기회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목표 점령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모한 공격을 진행하였다.

7월 말까지 북한군의 손실을 보면 미 육군부 통계에는 37,500명이었으나 포로 심문에 의하면 58,000명이었고 이는 대부분 국군에 의한 손실이었다. 화포와 장비는 1/3 이하로 감소되었고 전차는 30대로 감소되었다. 낙동강선에 도달할 무렵 북한군의 병력 수준은 '의용군'을 포함해서 70,000~92,000명 정도였다.

반면 국군은 수도사단과 제2사단이 청주-고은리 선에서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3일간 지연시키고, 제1사단과 제17연대가 화령장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기습공격하여 궤멸시키다시피 하였다. 더욱이 경부축선과 더불어 주요 축선 중의 하나인 3번 도로 상에서 제6사단이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해 지연전을 전개하고 시기적절하게 제1사단이 증원되면서 북한군의 함창-대구 진출을 저지하고 미군 담당지역의 동측방 위협을 제거하였다. 또한 비록 안동교에서 뜻하지 않게 많은 병력 손실을 입었지만 제8사단도 풍기-안동 간에서 계획된 진지를 점령해 나가면서 북한군 제12사단과 제8사단의 공격을 보름간 저지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벌겠다는 국군의 지연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간 중 미군 2개 사단이 추가로 증원되고 국군도 점차 부대 정비와 전력 증강이 이루어져 낙동강 선에 최후 방어선을 형성하고 이후 공세 이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작전기간 동안에 몇 가지 교훈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휘통제 관련

지연작전에서는 “고도의 리더십을 가진 지휘관, 병력의 보존과 적절한 활용, 병사들에게 소규모일지라도 승리를 안겨주는 것, 아군과의 협조 및 적에 대한 타격으로 적의 예측을 불허하는 것, 민심을 얻으면서 철수작전을 수행하는 것” 등이 필수조건이다. 소백산맥 지연작전기에 이러한 필수조건들을 충족하면서 비교적 성공한 작전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화령장전투에서 제17연대장의 정확한 정보판단과 시기적절한 대응조치는 가장 주목되는 사례이다. 제17연대장은 주민들과 북한군 병사로부터 획득한 정보의 신뢰성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단해 매복에 의한 기습공격으로 북한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또한 제17연대장은 4일간의 매복작전 기간 동안 하천과 주변의 고지 등 지형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사전에 진지를 구축하고 사격통제를 철저히 하였으며, 경계부대를 추진 배치하는 등 기습, 정보, 경계의 원칙을 충실히 따라 대승을 거두었다. 이 전투의 결과로 상주지역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로 진출하여 국군 제2군단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했던 북한군의 기도는 저지되었으며, 상주의 조기실함을 방지함으로써 문경, 함창, 예천지구의 위기를 모면하였고 낙동강 방어를 위한 6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다.

둘째, 지연작전이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하는 작전이라고 하여 전투를 소극적이고 수세적으로만 한다면 주도권을 상실하여 항상 치명적인 피해를 자초하게 된다. 따라서 지휘관은 철수 중에도 항상 적의 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최대한 이용해 적극적인 공세행동을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세행동을 통하여 공자의 전투효과를 감소시키고 그들의 추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적에게 큰 손실을 강요하여 주도권을 장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미원전투에서 제1사단 제13연대장은 무작정 후방으로 철수만 하지 않고 북한군과 끝까지 접촉을 유지하면서 북한군에게 많은 인명 손실을 입히고, 북한군의 진출속도를 지연시켰다.

셋째, 7월 24일 점촌 부근 전투에서 제6사단 제19연대장의 전차 파괴를 위한 특공대 운용도 적절한 지휘조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제19연대장은 연대의 방어종심에 이르는 북한군 고속기계화부대 접근로로 북한군의 전차가 돌파하게 되면 연대의 주력부대가 북한군에게 포위될 위험성이 있음을 간파하고 적절한 시기에 특공대를 투입, 북한군 전차를 파괴하였다. 이 때 편성된 특공대원은 전차파괴요령 교육과 철저한 계획하에 투입되어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렇듯 지휘관의 적절한 조치로 '공간을 내주는 대신 시간을 얻는다'는 지연작전의 목표를 잘 수행한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러한 사례에 포함된다.

첫째, 제8사단 제21연대 제1대대장 윤태현 소령의 지휘조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7월 18일 경북 풍기의 258고지 전투에서 제1대대장 윤태현 소령은 예하 중대가 혼전의 와중에 있기는 했지만 점차 적을 격퇴하고 방어선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포위된 것으로 오판하여 철수 명령을 내림으로써 사단 전체가 후퇴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지휘관은 교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통신수단을 긴밀히 활용해야 하며 만일 통신수단이 부적절한 경우 직접 전투현장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철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를 감행함으로써 사단작전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다.

둘째, 제8사단과 수도사단의 안동철수와 관련된 사항이다. 우선 야간철수의 문제점이다. 제8군 및 육군본부가 하달한 제8사단과 수도사단의 야간철수 명령은 안동정면의 전황이 제8사단의 분전과 수도사단의 전방 엄호로 아직 절박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고, 또 유엔공군의 제공권 장악으로 북한군의 주간행동이 거의 봉쇄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8사단과 수도사단의 철수는 유엔공군의 공중엄호 하에 주간에 단행하여야 했을 것이다. 또한 기도비닉은 군사행동의 철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간에 쫓기는 당시의 상황 하에서 무전침묵을 강요한 것은 혼란과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부득불 야간철수를 단행해야 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축차적인 철수를 감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리고 도하점 확보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도하점인 인도교가 안동시내 남쪽에 위치하고 접적선이 안동으로부터 6㎞ 떨어져 있는데다가 수도사단의 제1연대가 외곽선을 방어하고 있다는 통념상의 안도감으로 인해서 사전에 도하점 확보 조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북한군의 전술이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으로 특히 후방교란을 획책하고 있을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단 또는 수도사단에서는 철수로 및 도하점에 대한 엄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군이 북쪽 강안구릉지에서 철수부대를 교란할 때에 포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한하더라도 건제를 유지한 제10연대를 공격에 투입해야 했다. 그러나 군단과 제8사단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강구하지 않아 결국 수많은 희생자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적정 파악 관련

화령장지구 전투에서 전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에게 큰 타격을 가해 그들의 상주 점령 기도를 성공적으로 좌절시킬 수 있었던 것은 주민첩보 및 북한군 병사를 생포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전투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매복 대기하여 경계가 소홀한 북한군 선발대와 그 후속부

대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이는 기습작전의 성공요소로서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역으로 북한군의 측면에서 볼 때 부단한 적정파악 노력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기습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임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3) 예비대 운용 관련

전투력은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집중 운용하여야 하며, 또한 병력 증원시에는 부대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19연대 제1중대의 예를 보면 수안보에 있을 당시 "충주로 반격하는 제2연대를 동측에서 증원하라"는 명령에 의거 단독으로 충주로 진격하였는데 상호협조체제의 결여로 제2연대는 이미 북한군의 역습에 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뒤였다. 이에 따라 제1중대는 북한군에게 포위되어 제2연대가 조령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인 7월 15일까지도 퇴로를 찾아 헤매고 있는 중이었다.

한편 방어계획은 적의 공격진전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에 적응하여 지휘관이 유연성 있게 그의 전투력을 전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융통성은 적절한 예비대를 보유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제6사단은 문경부근 전투시 그러한 융통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7월 15일 제6사단은 제19연대 및 제2연대가 조령과 이화령에서 공방전이 치열할 때 최초 예비로 확보하였던 제7연대를 양분하여 양측방 방어에 임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공병대대와 하사관 교육대원까지 문경 동남쪽의 단산 일대에 배치함으로써 가용 예비 병력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조령을 상실하게 됨에도 역습을 실시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이화령 서남쪽으로 북한군이 우회 침투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부득이 병력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4) 주민 협조 관련

작전기간 동안 국군은 병력과 장비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탄약 및 군수품 지원상태도 전쟁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만큼 악화되어 있었지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작전기간이 경과하면서 상황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역주민의 헌신적인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된 결과였다.

특히 지역주민의 역할은 진지구축 및 식사 운반과 같은 국군이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인 노동력 제공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예를 들면, 화령장전투, 영주전투, 함창전투 등에서 애국청년단원들은 지게와 리어커를 이용해 탄약운반과 중대까지 식사운반을 담당하였다.

(집필 : 박동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 (註)

1) 제3단계 작전 시기에 관해서는 소련측 문서와 북한측 문서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소련측 문서에서는 1950년 7월 9일~23일까지로 되어 있으며(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198), 북한의 공식 역사서인 『조선전사』에는 1950년 7월 7일~20일까지로 기술되어 있다(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25, p. 198).
2)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3권, 1992, p. 250.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p. 217-22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25, p. 169.
4)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1권, 행림출판사, 1990, p. 205.
5) Report of First OCAFF Observer Team to the FEC(1950. 8. 16), RG319 Entry No. 2, Box 5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380-381.
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275.
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331, 640
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707.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423.
10) 부대개편은 7월 21일에 육군본부 작전훈령 제8호(1950. 7. 21)에 따른 것이며, 이는 국본 일반명령 제20호(1950. 7. 24)로 명문화되었다.
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전투』, 1991, pp. 182-184.
12) 제12연대는 13일 오전에 미원에 도착한 후 불완전한 3개 대대를 2개 대대로 재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대대장 신현홍 소령)가 600명, 제2대대(대대장 이무중 소령)가 691명으로 각각 구성되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전투』, 1991, p. 184).
1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1사단 12·15연대 전투상보』(105), 1997, pp. 651-652.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342-343.
15) 라주바예프보고서에서는 "북한군 제15사단 50연대가 … 7월 16일 05시 무렵에 미원리를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343). 그러나 제1사단 전투상보에 의하면, 7월 22일까지 제13연대가 미원지구에서 전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1사단 12·15연대 전투상보』(105), pp. 651-655). 여기서는 제1사단 전투상보를 근거로 기술한다.
1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1사단 12·15연대 전투상보』(105), pp. 653-6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 전투』, 1991, pp. 185-188.
17) 『제1군단 작전명령 제12호(1950. 7. 16)』, 『진천-화령장 전투』, pp. 119-120 재인용;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국전쟁사 :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321.
18) 거리고개에 북한군 전차가 출현할 당시 전차 파괴 임무를 부여 받은 제5중대장 정점봉 대위는 특공대원 13명을 선발하여 북한군 전차 파괴요령을 훈련시켜 놓고 대기 중이었다. 북한군이 접근하자 제5중대는 60밀리 박격포 사격을 가해 북한군 보병들을 흩어놓았다. 이때 북한군 전차와 장갑차도 뒤로 물러나게 되었는데, 제3소대장 김희진 중위가 지휘하는 특공조가 공격을 가해 전차 2대를 파괴하였다. 이 전공으로 특공대원은 1계급씩 특진하고 북한군 전차에 직접 뛰어올라가 전차를 파괴한 김재일 일등중사는 2계급 특진하였다(『정점봉 증언록』, 『김재열 증언록』, 『제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단 전투상보』,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전투』, p. 189 재인용).

19) 제1사단 공병대대의 임상철 중위는 북한군 전차가 미원 부근까지 전진해 왔다는 연락을 받고 부하 3명을 인솔하여 미원교 폭파를 준비하고 있었다. 장갑차가 미원교 부근에 도착하자 임상철 중위는 장갑차 소대장에게 "미원교에 폭파장치가 되어 있으며 부근에 적 전차가 출몰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려주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전투』, 1991, p. 192).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342-344.

21) 북한측 자료에 의하면, 북한군 제2사단은 청주-보은-옥천 방면으로 남하해 대전 후방을 차단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진출속도가 늦어져 그 임무가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 후방차단 임무는 논산으로 진출하던 북한군 제4사단 제18연대가 대전으로 이동해 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안동춘, 『50년 여름』, 1990, 문학예술종합출판사(평양), pp. 416-564).

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04.

23)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7호(1950.7.20, 01:10)』.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정 및 아군 상황 : 생략
2. 군은 다음과 같이 일부부대의 개편 및 배치를 변경, 차기 공세 이전의 준비를 하려 한다.
   가. 수도사단 :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안동지구로 이동하여 장차 군의 예비가 된다.
   나. 제17연대
      (1) 현 임무(화령장 전투)를 완수하면 안동지구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
      (2) 의명, 안동지구로 이동 후 수도사단에 배속한다.
   다. 제2사단 : 미 제25사단이 도착하면 즉시 임무교대 후 다음과 같이 해편한다.
      (1) 제5연대 및 제20연대는 두평리(보은 북방 8㎞)로 이동후 제1사단에 배속한다.
      (2) 제16연대는 영주로 이동하여 제8사단에 배속한다.
      (3) 제22연대는 대구로 이동후 제3사단에 배속한다.
      (4) 제2사단 사령부 및 직할부대는 대구로 이동 후 육군본부에 배속한다.
   라. 제1사단(제5, 제20연대 포함) : 미 제25사단과 임무교대 후 춘양으로 이동하여 차기 공세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마. 독립기갑연대 : 대구로 이동하여 제3사단에 배속한다(현 위치: 영동).
   바. 제3사단(제22연대, 독립기갑연대, 제1독립대대, 제2독립대대 포함) : 현 전선에서 적의 남침을 철저히 저지하라.
   사. 제6사단 및 제8사단(제16연대 및 제25연대의 1개 대대 포함) :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동시 공세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아. 제1군단 사령부 및 직할부대 : 의성(안동 남방 25㎞)으로 이동, 제1 및 제3사단을 통합 지휘하라.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 전투』, 1991, pp. 193-196.

25) 미호천 방어전에 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3, 2006, pp. 468-473 참조.

26) 진주경비대대는 박배근 대위가 지휘하는 부대로서 실 병력은 1개 중대 규모였으며, 수도사단에 배속되자마자 제8연대 증원을 위해 투입되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313).

27) 제2사단 제20연대(연대장 박기병 대령)는 안심사-봉무산 간에 진지를 구축하였고, 제1사단 제11연대(연대장 권동찬 중령)는 은행리 동쪽 6㎞ 지점인 추정리 일대에 진지를 편성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 전투』, 1991, pp. 93-96).

28) 이 과정에서 제18연대 제2대대 중화기중대장 이용준 중위가 210고지 능선에서 사격지휘를 하다가 북한군의 전차 포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제2대대가 북한군 전차와 포격전을 전개하고 있을 무렵 북한군은 190고지를 점령하려 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제2대대장 장춘권 소령이 제7중대장 우덕수 중위에게 "신속히 기동하여 앞산(190고지)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제7중대는 1㎞의 거리를 약진하여 190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전개된 북한군의 공격으로 제7중대가 고전하게 되자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7중대는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29) 당시 제8연대는 실 병력이 제2대대뿐이었으며, 장비도 대대 편성장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에서는 진주경비대대를 제8연대에 배속시켰는데, 실 병력이 1개 중대 규모였던 진주경비대대는 전투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북한군이 공격하자 무단 철수를 시도하였다. 이때 진주경비대대 좌측에서 방어 중이던 제5중대장 안태갑 중위가 달려가 진주경비대대장 박배근 대위에게 "우리가 합심하면 저 정도의 적은 능히 격퇴시킬 수 있으니 병사들을 진정시켜 같이 싸웁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힘을 얻은 진주경비대대장은 전선에서 이탈하려는 부하들을 독려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안태갑 증언록』).
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 전투』, pp. 99-102.
31) 육군본부 명령은 7월 15일 부로 하달되었다.
32) 김석원 준장이 현역으로 복귀해 수도사단을 맡게 되었을 때, 그는 과거 제1사단장 시절 제11연대장이었던 최경록 대령을 자신의 참모장으로 기용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해 육군본부가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제1사단 제11연대장이었던 최경록 대령은 7월 14일 제1사단 작전참모 김덕준 소령과 함께 수도사단에 도착하여 참모장이 되었다(김석원, 『노병의 한』, 1977, 육법사, pp. 308-309).
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316.
34) 부대대장이 제7중대를 지휘하게 되자 원래 중대장이었던 조경학 중위는 화기소대장이 되었다.
35) 이에 관하여 제1연대 제2중대 제1소대장 박종희 중위는 "남일초등학교 옆 진지에서 있다가 밤에 기습을 받고 고은리로 철수한 후 다음날 제17연대 어느 부대와 같이 공격하여 그 고지를 다시 빼앗았다"고 이 공격이 합동공격이었음을 주장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 전투』, p. 107).
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319.
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 전투』, pp. 109-111.
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204.
39) 북한군 전차와의 교전 과정에서 대전차포중대장 허현 대위가 전사하였다. 대전차포중대는 14시 30분경에 북한군 전차가 물러나자 고은 삼거리 부근으로 철수하였다.
4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 전투』, pp. 111-115.
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 전투』, pp. 115-118.
42) 『제1군단 작전명령 제12호(1950. 7. 16)』. 이 무렵 제2사단은 제16연대(연대장 문용채 대령)가 문의 북동쪽의 210고지-225고지에 전개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다가 피반령으로 물러나 고은리-회인을 연결하는 25번 도로를 통제하게 되었고, 제5연대(연대장 김동빈 대령)가 200명도 안되는 병력을 회인 서쪽 2㎞ 지점의 묵재에 배치하여 문의-회인간의 산간 소로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봉무산 일대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인 제20연대(연대장 박기병 대령)가 사단지휘소가 위치한 회인에 집결하여 사단예비가 되었다.
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321.
44) 제17연대(-)는 철수과정에서 북한군으로 오인한 F-51전투기 2개 편대로부터 공격을 받아 큰 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해를 입었으며, 야간이동 중 중화기를 실은 차량이 전복되어 12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45)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연락병을 통해 제8연대장에게 "사단은 16일 19시를 기하여 철수하니 귀 연대도 같은 시각에 보은의 교암리로 철수하라"는 메모를 전달하였다. 제8연대장은 사단장으로부터 철수명령을 받고서야 연대의 좌우측 부대가 이미 철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철수를 서둘렀다. 이때 제8연대는 북한군이 이미 통과한 고은리-문의 도로를 피하고 국사봉-작두산-문의-묵재-회인-보은 경로를 택하여 철수하였다.

46) 『미8군 정기작전보고서(1950. 7. 17)』.

47)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5호(1950. 7. 19)』. 북한군 제2사단은 7월 19일 오후 늦게 성치리(보은 북서쪽 10㎞)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남진하여 7월 22일 20시경에 보은을 점령하였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204).

4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p. 344-345.

4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47호(1950. 7. 16, 24시)』.

50) 제17연대는 7월 15일부터 제1군단사령부가 위치한 보은으로 병력을 집결시켰지만, 연대 집결지에는 진천지구 전투에서 손실이 컸던 제1대대만이 부대정비를 위해 집결 중이었으며, 제2대대와 제3대대는 고은리에서 아직 철수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424).

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4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전투』, 1991, pp. 200-206. 당시 제1군단에서는 방원철 소령이 지휘하는 160여 명(정보대원 60명과 경찰병력 100여 명)의 병력이 화령장-갈령 방향으로 투입되었다. 이들은 경찰부대가 엄호부대로 배치된 가운데 7명씩 8개조로 정찰대를 편성해 적정 수집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7월 16일 군단장에게 보고되었는데, 그 내용은 "적의 정규부대가 이미 갈령까지 진출했으며, 전투부대의 투입이 요망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2군단에서도 화령장과 상주에 각각 1개 조의 정보대를 파견하였다. 화령장에 파견된 정보대는 7월 16일 갈령 북쪽의 화북면 일대에 북한군이 출현했다는 정보를 주민에게서 듣고 이를 직접 확인한 후 정보대를 인솔한 배상록 대위가 함창으로 가 이 사실을 군단에 보고한 상태였다.

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426-4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전투』, 1991, p. 207.

53) 병력 배치 중에 연대고문관 스카레키 소령이 대대에 도착하였는데, 대대장이 계획을 설명하자 그는 두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 계획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대대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그럼 나는 이 계획을 연대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보은으로 돌아갔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전투』, 1991, p. 209).

54) 7월 16일 삼송리에 도달한 북한군 제15사단 주력은 하루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 그것은 당시 포병이 유엔 공군의 항공폭격으로 인해 야간에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15사단 주력은 괴산방면에 주둔하던 포병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으며, 야간을 이용해 포병이 도착하자 7월 17일 오후에 전투행동을 재개하였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344).

55) 7월 17일 연대장 김희준 중령은 행군제대의 부대지휘를 제3대대장 오익경 소령에게 위임하고, 정보주임 유창훈 대위, 작전주임 조영구 소령, 그리고 미 고문관과 함께 19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화령초등학교에 도착하였다. 이 무렵 상달리 계곡에서 포성과 총성이 진동하자, 연대장 일행은 차에서 내릴 겨를도 없이 곧바로 343고지로 향했다.

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427-430.

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진천-화령장전투』, 1991, p. 213.
58) 제1대대는 수색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상달리 동측 고지로부터 산발적인 사격을 받았다. 이들은 야음을 이용하여 산으로 도주한 패잔병들이었는데, 서측사면이 급경사를 이루고 지세가 험준하여 멀리 도주하지 못한 듯 욕설과 사격을 병행하면서 585고지 방향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마을 뒤편 한 지점에서 기관총탄이 계속해서 날아왔다. 이곳은 바위틈으로서 박격포 사격으로도 제압이 되지 않자 제1대대에서는 특공대를 투입해 수류탄으로 제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기관총 사수의 발목이 쇠사슬에 묶여 기관총에 연결된 채 죽어 있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431).
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431.
6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진천-화령장전투』, 1991, p. 216. 기존 전사에는 북한군 제15사단의 편성을 제48연대, 제49연대, 제50연대로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적측 문서에 의해 밝혀진 북한군 제15사단의 편성은 제45연대, 제48연대, 제50연대이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1, 2001, pp. 308-309, 342-344). 따라서 기존 전사의 북한군 제49연대는 제45연대로 수정되어야 한다.
61) 이 때 연대장은 제1대대에게 상곡리의 원위치를 확보하도록 하여 잔적 준동에 대비하게 하였으며, 보은에서 이동한 이후 쉴 사이 없이 동분서주한 제3대대를 연대 예비로서 화령장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432.
63) 진지선정과 관련해 당시 제1대대장 송호림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동관리 계곡을 보는 순간 적이 이 안으로 들어서기만 한다면 1개 연대이건 1개 사단이건 간에 문제없이 격멸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부대를 곧 봉황산 북사면으로 이동하게 하였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송호림 증언록』).
6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진천-화령장전투』, 1991, pp. 220-221.
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436-437.
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진천-화령장전투』, 1991, p. 223.
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440. 당시 국군은 한강 철수시에 배낭을 거의 모두 잃었으며, 배낭이 있는 부대도 부대이동시에는 이를 차량에 적재하고 병사들은 단독 무장을 한 채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68) 당시 연대장이었던 김희준 중령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송호림이가 연락도 안하고 새벽부터 그냥 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고문관 스카레키 소령과 같이 올라가 보니까 송호림이가 큰 기를 흔들면서 죽여라, 죽여라 하는데 운동회 때 응원하는 것 같이 하고 있었다. 적은 4열종대로 들어왔는데 2개 대대 정도는 섬멸되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김희준 증언록』(HA038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진천-화령장전투』, 1991, p. 227).
69)『제1군단 전투경과보고서』. 제2대대장의 보고에 의하면, 도로 및 논에서 주민들이 묻은 북한군 시체만도 600여 구가 넘었다.
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442-443.
71) 화이트(Horton V. White) 대령이 지휘하는 미 제24연대는 연대장과 몇 명의 장교만 백인이고, 나머지는 흑인으로 편성된 부대였다.
7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443-444. 당시 피아간의 포격전에서는 터골(낙서리 서쪽 1㎞)에 포진한 미 제25사단 포병대대가 사거리를 무시하고 포격을 가해 아군이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73) 제11연대장 최경록 대령이 7월 15일부로 수도사단에 전속됨에 따라 부연대장 권동찬 중령이 연

대장으로, 제3대대장 김재명 소령이 부연대장으로 각각 임명되었다.

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전투』, 1991, pp. 237-238.
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전투』, 1991, pp. 240-241.
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전투』, 1991, pp. 239-243.
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전투』, 1991, p. 248.
78) 화령장으로 철수한 제17연대 제3대대 장병들은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적의 포격이 치열했던 탓도 있지만 아군의 오폭에 의한 손실이 더 컸다"고 하면서 분개하였다. 이에 제17연대장 김희준 중령은 좌인접의 제1사단 제12연대가 512고지를 점령한 제17연대 제3대대를 적으로 오인하고 그곳에 포격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서 제12연대장 김점곤 중령에게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였다(국방부구사편찬연구소 소장, 『김희준 증언록』).
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전투』, 1991, pp. 243-250.
80) 『제1군단 작전명령 제27호(1950. 7. 24)』. 국방부 일반명령 제20호는 제5연대 및 제20연대는 제11 및 제12연대에 각각 편입하고 제2사단 사령부 및 직할부대는 육군본부에 배속시키라는 내용이었다.
81) 상주 정면인 화령장 일대를 인수하도록 되어 있던 미 제25사단 제24연대는 선발대로 먼저 왔던 제2대대가 7월 22일 아침에 북한군의 포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재편성을 하고 있었고, 상주 북쪽에서 국군 제6사단을 지원하고 있던 잔여 2개 대대는 예정보다 늦은 24일 석양 무렵에서야 화령장에 진입하였다.
82)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66호(1950. 7. 24, 24시)』. 제1사단은 7월 24일에 교대할 예정이었으나 미 제24연대의 진출이 늦어져 교대를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던 육군본부에서는 제1사단이 이미 미군과 진지교대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듯 하였다.
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진천-화령장전투』, 1991, pp. 250-256.
84) 백선엽 제1사단장은 7월 25일 상주에서 준장으로 승진하였다.
8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708.
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708-709.
87) 이안천은 폭이 50~80m이고 수심이 1.5m정도였다. 경들저수지가 있는 아천리에서 동막리 간의 6㎞ 구간은 천연의 요새와도 같았는데, 특히 국사봉은 중소리에서 동막리로 넘어오는 도하지점을 감제할 수 있는 중요 지점이었다.
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711-712.
89) 제6사단 포병대대는 7월 18일부로 제16포병대대가 제3포병대대로 교체되었다.
9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715-716.
9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717.
92) 제20연대가 함창에 이르렀을 때에는 1개 대대 병력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제20연대는 제12연대 제2대대에 편입되게 되었으며, 동 부대를 지휘한 김한주 소령이 문의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기 때문에 함창에서 보충된 조성래 소령이 그 후임으로 발령되었다. 그리고 제2대대장이던 이무중 소령은 새로 편성한 제3대대장으로 임명되고, 제1대대는 종전과 같이 신현홍 소령이 지휘하였다, 신현홍 소령은 27일 원동(점촌 북쪽 5㎞) 부근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하순화 소령이 그 후임으로 임명되었으며, 연대장에는 박기병 대령이, 그리고 부연대장에는 김점곤 중령이 각각 보임되었다. 29일 04시 경들저수지 동측으로 이동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연대장 박기병 대령은 27일 원동부근의 영강 도하 작전시 손실이 컸던 제1대대를 집결지에 남겨두어 부연대장 김점곤 중령의 주관하에 부대재편을 하게 하였으며, 제2대대(대대장 조성래 소령)와 제3대대(대대장 이무중 소령)를 경들저수지 동측으로 이동시켜, 제2대대를 212고지 북쪽 기슭

국방부 구사편찬연구소

에, 제3대대를 남쪽 기슭에 각각 전개하게 하였다.

9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권동찬 증언록』. 이 때 통합방침은 부대명칭을 병력이 많은 부대의 것을 따르게 하고, 지휘관은 양개 부대 중 선임자로서 임명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5연대의 병력은 300여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제11연대의 제2대대로 편입시켜 1개 대대를 편성하고, 대대장에는 제5연대의 이두황 소령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제11연대의 병력으로서는 제1대대와 제3대대를 편성하였는데, 제1대대장은 부연대장이던 김재명 소령을, 제3대대장은 제2대대장이던 정영홍 소령을 각각 임명하고, 이때까지 대위로서 대대장직을 대행한 장근술 대위와 김소 대위는 각각 부대대장으로 보직 변경하였다. 또한 제5연대 제1대대장이던 차갑준 소령을 연대 작전주임으로 보직하고 정용식 소령(지금까지의 작전주임)을 동 보좌관으로 조정함으로써 연대는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참모진의 보강이 이루어졌다. 지휘관인 연대장에는 선임인 김동빈 중령이 보임되고 부연대장에는 이때까지 연대장직을 수행해 온 권동찬 중령이 임명되었다.

9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720-721.

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p. 344-345.

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381.

97) 충주의 제2연대는 수안보-연풍을 거쳐 사단의 좌일선으로 이화령을 점령하고, 진천의 제19연대는 괴산과 수안보를 거쳐 사단의 우일선으로 조령을 점령하였으며, 제7연대는 음성에서 보천(음성 서남쪽 6㎞)으로 돌아 괴산을 거쳐 문경에 집결하였다.

98) 육군본부에서는 작전훈령 제3호(1950년 7월 5일, 11시부)로 교량 파괴의 경우 육군 총참모장이 명령하는 외에는 절대 엄금한다는 훈령을 하달하였다(『육본작전훈령 제3호(1950년 7월 5일, 11시부)』). 제6사단 공병대대도 육군본부의 도로파괴 지침에 따라 괴산-이화령간의 주요 교량을 폭파하였다.

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345.

10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380-381.

101) 『국본 일반명령 제14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959 재인용. 국군 제2군단은 7월 10일 청주에서 지휘부를 구성한 후 11일 01시에 경북 함창으로 이동하여 다음날인 12일에 '국본 일반명령 제14호(문서명령은 7월 13일부로 하달됨)'에 의거 정식으로 재창설되었다. 이 때 군단장에는 김백일 준장이, 참모장에는 강영훈 대령이, 작전참모에는 이주일 대령이 각각 임명되었다. 그 후 7월 20일 김백일 준장이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복귀함에 따라 제1군단 참모장이던 유재흥 준장이 후임군단장이 되었다.

10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383-384.

10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388-391.

10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385-388.

1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391-392.

106) 이화령 계곡으로 몰린 북한군은 사방에서 사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로마저 파괴됨으로써 기계화 부대의 이동이 어려워져 큰 피해를 입었다. 이화령 고개길은 북한군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으로 메워져 있었으나 노폭이 좁아 신속히 회전하여 철수할 수가 없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394). 문경 지역 고개들의 고산 기복지형은 궤도를 이용하는 북한군 포병의 기동을 곤란하게 하였다. 북한군은 보병에 대한 포병의 지원이 부족하였으며, 협소한 도로는 북한군의 대대급 포병과 자주포의 운용조차 불가능하게 하였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345).

107) 제5중대는 조령으로 이동하기 전에 수안보리에서 대대장으로부터 "오가리 일대에 출현한 북한군을 격퇴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곳으로 출동하였지만 이미 북한군이 남쪽으로 이동한 뒤였다. 이때부터 제5중대는 적중에 고립되어 조령전투에 참가하지 못하였다(국방군사연구소,『충주-점촌전투』, 1992, p. 97).
108) 이 과정에서 제19연대장과 제16포병대대장 사이에는 포격 시기를 놓고 약간의 의견이 상충되기도 하였다. 제19연대장은 제2대대에게 철수 명령을 하달 한 후, 상초리 계곡에 대한 진내사격을 포병대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포병대대장 김성 소령은 진내사격 시기가 이른 감이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포격이 지연되었다. 이에 제19연대장은 북한군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조령 제2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 보루인 조령 제1관문마저 지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한번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
1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401-403.
110) 당시 국군 제6사단은 1개 대대의 예비도 보유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공병과 하사관교육대 요원까지 문경 동남쪽의 단산(檀山)일대에 배치함으로써 가용병력이 전혀 없었다. 더욱이 각 연대마다 1개 중대의 병력이 80명을 넘지 않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절대병력의 부족으로 도처에 취약점이 노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여 ㎞에 달하는 광정면을 담당한 제6사단은 이화령 진지 서남쪽의 무방비지대로 북한군이 계속 밀려들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측후방의 방어를 위해 부득이 일부 병력을 재조정하기에 이르렀다.
1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404-406.
112) 제19연대 제3대대는 제9중대(중대장 황의철 중위)와 제10중대(중대장 김두일 중위)를 제일선에 배치하고 제11중대(중대장 이상학 중위)를 외갈평리 부근에 추진 배치하는 한편, 제12중대(중대장 김덕해 대위)의 81밀리 박격포 4문을 팔령리 계곡에 배치하고 있었다.
1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414.
1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1, 2001, p. 205.
115) 신현리는 사단지휘소가 위치한 곳으로 이곳에 도착한 포병대대장 김성 소령은 사단장 김종오 대령에게 이와 같은 전황을 보고하고서 일선 연대의 비협조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사단장의 위로를 받게 되자 포병대대장은 다시 포진을 선정하여 지원사격을 속개하였다. 제16포병대대는 제7연대 정면의 백화산 일대는 물론 적의 집결이 예상되는 문경 주변의 요로에 집중적으로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1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666.
117) 당시 제7연대장은 왕릉리(旺陵里)에 위치하고 있어 이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1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417-418.
1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667.
1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668;『국본 일반명령 제18호』. 제16포병대대는 개전 이래 국군 제6사단과 더불어 춘천-홍천-충주-문경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군에서 유일하게 포 1문도 상실하지 않은 포병대대였다(국방군사연구소,『충주-점촌전투』, 1992, p. 125).
121) 국방군사연구소,『충주-점촌전투』, 1992, pp. 133-134.
1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672-673.
123) 앞의 '화령장 전투' 참조.
124) 국방군사연구소,『충주-점촌전투』, 1992, pp. 141-1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679-680.
125) 제3포병대대 제2포대는 전날(7월 20일) 오후에 무릉리에서 아천리로 이동 완료하였다.

1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676-677.
127) 미 전차 1개 소대는 T-24전차(경전차) 5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3대는 굴모리 부근에 위치하여 제6사단을 지원하였고, 2대는 유곡리에 집결해 있었다.
1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680; 국방군사연구소,『충주-점촌전투』, 1992, p. 150.
129) 이 전투에서 제6중대는 30여명의 북한군을 사살하였지만, 중대장을 비롯해 6명의 장병이 전사하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1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676.
1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충주-점촌전투』, pp. 156-157.
132) 조봉 피탈 후 제3대대장은 제9중대(중대장 황의철 중위)를 투입해 역습을 감행하였지만,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제9중대는 공격 개시 2시간 만에 조봉에서 2㎞ 후방인 651고지로 물러났다.
1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684-687.
13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687.
1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충주-점촌전투』, p. 165.
136) 조봉은 지역 내에서 제일 높은 감제고지로서 적측에서도 이를 중시하여 증강된 대대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동공간이 또한 제한되어 300명 이상의 병력을 동시에 진출시키기에는 너무 협소한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공자로서는 매우 불리한 형편이었다. 더욱이 피아간에 고개만 들면 총격이 난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간의 공격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1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691-692.
1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충주-점촌전투』, pp. 167-169.
139) 제1연대 제1대대는 492고지-760고지간의 진지를 계속해서 점령하였다.
140) 제5연대는 국군 제2사단 예하의 연대로서 육본작전명령 제57호(1950. 7. 20, 01:10)에 의거 사단이 해체됨에 따라 제1사단에 배속되어 안동에 위치해 있다가 육본명령에 의해 급거 함창으로 이동하여 제1연대 진지(492고지-760고지)를 인수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충주-점촌전투』, pp. 172-173).
141) 이 전투에서 제2연대는 적 사살 200여명, 포로 2명, 귀순병 1명과 박격포 6문을 비롯한 기관총 10정, 각종 소총 70정 및 각종 실탄 1,500여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1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693-694. 제19연대에서는 전날 2대의 적 전차와 격전을 치른 후에 대전차특공대 요원을 선발하였는데, 조달진 조장을 비롯한 12명이 지원하여 그 가운데 독자 5명을 제외하고 7명으로 편성하였다. 대전차특공대원은 박노봉 중위의 지휘하에 조장인 조달진 이등중사와 부조장 조문종 이등중사 그리고 원근호 일병, 이규환 일병, 양학모 일병, 최홍식 일병, 나용수 일병 등이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충주-점촌전투』, p. 175).
1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694-695.
1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충주-점촌전투』, pp. 182-183. 국군 제1사단의 함창 이동과 관련 작전에 대해서는 제2절 '미원-함창전투' 참조.
145) 이 과정에서 제1대대장 신현홍 소령과 제3중대의 소대장 정기팔 중위가 전사하자 부대대장 주여준 대위가 병력을 수습한 후 적진의 배후를 공격하였으나 무위로 끝났다. 비록 제1대대는 적진을 점령하지 못했지만 이 공격으로 인해 북한군은 측후방의 방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4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1, 2001, pp. 345-

34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700-701.

1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1, 2001, pp. 346-347.

148) 이에 대해서는 제2절 미원-함창전투 참조.

1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단양-의성전투』, 1987, p. 77.

150) 제1대대장이던 최취성 대위가 7월 12일에 △936 전투에서 전사하자, 시흥보병학교 OAC 파견중에 복귀한 윤태현 소령이 후임 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1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p. 332.

152)『제8사단 작전명령 제16호(1950. 7. 13, 12시)』.

153) 예천혼성대대는 15일 12시에 미 제25사단의 월슨특수임무부대(보병 1개 대대와 포병 1개 대대로 편성)가 예천에 도착하자 생천동(예천 북쪽 2.5㎞)으로 진지를 이동하였다가 7월 16일에 소속 미상의 북한군 정찰대와 교전을 벌여 이를 격퇴하였다. 이후 예천혼성대대는 사단 작전명령 제19호(1950. 7. 17)에 의거 18일 05시에 예천을 출발해 10시에 영주에 도착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단양-의성전투』, pp. 87-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pp. 342-343).

154) 기존 전사에는 국군 제8사단 전투 정면의 북한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국군 제8사단의 좌인접인 제6사단을 추미(追尾)하여 충주를 탈취(掠取)한 북한군 제12사단은 제1군단에서 제2군단으로 소속이 변경된 북한군 제1사단이 충주에 도착하자, 해(該) 사단에 공격임무를 인계하고 7월 13일 단양으로 이동하여 북한군 제8사단에 대한 증원태세를 갖추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p. 331)." 그러나 7월 13일 충주에서 단양으로 진출한 북한군 병력은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였다. 북한군 제12사단은 7월 4일 주력을 단양방면으로 투입하고, 제31연대를 충주 방면으로 진출시켰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2006 참조). 따라서 기존 전사에 기록된 중앙선 축선상의 병력 증원은 충주 방면으로 진출한 제12사단 소속 1개 연대의 원대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군 제8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제12사단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북한군 제8사단은 7월 초 강릉에서 제1경비여단을 기간으로 하여 창설되었으며 7월 말에 예천 방면으로 투입되었다(Report of First OCAFF Observer Team to the FEC(1950. 8. 16), RG319 Entry No. 2, Box 5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1, 2001, p. 221).

155) 제10연대 제3대대는 연대 예비로서 새기실에 집결대기 중 느닷없이 북한군이 출현하자 대대장 김순기 대위가 1개 중대를 진두 지휘해 그곳에 진입한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단양전투시까지 제3대대장은 하병래 소령이었으나 단양실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대장이 김순기 대위로 변경되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단양-의성전투』, pp. 80-81).

1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단양-의성전투』, pp. 81-84. 육본작명 제42호('50. 7. 12, 24시)로 제2사단 예하 제25연대 제1대대가 7월 13일 00:01부로 국군 제8사단에 배속되었다. 원래 이 대대는 안동에 지휘소를 두고 일월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벌이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제3사단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춘양으로 진출해 공비 토벌작전과 동해안으로 상륙한 북한군 제766부대의 내륙침투를 저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군 제8사단에 배속되자 제25연대 제1대대는 사단작명 제17호에 의거 7월 14일 15시에 내성(乃城)으로 진출하여 부근 일대를 확보하고 사단의 동측방 엄호 임무를 담당하였으며, 16일에는 제2중대가 영주로 이동하여 사단예비가 되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332).

157)『제8사단 작전명령 제19호(1950. 7. 17)』.

158) 국군 제8사단은 북한군 포로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군 공격부대가 제8사단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2사단으로 바뀌고, 공격 형태가 방어 진지 측방에 대한 공격을 병행하면서 5번 도로에 주공을 지향시킬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작전명령 중 ①과 ②항은 잘못된 적정 판단이었다. 당시 국군 제8사단 전투정면의 북한군은 제천-단양전투 때부터 계속해서 북한군 제12사단이었으며, 북한군 제8사단은 강릉에서 창설된 이후 아직 전투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였다(Report of First OCAFF Observer Team to the FEC(1950. 8. 16), RG319 Entry No. 2, Box 557). 이곳에 증강된 북한군 병력은 제30연대를 후속한 제32연대 병력이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1, 2001, p. 347).

159) 7월 19일 날이 밝으면서 국군 제8사단은 야포를 비롯한 전 화력을 258고지 일대에 집중하였다. 이에 북한군은 258고지에 1개 중대의 병력만을 남겨둔 채 산법동-377고지 부근으로 물러났다. 제1대대는 빼앗긴 258고지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지휘관의 판단 착오로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단양-의성전투』, 1987, pp. 92-94).

160) 제2대대(대대장 박영섭 대위)는 7월 17일 연대로 배속된 제25연대 제2중대(중대장 채명신 대위)가 대대로 재배속되자, 377고지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대대의 좌측 방어를 담당하게 하고 제5중대(중대장 이성오 중위)를 중앙에, 제6중대(중대장 우교붕 중위)를 우측에 각각 배치하여 속칭 어은골-377고지-미곡동 남쪽의 속칭 홈다리에 이르는 일대를 확보하였다.

161) 제25연대 제2중대는 309고지를 탈취한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을 공격하여 309고지를 점령하고 대대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이후 제2중대는 응암동 고지마저 점령함으로써 258고지의 적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게 되었다.

16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337.

1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342-343.

164) 제1대대는 제1중대(중대장 궁인철 중위), 제2중대(중대장 이경용 중위)가 좌우 일선중대로 426고지-오향골의 주진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제3중대(중대장 박용학 중위)가 대대예비로 생현동의 소리골 능선에 배치되어 있었다.

165) 제2대대는 장군봉(△733)을 중심으로 좌측으로부터 제7중대(중대장 이영각 중위), 제6중대(중대장 백남수 중위), 제5중대(중대장 김동증 중위)를 각각 배치하였다.

1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341-342.

1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345.

1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350-351.

169)『제8사단 작전명령 제20호(1950. 7. 19)』.

1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351-352.

17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단양-의성전투』, 1987, pp. 106-108.

17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355.

1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353-3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단양-의성전투』, pp. 107-110.

1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단양-의성전투』, p. 110.

1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362-3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단양-의성전투』, pp. 111-112.

176)『제8사단 작전명령 제21호(1950. 7. 21)』.

1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단양-의성전투』, pp. 115-116.

1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364-365.

179) 제25연대 제1대대는 7월 13일 00:01부로 제8사단에 배속된 이래 내성에서 사단 동측방을 엄호하다가 사단 작명 제20호에 의거 영주 동북쪽의 223고지-281고지로 진출하였다. 그 후 7월 20

일 국본 일반명령 제20호에 의거 제2사단에서 제8사단으로 예속이 변경되었으며, 22일 전황이 급변하자 사단장의 긴급명령에 따라 309고지로 급진해 이곳에서 276고지 탈환 명령을 수령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269). 그리고 제21연대의 57밀리 대전차포 중대는 단양전투 이래 연대예비로 있다가 7월 21일 사단 작명 제21호에 의거 소총중대로 개편된 상태였다. 개전 이후 최초로 보병전투에 참가한 연대 57밀리 대전차포 중대는 20시경 창진동 뒷산을 점령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서봉교 중대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결국 309고지 남쪽 계곡으로 철수한 후 재편성 작업에 착수하였다.

18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347.

18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347.

182)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64호(1950. 7. 23, 13시)』.

1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p. 121-123.

184) 제21연대는 제25연대 제1대대를 제1대대로, 원래의 제1대대를 제2대대로, 제2대대를 제3대대로 전면 개편하고, 원래의 제3대대를 해체하여 그 병력을 3개 대대에 균등하게 배치하였다.

18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p. 132-135.

186) 육군본부는 7월 26일에 유엔공군이 대대적인 폭격을 실시하게 되자 이에 앞서 전 부대와 후방지역 주요시설에 백색 대공표지(백색 페인트 및 포판)를 하도록 긴급 지시를 하달하였다(육군본부 작전훈련 제13호, 1950. 7. 25, 21시).

1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p. 137-140.

188) 임익순 소령은 8월 3일까지 1주일간 직권 정지되었다. 제21연대장은 29일 봉수산에서 물러설 때 제1대대(대대장 임익순 소령)가 예안으로 임의 철수하자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대대장 임익순 소령을 정권처분(停權處分)하고 부대대장 허순오 대위를 대대장 대리로 임명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643-644).

18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p. 142-144.

19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641.

191) 제8사단의 철수를 엄호한 제1연대의 1개 대대는 제8사단의 방어선이 무너진 것과 때를 같이 해 원대로 복귀하였다.

19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642-643.

1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p. 146-147.

194)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9호, 1950. 7. 31. 국군 수도사단은 예하 제17연대가 30일에 거창 부근의 건빈리로 진출한데 이어 이날 육본작명 제89호에 따라 예천을 방어중인 제18연대(연대장 임충식 중령)가 제2군단에 배속됨으로써 제1연대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19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p. 148-149.

196) 준비명령은 7월 26일에 하달되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 152).

19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 153.

198) 안동 철수 명령의 하달 과정과 관련해서는 증언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제1군단장이었던 김홍일 소장은 "미 제8군에서 경비행기로 직접 하달된 것이 아니고 대구에 있는 육본을 거쳐 7월 31일에 하달된 것으로 기억한다. 철수 순위에 대해서는 수도사단 엄호하에 제8사단이 철수하라고 내가 명령하였는데 양개 사단의 참모장이 이 문제로 다투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술회하였다. 군단 참모장 최덕신 대령은 "안동철수의 어려움은 미군측의 작전지시의 잘못으로 야기되었던 것이다. 즉 7월 31일 19시 무렵에 미군의 정찰기 한 대가 군단사령부로 날라와 통신통을 낙하하였다. 펴보니까 영문으로 된 작전명령이었는데 8월 1일 미명까지 안동 부근의 제8사단과 수도사단을 낙동강 이남으로 후퇴시키라는 것이었다. 후

퇴 지점과 신 진지 지역은 미군이 쓰는 지도로 표시되어 있어서 영문을 번역하고 축척을 새로 재서 1:5만 지도에 맞추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이때 나는 제8사단과 수도사단의 참모장을 긴급히 소집하고 군단 작명을 하달하였는데 이들이 출발한 시간이 23시 무렵이었으니까 자정 무렵까지는 각 사단지휘소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제8사단 참모장 최갑중 중령은 "군단에서의 참모장회의는 23시에 시작되었는데, 야간철수의 문제점을 이것 저것 토의하고 더욱이 수도사단의 최경록 대령과 철수 순위 문제로 옥신각신하느라고 1일 02시까지 회의를 계속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군단장이 단안을 내려 결정하게 되었는데 내가 작전명령을 수령하고 사단에 도착하였을 때는 03시 무렵이었다"고 술회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651-652).

19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652-653.

200) 제21연대 제10중대는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던 중 연락병을 통해 철수 명령을 받았다. 이에 중대장 황기상 중위는 연락병에게 "지금 교전 중이고 우인접인 제2대대가 진지를 확보한 채 치열한 전투 중인데 무슨 소리냐? 당장 대대로 가서 다시 확인하라"고 돌려보내고 진지선을 계속 확보하였다. 황기상 중위는 개전 전날에 외박나갔다가 비상소집에 응소하지 못하여 초전에 참가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언제나 솔선하여 어려운 일을 도맡고 전투시에는 용전하였는데 이때에도 사단의 안동철수를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계속 진지를 확보하면서 연락병의 복귀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우인접인 제2대대마저 접적을 유지하면서 축차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하고, 대대로 돌아간 연락병이 돌아오지 않자 황중위는 중대의 철수를 명령한 다음 자신은 그 자리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자결하였다. 중대의 철수명령을 다시 확인하지 못한 채 독단으로 중대를 이탈하게 한 책임을 스스로가 졌던 것이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654-655).

20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660-661.

20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655-656.

20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pp. 161-163.

204)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쟁』, 1984, p. 3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5 장 동해안지역 지연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영덕 부근 전투
제 3 절	진보 전투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1. 개 요

동해안지역 지연작전은 국군 제3사단이 주축이 되어 1950년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해가도를 따라 남진한 북한군 제5사단과 동해안에 상륙해 태백산맥을 타고 내륙으로 침투한 제766부대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개된 공방전을 일컫는다.

동해안 지역은 강릉-옥계-삼척-울진-영해-영덕-포항 등 해안 도시로 이어지는 해안선 일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게릴라와 같은 소규모 병력의 은밀한 침투는 유리하나 대부대 기동은 불리하였다.

지역 내의 주요 작전로는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어있는 7번 도로가 종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횡적으로 울진-영주간 도로, 영덕-안동간 도로, 포항-영천간 도로가 동서를 연결한다. 이 도로들은 노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데다가 지세마저 험준하여 기갑부대의 기동을 크게 제한하였다. 작전 중의 기상은 비가 오는 날이 많았으며, 22~25℃를 오르내리는 고온다습한 가운데 아침·저녁으로는 해안선 특유의 짙은 안개가 시계를 크게 제한하였다.[1)]

이 기간 중 북한군의 전쟁 목적은 한국군을 완전히 격멸하고 미군이 한반도에 무사히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군은 남동 해안의 부산과 울산, 포항 항구를 신속히 장악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주력을 대전-부산과 상주-대구, 안동-포항 방면으로 집중시켰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으로는 제5사단과 상륙부대를 투입해 중서부·중동부 지역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면서 영덕-포항을 조기에 공략하고 부산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진출하도록 하였다.[2)]

7월 1일 울진을 탈취한 북한군은 7월 12일 영덕 북쪽 14㎞ 지점인 평해까지 남하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유엔 해군의 함포사격과 함재기 공격을 피해 주로 야간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병참선이 신장되어 보급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남진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다.

한편 동해안지역을 담당한 국군 제3사단은 7월 24일까지 제23연대와 독립 제1대대만으로 영해-영덕 간에서 지연전을 수행하다가 24일 제22연대가 원대 복귀하고, 뒤이어 해군의 포항경비부에서 편성한 육전대도 이 지역에 투입됨으로써 전투력이 크게 증강되었다.[3)]

북한군 제5사단은 제10연대를 진보 방면으로 우회시키고 7월 14일부터 양개 연대로써 영해 남쪽 진지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3연대와 독립 제1대대는 병력의 부족과 화력의 열세로 인하여 방어진지가 돌파되기 시작하자 명령에 따라 축차진지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연대는 철수시 영해-영덕 간 교량과 터널 및 도로를 파괴하였고, 유엔 공군기와 함대가 북한군의 집결지와 접근로를 타격하여 진출을 지연시켰다.

그러나 북한군 제5사단(-)이 유엔 해·공군의 포격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해 7월 17일 영덕을 함락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피아간에는 영덕 부근의 181고지와 207고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결국 8월 2일 18시경에 국군 제3사단은 영덕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 기간까지 북한군 제5사단은 40% 이상의 병력 손실을 입고 영덕 북방 산간계곡으로 은신하여 부대정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4)]

북한군 제5사단의 주력부대가 동해가도를 따라 남진하는 동안 영덕 서측방 진보 방면으로는 북한군 제766부대가 청송을 목표로 남하하고, 제5사단 제10연대가 울진에서 영덕으로의 우회기동을 위해 제766부대를 후속하였다.

육군본부에서는 이 일대의 적을 저지, 격퇴하기 위해 7월 26일 독립기갑연대를 제3사단에 배속하여 진보면으로 투입하였다. 독립기갑연대는 연대주력과 장갑차 5대를 반변천 남안에 배치하고 이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강원경찰 제5대대를 통제하여 동측방에 배치하였다.

독립기갑연대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북한군 제766부대와 격전을 벌인 후 진보 남쪽 비봉산 일대로 철수하였는데, 독립기갑연대의 작전으로 북한군 제766부대의 침투를 차단하여 아군 전선이 양분되는 위기를 방지할 수 있었음은 물론 북한군 제10연대의 영덕으로의 우회기동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다.

2. 북한군과 국군 상황

동해안지역에는 북한군 제5보병사단과 유격부대인 제766부대가 투입되었다. 제10·제11·제12연대로 편성된 북한군 제5사단은 7월 12일 평해를 점령한 후 이틀간 부대정비를 마치고 14일부터 영덕-포항을 목표로 2개 연대를 동해가도로 남하시켰다. 그리고 해안방어를 위해 1개 보병연대와 1개 보병대대를 울진-평해간에 주둔시켰다.[5] 북한군 제5사단의 임무는 중동부지역을 담당한 북한군 제2군단의 진출에 앞서 포항까지의 주요 항구를 장악하여 부산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당시 제5사단의 총 병력은 10,000여명이었으며, 지원화력은 122밀리 곡사포 12문, 76밀리 사단포 및 연대포 36문 등 총 130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상륙부대인 제766부대는 전선 후방에서 무장폭동을 유발하고 철도와 수송시설물을 파괴하며 국군의 퇴로 및 증원부대를 차단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5-1> 북한군 주요 지휘관

구 분		계 급	성 명
제5사단	사단장	소장	김창덕
	제10연대장	대좌	박정덕
	제11연대장	대좌	김봉문
	제12연대장	대좌	왕 휘
	포병연대장	대좌	차균섭
제766부대	부대장	총좌	오진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제766부대는 제5사단이 포항으로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다. 제766부대의 총 병력은 1,000여명으로 추정되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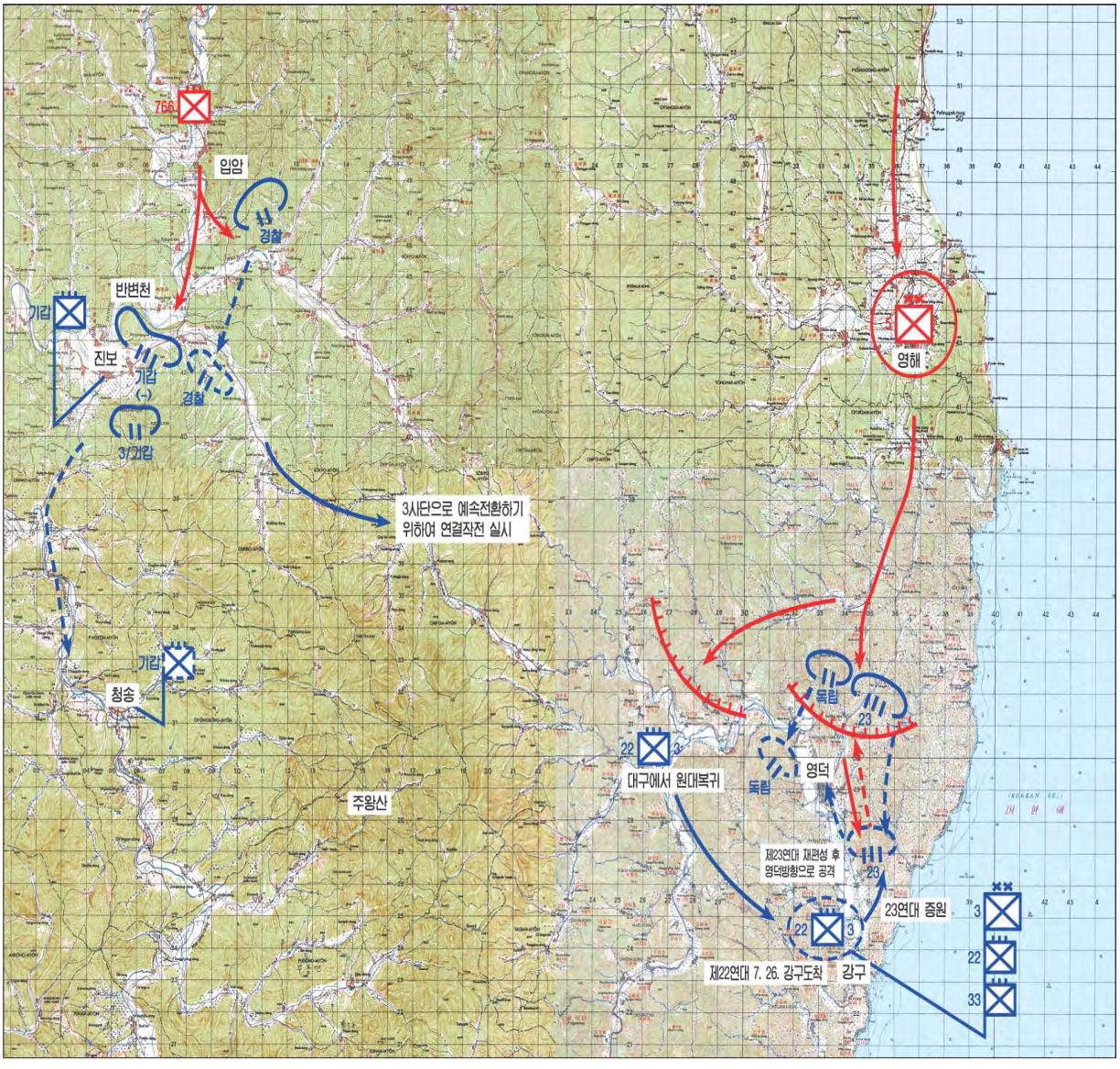
한편 동해안지역의 방어를 담당하게 된 국군 제3사단은 제23연대만으로 울진-영해간 60㎞의 공간에서 북한군 제5사단과 제766부대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었다. 7월 13일 제3사단 제23연대는 영해에서 철수하여 영덕 북쪽에 새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이 선에서 제22연대가 증원될 때까지 영덕을 방어하고자 했다. 이 무렵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이 긴밀한 협조하에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했으며, 제22연대의 원대 복귀와 독립기간연대의 제3사단 배속이 뒤이어 진행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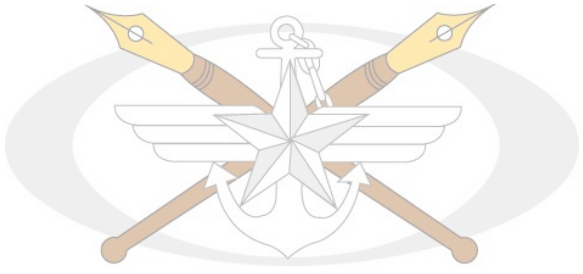
<표 5-2> 국군 주요 지휘관

직 책			계 급	성 명
제3사단	사단장		준장	이준식
	참모장		대령	최 석
	제22연대	연대장	중령	강태민
		제1대대장	소령	황 명
		제2대대장	중령	장인걸
		제3대대장	중령	염정태
	제23연대	연대장	중령	김종원
		제1대대장	소령	박재열
		제2대대장	소령	백기천
		제3대대장	소령	허형순
	독립기갑연대	연대장	대령	유흥수
		제1기병대대장	소령	박무열
		제2기병대대장	소령	장철부
		제3도보대대장	대위	이붕직
	독립 제1대대	대대장	중령	김종순
	독립 제2대대	대대장	소령	이소동
	제11포병대대	대대장	소령	노재현
	경찰대대	대대장	총경	김인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5-1> 동해안지역 지연작전(1950. 7. 14~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영덕 부근 전투

1. 전투 개요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한 지 16일 만인 7월 10일,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는 유엔 해군의 함포지원을 받으면서 영덕 북방 영해 부근에서 북한군과 격전을 벌였지만 전력의 격차가 너무 커 그곳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7월 13일에는 영해에서 철수하여 축차적인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영덕 북쪽에 새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제22연대가 증원될 때까지 영덕을 방어하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이 일대의 작전지역은 영덕-강구 간의 해안도로가 강구를 정점으로 역삼각형으로 이루어져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으며, 영덕에서 포항까지 45㎞의 거리는 병력의 열세를 해·공군의 지원으로써 만회하여 지연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7월 17일, 영덕을 방어 중이던 제23연대가 북한군의 야간기습을 받아 혼란이 일어남으로써 어이없게 영덕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쌍방간에는 치열한 영덕 공방전이 전개되어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다.

이 무렵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도 영덕의 전황을 크게 우려하여 매 시간 단위로 보고 받고 지휘조치를 하였다. 국군과 유엔군 측에서 영덕 부근 전투에 큰 관심을 둔 것은 포항항구와 영일비행장의 확보를 위해 더 이상 후퇴하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

국군 제3사단은 7월 25일부터 영덕 탈환을 위한 육·해·공군 합동작전을 수일간 계속 하였으며, 마침내 북한군이 영덕 북방으로 후퇴함으로써 8월 2일 18시경에 영덕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동해가도를 따라 남진한 북한군 제5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단 주력은 40% 이상의 병력 손실을 입고 영덕 북방 산간계곡으로 은신하여 부대정비에 들어갔다.

2. 전투 경과

1) 국군 제3사단의 영덕방어선 형성

1950년 7월 1일 북한군 상륙부대가 울진을 탈취한 이후 전선이 점차 영덕 일대로 근접됨에 따라 동해상에 출동 중인 미 해군 제7함대의 함포지원과 함재기들의 출격이 점증되었다. 이에 따라 국군 제3사단은 수시로 강력한 화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사단은 제23연대의 병력 손실을 보충하는 한편, 한강선 방어를 위해 차출된 제22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육군본부에 요청하였다. 7월 10일에 사단장이 경질됨에 따라 동해안 지역의 국군은 방어개념을 재정립하고 영해-영덕 간에서 종심 깊은 지연전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즉 육군본부는 7월 9일 수원-음성 방면으로 철수 중인 제22연대의 조속한 원대 복귀 명령을 하달함과 동시에 사단장 유승렬 대령을 경남편성관구사령관으로 전보하고, 육군사관학교장이던 이준식 준장을 신임사단장으로 보임하였다. 이는 포항을 고수하기 위해 영덕-강구 선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따라 이준식 준장은 영해 방어를 위한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영해-영덕 간의 해안도로를 연하여 3중의 축차진지를 편성해 북한군에게 타격을 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제23연대장 김종원 중령과 독립 제1대대장 김종순 중령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영해에서 영덕에 이르는 해안본도를 연하여 최대한의 지연전을 수행하며, 적에게 치명적인 출혈을 강요하려 한다.

② 제23연대는 2개 대대로써 저지선 (가), (나), (다)를, 1개 대대로써 저지선 (라), (마)를 축차 확보하면서 적을 격퇴하고 7월 20일 06시 이후에 주저항선 (바)로 집결하라.

③ 독립 제1대대는 저지선 (ㄱ), (ㄴ), (ㄷ)를 축차 확보하면서 적의 측면 공격을 배제하고, 7월 20일 06시 이후에 주저항선 (ㄹ)로 집결하라.

④ 기간 중 함포 및 공군의 지원을 사단 전방지휘소에 요청하라.

⑤ 사단 전방지휘소는 7월 19일 06시부터 강구에 위치할 것이다.

이 명령에서 주저항선 집결의 시한을 7월 20일 06시로 정한 것은 원대 복귀 중인 제22연대의 도착이 18일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한편 미 제8군사령부는 동해안 전선의 상황을 깊은 우려로 지켜보고 있었다. 포항의 항만과 영일비행장의 귀추가 전 전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포항은 부산과 함께 전 전선에 대한 병참물자의 주입구이며, 영일비행장은 미 제40전투비행대대의 기지로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er H. Walker) 중장은 작전참모 맥린(Allen D. Maclean) 중령에게 동해안 전선에 지원 가능한 모든 화력을 동원하라는 긴급지시를 하달하였다. 이로써 사단 수석고문관 에머리치(Rollins S. Emmerich) 중령은 화력지원에 관한 요청과 연락을 제8군사령부와 수시로 취하게 되었으며, 육군본부는 한국측 연락관으로 최덕신 대령을 사단에 파견하였다.[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제23연대는 7월 12일 12시에 망월봉(△220) 서쪽 능선에 제1대대와 제2대대로써 진지(가)를, 목골재 서쪽 500m 지점의 낮은 산지에 제3대대로써 진지(라)를 각각 점령하게 하였다. 그리고 독립 제1대대가 가미실재(목골재 서쪽 2.5㎞)를 중심으로 진지(ㄱ)를 점령하였다. 이날 14시에 2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각 정면에 출현하자 영해 앞바다에 대기 중이던 미 함정들에서 함포지원사격이 이루어졌으며, 영일비행장에서 출격한 미 제40전투비행대대의 근접항공지원이 병행되었다.[8]

한편 북한군 제5사단은 7월 8일 울진에 무혈입성한 후 9일 05시에 금매리(울진 남방 6㎞) 지역에서 산포리 지역으로 상륙한 국군 2개 대대와 교전을 벌였다.

영덕의 오십천교

이 전투는 7월 9~11일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북한군 제5사단은 7월 11일 23시에 고리동(울진 남방 12㎞, 덕신리 해수욕장 부근)을 점령하였다.

국군이 새로운 방어계획에 따라 영덕-강구 선으로 축차적으로 철수를 하자 북한군 제5사단은 7월 12일 08시경 평해(영덕 북쪽 14㎞)에 들어왔으며,[9] 14일부터 영해 남쪽 진지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북한군 제5사단은 유엔군의 해군 화력에 완전히 제압당하여 주간 행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보급로마저 차단당하여 손실된 전투력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력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야간 전투 위주로 작전행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10]

이무렵 국군 제3사단도 병력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22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22연대는 한강선에서 철수한 이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치원-청주-문의를 거쳐 도보로 철수하였기 때문에 예상시간보다 훨씬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11] 이에 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공병대대(대대장 박기석 소령)를 기간으로 예비병력 500명을 급편하여 남호동(강구 남쪽 3.4㎞) 북쪽의 구릉지에 대기하게 하고, 강원도경찰대대(대대장 윤명운 경무관)를 영덕 서북쪽 5㎞ 지점의 삼화동 부근에 배치하여 산간 소로를 따라 측방으로 침투하는 북한군에 대비하게 하였다.[12]

2) 영덕 피탈과 207고지-181고지 선으로의 철수

목골재-가마실재의 제1차 저지선에서 해군 및 공군의 화력 지원을 받아 북한군 제5사단을 견제한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는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북한군에게 밀리기 시작하였다. 제23연대는 7월 16일 고래산-102고지-167고지 선으로 후퇴하였다가 17일에는 구미리-화림산-237고지-매정동을 잇는 선상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게 되었다.[13]

이 무렵 북한군은 7월 16일 11시경에 해군 포항경비부 예하 1개 중대 규모의 용호대와 교전한 후 영해를 점령하였다. 그 후 북한군 제5사단은 17일 하루 동안 포병의 집결과 탄약 보급을 실시한 후 7월 18일 오후에 영덕 근교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19일에는 06시부터 국군 제23연대의 방어진지에 포격을 가하면서 영덕 점령을 위한 총공세를 개시하였다.[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제23연대는 주력을 우곡동(영덕 동남쪽 1㎞)의 181고지-207고지 능선으로, 독립 제1대대를 오십천 남쪽의 208고지로 각각 철수하게 하였다.[15] 이로써 북한군 제5사단은 19일 19시에 영덕을 완전히 점령하였다.[16]

이와 같이 영덕을 상실하고 동해안 방면이 위기에 처하자 20일 워커 중장이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 소장과 제25사단장 킨 소장을 대동하고 포항에 도착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았다. 워커 중장은 영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공군의 화력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동해안의 해군 함정을 순양함 2척과 구축함 6척으로 증강하여 영일비행장의 미 제40전투비행대대와 더불어 국군 제3사단을 근접 지원하며, 이에 추가하여 영일비행장을 경비중인 미 제

7기병연대 제1대대 D중대의 81밀리 박격포 소대로 하여금 제23연대를 직접 지원하도록 결정하였다.

미 제8군은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할 마지막 방어선인 낙동강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포항의 전술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기필코 포항을 확보해야만 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은 미봉책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유엔 공군과 해군의 화력을 이용하여 영덕지구에 배치된 국군 제3사단을 지원함으로써 북한군을 영덕-강구 선에서 저지하고자 하였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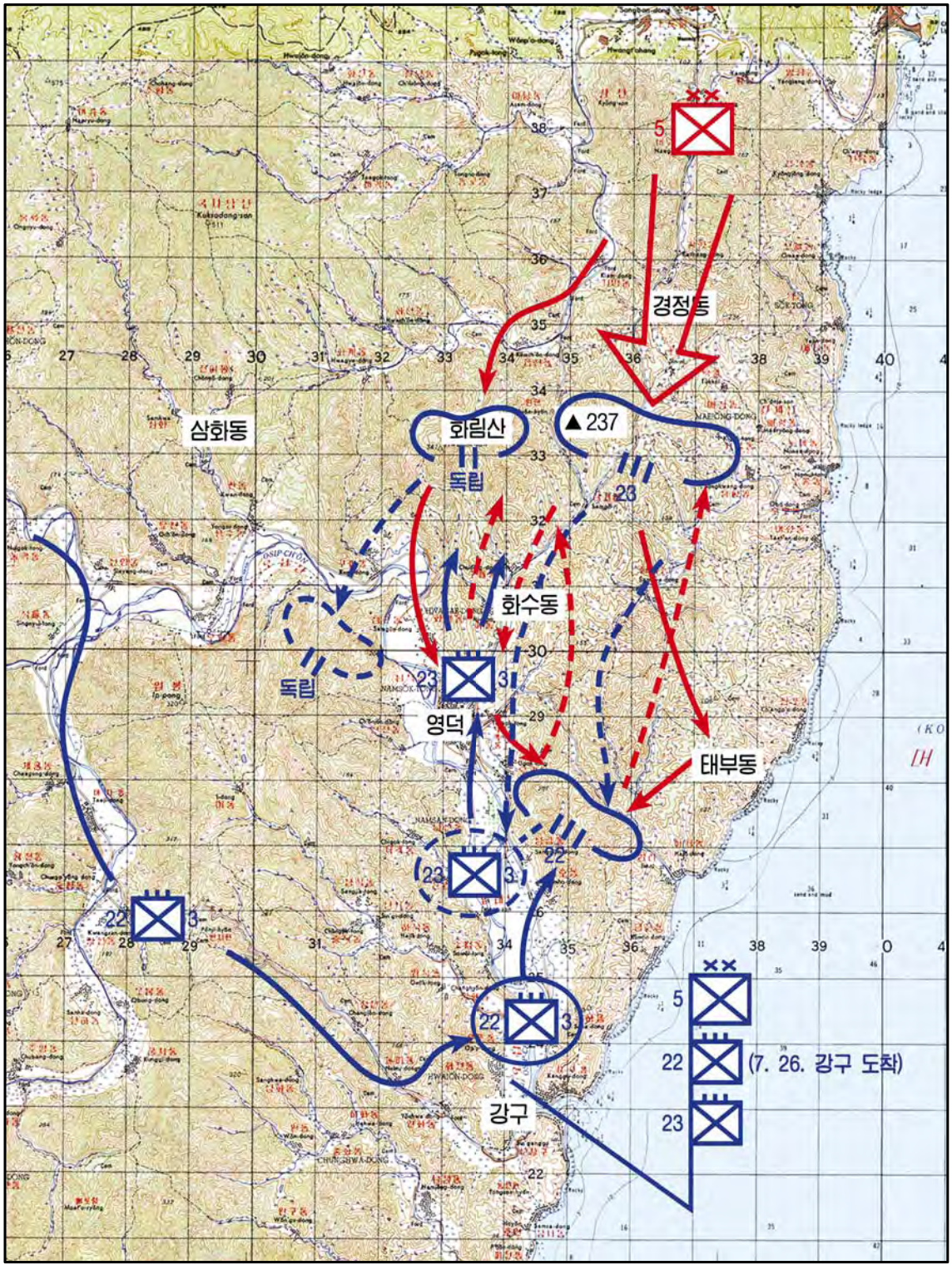
이에 국군 제3사단은 20일 오후부터 유엔 공군과 해군의 지원 하에 영덕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날 제23연대는 덕곡동 부근까지 진출해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18] 이와 관련해 공산군측 문서에서는 "7월 20일 오후 적은 사단 진지에 대구경 함포로 강력한 포격을 실시한 후에 보병이 포병과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역습을 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19]

20일의 공격에 이어 21일에도 유엔 해군 및 공군은 이른 새벽에 영덕 일대를 맹타하였으며, 목표 일대는 순식간에 화염으로 휩싸이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공격개시선에 산개한 국군 제23연대는 지원화력이 북쪽으로 연신되는 즉시 공격을 개시해 북한군 진지를 돌파한 후 영덕을 탈환하였으며, 그 여세를 몰아 다시 화림산-237고지-매정동 선까지 진출하였다. 이에 관해 공산군측 문서에서는 "7월 21일 적이 지상포와 함포를 동원하여 사단 진지에 재차 사격을 가하였다. 20분간의 포 사격을 실시한 후에 적 보병이 1개 연대 병력을 동원하여 역습을 가하였다. 제10보병연대는 공격을 견디지 못한 채 영덕을 포기하고 도시 북방 3~5㎞ 지역으로 후퇴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20]

제23연대가 영덕을 재탈환한 21일 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밤이었다. 제23연대 장병들은 주간 전투에서 피로가 쌓였으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방어진지 보강작업을 끝낸 후 산병호에서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북한군 제5사단의 일부 병력이 방어지대를 통과한 후 22일 이른 새벽에 국군 제23연대의 배후를 급습하였다. 이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공격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5-2> 영덕 전투(1950. 7. 14~31)



받게 된 국군 제23연대 장병들은 또다시 철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후방 깊숙이 침투한 북한군의 소수병력이 강구에 위치한 제23연대 전술지휘소를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져 약 2시간 동안 지휘체제가 마비되었으며, 그 직후 영덕-강구 방어진지가 돌파당할 위기로 빠져들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23연대는 공격개시선이었던 208고지와 207고지-181고지 선 부근으로 후퇴하여 이 선에서 간신히 병력을 수습하고 방어진지를 재편성함으로써 위급한 국면을 극복할 수 있었다.[21]

북한군 제5사단은 7월 23일 새벽까지 야간공격을 실시하여 영덕을 재점령하고서 이날 18시부터 207고지에 18분간 포격을 가한 후 18시 30분에 자주포를 동원하여 강구 방면으로 공격하였다.[22]

국군 제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오십천 대안에 위치한 208고지(영덕 서쪽 1.4㎞)의 독립 제1대대로 하여금 적의 측방진출을 견제하게 하고, 제23연대에게 태부동-우곡동 선을 방어하게 하였다. 이에 제23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제3대대를 181고지에, 제2대대를 207고지에 각각 배치하고, 제1대대를 연대 예비로 173고지(강구 북쪽 3.3㎞)에 집결시켰다.

181고지의 제3대대(대대장 허형순 소령)는 연일 계속된 전투로 인해 장병들이 극도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7월 24일 동이 틀 무렵 고지 동쪽 기슭으로 침투한 2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주진지가 포위당하였다. 방어진지가 붕괴될 긴박한 상황에서 181고지 남쪽 기슭에 대대 예비로 대기 중이던 제10중대(중대장 박종병 대위)가 과감한 역습을 시도해 대대 주력 부대의 철수로를 개척하고, 제3대대가 금호동으로 병력을 집결할 수 있게 하였다. 207고지의 제2대대(대대장 백기천 소령)도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동측방으로부터 압력을 가함에 따라 207고지 남쪽 1.1㎞ 지점에 위치한 상금호로 물러났다.

이렇듯 주요 감제고지인 181고지와 207고지에서 제23연대가 물러나기 시작하자 24일 07시부터 강구 앞바다에 포진한 유엔 해군 함정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하루 종일 181고지-207고지 선에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25일 06시에 제23연대는 예비인 제1대대를 투입해 181고지를 탈환하였다. 제1대대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81고지에 대해 역습을 시도할 때에는 전날부터 계속된 해군의 함포사격으로 인해 북한군 주력이 도주한 상태라 고지 탈환은 비교적 용이하였다.[23]

3) 제22연대의 증원과 207고지-181고지 전투

강구 북방 207고지-181고지 선에서 제23연대가 유엔 해군의 화력지원하에 북한군의 파상공격을 저지하고 있는 동안, 24일 18시에 대구에서 재편성을 마친 제22연대가 강구에 도착하였다. 제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처 장거리 행군의 피로도 풀지 못한 제22연대를 강구 북방 1.5㎞ 지점에 있는 150고지에 배치함으로써 우발상황에 대비하였다.

제3사단장은 제22연대의 증원으로 작전상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되자, 이 연대로 제23연대를 초월 공격하게 하여 26일 영덕을 탈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5일 밤에 북한군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또다시 181고지가 상실됨에 따라 부득이 이에 대한 역습에 제22연대를 투입하기로 하였다.[24]

7월 26일 국군 제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181고지 및 207고지의 북한군이 진지를 보강하기 전에 역습을 감행하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181고지 및 207고지를 동시에 탈환하여 영덕을 회복하기 위한 진출선을 확보하려 한다.
② 제22연대는 2개 대대로써 181고지 및 207고지를 탈환하라.
③ 제23연대는 현 위치에서 제22연대의 역습을 엄호하라.
④ 독립 제1대대는 현 위치에서 계속 적의 측방진출을 견제하라.
⑤ 공병대대는 현 위치에서 별명을 대기하라.
⑥ 기간 중 함포 및 공군지원을 수시로 요청하라.
⑦ 사단지휘소는 강구에 계속 있을 것이다.[25]

이 작전은 강력한 함포 및 항공지원을 통해 북한군 제5사단으로 하여금 출혈을 강요해 전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에 주목적이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단장으로부터 공격 명령을 받은 제22연대장 강태민 중령은 이날 07시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연대 작전명령을 각 대대에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사단 작명에 의하여 181고지 및 207고지를 점령하려 한다.
② 제3대대는 181고지를 점령하라.
③ 제2대대는 207고지를 점령하라.
④ 제1대대는 172고지에 집결하여 별명을 대기하라.
⑤ 기간 중 각 대대는 함포 및 공중지원을 수시로 요청하라.
⑥ 공격개시 시간은 7월 26일 13시이다.
⑦ 연대지휘소는 공격개시 2시간 전에 172고지로 추진될 것이다.[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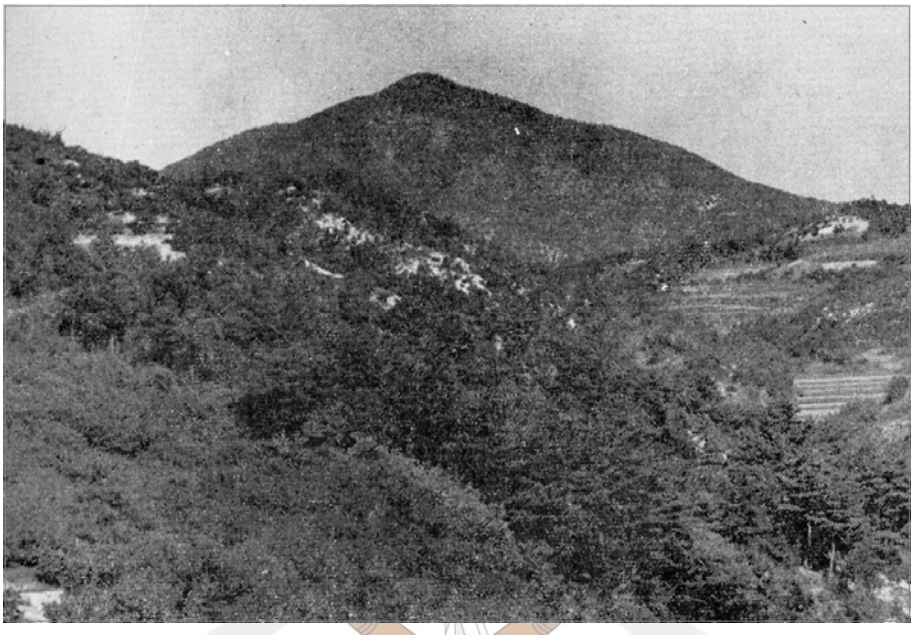
제22연대는 제3대대(대대장 염정태 소령)를 우일선으로, 제2대대(대대장 장인걸 대위)를 좌일선으로 하여 각각 181고지와 207고지를 목표로 13시에 역습을 감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이날 12시경부터는 강구 앞바다로 진출한 유엔 해군 함정의 공격준비사격이 40분간 실시된 데에 이어 미 제40전투비행대대의 전투기 편대가 목표 일대를 20분 동안 강타하였다. 1시간에 결친 공격준비사격이 끝나는 즉시 행동을 개시한 제22연대의 2개 대대는 북한군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초토화된 목표를 탈환하였으며, 유엔해군과 미 제40전투비행대대는 영덕 일대를 맹렬히 폭격하여 그 일원을 완전히 제압하였다.

제3대대는 제10중대(중대장 양성식 대위)와 제11중대(중대장 문용기 중위)가 181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시도해 북한군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고지를 점령하였으며, 제2대대는 제5중대(중대장 이영제 중위)와 제6중대(중대장 황한준 중위)가 역습을 시도해 14시 20분경 207고지를 탈환하였다.

목표를 탈환한 제22연대는 일몰 전에 207고지-181고지 선상의 방어진지를 보강하고 살상지대 설치와 역습계획 준비 등 북한군의 야간 역습을 저지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기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영덕의 주요 감제고지인 207고지

이날 밤 국군 제22연대가 예상한 대로 22시가 조금 지나서 북한군의 공격이 개시되었다. 북한군은 181고지에 주공을, 207고지에 조공을 각각 지향시켜 여러 차례에 걸친 치열한 파상공격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북한군의 공격으로 181고지의 제3대대는 한 때 방어진지 일부가 무너지는 위기를 맞았으나 대대장 염정태 소령의 시기적절한 화력지원 요청과 예비대 투입으로 2시간여의 치열한 교전 끝에 북한군을 물리치고 진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3대대 제12중대 제2소대장 이명수 상사는 12명의 특공대와 함께 적진으로 침투하여 북한군의 자주포를 파괴하고 1개 소대 병력을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27] 그리고 207고지의 제2대대도 181고지에 대한 주공을 엄호하기 위해 207고지의 국군 방어화력을 견제하려던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이를 물리치고 고지를 사수하였다.

이날 밤 2시간 동안의 격전에서 방어진지를 사수한 제22연대는 북한군이 181고지를 우선 점령하고 하금호 선까지 진출하여 207고지 배후를 차단함으로써 제

2대대에게 출혈을 강요하고자 했다는 것을 간파하게 되었다. 이에 제22연대장은 27일에 북한군의 재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제2대대와 제3대대에 진지보강을 명령하는 동시에 사단에 보급지원을 긴급히 요청하였다.[28]

4) 국군 제3사단의 반격과 영덕 탈환

국군 제3사단장은 강구를 방어하는 데 유리한 중요 지형이자 영덕 탈환을 위한 공격의 발판이 되는 207고지-181고지를 확보한 데 이어 27일과 28일 양일 간에 걸친 유엔 해·공군의 해상 및 공중 지원으로 북한군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자 영덕 탈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① 사단은 7월 29일에 영덕을 탈환하려 한다.
② 제22연대는 현선을 고수하며 별명을 대기하라.
③ 제23연대는 주력으로 영덕을 점령하고, 일부로 180고지-220고지선을 확보하라.
④ 독립 제1대대는 일부로 320고지를 점령하여, 적의 측방 진출을 견제하라.
⑤ 사단공병대대는 150고지에 집결하여 별명을 대기하라.
⑥ 공격개시 시간은 29일 06시이다.
⑦ 기간 중 함포 및 항공지원을 요청하라.
⑧ 사단지휘부는 계속 강구에 있을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단장 이준식 준장의 작전 복안은 제22연대에게 현 위치를 고수하게 하여 7번 도로는 물론 대탄동(영덕 동북쪽 5.5㎞)-삼계동(대탄동 서쪽 2㎞) 방면으로 침투할지도 모르는 북한군을 제압하게 하는 가운데, 제23연대로 하여금 영덕을 탈환한 후 그 여세를 몰아 180고지(화수동)-220고지(화수동 서쪽 1.5㎞) 선까지 진출하여 화림산을 점령 중인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8고지(영덕 서쪽 1.5㎞)에서 오십천 서측 연변을 방어 중인 독립 제1대대로 하여금 320고지(일명 삿갓봉, 208고지 서쪽 2.8㎞)까지 진출하여 북한군의 측방 공격을 견제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무렵 북한군 제5사단은 7월 16일부터 전개된 영덕-강구지구 공방전에서 많은 병력 손실을 당했지만 보충이 되지 않아 전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반면에 미 제8군에서는 영덕을 전 전선 중에서 특히 관심을 집중하여 주시하고 있었다.[29]

7월 29일 06시, 국군 제23연대는 유엔 해·공군의 화력지원 하에 공격을 개시하여 08시에 영덕을 탈환하고 계속해서 최종 목표인 220고지-180고지로 진출해 그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 제23연대는 북한군의 야간공격을 받아 다시 공격개시선으로 철수하게 되었으며, 다음날(30일) 새벽 제22연대가 재차 공격을 개시해 영덕을 탈환하였다. 이날 제3사단에는 제11포병대대(대대장 노재현 소령)와 독립 제2대대(대대장 이소동 소령)가 배속되어 사단의 전투력이 대폭 증강되었다. 그 후 영덕을 중간에 두고 국군과 북한군은 백병전이 거듭되는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며, 국군 제3사단은 8월 2일 마침내 220고지-180고지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독립 제1대대는 208고지에 일부병력을 남겨두고 대대 주력이 삿갓봉을 점령하여 사단 방어지역의 좌측방과 신양동-진동재-오포동에 이르는 접근로를 통제하게 되었다.[30]

8월 3일 국군 제3사단은 2개 연대를 모두 일선에 투입하여 화림산-매정동 선상에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영덕지구에서는 8월 5일 낮까지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이 때 북한군 제5사단은 소규모 수색정찰 활동 이외에는 일체의 작전행동을 취하지 않고 차후 작전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전투결과

북한군 제5사단이 영덕지구에서 국군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2주일이 넘도록 지체하게 됨으로써 북한군 제2군단의 작전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당초 7월 하순에 포항을 점령하기로 계획하였던 그들의 기도는 유엔 해·공군으로

부터 강력한 화력 지원을 받는 국군 제3사단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다.

북한군 제2군단사령부에서는 그들 예하의 각 사단이 국군의 필사적인 저항에 부딪혀 진출이 지연됨에 따라 동해안 축선을 통한 남진이 계획대로 진척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북한군 제2군단은 안동을 점령한 제12사단으로 하여금 청송-기계 축선으로 장거리 침투를 감행하게 하는 한편, 영덕 정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북한군 제5사단에게는 전투력 회복을 위한 부대정비를 실시하게 한 다음 기습적인 공격을 단행하도록 조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진보 전투

1. 전투 개요

영덕 전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인 7월 28일 영덕 서측방 진보 방면에는 북한군 제5사단 제10연대가 제766부대를 후속하여 진출 중이었으며, 청송 동남방의 주왕산 일대에는 제766부대 병력과 게릴라가 준동하고 있었다.

진보와 청송은 안동과 영덕의 중간 지점이며, 영양-진보-청송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영덕으로 우회하거나 포항, 영천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접근로였다.

7월 26일 육군본부는 독립기갑연대를 제3사단에 배속하여 진보로 투입하였다. 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연대주력과 장갑차 5대를 진보 반변천 남안에 배치하고 이 일대에서 공비를 토벌 중이던 강원경찰 제5대대(대대장 김인호 총경)를 통제하여 동측방에 배치하였다. 연대는 장갑차의 엄호하에 경찰 1개 중대로 주왕산에 집결한 제766부대 병력과 게릴라들을 소탕하면서 진지편성에 주력하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은 그 동안 계속된 유엔 공군기의 폭격으로 인해 공격을 중지하고 있다가 29일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주력을 반변천의 독립기갑연대 정면에 집중하고 1개 대대로 경찰대대 진지를 우회 공격하였다. 독립기갑연대 주력은 최후 저지사격까지 실시하면서 적을 격퇴하였으나 8월 1일 미명 경찰대대 진지가 돌파되는 위기에 처하였다.

독립기갑연대는 장갑차 4대의 지원하에 다음날까지 격전을 전개하였으나 퇴로 차단의 위협을 받아 진보 남쪽 비봉산 일대로 물러남으로써 진보를 상실하였다. 연대는 그 동안 영덕의 제3사단과의 연결을 위한 4차례의 계속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성공하지 못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이 무렵 안동 남쪽을 방어하

던 수도사단이 좌측 길안으로 진출함에 따라 이들과 연결을 이루고 수도사단으로 배속 변경되어 북한군을 계속 방어하게 되었다.

이 작전으로 북한군 제5사단 제10연대의 영덕으로의 우회기동을 저지하였음은 물론 제766부대의 침투를 차단하여 아군 전선이 양분되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2. 전투 경과

1) 독립기갑연대의 반변천 방어선 형성

전 전선에 걸쳐 북한군의 진격 속도가 늦어지자 수안보까지 내려온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은 "도로를 따라 정면으로만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산을 타고 측배후로 우회하여 적을 포위섬멸하면서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 맹추격으로써 진공속도를 높이라"고 일선의 지휘관들을 다그쳤다.

이에 북한군 제2군단은 유격부대인 제766부대(부대장 오진우 총좌)를 주왕산(청송 동남쪽 10㎞)으로 침투시켜 재산공비들을 규합해 민심교란과 아군의 병력분산을 획책하는 한편, 동해안으로 남하중인 제5사단에서 제10연대를 영양-진보-청송을 거쳐 포항으로 우회공격하게 하였다. 당시 북한군 제5사단 제10연대의 병력은 약 3,000명이었으며, 주요장비는 76밀리 야포 4문, 120밀리 박격포 5문, 45밀리 대전차포 5문 등이었다. 그리고 게릴라전을 목표로 한 제766부대는 개인화기 위주로 무장하였으며, 병력은 1,000명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북한군의 사기는 개전 초기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다. 신장된 보급로에 대해 유엔 공군의 차단 폭격이 강화되자, 탄약을 제외한 기타 보급품은 현지조달에 의존해야만 했으며, 이로 인해 하루 한 끼의 급식마저 어려워 전선 이탈자가 속출하였다. 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군 병사들 중 상당수가 유엔군의 참전으로 부산까지 진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국군은 제3사단(사단장 이준식 준장)이 7월 17일부터 영덕-강구 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육군본부와 제8군에서는 제22연대(연대장 강태민 중령)와 미 해병 1개 대대를 급파하여 동해가도의 위기를 수습하였다. 그러나 영덕-안동 간에 걸친 55㎞의 산악 및 계곡 접근로는 여전히 개방된 상태로 놓여 있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이 간극을 메우고자 영동에서 대구로 이동 중인 독립기갑연대(연대장 유흥수 대령)를 작명 제57호(50. 7. 22부)에 의거 제3사단에 배속함과 동시에 진보로 이동시키는 한편, 이곳에서 대비정규전을 수행하고 있던 강원경찰 제5대대를 독립기갑연대에 배속시켰다. 당시 독립기갑연대의 병력은 550명이었으며, 2개 중대로 1개 대대를 편성하고 있었다. 주요 장비로는 장갑차 4대, 반장갑차 1대, 말 200여필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31] 그리고 경찰대대는 병력 400여 명으로 당시 개인 화기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육군본부로부터 진보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독립기갑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본대에 앞서 7월 25일 진보에 도착해 진보초등학교에 연대지휘소를 개설하였다. 이때 독립기갑연대는 피배속부대인 제3사단은 물론 육군본부나 좌인접한 제1군단(군단장 김홍일 소장)과도 유무선이 단절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대장 유흥수 대령이 지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시 이곳에서 대비정규전을 수행 중이던 경찰대대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는 방법뿐이었다.

경찰대대장 김인호 총경은 "1개 연대 규모의 적이 영양 방면에서 남하 중이며, 26일 아침 경찰대대는 407고지(진보 동북쪽 2㎞)에서 이들과 교전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2㎞ 남쪽의 339고지로 물러나게 되었으며, 원전동(진보 동남쪽 12㎞)에서 34번 도로(진보-영덕간)를 경계하고 있던 제3중대도 이날 1개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진보로 철수하고 있는 중"이라는 내용과 "경찰대대의 후방인 이전동(주왕산 남쪽 4㎞) 부근에 제766부대와 재산공비로 구성된 약 1,000여명의 게릴라가 준동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32]

이러한 보고를 받은 기갑연대장은 두절된 사단과의 통신을 복구하게 하는 한편, 현 접촉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각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① 연대는 지체 없이 339고지로부터 병옥동간에 급편진지를 점령하여 진전에서 적을 저지 격파하는 한편, 지대 내에서 준동하는 공비를 격멸하려 한다.
② 제1장갑대대는 잠목-261고지 간을 고수하고 적을 저지 격파하라.
③ 제2기병대대는 261고지를 점령하여 적을 저지 격멸하라.
④ 제3도보대대는 예비로서 연대지휘소 부근에 위치하여 차후 명령에 따르라.
⑤ 강원도경찰 제5대대는 339고지를 계속 고수하며 명에 의하여 이전동에 준동하는 적을 격파할 준비를 갖추라.
⑥ 연대지휘소는 계속 진보초등학교에 있을 것이다.[33]

이에 따라 독립기갑연대는 7월 26일 23시경에 계획된 진지를 점령하고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2) 제3사단과의 연결 시도

7월 27일 06시경에 진지공사 상황을 확인한 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당분간 현 전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군에 의해 차단되어 있는 진보-영덕-강구 도로(34번 도로)를 소통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연대장은 경찰대대장 김인호 총경과 장갑 제1중대장 박용실 대위에게 "경찰대대에서는 1개 소대를 차출하여 장갑대에 배속하게 할 것이며, 장갑 제1중대 박용실 대위는 이를 통합 지휘하여 영덕으로 약진하는 즉시 제3사단과 연결하고 연대가 실시할 앞으로의 임무를 수령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 연대장은 박용실 대위에게 "정찰대의 주임무는 사단과의 연결에 있으므로 기동력이 빠른 장갑차를 이용해 이를 수행하고 배속된 경찰 병력은 황장재(일명 30리 고개)에 배치하여 통로를 경계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07시에 장갑차 1대를 선두로 한 정찰대가 사단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영덕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정찰대가 황장재 고개를 지나 원전동 서쪽 1㎞ 지점에 이르렀을 때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호를 구축하고 그 옆에는 보급물자가 산재해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정찰대장 박용실 대위는 그것이 북한군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독립기갑연대와 경찰대대가 방어편성을 한 반변천

대대급 보급소일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연대장에게 적정을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적과의 접촉을 피하고 즉시 복귀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정찰대는 다시 온 길을 돌아 부대로 향했는데, 16시경 화장재 부근에서 북한군으로부터 기습을 받았으나 별다른 피해 없이 부대로 복귀하였다.

7월 28일 전날부터 내린 비가 폭우로 변해 산간도로 및 계곡들이 범람하였다. 이날 339고지 전면의 북한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나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화매동(원전동 북쪽 2㎞)에 집결하고 있으며, 이전동(청송 동남 12㎞)쪽에는 1,000명 이상의 게릴라가 주왕산(이전동 북쪽 3㎞)에서 하산하였음이 피난민들을 통해 알려졌다.

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병력을 분산해서라도 현 진지선의 고수, 제3사단과의 연결, 공비토벌이라는 세 가지 일들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결심하고, "제2기병대

대는 1개 소대를 투입해 사단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경찰대대는 장갑차 1대의 증원 하에 1개 중대를 투입해 이전동의 공비를 소탕하라"고 명령하였다.[34]

사단과의 연결 임무를 부여 받은 제2기병대대(대대장 장철부 소령)는 제6중대(중대장 박익균 중위) 제1소대(소대장 신염 중위)에게 단독군장에 60밀리 박격포 1문만을 보유하게 하여 08시에 출발시켰다. 제1소대는 전날 정찰대가 복귀 중 기습을 받은 황장재를 피하여, 34번 도로의 북쪽에 겹겹이 이어진 능선과 계곡을 가로 질러 화매동 서북쪽 1.5㎞ 지점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그곳의 진출로에도 이미 1개 소대 규모의 북한군이 배치되어 경계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진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제1소대는 북한군을 기습 공격하였다. 30여 명의 사상자를 남긴 채 북한군이 절골(화매동 서북 700m)쪽으로 퇴각하자 제1소대는 즉시 화매동을 벗어나 계곡으로 진출하였다. 이때 연곡(화매동 북쪽 700m) 방면에서 북한군이 밀려들자 제1소대는 60밀리 박격포의 지원 포격하에 본대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사단과의 제2차 연결작전마저도 실패하게 되었다. 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신염 중위의 보고를 받고 주 임무를 망각한 행동을 했다고 크게 질책하였다.

한편 사단과의 제2차 연결작전이 수행될 무렵인 이날(28일) 08시경에는 장갑차 1대를 동반한 경찰중대가 청송을 출발해 수색작전을 전개하면서 오후 늦게 이전동 서쪽 500m 지점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첨병으로부터 "이전동에 적이 집결 중"이라는 보고가 있자 경찰중대는 장갑차를 앞세우고 마을로 진입해 1개 대대 규모로 추산되는 게릴라들을 공격해 100여 명을 사살하였다.[35]

7월 29일,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339고지 전면의 북한군이 07시경 339고지와 31번 도로(양양-진보간)를 따라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339고지에 배치된 강원경찰 제5대대의 2개 중대 200여 명은 모든 화력을 집중해 북한군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의 화력이 증강되고 339고지 서쪽으로 적이 우회하여 후방로를 차단하려 하였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406고지(339고지 남쪽 2㎞)에 위치하고 있던 연대장은 화매천이 폭우로 급격히 불어나 잠시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경찰대대의 퇴로가 완전히 차단될 것을 우려하여 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시에 경찰대대를 273고지-월전삼거리로 철수시켜 이곳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게 하였다.

이렇듯 몇일 동안 상급 및 인접부대와의 연락이 단절된 가운데 기갑연대 정면으로 북한군의 공격이 개시되자 병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어 갔다. 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고심 끝에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제3사단과의 연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심하고 연대 예비인 제3도보대대(대대장 이붕직 대위)를 통해 사단과의 연결작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39고지에서 경찰대대가 치열하게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대를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과의 연결이 무엇보다 절실했던 기갑연대는 이날 10시경 제3도보대대를 제3차 사단 연결작전에 투입하였다.

3) 주저항선 전투

7월 30일 미명,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군이 포화를 집중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북한군은 연대 주저항선의 앞을 동서로 흐르는 반변천(화매천의 본류)의 범람으로 인해 도하가 어렵게 되자 강원경찰 제5대대의 정면으로 공격을 집중하였다.

이 지역을 방어하던 경찰대대는 공용화기도 없이 실탄이 부족한 소총만으로 북한군과 맞서게 되었다. 북한군은 경찰대대를 가볍게 제압하고 청송 방면으로 직행하려는 듯 계속해서 이곳으로 병력을 투입하였다. 대대장 김인호 총경은 좌일선의 2개 중대를 후퇴시켜 대대정면을 축소하는 한편, 273고지의 제3중대를 투입해 역습을 시도하였다. 불의의 기습을 받은 북한군은 406고지(△273 동북쪽 2.5㎞)로 물러선 후 재정비를 마치고 14시경에 273고지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상황을 주시하던 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연대본부 행정요원으로 조직한 1개 중대(실 병력은 100명)와 연대지휘소에 있던 장갑차 2대를 월전삼거리로 추진시켜 273고지의 경찰대대를 지원하게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경찰 제3중대가 반격함으로써 북한군은 406고지로 다시 물러서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무렵 사단과의 제3차 연결작전에 투입된 제3도보대대는 전날 황장동에서 야영을 하고 06시에 영덕을 향해 출발해 12시경에 속칭 추매기(원전동 동남쪽 9㎞)에 이르렀다. 대대장 이붕직 대위는 눈앞의 신안(추매기 동쪽 1㎞) 촌락에 북한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서 7명으로 편성된 수색대를 먼저 신안으로 잠입시켰다. 수색대는 신안에서 차량 20여 대와 10여 대의 우마차가 진보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줄지어져 있고, 북한군 병사들이 분산되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수색대장은 "적의 차량이 우리 수색대보다 먼저 대대에 이르러 기습할지도 모른다"고 속단하고서 촌락의 적정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격을 가하였다. 그런데 당시 촌락에는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있었으며, 수색대의 기습으로 잠시 혼란에 빠진 듯하였으나 즉시 병력을 수습해 반격을 가하였다. 총성을 들은 대대장은 수색대가 교전 중임을 직감하고 대대를 즉각 전개하였는데, 수색대장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적을 습격하여 차량 5대 및 우마차 전부와 이에 적재한 다수의 보급품을 소각 또는 파괴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북한군이 추격하여 사격을 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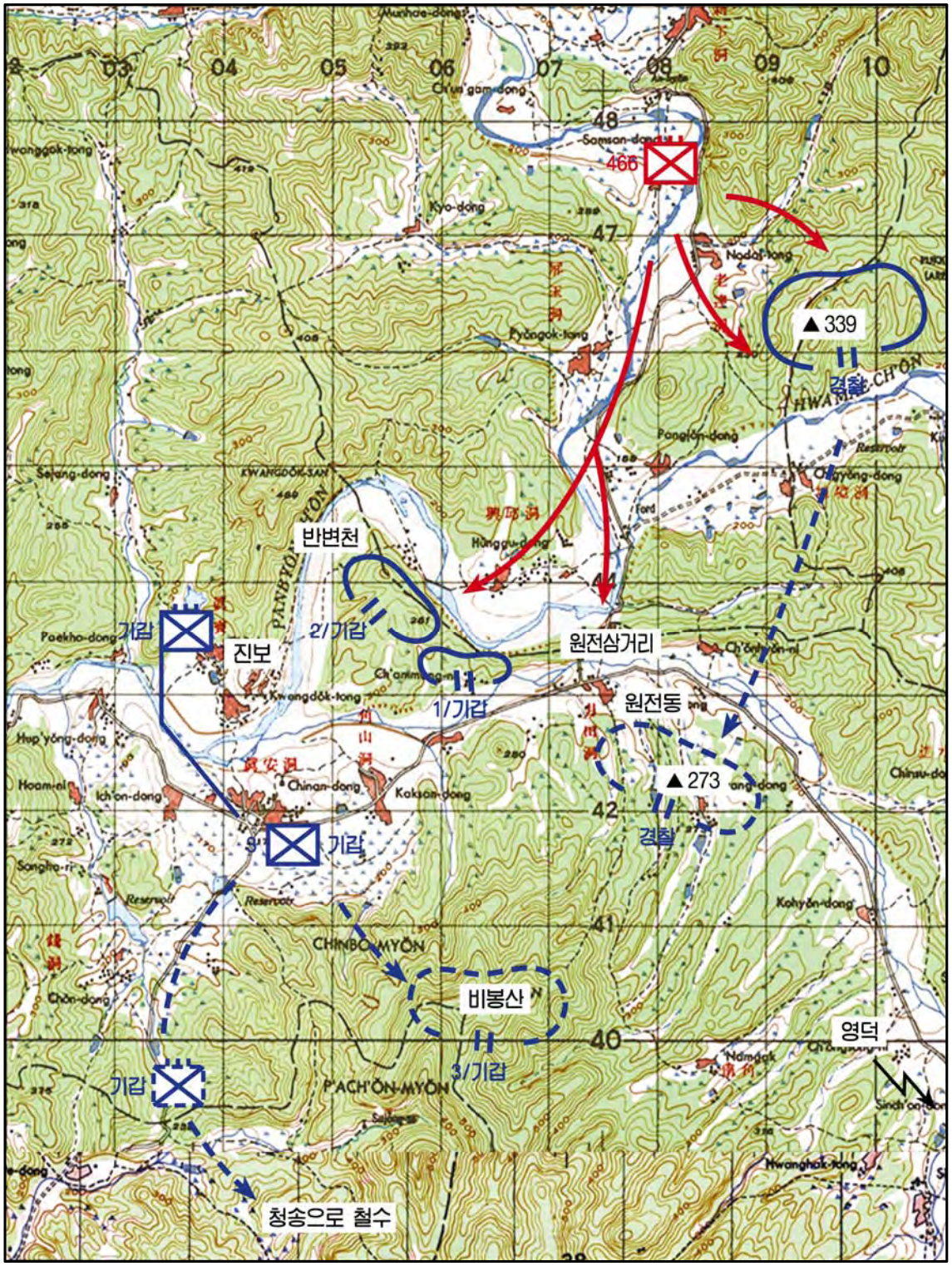
대대장은 그들이 대대를 발견한 이상 영덕의 서측방을 방어하기 위해 병력을 증원할 것으로 판단하고서 본대로 복귀할 것을 결심하였다. 제3도보대대는 복귀 중 송리골(273고지 동쪽 1㎞) 부근에서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대대가 무질서하게 분산되어 다음날 아침에 속칭 아리계(진보 남쪽 4.5㎞)에서 병력을 수습할 수 있었다.[36]

이렇듯 제3도보대대의 제3차 연결작전도 실패한 상황에서 기갑연대는 7월 31일 미명에 273고지로 침투한 1개 대대의 북한군과 교전을 치루게 되었다. 북한군은 전날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다가 좌절되자 이날 미명을 기하여 포격과 더불어 1개 대대를 투입해 273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273고지의 경찰대대 제3중대는 3시간 동안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끝내 북한군에게 밀려 비봉산 동북쪽 능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연대의 우측방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다른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잠목(월전삼거리 동쪽 500m)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34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5-3> 진보 전투(1950. 7. 28~31)



도로(영덕-진보간)상의 월전삼거리는 방자에게 유리한 지형을 갖추었는데, 잠목 남쪽은 400m에 이르는 개활지이고 여기를 횡단한 후에도 범람한 개천을 다시 건너야 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제1장갑대대는 북한군이 논 가운데로 접근하자 측면사격을 가하였으며, 경찰대대도 박격포와 기관총(Cal 50)으로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협공을 당한 북한군은 방전동쪽으로 분산 철수하였다. 그러나 기갑연대도 이 전투에서 많은 병력 손실을 입어 부득이 비봉산-월전삼거리-무명고지(월전삼거리 북쪽 500m)-261고지를 연하는 선으로 방어선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37]

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이날 북한군의 공세를 일단 저지했지만 그들의 병력과 화력이 증강될 뿐만 아니라 피난민의 제보에 의해 괴정동(청송 동북쪽 7㎞)에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 북한군이 청송을 협공할 것으로 판단하고서 작전참모 정세진 소령에게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라고 지시하였다. 정세진 소령은 기갑연대의 주력이 월외동(청송 동쪽 7㎞)으로 집결하여 북한군의 좌측 배후로 우회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짓된 정보를 흘려 북한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기만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이를 승인하여 이날 야간에 즉각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2시경 기갑연대는 기만전술의 일환으로 차량 30여 대에 본부중대 및 일부의 경찰병력을 승차시켜 헤드라이트를 켠 상태로 대행산 남쪽 기슭인 속칭 달기(청송 동쪽 5㎞)까지 이동하였다가 그곳에 병력 일부를 남겨두고 전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끈 채 조용히 청송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연대는 이러한 방법을 세 번씩이나 되풀이 하면서 마치 대병력이 월외동으로 집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38]

4) 기갑연대의 진보 철수와 수도사단 배속

8월 1일 07시부터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273고지를 발판으로 공격하고 다른 1개 대대 규모가 월전삼거리 정면에서 공격하여 기갑연대를 동북에서 압박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였다. 진보를 장악함으로써 영덕-안동간의 유일한 횡단도로를 제압하고자 하는 북한군은 많은 병력 손실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군의 공격에 대해 월전삼거리 북쪽 500m의 무명고지에 배치된 제1장갑대대(대대장 대리 박도경 대위)는 잠목쪽에서 침투하는 북한군을 맞아 세 차례나 고지를 뺏고 빼앗는 격전을 벌이다가 월전삼거리까지 추진된 장갑차와의 협공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경찰대대는 273고지에서 연대 측방으로 침투하는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다.

이렇듯 예하부대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진보를 확보하고 있는 동안에 제3사단과의 연결을 반드시 이루고자 정보주임 길전식 중위의 지휘 하에 정보참모부 소속의 1개 분대를 사단과의 제4차 연결작전에 투입하였다. 길전식 중위는 고지군을 넘어 영덕에 이르기로 결심하고 이날 10시에 차량으로 진보를 출발해 청송-청운동을 거쳐 이전동에서 하차한 후 도보로 능선을 따라 행군하였다. 이들은 8월 2일 신안까지 진출하였으나 전날(8월 1일) 국군 제3사단의 영덕 탈환을 계기로 영덕에서 밀려난 북한군의 주력이 신안에 집결해 재정비 중이어서 영덕까지의 통로가 차단되었다. 이에 분대는 더 이상의 진출을 포기하고 이전동으로 돌아와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이용해 본대로 복귀하였다. 이때 기갑연대는 진보의 주저항선에서 물러나 청송으로 집결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8월 1일 저녁부터 수색대를 투입하여 적정을 살폈는데, 수색결과 북한군이 시량동(월전삼거리 동쪽 2㎞)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 8월 2일 05시 30분에는 좌일선의 강원도경찰 제5대 대장 김인호 총경으로부터 "2개 대대규모의 적이 송리골에서 273고지의 동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급보가 전해졌다. 이에 연대장은 북한군이 이틀간 정면 돌파를 시도하다 좌절되자, 이번에는 연대의 동쪽 배후로 우회해 31번 도로(진보-청송간)를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연대 예비인 제3도보대대(대대장 이붕직 대위)와 본부중대(중대장 대리 이원춘 소위)를 동천(비봉산 북쪽 1㎞)으로 이동시켰다.

8월 2일 07시경 북한군은 소수의 병력으로 정면(월전삼거리)을 견제하고, 1개 연대 규모를 273고지 방면에서 우회공격에 투입하였다. 17시까지 격전이 계속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상황이 악화되자 연대장 유흥수 대령은 퇴로의 차단을 우려해 375고지-무명고지(375고지 동쪽 1.5㎞)-비봉산-666고지에 새 방어선을 형성하기로 결심하고,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39]

그러나 독립기갑연대는 이 방어선에 병력을 배치할 때 지세가 험한 고지의 8부 능선이나 정상에다가 방어진지를 편성함으로써 인접부대와의 간격이 생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독립기갑연대는 침투와 야간전투에 능한 북한군 제766부대의 작전행동을 저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한편 이날 좌인접 부대인 수도사단(사단장 김석원 준장)이 길안으로 진출하여 추목동 다리골-426고지 간에 방어선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3일에는 소강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도사단장이 청송에 위치한 독립기갑연대 전술지휘소를 방문하여 길안-청송지구 방어에 대한 전술 협조를 하였으며, 다음날 독립기갑연대는 수도사단에 배속되었다.[40]

3. 전투결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월 22일 제3사단에 배속된 독립기갑연대는 영양-청송 축선 상에서 준동하기 시작한 북한군 제766부대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진보로 진출하였다. 이 때 독립기갑연대의 병력은 550여 명에 불과하였으며, 예하에 제1장갑대대·제2기병대대·제3도보대대의 3개 대대가 있었으나 1개 대대는 2개 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요장비는 장갑차 4대와 반궤도차량 1대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연대는 이름만의 기갑연대이지 기갑부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면서도 이 연대는 보병연대로 개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접전투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합한 편제일 뿐 아니라 장병들의 전투기량 또한 어느 보병연

대 전투요원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게다가 이 연대는 유무선 통신 장비가 부족하여 육군본부나 제3사단과도 교신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도 독립기갑연대는 진보 일대에 배치된 후 경찰대대로부터 지역내의 북한군 동정을 살피는 한편, 반변천을 중심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해 북한군의 남진에 대비하였다. 또한 독립기갑연대는 북한군에 의해 차단되어 있는 진보-영덕 간의 도로 소통을 위해 27일부터 8월 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3사단과의 연결을 시도하였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찰대가 수시로 공세를 취함으로써 영덕-강구 선을 공략 중인 북한군에게 측방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독립기갑연대와 강원경찰 제5대대는 반변천 연변의 261고지-월전동-273고지에 방어선을 형성하여 북한군 제766부대의 남하를 8월 2일까지 저지하였다. 이 작전으로 북한군 제766부대의 침투를 차단함은 물론, 후속하는 제5사단 제10연대의 영덕으로의 우회기동을 저지하였다. 이후 기갑연대는 수도사단에 배속되어 사단의 우일선으로 청송전투에 참가했다가 의성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진보에서 기갑연대가 적절히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시킴으로써 아군 전선이 양분되는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분석 및 평가

동해안지역 지연작전은 국군 제3사단이 주축이 되어 1950년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해가도를 따라 남진한 북한군 제5사단과 동해안에 상륙해 태백산맥을 타고 내륙으로 침투한 제766부대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전개한 작전이었다.

기간 중 북한군의 공격목적은 국군을 완전히 격멸하고 미군이 한반도에 무사히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군은 남동해안의 부산과 울산, 포항 항구를 신속히 장악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군 지도부는 주력을 대전-부산과 안동-포항 방면으로 집중시켰다. 그리고 동해안지역으로는 제5사단과 상륙부대를 투입해 영덕-포항을 조기에 공략하고 부산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동해안지역의 북한군은 주력인 제5사단을 동해가도로 남하시키고 유격부대인 제766부대를 태백산맥을 타고 영양-청송 방면으로 침투시켜 국군의 증원부대 차단과 비정규전 활동을 전개하게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작전기간 중 이 지역을 담당한 국군 제3사단은 포항을 고수하기 위해 영덕-강구 선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동해가도 상의 주요 감제고지인 181고지와 207고지에서 북한군 제5사단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여 이를 점령하고 마침내 영덕을 고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 인해 제3사단은 포항의 조기 실함을 막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북한군 제5사단의 전력은 개전 초기에 비해 40% 이상이 약화되었다. 또한 이 무렵 사단 좌측의 독립기갑연대가 진보 일대에서 북한군 제766부대의 진출을 지연시킴으로써 아군 전선의 양분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이렇듯 동해안지역에서 국군 제3사단이 북한군의 남하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엔 해군의 함포와 함재기들의 지원이 유효 적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북한군 제5사단의 남하로 포항에 대한 위기가 점점 고조되자 미 극동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영덕 방어와 영일비행장 경계를 강조하고 유엔 해·공군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제3사단은 유엔 해·공군으로부터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제3사단의 영덕 방어 의지와 유엔 해·공군의 강력한 해상·항공지원이 결합되면서 동해안지역에서는 북한군의 진출이 크게 제한되었으며, 그 결과 포항의 조기 실함을 막아 향후 국군이 공세이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작전기간 동안에 몇가지 교훈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덕 부근 전투는 동해안과 영일비행장이라는 양호한 입지적 조건 때문에 지상부대가 해상 및 항공 화력을 적절하고도 충분하게 지원받아 공격작전을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국군은 낙동강선까지 밀리면서 병력 손실이 컸으나 병력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예비대를 보유하기란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영덕 부근 전투에서는 활용 가능한 포병화력, 특히 함포 및 공군 지원 화력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집중시킴으로써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

둘째, 국군 제22연대는 한강선 방어전투에 투입된 이래 계속적인 전투로 인하여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으며, 공격전투에 투입되기 2일 전에 대구에서 신병으로 재편성되어 투입된 부대였다. 그러나 개전 이래 처음보는 해상과 항공지원화력의 위력은, 북한에게는 물리적 파괴효과를 가져왔지만 반대로 아군에게는 사기와 용기를 북돋아 주는 효과를 가져와 전투 승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집필 : 박동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 (註)

1) 강원도, 『강원도사』(역사편), 1995, pp. 104-167.
2)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오비기획, 2002, p. 39.
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p. 272-273.
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 274.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207.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3, pp. 616-619.
7) 미 제8군사령부의 긴급 조치로 취해진 화력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병지원: 미 제159야포대대 C포대(105㎜), 공군지원: 미 제35전투비행단의 제40전투비행대대, 함포지원: 미 제7함대의 경순양함 Juneau호, 구축함 Collett호, Higbee호, Mansfield호, Dehaven호, Swenson호, 영 극동함대의 순양함 Jamica호, 구축함 Black Swan호 등이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583).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3, 2006, pp. 652-653.
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207.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안강·포항전투』, p. 73.
11) 제22연대(연대장 강태민 중령)는 조치원-청주-문의-황간까지 도보로 이동하였다가 7월 22일 황간에서 때마침 제2사단을 수송하기 위해 역구내에 대기 중이던 20량의 열차를 이용해 23일 대구에 도착하였다. 한강을 도하한 이후 연일 계속된 도보행진으로 제22연대는 극도의 피로에 지쳐 있었으며, 병력 손실도 심각할 정도로 매우 컸다. 이에 사단에서는 연대의 즉각 투입을 일단 보류하고 휴식과 병력보충을 서두르게 하여 부대재편성을 실시한 후 26일 차량 편으로 강구에 추진하여 181고지에 대한 역습을 감행하게 하였다.
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584.
13) 육군본부, 「제23연대 전투상보」, 『한국전쟁사료』(50), 1986, pp. 136-137.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207, 348.
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 585.
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348.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안강-포항전투』, pp. 79-80.
18) 「제23연대 전투상보」.
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348.
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안강-포항전투』, p. 8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p. 348-349.
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안강-포항전투』, pp. 80-81.
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p. 349.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 제2권(개정판), 1979, pp. 587-588.
24) 7월 26일 현재 제3사단은 제22연대를 150고지에 예비로 집결시킨 가운데 제23연대의 주력이 상금호-하자동 선에서 적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이때 제23연대는 제3대대가 속칭 을지마의 야산에, 제2대대가 상금호의 능선에, 제1대대가 예비로 172고지에 각각 배치되어 제22연대의 역습을 지원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588.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588-590.
27)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상), p. 274.
28) 「제22연대 전투상보」;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589-594.
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594-595.
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안강·포항전투』, pp. 86-88.
31) 말은 전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송강(진보 남쪽 5㎞)에 남겨 두었다가 후에 대구로 후송하여 기마 헌병대대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p. 607-608.
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608.
3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610.
35) 이전동을 탈취한 경찰중대는 즉각 사주방어태세를 갖추어 그들의 침공에 대비하였으나 그 후 적과의 접촉은 없었다. 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면 공비들은 "유격대가 어찌 전차(장갑차를 오인)와 맞싸울 수 있느냐?" 하며 지휘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였다. 경찰중대에 따르면 이 기습으로 적 100여 명을 사살했다고 하였다.
36) 제3도보대대는 30일 저녁 늦게 속칭 높은배리(△273 동남쪽 2㎞)에 이르렀다. 여기서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송리골(높은배리 서북쪽 1㎞)의 냇가에 집결해 있고, 그 뒤를 이어 수미상의 병력이 406고지의 계곡을 따라 송리골로 내려오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대대참모들은 대대장에게 북한군이 진용을 갖추기 전에 격파하자고 건의하였으나 대대장은 "피아의 상황이 그간 어떻게 변했는지 불확실한 이때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함정에 빠져 병력만 손실된다"고 하면서 공격을 자제하게 하였다. 제3도보대대는 어둠을 이용하여 송리골을 돌파하려 하였으나 병사 한 명이 소총을 연발함으로써 대대의 소재가 알려지게 되어 북한군이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해 분산되었다.
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지연작전기』제2권(개정판), 1979, p. 616.
38) 이 기만책의 성공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청송을 지향하는 적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분명하였다.
39) 「기갑연대 전투상보」.
40) 「수도사단 전투상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6 장 서남부지역 지연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호남지역 전투
제 3 절	함양-합천 전투
제 4 절	하동-진주 전투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1. 개 요

본 장에서는 1950년 7월 10일 전후 호남지역에서 국군 제5사단(광주)과 제7사단(전주)이 재편성되는 과정에서부터 기술하였다. 아울러 북한군 제6사단이 호남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이후 국군과 경찰이 지연전을 전개하고 또 후속부대로 투입된 미 제24사단이 악전고투 끝에 7월 31일까지 영남 서부지역까지 물러나면서 적을 지연하는 상황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은 1950년 7월 11일 제3·제4사단을 공주~대전선으로 투입시켜 후속하던 제6사단을 호남지역으로 우회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천안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제6사단은 16일 제4사단의 논산 장악과 때를 맞추어 금강을 도하, 이리~전주로 남진하였고, 예하 제13연대를 군산으로 우회시켜 전북지역을 위협하였다.

육군본부는 호남지역 방어를 위해 7월 17일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신태영 소장)를 편성하였으나 예하부대인 전북·전남지구 편성관구 및 기타 부대가 병력과 장비 면에서 거의 유명무실하여 방어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다만 새로 편성된 제7사단 예하의 독립대대(대대장 김병화 소령) 300여명과 경찰 700여명이 강경방면으로 진출하였고, 해병 고길훈 부대가 군산에서 장항으로 진출하여 적을 저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북한군이 전주를 장악한 다음날인 7월 21일 전라남북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적의 진출에 대비하고자 했으나, 적은 기동을 계속하여 정읍~남원~광주 일대를 7월 23일경까지 장악하였다. 이날부터 남원에서 운봉으로 물러난 민부대(부대장 민기식 대령)가 이영규·김성은·오덕준·김병화 부대 등 군소부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를 통합하여 적을 방어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은 다시 광주에서 제13연대를 목포로, 제1연대를 보성으로, 제15연대를 순천으로 각각 진출시켜 25일 순천에서 다시 합류, 하동방면으로 지향하였고, 전선은 경상남도로 옮겨갔다.

한편 미 제8군사령부는 북한군 제4사단의 남진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였으나 북한군 제6사단의 기동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미 제8군은 예비로 부대재편 중이던 미 제24사단을 진주~함양~거창 방향으로 투입시켜 적을 방어하였다.

결과적으로 호남 지역의 국군과 경찰은 북한군 제6사단의 호남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현저한 전투력의 열세로 11일 만에 전 지역을 적에게 넘겨주고 말았고, 영남 서부지역에서는 미 제24사단이 국군과 함께 함양~거창 방면과 하동~진주 방면에서 각각 적을 지연시키고 있었으나, 많은 피해를 입고 축차적인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7월 31일 미 제8군 명령에 따라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준비를 하게 되었다.

2. 양측의 상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양측의 부대상황

북한군 제1군단은 대구~부산으로 진출하기 위해 주공부대인 제3사단과 제4사단을 제105전차사단 지원 하에 공주~대평리 일대를 공격하게 하고, 제6사단을 제603모터사이클연대의 지원 하에 서해안과 호남 지역으로 투입하여 목포~여수~마산 일대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6사단은 천안~대전~거창~함양 축선을 따라 공격하는 제4사단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신속히 서해안과 호남 지역으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들은 3각 편제 개념에 의거 3개 보병 연대(제1・제13・제15보병연대), 포병연대 예하의 3개 포병대대, 대전차대대, 중기관총대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수송대대, 교도대대, 기동정찰중대, 정보

소대로 편성되었다. 통상 대대는 3개 중대로, 중대는 3개 소대로 편성되었다.

또한 제6사단에 배속된 고속기동부대로 운용되는 제603모터사이클연대는 모터사이클 4개 대대와 장갑차 1개 대대, 대전차포 1개 대대로 되어 있었다. 모터사이클대대는 3개의 모터사이클중대와 1개 박격포중대, 그리고 1개 중기관총중대로 편성되었는데, 모터사이클중대는 45대의 모터사이클과 병력 135명으로, 박격포중대는 9문의 82밀리 박격포와 병력 30명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중기관총중대는 14.5밀리 기관총 9정과 병력 30명으로 이루어졌고, 장갑차대대는 싸마호트 장갑차(BA-64형) 54대, 대전차대대는 45밀리 대전차포 16문으로 편성되어 있었다.[1)]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제6사단은 7월 12일, 주력부대가 충남 유구지역에 집결하였으며, 제13연대가 1개 포병대대와 협동으로 소수의 경찰병력만이 방어하고 있는 예산, 홍성, 청양을 12일까지 차례로 점령하였다. 이 무렵 사단 주력은 군단명령에 따라 대전지역의 전투력을 보강하기 위해 제2제대로 전환하여 연기군 전의 지역으로 이동한 후 14일 밤 다시 원래의 임무로 복귀하였다.[2)]

북한군 제6사단의 주력은 동월 16일에는 은산(부여 서북쪽 6㎞)~입포(강경 서쪽 11㎞)간 금강 북안까지 진출하여 도하를 준비한 후 다음날 그 서쪽 장항방면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아군의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금강을 도하한 제6사단 주력부대는 대전 공격에 집중하고 있던 그들 제3·제4사단과 선봉을 다투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6-1> 호남지역 북한군 주요 지휘관

직 책		계 급	성 명
제6사단	사단장	소장	방호산
	제13연대장	대좌	이후진
	제1연대장	대좌	한일래
	제15연대장	대좌	김현기
	포병연대장	중좌	임해민
	배속 제603모터사이클연대장	?	?

듯 이리~전주~광주로 공격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6사단은 공격을 계속하여 7월 19일에는 이리와 군산을, 3일 뒤에는 전주를 각각 점령하고 다음날 광주까지 진출함으로써 24일까지 호남 전 지역을 유린하였다. 이들은 점령지에서 지방공비들과 합류하여 양민학살을 비롯한 갖은 잔학행위를 자행하였다.

적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월 18일부터 실질적으로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는 미 제8군사령부의 정보참모는 서해안을 따라 침투하는 북한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다만 소재불명의 예비대이거나 북한군 제4사단의 일부로 간주하다가 7월 말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북한군 제6사단임을 확인하게 되었다.[3]

한편 전쟁 이전부터 호남지역에 배치된 제5사단(사단장 이응준 소장)은 예하 2개연대중 제15연대(연대장 최영희 대령)를 전주에, 제20연대(연대장 박기병 대령)를 광주에 주둔시키고 있었으나, 남침 시 이 부대들을 서울 북방으로 투입하였다. 그리하여 육군본부는 호남지역이 공비 출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대배치가 전무한 점을 감안하여 호남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이형석 대령)를 신설하여 대처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조치로 동월 27일에 광주에 부임한 이 대령은 우선 병력획득의 방책으로 전남북도 일원에서 제대 군인과 구 호국군 요원, 그리고 청년방위대원들을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동월 7일에 육군본부는 이미 동월 5일부로 단행한 부대개편으로 해체된 부대 가운데 제5사단과 제7사단을 재건하기 위해 새로이 제5사단장에 이형석 대령을 임명하고 "사단사령부를 전주에 설치하고 제3연대를 전주에서, 제9연대를 남원에서 급편하라"고 하였으며, 제15연대장에 김병휘 중령, 제26연대장에 이백우 중령, 제3연대장에 박현수 중령, 제9연대장에 유해준 중령을 각각 임명하였다.[4]

이리하여 다음날(8일)에는 전남북도에 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하고 동일부로 전남지구 편성관구사령관에 이응준 소장을, 그리고 전북지구 편성관구사령관에 신태영 소장을 각각 임명하였다. 이와 같은 육군본부의 조치로 당시 광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이형석 대령은 호남지구전투사령부를 제5사단사령부로 전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고 예하 연대장이 육군본부에 의하여 임명된 사실을 모른 채 이영규 중령을 제15연대장으로 임명하여 사단 신편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전에서 각자 명령을 수령하였던 때문에 행동을 같이 하지 못하고 동월 10일을 전후하여 개별적으로 열차와 자동차편으로 임지로 향하게 되었다. 특히 이때에 이응준 소장은 이형근 준장을, 신태영 소장은 원용덕 준장을 각각 참모장에 임명하였고, 육군본부가 이를 추인하였다.

따라서 전남북 일대에서 2개 사단 신편업무가 본격화 되었는데, 이때 광주에서 전주에 파견된 은석표 소령은 민기식 대령의 도착으로 이미 소집한 장병들로써 신편 제7사단에 충원하고 광주로 복귀하였다. 또한 순천에서 제16연대를 신편하고 있던 이영규 중령은 스스로 연대장직을 김병휘 중령에게 넘기고 자신은 부연대장 직을 수행하였다.

<표 6-2>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주요 지휘관

직 책		계 급	성 명
서해안지구전투사령관 겸 전북지구편성관구사령관		소장	신태영
신편 제7사단	사단장	대령	민기식
	제3연대장	중령	박현수
	신편 제9연대	중령	유해준
	신편 제30연대	중령	김용주
	해병대대	소령	고길훈
		중령	김성은(7.22일부)
	민부대	대령	민기식(7.20일 개칭)
	독립대대	소령	김병화(7.20일부 김부대)
	오부대	대령	오덕준
전남지구편성관구사령관		소장	이응준
신편 제5사단	사단장	대령	이형석
	신편 제15연대	중령	김병휘
	이 부대	중령	이영규
	신편 제26연대	중령	이백우
	전남전투경찰사령관	경무관	김응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호남지역에서의 상황이 이와 같이 전개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구 제5사단 제20연대 소속으로 광주에서 시흥으로 진출한 이소동 소령은 연대장 박기병 대령으로부터 "제3육군병원(광주)에 수용중인 환자들은 회복 즉시 규합하여 유격전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7월 8일 후송 열차 편으로 광주로 되돌아갔다. 광주에 도착한 이 소령은 제5사단이 이곳에서 신편중인 사실을 모른 채 곧 제20연대의 재건에 착수하여 입원중인 동 연대소속 장병들에게 퇴원 후 전선으로 복귀할 것을 독려하고 이미 퇴원한 장병들과 같이 국군이 건재함을 시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소령은 얼마 뒤 이형석 대령으로부터 이곳 사정을 알게 되었으며 그의 종용에 따라 제26연대 신편작업에 참여하였다.

전북지역에서는 신편 제7사단이 주축이 되어 그 예하 제3연대와 제9연대가 전주에서 각각 편성요원을 충원하기 위한 동원이 시작되고, 전남지역에서는 신편 제5사단 예하 제26연대가 광주에서, 제15연대가 순천에서 편성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각 사단은 기간장병을 각 군단위로 파견하여, 예비역 장병들의 소집은 물론 일반장정들의 모병업무까지 수행하였다.

이 모병에는 당시 전주를 거쳐 순천으로 피난한 신익희, 이범석 등의 시국강연도 큰 효과를 발휘하여 각 지역에서 많은 학도들이 지원하였다. 7월 13일까지 각 사단의 편성 규모는 제7사단 제3연대는 2,500명, 제9연대는 3,600명, 제5사단 예하 제15연대는 800명, 제26연대는 1,000명에 달하였다. 이들 가운데 무기를 소지한 자는 각 연대장을 따라 이곳으로 철수한 장병들과 병원에서 퇴원한 자들로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맨손의 신병들이었다.

육군본부는 7월 9일, 이미 제7사단과 제5사단의 실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 각 사단장에게 각각 "1개 대대의 전투 병력을 육군본부로 급파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신편 제7사단장은 1개 중대규모의 병력을 차출하여 출동시켰다. 또 신편 제5사단장은 "가용한 모든 병기를 대전지역으로 급송하라"는 전문을 받고 지역방어에 전력하려는 일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전방어의 중요성을 들어 모든 가용병기를 모두 급송하고, 또 제26연대장 이백우 중령에게 "무장 1개 대대를 급편하여 육군본부로 급파하라"고 지시를 하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백우 중령은 이소동 소령에게 “구 제20연대 장병으로 1개 대대를 편성하여 육군본부를 지원하라”는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는데, 이 지시에 의해 이 소령이 750명을 선발하여 징발차량 20대로 당일 광주를 출발하여 남원~전주~논산 경유 대전에 도착, 대전여중에 부대의 숙영지를 편성하였다가 곧 육군본부의 대구 이동으로 다시 대구로 향하게 되었다.

또한 이후 호남지역에 적이 출현하자 육군본부에서는 “정읍방면에 1개 대대를 급송하라”는 전문을 제5사단에 긴급히 하달하였다. 제5사단장은 사령부의 전 장병 중에 지원자를 뽑기로 하였는데, 대대장에는 본부사령인 조시형 소령이 자진하여 지원하고 본부중대 요원을 비롯한 근무부대 요원들도 모두 신편대대에 참가하여 정읍을 목표로 북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편 제5사단은 적의 공격에 직면하여 무장 없는 병력만이 남게 된 셈이었고, 신편 제7사단의 경우는 개전 초 문산으로 출동한 바 있었던 보병학교 교도대대(대대장 김병화 소령)가 이 무렵 전주로 철수하여 합류했기 때문에 대대규모의 전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한편 해군본부는 국방부의 지시로 군산항에 보관중인 정부미 반출 수송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제주도에서 대기 중인 해병대(사령관 신현준 대령) 일부를 군산으로 출동시켰다. 이에 따라 고길훈 소령이 지휘하는 1개 대대(300명)가 7월 15일에 제주에서 군산을 목표로 항진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양측의 작전계획

북한군의 작전목표는 “남반부의 국방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기 전에 신속히 금강~소백산맥을 돌파하여 울진~문경~논산~전주선을 점령한다”는 것이었고, 작전 계획은 “천안~조치원~대전 방향에 주공을 지향하고 그들을 포위 섬멸한다”라는 것이었다.[5]

당시 서부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제1군단(군단장 김웅 중장)은 이천~진천~청주에 이르는 축선 서쪽을 담당하여 남진을 계속하였는데, 이들의 작전계획은 “후방으로 우회하여 주력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당면한 전술목표를 세웠다. 이들은 제2·제3·제4·제6사단 등 4개 사단이 정면으로 진출함과 더불어 대전을 2

개 사단으로 포위 공격한 다음 단숨에 영동과 호남 일대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의 작전기도는 경부국도를 따라 천안~대전 축선으로 공격을 계속하되, 제6사단과 제603모터사이클연대는 군단 우익에 배치되어 천안~예산~장항, 청양을 점령하고, 곧 금강을 도하하여 계속 함열~이리~전주를 공격하는 동시에 광주로 남진하여 남해안으로 우회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4사단은 중앙우익으로 천안~공주~논산~대전으로, 제3사단은 중앙좌익으로 천안~조치원~대전으로, 그리고 제2사단은 좌익으로 제2군단과 연결하여 이천~진천~보은~영동으로 공격하며, 제105전차사단은 경부국도로 계속 남진하면서 제3·제4사단을 주로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북한군 제1군단은 한마디로 서전의 승세를 몰아 돌파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군 주력뿐만 아니라 국군도 경부국도 상에 편중되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계획을 수립하였다.

실제 북한군 제3사단은 제4사단과 같이 7월 7일에 천안에서 남진하여 대전을 포위 공격하고, 제2사단은 진천~청주 북쪽으로 진출한 다음 보은을 거쳐 황간으로 진출하였으며, 제6사단은 같은 날 천안에서 분진하여 금강을 도하한 다음 전주로 지향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은 제603모터사이클연대와 함께 서해 방면의 국군을 격파하면서 목포와 여수항을 점령하고 마산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6]

한편 미 제8군과 육군본부는 적의 작전구상을 간파하여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정황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7] 1950년 7월 7일~8일 전황은 계속 악화되어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24사단이 적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축차로 경부국도를 따라 물러나 금강선에 방어선을 형성할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호남과 영남 지역에 대한 후방배치와 부대재편 및 증편으로 이미 5일부로 해체된 바 있는 제5사단을 광주에서, 제7사단을 전주에서, 그리고 제9사단을 부산에서 각각 재편성하였고, 동월 8일에는 영남 및 전남·북지구 편성관구사령관을 임명하고 사단편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육군본부는 다시 12일에 전남·북지구 편성관구사령부를 광주와 전주지구 편성관구사령부로 개칭하여 지역방어 임무를 부여, 지역 내 각급 군·경을 지휘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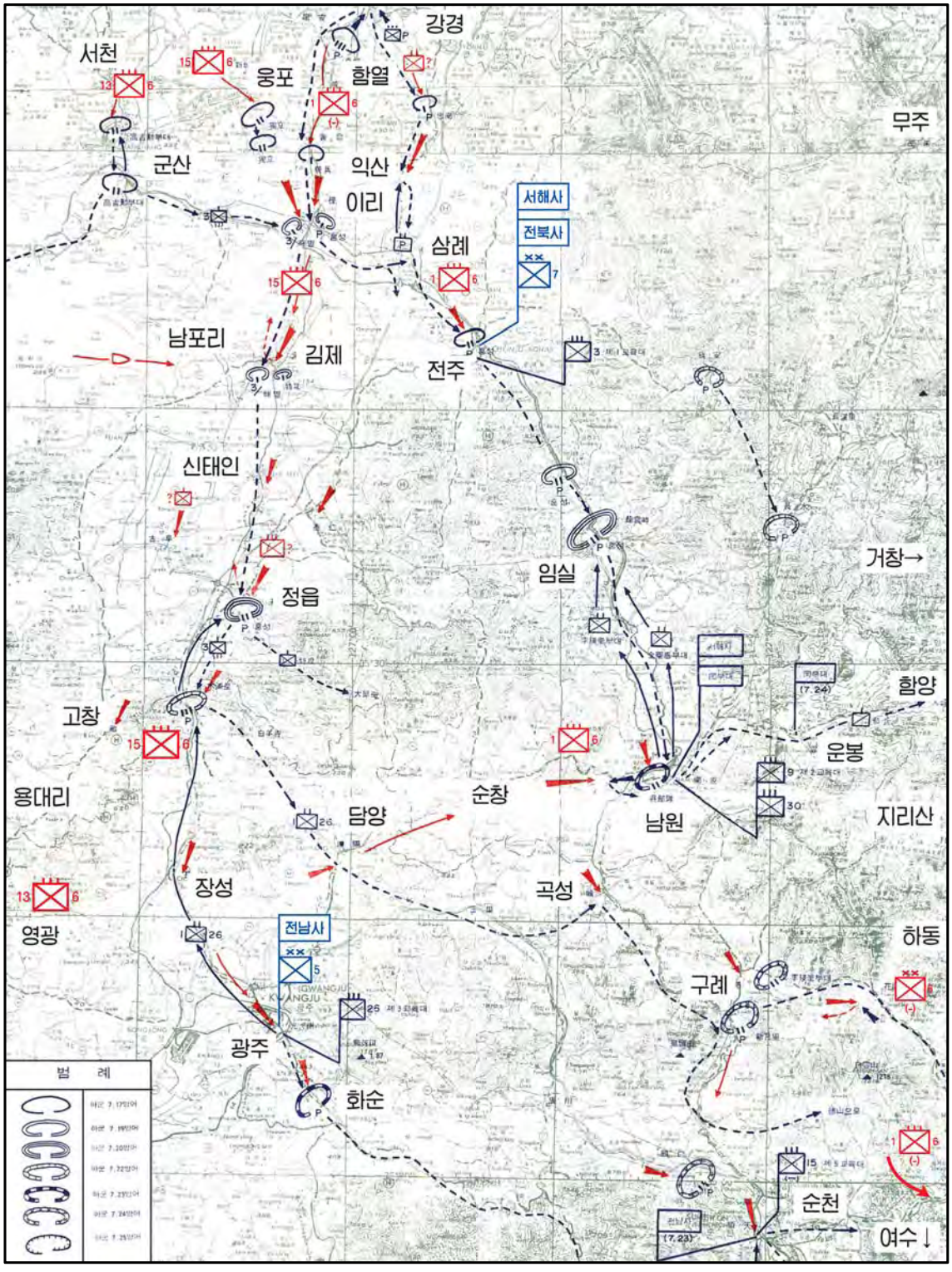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따라서 호남지역에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된 7월 16일 상황은 전주에 전주 편성관구사령부와 신편 제7사단(제3・제9연대)이, 그리고 광주에는 광주 편성관구사령부와 신편 제5사단(제15・제26연대)이 명목상으로나마 배속되었다. 이들 부대는 부대편성이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어계획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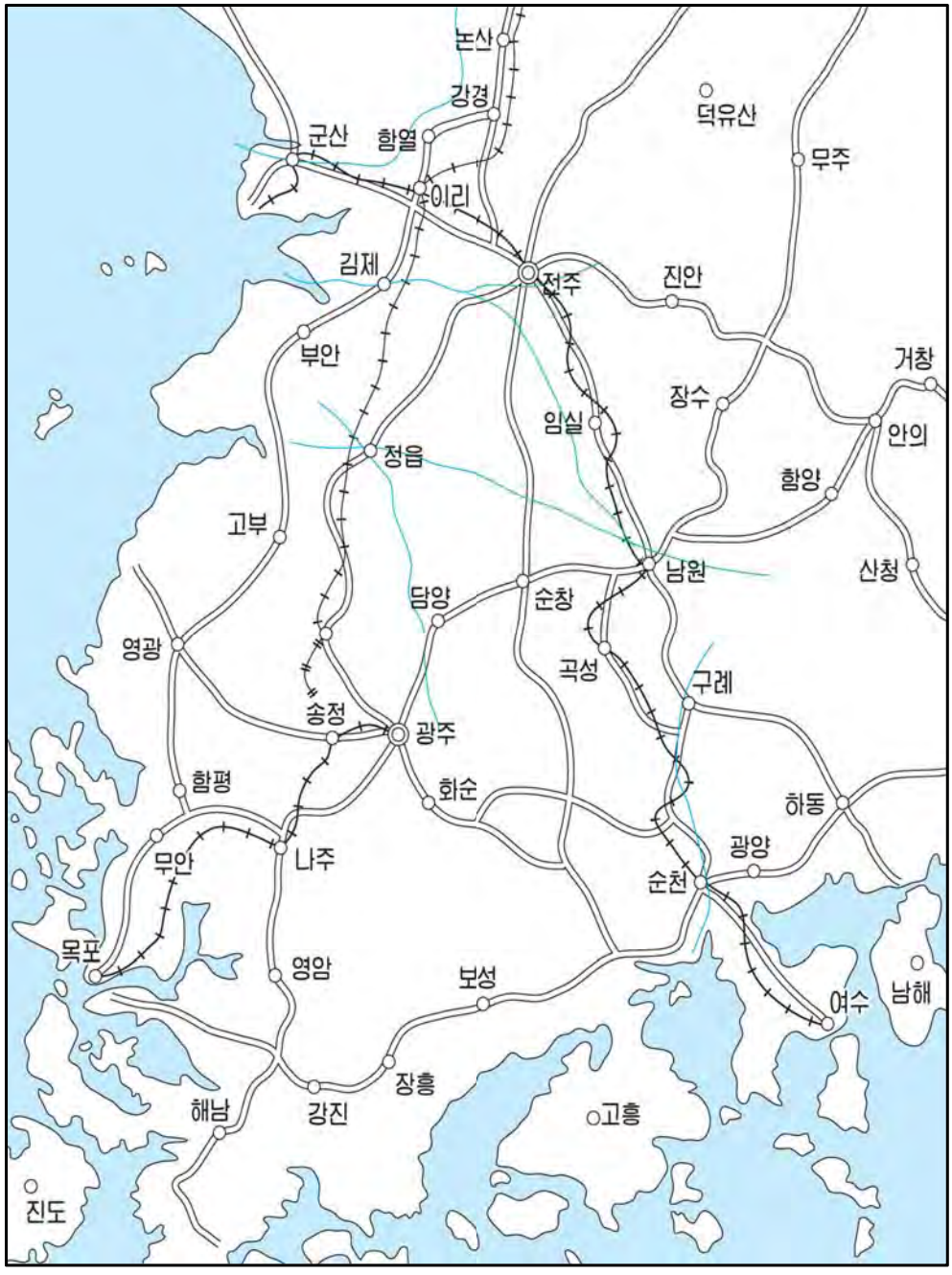
그러므로 신편 제5사단과 제7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편성관구사령부가 옥상옥이 되었다. 더구나 급하게 편성된 상황이라 그 권한의 한계와 직무의 방향도 명백하지 못하여 부대간의 횡적인 연락은 물론, 종적인 지휘체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들 부대의 전투 역시 부대지휘에 의한 전력발휘보다도 각자 개인의 적개심 발휘 여하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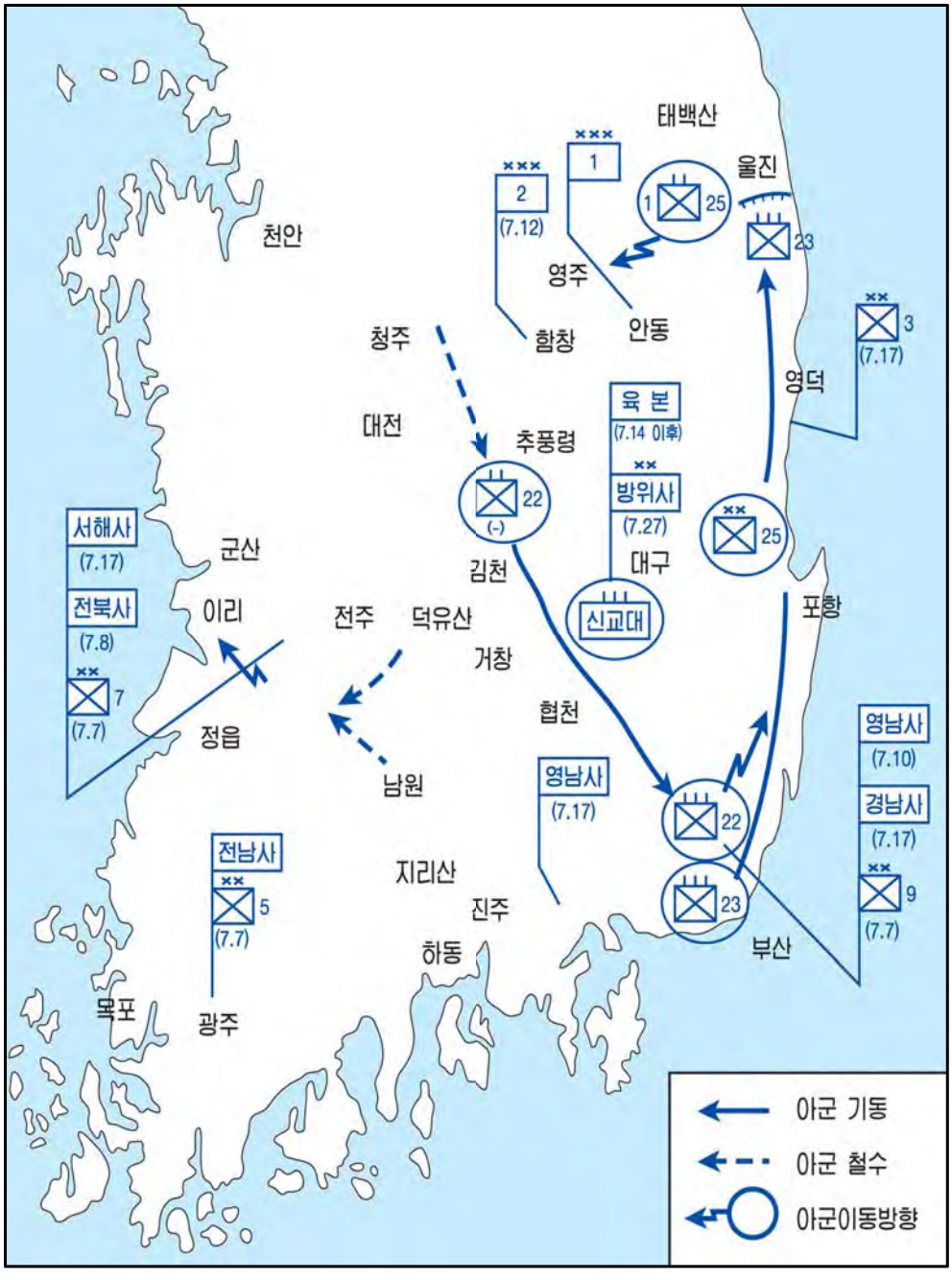
<상황도 6-1> 호남지역 지연작전 상황(1950. 7. 16~26)



<상황도 6-2> 호남지역 도로망(1950)



<상황도 6-3> 후방지역 상황(1950. 7)



제 2 절 호남지역 전투

1. 양측의 상황

1) 아군의 방어준비 상황

서부전선에서 대평리~공주사이의 금강 방어선이 1950년 7월 16일을 고비로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북한군 제4사단(사단장 이권무 소장)이 대평리~대전으로 공격하는 제3사단과 협동하여 논산을 경유 대전 남쪽으로 우회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논산은 미군이 철수한 뒤 곧바로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그 우익에 전개된 북한군 제6사단이 이 기세에 편승하여 주력부대를 유구에서 강경~장항으로 계속 남진시키고 제13연대를 홍성에서 서천방면으로 각각 진출시키고 있었다.[8]

육군본부는 적 상황의 갑작스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책을 찾지 못한 채 신편중인 지역 배치부대의 자체 역량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전북지역은 적의 공격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었다.[9] 당시 전북지역에서 새로 편성중인 제7사단(사단장 민기식 대령) 예하 2개 연대(제3・제9연대)는 대부분 비무장이었기 때문에 7월 16일을 기하여 병력보전책으로 후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1개 대대(독립대대)만이 군산에 상륙한 해병대 고길훈 부대와 함께 도섭이 불가능한 금강 하류지역에서 결전의 의지를 가다듬게 되었다.

대체로 국군 제7사단은 병력만 신병으로 보충하였을 뿐 무장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초 육군본부가 호남지역에서 제5・제7사단을 신편한 것은 예비부대를 신속히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방어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이날까지도 무장시킬 아무런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따라서 제7사단장 민기식 대령은 육군본부(대구)에 수차례 무기와 탄약 등을 요청하였지만 번번이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그는 예하 2개 연대의 후방이동을 건의하고 무장을 갖춘 사단사령부 요원을 포함한 1개 중대 규모만을 현지에 잔류시켜 지역방어에 임할 결심을 하였다. 어떠한 지원책도 마련할 수 없었던 육군본부는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3·제9연대를 즉시 부산으로 이동케 하라. 기간요원으로 1개 대대를 차출하여 지연전을 감행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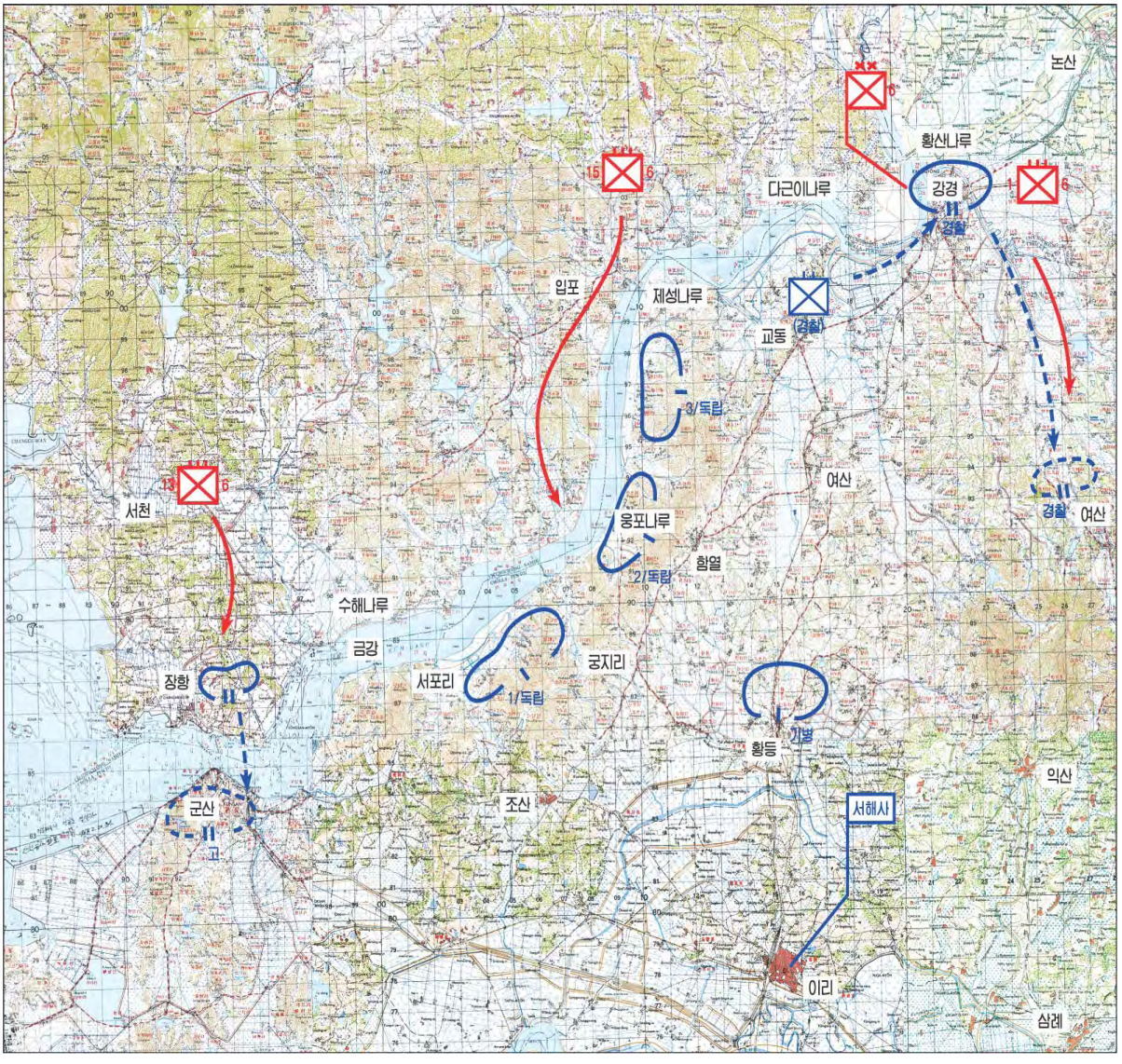
민 대령은 16일 아침, 전주에 주둔하고 있는 제3연대장 박현수 중령과 제9연대장 유해준 중령을 불러 "당일로 연대병력을 인솔하고 진주로 이동하라"고 명령하였다. 동시에 작전참모 이용 소령에게 이들 부대의 이동에 따른 열차를 준비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제7사단의 임무는 교육훈련으로부터 철수업무로 전환되었다.[11] 명령을 수령한 2개 연대는 다음과 같은 도보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제3연대는 전주~순천~하동~진주 경유 부산으로 이동하며, 전주~순천간은 철도편을 이용하고, 기타구간은 차량 및 도보로 이동한다. 제9연대는 남원~운봉~함양~진주 경유 부산으로 이동하며, 도보기동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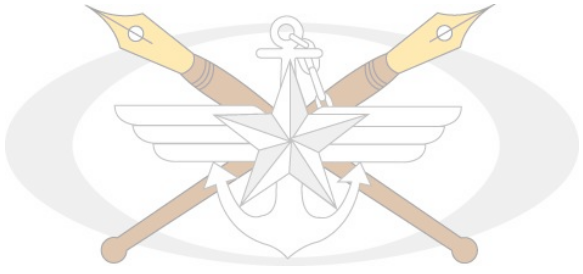
제7사단의 제3·제9연대는 사단사령부와 분리되어 연대장 재량으로 부대이동에 들어가 각각 당일 목적지를 향해 16일 바로 출발하였다. 이로써 전북지역에는 사단장을 비롯하여 참모장 백남권 중령과 이현진 중령·정육지 중령·하갑청 중령·이룡 소령 등 참모요원과 또 뒤늦게 합류하게 된 전 보병학교 교도대를 주축으로 한 기간장병 300여 명만이 남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고길훈 소령이 지휘하는 해병대 약 500여명은 7월 15일 제주항을 출항하여 7월 16일 08:00시에 군산에 입항하였다.[13] 고 소령은 해양대학에 지휘소를 개설하여 교사에 숙영지를 편성한 후 부대를 정비하였다. 이 부대는 해병대에서 뽑힌 정예부대였으므로 병력들의 사기가 높은 편이었으나 전원 99식 소총으로 무장하였고 공용화기도 경기관총 3정, 중기관총 2정, 60밀리 박격포 3문 등에 불과하였다. 부대편성은 3개 보병중대와 1개의 수색대로 되어 있었다. 당시 군산에는 해군 군산경비부의 김종기 소령을 중심으로 장병 약간 명과 인천경비부에서 철수한 48명, 그리고 제17연대 요원 59명 등 혼성부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상황도 6-4> 군산-이리 상황(1950. 7. 16～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산에 도착한 당일(16일) 직면한 적정은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가 천안을 경유하여 서해안의 장항선 방향으로 남진하고 있어 다음날에는 대안인 장항까지 진출할 기세였다. 고길훈 소령은 부대를 정비하면서 해군 경비부 병력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출동목적이 "군산항에 비축된 정부미를 안동호(LST)에 적재하는 것을 경비하라"라는 것이었으므로 당일은 주로 군산항의 경계에 주력하였다.[14]

2) 상급부대의 조치

1950년 7월 16일 서천과 논산 일대가 피탈되어 호남지역에도 전세가 급박하게 되자, 전주 편성관구사령관 신태영 소장은 금강 남안의 방어를 위하여 19시 30분에 작전명령 제1호를 하달하였다. 즉, "금일 아침 군산에 상륙한 해병대는 군산 일대를 방어할 것이다. 신편 제7사단 및 관구사령부 본부중대는 용안면~웅포면 일대를 방어하라. 전북경찰은 고산~강경 간을 방어하라"는 것이었다.[15]

이 명령은 현재의 북한군 기세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였으나, 이때 신편 제7사단은 비무장인 예하 2개 연대가 후방으로 이동하고 단지 병력이라고는 1개 중대규모의 기간요원만이 잔류하여 부대를 정비하는 실정이었고, 전북경찰 역시 700명 규모의 전투경찰을 급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령관은 민심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엔군이 속속 참전하고 있으니 전세는 곧 호전될 것이다. 각자는 소임을 다해 국난을 극복하라"는 요지의 포고문을 전파하는 한편,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군의 공격에 따른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각 기관 관계자 비상대기와 검문, 그리고 물자통제 및 금융기관의 자금 동결조치 등을 취하게 하였다.[16]

한편, 이날(16일) 신태영 사령관은 공주로부터 기갑연대의 기병중대가 마필 100두와 함께 전주로 이동하였으므로 "내 명령에 따르라. 즉시 황등(이리 북쪽 7㎞)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병력과 군마가 휴식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밤늦게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상황이 격변하기 시작하자 신 소장은 해질 무렵 참모장 원용덕 준장을 이리로 급파하여 군·경을 지휘하도록 조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였으나, 이때까지 제7사단 사령부 기간병력과 관구사령부 본부중대 병력이 우선 편성만을 완료하여 이리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리에 도착한 원 준장은 우선 경찰과 기병을 지휘하여 시내를 경비하게 되었다.

이 무렵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원수에게 이양함에 따라 전 전선의 한국군을 지휘하게 되었으나 호남지역 방어에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17] 육군본부도 계속된 전세의 퇴조로 동부와 중부에 전개된 제1·제2군단의 전선수습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어서 호남지역은 거의 방어공백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전북지역에 배치된 전북 편성관구사령부와 신편 제7사단에 대해서는 상호 지휘관계를 명시한 명령도 없이 그저 상황에 맞도록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민기식 대령은 신태영 소장과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전주 이북지역 방어에 대한 책임은 신태영 소장에게 있었다. 당시에 나의 임무는 오직 제7사단을 편성하는 것이었는데, 나에게 지역방어 임무가 주어진 것은 전주가 피탈된 다음부터이다"라는 것이다.[18] 그가 전날 신 소장 명령에 따라 사단이 보존하는 1개 중대규모의 기간병력을 이리로 이동시킨 것은 선배의 의중을 외면할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령관 신 소장은 이리로 출동한 제7사단사령부 임시부대에게는 독립대대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신 소장은 이날(16일) 아침 북한군의 일부가 강경에 진출했다는 보고를 받고 곧 육군본부에 이를 보고하여 소요 병력과 탄약을 긴급보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주방어에 대한 결의를 굳혔다.

한편 육군본부는 전황의 추이에 따른 부대의 신편이 큰 효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19] 즉, 전주 편성관구사령부를 전북 편성관구사령부로, 광주 편성관구사령부를 전남 편성관구사령부로 각각 개편하였고, 동일부로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하여 사령관에 신태영 소장을 임명하여 전남·북 편성관구사령부를 통합 지휘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형근 준장이 전남 편성관구사령관에, 원용덕 준장이 전북 편성관구사령관에 각각 임명되었다.[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따라 전북 편성관구사령부에 신편 제7사단을 흡수, 그 예하 제3연대를 제1교육대로 그리고 제9연대를 제2교육대로 개칭하여 직할부대로 하였으며, 또 전남 편성관구사령부에 신편 제5사단을 흡수 그 예하 제15연대를 제5교육대로, 제26연대를 제3교육대로 하여 그 지휘 하에 두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분명 호남지역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조치였고 또한 명령전달도 원활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당면한 위급한 상황처리에만 몰두한 지휘관들이 전황의 긴박함으로 말미암아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도 하였다.

3) 방어진지 편성

전북 편성관구사령관 원용덕 준장은 7월 17일 08:00시 무렵 강경에 진출한 북한군의 상황을 입수하자 이들이 강경~이리 가도를 따라 전주로 진출할 것으로 보고 즉각 예하부대에 진지점령을 명령하였다. 원 준장은 이리에서 대기 중인 전북경찰 제1대대 및 제3대대, 그리고 충남경찰 혼성부대(중대규모)를 망성, 용안지역(강경 서남쪽 4㎞)으로, 기마중대를 황등으로, 독립대대를 웅포(황등 서쪽 8㎞)~나포(능포 남서쪽 5㎞)로 추진하여 진지를 점령하도록 했다.[21]

이날 징발 차량과 도보 이동으로 함열에 진출한 전북경찰 제1, 제3대대는 국장 윤기병 경무관의 지휘 하에 10:00시경 용안면 교동리 무학산 일대에서 진지를 편성하였다. 뒤늦게 합류한 충남경찰 혼성중대도 이들과 연결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국도를 따라 남하할 것으로 보이는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한편 금강 북안에는 동월 12일 이래로 충남경찰 제1대대(대대장 육석렬 총경)가 적의 강압에 못 이겨 청양을 경유하여 금강을 도하했다. 이들은 17일 전북 여산(강경 남동쪽 11㎞)으로 이동하여 서해안지구전투사령관의 지휘 하에 들어가 부대를 정비하였다.

또한 충남특경(대장 홍인출 경감)은 17일 장항으로 진출하는 적을 방어하고자 했다. 이들은 앞서 서천지역에 이동 집결한 공주·청양·보령·홍성·당진·서산 등 각 경찰서 혼성병력 200명과 같이 방어진을 편성하고 있다가 장항으로 진출한 해병대의 지휘아래 성내리(장항 북쪽 15㎞)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이곳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금강 일대의 전경

점령중인 적과 조우하여 결국 적 기세에 눌려 17일 아침 금강을 건너 군산으로 물러났다.[22]

전날 전주에서 이리로 전진하게 된 기갑연대 소속 기병중대가 이날 17일 10:00시에 황등(이리 북쪽 5㎞)으로 진출하였으며, 배동걸 소령이 지휘하는 27명의 육군본부 요원으로 구성된 특공대가 공주를 거쳐 7월 17일 이리로 이동하였다. 또한 16일 늦게 이리로 출동한 제7사단 병력인 독립대대는 그 규모가 300여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탄약도 소량만을 보유하고 있어 전투를 수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원 준장의 지시를 받아 17일 10:00시 웅포로 진출하여 금강 남안을 경계하면서 밤을 지새웠다.[23]

한편 17일 제30연대(연대장 김용주 중령)가 남원에서 편성되어 준비를 갖추었다. 이 연대의 편성은 육군본부나 전북 편성관구사령부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병학교 참모장인 김 중령이 임시 편성한 부대였다. 그는 이응준 소장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명령을 받고 남원군청에 지휘소를 정하고 병력을 모아 가칭 제30연대를 편성하였다.

김용주 중령은 남원 인근의 각 면에 1명씩의 장교를 급파하고 장정들을 징집하여 이날까지 도합 1,500명으로 부대편성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육군본부와 전남 편성관구사령부에도 보고되었으며, 육군 역사일지에 "전북 일대 낙오병으로 보병학교 간부일부가 남원에서 제30연대를 편성하고 부대본부를 남원에 설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24]

2. 군산-이리 전투

1) 양측의 상황

북한군 제6사단은 주공부대가 강경에서 국도를 따라 이리를 지향하는 동시에 금강을 도하한 일부 부대가 아군의 배후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조공부대가 서천 일대로 진출하여 군산으로 지향하고 있었다. 이에 전북지역에는 급박한 위기가 몰아쳤으며 전세가 악화일로에 놓이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0년 7월 17일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예하병력인 제7사단 독립대대, 해병대 고길훈 부대, 기갑연대 기병중대를 비롯한 국군 병력과 전남북 경찰 혼성병력 등이 망성, 용두, 웅포 지역에 출동하여 밤을 새워 대오를 수습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급식을 서두르는 등 준비태세를 가다듬고 있었다.

그런데 약 2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군 제6사단 예하병력이 국군이 미처 진지를 점령하기도 전에 강경으로부터 이리간 도로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어 18일 07:00시에는 일부병력이 웅포 대안인 신성리에서 금강 도하를 시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적정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군은 천안에서 서해안을 따라 남진한 제6사단이 금강하류 북쪽일대를 석권한 다음 호남지역 장악을 위해서는 금강 도하가 가장 큰 난제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서둘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북한군 제6사단은 당시 대전을 공격하는 제4사단의 일부가 논산을 공격하는 사이, 청양을 거쳐 부여~강경 대안에 이른 병력으로 하여금 금강을 도하시켜 계속 남진시키는 한편, 서천부근으로 남진한 제13연대 병력을 금강하류에서 도하시켜 아군의 배후를 공격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적의 공격기도가 어떻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군의 전력은 경찰병력을 모두 합쳐도 1개 연대규모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나마 병력이 분산되고 상호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위기를 맞고 있었다. 당시 적은 이 일대의 아군 방어병력의 규모를 여단규모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다.[25]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신태영 소장은 전날(17일)부터 이리경찰서 구내에 위치하여 작전을 지휘하였으나 전북지역이 일시에 위기에 휩싸이게 되자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등 동분서주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용병력이나 탄약의 부족 때문에 적의 공격을 끝까지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였다.

신 사령관은 18일 24:00시에 육군본부에 재차 병력과 탄약의 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전남 편성관구사령부(사령관 이응준 소장)에게도 긴급히 경찰병력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앞서 군산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해병대에게도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적의 공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장항~군산 전투

군산 해양대학에서 7월 16일 밤을 보낸 해병대 고길훈 부대는 군산 해군경비부로부터 다음날 아침에 북한군 1개 대대규모가 야포의 지원을 받으면서 장항 북쪽 7㎞지점에 남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고 소령은 정부미를 비축중인 군산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곧 적의 남진을 저지하기로 결심하고 중대장들과 수색대장을 소집하여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리하여 고길훈 부대는 5척의 민간선박 편으로 17일 13시 30분에 장항에 상륙한 다음 지휘소를 시내에 설치하는 즉시 예비대를 제외한 2개 중대를 북쪽으로 전진하도록 했다. 이들은 얼마 뒤 곧 장항북쪽 3.5㎞ 옥산동 부근 50고지를

점령하였는데, 이때 적정 수집임무를 띠고 금천에서 정찰 중이던 수색소대가 적 1개 중대규모가 남하하는 것을 목격하고 급보를 전하였다.

따라서 고 부대장은 이 적을 선제공격하여 섬멸하기로 결심하고 12시 30분에 제1중대로 하여금 50고지와 그 서쪽 500m 지점 42고지에서 제2중대를 지원하게 하였다. 제2중대는 이미 중대산을 점령중인 적을 공격하였으나 고지 중단부에서 우세한 적의 역습에 부딪치고 있었다. 중대는 혈전 6시간 만에 탄약이 소진되어 공격이 돈좌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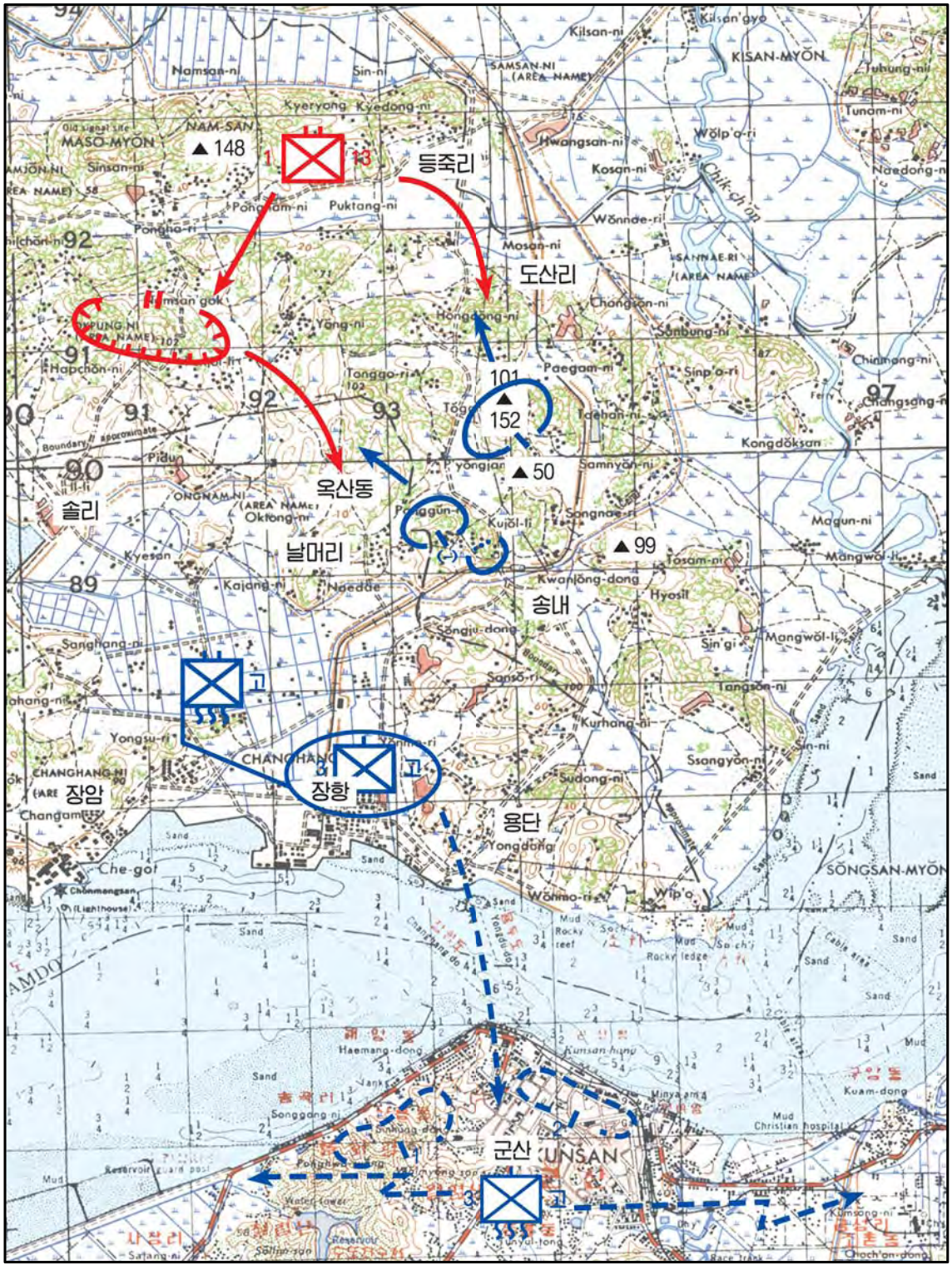
고 소령은 해병대의 출동임무가 당초 군산항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함선엄호에 있던 만큼 동 작업이 끝났음을 확인하자 더 이상의 전투는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곧 철수를 명령하여 17:00시 해양대학에서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고길훈 부대는 이날 전투에서 적병 20명을 사살하고 4명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으나, 반면에 20명이 전사하고 10명이 부상하는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사로잡은 적병으로부터 적 부대가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이며, 그 부대의 목표가 군산을 점령하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였다.

고 소령은 군산 해군경비부 병력들과 합류하여 장항에서 금강을 도하할 것으로 보이는 적에 대비키로 결심하고 18일 01:00시에 전 병력을 강안에 배치하였다. 이 무렵부터 북한군은 강북 일대에 포진지를 점령하고 군산과 그 주위에 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27] 이에 대하여 해병대는 계속 적의 도하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강안방어에 전력하였는데, 07:00시 1개 야포대대의 증원을 받은 듯한 1개 연대규모가 신성리(군산 동북 22㎞)에서 금강을 도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적정을 입수하였다.

이때 고 소령은 장항을 점령한 북한군이 주간에는 대안에서 도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일부 병력을 군산에 잔류시켜 해군경비부와 합동으로 강안방어에 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산을 장악하기 위해 동남쪽으로 우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에게 주력으로 대비키로 하고 수색정찰 활동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18일 09:00시 제3중대를 군산시 경비에, 그리고 제1·제2중대를 개정리(군산 동남쪽 4㎞) 부근일대의 탐색을 명령하는 한편 수색소대로 하여금 도암리~군산 가도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5> 장항-군산 전투(1950. 7. 16~19)



연한 금강남안 일대를 수색하도록 했다. 수색소대는 수색정찰 도중 18일 19:00시 무렵 조촌동(군산 동쪽 3.5㎞) 제지공장 부근에서 일부의 적을 포착하고 즉시 본대에 급보하고 6명의 대원을 투입시켜 적정을 수집하도록 하였다.

이 무렵 고 소령은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신태영 소장으로부터 "이리가 위급하니 즉시 지원하라"는 급전을 받았다. 당시 고길훈 부대는 해군본부로부터 추후 하달된 명령으로 군산에서 지연전을 전개하다가 안동호(LST)로 철수하도록 되어 있었다.[28] 군산항에서 정부미 반출작업을 마친 안동호가 계속 외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 소령은 1개 중대를 이리로 출동시켜 육군부대를 증원하고 주력으로는 함정의 안전범위 내에서 적을 지연하기로 복안을 세우고 즉시 부부대장 김병호 대위의 지휘아래 제3중대를 이리로 급파하였다.

고 부대는 7월 18일 1개 중대를 이리로 전환하고 2개 중대만으로 군산을 방어하면서 긴장된 가운데 하루를 보냈다. 고 소령은 적이 동남쪽으로부터 군산을 포위하고 시내로 침투하려는 기세를 보이자 해상철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9일 05:00시에 해상에서 대기하는 안동호를 군산비행장 근해로 회항토록 지시하였다.[29] 고 소령은 철야 임무를 수행중인 수색대에 철수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급히 부관과 대원 1명을 수색대로 급파하였으나 이리 쪽에서 분전중인 제1중대에게는 구체적인 명령을 전할 방도가 없어 그들 재량에 맡겼다.

대대는 제1중대가 개사리 고지를 선점하여 엄호하는 가운데 예정대로 군산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여 19일 10:00시에는 군산비행장 남단 해안에 집결하였는데, 이날 일찍 연락을 위해 급파된 2명은 수색대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촌동 지역에서 적의 저격을 받아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다. 수색대는 시내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방차에 전 대원을 승차시켜 탈출하였다. 이를 저지하려는 적의 총성은 이들이 시내외곽인 미룡동(군산 남쪽 4㎞)을 벗어날 때까지도 그치지 않았다. 이리하여 군산 비행장에 집결한 대대는 군산지역에서 적사살 6명, 포로 1명의 전과를 거두었다. 상황의 악화로 말미암아 19일 11:00시에 민간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에 정박한 안동호에 승선한 다음 목포를 향해 출항하였으며, 군산은 완전히 적의 수중에 들게 되었다.[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강경~익산 전투

강경에서는 7월 15일 전주부근으로 물러났던 강경경찰서(서장 정성봉 경감) 병력 67명이 다시 강경을 탈환하기로 하고 준비를 갖추었다. 이들은 몇 시간에 걸쳐 전투훈련을 실시한 다음 16일 17:00시에 정 서장의 진두지휘로 강경으로 진격하고 시가의 중요 지형지물을 점령하면서 적을 색출하였다.

이들은 시가에 도착하여 공비 5명을 포획, 적정을 파악하고 17일 03:00시에는 무장괴한 10명을 포획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들은 아군을 가장한 적 편의대의 유인전술에 말려 대대규모 이상의 적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정 서장이하 전 경찰은 적에 의해 포위된 사실을 알고 경찰서 구내에서 항전을 계속하였으나 열전 18시간 만에 탄약이 바닥나고 말았다. 이들은 몇 차례 퇴로를 타개하고자 육박전까지 감행하면서 돌파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67명 모두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강경은 18일 아침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었다.[31]

한편 고길훈 대대가 금강 남안에서 방어선을 편성하고 있을 때 전북경찰 제1대대와 제3대대, 그리고 충남경찰 혼성병력이 강경 서쪽기슭 교동리에서 적의 진출을 탐색하면서 7월 17일 긴장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이들은 정찰을 강화하던 중 18일 05:00시경 강경에서 남진중인 일부의 북한군 부대를 포착하였다. 그들은 적의 선두부대였다. 경찰병력이 적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즉시 그들을 향해 기습사격을 가하였다. 기습을 당한 적이 잠시 후 응사해 옴으로써 피아간에는 치열한 사격전이 전개되었다.[32]

이 전투에서 북한군은 경찰의 저항이 의외로 강했던 탓인지 교전 10시간 만에 다시 강경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이에 경찰병력은 추격전을 실시하여 적 병력 35명을 사살하고, 다발총 등 약간의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18일 저녁 무렵에 이르러 적의 공격이 또다시 시작되면서 우세한 화력을 동반한 2개 대대규모의 적이 압박해 옴으로써 탄약이 바닥이 난 경찰은 더 이상 지탱치 못하고 교동리로 각각 분산 철수하고 말았다.

경찰 혼성부대는 19일 아침에 다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용안(강경 동남쪽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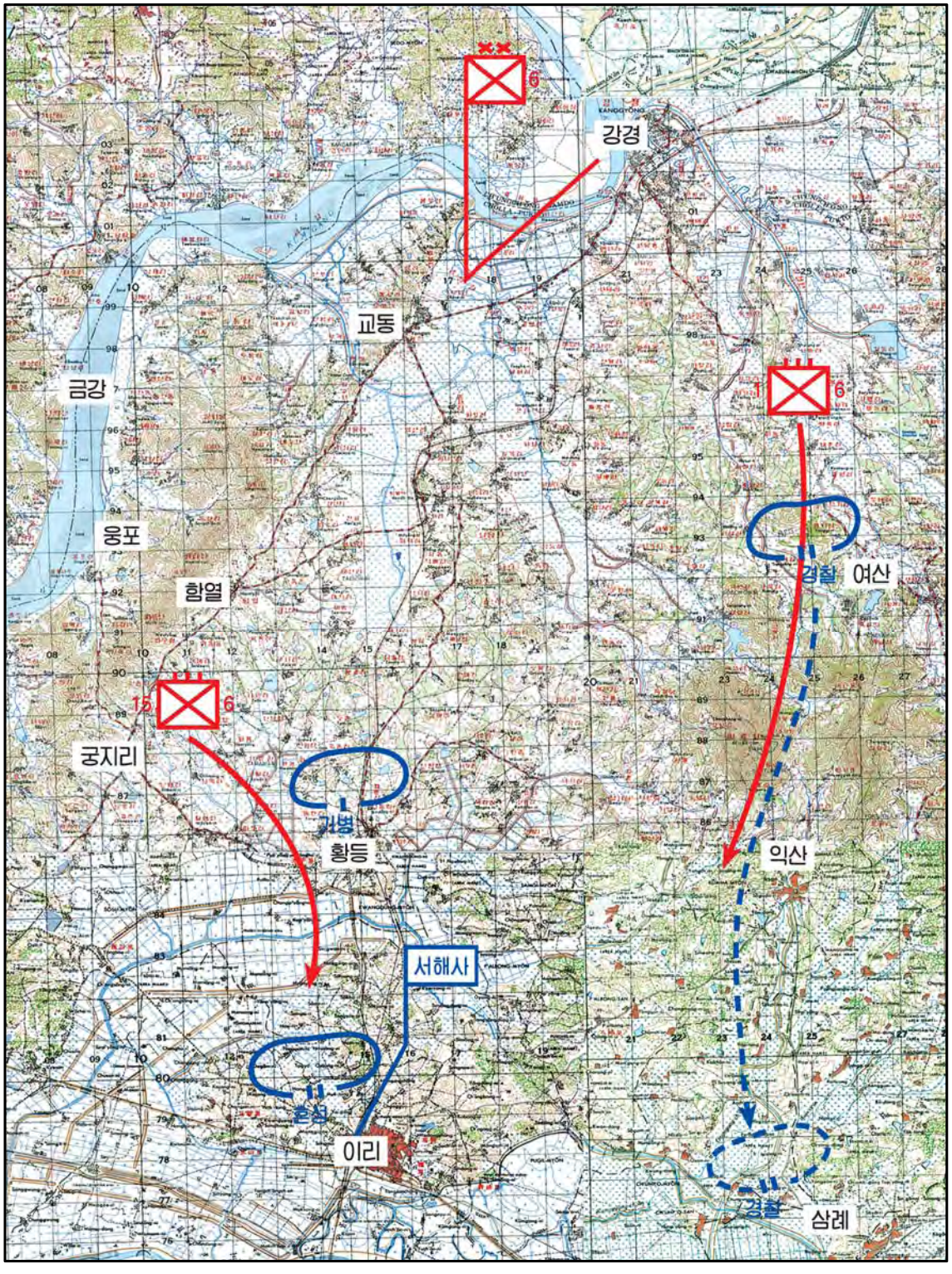
㎞)과 여산(강경 동남쪽 9㎞)쪽으로 철수하였다.[33] 그리하여 전북경찰 제1·제3양 대대와 충남경찰 혼성1개 중대는 제각각 지휘체계가 무너진 채 남쪽으로 철수함으로써 여산~장기리(전주 북쪽 13㎞)~삼례(전주 북쪽 9㎞)로 이어지는 축선에서 재차 적을 지연하기 위해 재편성하였다. 경찰병력이 강경에서 물러난 이후 처음으로 부대를 수습할 수 있었던 곳이 여산이었다. 당시 이곳에는 충남 청양에서 이동한 충남경찰의 일부가 있었으므로 그들과 합류하여 방어준비를 갖추었다. 이들 약 300여명의 경찰은 얼마 뒤에 "여산을 고수하라"는 신태영 소장의 명령을 받고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19일 11:00시 무렵 2개 중대로 추산되는 북한군이 중화기를 앞세워 계속 공격해옴으로써 경찰은 진지를 지탱치 못하고 임의로 익산 일대로 물러나 저항을 계속했다. 그러나 탄약 보급이 뒤따르지 못하여 결국 적이 방어진지에 도달하기 전에 익산 동남 11㎞ 장기리로 다시 이동, 완주경찰서 경찰과 합류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 제6사단은 예하 제15연대가 용안과 신성리 일대에서 금강을 도하한 후 황등~이리를 점령하였고 강경을 점령한 제1연대가 함열, 익산을 거쳐 전주로 계속 남진할 기세를 보였다. 또 군산쪽에서는 해병대의 해상철수로 말미암아 제13연대가 금강을 도하하였다.[34]

이 무렵 7월 19일 서해안지구전투사령관 신 소장은 육군본부에 몇 차례에 걸쳐 급전으로 탄약보급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전날 전남 편성관구사령관 이응준 소장에게 요청한 전남경찰 1개 대대(400~500명 규모)가 전주에 도착하였으므로 이들을 곧 익산으로 추진 배치시켜 적을 지연하도록 했다. 이리하여 전남경찰 대대는 곧 징발차량에 분승하여 삼례를 경유 익산을 목표로 전진하였으나, 그곳까지 진출하기도 전에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 병력과 조우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말았다. 더구나 이들은 설상가상으로 상공에 나타난 아군 공군기로부터 오인 폭격을 받아 손실이 가중되었다.[35] 전남경찰 대대는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하지 못하고 19일 22:00시에 삼례를 거쳐 남쪽 3㎞ 동산 지역으로 철수, 병력을 수습하면서 부대를 정비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6> 강경-이리 전투(1950. 7. 18～19)



4) 웅포~이리 전투

국군 제7사단 기간병력으로 구성된 독립대대는 7월 18일 원용덕 준장의 직접 지휘 하에 웅포로 전진하였다. 대대는 초기부터 중대별로 분산하여 서포리(군산 동북 7㎞)~성당리(강경 서쪽 8㎞)간 21㎞에 달하는 금강 남안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36] 이와 같이 하천선을 연하여 방어병력을 배치한 것은 북한군이 반드시 금강하류에서 도하를 시도할 것이며 여기에서 적을 저지한다면 다소간 적의 도하를 지연시키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강경~군산 간의 금강하류에는 6개의 나루터, 즉 황산나루(강경~부여 세도면)·다근이나루(용두리~청포리)·제성(제성리~입포)·웅포나루(웅포~신성리)·나포나루(나포~용산리)·수하나루(서포리~호초리) 등이 있었다. 각 나루에는 이미 강북에서 강남으로 피난하려는 주민들의 도선 때문에 대단히 혼잡한 상황이었다.

웅포 일대의 금강

이날(18일) 정오까지 강변에는 북한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오후에 이르자 민간인으로 가장한 적들이 제성나루·웅포나루·나포나루 등에서 도하하여 주변일대를 정찰하고 있었다. 이들은 북한군 제15연대의 도하에 앞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선발부대로 도하하는 즉시 강변에 경계진지를 편성하고 있는 독립대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37]

독립대대장은 적의 공격을 받은 지 30분 만에 탄약이 떨어지자 더 이상의 저항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후일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각 중대에 전령을 급파, 웅포 남쪽 5㎞ 지점인 수래재 일대로 물러나게 하였다. 대대는 병력을 수습한 다음 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았다. 그러자 북한군은 일몰시간 가까이에 이르러 웅포에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대안인 신성리로부터 북한군 제15연대 주력이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적정에 관해 급보를 받은 원용덕 준장은 짚차로 황등 서쪽 5㎞ 관원리로 나가 부대를 독려하여 적에 대해 역습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적세가 워낙 강하여 결국에는 수발의 총격만을 가하였을 뿐으로 별다른 묘책을 강구하지 못하였다. 수래재로 물러나 병력을 수습한 독립대대는 19일 아침 해 뜰 무렵 다시 적의 대규모 공격을 받아 결국 방어력을 상실하고 각개로 분산되어 이리로 철수하고 말았다.

방어부대들이 축차적인 저지진지도 마련치 못하고 철수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탄약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경에서 남하하고 있는 또 다른 적, 즉 북한군 제1연대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적이 이리를 점령하여 후방을 차단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이들은 대대장 독단으로 철수를 개시하였으나 이미 이리에도 적의 공격이 임박하고 있었다.[38] 이때 이리의 해병 1개 중대(100명 규모)는 혼란 속에서 경찰과 합류하여 경계와 아울러 철수하는 부대의 엄호를 수행하였다. 해병 중대는 군산에 지휘소를 개설한 고길훈 소령이 전날 신태영 소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즉시로 제3중대를 이리로 급파한 부대였다. 이들은 차량 기동으로 당일 내에 목적지에 도착, 시내에서 밤을 지새웠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들은 대한부인회에서 마련한 주먹밥으로 아침식사를 마치고 명령을 대기하던 중 신태영 사령관으로부터 “장신리에서 적을 저지하라”는 요지의 명령을 수령하고 19일 08:00시경 이리 서쪽 장신리로 물러나 진지를 급편하였는데, 뒤이어 기병중대도 이곳에 도착하여 함께 진지를 보강하였다.[39] 기병중대는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황등에 집결해 있었으므로 18일 정오까지 경찰과 독립대대의 전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중대는 13:00시경 북한군이 강경에서 황등을 향해 남진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경찰 혼성병력 1개 소대와 같이 황등 북쪽 2㎞ 지점 일대에 급편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국도를 따라 남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을 저지하기로 했다.[40]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전방에 추진한 경찰이 황등으로 철수하고, 뒤따라 북한군 제1연대 예하 대대규모의 적이 공격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19일 조기에 공격을 재개한 북한군 제1연대는 경찰의 축차저지선을 차례로 돌파하면서 계속 황등으로 공격방향을 지향하고 있었다.[41] 당시 기병중대는 이날 05:00시경 적의 선봉부대인 대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다. 기병중대 역시 보급을 받지 못하고 소량의 탄약만을 휴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이리로 철수하였다. 탄약 없는 화기란 한낱 쇠뭉치와 다를 바 없었다.

이렇듯 7월 19일 북한군의 신속한 진출로 아군의 방어선이 무너져 이리가 위태롭게 되자,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신태영 소장은 우선 전방으로부터 이리로 물러나는 부대를 엄호하고 다음에 이리를 방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신 소장은 이곳에 먼저 도착한 해병대로 제7사단 독립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기로 하고, 또한 전선에서 이곳으로 물러난 육군 혼성병력과 경찰들을 이리 북쪽 3㎞ 용동 일대로 추진 배치시켜 황등 쪽으로 철수하는 부대를 엄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때의 경찰은 계속된 전투로 피로가 겹쳐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으며, 공용화기를 포함한 예비탄약을 자의로 군부대에 인계하거나 지휘통제를 벗어나는 등 지휘 상의 난맥상을 보이기도 하였다.[42] 따라서 이곳에 먼저 도착한 2개 소대규모의 육군 병력만을 급히 이리 북쪽으로 출동시키는 실정이었다.

결국 이리 방어에 임하게 된 부대는 해병 제3중대와 이들 2개 소대 병력뿐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었다. 이때 이미 북한군 제1연대의 선봉부대가 이리 북쪽 구릉일대와 서쪽 장신리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해병중대는 목적지에 당도하기도 전에 적과 조우하게 되었고 결국 화력의 열세로 밀리게 되어 19일 09:00시 무렵 또다시 뒤로 철수하게 되었다. 해병 제3중대는 얼마 뒤에 마을부근 고지에 진지를 점령하고 제1소대로써 영만리(장신리 서쪽 1㎞)부근 고지의 적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고지정상에는 규모 미상의 적 병력들이 기관총을 거치하고 대기하는 듯하였다.

소대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흐려 피아를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3개 방향에서 고지정상으로 은밀히 진격하였다. 고지정상의 적들도 아군 해병대를 식별하지 못해 그들 후속부대로 오인하였으므로 한때 서로 대화까지 나누는 촌극마저 연출되었다.[43] 그러나 피아가 식별되자 소대는 적에게 역습을 당해 소대장 이하 5명이 사로잡히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 무렵 이리에서 방어진지를 편성 중이던 육군 혼성병력들도 적의 압박을 받아 대오가 흩어진 채 축차적으로 물러나고 있었다. 이에 신태영 사령관은 더 이상 이리 방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해병대대장에게 "목천포 남쪽 1㎞에서 철수부대를 엄호하라"고 명령한 다음 19일 14:00시 군과 경찰의 이리 철수를 명령하고 자신도 전방사령부와 같이 전주를 목표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44] 그러나 몇 시간 후 북한군 제1연대가 4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북쪽에서 이리로 돌입, 아군을 추격함으로써 전세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다.

그리하여 제7사단 독립대대를 비롯한 기병중대와 전북경찰은 각각 분산되어 삼례와 동산 일대(전주 서북쪽 7㎞)로 물러났고, 해병대는 목천포에서 만경강 북안 제방에 배수진을 치고 아군 병력의 도하를 엄호하였다. 해병대는 상황의 급전으로 만경교를 통해 김제(이리 남쪽 14㎞)로 철수하였는데, 이때 병력일부가 다급한 나머지 수영으로 강을 건너다가 3명이 익사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날 19일 배동걸 특공대도 이리에서 독자적인 유격전으로 적을 기습하여 적 병력 12명을 사살한 후 해병대와 같이 김제로 철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 삼례~김제 전투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예하 독립대대와 경찰 혼성부대들은 7월 19일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의 이리 점령으로 각개 분산된 채 전주로 향해 철수하였다. 이들은 철수하면서 일단 삼례에서 합류하여 이날 20:00시경 군의 주도하에 저지진지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익산에서 지탱하고 있던 전남경찰이 익산~삼례도로를 따라 남진하는 적의 공격을 받아 이 또한 삼례로 철수하고 있었다.[45] 독립대대 김병화 소령은 이들 병력들을 모아 방어태세를 갖추고자 하였으나, 경찰병력들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있었고 이리에서 물러난 병력 역시 피로가 누적되고 탄약마저 충분치 못한 상태였으므로 여의치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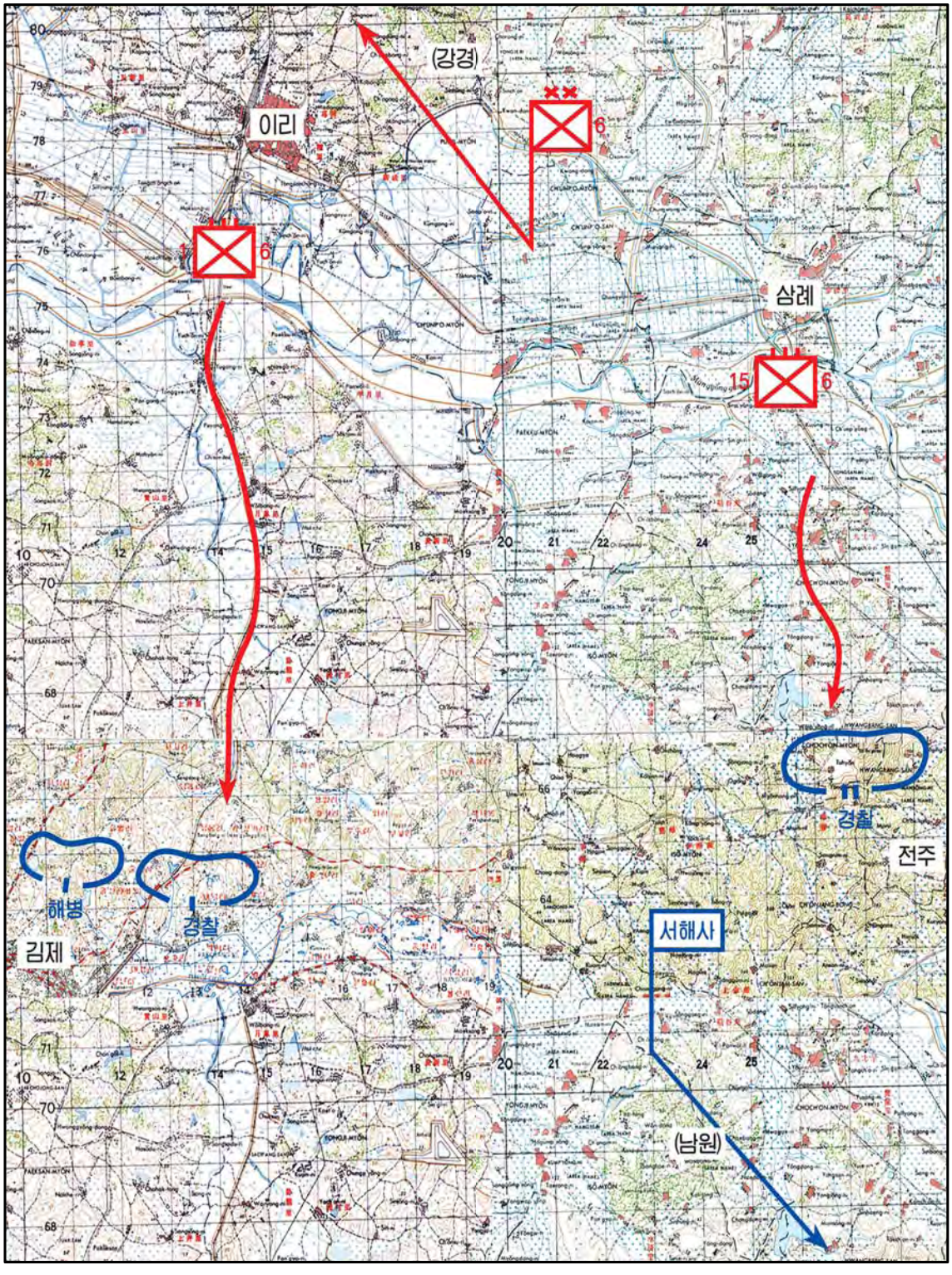
그리하여 당시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의 방어선이 구만리~삼례선이었으나 19일 22:00시 북한군 2개 대대규모가 갑자기 삼례로 공격방향을 돌려 아군을 추격하여 삼례 저지선도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곳에 배치된 병력들은 삼례남쪽 3.5㎞ 동산으로 또다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구만리~동산선의 아군은 전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한군 제1연대의 압박을 받아 돌파됨으로써 19일 24:00시경 또다시 전주외곽으로 물러났다. 이로써 호남의 요충인 전주 또한 방어배치 없이 적의 진출을 맞게 되었다. 이날 신태영 소장은 적정으로 보아 전주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읍, 임실 일대로 철수하여 적을 지연하기로 결심하여 7월 19일 22:00시경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46]

한편 이리를 장악한 북한군 제6사단은 계속 승세를 몰아 다시 전주와 김제를 목표로 각각 제1연대와 제15연대를 투입하였으며, 또 소대병력을 서해안 남포리에 상륙시켜 김제 방면으로의 침투를 기도하여 아군의 김제 방어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정읍에 이르는 지역마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리 일대에서 적의 추격을 받아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철수하게 된 해병 제3중대와 경찰혼성부대, 그리고 배동걸 특공대는 이날(19일) 전주외곽에 적이 쇄도할 무렵 김제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적의 일부가 이들 후미를 추격하여 김제를 포위하고 있었다. 이러한 급보를 접한 이응준 소장은 정읍에 예비로 있던 전남

<상황도 6-7> 삼례-김제 전투(1950. 7. 19~20)



경찰 1개 중대를 즉시 급파하였다. 이들이 김제에 도착할 무렵 북한군 선두부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여 한때 대열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47] 그러나 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원 병력이 소규모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재차 김제를 포위하고 포화를 집중시키기 시작하였다. 아군의 각 혼성병력은 화력 열세를 면치 못하여 축차적으로 포위망을 돌파하여 24:00시경 20㎞ 남쪽인 정읍으로 물러나게 되었으며, 20일 미명 북한군 제15연대가 김제를 점령하였다.[48]

이로써 전북 지역의 각 군과 경찰은 통신 불통으로 결국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의 지휘를 벗어나고 말았고 적의 공격을 저지할 방도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북한군 제6사단 예하부대들은 철수하는 아군을 추격하여 큰 출혈 없이 계속 전남지역으로 남진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전황으로 말미암아 전남 지역에도 돌풍이 휘몰아치게 되었다. 북한군은 이리~광주 간의 공격을 위하여 먼저 후방을 교란한 후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였다. 이들은 이날(19일) 조기에 민간복으로 변장한 유격대 50여명을 고창 서측 용대리(법성포 북쪽 7㎞) 해안에 상륙시켜 부근의 경찰지서를 습격하였으나, 다행히 영광경찰이 적시에 출동하여 적들을 토벌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정읍-목포 전투

1) 양측의 상황

북한군 제6사단은 7월 19일 승세를 몰아 공격방향을 전주와 광주에 이르는 양개 국도를 연해 지향하였다. 북한군은 섬진강 상류를 도하하여 경찰만이 배치된 진지를 공격하였으므로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경찰 혼성부대가 접적만을 유지하였을 뿐이었다. 또한 아군 항공기 역시 기상 악화로 출격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1연대는 7월 19일 밤부터 전주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심야에 이르러 그 병력을 더욱 증강시켜 아군진지에 포화를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적 포탄이

작렬하는 가운데 전주를 방어하던 군·경은 이날 02:00시경 명령대로 축차적으로 진지에서 이탈, 철수를 재촉하였다. 익산~삼례~전주 도로를 따라 물러나면서 지연전에 참가한 바 있는 경찰 1개 중대는 흩어진 병력을 수습하면서 지정된 전주 남쪽을 점령하고, 전북경찰 혼성병력 2개 중대규모는 03:00시경 임실 북쪽 2.5㎞로 물러나 아군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가 남원으로 이동함에 따라 신편 제7사단 독립대대와 기병중대도 사령부를 따라 이동했다. 철수과정에서 제7사단장 민기식 대령은 사령부요원들과 같이 전주에 있는 각 은행 보유화폐의 반출을 주선하고 아울러 낙오병과 자원 입대자로 구성된 200여 명을 인솔하였다.[49]

따라서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는 이날 19일 04:00시부터 전주시내에 돌입하기 시작하였다.[50] 이때 전황을 알지 못한 채 시내에 잔류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적정치하에 갇혀 온갖 학정에 시달리게 되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북한군 제1연대는 전주를 점령하자 일부의 병력을 임실로 통하는 국도 상에 투입하여 12:00시 임실 북쪽에서 선발대가 섬진강 상류로 도하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날 조기에 전남경찰은 임실 북쪽으로 물러나 전북경찰과 합류하여 적의 남진을 저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일대의 적은 섬진강 상류 남안에서 곧 철수하고 더 이상 임실방면으로의 남진을 잠시 중지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월 20일 02:00시경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사령관 신 소장은 사령부를 남원경찰서에 설치하고 군·경의 철수상황과 적정을 파악하면서 대책을 강구하였다. 동시에 제7사단장 민 대령은 남원중학교에 지휘소를 개소하였고, 독립대대도 이곳에서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다. 신 소장은 이날 오후 육군본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또 육군본부의 차후 작전방침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용덕 준장과 같이 대구로 향하였다.

따라서 남원에는 제7사단장 민기식 대령이 당면한 상황을 처리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민 대령은 전주로부터 철수한 낙오병과 이곳에서 부대를 편성중인 제30연대로부터 통합 전투부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방어병력은 약 600여명 정도에 이르고 공용화기도 경기관총 4정, 박격포(60밀리, 81밀리) 7문에 달하였으나

임실 앞 섬진강의 모습

소총탄을 비롯한 실탄이 거의 고갈된 상황이었다. 민 대령은 이 부대를 잠정적으로 민 부대로 호칭하였고 이틀 뒤인 22일 육군본부로부터 명칭을 추인 받았다.[51]

육군본부는 20일 17:00시 신태영 소장이 원용덕 준장과 함께 임지를 떠나 대구로 향하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전주가 피탈되었다는 급보를 접하자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전주 정면의 적을 공격하도록 하는 작전명령 제58호를 하달하였다.[52]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을 수령한 민 대령은 즉시 적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찰병력은 적의 공격이 없는 가운데 임실 북쪽 고지일대에서 계속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적정변화를 수시로 보고하게 했고 또 일부병력을 임실남쪽으로 이동시켜 적정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기식 대령은 우연히 지휘소에 임시로 설치한 경비전화를 받았다. 그에 의하면, 이때 전주에 진입한 적이 아군상황을 탐지하려 한 듯 국군장교를 가장하고 아군의 상황을 물었고, 민 대령은 순간적으로 통화자가 적이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알아차리고 임실~남원 사이에 배치된 2개 연대 증원 병력으로 적을 저지하기로 했다고 응답했다. 적은 오히려 거짓정보에 넘어갔음인지 이날 공격을 속개하지 않고 있었다.[53]

2) 상급부대의 조치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사령관 신태영 소장은 원용덕 준장과 함께 7월 20일 저녁 무렵 대구의 정일권 총참모장과 신성모 국방부장관을 방문하여 호남지방에서의 전황을 보고한 다음 필요한 병력과 탄약의 긴급 보충을 요청하였다.[54]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서부지역에서 야기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구에 예비로 보유한 김병화 부대를 긴급 투입하였다.

이들 병력은 증강된 소대정도의 규모이며 병기(M1)와 탄약은 3대의 화차에 적재할 수 있는 분량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탄약을 3대의 차량에 적재하고 징발차량 10대에 분승하여 신 소장과 같이 이날 23:00시경 대구를 떠났다. 같은 시각 육군본부는 전남지구 편성관구사령관과 경남지구 편성관구사령관에게 병력의 일부를 남원으로 투입 지원하도록 하는 작전명령 제61호를 하달하였다.

신태영 소장은 전날(20일) 육군본부로부터 김병화 부대와 소량의 화기와 탄약을 지원받고 원대로 돌아왔다. 그는 이날 21일 02:00시 경 공비가 출몰하는 대구에서 화원(대구 서쪽 10㎞)~고로(화원 서쪽 20㎞)~거창(고령 서쪽 30㎞)을 경유 함양(거창 서남쪽 20㎞)에 도착하자 곧 이 소식을 민기식 대령에게 급보하였다. 김 부대는 곧 남원으로 진출하여 민 부대와 합류하였으나 그가 얻게 된 무기와 탄약 역시 민 부대가 인수하게 되었다.[55]

육군본부가 급파한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은 김용기 중령과 같이 남원에 이르러 민 부대를 지원하였고 신태영 소장과 원용덕 준장은 함양에서 일단 휴식을 취한 후 남원으로 복귀하였다. 신 소장은 민 대령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남원으로 돌아간 뒤에도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사령관으로서의 지휘권 행사에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다.

한편 7월 20일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61호를 수령한 전남 편성관구사령관 이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준 소장은 전황의 추이로 미루어 적이 남원을 점령한 뒤 순천으로 지향할 경우 아군이 후방이 차단될 것이기 때문에 이곳으로의 적의 진출을 반드시 지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즉시 순천에 배치된 제15연대장 김병휘 중령에게 남원으로 출동하라고 명령하였다.[56]

이 명령은 연대본부에 있던 부연대장 이영규 중령이 수령하였다. 즉각 제2대대장 김필상 소령에게 출동준비를 하달한 다음 그와 더불어 300명을 진두지휘하여 남원으로 북진하게 되었다. 이 중령은 제2대대를 골간으로 300명을 엄선한 다음 나머지는 조남철 소령 지휘 하에 잔류시키고 이 사실을 연대장에게 보고한 다음 열차 편으로 당일 출동하여 09:00시 남원에 진입하였다. 이영규 부대로 명명된 이 부대는 남원으로 이동하는 즉시 열차에 승차한 채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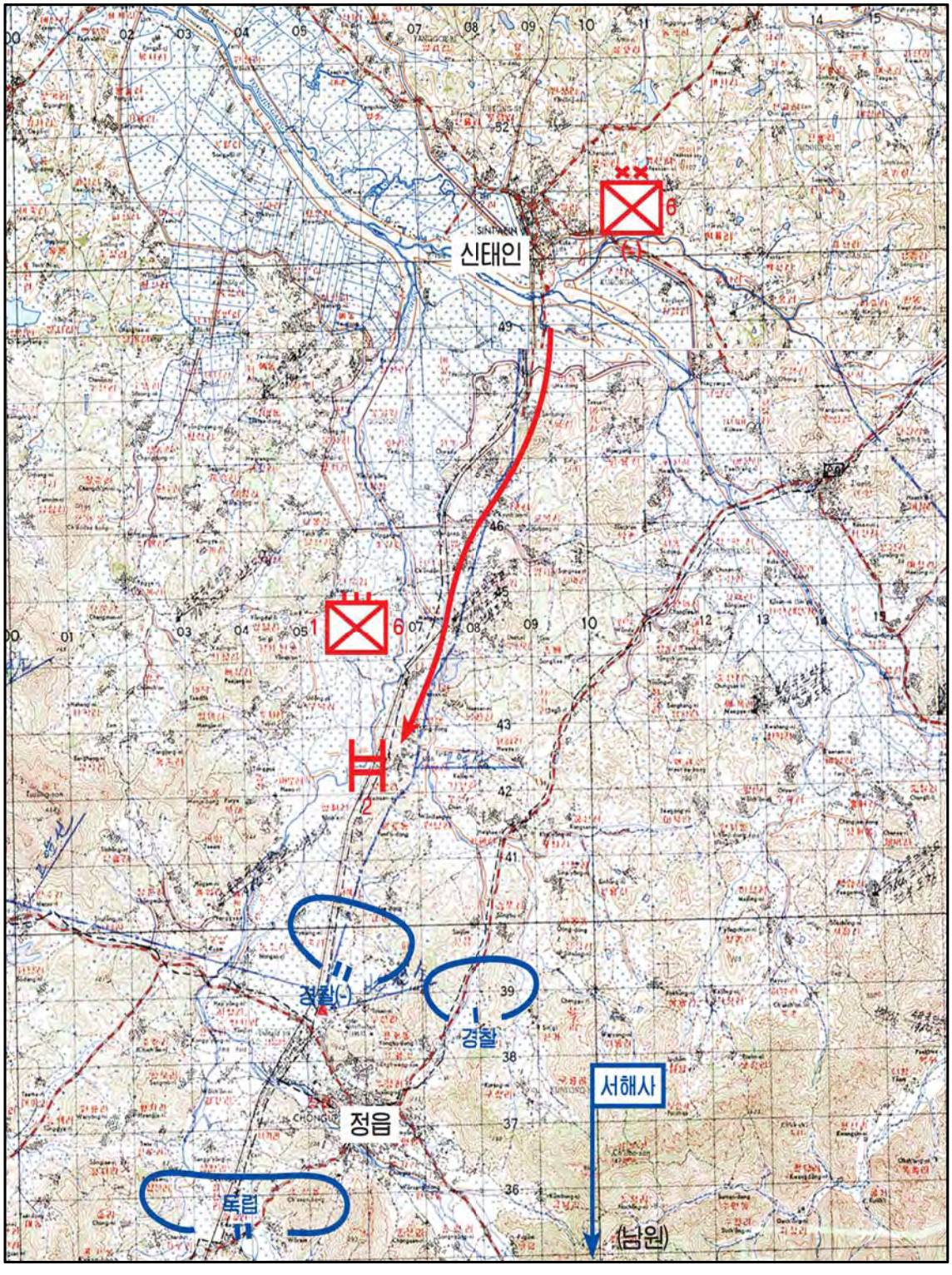
한편 제30연대장 김용주 중령은 남원에서 1,500명의 신병을 모아 훈련에 주력하고 있었다. 7월 21일 북한군의 공격이 임박하자 민기식 대령으로부터 후방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목표 없는 철수명령을 받았다. 당시 연대는 제3・제9・제15・제26 4개 연대가 동월 17일에 육군본부에서 제1~제4교육대로 개칭되는 조치에서 벗어났으므로 원래의 명칭으로 있었다. 연대는 철수명령을 수령하자 곧 부대 이동준비를 완료하고 보급품은 자동차로, 각 부대는 도보로 이동하기로 하고 이날(21일) 오전 중에 남원을 떠나 구례를 경유 진주로 향하였고, 28일이 되어서야 구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부안~신태인 전황

북한군 제6사단 예하부대들은 정읍을 지향하는 듯하였으나 7월 22일 피아간에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탐색전만이 계속되었다. 북한군은 주력으로 하여금 정읍을 공격하도록 준비를 갖추었으며 반면 임실정면에서는 견제에만 치중한 듯 전주~임실 국도부근의 전황은 별다른 상황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해병 1개 대대가 여수에 상륙, 다시 북상하여 민 부대를 지원하였다.[57] 민기식 대령은 이날부터 여수로부터 지원된 해병대와 또 부산에서 지원된 오덕준 부대를 통합하여 지휘하였다.

<상황도 6-8> 신태인 부근 상황(1950. 7. 20)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는 7월 22일 방어 공백지역인 태인(정읍 동북쪽 11㎞)을 유린한 다음 정읍으로 지향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신태인(정읍 북쪽 11㎞, 태인 서북쪽 5.5㎞)에는 군산 및 이리로부터 남하한 것으로 보이는 기갑부대를 포함한 북한 제6사단 주력이 집결하고 있었다.[58] 그러면서 22일 16:00시에는 적 1개 중대규모가 고부(정읍 서쪽 8.5㎞)로 진출하여 경찰의 방어진지를 유린하였다.

한편 22일 덕유산 일대에 출몰하던 공비 2개 중대규모가 진안(전주 동쪽 24㎞)을 습격하였다. 이곳을 방어하던 경찰은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채 일전도 시도하지 못하고 장수(임실 동북쪽 21㎞)로 철수하였다. 호남지역을 공격하고 있는 북한군 제6사단은 우선 주력으로써 광주, 목포를 점령하고 이어 남해안을 우회하여 순천 서쪽 일대로 진출하려 했다. 아군 지휘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의 기도를 분쇄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적이 의도하는 대로 밀려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날(22일) 08:00시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신태영 소장은 지원부대의 도착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의 압도적인 열세로 인하여 적을 저지할 방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현 전선에서 가능한 한 적을 지연하다가 덕유산~지리산~백운산을 연하는 선으로 물러나 유격전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때 신 소장이 관할하는 서부전선은 대체로 무주(임실 동북쪽 35㎞)~진안~임실~정읍~고창을 연결하는 방어선이었으나, 병력이 실제 배치된 곳은 임실정면과 정읍 두 곳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더구나 전북지역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주~진안~장수(진안 남쪽 20㎞) 부근은 경찰병력만이 지역방어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극히 취약한 상황이었다. 현 전선의 전황으로 보아, 전체 방어선의 서측에 해당하는 이곳이 노출될 경우, 전세가 급전될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이 지역의 방어는 아군 전체 작전상 대단히 긴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신 사령관은 임실 동쪽에서 지역방어에 임하는 경찰과 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 일부를 우 지구대로, 민 부대를 좌 지구대로 각각 분류하여 적을 진안 및 임실 쪽에서 지연하도록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작전명령 제1호를 하달하였다.[5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때 여수에 상륙한 해병대 고길훈 부대는 명령을 받지 못한 채 다만 해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 남원역에서 승차한 채로 밤을 새운 이영규 부대는 민기식 대령으로부터 당면한 적정을 듣고 이날 22일 08시 30분경 또다시 열차로 임실 북쪽까지 북상하였다. 이영규 부대는 임실에서 하차하여 용운치 일대를 점령하였는데, 이때 여기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어야 할 경찰 혼성부대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합류하지 못하였다. 후에 부대는 적의 공격이 없었으므로 계속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지난 7월 20일 군산에서 해상 철수한 고길훈 부대는 다음날 목포에 입항하여 제3중대를 인수하였다. 당일 또다시 "여수에 상륙한 다음 적의 공격을 저지하라"는 해군본부의 작전명령을 수령하였다. 고 부대는 21일 18:00시에 목포를 떠나 이날(22일) 08:00시에 여수항에 입항하였으며, 이때 "참모장 김성은 중령으로 하여금 고길훈 부대의 지휘권을 인수토록 하는 동시에 1개 중대를 증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60]

이로써 김성은 중령은 이날 06:00시경 예비로 둔 병력중 제7중대를 지휘, 제천호(FS)로 제주항을 떠나 18:00시경 목적지인 여수에 입항하였다. 김 중령은 고길훈 부대의 지휘권을 인계받고 부대호칭도 김성은 부대로 개칭하였다. 해군본부에서는 보급품과 함께 소총(M1)과 박격포, 탄약 등을 급히 부산에서 영등포호(FS)에 적재하여 여수로 급파하였다. 부대원 전원은 99식 소총 대신에 M1소총으로 무장하게 되었다.

이때 해군본부는 부대장에게 "귀 부대는 보성방면으로 출동하여 남진하는 적을 저지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61] 김 중령은 선상에서 전 대원에게 M1 소총의 분해결합으로부터 사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훈련시켰는데, 이때 실탄의 보급상황은 절대 수량이 부족하여 1인당 8발씩만이 지급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전투준비를 갖추고 있던 부대는 23일 22시 30분경 돌연 남원에 있는 민부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다. 즉, "본인은 귀 부대를 지휘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음. 급거 남원을 목표로 북상하기 바람"이라는 것이었다.

김 중령은 이 명령을 수령하자 당초 그가 해군본부로부터 받은 작전명령 내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과는 상이하였으므로 즉시 해군본부에 확인하였고, 얼마 후 해군본부 역시 앞서의 명령을 수정하여 “민기식 대령의 지휘를 받으라”고 하였다. 이에 부대는 전 대원을 하역에 동원하여 23시 40분부터 선박에 적재한 식량 등 보급품을 준비한 열차에 옮기는 작업을 철야로 실시하였다.[62]

한편 민기식 대령은 전날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사령관의 함양 전진으로 7월 23일부터 이 지역에서의 예하 각 부대를 통합지휘하게 되었는데, 아울러 미 제8군에서는 이날 비로소 잭슨(Jackson) 대위를 고문관으로 민 부대에 급파하고 미군 상황 전반에 걸친 연락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따라서 민 부대 상황은 미 제8군사령부에 보고하게 되고 또한 미 제8군의 작전지도 방침이 육군본부를 경유하지 않고 고문관을 경유하여 민기식 대령에게 전달되었다. 이때부터 육군본부와 미 제8군은 통신수단의 결여에 따르는 불안요소를 배제할 수 있었으며 민 부대의 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날 7월 23일 민 대령은 김성은 부대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61호에 의거 부산으로부터 지원된 오덕준 부대가 10시 20분~15시 사이 남원에 도착하자, 당면한 적정으로 보아 전주에는 일부의 적만이 잔류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이영규 부대와 함께 역습하여 전주를 탈환하기로 계획하였다.[63] 그러므로 민부대장은 역습계획을 육군본부에 보고하고 23일 16:00시 김병화 부대를 남원으로 복귀시킨 뒤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다.[6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따라 전날 여수에 상륙하여 출동준비를 마친 김성은 부대는 이날(23일) 03:00시경 열차 편으로 출발한 다음 10시 20분경 남원에 진입하였다. 이 무렵 이리 전투에서 실종된 김한수 소위 외 4명이 적에게 사로잡혀 후송되는 도중 적지를 탈출하여 남원으로 복귀하였다. 부대는 민기식 대령으로부터 16:00시에 역습명령을 수령하게 되자 다시 17:00시경 열차 편으로 출발하여 1시간 뒤에는 오수리(남원 북쪽 13㎞)를 거쳐 북진하여 01시 20분경 임실에 도착하였다.

한편 육군본부는 전남지역에서의 전황이 악화되기에 이르자 동월 20일 당시 경남지구 편성관구사령관에게 “보병 1개 대대를 남원에 급파하라”고 명령하였다.[65] 이러한 조치로 급편된 오덕준 부대는 해병대에 이어 이날(23일) 15:00시에

남원에 진출하여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오 부대는 원래 동월 7일에 제5, 제7사단이 광주와 전주에서 신편될 때 부산에서 신편된 제9사단(사단장 이종찬 대령)을 모체로 창설된 부대이다. 당시 제9사단 예하에는 제23연대(연대장 이유성 중령)가 부산에서, 제27연대(연대장 김익렬 대령)가 마산에서 신병을 모집하여 각각 편성 중에 있었다.

이때 육군본부로부터 구두명령을 받아 사단 참모장으로 부임한 오덕준 대령은 곧 작전명령을 수령하여 동월 17일에 육군본부 조치에 의거 제8교육대로 개칭된 제23연대 가운데 정예병력, 퇴원자 그리고 학도병 등에서 650명을 선발한 다음 홍순용 중령을 대대장으로 하여 4개 중대를 편성하고 홍석표·박정서 대위 등을 중대장에 임명하였으며, 손관도·양철수·이준학 소령 등을 각 참모에 임명하였다.

편성된 부대는 부산 창고에 보관중인 M1소총으로 무장하고 징발차량 20대에 분승하여 동월 21일에 마산으로 향하였다. 부대는 이곳에서 제9교육대로 명명된 제27연대 병력중의 일부를 뽑아 보충하고 다음날 22일에 열차 편으로 출발하여 진주에서 하루를 보낸 다음 이날 남원에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부대원들의 자질이 충분치 못하여 진주에서 재편 시에는 병력이 1,000명에 달하였으나 이동 중에 많은 이탈자가 발생하여 남원 진입 시에는 그 병력이 700명 정도로 줄었다. 민 대령은 오덕준 부대의 지원을 받게 되자 이날 지체 없이 역습을 감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우선 장병들의 피로를 고려하여 일정시간 휴식과 부대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예비로 남원에 배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와 같이 남원에서의 정황은 한때 활기에 차 있었으나 전남지역에서의 상황이 시시각각 악화되어 이날(23일) 영광, 광주가 북한군의 점령 하에 들어갔다. 적은 승세를 이용하여 계속 화순(광주 동남쪽 10㎞)과 나주(광주 서남쪽 20㎞)를 지향하고 있었다.[66] 북한군 제6사단은 장성 일대에서 1개 연대가 광주방면으로, 다른 1개 연대가 남원으로 지향하였다. 북한군 제1연대는 전차 2대를 앞세우고 담양(장성 동쪽 17㎞)으로 진입한 다음 남원을 점령하고자 순창 경찰을 압박하였다. 이들은 남원을 점령한 뒤 재차 동남방면으로 진격하여 여수항을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4) 정읍~장성의 전황

북한군 제6사단 예하 제15연대는 7월 20일 김제를 점령한 후 고부~고창~광주 방면으로 공격하려 기도하고 있었다.[67] 정읍일대의 아군부대는 7월 19일 김제에서 적의 포위망을 뚫고 정읍으로 물러난 해병 제3중대와 배동걸 특공대, 그리고 전남경찰 1개 중대에 불과하였다.[68]

그나마 이들은 전날 전투에서 탄약을 거의 소모한 상태인데다가 식사도 하지 못하여 극도로 기진맥진해 있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적의 정규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들은 정읍에 도착한 이후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와의 연락도 두절되어 차후행동에 대해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전남경찰 1개 중대는 임의로 이날 20일 12:00시 원대 복귀하고 나머지 병력들은 각각 부대장의 의도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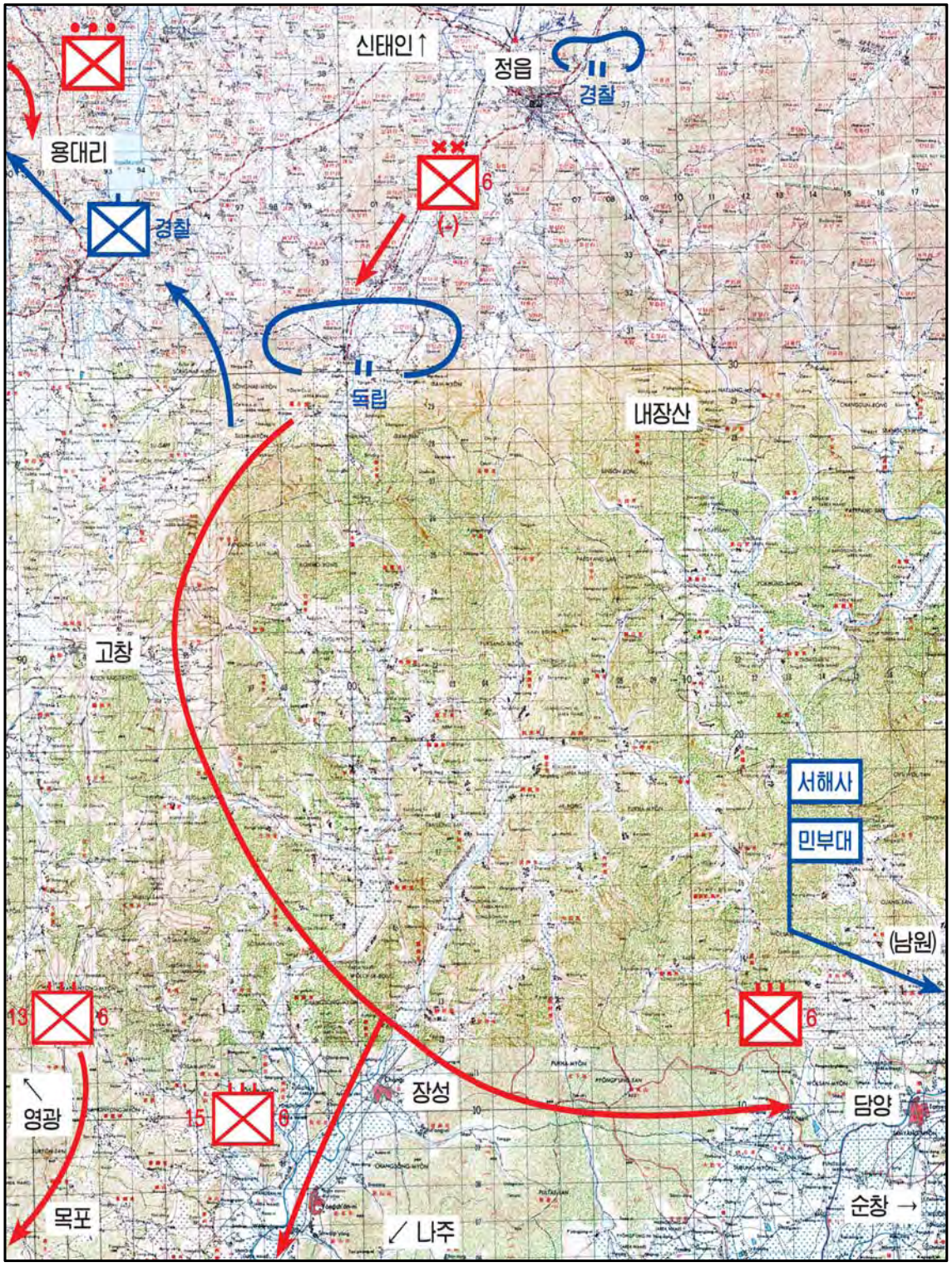
이처럼 김제~정읍 사이가 거의 무방비 상태였으므로 북한군 제6사단 제15연대는 이날 오후 전혀 저항을 받지 않고 태인(정읍 북쪽 10㎞)~신태인(태인 서북쪽 6㎞)에 진출하였으며 선봉부대는 이미 정읍으로 지향하고 있었다.[69] 따라서 이날(20일) 북한군은 전북 지역을 거의 점령하고 이어 전남지역으로의 진출을 기도하였다. 이때 전남지역 역시 아군은 이름뿐인 전남 편성관구사령부가 있었을 뿐 방어병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04:00시 전주가 피탈되고 서해안전투사령부가 철수하는 등 상황의 악화로 말미암아 정읍으로 남진중인 적에 대하여서는 자연 전남 편성관구사령부(사령관 이응준 소장)가 맡게 되었다. 이 소장은 예하의 군·경을 통합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날(20일) 이응준 소장은 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급박하게 움직였다. 이 소장은 이형근 준장·안동준 중령·최영성 소령·박창록 대위 등으로 사령부를 구성하고 지휘소를 도청에 설치하였다. 이형근 준장은 7월 17일부 육군본부 인사조치로 전북 편성관구사령관에 전보되었으나 명령을 전달받지 못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또한 이형석 대령 역시 동일부 조치로 신편 제5사단장에서 해임되어 있었으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9> 정읍-장성 상황(1950. 7. 20~24)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박승일 중령(참모장)·홍순봉 중령·박남표 소령·서경택 소령·이창범 대위 등 참모들과 함께 계속 사령부를 유지하고 예하 제15연대(제5교육대), 제26연대(제3교육대)를 형식상 지휘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편성관구사령부도 마찬가지로 병력이 없는 간부진 조직에 불과하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대책마련이란 허공에 뜬 메아리 격이었다.

그런데, 육군본부는 전날 19일 전남지역에서 신편된 제5사단 예하 제15, 제26연대가 적의 공격을 눈앞에 두고도 무장할 방안이 없자 당초계획을 단념하고 양 연대를 교육대로 전환시켰다. 이는 부족병력의 충당을 위한 임시 조치였다. 이때 광주에 배치된 제26연대(제3교육대)는 이백우 중령을 연대장으로 하여 광주지방의 중학생 1,000여명을 모집하여 제1대대(대대장 조시형 소령), 제2대대(대대장 은석표 소령), 제3대대(대대장 김문수 소령)를 편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장이란 경찰로부터 입수한 99식 소총 10정과 광주병원(제3육군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휴대하였던 M1소총 몇 정이 전부였다. 각 대대는 10% 정도만이 소총을 소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응준 사령관은 20일 아침 북한군이 태인과 신태인에 진출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곧 적이 전남지역으로 남진해 들어올 것으로 내다보고 이형석 대령과 대책을 숙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읍에서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뒤이어 육군본부로부터도 "정읍방면으로 1개 대대를 급송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70]

그리하여 이형석 대령은 곧 자원자로 하여금 부대장을 삼아 1개 대대를 급편하여 정읍방면으로 투입하기로 하고 사단사령부의 전 장병을 집합시킨 다음 직접 지원자를 선출하였는데 대대장에는 사단 본부사령(제1대대장 겸무) 조시형 소령만이 지원하였다. 이어 제1대대의 신병 중에서도 지원자 일부를 차출하여 보충하고 부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26연대는 전 화기를 조시형 대대에 넘겨주어 400명을 무장시켰으며, 이로부터 철야로 출동준비가 진행되었다.

한편 해병 제3중대는 20일 정읍으로 물러나 부대를 정비한 후 21일 본대에 합류하기 위해 목표로 향하였다.[71] 이후 제3중대는 이곳에서 군산으로부터 해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철수한 본대와 합류하였다. 고길훈 해병대는 제3중대와 합류한 후 목포를 출발하여 다음날 22일 여수에 도착하였고, 다시 남원으로 북상하여 민 부대를 지원하였다.

전날(20일)의 조치로 장성 갈재 방면으로 출동한 제26연대 제1대대는 해병 제3중대가 목포로 이동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21일 08시 30분에 전원 광주경찰서에 들려 가마니 속에 넣어 보관중인 99식 소총 실탄 2,000발을 지급받아 차량 10대에 분승하고 갈재를 향해 북상하였다.[72]

대대는 3시간의 기동 끝에 접적 없이 전남북도의 도계일 뿐만 아니라 노령산맥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험준한 갈재까지 진출하였으며, 이어 정읍 방면으로 북진하였다. 이때 오후 무렵 그의 선발대가 정읍에서 정찰대로 보이는 소수의 적과 접촉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는 정읍 가까이에서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전원 산개 돌격하여 적을 격퇴한 다음 정읍 북쪽 말고개까지 진출하였다.

장성 갈재의 모습

북한군은 부대정비를 마친 뒤 7월 22일 새벽 일제히 공격을 재개하였다. 북한군 제15연대는 고부와 정읍 일대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73] 아군은 적의 압도적인 화력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분산 철수함으로써 노령산맥 북쪽지역을 대부분 적에게 넘기게 되었다.

전남 편성관구사령관 이응준 소장은 적이 전북지역에 진출하였을 때부터 전남지역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신편중인 제5사단의 편성업무에 주력하면서도 수시로 이형석 대령과 회동하여 난국을 타개할 대책마련에 부심하였다. 이 같은 노력중의 하나가 전남지역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주민들의 피난조치와 정부재산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날 광주지역에 위기가 급박하자 지방관서와 협의하여 여수와 목포 등에 보관중인 정부미를 서둘러 반출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광주에 소재하는 전남 방직공장의 재고품인 광목 전량을 징발조치하고 반출이 용이한 여수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사령관은 적의 예봉이 전북지역을 휩쓸며 계속 남하하기에 이르자 이를 전남북 도계에서 저지키로 결심하였다. 그는 이날(22일) 새벽 신편 제5사단 제26연대(제3교육대)에는 가용병력이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전남경찰국장(전남경찰전투사령관) 김응권 경무관을 불러 "적을 전남북 도계에서 섬멸하라"는 요지의 긴급명령을 하달하였다.[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당시 전남경찰은 각서에서 15명씩을 차출하여 전투경찰을 편성하고 전북경찰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작전에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일부가 전북지역으로 출동하고 그 일부병력만 광주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응권 경무관은 명령을 받은 즉시 광주서장 이제욱 총경에게 "전투경찰을 지휘하여 장성 갈재로 출동하라"라고 명령하였다. 이때의 경찰병력의 규모는 500명 정도였으나 무장은 M1과 99식 소총뿐이었고 그나마 3명중 1명만이 휴대하는 실정이었다.

경찰은 즉시 차량으로 장성 갈재에 도착한 다음 오전 중에 정상부근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병력을 2선으로 배치하여 제1선에는 무장한 자를 제2선에는 비무장인 자를 전개하여 저지선을 형성하였다. 이날(22일) 고부를 방어하던 경찰

은 적의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 교전 수분 만에 분산되었고 17:00시 무렵 고창(고부 남쪽 21㎞)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북한군 제15연대는 고부와 정읍을 점령한 후 고창~영광, 장성 방면으로 기동을 계속하였다.[75]

한편 전날(21일) 정읍 북쪽까지 진출한 제26연대 제1대대 병력 400여명은 조시형 대대장의 지휘를 받아 말고개 일대에 호를 구축하고 종심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결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22일 미명 북한군 제15연대 2개 대대 병력이 정읍부근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아군 제1대대가 배치된 말고개 일대에 포격을 집중한 후 전차 4대를 앞세워 공격하였다.[76]

대대 진지는 적 포탄에 붕괴되었고 신병들이 겁에 질려 분산되는 가운데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대는 더 이상 말고개 진지를 지탱하지 못하고 철수, 장성 갈재(정읍 남쪽 11㎞)에서 간신히 병력을 수습할 수가 있었다. 대대는 부대 지휘가 곤란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었으나, 대대장의 엄격한 부대통제에 따라 전열에서 이탈하는 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날(23일) 20:00시경 대대장은 경찰이 도착하였음을 확인하고 부대병력을 나누어 갈재 북쪽 도로변 돌출부마다 배치하였으나, 적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77]

이 무렵 북한군 제6사단(사단장 방호산 소장)은 고창을 점령한 제15연대를 영광~나주 방면으로, 전주를 점령한 후 신태인 일대에서 집결해 있던 제1연대를 고창을 거쳐 장성~남원방면으로 진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1개 포병대대와 1개 자주포대대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 제1연대가 24일 미명에 고창에서 장성 갈재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국군 조시형 대대는 적의 포병과 전차로부터 사격을 받아 순식간에 방어선이 붕괴되고 말았으며, 경찰도 각개 분산된 상태로 광주 일대로 물러났다. 갈재를 점령한 북한군은 곧이어 선봉부대를 남쪽 장성으로 투입하였다.[78] 이때 상황에 대해 조 소령은 "적의 총성이 갈재 바로 남쪽에서 들렸으므로 적 주력이 후방에까지 침투한 것이었다. 나는 적을 돌파키로 결심하고 적의 포위망을 뚫고 산을 넘어 백양사로 가서 부대를 수습하였다"고 하였다.[79] 이와 같이 7월 24일 방어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장성 갈재마저 힘없이 무너졌으며 나주 시내까지 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의 포탄이 떨어지고 있어 전남 전역이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었다.[80]

한편 고창에서 영광방면으로 진출한 북한군 제15연대 예하대대는 23일 용대리(영광 북쪽 11㎞)에 2차로 상륙한 소대규모의 증원을 받아 영광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곳에는 단지 경찰 1개 소대 병력이 경계에 임하고 있었으나 적을 감당할 수 없어 나주(영광 남쪽 26㎞)로 철수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때에 이미 나주가 피탈되었으므로 유격전을 전개하기로 하고 방향을 바꾸어 불갑산(517고지)으로 들어갔다.

4. 광주-목포 부근 전투

신편 제5사단장 이형석 대령은 7월 23일 광주가 단시일 내에 적의 위협에 직면하리라고는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단은 이미 육군본부의 병력차출 지시에 따라 병력을 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위력이 극히 취약한 상태였다. 이 대령은 급격한 전황의 악화로 전남지역에도 위기가 닥쳐오자 광주방어에 필요한 병력과 탄약을 육군본부에 즉각 요청하였다. 그러나 육군본부에서는 적의 저지만을 강조할 뿐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81]

이날(23일) 이 대령은 신성모 국방부장관과 간신히 통화할 수 있었다. 그는 즉시 전황을 보고하고 무기와 탄약 지원이 불가하다면 적 기계화 부대를 저지할 수 있도록 폭약만이라도 급송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신 장관으로부터 "육탄으로라도 용감하게 싸우시오"라는 말만을 들었을 뿐이었다.[82] 미 제8군사령부에서도 이 무렵 광주지역에서는 경찰병력이 적을 지연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정도였다.[83]

그는 더 이상 상부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구책을 강구하였다. 다만 사단 편성 시부터 병력 획득방안의 하나로 당시 제주도에 주둔하는 해병대사령관 신현준 대령에게 그 편성요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 같은 요청으로 신 대령은 전날 제주도에서 공비토벌작전에 임한 전 서북청년단원 150명을 선발하여 비록 비무장이긴 하지만 급히 민간선박으로 제주항을 떠나 제5사단을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날(23일) 이들은 여수에 상륙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후 이형석 대령이 고흥반도로 철수한다는 소식에 접하게 됨으로써 다시 승선하여 봉암리(고흥반도 서남단)로 직행하여 이 대령과 합류할 수 있었다.

이날 새벽 장성 갈재를 넘어 아군 방어선을 돌파한 북한군은 10:00시 무렵 장성을 점령하고 광주로 지향하고 있었다. 이미 광주시내에는 적의 포격이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적의 선두부대가 시내로 침투하고 있었다. 이 무렵 북한군 제6사단의 상황은 장성을 점령한 제1연대가 담양으로 우회하여 남원으로, 제15연대가 영광을 점령한 후 나주로, 그리고 제13연대가 영광에서 함평, 목포로 각각 진출하고 있었다. 광주부근으로 접근하고 있는 적은 북한군 제15연대 예하 병력이었다.[84]

북한군 제1군단장 김웅은 이 무렵 전남일대의 진출속도를 높이고 점령지를 장악하기 위해 북한군 제6사단 예하에 2개 해병대대, 2개 경비대대 및 독립보병연대를 배속시켰다.[85] 그리하여 북한군 제6사단 예하에는 3개 보병연대 및 1개 포병연대 이외에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를 비롯하여, 포병대대·해병연대(-1)·경비연대(-1)·독립보병연대 등이 지원하고 있었다.

23일 15:00시경 아군 군·경 혼성부대는 1개 소대규모의 적이 시내에 접근하자 사격을 집중하여 그들을 격퇴시켰다. 이형석 제5사단장은 현재 광주에는 소수의 군·경 병력이 합동으로 경계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전력으로는 적을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화순을 경유, 순천으로 철수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대령은 화력과 병력면에서 절대 우세한 적의 공격을 목전에 두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였으며, 전남도청 별관에서 철야로 육군본부에 공군기의 엄호 요청을 하였으나 번번이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그는 광주를 방어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주민들의 안전만이라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날 광주방송국에 나가 "적의 공격이 임박하였으니 즉시 피난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 최후 탈출자를 위하여 객차로 조성된 1개 열차를 남부역에 대기시킨다"라고 방송하였다.[86]

이형석 대령은 전날 출동한 제26연대 제1대대의 조시형 소령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비무장상태인 나머지 2개 대대의 신병들을 어떻게 철수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제26연대(제3교육대)가 19일의 육군본부 조치로 이미 해산된 상황이라는 것을 이날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단장은 최종적으로 제26연대장 이백우 중령에게 곧 육군본부의 조치상황을 알리고 "계속 군과 더불어 남아 있기를 원하는 자만을 뽑아 순천~마산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로써 연대장은 신병들 중 대한청년단원, 학생, 청년방위대원 등을 기간으로 부대원을 다시 엄선하게 되고 은석표 소령으로 하여금 "무장한 경찰을 지휘하여 화순 널재에서 철수부대를 엄호하라"고 지시하였다.[87]

상황이 급변하는 동안 북한군 제15연대 예하 1개 대대로 추산되는 병력이 전차 2대를 앞세워 광주를 점령하고자 남진하고 있었고, 23일 17:00시 무렵 제1연대가 장성을 거쳐 담양(장성 동쪽 17㎞)을 점령하고 순창을 향하여 동진하고 있었다.[88] 이런 상황 속에 사단장 이형석 대령은 이응준 소장, 이형근 준장과 동행하여 적이 진입하기 직전, 광주를 탈출하여 지프차로 화순을 경유 벌교(광주 남쪽 50㎞)로 이동하게 되었다.[89] 동시에 제26연대(제3교육대)(-)는 차량 10대에 분승하여 벌교로 물러나 부대를 수습 정비하였다.

또한 화순 널재에서 철수부대 엄호 임무를 맡은 은석표 소령은 이때 널재로 물러난 경찰 1개 소대 병력을 인수하여 엄호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는 주력부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 다음날(24일) 새벽 마지막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벌교로 철수하였다. 벌교로 철수해 사단지휘소를 개설한 제5사단장은 23일 아침 이응준 소장으로부터 "순천부근의 상황이 급박하니 전투요원을 급파해 달라"는 요지의 긴급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이백우 중령과 상의하여 화순 널재에서 철수부대의 엄호임무를 완수한 은 소령에게 "잔여 병력을 모아 즉시 순천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은 소령은 경찰로부터 총기를 인수받고 30여명의 병력을 모아 출동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단장은 이와 동시에 이백우 중령에게 “신병을 안전하게 후송하라”고 명령한 다음 참모요원들에게는 벌교에 대한 방어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 중령은 육로가 적으로부터 위협받기 전에 순천~하동~진주 도로를 통해 신병들은 철수시키기로 결심하고 정오 무렵 차량에 분승시켜 벌교를 출발하였다.[90] 이형석 대령은 부대의 철수경로에 대해 일부가 하동을 경유하여 진주방면으로 직행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전남 지역에서 역습의 기회를 조성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러므로 그는 편성관구사령관 일행과 분리하여 행동하게 되었으며, 더구나 제5사단 해체 소식을 헌병참모 홍순봉 중령으로부터 보고 받고 각 참모들에게 각자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전달하였다.

23일 제주도로부터 벌교로 진출한 서북청년단원 150명이 고흥반도에 이르러 이 대령을 따라 행동하기를 자원하였으며 제26연대 요원 중 벌교에 남아 있기를 자원한 50여명을 인수, 일부 경찰병력과 함께 벌교에 대한 방어대책을 강구하였다. 이 대령은 이때 이미 순천이 적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더구나 하동대교가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순천 일대를 점령한 적은 남원, 구례를 거쳐 진출한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 병력이었다.[91] 그는 소신대로 고흥반도에서 빠져나와 해상 철수를 감행하여 부근 도서에서 이후에 적을 타격하는 작전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또한 휘하장병들에게 자신의 의사만을 고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관 이창범 대위로 하여금 각자의 결의를 묻게 하고, 정호림 대위를 여수로 급파, 선편을 주선하여 고흥반도 서단인 봉암리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대부분의 병력들은 이 대령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형석 사단장은 먼저 광주철수 시에 이곳으로 운반한 광목을 실은 차량을 봉암리로 보내어 대기 중인 선박에 적재토록하고 이어 23일 12:00시경 주민들의 피난시킬 대책을 마련한 다음 부대를 지휘하여 벌교를 떠났다. 사단장은 2시간 만에 봉암리에 당도하고 때마침 정 대위가 준비한 민간 대형선박 5척에 일부의 물자와 같이 분승시켜 14:00시경 출항하였다. 이로써 제5사단장을 포함한 전 대원들은 적에게 유린당하는 치욕을 안고 욕지도로 향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결국 7월 23일 광주가 북한군에게 점령되면서 구례~순천~벌교선이 또다시 위협받게 되었다. 따라서 호남의 전 지역은 적의 점령 하에 들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전선은 동쪽으로 급속히 이동되는 가운데 섬진강 서측에서 적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영광일대로 진출한 북한군 제15연대 주력은 23일 저녁 나주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동을 개시하여 23:00시경 삼학리까지 진출하였다.

이곳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던 국군 1개 대대는 적의 공격을 맞이하여 지형을 이용하여 사력을 다해 적을 저지하였다. 국군 방어병력은 다음날 07:00시경 수차례 파상적인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탄약이 고갈되면서 진지가 돌파되어 분산 철수하고 말았다. 삼학리 방어진지를 돌파한 적은 전차 1대와 장갑차 10대를 앞세우고 국군을 추격하여 24일 오후 나주를 점령하였다.[92] 한편 광주로 진입한 일부의 적은 아군을 추격하여 화순을 향하여 남진하였다.

때마침 화순 널재에서 아군의 철수를 엄호하던 경찰이 배치되어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경찰은 적의 선봉부대가 널재 아래에 접근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각 사격을 가하였으나, 곧이어 전차를 동반한 적의 후속부대로부터 강공을 받아 화순을 거쳐 벌교로 철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북한군은 이날 24일 08:00시경 화순을 점령하고 계속 동쪽으로 기동할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나주에서 남진한 북한군은 2개 중대규모와 전차 3대를 영암 쪽으로 투입하고 계속 남진하는가 하면 목포에 이르는 국도 상에 또 다른 2개 중대 규모의 병력과 전차와 장갑차 10여 대를 투입하였다.[93]

영암에는 이날(24일) 14:00시경 적이 출현하여 이곳을 경계중인 경찰을 돌파하였고 14시 30분경 목포부근까지 접근하였다. 목포를 경비중인 해군경비부와 경찰 병력은 적이 도착하기도 전인 15:00시경 시급히 LST로 철수하는 바람에 목포항에 보관된 정부미를 미처 반출하지 못하여 그것을 적에게 고스란히 빼앗기게 되었음이 뒷날 판명되었다.[94]

영암 경찰 병력은 4㎞ 남쪽인 월출산(809고지)으로 물러나 유격전을 전개하다가 다시 해남으로 철수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우실재(해남 동쪽 2㎞)에서 해남 경찰과 합류하여 적을 저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적의 포위공격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받고 산길을 따라 우실재 동쪽 10㎞ 지점인 도암만으로 철수하여 15시 30분경 어선을 이용, 청산도로 향하였다. 따라서 북한군 제6사단 예하부대들은 거의 동시에 해남, 강진, 그리고 장흥 일대를 점령하였다.

남쪽에서 적의 진출 상황이 이와 같았을 때 순천 북쪽 곡성에서는 24일 19:00시경 순창, 남원으로부터 남진한 북한군이 접근하였으며, 뒤이어 22:00시경에는 순천 북쪽 28㎞ 광천 일대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례 신월리 부근에 배치되었던 경찰은 급히 순천으로 철수했으며 곧 명령에 따라 광천에서 남진하는 적을 저지하기로 하였다.[95]

5. 남원-여수 부근 전투

1) 남원 부근 상황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는 장성을 점령한 뒤 7월 24일 이른 아침부터 차량으로 남원을 목표로 60㎞ 거리를 기동하여 민 부대 방어진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포병 1개 대대와 1개 자주포대대로 증강하여 신속히 남원~여수로 진출하도록 계획하고 있었다.[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반면 민 부대장은 23일 적의 주 공격로가 전주~임실방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주력병력인 김병화 부대를 비롯하여 이영규 부대와 오덕준 부대, 그리고 김성은 해병대 등을 통합하여 임실 북쪽에 배치하고, 남원 서측에는 경찰 일부병력만을 배치하고 있었다. 아울러 민 부대장은 임실 북쪽에서 전력을 정비한 후 역습을 전개하여 전주를 탈환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다.[97]

그러나 이날(24일) 01:00시경 이영규 부대장으로부터 "정면의 적이 섬진강을 도하하여 남진중이며 그 병력은 1개 연대규모로 추산된다"는 요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98] 당시 이영규 부대는 임실 북쪽 용운사와 섬진강 남안에서 수색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남원 서측에 배치된 경찰병력으로부터 “담양을 유린한 적이 순창(남원 서쪽 20㎞)으로 육박하고 있다”는 긴박한 정보가 계속 보고되었다. 이때 민부대장은 미 고문관인 잭슨 대위로부터도 “제8군의 작전방침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역습은 무용하니 축차 지연전으로 서부전선을 방어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조언을 들었다.[99]

이에 민부대장은 전세를 종합한 결과 전날의 역습명령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4일 02:00시경 임실부근에 배치된 모든 부대에게 “즉시 남원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임실 북쪽 고지일대를 점령하고 있던 이영규 부대는 섬진강을 도하한 일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오수리를 거쳐 09:00시 무렵 남행열차 편으로 남원을 경유하여 구례로 철수하였다. 이 중령은 민 부대와의 통신두절로 남원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고 민부대장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후의 부대행동은 임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편 김성은 부대는 임실로 진출하는 즉시 진지를 점령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날(24일) 02:00시 갑자기 민부대장으로부터 즉시 남원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열차 편으로 돌아왔다. 이때 오덕준 부대는 순창으로부터 남원으로 진출하는 북한군 제1연대 예하 대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었다. 한동안 남원역에서 대기하던 김성은 부대장은 24일 09:00시경 민 부대장으로부터 “귀 부대는 즉시 남원 동북쪽 고지 일대를 점령하고 철수하는 부대를 엄호하라”는 요지의 구두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성은 부대는 곧 목표인 동북쪽 고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목표진지를 점령하려는 순간, 적의 포성이 작렬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민 부대 주력은 남원을 뒤로 하고 철수를 시작하였다. 해병대가 남원 북쪽 2㎞ 200고지~52고지를 점령하였을 때에는 이미 순창으로부터 진출한 적의 선봉부대가 이미 남원 일대에 출현하였다.[100] 이에 따라 김성은 부대는 이미 엄호 임무를 달성했으므로 축차적으로 철수, 운봉(남원 동쪽 12㎞)을 목표로 강행군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부대는 30도를 넘는 혹서를 극복하면서 30리 산길을 넘었으며 24일 13시 40분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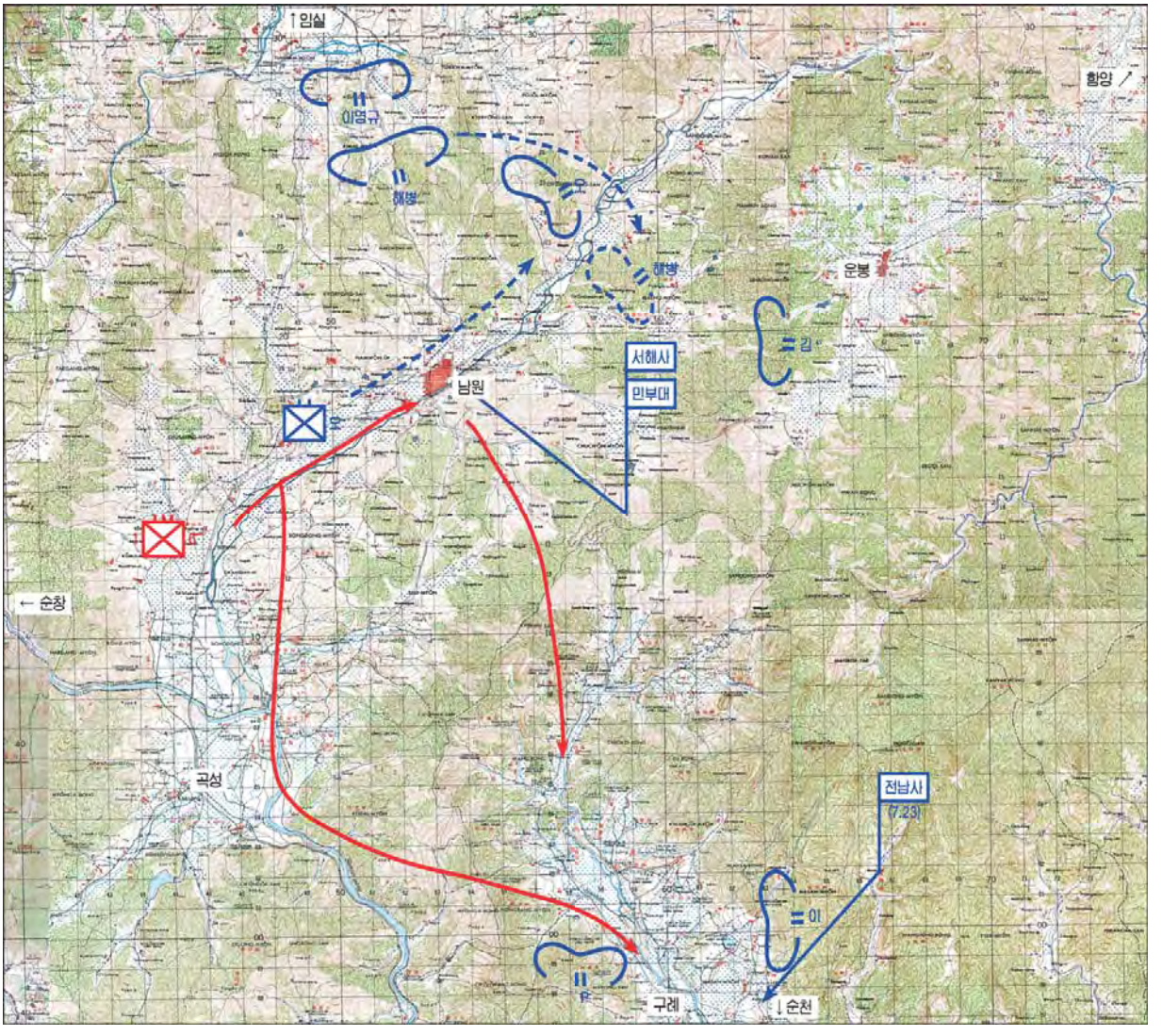
운봉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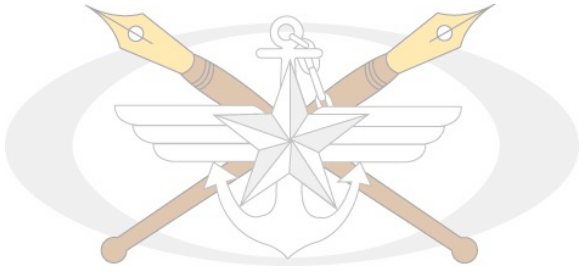
한편 민 부대의 예비대로서 남원에 배치된 오덕준 부대는 이날(24일) 01:00시경 민 부대장으로부터 “임실에 진출하여 공격부대를 증원하라”는 요지의 명령을 받고 곧 차량에 분승하여 임실을 목표로 북진하였다.[101] 그러나 부대가 오수리를 지나고 있을 무렵 “적이 광주로부터 하동으로 진격하고 있으니 그 방면을 막으라”는 수정명령을 받고 즉시 남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때 손관도 소령이 우연히 적의 전화를 도청하여 적이 순창으로부터 남원 방면으로 진출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102]

이에 오 부대는 적을 선제공격하기 위하여 곧 남원 서쪽 3.5㎞ 지점인 상동리로 급진하여 병력을 전개하였다. 적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도로를 따라 유연하게 남원으로 지향한 듯이 이동하고 있었다. 오 부대는 곧 이들에게 기습 사격을

구 남원역의 모습

<상황도 6-10> 남원 부근 상황(1950. 7. 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개시하였으나 교전 1시간 만에 결국 화력에 밀려 물러서게 되었다. 이들은 적으로부터 집중 화력을 받고 삼삼오오 분산되어 운봉 방향으로 물러났다.

2) 구례 부근 상황

북한군 제6사단은 7월 23일 제1연대가 담양으로 동진하여 순창에서 남원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었으며 일부의 적이 임실 북쪽에서 섬진강 상류를 도하하여 남진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24일 12:00시경 남원을 사방에서 포위할 태세를 갖추면서 일부의 기동부대가 시내에 돌입하였다.

그러므로 남원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된 민 부대, 오 부대, 김성은 부대는 적에게 밀려 그 서측 운봉 일대로 철수하였고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도 함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남원을 점령한 북한군은 동쪽으로는 운봉으로, 남쪽으로는 곡성(남원 남쪽 12㎞)과 구례(남원 남쪽 20㎞)로 진출하기 위한 공격로를 개척하였다.

이때 곡성에는 소수의 경찰만이 수비하는 상황이었으며, 구례 신월리에는 한때 민 부대를 지원하고자 임실로 출동한 이영규 부대(제15연대 제1, 제2대대 소속)가 독자적으로 이곳으로 철수해 부대를 수습하고 있었다.[103] 따라서 당시에 아군은 곡성과 구례, 그리고 순천 및 벌교에만 방어병력이 배치된 상황이었으며, 축차적으로 전선에서 철수하게 된 전남 편성관구사령부 예하 각부대가 일시 적의 진출을 지연하기 위해 진지를 편성하였으나 방어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구례와 순천은 적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곳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경남지역으로 진출할 수 없는 요충지였으며, 아군 또한 이곳을 조기에 적에게 빼앗길 경우 퇴로가 차단되어 파국을 초래할 뿐 아니라 후방배치 또한 신속을 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육군본부는 이러한 작전상의 중요성에 감안하여 시급히 순천~남원 간을 확보하도록 이날(24일) 15:00시경 작전명령 제65호를 하달하였다.[104]

이는 육군본부가 남원~구례~순천 지역이 적의 진출을 지연시키는데 가장 좋은 요충지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방어를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구례 신월리 부근의 전경

조치는 당면한 전황으로 보아 결의만을 앞세웠을 뿐 실제에 있어서 방어거점조차 방어하기에 힘든 상황이었다. 이응준 소장은 전날(23일) 밤 구례와 순천의 방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지휘소를 광주에서 순천으로 이동하는 즉시 각지에서 물러난 경찰 1,500명을 수습하여 3개 부대로 전투편성을 완료하였다. 이날(24일) 이른 새벽, 1개 부대를 구례 신월리로, 1개 부대를 장흥으로 각각 출동시켜 남진 중인 적을 저지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1개 부대로 신편 제5사단 사령부를 따라 벌교로 이동한 보병 90명과 함께 순천 서북방 12㎞ 지점인 학구 부근으로 진출하여 순천방면으로 접근하는 적을 방어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응준 사령관은 육군본부로부터 작전명령을 수령하기 이전에 이미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오후 무렵 구례부근의 전황을 살피고자 이형근 준장과 같이 구례로 가서 경찰 상황도 파악하였다. 아울러 이영규 부대를 방문하여 "구례~하동 간 통로를 봉쇄하라"는 명령을 직접 하달하기도 하였다. 이 부대는 김필상 소령의 지휘 하에 24일 오후 경찰의 상황은 알지 못한 채 용두리 부근 104고지에 병력을 전개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는 24일 오후 남원에서 기동하여 구례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구례에는 전남 낙오경찰 일부가 구례서 경찰과 합류하여 경계초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북한군의 선두부대가 읍내에 접근하자 임의로 물러나고 말았다. 경찰병력은 전남경찰 보안과장 손석민 총경의 지휘 하에 일시 적을 저지하다가 구례를 포기하고 용두리로 물러났다. 적은 구례를 점령한 뒤 곧바로 아군이 배치된 것을 탐지한 듯 일제히 포격을 용두리 쪽으로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영규 부대는 현 전투력으로는 적을 지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경찰병력과 함께 하동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일단 화개장터로 철수하여 부대를 정비하였다.

북한군 제1연대는 24일 오후 늦게 구례를 점령한 후 25일 하루 동안 부대정비에 들어갔으며, 일부병력으로 하여금 국군 부대를 차량으로 추격하도록 했다.[105] 이영규 부대의 김필상 소령은 적의 선봉부대가 차량 3대에 분승하여 접근하는 것을 목격하자 우선 손 총경에게 "즉시 화개천 교량을 절단하라"고 지시하였다.[106]

이 지시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적이 화개장터로 접근하고 있었다. 김 소령은 적을 관측하자 즉시 병력을 지서 돌담에 은밀히 전개시킨 다음 적이 지근거리까지 접근하도록 기다렸다가 일제사격 명령을 하달하여 적을 격퇴시켰다. 김 소령 부대는 적의 증원 병력이 접근하자 다시 하동으로 철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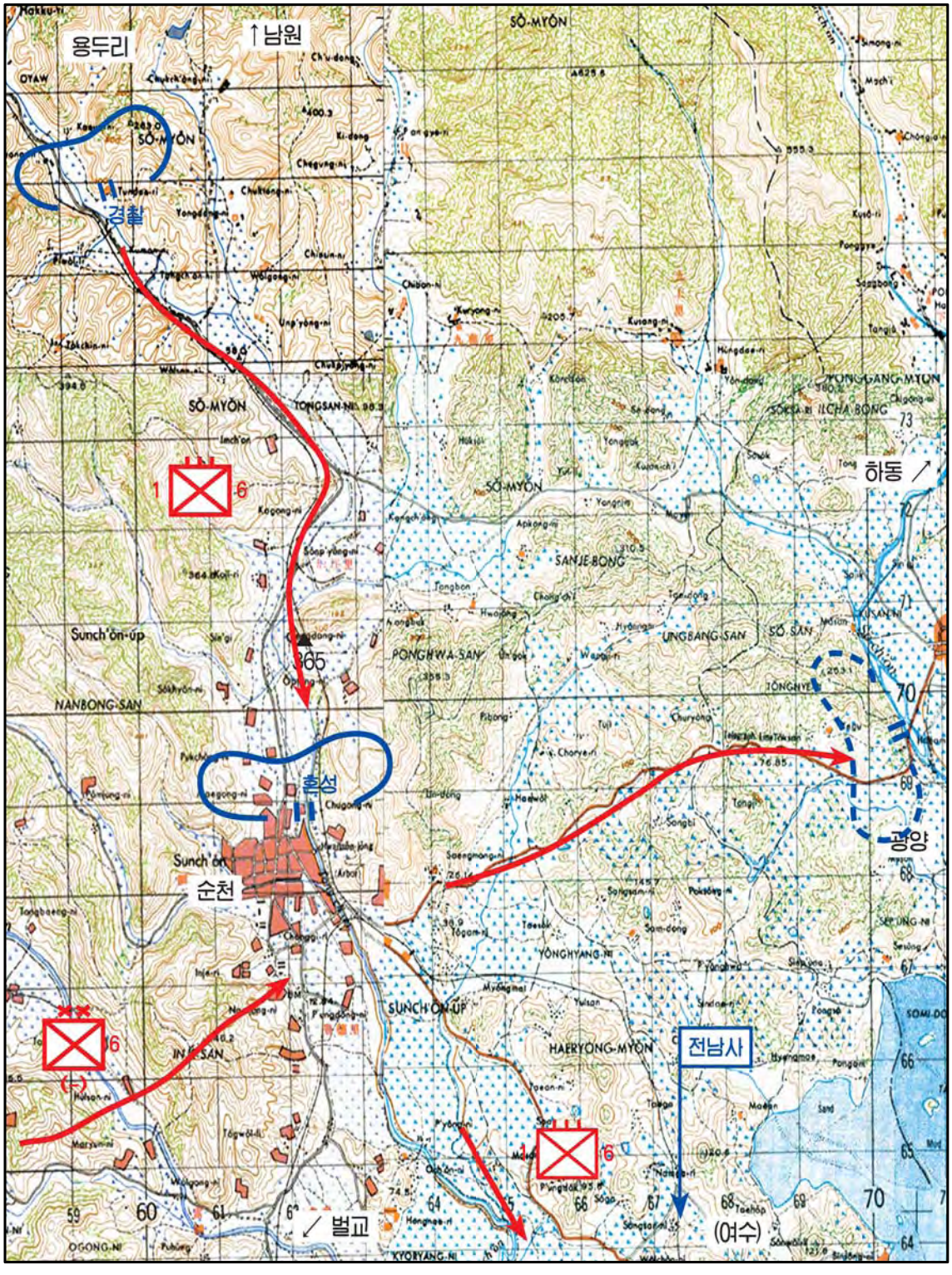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순천 부근 상황

북한군 제6사단은 제603모터사이클연대의 지원 하에 목포, 나주, 광주 일대를 점령한 제13연대 및 제15연대 병력이 보성 일대에서 순천으로 향하고 있었고, 한편 구례를 점령한 제1연대 병력이 순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따라서 순천일대는 세 방향에서의 적 위협에 봉착하고 있-었다.[107]

전남지구전투사령관 이응준 소장은 7월 24일 북한군이 광주에서 최단경로를 통해 순천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순천에 집결한 전 병력을 학구로 북상시켰다.[108] 순천에는 아군의 방어병력이 군·경 혼성병력 1개 중대규모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다.

<상황도 6-11> 순천 부근 상황(1950. 7. 25~26)



더구나 지휘체계도 확립되지 못한 관계로 적이 출현하기만 하면 명령 없이 임의로 전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속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은석표 소령은 헌병장교 홍순봉 중령과 박창록 대위와 함께 1개 중대규모의 병력이나마 수습하여 계속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26일 미명에 북한군이 접근하여 사격을 집중하자 일순간 방어진지가 붕괴되고 말았다. 분산된 병력은 순천 북쪽 2㎞인 365고지 일대로 철수했다.

한편 이날 이응준 소장은 여수에 있던 김병휘 중령에게 순천 방어를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김 중령은 여수에서 제15연대(제5교육대)의 잔류 병력과 같이 정부자산을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선적작업을 김종오 소령에게 위임하고 즉시 탄약 한 상자를 짚차에 실고 순천으로 달려갔다.

25일 12:00시 무렵 그는 순천에 진입하자 곧 우체국으로 이응준 소장을 찾아 "하동대교가 파괴되는 등 퇴로가 차단된 시점에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여수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건의하고 우선 휴대한 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365고지로 나가 박창록 대위와 협조하게 되었다. 뒷날 김병휘 중령에 의하면, 이때 이응준 소장의 지휘소인 우체국과 시내에는 도합 500명이 넘는 경찰관이 집결되어 있었으며, 365고지에는 30명의 병사가 박창록 대위의 지휘 하에 전투를 전개하고 있었다. 이 때 소수의 병력만이 일부 경찰과 합류하여 순천방어에 임하였을 뿐 각지로부터 철수한 경찰들은 탄약이 떨어져 오합지졸의 상황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무렵 벌교 쪽으로부터 북한군 모터사이클 부대가 순천부근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에 이응준 사령관을 비롯한 참모요원들은 위기일발 상황에서 순천~여수간의 가도를 따라 축차로 여수로 물러났으며 이로 말미암아 365고지에 배치된 병력은 퇴로가 막히게 되어 각자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현지를 탈출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아군의 저항을 받지 않고 26일 오전 순천을 점령하였다. 김병휘 중령은 적의 순천 진출 상황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나는 이때 3명의 병사와 같이 순천 철도국 뒷산에 이르렀는데, 이때 시내 곳곳에는 북한기가 올라가 있으며 여수에 이르는 가도에도 적의 사이드카부대가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 나는 농민으로 가장하여 14:00시 순천을 탈출하여 남쪽으로 빠져나갔다"라

고 하였다.[109]

결국 이렇게 하여 전남방어의 최후거점인 순천이 적의 점령 하에 들고 말았다. 부대는 순천을 우회하여 광양 쪽으로 철수한 다음 그 후 며칠 만에 해안으로 철수, 민간선박을 이용하여 삼천포로 향하였다. 순천이 적에게 점령되자 이형근 준장은 급히 승주군과 여천군의 경계인 월산리(순천 동남쪽 8㎞)와 앵무산(343고지)을 연결하는 능선을 방어선으로 정하고 즉시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순천으로부터 임의 철수한 경찰병력을 재편시켜 진지를 편성하였다. 이응준 소장은 월산리에서 잠시 머물러 전선에서 철수하는 병력을 인수하였으나 상황의 악화로 23:00시경 여수로 다시 물러났다.

한편 이날(25일) 15:00시에 육군본부는 호남지역에서의 전황에 대하여서는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방어만을 강조하는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작전명령을 번번이 하달하였다. 이날 하달된 작전명령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즉, 육군본부는 민기식 대령이 남원에서 운봉으로 이미 물러나 있고 이응준 소장이 순천에서 적의 포위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과 맞지 않는 엉뚱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즉, "군은 적을 격파하고 광주를 확보하려 한다. 민 대령은 예하 부대 및 오덕준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남원~곡성~광주로 전진하여 그 지역을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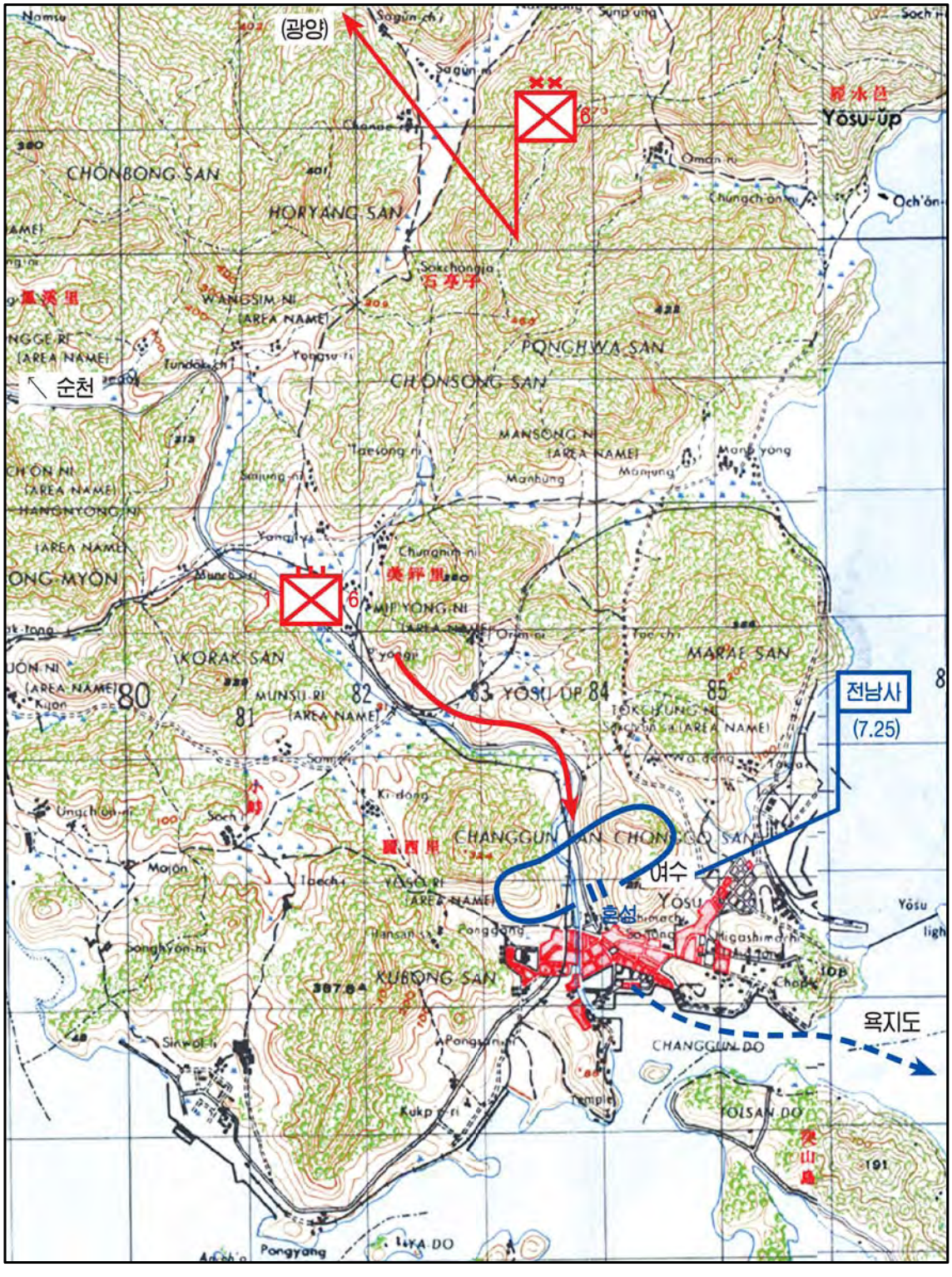
이 같은 육군본부 명령에 대해 뒷날 민 대령은 "육군본부로부터 수령한 작전명령은 언제나 실제와는 맞지 않는 것이어서 실천에 옮길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111] 당시 군 수뇌부가 호남지역의 전황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였으며 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를 미루어 가늠할 수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여수 부근 상황

전남편성관구사령관 이응준 소장은 7월 25일 여수로 철수한 후 이곳을 고수하고자 하였으나 전황의 악화로 여의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여수 북쪽에는 사령부와 그 휘하 군과 경찰이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지만 적에 비해 절대 열세의 상황이었다.[112]

<상황도 6-12> 여수 부근 상황(1950. 7. 26)



여수에서 편성된 국군 제15연대 제3대대(대대장 김종오 소령)가 정부미를 비롯하여 정부자산을 반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김 소령은 부대편성 임무를 부여받고 즉시 육사생도 1기생(7월 10일 임관)과 호국군에서 현역으로 복귀한 장교들을 중대장으로 임명하여 학도병 등 신병 700~800여 명을 징집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수가 위기에 봉착하자 즉시 여수에 보관중인 정부미를 비롯한 군수물자 등을 반출하는 선박 적재작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이영규 부대가 임실로 출동한 이후부터 연대장 김병휘 중령의 직접 지휘를 받아 연일 그 작업을 강행하여 이날(25일) 아침까지 창고에 있는 전량을 급파된 해군 수송선에 탑재할 수 있었고 또한 전주~남원~광주 등지로부터 소개된 다량의 물자를 반출하는 것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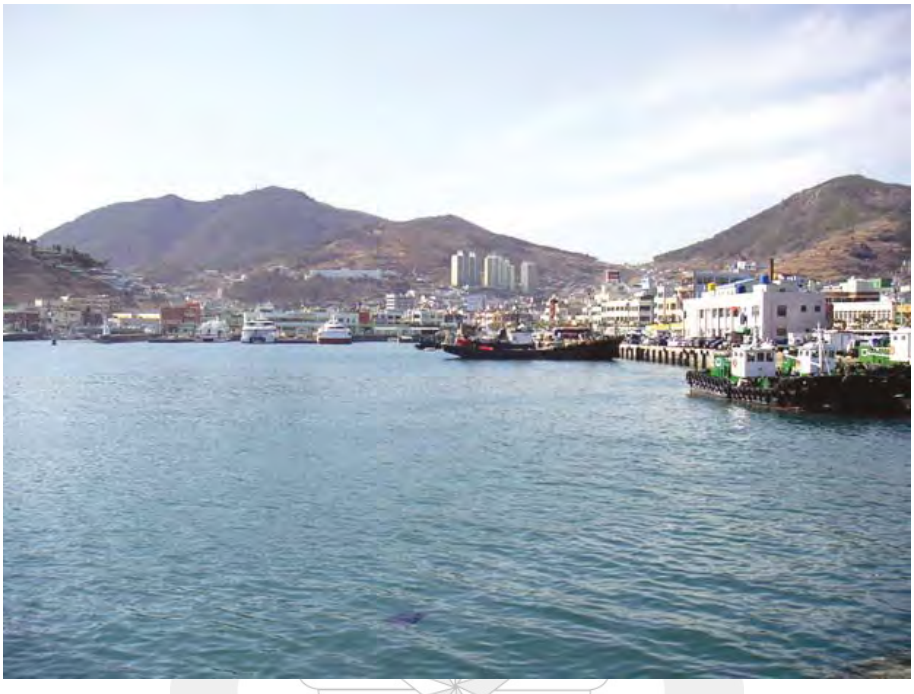
26일 오전 순천을 점령한 북한군 제6사단장은 제603모터사이클연대와 포병대대의 지원 하에 주력병력을 진주방면으로 진출시키고, 일부 병력을 여수방면으로 각각 진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 명령에 근거하여 제1연대는 주력을 1개 고사포대대와 함께 여수방면으로, 나머지 1개 대대를 1개 포병대대의 지원 하에 하동방면으로 각각 투입하였다.[113]

북한군의 공격이 재개되면서 여수 북쪽의 군·경은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응준 소장은 전력차이로 인하여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수 월산리 일대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여수로 집결한 경찰병력을 모아 다시 재편성하여 여수를 방어할 것을 강구하였다. 이 소장은 전날 여수에 이른 김병휘 중령을 비롯한 장병들과 같이 이날 26일 05시 30분경 경찰 혼성부대(대대규모)를 독려하여 여수 북쪽 석천사 능선에 전개시켜 적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제1연대(-1)는 미처 아군이 방어진지를 편성할 틈도 주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였다. 적은 06:00시 무렵 여수로 진입하였으며 이미 선두부대가 경찰과 충돌하여 화력전을 전개함으로써 여수는 다시 피탈위기에 처하였다. 국군 제15연대 제3대대는 정부자산 반출작업을 거의 마칠 무렵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날(26일) 06시 30분에 대기 중인 함대를 통해 대피하였다.

경찰은 이 소장의 기대와는 달리 그다지 오래 버티지 못하여 방어진지가 붕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여수항의 모습

되고 말았다. 결국 전남편성관구사령부와 경찰병력 600여명은 적의 포탄이 시내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해군이 지원한 문산호(LST)에 탑승하고 백두산호의 엄호로 26일 07시 30분경 내항을 벗어났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전투 결과

북한군 제6사단은 7월 16일 호남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24일에 남원, 다음날 25일에는 구례와 순천을 그리고 26일에는 여수를 차례로 점령함으로써 호남지역 전역을 점령하였다. 국군은 북한군이 진출하기 시작한지 불과 11일 만에 호남지역 전역을 적에게 빼앗기게 되어 주민들을 공산주의 학정에 빠지도록 하

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전남 편성관구사령부는 마산으로 이동하는 즉시 해체되었으며, 신편 제5사단 사령부는 서북청년단원 150명과 함께 봉암리에서 욕지도로 철수하여 부대를 정비하였다. 이형석 대령은 이 과정에서 일본으로 도주한다는 모략을 받고 부대원들을 해산시켰다.[114]

호남지역에서 적을 방어하던 군·경 방어병력이 경남지역으로 철수하게 되자 전선은 또다시 경남지역으로 옮겨졌다. 이 무렵 북쪽 장수 지역에서는 소수의 경찰병력이 북한군 제4사단 선두부대의 공격을 받고 분산 철수하였다. 북한군은 서남부 전선에서 호남과 영남의 지경을 이루는 덕유산~지리산~백운산선으로 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이 험준한 지세를 가로지르는 4개의 통로인 장계리~안의와 남원~운봉~함양 및 구례~하동, 순천~하동 등을 공격로로 삼아 영남지역으로 진출할 발판을 굳히게 되었다.

이에 이르자 북한군은 낙동강 북쪽과 서쪽 지역으로 급속히 진출키 위한 작전을 완수하고자 장계리~안의 사이 도로에 새로이 제4사단을, 여타의 그 남쪽 도로에는 전주~광주 등 호남지역을 점령한 제6사단을 계속 전개하고 이어 마산~부산으로의 공격을 기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군은 장계리~안의 간에 단 한 명의 병력도 배치하지 못하였으며, 남원~운봉~함양간에는 남원으로부터 열세를 만회하지 못하고 축차로 물러난 연대 규모의 민 부대(김병화·오덕준·김성은 부대 통합지휘)가 접적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구례~하동간은 이영규 부대가 소수의 병력으로 지연전을 감행하였으며, 순천-하동간은 완전히 무방비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7월 25일 전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을 영남 서부지역으로 급파하였다. 즉, 그로 하여금 민기식 부대와 이응준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영남지역으로 진출하는 북한군 제6사단을 저지하게 했으나, 그것은 그저 임기응변의 지시에 불과할 뿐이었다.

미 제8군사령부도 지금까지 덕유산~지리산~백운산선 방어에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워커장군은 7월 24일경 전선 서측이 큰 위기에 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착하고 있다는 적정을 비로소 파악하고 즉시 당시 대전 방어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재편성중인 미 제24사단을 서남방에 전용 배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로써 미 제24사단은 25일까지 예하 제19연대(연대장 Ned D. Moore 대령)를 진주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는 26일에 그 일부를 안의로 전개하였으며, 뒤따라 미 제34연대도 거창으로 이동 전개되었다. 따라서 남원~운봉~함양일대에서 지연전을 벌리며 철수한 민 부대는 북쪽에서 미 제19연대와, 그리고 진주로 향한 채병덕 소장이 제29연대 제3대대와 연결하여 적을 저지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함양-합천 전투

1. 양측의 상황

1) 부대 상황

북한군 제1군단은 최고사령부로부터 주력부대인 제2·제3·제4·제6·제10·제105전차 사단 및 제17군단 포병연대 등으로 동남방면으로 진격하여 낙동강을 도하, 대구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제1군단장(군단장 김웅 중장)은 제4사단(사단장 이권무 소장)으로 하여금 대구 방어에 주력하는 아군의 서남쪽 배후를 노려 주력을 장계~안의선에, 일부를 남원~함양선에 각각 전개하여 일거에 안의와 함양, 그리고 거창을 점령하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낙동강 서안으로 진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6-3> 서남부지역 북한군 주요 지휘관

직 책		계 급	성 명
제1군단장		중장	김 웅
제4사단	사단장	소장	이권무
	제5연대장	대좌	최인덕
	제16연대장	대좌	박승희
	제18연대장	대좌	김희준
	포병연대장	대좌	김 준
제6사단	사단장	소장	방호산
	제13연대장	대좌	이후진
	제1연대장	대좌	한일래
	제15연대장	대좌	김현기
	포병연대장	중좌	임해민

북한군 제4사단은 대전에서 미 제24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한 후 거의 무방비상태로 있는 소백산맥의 서측인 금산, 무주 방면으로 진출, 제6사단의 순천 진출과 때를 같이하여 그 좌익으로 진출하였다. 제4사단은 제17군단 포병연대 예하 1개 대대와 협동으로 안의, 거창 방면을 지향하고 있었다.[115] 북한군 제6사단은 7월 25일 그 예하 제13연대가 목포로, 제15연대가 보성으로, 제1연대가 순천으로 각각 진출하였다. 사단 예하 각 연대는 하동~진주~마산으로 진출하기 위해 순천에서 합류하였다. 이때 북한군 제6사단장 방호산은 북한군의 목표가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무렵 예하부대에게 "적은 사기가 극도로 약화되고 있으니 다음에는 진주와 마산에서 섬멸할 것이다. 이로써 적의 목덜미를 누르는 것이 되어 전쟁의 마지막 판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독전하였다.[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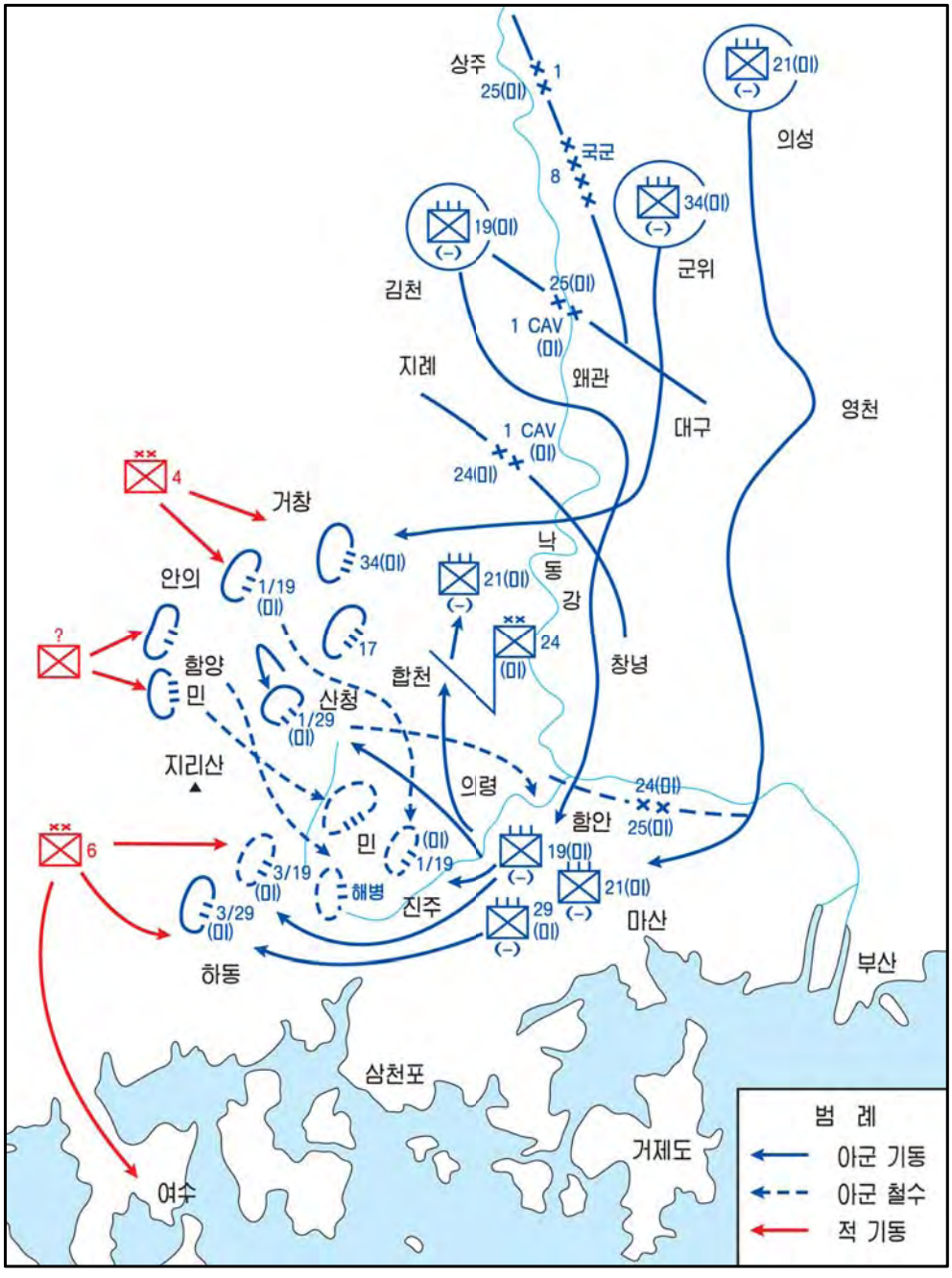
한편 미 제8군사령부는 이 지역에서 기동하고 있는 적들이 북한군 제4사단의 예하부대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목포에 전차 10대를 동반한 약 500명이,

<표 6-4> 서남부지역 미 제24사단 주요 지휘관

직 책		계 급	성 명
제24사단장		소장	처치(John H. Church)
제19연대	연대장	대령	무어(Ned D. Moor)
	제1대대장	중령	리(Robert Rhea)
	제2대대장	중령	맥그레일(Thomas M. McGrail)
제34연대	연대장	대령	비우챔프(Charles E. Beauchamp)
	제1대대장	중령	아이리스(Harold B. Ayres)
	제2대대장	중령	랜트론(Newton W. Lantron)
제29연대	제1대대장	중령	윌스(Wesley C. Wilison)
	제3대대장	중령	모트(Harold W. Mott)
제17포병대대	대대장	중령	스트레톤(Charles. W. Stratton)
배속 한국군 제17연대	연대장	대령	김희준
	제1대대장	중령	이관수
	제2대대장	중령	송호림
	제3대대장	소령	전우영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13> 거창-하동지역 상황(1950. 7. 24~30)



남원에는 약 700명이, 구례에는 수미상의 차량과 전차를 동반한 약 800명이, 그리고 하동에는 약 500명이 각각 진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 제8군은 대전전투 이후 북한군 제4사단의 행방을 탐색함에 있어서 단지 서남부 전선 지역에 분산되었을 것이라고만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군 제6사단이 호남지역과 경남지역으로 우회기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7월 말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117]

국군은 북한군 제6사단의 공격에 불과 11일(7. 16일~26일)만에 호남 전 지역을 상실하고, 또다시 영남지역 서남부마저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서남부 방면의 국군 방어병력은 모두 합하여 1개 연대규모에도 미치지 못하여 적의 접근로의 일부인 남원~함양 간에서 접적을 유지할 따름이었다.

즉, 운봉으로 축차 철수한 민 부대(김 부대 포함)와 오 부대, 그리고 김성은 부대가 민기식 대령의 지휘아래, 적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세가 험한 남원 동쪽 내촌과 장교리 일대에 전개하였다. 그러나 민 부대 등의 방어편성은 당면한 위기를 수습하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각 부대의 장병들은 거듭된 철수로 극도의 피로에 지쳐 있었으며, 대부분 신병인 까닭에 전투의지도 취약하여 임의로 대오를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6-5> 경남편성관구사령부 주요 지휘관

직 책		계 급	성 명
경남편성관구사령관		소장	채병덕
민부대	부대장	대령	민기식
	제3연대장	중령	박현수
	제9연대장	중령	유해준
	제30연대장	중령	김용주
	해병대	중령	김성은
	김부대	소령	김병화
	오부대	대령	오덕준

더구나 부대간의 통신망이 확보되지 않아 횡적인 협조체제는 물론 종적인 지휘계통 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남원으로부터의 적의 포격이 집중되었고, 때를 맞추어 백운산과 지리산 등지의 공비들이 아군의 후방을 교란시키려 기도하고 있었다. 이에 민기식 대령은 7월 25일 부대를 철수시켜 새로이 오 부대를 운봉 서쪽 2㎞ 지점인 500고지에, 해병대를 그 남쪽인 운봉고개에, 김 부대를 운봉 남쪽 3㎞ 지점인 680고지에 각각 배치하여 적을 지연하고자 했다.

그런데 민 부대 예하병력들은 적정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여 여전히 혼미한 상황에 빠져 있었고, 더구나 피아를 식별하지 못하는 아군기의 빈번한 오폭 때문에 방어진지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 대령은 북한군 제4사단의 주력이 장계에서 육십령을 넘어, 안의와 함양을 지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118]

한편 서해안지구전투사령관 신태영 소장은 민 부대의 남원철수에 앞서 함양으로 이동하였으나 육군본부로부터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다. 신 소장은 진안, 장수 간의 경찰 혼성부대와 민 부대로 덕유산~백운산~지리산의 산악지대에서 가능한 적을 지연시킨 다음, 시간을 벌어 조직적인 급편 방어진지를 구축하기로 구상하였다.[119] 그러나 민 부대 역시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예하의 각 부대들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병사들이 피난민의 대열에 끼어 전선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우선 이들을 인수하여 방어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육군본부는 7월 24일 15:00시경부터 민 부대를 직접 관할하게 되고, 이튿날 채병덕 소장을 경남지구 편성관구사령관에 임명하여 민 부대와 이응준 부대(전남지구 편성관구 예하의 통합병력)를 지휘하도록 하였다.[120] 민 부대는 7월 24일 함양으로 철수 중이었는데, 때마침 현지에 나온 채 소장이 민 부대의 철수를 불허하고 고수방어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아군의 작전계획은 체계적으로 피아상황을 고려하여 수립된 것이 아니라 궁여지책의 미봉에 따르고 있었다.[121]

한편 이 무렵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서남부 전선에 대한 위협이 집중되

자, 전황 전반에 미칠 영향이 심대하리라 판단하고, 7월 24일 예비로 배치중인 미 제24사단(사단장 처치 소장)을 급히 서남부지역으로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처치 사단장은 제19연대(-)가 25일에 진주로 이동하는 즉시 제1대대(대대장 리 중령) A중대를 안의(함양 북쪽 11㎞)에, 대대의 나머지 병력을 수동 화산리(함양 동쪽 5㎞)로 각각 진출시켰다. 이때 사단의 작전계획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수립되었다.[122]

① 제34연대를 거창에 배치하고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에 대하여는 거창~합천에서 지연시킨다.
② 제19연대를 안의~진주에 전개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되,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축차적으로 산청~진주~군북으로 철수하여 지연전을 계속한다.
③ 지원 병력이 있을 때 상황에 따라 병력을 증원한다.

이와 같이 미 제8군은 서남부 방면에 미 제24사단을 투입하여 비로소 북한군을 저지할 대책을 강구하였고, 또 지금까지 축차적으로 북한군을 지연하면서 철수한 국군 민 부대와 각 예하병력들과 함께 적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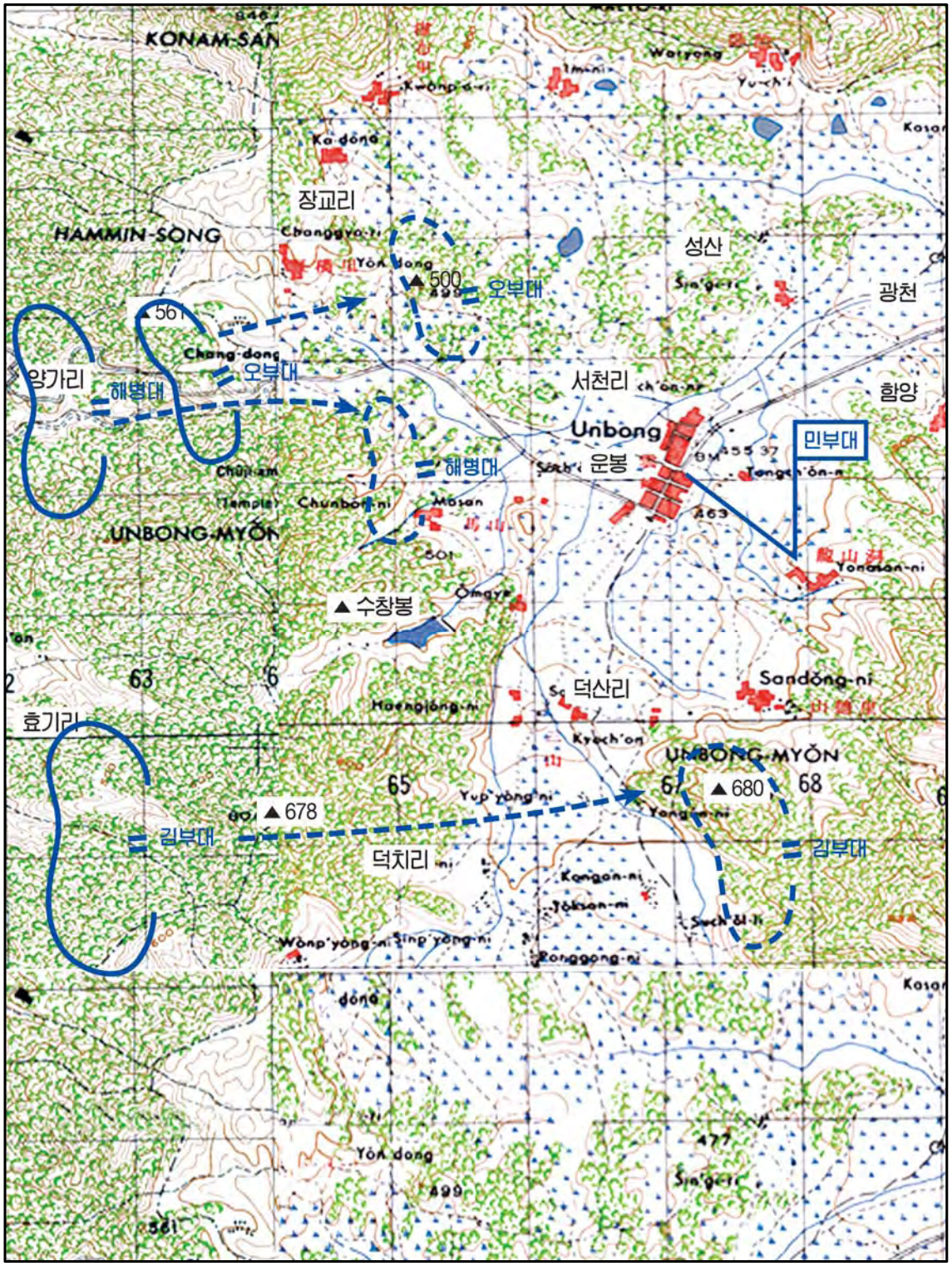
2. 함양-거창 전투

1) 운봉~함양의 전황

민 부대는 지금까지 축차적인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남원을 거쳐 운봉부근으로 철수했으나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남원~운봉 방향과 안의~함양 방향으로 접근하는 북한군 제4사단의 예하부대로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다.

7월 25일 운봉 서북쪽에는 오 부대가 500고지에서 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 부대는 부대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상황도 6-14> 운봉-함양 상황(1950. 7. 25~26)



후 26일 아침 함양으로 이동하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운봉에 방어공백이 발생하자, 민기식 대령은 오 부대장을 질책하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신 김성은 부대를 운봉고개에 투입하였다.[123] 오 부대는 당초 육군본부로부터 "남원으로 출동하여 민 부대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음으로 인해 남원진출과 더불어 민기식 대령의 임시협조를 받아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을 뿐 민 부대와는 예속이나 배속관계는 아니었다.

때문에 민 부대와 오 부대는 대등한 부대관계에서 전투에 임한 것이었는데, 육군본부는 현지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민 부대장에게 "예하 및 오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남원~고성~광주로 전진하여 확보하라"라고 하였으며,[124] 다른 한편 오 부대장에게는 별도로 "하동 방면이 위험하니 이를 막으라"고 하는 각각 다른 명령을 하달하였던 것이다. 양 부대장은 각각 다른 두 개의 명령을 각각 하달 받아 서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민기식 대령은 오 부대를 통합하고자 하였으며, 오덕준 대령은 육군본부의 명령대로 행동하려 한 것이었다.

오 대령은 또한 신병의 전선이탈이 눈에 띄게 늘어나자, 현지에서의 부대정비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중대장들에게 함양으로의 부대이동을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는 오 대령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라 판단하고 선택한 조치였다. 오 부대는 이튿날(26일) 새벽 일부병력만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대부분의 병력들이 도보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철수도중 낙오자가 속출하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한편 오 부대의 철수로 운봉방어에 공백이 생기자, 인접한 해병대는 물론, 그 남쪽의 김 부대 역시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부대들도 임의로 운봉으로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민 대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운봉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당초의 방침을 바꾸어 함양에서 전 병력을 집결시키기로 결심하고 김 부대와 김성은 부대에게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125] 이에 이날 26일 12:00시경 김 부대는 오 부대에 뒤이어 함양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민 부대 본부도 차량 편으로 이동하여 함양초등학교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방어편성을 준비하였다.

민 부대의 함양이동 후 운봉을 방어하게 된 김성은 부대는 전날에 이어, 운봉고개 일대에서 오 부대와 연결하고 있었다. 즉, 4개 중대 가운데 제1, 제3중대와

함양 운봉산 일대의 전경

제7중대를 전개하고, 제2중대로 하여금 민 부대 본부를 경계하도록 하였다. 이날(26일) 김성은 부대는 통신두절로 인한 착오로 오 부대가 이동하자, 그것이 명령에 의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임의로 1.5㎞ 후방인 운봉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민기식 대령이 이를 제지함으로써 다시 전날의 진지로 복귀하였다.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운봉고개를 점령한 후 정찰을 강화하면서 방어준비를 보강하였다. 이날까지 북한군 일부부대가 남원 근교까지 정찰하고 있음을 탐색하였다. 해병대는 이날 20:00시 무렵 안의부근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민 부대장으로부터 "해병대대는 현 진지를 철수하여 종우장을 목표로 집결하라. 세부계획은 후달한다"는 명령을 받았다.[126]

대대는 즉시 병력을 운봉으로 철수시킨 뒤 지정된 운봉 동쪽 1㎞ 지점인 종우장으로 집결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팔령재를 점령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고 운봉 동쪽으로 10㎞정도를 이동해야 했다. 이로써, 해병대는 운봉방어를 포기하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야간철수를 시작하였는데, 행군과정에서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다음날 05시 20분경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대대는 즉시 남원~함양 간 적의 예상접근로를 정찰하는 등 적 공격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김성은 부대가 26일 운봉으로 복귀하고 있을 무렵 하동방면에서는 전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의 안내를 받아 미 제29연대 제3대대(대대장 모트 중령)가 진주 서쪽 15㎞ 지점인 원전으로 진출하고 있었다.[127]

양 부대장은 각각 다른 두 개의 명령을 각각 하달 받아 서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민기식 대령은 오 부대를 통합하고자 하였으며, 오덕준 대령은 육군본부의 명령대로 행동하려 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하동에는 전날 채병덕 소장의 시찰을 수행한 정래혁 중령이 마침 철수 중이던 이영규 부대의 30여명과 청년방위대 300명을 인수하여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갑자기 출현한 적으로부터 기습사격을 받고 많은 피해를 입은 채 분산 철수하고 말았다. 정 중령은 이날 새벽까지 집결된 병력을 이끌고 원전에서 진주로 이동하였다.

민 부대장은 이날(26일) 함양으로 이동하여 운봉에서 철수하는 병력을 인수하였다. 그는 먼저 이곳을 선점하고 있던 경찰 및 청년방위대를 흡수하여 방어병력을 재편하였으며, 마침 이곳을 방문한 신태영 소장으로부터 이날을 기하여 미군이 이곳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희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민 대령은 오 대령과 협의한 끝에 함양을 확보하기로 방침을 세워, 이미 집결한 병력을 다시 운봉~함양 간에 추진 배치하기로 결심하였다. 또한 오 부대와 김 부대의 혼성병력인 1개 중대가 다시 팔령재로 진출하여 일몰시까지 낙오병을 수용하였다.[128] 이날 22:00시 민 대령은 그곳에서의 야간방어보다는 함양의 방어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중대를 다시 복귀시켰다. 같은 시각 해병대는 종우장을 거쳐 팔령재로 이동하고 있었다.

한편 이 무렵 북한군 제4사단은 금산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수작업을 하면서 안의, 거창을 목표로 진격하고 있었다. 7월 26일 그 예하부대들이 금산을 거쳐 장수 동북 11㎞ 지점인 장계리까지 진출하고 있었으며, 그 선두부대가 이미 육십령 고개로 지향하고 있었다.[12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안의~거창의 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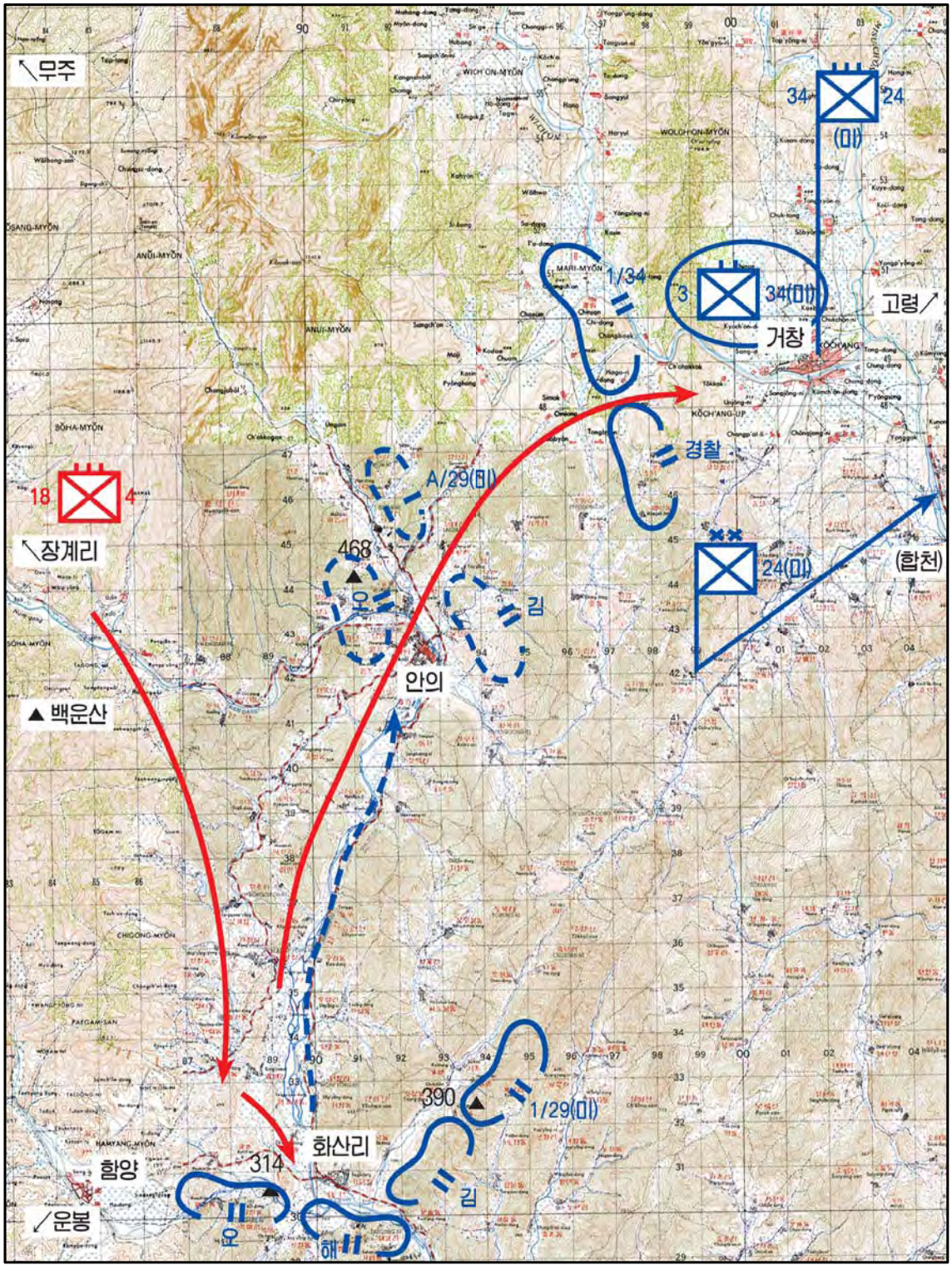
미 제8군사령부는 서남부 방면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부대인 미 제24사단을 긴급히 투입하였다. 사단은 대전 방어에서 입은 상흔을 미처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전선에 투입되었다. 미 제24사단은 7월 22일 대구로 철퇴하여 딘 사단장의 행방이 불명한 가운데, 처치 소장이 사단장에 취임하였으며, 손실 인원과 장비를 보충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출동할 때 사단의 장비는 편제에 비하여 60~70%가 부족하였으며, 병력도 3개 연대 모두가 부족한 실정이었다.[130]

처치 소장은 미 제8군사령부의 작전명령으로 24일 야간 제19연대(연대장 무어 대령)를 급히 진주로 이동시켰는데, 동 연대는 진주진출과 동시에 제1대대(대대장 리 중령)를 화산리(함양 동쪽 5㎞)로 북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제19연대 제1대대는 이날 산청을 경유하여 A중대를 안의에, 나머지 전 병력을 화산리 일대에 전개시켰다. 그는 군위와 의성 등지에 분산되어 있던 제34연대(연대장 비오챔프 대령)를 이날 거창(안의 동북쪽 8㎞)으로 이동시켜 거창~합천 간을 방어하도록 하고, 사단 지휘소를 합천으로 이동 개설하였다.[131] 이로써 사단은 26일부터 거창~하동 간 90㎞의 방어정면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단의 방어책임은 통상 사단의 방어정면을 10~15㎞로 하는 미군으로서는 부득이한 비상조치였고, 그만큼 가용병력의 부족을 극복하면서 아군 방어선 서측방의 급박한 전선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미 제34연대(-)는 거창으로 진출하자, 2개 대대중 제3대대를 연대본부 부근에 예비로 배치하고, 제1대대를 안의~거창가도 부근의 산악지대(거창 서쪽 4㎞)에 배치하였으며, 이미 이 지역에 배치중인 거창경찰과 청년방위대의 혼성 1개 대대(-)를 서남쪽 구릉지대로 진지를 옮겨 미군과 작전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날 12:00시 무렵 함양부근의 화산리에는 미 제19연대의 주력이, 안의에는 그 예하인 A중대가, 그리고 동쪽인 거창에는 미 제34연대가 각각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서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던 민 부대와 장계~안의에서 축차적으로 철수중인 경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15> 안의-거창 전투(1950. 7. 26~29)



3) 안의 전투

북한군 제4사단은 장계~안의의 통로를 주력 공격로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아군의 배치는 대단히 허술한 상황이었다. 아군은 단지 정면에 경찰 혼성부대(대대 규모)만을 배치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날 함양으로 이동한 신태영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북과 경남의 도계인 육십령 고개(안의 서쪽 15㎞)에서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북한군 제4사단은 1개 연대를 선봉으로 삼아 보·포 협동으로 장계로부터 안의를 바로 공격하고자 기도하였다. 이들은 대전을 점령한 후 이른바 의용군이란 미명하에 현지 강제 징집한 1천여 명을 보충 받아 7월 23일 아침부터 금산가도로 남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사단을 지원하던 전차연대는 금산 일대에 계속 머물고 있었으며, 사단 예하연대는 26일 오후 장계리에 도착하였고 선두대대가 육십령 고개를 향하여 치닫고 있었다.[132]

안의계곡 일대(장계리에서 육십령을 넘어 거창에 이름)

7월 27일 05:00시경 북한군 제4사단 선두부대는 육십령에 배치된 한국 경찰대대의 방어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야포와 박격포 등 중화기로 지원된 대대규모의 부대였다. 경찰 혼성대대는 도로를 따라 접근하는 적에게 잠시 압도당하기도 했으나, 곧 전열을 가다듬어 사격을 집중하여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경찰은 병력과 화력이 절대 열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에게 밀려 결국 안의로 분산 철수하였다. 그러므로 장계~안의 간의 통로는 일순간 적에게 노출되었고, 적은 계속하여 경남 서북부의 요충인 안의로 지향하였다.

한편 민기식 대령은 경찰의 보고로 육십령이 돌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곧 함양우체국으로 달려가 육군본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신태영 소장과 오덕준 대령 등과 협의하여 오 부대와 김 부대를 안의 방어에 전용하기로 하고 명령을 하달하였다.[133] 이로써 오 부대와 김 부대는 또다시 안의로 출동하였으나 그 병력은 편성당시에 비하여, 거듭된 낙오자의 집결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모두 70~80%에 지나지 않았다. 양 부대는 이날(27일) 오후 무렵 안의를 목표로 차량으로 기동하여 창평리(함양 북쪽 5㎞)를 경유, 오 부대는 안의 서쪽 2㎞ 지점인 468고지에, 김 부대는 그 양쪽에 인접한 421고지 일대에 각각 전개하였다. 27일 정오 무렵 김·오 부대는 미 제19연대 제1대대 A중대와 함께 안의 서쪽에서 남북으로 진지를 편성할 수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러나 안의로 접근중인 북한군의 진출속도에 비하여 방어진지 편성은 이미 때늦은 감이 있었다. 북한군 제4사단은 안의 공격에 앞서 수미상의 정찰대를 침투시키고, 이어 일부병력으로 진지를 편성하고 있던 김 부대를 위협하고 이어 오 부대를 교란하기 시작하였다. 양 부대는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부대장의 강력한 통제 하에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적은 아군의 배치상황을 탐색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수분간의 교전 후 물러섰다. 그러나 북한군 제4사단 예하부대들은 27일 17:00시경부터 오 부대와 김 부대가 점령한 468고지와 421고지 일대에 각종 야포와 직사화력을 집중하더니, 저녁 무렵에는 2개 대대규모로 증강하여 더욱 공격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김 부대와 오 부대는 적의 치열한 포격 속에서도 진지를 방어하였고, 적의 공격 1파를 막아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적은 후속하여 공격하였고 일부병력으로 하여금 우회침투 공격하도록 하였다.[134] 이들은 20:00시경 이르러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 오 부대 병력은 신병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수가 전장공포증으로 분산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오 부대는 화산리로 철수를 개시하였으나 철수 도중 일부병력이 화산리 북쪽 6㎞지역에 이르렀을 때, 함양을 우회 침투한 적으로부터 다시 기습을 받아 많은 손실을 입었다. 부대는 산중에서 대오를 재정비하였으나 더 이상의 적이 포착되지 않았다.[135]

인접부대인 김 부대는 적의 공격을 격퇴하면서 상당한 전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오 부대의 철수로 우측방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김 부대장은 즉시 일부병력을 우측방으로 전환하였으나, 야간이라 피아를 구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력을 집중할 수 없어 적의 추격을 떨치면서 함양으로 철수하였다. 배동걸 특공대는 27일 대구로 복귀하는 도중, 거창에 머물고 있다가 전날 미 제34연대의 2개 대대가 진출하자, 청년방위대와 경찰과 합동하여 미군이 점령한 진지 남쪽에서 철야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4) 함양 전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오 부대와 김 부대의 임의 철수는 북한군에게 진출로를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안의를 점령한 북한군은 한편으로 거창으로 지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함양을 점령하고자 기도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4사단은 안의를 점령한 후 합천으로 진격하여 낙동강을 도하, 대구~부산 간 도로차단 임무를 받고 있었다.[136] 당시, 함양에서 작전을 지휘중인 민기식 대령은 오·김 부대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으나, 함양으로 복귀한 김 부대원의 급보를 받고서야 비로소 안의 저지선이 돌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137]

소재를 알 수 없는 오 부대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여러 차례 노력하는 한편 신태영 소장과 협의하여, 북한군이 밤사이에 아군을 추격하여 함양으로 밀어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해병대가 아직 팔령재를 방어하고 있는 시점에서 함양의 방어

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민 대령은 즉시 함양에 예비로 배치한 김 부대원 및 철수병력, 그리고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예하의 본부중대 요원들을 재편하여 안의~거창가도로 급히 출동시켰다. 따라서 혼성 1개 중대를 이날(28일) 04:00시경 다시 북상시켜 함양 북쪽 4㎞ 지점에서 저지진지를 점령하도록 했다.

민 부대장은 안의로부터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함양 방어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이날 28일 08시 30분경 해병대의 함양이동을 명령하였다. 즉, "즉시로 함양으로 이동하되, 1개 중대를 계속 팔령재에 배치시켜 고수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김성은 부대는 제3중대를 계속 현지에 잔류시켜 운봉을 거쳐 함양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을 저지하게 하는 한편, 주력병력을 도보로 함양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해병대는 28일 함양으로 이동을 완료하였으나 이때 민 대령으로부터 다시 출동명령을 하달 받았다.[138]

이리하여 김성은 부대는 1개 중대를 예비로 함양에 남겨두고, 즉시 나머지 주력(제1, 제2중대)으로써 출동하였는데, 얼마 뒤에 이들은 함양 북쪽 4㎞ 지역에서 안의 방면으로부터 남진하는 대대규모의 적과 접전하게 되었다. 김성은 부대장은 이미 이 지역에서 접적중인 육군 혼성부대장과 작전을 협의하여, 부대본부를 안의~함양 간의 도로 좌측인 새미마을에 설치하고, 제1중대를 60밀리 박격포 3문과 함께 부근에 포진시킨 다음, 제2중대에 경기관총 소대를 배속시켜 그 북쪽 500~600m 전방의 동서를 연하는 능선일대에, 그리고 수색소대를 그 좌측고지에 각각 전개시켰다.

그러나 이미 북한군은 좌일선 북쪽의 주곡까지 진출하고 있어 부대가 진출하자 곧 박격포와 기관총사격을 집중하였다. 곧이어 28일 15:00시경 2개 중대로 추산되는 적이 좌일선 능선상의 고지를 점령할 기도인 듯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제2중대장은 그들이 개활지로부터 접근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전 화력을 집중함과 아울러 중화기중대에 요청하여 진지 전방일대에 사격을 가하도록 요청하였다. 적은 아군에게 사격을 받자 23구의 시체를 유기하고 황급히 퇴각하였다.

적은 아군의 일격을 받고 물러나는 듯하더니 잠시 후 18시 50분 제2중대 정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을 피하여 다시 좌일선 수색대 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수색대는 일보도 물러서지 않고 적을 저지하였으며 인접 제2중대의 1개 분대를 지원받아 진지를 지탱하였다. 이들은 감투정신을 발휘하여 3문의 박격포 지원 하에 적진까지 돌격을 감행하면서 적을 격퇴하였다.

한편 이때 해병 제3중대로부터 "수미상의 적의 선두가 팔령재에 접근하고 있다"는 적정이 민 부대장에게 보고되었다. 민 대령은 이 보고에 비추어 안의로부터 남하중인 적이 또다시 후속부대로써 공격을 시도할 것이고, 또 적이 이들과 함양을 협동 공격할 경우, 현 방어병력으로서는 함양을 지탱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민 대령은 즉시 해병대의 안의 진출에 뒤이어, 팔령재를 방어중인 해병 1개 중대를 함양으로 이동하게 한 다음, 출동부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 부대에게 수동면 화산리 부근으로의 이동을 명령하였다.[139] 해병대는 상황이 다시 격동하는 가운데, 예비로 있던 1개 중대가 이날(28일) 저녁 무렵에 해병 제3중대와 함께 별명으로 철수부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305고지(함양 남쪽 2㎞)를 점령하였으며, 이 사이에 함양에 있던 부대는 무사히 화산리로 이동하였다.

함양 화산리 수동초등학교의 모습

이때 전날의 안의전투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던 오 부대가 화산리 미군 진지 부근에서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민 부대장은 곧 오 부대를 인수하고 28일 20:00시 무렵 김 부대를 당시 미 제29연대 제1대대가 점령한 390고지(화산리 동북 2㎞)에 연한 남쪽 능선에, 오 부대를 화산리 남쪽 314고지에 각각 전개시켰다.

이와 같이 민 부대는 물러서면서 지연전을 반복하여 적을 저지하고 있었으나 병력들의 사기저하와 누적된 피로로 말미암아 전투력이 지극히 약화되어 있었고 전열 정비에 적지 않은 난조를 보이고 있었다. 이 무렵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운봉으로부터 함양을 지향중인 북한군은 이미 함양 서남쪽 2㎞ 지점까지 진출하고 있었다.[140]

민 부대장은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현 상황으로서는 병력의 손실만을 가중시킬 뿐이며 사후대책에도 이로움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28일 20시 40분경 미 제29연대 제1대대장과 협의한 후 산청으로의 철수를 결정하였다.[141] 이에 오 부대는 병력 200명으로 산청~진주로 이동하고, 김 부대는 당시 함양 북쪽으로 출동한 일부 병력을 차량으로 화산리로 이동시킨 다음 축차적으로 산청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병대의 철수는 명령전달이 여의치 않아 약간의 차질이 있었다.

김성은 부대장은 명령을 수령하자 곧 제7중대의 1개 소대를 차출하여, 접적중인 제1·제2중대와 수색소대의 철수를 엄호하게 하였는데, 이에 출동한 제1소대는 위천을 도하한 다음 새미마을 북쪽 제2중대진지에 이르러 부대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그러나 좌일선 고지에 배치된 수색소대는 전령이 야간에 경로를 잘못 선정하여 철수명령을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2차로 파견한 전령마저도 수색소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김 부대장은 수명의 요원을 직접 대동하고 현지에 도착하여 부관 이영호 소위를 수색소대에 보내어 부대철수를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해병대는 우선 집결을 마친 제2중대, 제1중대, 그리고 본부중대를 산청으로 이동케 하고, 이어서 제2, 제7중대가 소대별로 분리된 채 산청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1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 화산리 전황

북한군 제4사단은 일부부대를 투입하여 민 부대 진지를 탐색한 수 시간 후인 7월 27일 14:00시경 미 제19연대 제1대대의 A중대 진지 전방에도 출현하였다. 이때 A중대는 새로 투입된 미 제29연대 제1대대(미 제19연대 배속)와 진지를 교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날(27일) 진주에 위치한 미 제19연대장 무어 대령은 이미 미 제8군의 조치로 미 제29연대 제1·제3대대를 배속 받게 되었는데, 그는 제1대대를 함양~안의에, 제3대대를 하동방면에 각각 배치하기로 결심하였다.[143] 무어 대령은 이날 10:00시경 제29연대 제1대대장 윌슨 중령에게 상황이 위급하니 지체하지 않도록 강조하며 "오전 중에 화산리와 안의 부근의 미 제19연대 제1대대 진지를 인수하라"고 하였으며, 미 제19연대 제1대대장에게는 "진지를 미 제29연대 제1대대에게 인계하는 즉시 진주로 집결하라"고 명령하였다.[144]

제29연대 제1대대는 차량으로 단성~산청으로 기동하여, 1시간 30분 후 화산리에서 제19연대 제1대대와 진지교대 시 화력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대의 지원화력은 포당 연막탄 2발이 전부인 4.2인치 박격포 1개 소대가 있었을 뿐, 포병이나 전차는 물론 공중지원이 전혀 없었다. 더구나 진주의 제19연대 본부와의 통신수단은 차량 전령에 의존할 따름이었다.

제29연대 제1대대는 진지교대에 앞서 B중대에게 안의의 제19연대 A중대 진지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제19연대 제1대대는 오후 일찍이 안의로 직행하였으며, A중대에게는 "진지를 인계하는 즉시, 화산리로 집결하라"고 명령하였다.[145] 그런데 미 제19연대 A중대는 이미 적과 접전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진지교대가 5시간 이상이나 지연되어 27일 16:00시경에야 출발할 수가 있었다. 또한 이들은 전선에서 이탈하여 본대를 향해 약 3㎞가량 기동하였을 때, 적의 매복에 걸려 큰 피해를 입었다. 중대는 6대의 자동차가 대파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격포 등 중화기의 일부를 유기하였다. 중대 병력은 대열이 흩어져 그 일부만이 다음 날(28일) 아침 거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14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화산리에서 진지를 인수한 미 제29연대 제1대대장 윌슨 중령은 이 무렵 인접부대와 연결하기 위하여 프랭키원(Frankiwan) 소위를 거창으로 보내어 미 제34연대와 접촉하게 하였으며, 또한 정보장교 홀리데이(San C. Holliday) 중위를 함양으로 급파하여 민 부대와 접촉하게 했으나 미 제34연대와 연결할 수 없었다.[147] 즉, 프랭키원 소위 일행은 화산리에서 거창을 목표로 강남 우안도로를 거쳐 안의 방향 2~3㎞지점의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민가에 잠복한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2명이 전사하고 3명만이 안의로 되돌아갔다. 이처럼 양 대대는 열악한 상황 하에서 진지를 교대함으로써 인접부대와의 연결이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의 취약성을 드러내었다.

북한군 제4사단은 27일 17:00시경 일부부대를 투입하여 오 부대와 김 부대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미 제29연대 제1대대 B중대가 점령한 화산리 371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148] B중대는 인접 민 부대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진지를 인수하기 바쁘게 공격을 받게 되었다. 중대는 D중대의 박격포 및 중기관총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한국전에서 처음으로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중대는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였고 상당시간 진지를 고수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어둠이 깔리면서부터 삼면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사주방어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밤이 깊어감에 따라 더욱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남강 건너 안의 동쪽 1㎞ 지점인 239고지로 철수를 결심하고 진지전환을 명령하였다. 중대는 먼저 선발대를 뽑아 장교 2명과 사병 16명을 남강 너머로 보냈으나, 나머지 병력은 적의 자동화기에 퇴로가 막혀 악전고투하였다. 그 중 일부병력인 18명이 돌파에 성공하여 이날 24:00시경 거창에 집결하였으나, 대부분의 중대원(215명: D중대 요원도 포함)은 끝내 적중에 갇혀 전원이 전사·실종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안의에서의 격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대대장 윌슨 중령은 통신의 불통으로 B중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당면한 상황처리에 부심하였다. 그는 수차에 걸쳐 연락병을 보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끝내 B중대를 지원하지 못하였다. 28일 아침까지도 안의에 진출한 B중대의 전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는 연락이 두절된 B중대와의 연결을 위하여 전날부터 밤새도록 계속 전령을 차출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전령은 매복한 적병의 습격을 받아 되돌아오곤 하였다.[149]

이날 역시 여러 차례 전령을 파견하고 종일토록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하면서 저녁부터 시작된 민 부대의 철수 상황을 주시하였다. 결국, 제1대대는 B중대 상황을 파악치 못하고 민 부대의 수동 이전과 더불어 연화산(화산리 북쪽 1㎞)에서 철수하여 490고지를 점령하였고 민 부대가 철수를 완료한 뒤에는 367고지(화산리 동남쪽 3㎞) 일대에서 이튿날(29일)까지 진지를 확보하였다.

6) 거창의 전황

안의 방어선이 돌파된 7월 27일, 거창 일대에 배치된 미 제24사단 제34연대는 전날에 이어 제3대대를 예비로 하고 제1대대로 하여금 거창 서쪽 능선을 계속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오후에 이르러 연대는 항공연락장교로부터 "안의에 이르는 도로주변에 북한군 전차와 차량들의 이동이 빈번하다"라는 요지의 항공정찰 결과를 통보받았다.[150] 이 무렵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최초 북한군 제2군단에 배속하려 했던 1개 전차여단을 북한군 제4사단의 진출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1군단에 배속하여 사단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151]

미 제34연대장 비우챔프 대령은 불원간 북한군이 정면에 출현할 것이라는 상정 하에 진지 강화와 안의~거창 사이의 유일한 도로를 폐쇄하는데 주력하였다. 연대는 일선에 제3대대를 내세우기 위하여, 제1대대 진지를 제3대대가 인수하도록 하고 산간 도로인 잠백~소곡 진지를 보강하고 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연대 정찰대가 진지 전방 3㎞ 지점의 549고지에서 적정을 감시하던 중 27일 자정을 넘어 북한군 전차 7대가 안의로부터 북상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연대에 보고하였다. 연대장은 전 부대에 적 출현 사실을 알려 경계태세를 강화시켰다. 이 무렵 북한군 제4사단은 안의에서 부대정비를 마친 후 거창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152]

비우챔프 연대장은 다음날(28일) 아침 역시 정찰대로부터 "안의를 점령한 것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로 보이는 적이 계속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당면한 적이 거창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의 방어 편성 상태로는 방어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방어정면의 간격을 좁히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연대장은 제3대대를 안의 통로에, 제1대대(-)를 합천 통로에, 그리고 제1중대를 김천 통로에 각각 배치하여, 4.2㎞에 걸쳐 삼면 방어진지를 형성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안의통로를 따라 접근하는 적뿐만 아니라, 김천방면의 적, 그리고 후방이 차단될 상황까지도 대비하여 방어부대를 배치하였다.

아울러 연대장은 적을 저지하기 위하여 4.2인치 중박격포를 진지 북단에, 5문의 105밀리 곡사포를 동남단에 각각 배치하여 화력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대 방어 전력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즉, 제34연대는 대전전투 이래 인원 및 장비를 보충 받지 못하여 총 병력 1,150명 중 대대병력이 350명에 불과하였고, 통신장비와 공용화기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다. 병사들은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삽이나 곡괭이 등의 개인장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전투복과 철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력의 발휘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날 28일 일몰 무렵 연대의 포병관측소는 안의로부터 거창으로 접근하는 긴 행군대열의 적군을 관측하였다. 이에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13야포대대 A포대의 105밀리 곡사포 5문이 일제히 포격을 개시하여 일몰 후까지 집중하였다. 그 사이에 연대장은 적의 예상 접근정면에 병력을 증원하는 등 방어력을 보강하였다.

얼마 뒤 비우챔프 연대장은 사단으로부터 상황을 보고하라는 연락을 받고, 합천으로 가서 "예상한대로 적의 공격을 받고 있으므로 제3대대를 거창 동남쪽의 준비된 진지로 이동시키려 한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동의하지 않고 "계속 거창을 고수하라"고 강조하였다.[153] 연대장은 하는 수 없이 제3대대장에 내렸던 철수명령을 급히 취소 조치하고, 제3대대는 철수하였던 원진지로 다시 복귀하였다. 연대장은 다음날 29일 03:00시경 거창으로 복귀하였다. 이로부터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시간 뒤 북한군은 2개 방향에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북쪽의 1중대가 퇴로를 차단당하게 되었다. 제1대대(-)는 이를 타개하고자 즉각 역습을 가하였으나, 중대를 끝내 구출하지 못하고 거창 동측방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연대장은 이러한 임의 철수를 막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날(29일) 새벽 제3대대마저 진지를 돌파당하여 후방의 포진지까지 적의 소총사격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대는 전세를 만회할 길이 없어 거창에서 축차적으로 산제리(함양 동쪽 20㎞)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154] 연대장은 거창 철수 후 공병대로 하여금 거창~합천간 도로를 파괴시켜, 적의 추격을 지연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시의 적절하여 적을 지연시키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한국 경찰과 청년방위대 병력은 전날에 이어, 미 제34연대와 함께 거창 남쪽 외곽에 진지를 점령하고 이날 29일 배동걸 특공대와 합류하여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녁 무렵부터 북한군이 거창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미군들이 철수할 기미를 보이자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지휘체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155] 이들 경찰 및 청년방위대 병력들은 산제리와 합천 등지로 각각 철수하였다. 이로써 민 부대는 미군을 지원하여 7월 26일부터 3일간 북한군 제4사단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6) 전투 결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8군은 거창전투가 종료된 직후인 7월 31일에서야 비로소 정면의 적이 북한군 제4사단이라는 것을 파악하였다. 진주 정면의 북한군 제6사단과 함께 적 2개 사단이 유엔군 좌측 넓은 정면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북한군 제4사단이 대구 서방측을, 그리고 북한군 제6사단이 진주, 마산을 각각 위협하고 있다는 상황을 판단하게 되었다.[156]

구례 방면으로부터 진출한 북한군 제6사단은 하동을 점령한 다음, 연이어 원전(진주 서쪽 22㎞)을 거쳐 진주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 부대를 저지하기 위해 미 제19연대가 배속 받은 미 제29연대 제3대대의 잔여 병력을 통합 이곳 방어에 임하고 있었다.

국군은 민 부대장의 지휘하의 오 부대·김 부대·해병대 등이 7월 28일 함양을 철수한 뒤 화산리 부근 수동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으나, 역시 우세한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다음날 29일에는 산청을 경유하여 진주까지 축차적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민 부대는 계속 김 부대를 지휘하여 그 측면을 담당, 당일 진주 북쪽 산청 가도에 진지를 점령하였으며, 김성은 부대는 30일에 미군에 배속되어 새로 기관총 8정과 무전기 3대 등의 장비를 보급 받고 남강 남쪽 방어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수동지역에서 철수한 오 부대는 진주로 이동한 뒤에 부대를 정비할 수가 없었으므로 31일에 마산으로 이동하고서야 새로운 임무에 가담할 수 있었다.

한편 민 부대와 함께 수동지역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고자 했던 미 제29연대 제1대대는 같은 날(29일) 산청에서 부대를 수습하면서 진주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결국, 부대는 이날 산청에 접근하는 적정을 입수하고 진주로 이동하기 위하여 우선 중화기를 철수시키고, 산청 남쪽 14㎞ 단성으로 남하하던 중, 상공에 출현한 연락기로부터 "귀 부대는 함안(진주 동쪽 28㎞)으로 이동하라"라는 통신문을 전달받았다.

이리하여 미 제29연대 제1대대는 함안으로 기동을 계속하였으나, 도중에 한국해군 첩보대로부터 "모든 미군부대가 철수해 버린 진주에 적이 침입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대대장은 진주를 피해 산길을 택하여 함안으로 이동하기로 결심하고, 천신만고 끝에 이날 늦게 의령 통로에 이르고 다음날인 30일 02:00시에는 함안 서쪽 마쌍리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거창에서 지연전을 전개했던 미 제34연대는 산제리에서 합천으로 다시 철수해 때마침 이곳으로 진출한 미 제21연대 제1대대와 함께 방어진지를 점령하였으며 30일에는 국군 제17연대와도 합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권빈리~합천 전투

1) 양측의 상황

북한군 제4사단은 남침 이전에 진남포에 주둔한 정규 보병부대로, 그동안 서울~오산~평택 등의 전투에서 수차례 유엔 공군의 폭격을 받아 많은 병력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대전전투 이후 현지에서 약 2천여 명의 신병을 보충하여 전력을 보강하였다. 따라서 사단 내 상당수의 병력이 강제모병으로 충당된 전투경험이 없는 병력이었으며 개전 초에 편성된 고참병은 1/3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이들 고참병으로 하여금 신병을 독전하도록 함으로써 공격의 고삐를 재촉하였다. 그들의 보급은 유엔 공군의 폭격으로 원활치 못하여 주로 현지 조달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전투기간 중 많은 장비들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전투력의 저하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7월 23일 금산을 출발한 북한군 제4사단은 26일 안의를 거쳐 29일 새벽에는 거창을 점령하였다. 그 후 사단은 계속 동진하여 단시일 내에 낙동강으로 진출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다.[157] 북한군 제4사단장(이권무 소장)은 먼저 예하 제18연대(연대장 대좌 김희준)를 합천 쪽으로 진출시켜 미 제21연대 제1대대를 공격하고 제5연대(연대장 대좌 최인덕)를 거창에서 황강(낙동강 지류)을 따라 남진시켜 거창 동남쪽 6㎞ 지점인 감토봉을 장악한 다음 317고지와 명당산(감토봉 남쪽 3㎞ 383고지)의 미 제34연대를 공격하도록 했다. 북한군 제5연대 전투력은 병력이 1,800여 명이며 주요 지원화기가 76밀리 야포 4문, 120밀리 박격포 5문, 82밀리 박격포 12문, 45밀리 대전차포 6문 등이었다.[158]

한편 남쪽에서 미 제24사단을 위협한 북한군 제6사단은 26일 목포·보성·순천·여수 방면으로 각각 1개 연대를 나누어 투입하여 서남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 후 이들은 순천에서 다시 합류하여 27일에 하동을 점령함으로써 진주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7월 하순 북한군이 방어 공백지대나 다름없는 호남지역을 점령하자, 미 제8군은 전 전선의 상황을 검토하여 방어배치를 변경하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권빈리 황강 일대의 전경

않을 수 없었다. 즉, 7월 24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딘 소장의 후임으로 이틀 전에 제24사단장으로 부임한 처치 소장을 대구의 미 제8군사령부로 불러 제24사단을 진주~함양~거창선에 배치하도록 명령하였다.[159]

이에 처치 소장은 7월 25일 아침 일찍 예하의 제19연대를 진주에 배치하고 이날 17:00시시를 전후하여 제21연대도 진주로 이동시켰으며, 다음날인 26일에는 미 제34연대를 의성~군위에서 차출 거창으로 전진하도록 명령함과 동시에 사단사령부도 대구에서 합천으로 이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160]

또한 미 제8군은 병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맥아더 원수가 7월초 본국에 요청한 11개 대대 중 최초의 증원부대로써 미 제29연대의 제1대대와 제3대대가 24일 부산항에 도착하자, 25일 이들을 즉시 진주로 투입시켜 제19연대장 무어 대령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이후 제19연대장은 제29연대 제3대대장 모트 중령에게 즉시 하동에 진출하도록 하고, 제1대대장 윌슨 중령에게는 안의 남쪽 음양리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배치하여 제19연대 제1대대의 방어진지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거창~함양~하동을 잇는 방어선이 3일도 버티지 못하고 돌파되자,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다가는 적이 수일 내에 낙동강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7월 29일 마산을 목표로 안동에서 대구로 이동(육군본부 작전명령 제79호)중인 제17연대를 급히 목표를 바꾸어 고령 서쪽 12㎞ 덕암리 쪽으로 전진시켜 미 제34연대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161]

그런데 29일, 거창에서 철수한 미 제34연대의 예하 제1대대와 제2대대는 병력 수준이 평균 350명 정도로서 총 병력 1,15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대전전투 이후 장비를 전혀 보충 받지 못하여 전투력이 대단히 약화된 상태였다. 그 실례로 연대는 교환기와 무전기도 없었고 박격포와 로켓포, 그리고 기관총 등 공용화기도 30%선을 넘지 못하였다. 더구나 대원들 중의 일부는 복장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며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도 부족하고 오직 소총만이 유일한 개인용 무기였다.

그러나 권빈리 부근에서 미 제34연대의 진지를 인수한 제17연대는 옹진전투로부터 오산~진천~화령장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전투경험을 쌓은 고참병들이 많았고 보급도 비교적 양호하여 사기도 왕성한 편이었다. 연대의 총 병력은 기간요원 1,200명 외에 대전에서 모집한 청년방위대원 1,200명을 포함하여 모두 2,400여명이었으며, 청년방위대원들은 지속적으로 탄약과 보급품 운반 등을 맡아왔다. 연대가 보유한 주요 화기는 81㎜ 박격포 17문, 60밀리 박격포 13문, 중기관총 10정, 경기관총 17정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162]

권빈리 지역은 거창~고령~합천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써 동으로는 현풍(창녕 북쪽 18㎞)을 경유하여 대구에 이르고, 서로는 거창을 지나 호남지방과 대전으로 연결되며 남으로는 합천에 닿고 있다. 따라서 기계화 부대를 비롯한 각종 포의 기동에 거의 제한을 주지 않았다.

이 부근의 지형은 거창으로부터 합천에 이르는 황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북쪽에서 흐르는 가천이 가천리(권빈리 서쪽 6㎞)에서 합류하고 동북쪽에는 숙성리(899고지)의 지맥이 꾸불꾸불하게 이어져 있다. 서쪽에는 망일산(620고지)과 월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산(616고지)이 우뚝 솟아 있으며, 특히 월현산 북록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가천리 서남 명당산과 371고지는 적의 공격목표가 될 수 있었다.

기간 중 기상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침과 저녁으로는 산악의 영향으로 비교적 서늘한 편이었다. 전투가 개시된 7월 31일에는 가랑비가 내리다가 밤늦게 개었으며, 이른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었기 때문에 기동에 다소 영향이 있었다.

2) 전투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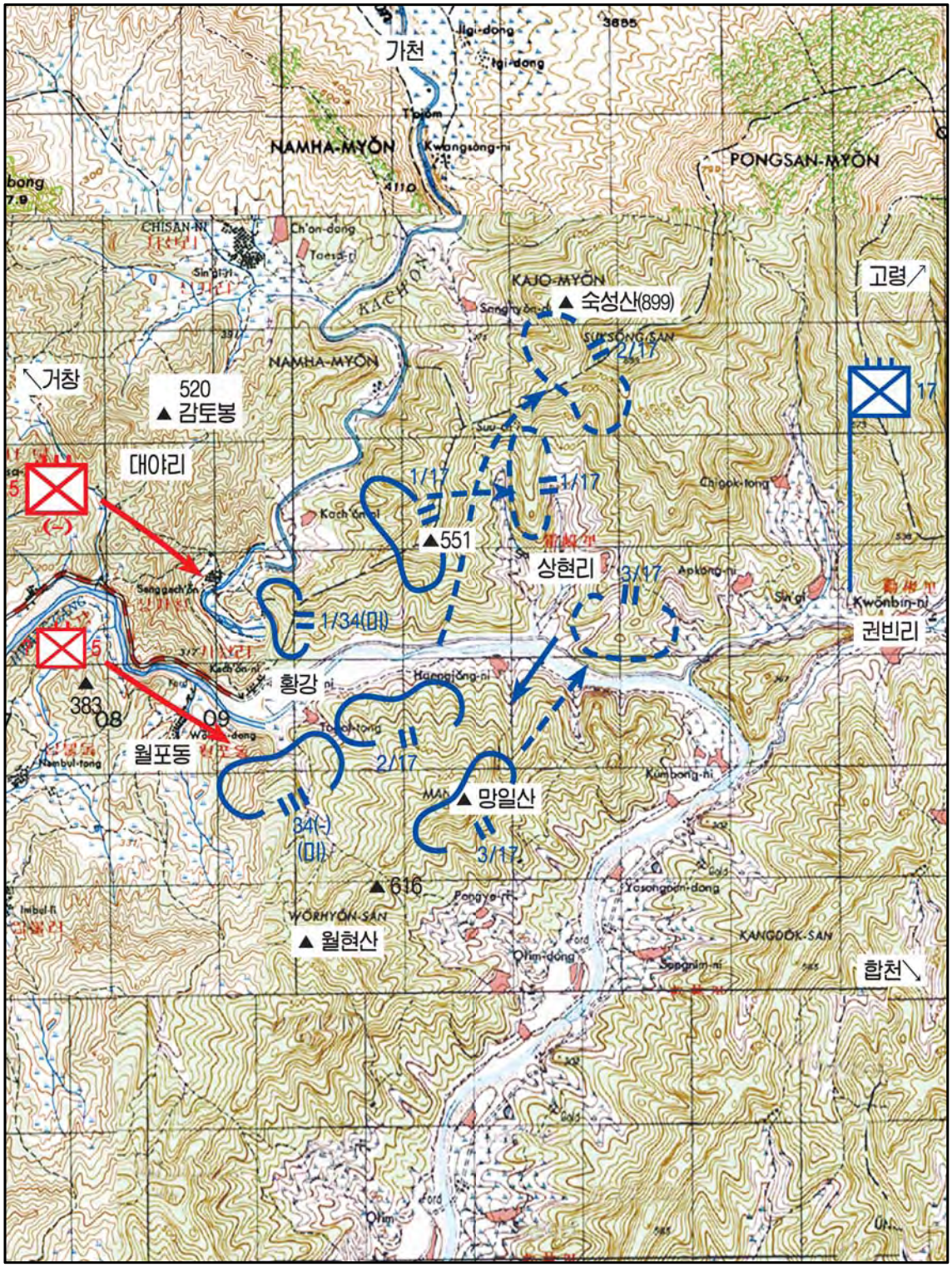
육군본부는 서남부의 전선 상황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즉시 7월 28일 12:00시부로 국군 제17연대를 마산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163] 즉, 육군본부는 "서해안 지구로 침입한 적의 일부가 하동에서 진주~마산으로 침투를 기도하고 있다. 제17연대는 즉시 마산으로 이동하여 진출하는 적을 포착 섬멸하라. 제17연대장 및 미군 선임고문관은 진주의 미군 부대장과 긴밀히 연락 협조하라"라고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로써 안동에 있던 국군 제17연대는 수도사단 예하에서 배속 해제되어 마산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대구로 이동하였는데 29일 거기에서 또다시 미 제24사단에 배속하여 덕암리로 이동하라는 긴급 수정된 작전명령을 받았다.[164]

이 같은 육군본부의 조치는 미 제8군사령관의 요청으로 긴급히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국군 제17연대는 이 이동명령에 근거하여 29일 오후 늦게 대구를 출발, 고령을 거쳐 덕암리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후 제17연대는 미 제24사단의 작전계획에 따라 권빈리로 이동, 다음날(30일) 아침 오남초등학교에 연대 주력을 위치하게 하고 제1대대를 전방으로 진출시켰다. 대체로 연대는 12:00시를 전후하여 미 제34연대의 전방인 권빈리 서쪽 3㎞ 지점인 551고지 서측 능선에 배치하였다.

29일, 거창에서 철수한 미 제34연대는 한때 산제리(덕암리 서쪽 4㎞) 부근의 산악지대로 물러섰다가 곧 반전하여 명당산(거창 동남쪽 8㎞ 383고지) 서북능선에 주력을 배치하고, 나머지 1개 대대를 317고지(가천리 서쪽 1㎞)에 투입시켜 국군 제17연대의 전방에서 가천~명당산선을 방어하고자 계획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16> 권빈리-합천 전투(1950. 7. 30~8. 1)



북한군 제4사단 제5연대는 30일 감토봉(거창 동남쪽 6㎞)을 점령한 후 7월 31일 17:00시를 기하여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20여분의 사격을 마친 후 명당산~317고지로 각각 1개 대대 규모로써 공격하기 시작하였다.[165]

미 제34연대는 거창에서의 격전으로 상실된 불명예를 씻고자 빗발치는 적의 포격 속에서도 1시간여를 버티면서 분전하였으나 끝내 방어선의 일부가 돌파될 위기에 처하면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대장 비우챔프 대령은 즉시 명당산(383고지)의 1개 대대를 뽑아 월현산(611고지) 서쪽 사면에 배치하고 계속 추격하는 적을 격퇴하고자 하였다.

북한군 제5연대는 공격기세를 늦추지 않고 추격을 개시하였다. 제34연대는 적에게 사격을 집중하여 저지하였고 이때 미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날 551고지에 도착한 국군 제17연대 제1대대(대대장 이관수 중령)가 동쪽 사면에서 미군을 지원하여 적에게 사격을 집중하였으나 적을 저지하지는 못하였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미 제34연대장 비우챔프 대령은 30일 19:00시 무렵 처치 사단장에게 "현 상태로서는 진지를 도저히 방어선을 지탱할 수 없다"는 의견을 상신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미 제34연대를 철수하게 하고 그 대신 국군 제17연대로 하여금 적을 저지토록 하였다.[166]

이리하여 제17연대장 김희준 대령은 제1대대를 현 진지인 551고지에 그대로 두고, 이때까지 연대의 예비로써 권빈리에 있던 제2대대(대대장 송호림 중령)를 망일산 동쪽 2㎞ 서쪽 능선으로 진출토록 하였으며, 미 제24사단에서 지원한 155밀리 1개 포대 5문은 행정리에서 월포동을 향하여 방렬하도록 했다. 이때 제3대대(대대장 전우영 소령)는 권빈리의 최초진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한편 미 제34연대장은 제17연대 제2대대가 망일산 서쪽 능선에 투입되자 30일 20:00시를 전후하여 월현산 서쪽 능선에 있던 1개 대대를 정상으로 옮기고 317고지의 1개 대대와 연대지휘소는 합천으로 철수시켰다. 당시 357고지 남쪽 능선에서 적의 저지를 다짐하고 있던 제17연대 제4중대는 정찰활동을 강화하여 300m 남쪽의 거창~권빈리 가도에서 권빈리 쪽으로 질주하는 적의 사이드카 1대를 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견하였다. 중대장은 지난 화령장 전투에서도 연대가 적의 사이드카를 포획하여 많은 정보를 입수한 바가 있었으므로, 중대가 이를 능히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예의주시하기로 하고 대대를 통하여 연대에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김희준 연대장은 적을 진내 깊숙이 유인한 다음 사로잡기로 결심하고 "그냥 통과시키되 계속 감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윽고 적의 사이드카가 권빈리에 도달하여 합천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비탈길을 내려가려 하였다. 이때에 연대장은 자신이 직접 도로에 나아가 미리 잠복하고 있던 병력들을 지휘하여 이를 단번에 포획하였다.[167]

연대장은 중요한 첩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연대지휘소로 압송하여 신문토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즉, 이들 사이드카병은 북한 제4사단 제5연대의 정찰대원으로서 아군의 상황을 탐지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있었으며, 이날(30일) 밤 그들 제4사단의 암구호가 "국화", "무궁화"이며, 이들이 거창에서부터 계속 미군과 교전하였기 때문에 한국군이 이 지역에 투입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등이었다.

연대장은 적의 본대가 이날 밤 계속 공격하여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결전의 호기를 맞은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전 연대에 하달하는 한편, 더욱 진지를 보강하고 진전수색을 강화하였다. 예상한대로 명당산과 317고지를 탈취한 북한군 제5연대는 8월 1일 01:00시를 전후하여 제17연대의 주저항선인 551고지~망일산을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1대대는 551고지에 저지진지를 형성하고 317고지의 미 제34연대 철수를 엄호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전날 18:00시경, 연대장으로부터 적의 기도와 암구호를 통보받은 대대장 이관수 중령은 이를 즉시 전 대원에 전파하고 아울러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즉, "전 장병은 적의 암구호를 숙지하라. 적을 진내 깊숙이 유인하여 포위 격멸하라. 진지를 보강하고 진전수색을 더욱 강화하라. 화기중대장은 적의 진로에 전 화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밀하게 화망을 구성하라"는 것이었다.[168]

이에 따라 화기중대장 손창술 대위는 중대 선임장교 정득만 대위와 박격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장 이홍근 대위를 불러 일몰 전에 박격포와 기관총 진지를 선정하고 사격제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정 대위는 357고지 하단에 기관총 진지를 배치하고 예상접근로를 향하여 조준토록 하였으며, 이 대위는 357고지 8부 능선에 박격포를 배치하여 가천리 일대를 제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1일) 01:00시경부터 317고지에서 공격을 개시한 적은 03:00시 무렵 대대 방어진지 최남단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주위는 대체로 고요하고 아직 월광이 남아 있었지만 한여름 밤의 시끄러운 물소리로 피아간에 서로 식별하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적의 일부가 미군복장을 한 까닭에 그들을 판별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적 또한 국군이 이 지역에 투입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수분 후에 적 1개 중대 병력이 별다른 경계를 하지 않은 채 진내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그들 중 선두병력이 5m 전방까지 접근해 왔는가 하면 어떤 자는 악수까지 청하는 기현상마저 벌어졌다. 바로 이 순간 대대장 이관수 중령은 사격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대의 전 화기가 사전에 계획된 제원에 따라 일제히 사격을 가하였다. 불의에 기습을 받은 적은 몹시 당황하여 퇴로를 찾고자 하였으나 끝내 대대의 화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이 사살되었다.

이 전투로 제17연대 제1대대는 트럭 1대분 이상의 무기를 노획하고 적 1개 중대 병력을 사상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연대장 김희준 대령은 한국군 최초로 미국정부로부터 은성훈장을 수여받았다. 대대는 그 후 그 때까지 월현산 정상에서 고전 중이던 미 제34연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169]

한편 전날 미 제34연대가 철수함에 따라 망일산 서쪽 능선에 투입된 국군 제2대대는 연대로부터 “이날 밤 야음을 이용하여 적이 공격할 징후가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투입 즉시 진지를 보강하는 한편, 수색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날(1일) 03:00시경 적은 예상한 대로 제1대대의 공격과 함께 제2대대의 정면에도 공격을 가하였다. 이에 연대장 김희준 대령은 망일산 서쪽에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고 있던 대대로 하여금 선제기습으로 역습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 송호림 중령은 망일산 서쪽 6부 능선에서 하단으로 공격케 하고 적이 능선하단에서 상단으로 진출하면 일제히 사격하도록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윽고 적의 선두부대가 대대 주저항선인 망일산 서쪽 능선하단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대대장 송호림 중령은 적의 주력이 진내에 들어올 때까지 "기도비닉을 유지하라"고 강조하여 그들의 본대를 유효사거리 이내로 유인하였다. 대대장은 호기를 포착한 다음 사격명령을 내렸다. 주저항선상의 제2대대의 모든 화기가 일제히 사격을 실시하였다. 불시에 기습사격을 받은 적은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으나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일부가 명당산 쪽으로 분산 도주하였다. 대대는 이 일전에서 많은 전과를 얻은 후 다시 망일산 서쪽 능선의 진지로 철수하여 부대를 정비하는 등 적 공격에 대비하였다.

북한군 제5연대는 가천리와 망일산 서록으로부터 317고지와 명당산 쪽으로 패주한 후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8월 1일 07:00시경부터 다시 공격을 재개하였다. 317고지의 1개 대대규모는 가천리에서 제1대대를 위협하였고, 명당산의 다른 1개 대대는 월현산을 각각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망일산 전방의 제2대대와 월현산(616고지) 정상의 미 제34연대의 나머지 대대가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170] 09:00시경부터 명당산에서 공격을 개시한 적 1개 대대는 월현산의 미 제34연대 진지를 점령하자 국군 제2대대를 우회하여 망일산 남쪽으로 진출함으로써 연대와 대대지휘소까지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대의 후방지역마저 위협을 받게 되자, 연대장 김희준 대령은 그때까지 권빈리에 예비대로 두었던 제3대대를 망일산으로 전진시켜 연대의 배후를 위협하는 적을 제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제3대대의 공격축선을 피하여 계속 망일산과 551고지에 접근하였으므로, 연대장은 제1·제2대대가 그들 포위권내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여 제2대대는 1일 09시 30분에 숙성산 남쪽 능선으로, 제1대대는 10:00시 551고지 하단으로 각각 철수토록 명령하였다.

이 동안 망일산으로 진출한 제3대대는 연대후방에 침투한 적을 격퇴하고 월현산까지 진출하였으나 551고지에서 제1대대가 철수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상현리(권빈리 서쪽 3㎞) 부근으로 철수하였다. 이는 연대장이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휘 폭을 좁혀 재공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의한 것이었다.

국군 제17연대는 8월 1일 10:00시를 전후하여 숙성산~상현리선으로 철수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대를 정비한 뒤 12:00시를 기하여 551고지와 망일산을 탈환하기 위한 역습을 재개하였다. 즉 연대장은 제1 및 제3대대를 공격제대로 하여 가천리와 망일산으로 공격하도록 하고 제2대대는 예비대로 숙성산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에 551고지로 공격을 개시한 제1대대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여도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곳이었으므로 그 근방의 지형에 익숙한 편이었다. 반면, 대대는 적이 지형에 익숙하지 않고 또 수차에 걸친 공격으로 출혈이 많았기 때문에 14:00시경 무난히 고지를 탈환할 수 있었다. 제1대대는 이어 가천선까지 공격하여 적을 멀리 대야리(서쪽 2㎞ 317고지)쪽으로 몰아낸 다음 8월 1일 16:00시경 방어에 유리한 551고지로 되돌아갔다.

한편 제3대대는 14:00시경 망일산을 점령하고 월현산의 적진을 돌파하여 15:00시경에는 월포동까지 진출한 다음 잔적을 격멸하였으며, 16:00시를 기하여 망일산 서쪽 능선을 확보하였다. 결국 북한군 제5연대는 이날(1일) 17:00시를 전후하여 명당산과 대야리 일대로 퇴각하였으나 잠시 후 독전으로 인한 것인지 다시 제1대대가 확보중인 551고지를 공격하려는 기도를 보였다.

이에 제17연대장은 방어에 유리한 551고지를 끝까지 확보하고자 했으나 미 제24사단장의 철수명령에 따라 1일 20:00시 무렵 덕암리 일대로 물러섰다. 그 뒤 연대는 계속되는 적의 진출에 대비하고자 진지 구축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때 또 미 제24사단장으로부터 "제17연대는 현풍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았다.[171] 송호림 중령을 비롯한 대대장들은 "적을 막아내기에는 이보다도 더 유리한 지형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현 진지를 고수할 것을 연대장에게 강력히 건의하였다. 그러나 제17연대 전 대대는 상부의 명령인지라 부득이 이곳에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연대는 이날 8월 1일 자정에 덕암리를 출발한 다음, 고령을 거쳐 낙동강을 건너 현풍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는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모든 유엔 지상군에게 "8월 1일을 기하여 낙동강선으로 철수하라"고 명령을 하달하게 됨으로써 미 제24사단장도 동 연대를 이곳에서 철수시킨 것이었다.

국군 제17연대는 자정 무렵 미 제24사단에서 지원한 차량으로 덕암리를 출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였다. 연대는 야간철수에 익숙하지 못하여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그대로 켠 채로 이동하다가 미 공군으로부터 공습까지 받았으나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이날(2일) 미명에 현풍을 거쳐 창동(현풍 서쪽 4㎞)에 도착하였다.[172] 연대는 구지초등학교에 지휘소를 개소하고 제1·제3대대를 창동 서북쪽 우산동~도동동~오설동을 연하는 낙동강 돌출부에 배치하여 고령 쪽에서 접근하는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는 예비로써 일부를 대리산(창동 북쪽 2㎞ 408고지)에 전개하도록 하였다.

4. 전투 결과

북한군 제4사단은 7월 29일에 거창을 장악한 후 대구를 목표로 동진하고자 기도하였으나 뜻밖에 권빈리 일대에서 국군 제17연대를 만나 8월 1일까지 공격이 돈좌되고 말았다. 그 후 국군 제17연대가 낙동강선 이동으로 철수하자 이들은 고령~합천을 점령하고 낙동강 방어선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북한군 제4사단은 조속히 낙동강을 도하하기 위하여 선발대를 은밀히 도하시켜 도하지점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그들마저 국군에 의해 전멸됨으로써 진출이 지연되었다. 제17연대 제7중대는 비슬산 입구 월곡리에서 적 선발대를 기습공격하여 6명의 포로를 획득하였고 40명을 사살하였으며, 소총 50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연대본부로 압송된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북한 제4사단의 선발대로서 피난민을 가장하여 먼저 낙동강을 건넌 다음 적에게 도하지점을 유도할 수 있도록 비슬산 정상에서 봉화를 올리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군 제4사단은 합천과 고령을 점령하고 낙동강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도하지점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8월초 북한군 제4사단은 끝내 창녕 서쪽에서 낙동강을 도하하여 미 제

24사단과 다시 한 차례의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국군 제17연대는 이 전투를 치룬 후 8월 2일 현풍 서쪽 낙동강 돌출부로 나아가 적의 공격에 대비하다가 8월 7일 제1군단(김홍일 소장) 작전명령에 의하여 이곳을 떠나 밀양~대구를 거쳐 청송 남방의 구산동으로 전진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하동-진주 전투

1. 전투 개요

1) 개 요

하동~진주 전투는 미 제24사단 예하 제19연대가 민기식 부대 등과 합동으로, 남해안 해안선을 경유하여 하동으로 우회 공격하는 북한군 제6사단을 방어하여 진주가 피탈되기까지의 7일간 적을 지연시킨 전투이다. 하동은 영·호남의 관문인 동시에 사천과 진주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으나,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7월 26일 야간 와해된 국군 혼성부대가 북한군 제6사단의 공격을 받아 진주로 철수함으로써 쉽게 하동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때 채병덕 소장은 육군본부로부터 하동 방어명령을 받았으나 예하 부대가 없는 관계로 진주의 미 제19연대장을 만나 하동방어를 설득하였다.

미 제19연대장 무어 대령은 즉각 예하의 제29연대 제3대대로 하여금 이 지역을 탈환하도록 하였으나, 대대가 하동으로 진출하던 도중 27일 아침 쇠고개(牛峙)에서 적에게 기습을 받아 함께 갔던 채병덕 소장이 전사하고 대대장이 실종되는 등 많은 손실을 입고 철수하였다.

그 후 미 제19연대는 열세한 병력으로 진주를 방어해야 했다. 연대장은 7월 29일 개전이후 최초로 지원된 중형전차 퍼씽(M26) 3대와 함께 방어병력을 배치하였다. 연대는 31일까지 집요하게 공격하는 적을 격퇴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진지를 적에게 내주게 되었다. 진주가 함락되자 제24사단장 처치 소장은 즉각 마산으로 이어지는 두개의 접근로를 차단하면서 적을 계속 저지하게 되었다.

육군본부 군사편찬연구소

2) 양측의 상황

북한군 제6사단은 7월 23일에 광주를 점령한 뒤 순천, 진주를 거쳐 낙동강선 서측 마산으로의 진출을 기도하고 있었다. 7월 25일 주력으로써 순천과 광양을 장악한 후 하동으로 접근하고 있는 중이었고, 일부 부대는 선발대로써 지리산 서쪽의 종격실 능선을 따라 화개장을 거치면서 신원리(하동의 대안)에 이르러 하동을 협공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하동에 진출한 적은 화개장으로 우회한 북한군 제6사단 예하 제1연대로써 병력이 1,000여 명, 주요장비가 T-34전차 2대를 비롯하여 122밀리 및 76밀리 유탄포 각 2문, 120밀리 박격포 2문, 그리고 45밀리 대전차포 7문 등으로 추산되었다. 북한군 제6사단은 예하 제13연대와 제15연대는 목포와 나주를 각각 점령한 후 목포에 1개 대대와 1개 자주포 포대를 남겨두고 제1연대 전투지역인 하동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173] 이 무렵 이들의 병력은 1만여 명에 이르렀으며, 주요장비는 T-34전차 4대, SU-76자주포 18문, 122밀리 유탄포 14문, 76밀리 야포 38문, 그리고 122밀리 박격포 22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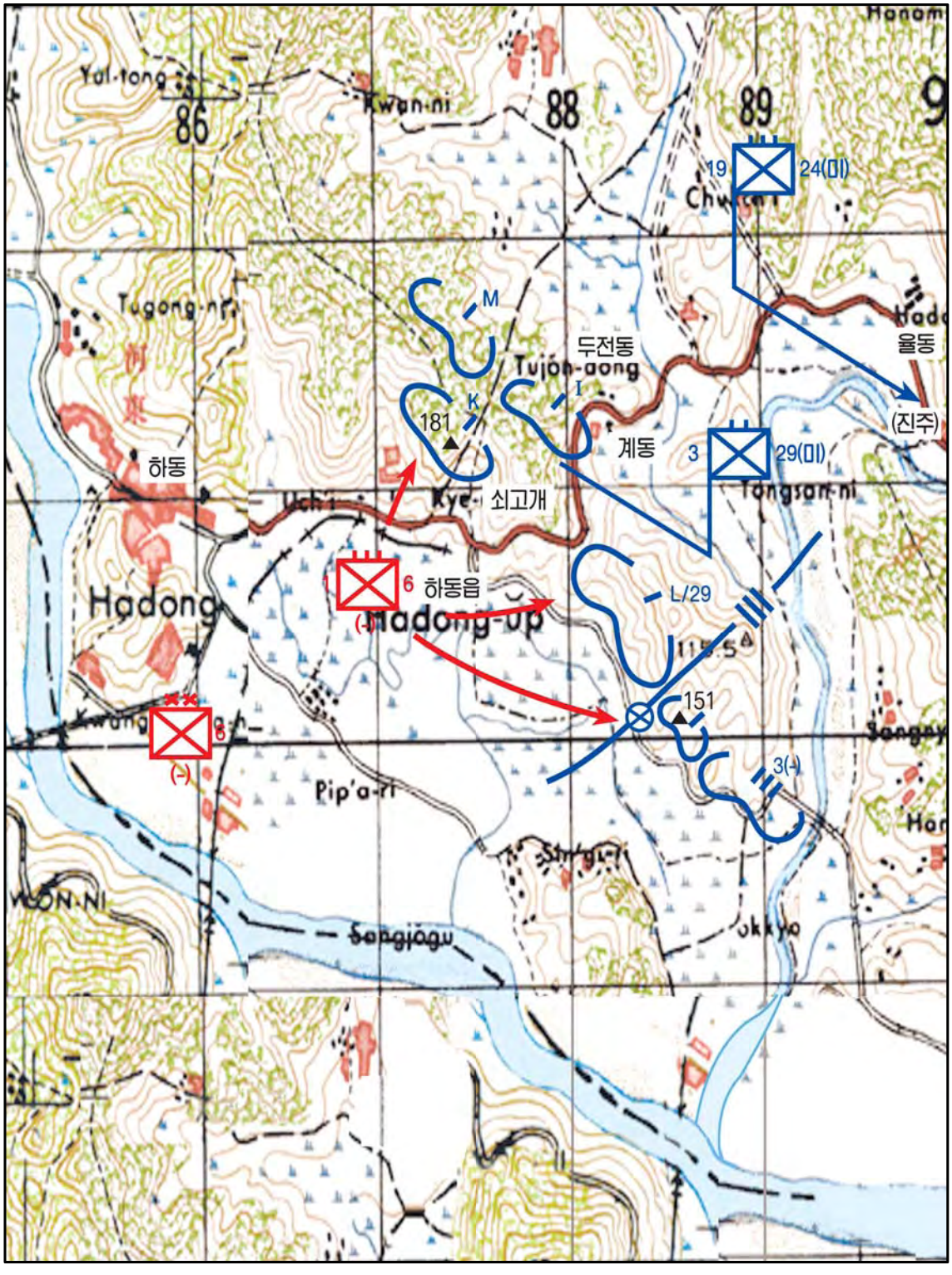
한편 육군본부는 전임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을 경남지구 편성관구사령관에 임명하여 남원~하동에서 이응준 부대와 민기식 부대를 통합지휘토록 하였다.[174] 그러나 이 무렵, 통신수단이 두절된 상황 하에서 이응준 부대는 순천으로부터 여수로 철수 중이었으며, 민기식 부대는 운봉으로부터 함양부근에서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동 지역에는 신편 제5사단 제15연대의 일부병력(이영규 중령) 100여 명만이 집결하고 있을 뿐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6-6> 하동지역 북한군 주요 지휘관

직 책		계 급	성 명
제6사단	사단장	소장	방호산
	제13연대장	대좌	이후진
	제1연대장	대좌	한일래
	제15연대장	대좌	김현기
	포병연대장	중좌	임해민

<상황도 6-17> 하동 전투(1950. 7. 25~27)



<표 6-7> 경남편성관구사령부 지휘관

직 책		계 급	성 명
경남편성관구사령관		소장	채병덕
민부대	부대장	대령	민기식
	제3연대장	중령	박현수
	제9연대장	중령	유해준
	제30연대장	중령	김용주
	해병대	중령	김성은
	김부대	소령	김병화
	오부대	대령	오덕준

이때,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7월 23일 정보참모로부터 호남방면으로 우회한 적이 시속 3.2㎞로 전진하여 "적의 선두부대가 안의와 진주에 도달하였을 것"[175]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전날 김천부근에 집결하여 정비 중에 있던 미 제24사단을 급히 진주로 추진 배치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24사단의 제19연대(-1)는 24일 밤에 진주로 이동하고, 이어서 25일 저녁에는 일본에서 출발한 제29연대(-1)가 진주에 도착하여 제19연대에 배속되었다. 당시 제19연대(-1) 전력은 실제 전투 병력이 600여 명이고, 장비는 완전편성의 35% 정도이며, 연대장 무어 대령은 25일에 부임하여 아직 연대의 사정에도 익숙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표 6-8> 하동지역 미군 지휘관

직 책		계 급	성 명
제24사단장		소장	처치(John H. Church)
제19연대	연대장	대령	무어(Ned D. Moor)
	제1대대장	중령	리(Robert Rhea)
	제2대대장	중령	맥그레일(Thomas M. McGrail)
제29연대	제1대대장	중령	월스(Wesley C. Wilison)
	제3대대장	중령	모트(Harold W. Mott)
제17포병대대	대대장	중령	스트레톤(Charles. W. Stratton)

호남권 군사편찬연구소

또 제29연대(-1)는 7월 15일 일본에서 출동명령을 받고 연대장 및 연대본부는 새로운 연대편성을 위하여 기간요원으로 잔류하고, 제1대대와 제3대대만이 25일 진주에 도착하였다. 연대의 병력과 장비는 100%에 가까웠으나, 훈련 상태는 영점조준이나 박격포 시험사격도 못하였고 심지어는 기관총 손질마저도 미비한 상태였다.[176]

2. 하동 부근 전투

1) 방어준비 상황

채병덕 소장은 7월 24일 경남편성관구사령관 임명 신고식에서 신성모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하동은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진주와 사천으로 이르는 통로이니 필히 방어하여야 한다"라는 당부를 받았다.[177] 채 소장은 한때 패전의 책임을 통감하고 실의에 빠져 있었으나, 다시 막중한 작전임무가 부여되자 생기를 되찾은 듯이 기뻐하고 다음날(25일) 아침에 정래혁 중령을 대동하고 하동으로 달려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여기서 현지를 정찰한 채 소장은 하동~진주 지역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으나 이에 비해 하동읍이 전혀 방어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알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그의 고민을 알아챈 정래혁 중령이 "제가 이곳에 남아 정보를 수집하면서 밀려 내려오는 부대를 수습하여 방어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178] 그는 쾌히 허락하여 하동방어의 준비를 정 중령에게 맡기고 작전을 협의하기 위해 진주로 돌아갔다.

채 소장은 그 길로 미 제19연대장 무어 대령을 방문하여 "호남 지역으로부터 동진 중인 적을 하동에서 막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강조하고, 자신도 하동으로 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한·미군 양자간에는 하동을 고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채 소장은 미군 공격제대의 고문으로 임무 수행하기로 하였

다. 이 무렵 영남편성관구사령관에게 하동으로 진출하여 적을 격퇴하라는 육군 본부의 작전명령 제72호가 하달되었다.[179]

그러나 채병덕 소장에게는 수하 병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때마침 그의 곁에 있던 박현수 중령(신편 제3연대장)과 부관 이상국 소령, 그리고 김영혁 대위가 그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2) 하동읍의 피탈

정래혁 중령은 7월 25일 단신으로 하동에 남아 현지 모병을 전개하였으나 피아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날 일몰 무렵 화개장 쪽에서부터 분산 철수하고 있었던 이영규 부대의 일부 병력을 만나 그들로부터 전방 상황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정 중령은 즉시 이들 30여명을 인수하고 또 현지에서 모병한 300여명을 합하여, 1개 대대를 편조한 다음, 하동교의 동안에 배치하여 진주에서 지원 병력이 오기를 기다렸다.[180]

그의 판단으로서는 화개장이 25일 12:00시에 적의 점령 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17:00시쯤에는 하동으로 들이닥칠 것으로 보았으며, 그 이전에 지원 병력이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22:00시가 지나도 지원 병력은 도착하지 않았으며 갑자기 진지의 병사들로부터 "적이 나타났다"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정래혁 중령은 진지정면의 접근로를 확인한 결과 분명 1개 대대규모의 북한군이 행군종대로 접근하고 있었으며 그 선두가 이미 하동 북쪽 700m 두곡리에 도달하고 있었다. 정 중령은 잠시라도 적을 지연시키기로 결심하고 적이 지근거리까지 접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적이 접근하자 일제 사격명령에 따라 사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최초 아군의 기습사격으로 잠시 주춤하는 듯하였으나, 아군의 화력이 소총 몇 자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이내 역습을 가해왔다. 아군 병사들은 10여분 후 탄약이 고갈되자 진지를 이탈하여 분산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정 중령은 어쩔 수 없이 철수명령을 내리고 10여명과 함께 26일 23:00시경 하동을 빠져나와 진주로 향하였다. 훗날 정래혁 중령에 의하면, "하동에서 철수하여 다음날 새벽 원전동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채병덕 소장과 만났다"고 술회하였다.[181]

한편, 이와 거의 같은 시각에 미 제19연대장 무어 대령은 하동이 피탈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25일 야간 제29연대 제3대대장 모트 중령에게 하동으로 진출하도록 명령하였다.[182] 이때 모트 중령은 연대장에게 "대대는 전투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포병과 중박격포의 지원도 없이 전투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오히려 방어하는 편이 더 바람직합니다"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대장은 "완전히 편성된 대대의 현 전력으로 능히 적을 저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대대장의 건의를 무시해버렸다.

이에 모트 중령은 26일 날이 새기 전에 하동으로 추진하기로 다짐하고 도상으로 도로상황을 연구하였다. 하동까지의 접근로는 두 길이 있으니, 하나는 진주~원전동~하동에 이르는 주도로요, 다른 하나는 진주로부터 해안을 따라 사천, 곤양, 진교를 거쳐 하동에 이르는 우회 도로였다. 이때 동석하였던 채병덕 소장은 하동을 왕복하면서 관찰한 도로망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양 도로는 모두 협소한 길일뿐만 아니라, 정곡리 서쪽 1㎞의 덕천강이 범람하여 곤양으로 우회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하였다.

이날(26일) 24시 30분경 제3대대는 차량으로 진주를 출발하였는데,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대대는 전방에 대한 수색을 마치고야 진출하였고 또 차량들이 도로를 가로지른 도랑에 수차례 빠지게 되어 원전동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183] 여기에서 채 소장은 하동으로부터 철수중인 정래혁 중령의 일행을 만나, 비로소 전날 밤에 하동이 적의 수중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정 중령의 분전을 치하하고 진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한편, 적정을 알게 된 제3대대장 모트 중령은 대원들에게 식사를 하도록 하고 부대대장 레이블 소령과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가 하동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화약을 걸머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라는 의견으로 집약되었다. 그는 연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현 위치에서 방어할 것을 건의하려 했으나, 때마침 무전이 불통이었기 때문에 부대대장을 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로 급파하게 되었다.

연대지휘소에 도착한 레이블 소령은 연대장에게 피아의 상황을 보고한 뒤 현지에서의 방어와 증원 병력의 급파를 요청하였다. 연대장은 잠시 동안 숙고한 뒤 단호하게 "나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 대대는 지체 없이 하동을 탈환하라"라고 명령하고, 이어서 "곧 도착할 포병중대와 전술 항공통제반을 증파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184]

이렇듯 레이블 소령이 진주를 왕복하는 사이에 의외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다. 대대가 횡천리(하동 동북쪽 8㎞)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다. 모트 대대장은 훈련되지 않은 병력으로 야간에 접적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그 곳에서 야영하기로 하였다. 이때 1명의 공군장교가 항공통제반과 무전차를 이끌고 당도하였는데, 그의 임무는 다음날(27일)로 계획된 공중공격을 지시하는 한편 연대본부와의 통신연락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그 무전기마저 고장 나고 말았다.

한편 경남지구 편성관구사령관 채병덕 소장은 미 제29연대 제3대대와 함께 하동으로 진출하기로 하였으나, 만일에 적이 남해안가도로 진출할 시에는 제3대대의 퇴로가 차단되는 것은 물론, 하동으로의 진출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하였다.[185] 바로 이때 민 부대 예하 제30연대 1개 중대규모가 진주에서 부대를 재편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각 연대장을 불러 출동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1개 중대가 미 제29연대 제3대대와 함께 진주를 출발하여 곤양에 이르렀다.

중대는 곤양에서 미군과 나뉘어져 남해안의 가도를 따라 진교(곤양 서쪽 7㎞)를 거쳐 이날(26일) 밤 안으로 섬진강 하구인 섬방까지 진출하여 야영하였다. 그러나 김용주 연대장은 이때까지 하동이 피탈된 사실을 몰랐으며, 또 미군의 진출선에 대하여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

3) 쇠고개(우치)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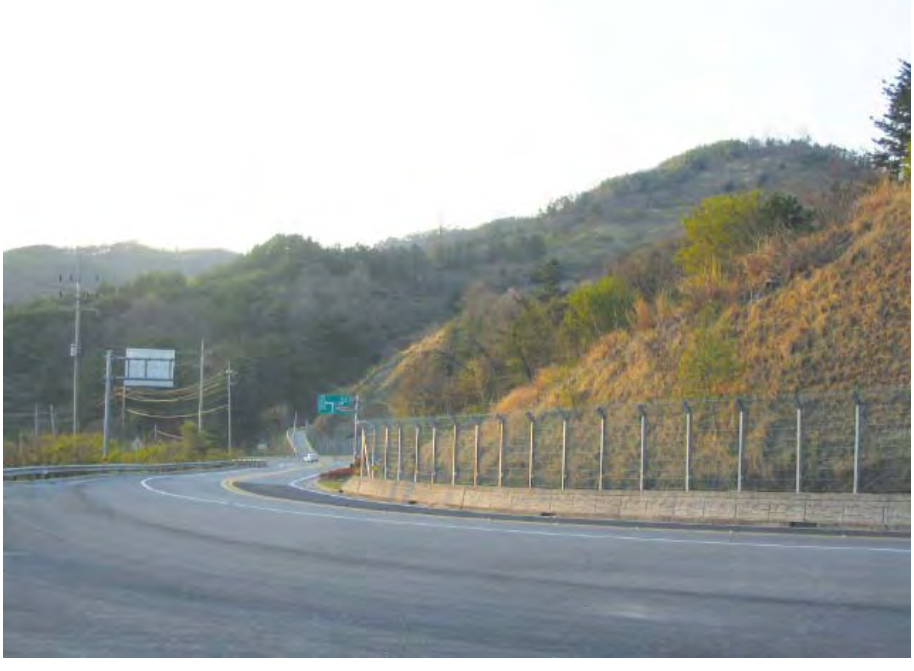
미 제29연대 제3대대(대대장 모트 중령)는 7월 27일 08시 30분 횡천리 야영지에서 하동을 향하여 약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날은 계속 내리던 비가 그치고, 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침에는 안개마저 활짝 걷히어 날씨가 맑았다. 제3대대의 행군 순서는 L중대(전위), 대대본부, K중대, M중대, I중대(후위) 순이었으며, 전위인 L중대에게는 M중대에서 1개 소대를 증원하여 선두부대의 임무를 맡겼다.[186]

모트 대대장이 L중대장 샤라 대위로 하여금 전위의 중책을 맡긴 이유는 그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아프리카와 독일 전선에서 소총중대장으로 눈부신 활약을 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대가 한 시간 남짓, 접적행군을 하여 L중대가 쇠고개에 이르렀을 때, 최선두에 나섰던 중대장 샤라 대위는 적 10여명이 앞쪽 능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중화기 소대장에게 사격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2문의 75밀리 무반동총으로 적에게 사격을 가하였으나 명중되지는 않았다. 샤라 대위는 적이 쇠고개를 선점할 경우 하동으로 이르는 통로가 막힐 것이라 직감하고 각 소대로써 고갯마루로 돌격하여, 통로의 남쪽을 점령하도록 하였다.



하동 쇠고개의 모습

채병덕 소장과 동행중인 모트 대대장은 중대장 샤라 대위의 상황보고를 받고, 단숨에 쇠고개로 달려가 지형과 적의 동태를 살핀 다음, L중대장에게 "고갯마루의 양쪽을 계속 장악하여 09시 45분에 있을 항공지원과 함께 하동으로 공격하라"라고 명령하였다. L중대장 샤라 대위는 공격에 앞서 그들의 기습적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소대장에게 명령하여 진지를 구축하게 하였다. 이 무렵, 제30연대장 김용주 중령이 지휘하는 1개 중대는 151고지(쇠고개 마루에서 남쪽으로 400m)로 진출하여 L중대와 연결하였다. 제3대대장 모트 중령에 이어 대대참모들이 쇠고개에 올랐고, 뒤이어 채병덕 소장의 일행(박현수 중령, 김상국 대위, 김영혁 중위)도 뒤따라 올라갔다. 쇠고개 마루에서 지휘관과 참모들이 한곳에 모여 전술토의를 하였다.

L중대장 샤라 대위는 병사들의 작업을 독려하다가 북쪽 181고지에 적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즉시 이를 대대장에게 신호하여 알렸다. 대대장은 대대 후미에서 뒤따르던 부대대장 레이블 소령을 무전으로 불러, K중대를 181고지로 투입하라고 명령하여 K중대는 계동(쇠고개 동쪽 1㎞)에서 산개하여 약진하였다.[187]

이때의 상황에 관하여 박현수 중령은 "나는 181고지의 병력이 이영규 부대의 일부가 아닌가 하고, 아군 간에 사격이 벌어지는 줄 알고 마음이 조마조마 하였다"라고 술회하였다.[188]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모트 대대장은 하동 쪽에서 S자형의 길을 따라 쇠고개로 1개 대대규모의 적이 행군종대로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적은 아군이 쇠고개에 배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하였다.[189]

대대장은 K중대를 산개시키고 이곳에 당도한 부대대장 레이블 소령에게 "저 적을 주시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때 채병덕 소장도 쌍안경으로 적을 관측하였으나 피아를 분간할 수 없었다. 그들이 아군복장으로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L중대장 샤라 대위는 전 대원에게 적이 지근거리로 접근할 때까지 사격하지 말도록 통제하였다. 마침내 적의 첨병으로 보이는 선두가 40m 앞에 이르렀다. 이때 채병덕 소장은 그들이 피아구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냐? 적이냐?"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 순간 그들은 대답도 없이 곧 산개하여 도로양쪽의 도랑으로 뛰어 들었다. 순간에 샤라 대위는 '사격 개시' 명령을 외쳐 기관총, 소총이 일제사격을 퍼부었다. 사격을 받은 적은 즉시 응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적의 초탄이 미처 피신하지 못한 채병덕 소장의 두부를 관통하여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옆에 있던 대대장 모트 중령, 부대대장 레이블 소령, 대대 S-2도 적의 사격으로 인해 중상을 입었다.[190]

곧이어 적의 박격포탄이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이 포격으로 아군의 전술항공통제반 무전차량과 대대 지휘차량이 파괴됨으로서 대대지휘 조차 마비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09시 45분경 2개 편대의 항공기가 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공에 출격하였으나, 지상의 무전기가 파괴되어 연락도 못한 채 돌아가 버렸다.

적은 한때 제3대대가 혼란에 빠져 있음을 알아 차렸는지 맹렬한 포격의 지원을 받으며, 도로의 우측능선을 고수하고 있는 모리세이 소대로 쇄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대는 그들의 공격을 수차례 진전에서 격퇴하면서 K중대의 공격에 가세하는 여유마저 보였다.

이때 쇠고개의 좌측능선에 배치된 L중대 주력도 물밀듯이 밀려드는 적을 맞아 일진일퇴의 치열한 격전을 전개하였다. 중대는 그들을 감제할 수 있는 지형적인 이점과 중대장 샤라 대위의 불퇴전의 지휘에 힘입어 당면한 적을 격퇴시키고 맞은쪽 모리세이 소대에 집요하게 달라붙는 적을 격퇴하였다. 뿐만 아니라 L중대장은 K중대의 좌측소대가 이탈하여 L중대 쪽으로 밀려 내려오자 "본대로 돌아가 181고지를 확보하라"라고 호령하였다. 12:00시 무렵 그는 L중대 부관 필립스 중위로부터 그동안 행방불명되었던 모트 대대장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보고 받고 즉시 달려갔다. 이때 대대장은 그에게 대대의 지휘를 위임하면서 적으로부터 대대를 철수시키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각 부대와 연락이 두절된데다 각각 격전의 도가니 속에 묻혀 지휘가 마비된 상황이었다.

샤라 중대장은 우선 손실이 격증되고 있는 자신의 중대만이라도 우선 이탈시켜 재기할 것을 결심하고 계동으로 철수명령을 하달했다. 그러나 쇠고개 우측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나가 있는 모리세이 소대에게는 미처 연락하지 못하였으나 소대는 뒤에 단독행동으로 적중을 빠져나와 합류하였다.

K중대는 181고지를 장악하기 위하여 49고지로부터 산개하여 약진 또 약진하였다. 중대가 고지 중턱에 이르렀을 때는 쇠고개에서 격전을 치른 L중대 모리세이 소대가 적의 우측으로 공격을 가하여 목표의 탈취가 비교적 용의한 듯하였다. 그러나 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병력과 화력이 점차 증강하여 중대의 진출은 7부 능선에서 돈좌된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대대 S-3 플린 대위는 부대대장마저 진주로 후송되자 이 위기를 직접 타개하기로 다짐하고 계동으로 달려갔다. 그는 중화기중대로 하여금 K중대의 공격을 지원하도록 한 뒤에 I중대를 찾아 L 및 K중대 사이에 투입하였다.

이리하여 K 및 L 중대는 중화기중대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적이 진지를 보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 양 중대는 얼마 후 적의 화망에 걸려 고립된 상태에서 분산되었고 마침내는 양 중대장마저 행방불명되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양 중대 병력은 결국 계동으로 분산 철수하고 말았다. 한편 K중대의 좌측에서 병진 공격하던 L중대 모리세이 소대는 일진일퇴의 격전을 치르며 목표인 181고지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소대는 K중대와 L중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공격개시선으로 물러나 쇠고개 우측능선을 고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무렵 소대원 중 남아 있는 병력은 소대장 모리세이 중위 이하 12명이었으며 탄약도 개인당 수발씩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소대가 몰려드는 적에게 몇 발 남지 않은 수류탄으로 결사 대항하던 중 대대 S-3 프린 대위가 적의 집중적인 사격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올라가 소대를 구출하여 계동으로 철수하였다.[191]

한편 제30연대장 김용주 중령은 채병덕 소장의 최후를 지켜본 다음, 곧 격전 중인 L중대의 후사면을 가로질러 161고지로 달려갔다. 적과의 교전이 치열해짐에 따라 연대는 노출된 상황 하에서 적의 집중적인 박격포 사격을 받았다. 병사들은 적의 사격을 피해 우왕좌왕 분산되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사상자가 속출하였다.[192]

연대장은 이 고지를 고수하지 않으면 적에게 미 제3대대의 좌측방이 돌파되는 위기에 처할 것으로 판단하고 반드시 적을 방어하도록 독전하였고, 국군 제30연대는 많은 사상자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그들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제30연대 예하 병사들은 호남과 영남 각 지역에서 모병한 훈련되지 않은 신병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촌토를 놓고 용감하게 혈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우일선의 미 제3대대가 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동요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갑자기 병사들이 대열에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연대장 김용주 중령은 "우리가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들이 지켜야 할 땅은 바로 여기다!"라고 외쳐 일부의 병력을 되돌려 놓기도 하였으나 병력이 반감된 데다 탄약마저 떨어진 상태에서 고지를 지탱하기 어려웠다. 그는 더 이상의 고수는 병력의 손실만을 자초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후일을 도모하기로 다짐하고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 때 우일선의 미 제3대대 주력은 계동으로 축차적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동 연대는 끝내 전열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하나, 둘씩 각개로 분산된 상태에서 진주로 빠져 나갔다.

미 제29연대 제3대대가 적의 공격으로 쇠고개로부터 무질서하게 이탈하여 분산철수하게 되자 곧이어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추격전을 전개하여 계동으로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L중대장 샤라 대위는 계동에 이르러 중대를 수습하였는데, 그는 L중대만이 그곳에 남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으로 출발하여 진주로 향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L중대는 하동으로 가고 있던 미 제13포병대대의 B포대를 만났는데, B포대장은 연대장의 명령을 받고 제3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08:00시경 진주를 출발하였으나 도로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정찰을 반복하느라고 몇 번이나 전진을 멈춰가며 더듬어 왔기 때문에 지체되었다고 하였다.

포대장은 L중대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적정과 아군의 상황을 듣자 진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포대는 그곳에서 바로 포를 돌리다가 105밀리 야포 1문과, 견인차 4대가 논두렁에 빠져 하는 수 없이 적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포의 공이를 뺀 후 L중대와 함께 진주로 돌아가고 말았다.[193]

한편, 대대 S-3 프린 대위는 L중대의 모리세이 소대를 이끌고 계동에 이르자 그곳에는 중대장을 잃은 I중대와 K중대의 병력 60여명이 모여 있어 이들과 부대를 정비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이때 규모를 헤아릴 수 없는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고 분산되었다. 프린 대위는 사병 10명을 이끌고 28일 아침 진주에 도착하였다.

또한 I중대의 어프리게이트 상사는 99명의 병사를 이끌고 횡천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하동 동남쪽 18㎞ 지점인 노량진에서 어선을 타고 여수로 갔다. 그는 여기에서 구사일생으로 한국 해군의 초계정에 구출되어 부산으로 수송되기도 하였다.[194]

이날 아침에 제19연대 G중대장 바잣 대위는 무어 대령으로부터 진주~하동 간의 공비들을 소탕하며 후방지역 경계에 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중대원 78명을 차량에 분승시켜 하동으로 향하던 중 옥정리(원전 서쪽 4㎞)에 이르러 분산되어 내려오는 L중대의 잔여병력 50여명과 만났다. 그들은 개천을 건너고 논바닥을 헤쳐 오는 바람에 대부분의 병사들은 내의와 신발 이외에는 걸친 것이 없었고 무기는 M1과 권총 각 한 자루뿐이었다. G중대장은 더 많은 낙오병이 내려올 것이라는 병사들의 말에 따라 중대를 그곳 도로 양쪽에 경계병을 배치하여 수습할 태세를 갖추었으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날(28일) 04:00시 무렵 G중대는 제19연대 제3대대 작전장교인 몬테스클라로스 대위로부터 진주 서쪽을 방어하라는 맥길 대대장의 명령을 전달받고 복귀하였다.[1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전투 결과

제19연대장 무어 대령은 이날(27일) 오전까지도 하동 진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오후에 후송된 제29연대 제3대대 부대대장 레이블 소령이 보고를 하였을 때도 낙관적으로 보았다. 그런데 무어 대령은 뒤에 속속 도착하는 탈출한 장병의 말을 듣고 비로소 전황의 전모를 알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사단장 처치 소장에게 즉시 하동 전투상황을 보고하고 불가불 그의 승인 하에 일단 하동 전투는 매듭짓지 않을 수 없었다.

하동 쇠고개 부근 기념공원(가운데 고 채병덕 장군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이로 말미암아 원전동~곤양 서측지역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 제19연대장은 즉각 제29연대 제3대대의 수습에 나서 대대의 잔존병력 354명을 재편성하여 K 및 L중대로 보충하고, 뒤이어 29일에는 K중대를 제19연대 제2대대로, 그리고 L중대를 제19연대 제1대대로 각각 배속하였다.

이날 단 하루의 하동부근 전투에서 아군은 많은 손실을 보았다. 한국군으로서는 전 총참모장이며 경남지구 편성관구사령관 채병덕 소장의 전사와 김용주 중령이 지휘하는 제30연대 50여명이 전사하는 희생을 치렀다.

미군의 손실은 이때 최초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전사 2명(K 및 M중대장), 부상 52명(이중에는 대대장, 부대대장, 대대 S-1 및 S-2가 포함), 행방불명 349명이었고 장비는 차량 30대와 전 공용화기 및 전 통신장비, 그리고 개인화기였다.[196]

그런데 이해 9월말에 미 제25사단이 하동을 수복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동부근에서 313구의 미군시체를 발견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계동과 두전동 사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의 개천과 논바닥에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병력들이 대부분 적에 의해 희생되었던 것이다. I중대장은 적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해 10월에 평양에서 탈출에 성공하여 원대로 복귀하였다.[197]

3. 진주 전투

1) 방어준비 상황

미 제8군은 7월 28일 아군 방어선의 서측방, 즉 거창과 진주 방면으로 2개 사단규모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굳히지 못하고 다만 북한군 제4사단이 진주방면으로 신속히 동진하고 있다는 정도로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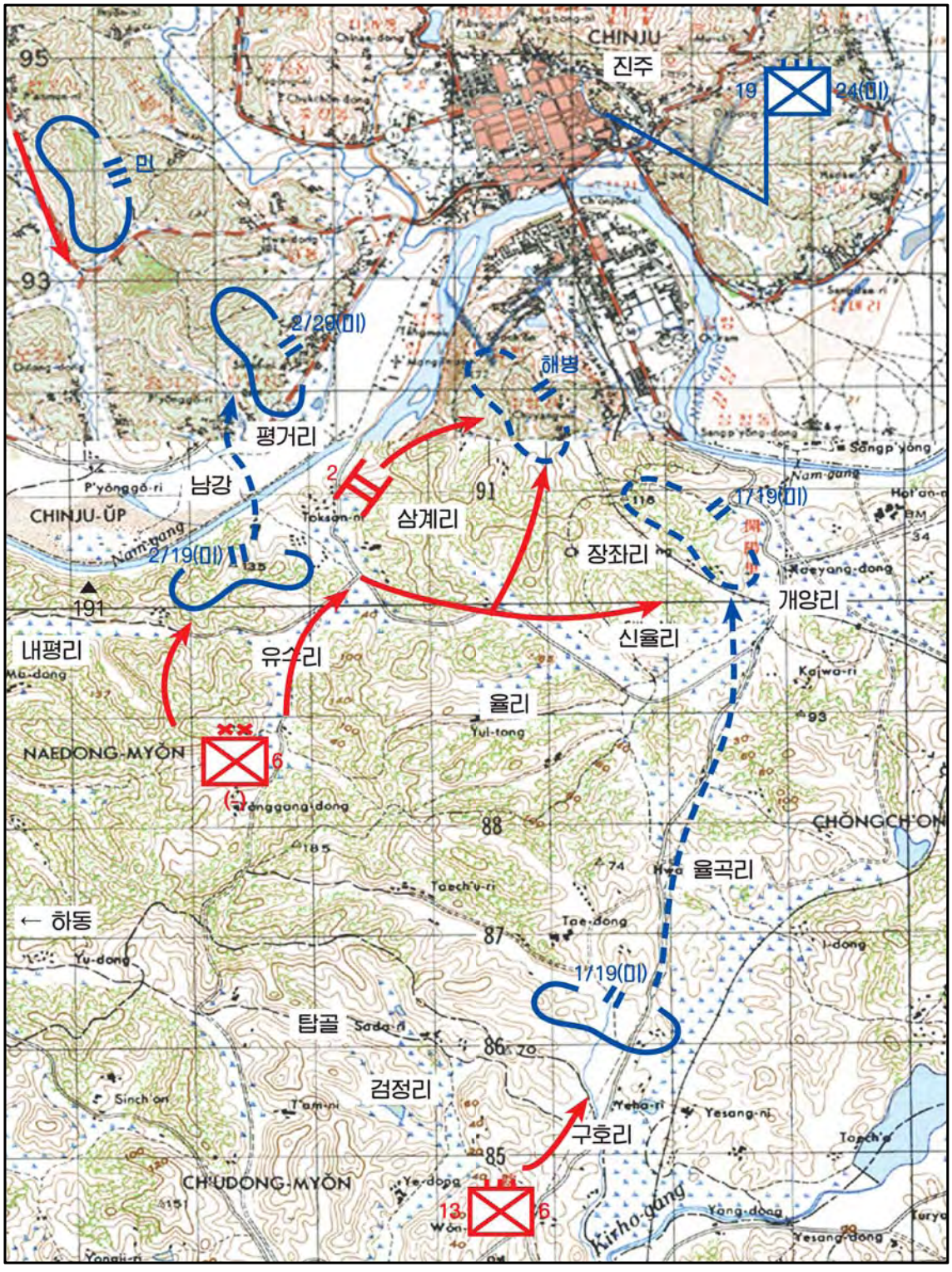
이리하여 미 제8군은 이에 대한 조치로 전력이 반감된 미 제24사단의 주력부대를 서측방으로 급파하였다. 그러나 이 방면의 북한군은 최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는 제4사단과 제6사단이었다. 이들은 한·미 양군이 대구정면에 주력을 두고 힘겨운 방어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서측방의 엷은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기도하였고, 이미 제6사단은 그 선발대를 진주 서쪽 12㎞ 지점인 원전까지 투입함으로써 진주가 일순간 풍전등화의 위기에 휩싸이게 되었다.[198]

이 무렵에 진주부근의 방어준비 상황은 미 제19연대 지휘부가 읍내에 위치하여 제2대대 G중대를 원전동에 배치하여 진주가도를 차단하고 있었으며 연대 주력을 안의에서 진주로 추진시키고 있었다. 하동부근 전투에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철수한 미 제29연대 제3대대는 읍내에서 재편 중이었으므로 전투력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199]

한편 민 부대와 미 제29연대 제1대대는 안의에서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을 지연하면서 진주 서북쪽으로 철수하고 있었고, 하동으로부터 분산 철수한 이영규와 김용주 부대는 부대 명칭을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와해되어 재편성을 시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6-18> 진주 전투(1950. 7. 28~31)



하고 있었다. 따라서 진주가 위기에 처하였을 무렵 진주 부근에는 건제가 유지되고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국군 부대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200]

미 제19연대장 무어 대령은 7월 28일 정오 연대의 주력이 진주로 집결하자 방어 공백지대나 다름없는 진주 가도로 접근하고 있는 북한군 제6사단에 대처하기 위하여 즉시 제19연대 제1대대를 구호리, 제2대대를 원전동, 그리고 제29연대 제1대대는 안의, 제2대대는 진주읍으로 각각 진출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201] 이리하여 7월 28일 13:00시에 미 제19연대 예하 각 부대는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미 제19연대 제2대대는 현지 정찰결과에 따라 1개 중대를 원전으로 진출시켜 추진 진지로 삼고, 주력은 유성리에 배치함으로써 좌일선 제1대대와 연결하였다.

이무렵 한국 해병대는 20시 30분에 민기식 부대장으로부터 "해병대는 전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진주로 이동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도보 행군으로 이날 16시 40분경 진주에 도착하였고 금성초등학교에서 부대를 정비하였다.[202]

2) 원전~유수리 상황

북한군은 7월 29일 10:00시 무렵 1개 대대 규모가 모터사이클 3대를 앞세우고 미 제29연대 제2대대 진전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진주가도를 따라 대대 추진 진지인 원전 동쪽 1㎞까지 접근하였다.[203] 북한군은 진주에 이르기까지는 아군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음인지 특별히 전위 경계병도 세우지 않고 접근하고 있었다. 이곳을 방어하고 있던 F중대는 사전에 준비한대로 즉시 중화기 중대와의 협동으로 적에게 사격을 집중하였다. 기습사격을 받은 적의 선두부대는 많은 피해를 입고 분산 퇴각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적은 아군의 방어진지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수의 병력을 앞에 내세워 F중대를 견제하고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을 F중대 북쪽으로 우회하여 아군의 퇴로를 차단하려 기도하였다.

F중대장은 대대장 맥그레일 중령에게 교전상황을 보고한 뒤에 그의 명령에 따라 가도와 병행한 남쪽 능선으로 철수하여 유수리(원전동 동쪽 7㎞)에서 본대와 합류하였다. 이날 제19연대 제2대대의 좌일선인 제1대대(대대장 리 중령) 지역에서는 적과의 접촉이 없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상공에 나타난 아군 항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기는 유수리 서측에서 활동하는 북한군의 차량과 행군종대를 폭격하여 200여 명을 사살하고 차량 25대를 파괴함으로써 적의 진출속도를 지연시키는데 기여하였다.[204]

한편 29일 새벽에 전쟁 발발 이래 최초로 포울러 중위가 이끄는 M-26(Pershing) 중형 전차 3대가 진주에 도착하였다. 제19연대장 무어 대령은 천군만마의 증원을 얻은 것같이 기뻐하였으나 포울러 중위의 설명을 듣고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즉, 이 전차들은 개전 4일째인 6월 28일에 미 제8군 병기참모 위닝스테드 대령이 동경에 소재하는 병기창고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그는 이 전차들을 긴급히 수리하여 7월 16일에 부산항으로 보냈으나, 이 전차들은 팬벨트가 낡아 과열되기 일쑤였고 장거리 주행이 곤란하였다. 사실 이 전차는 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205]

한편 민 부대가 축차적인 지연전을 수행하면서 산청에 이르렀을 때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의거 국군 제17연대(연대장 김희준 대령)도 산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206] 국군 제17연대는 이날(29일) 늦게 진주로 진출하여 사촌리~판문리선에 연하여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민 부대는 지휘소를 진주 서북 2㎞ 지점인 유곡동에 위치하였고 제3연대(연대장 박현수 중령) 병력으로 주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즉, 제2대대(김병화 소령) 병력 700여명을 산청으로부터 사촌리~우수리에, 잔여병력 제1 및 제3대대 병력은 제2대대 좌우에 각각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들 병력들은 소화기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무렵에 민 부대 예하 제3연대장 박현수 중령이 채병덕 소장을 수행하다가 하동에서 부상을 당하여 마산으로 후송되었고, 함양에 위치한 민 부대장은 제9연대장 유해준 중령으로부터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채 소장의 명령을 전달받았다. 제9연대의 병력은 여수에서 선박 편으로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또한 제30연대장 김용주 중령은 하동부근 전투를 치룬 뒤 진주를 거쳐 마산으로 향하였다. 따라서 민 부대 예하부대 가운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병력은 김병화 소령이 지휘하는 제3연대 제2대대뿐이었다.

이날(29일)부터 민 부대는 미 제19연대장 무어 대령의 작전통제 하에 들어갔

다. 민 부대 병사들은 각 지역에서 모병한 신병이었기 때문에 훈련이 전무한 상황이었고, 계속된 전투와 행군 그리고 보급이 미흡한 실정으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다.[207]

3) 내평리~평거동 상황

미 제19연대는 7월 30일 미명, 2개 연대규모의 북한군이 진주를 남·서 양면으로 포위하기 위해 접근해 옴으로써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날 연대는 사단으로부터 신병 775명을 보충 받고 날이 저물기 전에 소대까지 긴급히 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충 병력이 잠시라도 중간제대에 머물 시간이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반영한다.[208]

그러나 이들 신병들은 전투가 한창일 때 진지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중대진지에 이르기도 전에 전사상자와 실종자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도리어 기존 병력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 제19연대 제2대대(대대장 맥그레일 중령)는 내평리~유수리 간을 방어하고 있었다. 대대는 이날(30일) 새벽부터 진지를 보강하던 중 08:00시경 연대로부터 한 무리의 적이 대대를 우회하여 가화리(진주 서북쪽 8㎞)로 진입하고 있다는 적정을 통보를 받았다.

대대장은 대대 후방로가 차단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내평리 남쪽 500m 191고지 앞에 나가 있던 G중대장 바잣 대위로부터 1개 연대규모의 적이 정곡리(유수리 서쪽 3㎞)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 맥그레일 대대장은 당면한 적이 대대 화기의 사정거리 밖에 있음을 알고 G중대장에게 적을 계속 감시하도록 명령하였다.[209]

이때 상공에는 아군 공군기 편대가 선회하고 있었다. 그는 전술항공통제반으로 하여금 즉시 폭격을 요청하도록 했으나, 항공기로부터 "강우로 말미암아 적을 판별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대대장은 다시 황급히 연대에 지원포격을 요청하였으나, 설상가상으로 포병 대대로부터도 포탄이 고갈되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19연대 제2대대는 큰 위기 속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연대장으로부터 "귀대는 주력을 남강 북안의 평거동으로 이동시켜 급편진지를 편성하고 일부 병력으로 하여금 적과 접촉하면서 축차적으로 이탈하라"라는 철수명령을 받게 되었다. 무어 대령은 산청으로 이르는 통로가 봉쇄되었다는 첩보를 중시하고 서쪽과 남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양 대대를 뒤로 철수하게 하여 좀 더 밀도 있는 진주 방어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 조치에 따라 제19연대 제2대대는 추진진지에 나가있던 G중대의 엄호 하에 주력은 철수하여 판문리~평거동 간의 진지를 점령하였고 뒤이어 G중대는 전면의 적을 격퇴하면서 저녁 늦게 본대와 합류하였다.

G중대의 뒤를 추격한 북한군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일제히 보·포 특히 자주포와의 협동작전으로 제2대대 방어진지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였다.[210] 그리하여 대대는 다음날(31일) 02:00시에 이르기까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치열한 격전을 전개하다가 통신이 두절되어 고립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 대대 내에는 적의 전차가 진주에 침입하였다는 풍문이 나돌아 더욱더 병사들의 사기는 저하되었다.[211] 대대는 31일 새벽 대대진지 일각이 무너지면서 축차적으로 평거동을 철수하였다.

4) 구호리~개양동 상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19연대 제1대대(대대장 리 중령)는 7월 30일 08:00시경부터 적의 집중포화를 받았는데 미 제13포병대대가 즉각 포격을 집중함으로써 포격전의 양상을 띠면서 전장의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였다.[212]

북한군은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08시 20분경 1개 연대규모의 병력이 검정리~탑골에 전개하여 파상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제1대대의 방어진지는 적의 포격에 의해 상당부분 상실되었고 각 교통호마다 빗물로 가득 차서 방어에 큰 장애를 겪었다. 적은 전면의 야지를 횡단하여 아군 방어진지로 돌격해 들어왔다.

미 제19연대 제1대대는 금강방어전에서 경험 있는 병사들이 중심이 되어 침착하게 적의 파상공격을 몇 차례 격퇴하였다. 그러나 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여 계속적인 충격을 가하여 대대의 사상자가 증가되었다. 이

무렵에 제1대대장 리 중령은 연대장으로부터 “개양동~신율리선으로 철수하여 적을 저지 격멸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 대대는 계속 공격을 가해오는 적에게 일격을 가한 후 잠시의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현 진지를 이탈하여 질서 있게 차후진지로 철수하였다. 대대는 마산 가도와 사천을 감제할 수 있는 능선에 포진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마침 이 무렵 국군 김성은 해병대대가 대대 우일선으로 전개하여 연결하게 되었다.[213]

북한군은 대대의 진지편성을 방해하려는 듯 맹포격을 집중하여 교란하였다. 이에 반해 미 제13포병대대는 대대가 진지로 진출할 때 이미 포탄이 소진되어 지원사격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다.

한편 리 대대장은 당면한 북한군이 우일선의 해병대대 지역으로 우회하고 있음을 보고 받았으나 해병대가 진전으로 공격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군간의 오인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격을 중지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이 조치는 적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고 말았다.[214] 리 중령의 조치는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해병대대는 연대장으로부터 공격을 명령받은 바도 없었을 뿐 아니라 부대의 전력상으로 보아 공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다. 뒤늦게 착오임을 알게 된 리 중령은 그때서야 대대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진전으로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였다.

한편 국군 해병대대는 30일 01:00시부로 민 부대로부터 미 제19연대에 배속이 변경됨과 동시에 무어 대령으로부터 신율리~망진산 간의 방어 임무를 부여받았다. 해병대는 읍내 금성초등학교에서 휴식을 마치고 출동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미 제19연대로부터 기관총 8정과 무전기(SCR-300) 3대를 지급받았다. 이것은 미군에게서 받은 최초의 장비였고 처음 만져보는 장비였으므로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향상시켰다.

해병대대는 30일 13시 40분에 진주교를 건너 진주역에 이르렀으며, 15시 40분경 각각 저지진지를 점령하였다. 김성은 중령은 신율리~망진산 사이에 좌로부터 우로 제3중대와 제1중대를, 그리고 그 중앙의 뒤에는 지휘부와 예비 제2중대를 배치하였다. 이때 해병대의 좌일선은 미 제19연대 제1대대와 연결하였다.[2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진주 망진산 일대의 전경

북한군은 16:00시 무렵 공격준비사격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15분 후 북한군 1개 연대가 좌일선 미군지역으로 접근해 옴에 따라 치열한 사격전이 전개되었다. 김 중령은 망진산의 전술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전면 방어태세를 갖추면서 배치상태와 화망을 재점검하고 있었다. 이 때 1개 대대규모의 적이 미군의 강력한 화력에 밀려 망진산으로 몰려들었다. 김 중령은 망진산 남쪽 500m지점의 무명고지로 투입하였던 수색대를 복귀시켜 즉시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해병대대는 17:00시경 적이 접근하자 사격을 집중하여 적을 저지하였다. 적은 처음에는 주춤거리며 밀리는 듯하였으나, 잠시 뒤 병력을 보강하여 역습을 가해 옴으로써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었다. 사격전은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졌고 급기야 백병전까지 전개되었다. 대대는 비록 병력과 장비가 열세한 상황이었으나, 유리한 지형과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야음, 그리고 폭우 등을 적절이 이용하여 방어진지로 접근하는 적을 번번이 저지하였다. 해병대는 무명고지의 후사면에서 밤이 새도록 집요하게 공격하는 적을 모두 격퇴하여 마침내 주저항선을 고수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민기식 부대장은 30일 08:00시경 미 제19연대장으로부터 수 미상의 북한군이 진주 서북 8㎞ 가화리에 진출하였다는 적정을 통보받고 예하부대에 경계를 강화하도록 강조하는 한편 진지보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216] 이 무렵 민 대령은 산청부근에서 지연전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미 제29연대 제1대대(대대장 윌슨 중령)의 철수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 즉시 제3연대장 대리 이원익 중령에게 1개 중대를 차출하여 3번 도로(산청～진주 간)를 개통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명령이 미 제19연대장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 명령을 받은 제3연대 제2대대장 김병화 소령은 자신이 직접 지휘하기로 결심하고 31일 01:00시경 조재준 중위가 이끄는 1개 중대를 지휘하여 산청을 향해 이동하였다.

중대는 야음 속에서 행군을 계속하여 용산리(가화리 동쪽 1.5㎞)에 이르렀다. 중대는 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계속 서북진하여 단성부근까지 진출하였으나 적군은 물론 아군(제29연대 제1대대)의 상황도 파악할 수가 없었다. 김병화 소령은 여기까지 진출한 것으로써 임무가 달성되었으며, 더 이상 약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복귀를 결심하였다.[217] 그는 적에 의하여 퇴로 차단이 염려되어 날이 밝기 전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하여 중대는 급속행군으로 06:00시경 주진지 전면에 이르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때 김병화 소령은 복장이 이상한 병사들이 진지전면을 배회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즉시 "너희들은 어느 부대냐?"라고 고함을 지르자 그쪽에서 "경찰이다"라고 응답해 왔다. 이때 뒤에 있던 부대대장 장태명 대위는 그들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중대장 조재준 중위와 함께 엄호태세를 갖춘 채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김병화 대대장은 별다른 경계 없이 다시 "어디 경찰이냐?"라고 되묻자 그들로부터 오히려 "넌 누구냐?"라는 소리를 들었다.

장 대위는 "이놈들아 라바울(태평양전쟁 라바울 전투에 참전하여 얻은 별명)도 몰라보느냐? 대대장이란 말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기습적으로 사격을 가해왔다. 갑자기 사격을 받은 중대는 큰 피해를 입은 채 각개

분산되었으며, 대대장마저 행방불명되고 말았다.[218] 중대는 함안으로 분산 철수하여 겨우 본대와 합류할 수 있었다.

한편 북한군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이 31일 06:00시경 진주 서북 2.5㎞ 지점의 사촌리로 진출하여 제3연대(연대장 대리 이원익 중령)의 주진지를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주진지에는 연대주력인 제2대대(대대장 김병화 소령)가 연결 임무를 띠고 이미 빠져나간 후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병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219]

더구나 좌일선(판문리~평거동 간)으로 연결하였던 미 제19연대 제2대대(대대장 맥그레일 중령)가 북한군 1개 연대규모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다.[220] 대대는 일진일퇴하는 각축전을 벌이다가 05:00시경 주저항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에 민 대령은 접적 이탈하여 의령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앞서 화개장 전투 이래 진주에서 재편성을 하고 있던 이영규 부대(병력 100명 미달)는 31일 04:00시경 민 부대장으로부터 죽산~기동 간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고 부대를 전개하였다. 이 명령은 마산에 이르는 유일한 후방로를 경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영규 부대는 퇴로를 경계하다가 진주방어 부대가 철수한 뒤를 이어 09:00시경 의령으로 빠져나갔다.

5) 진주의 피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 제6사단은 주력을 진주를 향하여 아군 서측으로, 그리고 일부의 병력을 북쪽과 남쪽으로 투입하여 각각 삼면에서 포위망을 형성하였다. 7월 31일 미명부터 적이 공격을 개시하면서 격전이 전개되었으나 전세는 아군에게 크게 불리한 국면이었다.

판문리~평거동 간을 방어하던 미 제19연대 제2대대는 북한군 1개 연대규모의 공격을 맞이하여 40여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밤새 치열한 근접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날이 밝아오면서 북한군은 전차와 SU-76 자주포를 평거동 동쪽 2㎞ 지역의 안골에 추진 편성하여 대대의 측방을 강타하기 시작하였다. 맥그레일 대대장은 더 이상의 지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G중대로 하여금 탈출로를 개척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대대 주력은 05:00시 무렵 G중대의 엄호 하에 진주로 철수

하기 시작하였다.[221]

한편 진주 지역의 상황을 주시하던 무어 연대장은 진주 방어가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판단하고 사단장 처지 소장에게 절박한 상황을 보고하여 부대철수를 건의하여 허락받았다. 이에 사단장의 철수 명령에 따라 06:00시경 예하대대 및 배속부대에게 군북과 의령 일대로 철수하라는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222]

이 무렵 진주 읍민들이 부대의 철수계획을 알아차리고 술렁이기 시작하였고 피난민들이 도로를 가득 메워 부대 철수를 어렵게 했다.[223] 각대는 은밀히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며 접적 이탈하여 차후 목표인 의령과 군북을 향하여 각각 이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국군 해병대와 미 전차대는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악전고투의 상황을 겪어야 하였다.

한편 망진산을 방어하던 국군 해병대대(김성은 중령)는 7월 31일 03:00시경부터 좌일선 미 제19연대 제1대대(대대장 리 중령)가 적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격전을 치루고 있는 것을 보고 더욱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2시간이 지나 미 제1대대의 총격전이 그쳤고 갑자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224] 얼마 후 북한군은 망진산 서남 1㎞ 지점의 안골로 전차와 SU-76 자주포를 배치하여 1개 대대규모의 보병과 함께 해병대 진지를 공격을 가해왔다.[225] 이러한 가운데서도 해병대는 전면방어 태세를 흩뜨리지 않고 철로를 따라 진주로 접근하려는 적에 대해 사격을 가하면서 저지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러나 해병대대는 07시 30분경부터는 강 건너 신안 동쪽으로 북한군 행군대열이 이미 진주로 진입하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이 무렵 진주읍에는 총성은 들리지 않았으나 도처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어 적이 이미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김성은 중령은 이때 비로소 아군이 진주를 포기하고 철수하였음을 알았다. 통신이 두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수명령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그는 명령 없이 진지를 이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진지를 점령하다가 09시 30분 임의로 철수를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해병대대는 망진산 동록의 일부의 적을 물리치면서 군북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처음으로 한국전장에 투입된 3대의 미군 전차대는 진주역 부근에 위치하여 미 제19연대 제1대대의 철수를 화력 지원하고 있었다. 포울러 중위는 무어 연대장으로부터 "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다가 전차를 후송할 수 없으면 파괴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226] 포울러 중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차를 유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제1대대가 철수한 뒤에도 사격을 가하여 적의 추격을 저지하였다. 이때 그는 왼팔에 적의 총탄이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팔을 압박붕대로 응급조치를 한 후 선두전차에 탑승하여 대원들을 독전하면서 마산을 향하여 질주하였다.

전차대가 장좌동(개양동 동북쪽 1㎞)앞 교량에 이르러 교량이 파괴되었음을 발견하고 "이 이상 전차를 약진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적에게 전차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 전차 대원들에게 폭파하도록 명령하였다. 승무원들이 즉시 하차하여 파괴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교량 밑에 잠복하고 있던 수미상의 적으로부터 기습사격을 받았다. 갑자기 사격을 받은 전차대 병사들은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전원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으며 포울러 중위도 전사하고 말았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다행히 샤퍼 상사만이 탈출에 성공하였다. 그는 적이 사격을 가해오자 재빨리 후미 전차에 뛰어올랐고 뒤로 돌아 진주교로 질주하였다. 그가 교량을 통과하려 할 때 수명의 적병이 앞을 가로 막으며 사격을 가하자 곧 전차를 정지시키고 사격을 집중하여 적을 일시 격퇴시켰다. 그는 다시 빠져나가기 위해 전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과열로 동작불능이 되자 하는 수 없이 전차를 포기하고 적중을 돌파하여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2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전투 결과

미 제24사단장 처치 소장은 7월 31일 진주를 적에게 내어주게 되자 새로 배속받은 미 제25사단 제27연대(연대장 마이켈리스 대령)를 진동리에 배치하는 한편, 진주에서 철수하는 병력을 군북에서 수습하여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 처치 소장은 31일 야간 마산 서북 5㎞ 지점의 중리에서 제19연대장 무어 대령과 제27연대장 마이켈리스 대령을 함께 불러 무방비상태인 마산 가도로 접근하는 북한군

을 현선에서 격파하도록 명령하였다.

진주부근 전투를 마치고 삼삼오오로 군북에 집결한 국군 각 부대는 그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병사들의 피로, 부족한 보급, 그리고 소총도 없는 대부분의 병력 등으로 인하여 이미 전력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도 처참한 상황이었다. 적측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군 제6사단은 미군 전사상자 500여명, 야포 및 박격포 9문, 전차 4대, 차량 8대 등을 노획하였으며, 전차 3대가 격파 당하였다고 기록하였다.[228)]

육군본부에서는 상황의 긴박함으로 인해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속히 분산된 각 부대를 단일 지휘관 밑에 재편성해야 했다. 육군본부는 미군과의 연합작전으로 현재 동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북한군을 최대한 방어하기로 하고 즉시 이응준 소장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날(31일) 미군과 한국군 부대들은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모든 유엔 지상군에게 "8월 1일을 기하여 낙동강선으로 철수하라"고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마산 서측으로 철수해 새로운 방어선을 갖추게 되었다. 민 부대는 미 제24사단 제19연대와 군북선에, 그리고 해병대는 미 제25사단 제27연대와 진동리선에서 각각 진지를 점령하였고 오 부대, 이 부대, 김 부대는 후방지역 경계임무로 전환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5 절 분석 및 평가

호남 지역의 군·경 합동부대들은 북한군 제6사단의 호남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압도적인 전투력의 열세로 11일 만에 전 지역을 적에게 넘겨주고 말았고, 이어 영남 서부지역에서 미 제24사단이 국군과 함께 함양~거창 방면과 하동~진주 방면에서 각각 적을 지연하였으나 많은 피해를 입고 물러섰다.

결국 서남부 지역의 민기식 부대 등 한국 군경과 미 미제24사단 예하부대들은 7월 31일 미 제8군의 철수명령에 따라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하여 적을 계속 방어하게 되었다. 그러면, 본 절에서는 호남지역 전투에서부터 진주 전투까지의 내용 가운데 교훈적인 측면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몇 가지로 나누어 분석 평가하기로 한다.

첫째 호남지역에서의 지휘체제 혼란 문제이다. 최초 육군본부는 호남지역 방어를 위해 1950년 7월 17일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신태영 소장)를 편성하고 또 그 예하에 전북·전남 편성관구사령부, 그리고 제5사단과 제7사단 등을 다시 둠으로써 지휘체계상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편성관구라는 직책은 내용에 있어서 그 한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또 옥상옥의 격으로 사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편성관구의 임무는 대체로 민간 인력의 군전력화, 총력전 태세의 강화, 정부재산의 소개와 반출, 징발업무, 민방공 대책과 주민소개, 계엄령하의 군정업무 등이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계엄령상의 책임자는 사단장이었으며 임시로 편성한 편성관구사령관의 소관이 아니었다. 당시 편성관구는 법무계통이나 경찰계통의 법적 호응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한편 민 부대 예하부대들도 지휘통제상 많은 혼란을 겪었다. 민기식 대령은 남원전투 때부터 김병화 부대 외에 김성은 부대와 오 부대를 통합 지휘하였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나, 그 권한이나 한계가 모호하여 동일 작전을 수행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을 겪었다. 특히 오부대의 경우에는 배속관계가 명확치 못하고 육군본부의 조치마저도 혼선을 빚게 하여, 민 부대가 당면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일관된 지휘체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당초부터 오 부대는 민 부대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출동하고 있어서, 시종 육군본부로부터의 직접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

더구나 육군본부는 채병덕 소장에게 민 부대를 지휘하도록 하였으나, 통신의 두절로 말미암아 실제에 있어서는 동 전투가 끝날 때까지 지휘체제는 정비되지 못한 상태였다. 육군본부는 민 부대(신편 제7사단)를 휘하에 두고 있던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에 대한 별단의 조치 없이 민 부대에게 직접 명령을 하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당시 육군본부는 민 부대를 직할부대로 편성하는 즉시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에 대하여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야 했다.

둘째, 전장에서의 지휘관의 위치문제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 일국의 총참모장으로써 전군을 지휘하던 채병덕 소장이 예하 병력 없이 미군 1개 대대의 안내장교로 자처하였다가 전사한 사실은 동서고금의 전쟁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당시 채 소장은 영남 편성관구사령관 겸 경남지구계엄사령관이란 직책을 갖고 있었으나 하동지역으로 갔을 때 예하병력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전장에서 지휘관의 위치에 대하여 명문화된 것은 없지만 통상 지휘에 편리하고 명령전달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며 그의 위험이 군 전체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귀하는 패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귀하는 선두에 나서 적을 격퇴하여야 한다”라는 서한을 받고 죽을 각오로 전장의 전면에 임했지만, 그의 전사는 국군뿐만 아니라 미군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적의 사기를 올려 주는데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전사 사실은 군내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셋째,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한 전세에 관한 발언은 자칫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군 지휘부 일각에서 대전 전투 전후 무렵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남북도는 안전한 지대이다”라고 발언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었다. 군 고위당국자의 근거 없는 판단이 미 제8군에게도 반영되어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한 요인이 되었다.

넷째, 아군 지휘부는 호남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이 무렵 북한군은 제6사단이 호남지역을 점령한 다음 마산방향으로, 북한군 제4사단이 안의~거창방면으로 기동하여 미 제8군의 서측과 후방을 위협하고 있었으나, 미 제8군은 북한군 제6사단의 기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어 이때까지도 서남부방면에 북한군 2개 사단이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덕유산~지리산~백운산선이 공자와 방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충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군 지휘부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아군은 장계리~안의 간에 단 한 명의 병력도 배치하지 못하였으며, 순천~하동 간도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워커 장군은 뒤늦게 전선 서측이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적정을 비로소 파악하고 즉시 당시 대전 방어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재편성중인 미 제24사단을 서남방에 전용 배치하도록 조치하였다. 육군본부도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전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을 영남 서부지역으로 급파하여 적을 저지하도록 했으나, 그것은 그저 임기응변의 지시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북한군은 아군의 취약한 방어배치로 인하여 덕유산~지리산~백운산선을 잇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별다른 저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영남지역으로 진출하였으며, 결국 아군은 함양~거창부근과 하동~진주부근 일대에서 적을 맞이하여 치열한 접전을 벌여야만 했다. 미 제8군은 거창전투가 종료된 직후에야 비로소 북한군 제4사단이 대구 서방측을, 그리고 북한군 제6사단이 진주, 마산을 각각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필 : 양영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 (註)

1)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Branch,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orth Korean Army, General History of NKA Units* (1950.10.15), SN818;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신오성, 2001, p. 290.
2)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199.
3) UNC, *G-3 Daily Operations Reports No.27*(1950.7.21)~*No.37*(1950.7.31), NARA RG-7(군사편찬연구소 자료등록 번호 MF000094, 이하 같음);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 C.: GPO, 1961), 육군본부(역),『유엔군 전사 제1집: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1963, p. 116.
4) 국방부「일반명령 제3호」(1950.7.7) 및 육군본부「특별명령 제11호」(1950.7.7).
5) 북한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조선전사』제25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140;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328.
6)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09.
7) Appleman, 앞의 책, pp. 111-112.
8) 북한군 제6사단은 북한군 제3사단이 금강 북안에 진출하자 원래 임무로 전환되어 1950년 7월 14일 야간 전의를 출발하여 16일 유구에 도착하였으며 계속 강경방향으로 기동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03. 북한군 제13연대는 7월 12일~14일 예산, 홍성, 청양을 점령하고 15일 보령, 대천, 서천을 점령하였으며 16일 군산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군사편찬연구소(역), 소련군 총참모부,『전투일지: 1950.6.25~1951.12.31』(1951, 미간행), 1950년 7월 12일~16일자.
9) 미 제8군에게는 서해안지역에 특수임무부대가 편성되었다고 보고되었다. UNC, *Daily G-3 Operations Reports No.27*(1950.7.21), NARA RG-7(군사편찬연구소 등록번호 MF000094, 이하 같음).
10)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1979, p. 733.
11) 제7사단장 민기식 대령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33.
13) 해군본부「작전명령 갑 제58호」(1950.7.15).
1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34.
15) 전주관구사령부「작전명령 제1호」(1950.7.16, 19:30), 위의 책.
16) 위의 책, p. 734.
1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1.
18) 신편 제7사단장 민기식 대령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9) 국방부「일반명령 제15호」(1950.7.17).
20)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36.
21) 위의 책, p. 736.
2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37.
23) 위의 책, p. 738.
24) 위의 책, p. 739.
25)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03.
2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43.

육군본부 군사편찬연구소

27) 북한군 제13연대는 포병연대 예하 1개 포병대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198.
28)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44.
29) 위의 책, pp. 747-748.
30) 미 제8군은 이 무렵 적에 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7월 21일이 되어서야 국군 해병대가 적의 공격을 받아 군산에서 철수하였다고 보고받았다. UNC, Military History Section, *Highlights & Situation Maps (1950.7.21)*, RG218(군사편찬연구소 자료등록 번호 MF000002, 이하 같음).
31)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03.
3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41.
33) 이 전황에 대해 적측 보고서는 "19일 아침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적으로부터 저항 없이 금강을 도하하였으며, 개별 경찰을 격파하면서 진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19일 오후 늦게 만경강 지역까지 진출하였다"고 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10.
34) 위의 책, p. 210.
35)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45.
36) 위의 책, p. 745.
37) 미 제8군은 이 일대의 적이 북한군 제4사단 1개 연대로 판단하고 있었다. UNC, Military History Section, *Highlights & Situation Maps (1950.7.21)*, RG218.
38)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10.
39)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46.
40) 위의 책, p. 742.
41)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10.
4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46.
43) 위의 책, p. 747.
44) 위와 같음.
45) 위의 책, p. 749.
46) 위와 같음.
47) 위의 책, p. 750.
48)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10.
49)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51.
50) 북한군은 20일 11:00시경 전주를 완전히 점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10.
51) 국군 기병중대는 7월 20일 남원으로 철수하고 육군본부의 지시로 대구로 원대 복귀하였다.
5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p. 751-752.
53)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는 7월 20일 전주점령 후 임실~남원 방향으로 곧바로 남하하지 않고 방향을 돌려 신태인~고창~장성~담양~남원으로 우회하였다(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11). 북한군 제1연대의 우회기동이 민기식 대령의 거짓 정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의 계획에 의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5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52.
55)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작전참모 김용기 중령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5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52.
57) 위의 책, p. 755.
58) 북한군 제6사단은 군산점령 후 사단 제2제대가 된 제13연대를 7월 23일 20:00시 영광지역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함평~목포를 목표로 다시 투입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10.

59)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56.
60) 위의 책, p. 757.
61) 위의 책, p. 757.
62) 위의 책, p. 757.
63) 임실 부근에서 방어편성을 하고 있던 민기식 대령은 전주를 장악한 북한군 제1연대가 이미 신태인~정읍일대로 우회하고 있던 적정을 전혀 모른 상황에서 전주방면으로 역습을 계획하였다. 당시 북한군 제1연대는 전주~임실~남원을 고착 견제하고 주력을 정읍 장성~순창으로 우회시켜 남원을 점령하고자 기도하였다. 그러나 민 대령은 방어중점을 임실 북쪽에 두었다.
6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58.
65) 위의 책, p. 758.
66)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358.
67) 위의 책, p. 210.
68)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61.
69) 소련군 총참모부, 앞의 자료, 1950년 7월 24일자. 북한군 제6사단 예하부대들은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70)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62.
71) 정읍 시내로 진입한 적은 북한군 제15연대 첨병 1개 소대 병력이었다. 제15연대 주력은 신태인 일대로 진출하여 휴식을 취한 후 22일 새벽부터 공격을 재개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358.
7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63.
73)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10.
7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64.
75)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358.
76) 위의 책, p. 210.
77)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767.
78) 고창~장성 방면으로 공격한 북한군은 제6사단 제1연대 병력이었다. 이들은 고창까지 제15연대를 후속한 뒤 24일 장성을 거쳐 담양, 남원으로 진출할 계획이었다.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10.
79) 제26연대 제1대대장 조시형 소령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80) 북한군 제6사단은 7월 24일 제15연대가 영광을 거쳐 나주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제1연대는 장성을 거쳐 담양, 남원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그동안 사단 제2제대로 있던 제13연대는 23일 오후부터 영광에서 함평, 목포를 목표로 재투입되었다.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10.
81)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67.
82) 신편 제5사단장 이형석 대령 증언.
83) UNC, *G-3 Daily Operations Reports No.29* (1950.7.23), NARA RG-7.
84)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11.
85) 소련군 총참모부, 앞의 자료, 1950년 7월 24일자. 이 무렵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각 군 참모부와 통신두절로 각 사단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북한군 제6사단은 통신이 유지되어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위의 자료, 1950년 7월 25일자.

육군군사편찬연구소

8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68.
87) 위의 책, p. 768.
88)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11. 미 제8군은 광주의 적이 북한군 제4사단 1개 연대로 판단하고 있었다. UNC, Military History Section, *Highlights & Situation Maps(1950.7.24)*, RG218.
89) 미 제8군은 새로 편성된 경찰대대중 2개 중대가 광주에서 적을 저지하다가 화천으로 철수하였고, 다른 2개 중대는 화순에 위치해 있다고 파악하였다. UNC, *G-3 Daily Operations Reports No.30* (1950.7.24), NARA RG-7.
90)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69.
91)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11.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는 7월 26일 새벽 구례를 출발하여 순천을 점령하였다.
92) 위의 책, p. 211.
93) 미 제8군은 1950년 7월 29일에야 비로소 북한군 1개 연대가 나주에서 동진하다고 파악하였으며, 여전히 적의 단대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UNC, Military History Section, *Highlights & Situation Maps(1950.7.29)*, RG218.
9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72.
95) 북한군 제6사단은 예하 3개 보병연대 및 1개 포병연대 이외에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 연대와 포병대대, 해병연대(-1), 경비연대(-1), 독립보병연대 등을 지원받고 있었으며, 이들로 하여금 전남 전역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소련군 총참모부, 앞의 자료, 1950년 7월 24일~25일자.
96)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358. 미 제8군사령부는 남원으로 진출하고 있는 북한군이 제4사단 1개 대대병력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UNC, Military History Section, *Highlights & Situation Maps(1950.7.24)*, RG218.
97)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58.
98) 이영규 부대의 적정 보고는 오판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전주를 점령한 북한군 제1연대는 전주에서 임실, 남원 방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전주~신태인~정읍~담양~남원 방면으로 우회 공격하였다. 따라서 24일 01:00시 임실 북쪽에는 연대규모의 적이 없었다.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11.
99)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59.
100) 북한군 제1연대 선두부대는 이미 7월 24일 10:00시경 순창에서 남원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11.
101) 오덕준 부대의 임실 북쪽으로 진출 명령은 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이영규 부대의 오보에 의한 것이었다. 적 주력은 임실 북쪽이 아니라 순창에서 접근 중이었다. 민 부대는 상황오판으로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0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61.
103) 위의 책, p. 771.
104) 위의 책, pp. 771-772.
105)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11.
10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73.
107)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211.
108)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772.
109) 제15연대장 김병휘 중령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10) 미 제8군사령부에서도 이 무렵 이 부대(Task Force Lee)가 광주 탈환명령을 받았으나 편성과 위

치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육군본부 명령을 근거한 것이었다. UNC, *G-3 Daily Operations Reports No.32* (1950.7.26), NARA RG-7.

111) 제7사단장 민기식 대령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12)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776.

113)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211; 소련군 총참모부, 앞의 자료, 1950년 7월 27일자.

114) 이형석 대령은 일본으로 피난 간다는 모략을 받았으나, 특무대장 김창룡 중령의 보증으로 해명되었다. 그는 이 일로 크게 낙담하여 병력들을 해산시켰다. 제5사단장 이형석 대령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15)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361.

116)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786.

117) UNC, *Daily G-3 Operations Reports No.27* (1950.7.21)~*No.37* (1950.7.31), NARA RG-7; Roy E. Appleman, 앞의 책, p. 112.

118) 북한군 제4사단은 7월 25일 새벽 금산에 진입하고 26일 오후에는 장계리에 도달했다.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361.

119)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786.

120) 채병덕 소장의 공식 직함은 경남지구계엄사령관 겸 경남지구편성관구사령관이었다. 부산일보사, <부산일보> 1950년 7월 30일자.

121)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787.

12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2.

12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789.

124)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69호(1950.7.25일부), 미 제8군사령부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민 부대는 미 제24사단에 배속되었으며 지역 내의 모든 한국군과 경찰을 활용하여 남원공격 명령을 하달 받았다. UNC, *G-3 Daily Operations Reports No.36* (1950.7.30), NARA RG-7.

125)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790.

126) 위의 책, p. 791.

12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3.

128)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792.

129)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361.

13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11-112.

131) 위의 책, p. 112.

132)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361.

13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794.

134)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361.

135)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794; 적측 보고에 의하면, 안의 전투에서 북한군은 야포 및 박격포 11문, 차량 48대, 무전기 7대와 다량의 탄약을 노획하였다고 하였다. 위의 책, p. 361.

136)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361.

13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797.

138) 위의 책, p. 798.

139) 위의 책, p. 799.

140) 북한군 제4사단은 7월 27일 안의점령 후 부대정비를 한 후 다시 진격을 개시하여 국군을 추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1, p. 361.
141) 미 제8군은 이날(28일) 화산리에 배치된 민 부대와 해병대대가 거창방향으로 이동중이라고 보고받았다. 이것은 민 부대의 소재가 처음으로 미 제8군에 보고된 것이었다. UNC, *G-3 Daily Operations Reports No.35* (1950.7.29), NARA RG-7.
14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800.
14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3.
144) 위의 책, p. 117.
145) 위의 책, p. 119.
146) 이 무렵 미 제8군사령부는 북한군의 대대병력이 안의선에서 미군 2개 중대를 공격하여 차단하였다고 보고받았으며, 북한군 제6사단이 대전에 집결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UNC, Military History Section, *Highlights & Situation Maps(1950.7.28)*, RG218.
14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7.
148) 북한군 제4사단은 7월 27일 부대정비를 실시하면서 일부부대를 투입하여 국군을 추격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1, p. 361.
14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8.
150) 위의 책, p. 118.
151) 소련군 총참모부, 앞의 자료, 1950년 7월 28일자.
152)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1, p. 361. 미 제8군사령부는 이 무렵 북한군 제6사단이 거창지역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UNC, Military History Section, *Highlights & Situation Maps(1950.7.30)*, RG218.
153) Appleman, 앞의 책, pp. 118-119.
154) 위의 책, p. 119.
155)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802.
15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9.
157)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1, pp. 212-213.
158)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807.
15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11-112.
160) 위의 책, p. 112.
161)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807.
162) 위의 책, p. 808.
163)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79호(1950.7.28), 위의 책, p. 808.
164)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6호(19507.29), 위의 책, pp. 808-809.
165) 위의 책, p. 809.
16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9.
167)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810.
168) 위의 책, p. 811.
169) 위의 책, p. 812.
170) 위의 책, p. 813.
171) 위의 책, p. 814.
172) 위의 책, p. 814.
173)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1, p. 211.
17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8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75) 이는 잘못된 평가였으며 7월 23일 북한군 제6사단은 전주, 광주에 집결 중이었다.
17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112-113.
17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821.
178) 채병덕 소장 보좌 정래혁 중령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7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72호(1950.7.25, 23:00시), 위의 책, p. 822.
180)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822.
181) 채병덕 소장 보좌 정래혁 중령 증언,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8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3.
183) 위의 책, p. 113.
184) 위의 책, p. 113.
185)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824.
18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3.
187) 위의 책, p. 114.
188) 민 부대 박현수 중령 증언,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826.
189) 적측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군 제1연대는 27일 09:00시 하동근교에서 포병을 동반하고 이동 중이던 미군 1개 보병대대 병력과 조우하여 격파하였다고 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359.
19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4.
191) 위의 책, p. 114.
192)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828.
19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4.
194) 위의 책, pp. 114-115.
195) 위의 책, p. 115.
196) 적측 보고에 의하면, 이 전투에서 북한군 제1연대는 미군 1개 대대를 격파하고 100여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155밀리 곡사포 12문, 박격포 9문, 차량 14대 등을 노획하였다고 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359 및 소련군 총참모부, 앞의 자료, 1950년 7월 29일자.
19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6.
198)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359.
19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9.
200) 이 무렵 미 제8군사령부는 민 부대가 서남부지역의 모든 한국군과 경찰 병력을 통합하여 진주선에서 미 제19연대와 방어를 맡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UNC, *G-3 Daily Operations Reports No.37* (1950.7.31), NARA RG-7.
201)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831.
202) 위의 책, p. 831.
20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19.
204) 위의 책, p. 199.
205) 위의 책, p. 122.
206)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6호(1950.7.27, 21:00시),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832.
20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832.
208)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1.
209) 위의 책, p. 1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10)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360.
211)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1.
212) 위의 책, p. 119.
213)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833.
21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1.
215)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833.
216) 위의 책, p. 837.
217) 위의 책, p. 837.
218) 육군 전사자명부에는 김병화 소령이 1950년 7월 31일 하동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착오 기록되어 있다.
219)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838.
22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2.
221) 위의 책, p. 121.
222)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839.
223) Appleman, 앞의 책, p. 122.
224)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제2권, p. 839.
225)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359.
22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122.
227) 위의 책, p. 123.
228) 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①, p. 3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7 장 해군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한국해군 작전
제 3 절	유엔해군 작전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본장의 해군작전에는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이 전쟁 초기부터 확보한 해양통제권을 유지하면서 1950년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반도 해역에서 수행한 제반 작전이 기술되어 있다.

전쟁 발발부터 북한군의 계속적 남진으로 7월 14일 지상의 전선은 서천-공주 남방-보은-미원-이화령-조령-죽령-영해에 연결한 선이었고, 8월 1일에는 사천-진주-거창-김천-함창-영주-진보-영덕까지 이르렀다.

남한내에서만 진행된 지상전선과는 달리 유엔해군이 6월 29일부터 수행한 한반도 해역에 대한 봉쇄작전으로 38도선 이북 해상을 포함하여 해양통제권을 장악함으로써 적의 해상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서해는 수심이 얕고 도서가 많은 관계로 적 선박의 침투 활동이 다소 있었다. 7월 22일 적의 기범선 2척과 범선 1척, 7월 23일 범선 7척, 7월 27일 약 50톤급 선박 12척 그리고 7월 30일 약 30톤급 발동선 1척이 서해안에서 침투를 시도하다가 한국해군의 함정에 의해 격침 또는 나포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와 같이 한국 함정들은 서·남해안에 대한 방어 및 봉쇄작전을 통해 적의 무장병력과 군수물자 수송을 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3인치 포를 장착한 PC함들은 한국해군에 의해 실시한 작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PC함들은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는 적 병력 및 수송차량 등에 대해 함포사격을 가하였고, 아울러 아 지상군 철수에 따른 해상수송과 지상군 철수를 지원하였다.

육상에 기지와 경비부를 둔 묵호, 인천, 군산, 목포 등 한국해군의 기지 및 경비부는 아 지상군과 함께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철수하던 중 묵호경비부는 7월 18일 포항경비부에, 인천경비부와 군산기지는 7월 20일 목포경비부에 통합되었다. 서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빠르게 적에 의해 점령을 당하자 군산기지는 7월

19일, 목포경비부는 7월 24일부로 철수하였다. 이와 아울러 7월 24일부터 여수에 있는 정부 및 군수물자, 군·경 병력 및 가족들이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여수 시민들도 제주도와 부산 등지로 피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해군은 지상군의 철수병력과 전쟁물자를 마산, 진해, 부산 등지로 수송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다.

적은 제5사단을 주축으로 태백산맥을 따라 동부축선으로 계속 남하하여 7월 18일 영덕 북방 1㎞ 지점까지 이르렀다. 이에 구암산지구 전투를 끝낸 포항경비부의 육전대는 이날부터 포항-영덕지구에 침입한 적과 교전을 시작하였다. 포항경비부는 7월 20일 강기천 소령을 대장으로 하는 육전대를 재편성하여 8월 11일 포항경비부가 감포로 철수할 때까지 남진하는 적과 교전을 하였다.

유엔군은 부산교두보가 위협을 받게 되자 다른 전선보다 상대적으로 동부 전선에 많은 전투력이 소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해군도 미전투함들을 주로 동해에 투입시켰다.

전투함 PC 4척을 비롯해 한국해군의 함정들은 주로 남·서해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배치는 수심이 얕고 도서가 많은 서해안에서 적 함선의 침투 활동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양특성으로 한국의 소형함정들이 작전하는데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한국함정들이 비록 화력은 약했지만 미해군의 대형전투함이 수행할 수 없는 연안 작전, 즉 소해작전, 소형선박 검색 등을 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유일하게 한국해군에서 건조된 PG-313(충무공함)은 전쟁발발 시부터 7월 31일까지 시종일관 서해에 배치되어 작전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특기할 사항이었다.

한반도의 연안경비는 전쟁 초기부터 한국해군에 의해 훌륭하게 수행되고 있었다. 한국해군은 6월 29일 JMS-305정이 미전투함으로부터 오인포격을 받아 침몰되고, 7월 28일 YMS-514정이 미공군 전투기(제트기)로부터 오인기총사격을 받아 6명의 전상자를 냈지만, 연안으로 침투하는 적선박 검색 등 해상봉쇄를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유엔함정이 해안포격 등 해상작전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한국함정은 7월 초부터 주로 서해안에서 영국연방 함정들과 연합으로 해상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을 수행하였는데, 7월 하순에 들어서서 한국의 PC함이 배치되고 서해안지원단대의 영연방함정들이 증강됨으로써 서해안에 대한 해상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1)]

미국으로부터 급거 일본 도쿄에 도착한 루시(Michael J. Lousey) 해군 중령이 7월 9일 부관 홀리(David C. Holly) 대위와 사병 5명을 대동하고 부산에 도착하였다. 그는 미극동해군사령관 명령에 따라 7월 10일 한국함정으로 편성된 제96.7기동전대(TG 96.7)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하였다. 제96.7기동전대 예하에는 한국해군총참모장이 지휘하는 제96.70기동단대(TE 96.70)를 두었다. 한국해군의 작전은 제96.7기동전대장인 루시 중령과의 협조 하에 한국해군총참모장의 명령에 의해 수행되었다. 루시 중령은 부산에 도착한 후 며칠동안 유엔함정들에 대한 군수지원을 신속히 조치하고, 지상군과의 연락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였다.

한국해군의 총참모장인 손원일 제독은 미국에서 함정편으로 한국에 도착한 다음날 7월 17일 해군총참모장 대리인 김영철 대령으로부터 한국해군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았다.

함정세력이 계속 증강되고 효율적 작전지휘을 위해 미극동해군은 7월 21일부로 예하의 기동조직을 재편성하였다. 특히 제96기동부대 예하에 있는 제96.5기동전대(TG 96.5)인 동해안지원전대가 한·일지원전대로 명칭이 바뀌고, 예하에 호송단대, 제1동해안지원전대, 제2동해안지원전대, 서해안지원전대를 두었다. 제96.7기동전대(TG 96.7)는 변동없이 한국해군 함정으로 구성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적이 제5사단을 주축으로 동부축선을 따라 계속 남하하여 부산교두보를 압박해옴에 따라 미 제1기병사단에 의해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포항상륙작전이 감행되었다. 이와 아울러 7월 초순 한국전쟁에 해병대 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미 해병여단이 7월 말경 한국해역에 도착하여 8월 3일에 한국전장에 배치되었다.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평양과 해주에 대한 항공강습을 성공리에 마친 제7함대는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원산, 평강, 함흥 지역을 폭격하였다. 이 작전에서 가장 큰 전과는 원산정유소를 폭격하여 북한군의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킨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 아 지상군의 근접항공지원 요청에 의거 밸리 포지(Valley Forge)함을 비롯한 항공모함 함재기들이 출격하여 적의 집결지, 차량, 탱

크, 교량, 철도 등에 집중 공격을 가하였다.

해양통제권을 장악한 유엔해군과 한국해군은 해상봉쇄작전, 함포지원, 해상수송작전, 상륙작전, 근접항공지원 및 항공강습작전 등 연합작전을 통해 북한군의 남진을 지체시키고, 아울러 아측의 해상교통로는 물론 부산교두보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해군은 주로 북위 37도 이남 해역에서 유엔함정과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 제2정대는 동해, 제1정대는 서해, 제3정대 및 훈련정대는 남해 해역에서 각각 작전을 수행하였다. 기간중 한국해군이 수행한 작전은 해역별로 아래와 같다.

○ 동해안 작전
- 동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
- 영덕-포항지구 전투

○ 서해안 작전
- 서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
- 군산지구 방어작전

○ 남해안 작전
- 남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
- 목포지구 방어작전
- 여수 철수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해군은 북위 37도 이북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북한군의 계속적인 남진과 부산교두보를 지키기 위해 포항상륙작전, 근접항공지원 등 대부분 작전이 북위 37도 이남 해역에서 작전을 하였다. 동해는 주로 미함정, 서해는 영연방함정들에 의해 작전이 수행되었는데, 기간중 수행한 작전은 아래와 같다.

○ 해상봉쇄작전 및 함포지원
○ 근접항공지원
○ 원산정유공장 폭격
○ 미해병여단 배치

제 2 절 한국해군 작전

1. 부대 편성 및 운용

전쟁발발 초부터 북한 지상군의 계속적인 남진에도 불구하고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은 6월 29일부터 38도선 이북 해상을 포함하여 한반도 전 해역에 대해 해양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육상에 기지와 경비부를 둔 인천, 묵호, 군산, 목포 등 한국의 해군기지 및 경비부는 아 지상군과 함께 철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지상군의 철수병력과 전쟁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다.

해군본부는 7월 14일 해본작명갑 제61호로서 LST 홍천호에게 육군 전상자 400명을 여수에서 부산으로 수송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홍천호는 7월 15일 10시 부산을 출항하였다.[2)]

군산에 있는 정부미를 부산으로 수송하라는 해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군산기지사령관 김종기 소령은 7월 15일 17시 백미 10,000가마, 나락 4,000가마를 LST-801함에 적재 완료하였다. 또한 이날 18시 05분 해군본부는 여수에 보관 중인 정부미(백미 12,709가마, 나락 20,423가마)를 교통부 해운공사 소속의 LST에 적재토록 지시하였다.[3)]

전쟁발발 이전에 한국에는 수송함으로서 LST와 FS(이후 AKL로 개칭)함이 여러척 있었는데, 이 중 한국해군이 LST 1척과 FS 1척을 운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수송함은 교통부에서 운용하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해군은 7월 1일부로 교통부 해운공사에서 운용 중인 LST 7척과 FS 7척을 징발하였다.[4)]

해군본부는 추후 상황에 대비 7월 15일 20시 목포경비부사령관 정긍모 대령에게 광주, 목포에 보관 중인 정부미를 조사하고, 비상시에 대비 즉시 적재하여 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항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5]

미국에서 구매한 PC-702함, 703함이 태평양을 횡단하여 7월 16일 05시40분 진해항에 입항하였으며, PC-704함은 한국을 향하는 도중 기관 고장으로 7월 25일 06시 40분 진해항에 입항하였다. PC 편대와 함께 진해에 도착한 손원일 해군총참모장 일행은 하루를 진해에서 보내고 그 다음날 7월 17일 10시 40분에 부산에 위치한 해군본부에 도착하였다.[6]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은 해군본부에서 참모들로부터 전황을 보고 받은 후 해군총참모장 대리인 김영철 대령으로부터 해군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았다.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이 한국해군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한 7월 17일 북한군은 영덕, 함창, 대전, 장항까지 진출해 있었다. 손원일은 이날 해군본부의 참모들로부터 한국에서의 부재기간 중 수행된 전반적 작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후 15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귀국신고를 위해 대구로 출발하였다.[7] 이승만 대통령은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해군이 시의적절하게 3인치포가 장착된 전투함을 구입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였다. 1949년 10월 17일 구매한 백두산함(PC-701)과 1950년 5월 27일 구매한 금강산함(PC-702), 삼각산함(PC-703), 지리산함(PC-704)은 한국해군 장병들과 국민들의 성금으로 구매한 배였다.[8] 이로써 한국해군의 전투력이 대폭 증강되었다.

YMS-503정은 7월 16일 서해상에서 조난 당한 B-29기 승조원 4명을 구출하였는데, 7월 18일 08시 흑조환 22호정이 구조된 승조원 4명을 편승하여 부산에 도착하였다.[9]

해군본부는 7월 18일 해본작명편 제7호에 따라 포항으로 철수한 묵호경비부를 포항경비부에 통합시켰다. 그리고 이날 13시 해본작명갑 제62호로서 여수에 있는 육군 전상자 600명을 마산까지 수송하기 위하여 LST 1척을 여수에 파견토록 명령하였다. 포항경비부는 이날 18시 20분 미해군으로부터 LSU형 상륙단정 6척을 인수하였다.[10]

해군본부는 7월 19일 해본작명편 제8호에 의거 해병대 증강을 위하여 제주 지구에서 해병대 신병 1,000명을 모병할 것을 신현준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하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다. 7월 16일 군산에 도착한 해병대는 7월 19일 22시 30분 군산기지 병력과 함께 LST 안동호 편으로 군산을 철수하였다.[11]

해군본부는 7월 20일 해본작명갑 제64호로서 LST 단양호와 울산호를 목포로 출동시켜 목포 정부미 8만 가마를 부산까지 수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군산 방면에 출동하였던 한국 해병대가 노후된 99식 소총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해군본부는 미해군과 협조하여 7월 20일 미해군으로부터 부산에서 M1 500정, 중기관총 10정, 경기관총 10정, 81밀리 박격포 2문, 60밀리 박격포 2문을 수령하였다. 무기를 수령한 이날 해군본부는 군산에서 철수한 고길훈 해병부대에 FS 영등포호 편으로 무기를 수령, 장비하여 육군과 합동으로 호남지구 전투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해병대 고길훈부대는 7월 21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여수항에 입항한 영등포호로부터 무기를 수령하여, 7월 22일 12시 남원에 도착하였다. 남원에 출동한 한국해병대 병력은 장교 23명, 사병 455명이었고, 장비된 무장은 81밀리 박격포 3문, 60밀리 박격포 5문, 중기관총 13문, 경기관총 17문, M1 432정, 권총 12정이었다.[12]

해군본부는 7월 20일 해본작명갑 제67호로서 인천경비부 및 군산기지를 목포경비부에 통합시키고, 정긍모 목포경비부사령관에게 인천경비부 및 군산기지 병력을 통합 지휘하라고 명령하였다.[13]

해군본부는 7월 21일 해본작명갑 제68호로서 호남지구에서 여수로 후퇴한 일부 육군병력을 마산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FS 평택호를 여수로 출동시켰다. 또한 같은 날 여수에 있는 정부미를 마산으로 수송키 위하여 LST 조치원호를 부산에서 여수로 출동시켰다.[14]

해군본부는 7월 22일 효율적인 정보수집을 위하여 동해안 전선을 제1지구, 서해안 전선을 제2지구로 구분하여 제1지구 정보참모에 문기섭 소령, 제2지구 정보참모에 이태영 소령을 각각 임명하였다. 또한 이날 해본작명편 제11호에 의거 해병대 병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인천경비부 및 군산기지 소속 하사관을 해병대에 편입시켰다.[15]

해군본부는 7월 23일 해본작명갑 제69호를 시달하여 부산에 집결한 피난민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영지구로 수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여주호, 충주호 등 5척이 동원되어 피난민 15,000명이 수송되었다.[16]

목포경비부는 7월 24일 15시를 기하여 해군함정 편으로 목포를 철수하기 시작하였다.[17]

해군본부는 7월 26일 해본작명갑 제75호로서 각 정대별 경비구역 변경과 경비지침을 각 정대 및 함정들에게 아래와 같이 하달하였다.[18]

1. 해본작명갑 제75호로서 각 정대 경비 담당 구역을 일부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경비 실시를 명함
   (1) 각 정대사령은 별지 요도(상황도 7-1)에 표시된 경비분담 구역에 의거 적절히 함정을 배치하여 해상경비에 만전을 기하라.
   (2) 각 함정장은 별지 세부지시에 의거 담당 구역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하라.
      A. 각 정대사령은 별지 요도에 의거 항상(주야 불문) 함정 1척 이상을 배치하여 경비를 실시토록 하라.
      B. 분담 구역을 경비하는 함정은 육상의 보초 근무와 같이 지정된 구역을 이탈할 수 없다.
      C. 경비 요령은 담당 구역에 대해 적절한 속력으로 왕복 항해하며 충실히 경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D. 경비 구역을 이탈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군본부에 보고하여 지시(명령)를 받아야 한다. 단, 작전상 긴급을 요할 시는 사후 정당한 이유와 이동에 대해 명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E. 정대사령은 함정의 정비, 보급 등 사유로 예하 함정을 지정된 경비구역에서 교대 배치시킬 수 있다. 그러할 경우에는 교대 함정명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또 교대는 반드시 경비 구역에서 교대하여야 한다.
      F. 경비구역에서 이탈하거나 초계를 태만히 할 수 없다.
2. 금후 별명이 유할 시까지 피아의 식별을 위하여 태극기 게양을 금지하고, 백포(白布)를 게양할 것을 지시함.

해군본부는 7월 27일 해본작명갑 제76호로서 목포경비부에 서해에서 경비중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7-1> 정대별 해상경비구역(1950. 7. 26~)

제1정대, 제3정대의 함정 보급을 담당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경비부는 LST 단양호를 경비부사령부로 지정하고 대흑산도 근해에서 작전 함정에 대한 보급 지원업무를 실시하였다.[19]

인천해군병원은 목포도립병원으로 이전하였다가 해본작명에 따라 7월 27일부로 해체되었다.[20] 한국해군은 7월 28일 해군본부에 경리참모실과 의무 관실을 편성하고 항무관실과 재정관실을 신편하였다. 그리고 이날 해본작명편 제12호에 의거 부산항만방위사령부를 해체하고, 항만방위 임무를 부산경비부가 맡도록 하였다.[21]

LST 원주호와 FS 제천호는 7월 28일 01시 육군병력 2,000명을 여수에서 편승하여 이날 20시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그리고 YMS-512정은 하동에서 후퇴한 미군부대 1개 중대를 편승하여 이날 12시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또한 미군병력을 편승한 일본 대형수송함 금강환 등 6척이 이날 14시 부산항에 도착하였다.[22]

2. 동해안 작전

1) 동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참가 부대 및 함정

○ 육군 제3사단(사단장: 준장 이준식)
○ 육군 제23연대(연대장: 중령 김종원)
○ 포항경비부(사령관: 중령 남상휘)
○ 부산경비부(사령관: 중령 민영구)
○ 제2정대(사령: 중령 김충남)
○ 함정 : YMS-506, 508, 509, 510, 515, 516, 518, JMS-304, 306, 308

(2) 작전 경과

동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은 한국해군이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해안에 대하여 실시한 방어 및 봉쇄작전을 말한다.

이 작전은 주로 제2정대 함정들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작전해역은 7월 25일까지는 남해의 가덕도 등대와 대마도 남·서단을 연결하는 선에서 동해의 북위 36도 40분까지였는데, 7월 26일부터는 해본작명갑 제75호에 의거 남해의 가덕도 등대와 대마도 남·서단을 연결하는 선에서 동해의 북위 36도 25분으로 변경되었다.[23]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해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한 함정은 YMS-506, JMS-306 등 모두 10척이었다. 이 기간중 YMS, JMS 등 평균 5척의 함정이 동해에 배치되어 해상경비에 임하였다.[24] 한국함정도 아 지상군의 요청에 의거 유엔함정과 같이 동해안을 따라 남진하는 적 부대, 차량, 탱크 및 해안도로 등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하였지만, 37밀리 함포로서는 화력이 약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다.

동해에는 주로 미 전투함에 의해 작전이 수행되었던 관계로 동해에 배치된 한국함정은 상대적으로 서해 및 남해보다 척수가 적었다. 다시 말해 동해에는 YMS, JMS 등 소수의 소형 함정이 배치되었고, 서해 및 남해에는 전투함 PC 4척을 비롯한 YMS, JMS 등 다수의 함정이 배치되었다.

동해에 배치된 한국함정들은 미해군의 대형전투함이 수행할 수 없는 연안경비와 소해작전 그리고 의아 선박을 검색하고 식별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한국의 YMS-506 등 6척은 7월 18일부터 개시할 포항상륙작전에 대비하여 7월 14일부터 미해군 소해함 1척과 같이 영일만 근해에 대해 소해작전을 시작하였다.[25]

(3) 분석 및 평가

YMS, JMS 등 한국의 소형함정이 파도가 거칠은 동해에 배치된 것은 적절치 않은 운용이었다고 볼 수 있다. 37밀리 포가 장착된 함정이 동해안을 따라 남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는 적 부대, 차량, 탱크 및 해안도로 등에 대해 포격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함정은 미해군의 대형전투함이 수행할 수 없는 연안경비, 소해작전 그리고 의아선박 검색 등에서는 큰 역할을 하였다.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던 유엔해군은 한국해군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

2) 영덕-포항지구 전투

(1) 참가 부대 및 함정

- ○ 육군 제3사단(사단장: 준장 이준식)
- ○ 육군 제23연대(연대장: 중령 김종원)
- ○ 포항경비부(사령관: 중령 남상휘)
- ○ 포항경비부 육전대(대장: 소령 강기천)
- ○ 제2정대(사령: 중령 김충남)
- ○ 함정 : YMS-506, 516, JMS-304, 306

(2) 전투 경과

영덕-포항지구 전투는 포항경비부 육전대가 7월 18일부터 8월 11일까지 포항-영덕 지구에서 적과 교전한 전투이다.

적은 제5사단을 주축으로 태백산맥을 타고 계속 남하하여 7월 18일 영덕 북방 1㎞ 지점까지 이르렀다.

해군본부는 7월 18일 해본작명편 제7호에 의거 묵호경비부를 포항경비부에 배속시켜 전투력을 통합시켰다. 이날 한국육군 제23연대는 영덕 북방에 진격한 적과 전투를 개시하였는데, 포항경비부는 구암산지구 전투를 끝낸 용호대의 1개 중대를 영덕 방면에 출동시켜 제23연대장의 지휘하에 합동작전을 전개토록 하였다. 제23연대와 용호대는 합동작전으로 적을 영덕 북방 4㎞ 지점까지 격퇴시켰으나, 적은 다시 7월 19일 07시 영덕 북방 1㎞ 지점까지 침입하여 왔다.

용호대는 이날 10시까지 영덕 북방 1㎞ 지점인 변전소 후방 고지에 포진하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적과 교전을 하였으나, 결국 적의 대부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를 당하였다. 용호대는 악전고투 중에 있었는데, 육군 제23연대장 김종원 중령의 명령으로 포위망을 탈출하여 자동차 편으로 장전동으로 후퇴하였다. 장전동으로 후퇴한 용호대는 장전동 서북방 산악 지대로부터 남하하는 적 500여명과 약 1시간 동안 교전한 끝에 적을 격퇴시켰다.

한편 적은 7월 19일 17시 영덕에 침입하여 100여명의 인명을 살상하고 다수의 가옥을 분소하고 20시에 영덕을 완전히 점령한 후 창포를 점령하였다. 육군 영등포부대의 1개 독립대대는 7월 19일 08시 죽장면 구암리에 잠입한 적을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었고, 이날 19시 20분에 포항 주둔 미군은 전차 7대를 이끌고 긴급히 영덕으로 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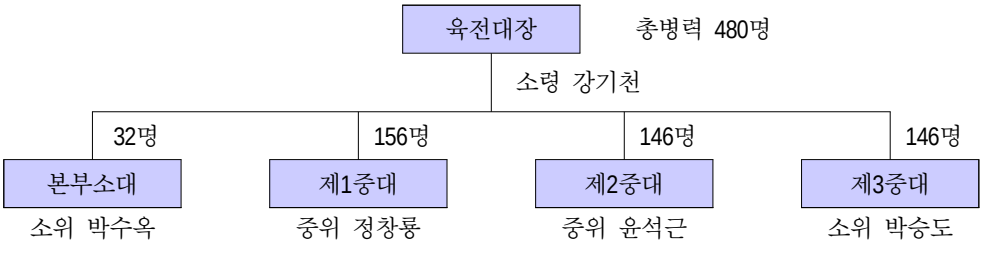
당시 한국해군 제2정대 소속의 JMS-304, 306, YMS-506, 516정은 동해안 제1구(36도-37도선 간)를 중심으로 경비중에 있었고, 미순양함 1척과 구축함 3척은 영덕과 창포 지구에 잠복하고 있는 적을 향하여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유엔공군도 적 주력에 맹폭격을 하였다.

한편 미육군 제1기병사단이 7월 18일 05시 58분부터 포항상륙을 개시하였고, 양륙 작업에 동원되었던 LST 15척은 7월 19일 15시에 양륙작업을 완료하고 19시 구룡포에 입항하였다.

이처럼 동해안지구 전투에서 전황이 악화되자, 포항경비부사령관 남상휘 중령은 용호대와 강기천 소령이 지휘하는 강호대를 통합하여 7월 20일부로 육전대를 재편성하여 대장에는 강기천 소령을 임명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7-1> 포항육전대 편성표(1950. 7. 20)



포항경비부사령관 남상휘 중령은 육전대가 재편성된 7월 20일 제2중대(전 강호대 제1중대)를 전 용호대와 임무를 교체시켰다. 그는 육전대 제2중대를 YMS-506, JMS-304정 편으로 강구에 상륙시켜 육군에 편입, 작전케 하고, 제1중대를 남정면에 출동시켜 적과 대치하도록 하였다.

7월 21일 적 대대 주력은 영덕-강구 간에서 아 육·해군과 격전 중에 있었으나, 강구-포항 사이의 남정면에 침입한 약 2,000명의 적은 장사동을 점령하여 강구-포항 간을 차단코자 하였다. 이날 20시 장사동에 도착한 육전대 제1중대는 남정으로부터 전방 1㎞ 지점에 약 200명의 적이 내습, 대기 중이라는 것을 5명의 척후 결사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제1소대는 전방으로, 제2, 3소대는 적의 좌측인 평지 간의 계천을 이용하여 공격하기로 하고, 이날 21시 40분 미군 부대 및 경찰 부대와 연합하여 전투배치를 완료하고 대기하였다. 이때 적은 우천 암야를 이용하여 장사동에 침입, 접근하여 왔다.

육전대는 7월 22일 새벽 03시를 기하여 총공격을 개시하자, 적은 동대산록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도주한 적의 일부가 다시 도천동에 침입했는데, 이를 탐지한 육전대는 이날 12시 30분 경찰대 및 미군과의 연합작전으로 적을 공격하였다. 동대산 후방 약 2㎞에서 미군 야포에 의한 원호사격하에 육전대의 제1소대와 경찰 2개 소대는 정창룡 대위의 지휘하에 동대산 동부 산악지대, 제2, 3소대는 부중대장 김정립 병조장 지휘 하에 동대산 북부 산악지대를 일제히 공격하였다. 김정립 병조장은 적의 주력과 정면충돌의 조우전이 전개되자 적을 포위하고 백병전을 감행함에 따라 적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아 육전대는 미군의 야포와 박격포의 지원하에 동대산 동부에서는 적을 추격하는 공격전이 시작되었다. 약 70명의 적은 회동(晦洞)으로, 약 40명의 적은 송라(松羅) 방면으로 도망감에 따라 적을 추격한 아 육전대는 22시에 송라에 도착하였다.

이 전투에서 아 육전대는 2명의 적을 생포하고 23명의 적을 사살하였으며, 총기, 실탄 등 다수를 노획하였다. 아 측은 2명의 전사자가 있었다.

그 후 아 육전대는 송의면 북방 4㎞ 지점에 있는 보전사 일대에 출동하였으나, 적을 발견치 못하고 다시 남정면에 전진하여 적정을 파악하고자 장사동에서 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기 중 7월 24일 20시 상부의 명령에 의하여 작전 임무를 완료하고 포항경비부로 귀대하였다.

적은 7월 25일 영해 유산리 고지에 5사단 본부를 두고, 5사단 예하 7연대와 10연대는 각각 강구 방면의 화전동의 후산 고지와 금호의 전면 고지에 집결, 주둔하고 있었다. 7월 27일 09시 전 전선에 대하여 영덕을 목표로 총공격을 개시한 아 육군부대는 적의 대부대와 연일 격전을 치르고 있었다.

적은 이미 7월 7일부터 구암산, 보현산, 운가산 산악 일대에 병력 약 3,000명을 진출, 잠복시키고 그 중의 약 40명은 전초대로서 안강 방면으로 남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8월 4일 동 산악 일대에 계속 병력을 증가하여, 대구 방면에 침공을 기도하는 동시에 경주 방면으로 남하를 기도하고 있었다.

포항경비부는 차후 적과 대전코자 육전대 본부를 안강에 전진시키고 8월 6일 제1중대를 기계국민학교에, 제2중대를 도덕산과 옥산동 뒷산 고지에 배진하고, 제3중대는 안강지역 경비와 무릉두류리에 소대를 파견하여 적정을 파악토록 하였다. 이날 제3중대는 운가산 중턱에 잠복한 적 약 35명과 교전하여 25명의 적을 사살하였다.

8월 7일 청송군 보현산을 점령한 적 주력 약 1,000명은 전차 10대, 장갑차 26대, 트럭 20여대, 기마병 30명, 야포 10여문의 장비로서 계속 남하하였다. 8월 8일 적의 주세력이 기계를 점령하려 하자, 아 육전대는 유엔 공군과 긴밀한 연락하에 적 대대의 진격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유엔공군은 계속적으로 남하하는 적군에게 맹공격을 가하였다. 아 육전대 본부와 제3중대는 제1중대와 합류하여 적의 진격을 저지코자 공격을 가하였으며, 옥산리에 포진 중이던 제2중대는 철수하여 육전대 본부에 돌아와 예비대로 있었다. 적의 진격을 저지 중인 제1중대와 제3중대는 얼마 후 명령에 의하여 기계까지 후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은 중대장을 포함하여 50여명이 아군에 의해 사살되었다.

8월 9일 적 제5사단과 제7사단은 전차, 장갑차, 중포 등을 총 동원하여 포항, 안강, 경주 등지의 점령을 기도하고 유엔 공군의 맹폭격을 받아가면서도 기계에 침입하여 왔다. 적의 동진으로 인하여 포항이 점령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자, 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항경비부는 8월 9일 09시 초비상 경비태세에 돌입하는 동시에 제1중대는 계천을 이용하여 적의 후방을, 제2중대는 달성동 전방 고지를 이용하여 적의 전면을 공격하기로 하고, 제3중대는 예비대로서 모든 육전대가 09시부터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아 육전대는 적 세력보다 적은 세력이었으나 과감하게 대전하여 대규모의 적을 기계선에서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에서 아 육전대는 100여명의 적을 사살하고, 아 측은 1명의 전사자와 2명의 부상자가 있었다.

이 전투에 투입한 적의 병력은 약 8,000명~10,000명에 달하였는데, 차후에 포항을 침공한 적의 주력이었다.

8월 9일 11시 육군 제25연대가 도착함에 따라 아 육전대는 제25연대와 합동하여 기계의 적을 공격하였다. 이와 아울러 유엔공군도 기계 시내에 진입한 적에 계속적으로 폭격을 가하였다. 당시 유엔공군의 폭격으로 기계 시가지가 대부분이 화염에 쌓여 있었다.

이날 11시부터 14시까지 해군본부 김대식 해군 중령은 아 육전대의 제1선 전투상황을 시찰하고, 이날 14시에는 포항경비부사령관 남상휘 해군 중령이 일선을 시찰하여 장병을 격려하였다. 아 육전대는 안강으로 남하하는 적이 경주로 침공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8월 9일 18시 작전 임무를 육군 제25연대에 인계하고, 안강으로 이동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월 10일 적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포항 서방 산악지대로 대거 침입하여 안강 북방 3㎞ 지점까지 진격하였다. 이 시간을 전후하여 안강에 도착한 아 육전대는 09시에 제1중대를 양동(良洞)고지 남방에, 제3중대를 안계리 남방 고지에 배치하고 제25연대 잔류 부대와 합동하여 지원군 도착 시까지 안강 사수를 결의하고 제2중대를 안강 시외에 포진하여 적과 대치하였다. 적은 이날 1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일찍까지 누차 공격하여 왔으나, 아측의 강력한 저항으로 결국 격퇴하였다.

그러나 전차, 중포 등으로 중무장한 적 5사단은 8월 11일 포항 교외에서 아군과 격전을 치르게 되었다. 포항경비부는 8월 10일 이미 경비부 뒷산 고지에 37

밀리 포를 장비한 대원 30명을 배진시키고, 8월 11일에는 대원 50명을 포항시의 중요 장소에 배치시켜 적의 침입을 방어하였다. 한편 경비부의 나머지 대원은 부상자, 비전투원, 피난민 등을 승선시키고 보급물자 수송 및 비상 지출물 운반 등 철수 준비를 일사불란하게 진행하였다. 이 기간중 아 육전대는 육군과 함께 포항 내외 고지를 연결하던 선에서 포항을 둘러싸고 시내를 공격하는 적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경비부 뒷산에 배치된 30명의 대원들은 포항경비부사령관 남상휘 중령에 의해 직접 지휘되었고, 포항시내에 배치된 대원 50명은 해군본부 김대식 중령에 의해 지휘되었는데, 이들은 무장이 열세함에도 불구하고 육박전으로 적의 침공을 저지하였다.

이러한 작전에 힘입어 포항경비부는 8월 11일 06시 40분 인원 및 장비 등을 해상으로 무사히 철수를 완료할 수 있었다. 아 육전대는 포항기지를 계속 고수하고 적에게 37밀리 포탄을 퍼부으면서 피난민들을 탑재한 선박이 완전히 출항할 때까지 적을 저지하였다. 남상휘 사령관과 김대식 중령의 승선은 07시 20분경이었으며, 포항경비부는 이날 13시 30분 감포기지로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 작전에서 포항경비부는 적에 비해 열세한 병력으로서 적의 침공을 저지하면서 침착하고 질서정연하게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후일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은 이 공적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였다.[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분석 및 평가

동해안지구 전투에서 전황이 악화되자, 포항경비부사령관 남상휘 중령은 정창룡 중위가 지휘하는 용호대와 강기천 소령이 지휘하는 강호대를 통합하여 7월 20일부로 육전대를 재편성하여 대대급 병력으로 증강하였다. 이처럼 전황에 따라 병력 통합 등 신속한 부대 재편은 대규모 적의 침공에 대항할 수 있었고, 적의 남진 속도를 지체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적 5사단이 8월 11일 전차, 중포 등으로 포항 교외로부터 포항시내로 진격해 옴에 따라 포항경비부 육전대는 포항시 중요 장소에 배치하여 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한편 나머지 대원은 부상자, 비전투원, 피난민 승선과 보급물자 수송 등

철수작전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전에 힘입어 포항경비부가 대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고, 또한 8월 11일 병력 및 장비 등을 해상으로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지휘관의 뛰어난 상황분석과 전투지휘능력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영덕-포항지구 전투는 포항경비부 육전대가 화력이 약하고 병력이 열세하여 결국 철수하였지만 병력 운용, 상황별 대응작전 그리고 철수작전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융통성 있게 작전이 수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서해안 작전

1) 서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

(1) 참가 부대 및 함정

- 군산기지(사령관: 소령 김종기)
- 제1정대(사령: 중령 유해거)
- PC-701함(함장: 중령 최용남)
- PC-702함(함장: 중령 이희정)
- PC-703함(함장: 중령 이성호)
- PC-704함(함장: 중령 최효용)
- LST-801함(함장: 대위 김옥경)
- 소형함정 : YMS-501, 502, 503, 505, 513, JMS-301, 303, 310, PG-3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작전 경과

서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은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해군의 제1정대 함정들에 의해 실시된 방어 및 봉쇄작전을 말한다.

제1정대의 작전구역은 서해의 북위 34도 30분에서 북위 37도 10분까지였는데, 7월 26일부터는 해본작명갑 제75호 의거 서해의 북위 35도 00분에서 북위 37도 00분까지로 변경되었다.[27]

서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을 위해 배치된 경비세력은 PC함을 비롯하여 일일 평균 9척이었다.[28] 전쟁발발 전후에 한국에 도착한 전투함 PC 4척은 모두 서·남해상에 배치되었다. 이 기간중 한국해군은 동해보다 서·남해상에 더 많은 함정을 배치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적 함선들이 서해상에서의 침투가 용이하여 활동이 많았고, 서·남해는 수심이 얕고 도서가 많은 관계로 한국의 소형함정이 작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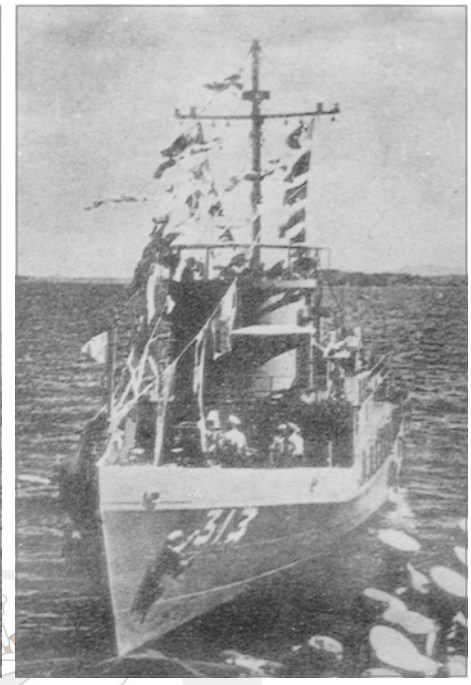
1950년 5월 27일 미국에서 구매한 PC-702, 703, 704함 중 702함과 703함은 7월 16일 진해에 도착하였고, 704함은 기관 고장으로 7월 25일 진해에 도착하였다.[29] 당시 전투함으로서 PC-701함 1척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한국해군은 진해에 도착한 PC-702함과 703함을 승조원들의 휴식과 장비 정비도 없이 곧바로 작전에 투입시켰다. 전쟁발발 이전 한국에 도착한 PC-701함은 전쟁 발발부터 6월 30일까지 동해에서 방어 및 봉쇄작전을 수행하고, 7월 1일 동해상을 이탈, 7월 3일부터 서해안 작전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7월 16일 한국에 도착한 PC 2척 중 703함은 7월 18일부터, 702함은 7월 20일부터, PC-704함은 7월 29일부터 서해상에 배치되었다. 3인치 포가 장착된 이 전투함들은 한국해군의 핵심 전력으로서 대소작전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일하게 한국해군에서 건조된 PG-313(충무공함)은 전쟁발발 시부터 7월 31일까지 정비 또는 휴식도 없이 시종일관 서해에 배치되어 작전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특기할 사항이었다.[30]

한국 함정들은 서해안에 대한 방어 및 봉쇄작전을 통해 적의 무장병력과 군수물자 수송을 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PC함들은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는 적 병력 및 수송차량 등에 대해 함포사격을 가하였고, 이와 아울러 해상수송 및 철수작전 등을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국해군의 PC-702(금강산)함 모습



한국에서 건조한 PG-313(충무공)함 모습

7월 15일 YMS-513정은 PC-701함으로부터 제1정대의 기함 임무를 부여받고 충남 연안을 경비하던 중 통신기의 고장으로 수리를 위해 목포로 향했다. PG-313정은 513정이 수리하는 기간 중 외연도를 중심으로 군산과 어청도에 이르는 해안경비에 임하였다. 군산과 장항을 점거한 적은 장항제련소에 진지를 구축하고 아 해군함정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었으나, 제1정대 함정들은 어청도 및 아산을 중심으로 인천에서 군산에 이르는 전 해안을 봉쇄하였다.

해군본부는 7월 18일 18시 해본작명갑 제63호로 PC-702, 703함에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31]

"적은 장항을 점령하고 금강 일대에 견고한 포진지를 구축하고 도하, 남침할 기세가 농후하며, 해병대는 군산 지역에 포진하여 도하하는 적을 수제(水際: 강언저리)에서 격멸코저 대기중에 있음. 중령 이희정은 702함, 703함을 도합 지휘하

여 장항 전방 해상에 급거 출동, 해병대 지상작전을 엄호하고 적진을 포격, 격파하라."

당시 해군본부는 해상 상태가 불량하여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피항을 경고한 바 있으나, PC-702함과 703함은 악천후를 무릅쓰고 항해를 계속하던 중 7월 20일 20시에 목포 근해에서 LST 안동호와 합류하였다. 7월 21일 04시 목적지인 장항을 목전에 두고 PC-703함은 개야도 남단에 접근하여 투묘하였다. 시정이 불량하였으나 함장 이성호 중령은 적정을 살핀 후 05시 50분부터 사격개시 명령을 내렸다. PC함의 주포는 3인치였다. 이때의 사거리는 7마일이었는데, 수심을 측정하면서 5마일까지 접근하여 2시간에 걸쳐 함포사격을 계속한 후 해본작명에 따라 고군산도에서 PC-702함과 합류하여 21시 목포항에 입항하였다.[32]

7월 22일 14시 군산 근해를 초계하던 YMS-513정이 줄포 항내에서 군수품을 적재하고 있던 적의 기범선 2척과 범선 1척을 발견하고 격침하였다. 그리고 줄포 앞 해상을 경비 중이던 JMS-301정은 7월 23일 19시 05분 줄포에서 출항하는 적 범선 7척을 격침하는 전과를 거두었다.[33]

이와 같이 서해안에서 적 선박의 침투가 발견되자 해군본부는 7월 24일 해본작명갑 제72호로서 제1정대사령에게 서해안 경비를 한층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PC함을 비롯한 한국함정은 적 선박침투에 대비하여 해상의 모든 선박을 철저히 검색하였다. 그 결과 7월 27일 06시에 덕적도 근해를 초계하던 PC-702함과 703함은 약 50톤급 선박 12척으로 편성된 적의 수송선단이 옹진 방면으로부터 남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30분간 추격한 끝에 이 선박들을 모두 격침하였다.[34]

YMS-514정은 서해의 법성포 부근에서 경비하던 중 7월 28일 13시 미공군 전투기(제트기) 2대로부터 적 함정으로 오인되어 기총사격을 받았다. 이 결과 전사 1명과 부상 5명의 피해를 입었으며, 통신기가 파손되었다.[35] 7월 30일 YMS-502정은 장항 근해에서 30톤급 적 발동선 2척을 격파하고, 30톤급 적 발동선 1척을 나포하였다.[3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아군이 해로를 이용하여 목포로 철수하자 군산을 점령한 적은 전차 및 차량을 앞세우고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였다. 이에 한국해군의 제1정대 함정들이 영연방 함정들과 연합으로 서해안을 완전히 봉쇄하여 적의 해상활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였다.

이와 같이 적의 해상작전이 제한됨에 따라 해안을 따라 남진하던 적은 진격방향을 바꾸어 내륙으로 침투를 시작하였다. 전주에 침입한 적은 광주와 남원으로 침입하여 7월 말경에는 여수 부근까지 이르렀다.

(3) 분석 및 평가

이 기간중 유엔해군이 국가별 해군작전 능력을 고려하여 동해에는 미함정을, 서·남해는 영국함정과 한국함정을 배치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한국함정이 동해보다 서·남해상에 많은 세력이 배치된 것은 서·남해는 수심이 얕고 도서가 많아 소형함정이 작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한국 함정들은 서해안에 대한 방어 및 봉쇄작전을 통해 적의 무장병력과 군수물자 수송을 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PC함들은 연안에 접근하여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는 적 선박, 차량, 탱크, 병력 등에 대해 함포사격을 가하였고, 이와 아울러 해상수송 및 철수작전 등에 투입된 아 수송함선을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작전에서 한국함정이 무려 25척의 적 선박을 격침 또는 나포한 것은 대단한 전과였다. 그리고 해상을 통한 적의 군수물자 수송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적의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군산지구 방어전

(1) 참가 부대 및 함정

○ 군산기지(사령관: 소령 김종기)
○ 인천경비부(참모장: 소령 정경모)

○ 해병대 고길훈부대(부대장: 소령 고길훈)
○ PC-701함(함장: 중령 최용남)
○ PC-702함(함장: 중령 이희정)
○ PC-703함(함장: 중령 이성호)
○ LST-801함(함장: 김옥경)
○ 소형함정 : YMS-502, 503, 513, JMS-310, PG-313

(2) 작전 경과

당시 군산기지(1951년 4월 25일 군산경비부로 승격)는 60명의 대원과 빈약한 무장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민간 선박 3척을 징발하여 경비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군산기지사령관 김종기 소령은 7월 1일부터 군산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백미, 유류 등 전쟁물자 이송을 준비하는 한편, 적의 해안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해상방위대원을 증강하였다. 또한 옹진반도와 인천지구의 피난민을 가장한 적성 요원을 적발하기 위하여 7월 5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검문하고 군산항 내로 출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통제·검색하였다.

7월 6일 군산기지는 적 전차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군산-이리, 군산-강경 및 장항-대천 간의 중요 철교와 도로상에 폭파장치를 완료하였다. 육군 제17연대 예하 병력 47명과 인천경비부 병력 48명은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군산시청과 해양대학에 주둔하였고, 그 후 추가로 육군병력 59명이 합류하였다. 육군 제17연대 병력 47명은 전쟁 초기 옹진반도로부터 철수한 병력이었다. 7월 9일 군산기지는 인천경비부 대원들과 합세하여 육전대를 편성하고 군산지구 방어를 위해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갔다.

7월 11일 적의 주력부대가 천안을 점령하고, 이 중 2개 대대는 군산 방향으로 진격하기 위하여 7월 13일 16시에 대천을 점령하였다. 대천을 점령한 적들은 야포, 박격포, 중화기 등으로 무장하고 계속 남하하여 서천과 장항 방면으로 진격하였다. 한편 7월 18일 금강을 도하한 적은 논산, 강경 방면으로 진격한 후 이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지금의 익산)와 군산 방향으로 진격해 나갔다. 이와 같이 적들은 남한의 곡창지대를 점령하기 위해 군산으로부터 서북쪽과 동북쪽 방면의 양 방향에서 군산을 포위하면서 공격해 들어갔다.

군산기지사령관 김종기 소령은 해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7월 15일 17시 군산부두에 정박한 LST-801함에 정부미(백미 13,000가마, 벼 969가마) 적재를 완료하는 등 해상철수를 준비하였다. 이날 해군본부는 LST-801함에 적재된 정부미를 부산으로 수송하라고 지시하였다.

서해안을 봉쇄 중인 제1정대는 군산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를 강화하였고, 충남경찰은 적의 남진에 대비 서울경찰 등 타 지역 경찰들과 구성된 혼성경찰 2개 대대를 편성하여 청양-대천 간에 배치하였다.

군산기지와 인천경비부 대원들로 구성된 육전대는 인천경비부 참모장 정경모 소령의 지휘 아래 서천에 진출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7월 16일 군산기지 소속의 병조장 박우석 등 5명이 서천 방면으로 진입한 적을 정찰하기 위하여 전선으로 출동하였는데, 적으로부터 포위를 당하여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 군산기지와 인천경비부 육전대는 7월 16일 06시부터 적과 교전을 시작하였지만, 병력과 무장 등에서 열세하였기 때문에 7월 17일 09시 서천 남방 3㎞까지 철수하였다. 122밀리 야포와 82밀리 박격포 등 중화기로 무장한 적의 주력부대가 계속 진격하자, 아 육전대는 장항으로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인당 99식 소총탄약을 1기수만 보유하고 있었던 아 육전대는 적에 비해 화력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세였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해군본부는 해본작명갑 제58호에 따라 군산의 정부미 반출 지원과 군산지역의 방어를 위해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대 1개 대대(병력 290명)를 군산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어서 신현준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작전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출동부대는 고길훈 소령의 지휘하에 7월 14일 15시 FS 제천호 편으로 제주도를 출항하여 7월 16일 08시 군산에 도착하였다. 한국해병대는 제주도에서 공비 토벌에 전념하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군산으로 출동하여 6·25전쟁에서 처음으로 전투에 투입된 것이다.

해병대(고길훈부대)는 7월 17일 12시 30분에 서천에서 남침해오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장항 북쪽 4㎞까지 진출하였다. 제3중대를 예비대로 하고 제1중대(화기중대) 및 제2중대를 공격부대로 한 해병대는 공격태세로 잠복하고 있던 중 적이 사정권 내에 들어서자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적들은 아 해병대가 잠복하고 있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대로(大路)를 따라 남하하다가 갑작스런 공격을 받는 것이다. 계속된 행군과 전투로 지친 적들은 아 해병대의 갑작스런 공격으로 인해 분산·퇴각하였다.

이 전투의 전과는 후에 원산에서 입수한 북한이 발행한 신문으로부터 알게 되었다. 이 신문에서 북한 측은 약 300명의 사상자가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 제6사단의 일부 병력이 손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해병대가 휴대한 무기는 대부분이 99식 소총이었으며, 중기관총 2정, 경기관총 3정, 60밀리 박격포 3문이었다.

서천으로 분산 퇴각한 이날, 적은 다시 포격을 가하면서 반격하였는데, 해병대는 7시간에 걸친 악전고투 끝에 17시 장항에 집결한 후 대대본부와 제1, 2중대는 제3중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도선을 이용하여 금강을 도하하여 군산부두에 있는 해양대학으로 철수하였다. 이와 같이 해병대가 군산, 장흥에서 적과 교전하고 있는 동안 정부미가 적재된 LST-801함은 7월 17일 20시 군산 항내를 이탈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해양대학으로 철수한 아 육전대와 해병대는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고 7월 18일 13시부터 금강 남단을 방어하기 위해 강 언덕에 포진하였고, 유엔공군 전투기 4대는 장항 상공으로 날아와 약 30분간 적에게 공격하였다. 그러나 장항을 점령한 적 제6사단의 1개 연대 병력이 이날 19시부터 야포대대와 함께 금강을 도하함에 따라 강의 남쪽에서 군산을 방어하려던 아군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금강 하류를 도하한 적 제6사단 15연대는 7월 18일 논산-강경 방면으로 침입하여 이리 쪽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에 해병대 제3중대는 7월 18일 이들을 격퇴하기 위해 이리 부근으로 이동하여 아 육군의 서해안지구전투사령관 지휘를 받게 되었다.

군산을 점령한 적은 군산 동북쪽 10㎞까지 진출하여 포위 태세를 취하였다. 이 같은 적정 판단으로 아군은 차기 작전에 대비하기 위해 7월 19일 13시부터 군산비행장으로 집결하였는데, 전세가 불리함에 따라 해상철수를 결정하였다.

아 육전대와 해병대의 일부 병력은 적을 저지하기 위해 아군의 포격지원 하에 군산에서 시가전을 전개하였으나, 결국 21시부터 철수하게 되었다. 아군의 엄호 작전에 힘입어 피난민들을 비롯한 나머지 해병대 및 군산기지 대원들은 22시부터 LST 안동호와 징발된 선박들에 승선할 수 있었다.

군산을 점거한 적은 피난민을 승선시킨 징발 선박에도 포격을 가했으나 아측은 1척의 손실도 없이 외해로 탈출하였으며, 아군의 철수 대원들은 LST 안동호로 22시 30분 군산을 철수하여 고군산도를 거쳐 목포항으로 향하였다.

해군본부는 7월 19일 11시 40분부터 군산기지 및 해병대와의 통신이 두절되자 인근에 경비하고 있던 YMS-502, 503정을 이날 21시 군산으로 긴급히 출동시켜 전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서부지구전투사령관(소장 신태영) 지휘 하에 들어간 해병대 제3중대는 7월 20일 이리 북쪽 1㎞ 지점에서 적 1개 중대 규모와 교전 끝에 16명을 사살하였으나, 3개 중대 규모의 적 병력이 증가되자 철수명령에 따라 김제-정읍-광주를 거쳐 7월 21일 17시에 목포로 이동하였다. 또한 7월 19일 군산에서 LST편으로 해상으로 철수한 해병대 부대도 7월 21일 08시 목포에 도착하였다.[3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분석 및 평가

전쟁이란 시간과 장소를 놓고 승패를 결정짓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군산과 장항을 방어하기 위해 서천에 진지를 구축 중에 있던 아 육전대(군산기지와 인천경비부 대원)는 7월 16일 군산에 도착한 해병대 고길훈부대가 즉각 서천으로 출동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해병대는 군산에 도착한 당일 진출하지 않고 적이 이미 서천에 진지를 확보하고 있던 7월 17일에야 출동함으로써 기선을 제압하지 못하였다. 물론 도착 후 부대정비와 전황파악 등으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이 중과부적으로 남하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아군의 대응이 하루 동안이

나 지연된 것은 적에게 유리한 여건을 부여해 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서천에 진출 중에 있던 아 육전대는 해상병력으로서 지상전투에 대한 교육훈련이 거의 없었고, 또한 무장이 빈약하였기 때문에 적정 정찰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증원부대로서 군산에 도착한 해병대는 소수의 정찰대를 보낸 다음에야 주력부대를 투입함으로써 기습과 선제공격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소극적인 전투가 되고 말았다. 아 해병대가 군산에 도착한 당일 야간을 이용하여 서천에 진출하여 공격준비를 하였다면 남하하는 적에게 보다 많은 타격을 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 해병대가 군산에 상륙할 당시 적은 서천 북쪽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아 육전대를 지휘했던 인천경비부 참모장 정경모 소령은 시간의 급박성 때문에 누차 증원부대인 해병대의 출동을 긴급히 요청했으나, 해병대 고길훈부대는 먼저 정찰대만을 보냈던 관계로 적에게 아군 병력의 동향만 노출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해병부대의 상륙지역을 장항이나 서천 서쪽으로 하였다면 군산에서 장항까지 도선으로 이동하여 출동하는 번거로움도 없었을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한국해병대가 제주도에서 공비토벌을 하던 중 6·25전쟁 발발로 처음으로 군산지구 전투에 참가했는데, 이는 한국해병대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병대의 전투력이 증강되는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군산지구방어전투에 참가한 해병대는 대부분 99식 소총과 중기관총 2정, 경기관총 3정, 60밀리 박격포 3문 등을 보유하였으나, 이 전투 후 미군으로부터 최신 무기를 지원받음으로써 차후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남해안 작전

1) 남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

(1) 참가 부대 및 함정

- 목포경비부(사령관: 대령 정긍모)
- 제3정대(사령: 대령 정긍모 겸무)
- 훈련정대(사령: 소령 양해경)
- PC-701함(함장: 중령 최용남)
- PC-702함(함장: 중령 이희정)
- PC-704함(함장: 중령 최효용)
- 소형함정 : YMS-504, 505, 507, 512, 513, 514, 518, JMS-301, 302, 303, 307, 308, 309, 310

(2) 작전 경과

남해안 방어 및 봉쇄작전은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정대(목포), 훈련정대(진해)의 함정들이 적 침투에 대비 남해상에서 실시한 방어 및 봉쇄작전을 말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3정대와 훈련정대가 담당한 남해의 작전해역은 가덕도와 대마도 서남단을 연결하는 선에서 서해의 북위 34도 30분까지였는데, 7월 26일 해본작명갑 제75호에 의거 북위 35도 00분으로 확장되었다. 동경 127도 00분을 기준하여 이서(以西)해역은 제3정대가, 이동(以東)해역은 훈련정대가 경비를 맡았다.[38]

이 기간 중 남해상에는 일일 평균 7척의 한국 함정이 배치되어 경비에 임하였다.[39] 경비함정들은 남해지역의 주요 항구 도시인 목포, 여수, 진해, 제주도 등으로 침투하는 적 선박을 저지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특히 제주도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비들이 남한의 남서 해안에 침투한 북한군과의 연계하여 활동할 것에 대비 제주도의 북쪽 해상에 함정 2~3척을 배치하여 제주도를 출항하거나, 제주

도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검색하여 해상을 봉쇄하였다.

해군본부는 남해안 경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7월 29일 해본작명갑 제77호로 제1정대 소속 YMS-501, JMS-302, 307정을 남해안에 배치시켰다.[40] 그리고 이 기간 중 제3정대와 훈련정대 함정들은 목포지구방어와 여수철수작전시 철수하는 함선에 대한 엄호와 적 함선의 침투를 저지하고 적 진지 및 병참부대에 대해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3) 분석 및 평가

전쟁 초기 북한 무장수송선의 대한해협 침투가 증명되었듯이 해상에서는 전선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남진하는 적 지상군 작전과 연계하여 한국의 주요 항구 도시인 목포, 여수, 진해, 제주도 등으로 침투하는 적 게릴라를 저지하기 위해 7월 29일 제1정대 소속의 YMS-501, JMS-302, 307정을 남해상에 배치시켰다. 특히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비들이 남한의 남서해안에 침투한 북한군과의 연계하여 침투할 것에 대비 한국해군은 제주도의 북쪽 해상에 함정 2~3척을 상시 배치시켰다. 이러한 한국해군의 조치는 적 게릴라 침투에 대비한 적절한 함정 운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목포지구 방어전

(1) 참가 부대 및 함정

○ 목포경비부(사령관: 대령 정긍모)
○ 제3정대(사령: 대령 정긍모)
○ 소형함정 : YMS-505, 514, JMS-307, 303, 309

(2) 작전 경과

목포경비부는 경비부 대원 75명과 제3정대 소속의 함정 6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6월 26일 진해통제부는 동해로 침투하는 적을 격퇴하기 위해 제3정대 소속

의 함정 3척(YMS-505, JMS-303, 309)을 진해로 출동시켰다. 그러나 PC-701함이 대한해협 해전에서 전과를 올리자, 이들 3척의 함정을 다시 목포로 복귀시켰다. 이후 3척의 함정들은 교대로 해상경비에 임하였고, 주로 법성포 근해를 경비하면서 북으로부터 남하하는 선박들을 검색하였다.

해군본부는 7월 15일 20시 목포경비부사령관 정긍모 대령에게 광주, 목포에 보관 중인 정부미를 조사하고, 비상시에 대비 즉시 적재하여 출항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7월 20일 해군본부는 해본작명갑 제64호로서 LST 단양호와 울산호를 목포로 출동시켜 목포 정부미 8만 가마를 부산까지 수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날 해본작명갑 제67호에 따라 목포경비부사령관 정긍모 대령은 인천경비부와 군산기지 병력을 지휘하게 되었다.

> "인천경비부와 군산기지를 7월 20일부로 목포경비부에 통합하고, 목포경비부사령관은 인천경비부 및 군산기지 병력을 도합 지휘하라. 군산기지사령관 및 인천경비부사령관은 7월 20일부로 경비부 운영을 청산하고, 그 일체(경리, 병기, 차륜, 통신기, 기타 일체)를 목포경비부에 인계토록 할 것"

LST 단양호 및 울산호는 7월 20일 목포에 있는 정부미 80,000가마를 부산으로 수송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적의 주력은 여전히 경부선을 따라 남하고 있었고, 대전 부근에서 미 제24사단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장항, 공주 부근에서 금강을 도하한 적은 전주와 정읍에서 아군과 교전을 계속하면서 7월 23일에는 광주에 침입하였다. 한편 군산에 침입한 적 제6사단의 일부는 목포를 향해 진격하고, 기갑부대는 순천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광주를 상실했다는 정보를 접한 목포시민들은 인근의 섬으로 피난을 가기 시작했고, 목포경비부는 병기와 탄약의 추가 보급을 요청했으나 해군본부는 현재의 병력과 장비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당시 목포지구의 아군 병

력은 해군과 소수의 경찰병력 밖에 없었으며, 전남지구편성관구사령부에서 파견된 1개 소대 정도의 육군병력이 전부였다.

광주를 점령한 북한군의 일부가 목포로 진격할 것이라 예상하여 목포경비부는 7월 23일 우선 백미와 유류 등 전쟁물자를 수송하였다. 또한 목포경비부는 이날 적 전차의 목포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목포시내 입구인 용당동과 산정동 간 다리 2개를 파괴하였다.

목포경비부사령관은 18시 일단 해상으로 철수하여 다음 명령에 따르라는 해군본부로부터 명령을 받고 경비부 대원과 목포 피난민들을 LST 단양호에 승선시켰다. 당시 목포항에는 YMS-505정과 JMS-309정이 있었는데, 목포경비부의 명령에 따라 18시 30분 일단 고하도로 이동한 후 투묘 대기하였다.

7월 24일 07시 적은 전차 2대를 앞세우고 목포시내에 침입하였다. 이들은 선발대로서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이었다. 적은 시내 입구의 교량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얕은 하천을 이용하여 시내로 진입하였다.

한편 고하도에 투묘 대기하고 있던 YMS-505정은 해군본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문을 받았다.

"목포경비부와 제3정대는 증원 병력과 무기가 도착할 때까지 목포항을 사수하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명령을 받은 사령관 정긍모 대령은 다시 목포항으로의 입항을 결심했으나 함정장들이 "육상전투능력이 미약한 소수의 해군병력으로 적과 교전할 수 없다"고 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정긍모 사령관은 7월 24일 05시에 YMS-505정과 JMS-309정을 직접 지휘하여 세관 부두 앞에 접안한 후 승조원을 전투태세를 취하게 한 후, 5명의 무장 대원을 시내로 상륙시켰다. 그러자 한국은행지점 부근에서 10명의 적이 세관부두를 향해 돌진하였다. 이를 본 JMS-309정이 20밀리 중기로 사격을 가하자 적들도 건물 사이로 들어가 응사하였다. 마침내 적의 병력이 증가되고 YMS-505정도 20밀리 중기로 사격하였으나 많은 시민들 틈에 섞여있는 적

을 타격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적이 쏘아대는 소총 탄환은 아군 함정에 계속 명중되었고, 부둣가에 집중되는 박격포탄은 점점 함정 주위에 가까워졌다. 따라서 309정은 먼저 세관부두를 출항하였고, 505정은 적정 판단을 위해 상륙한 대원 5명 중 3명이 전사하자 2명만을 승선시킨 후 적에게 사격을 가하면서 출항하였다.

이때 적과의 거리는 불과 200미터로서 유달산 중턱에서 쏘아대는 박격포탄은 함정 주위에 작렬하였다. 505정은 출항 직전 마스트의 신호등에 적의 박격포탄 1발이 명중하여 2명의 대원이 파편상을 입었으나 함정의 기능에는 지장이 없었다. 또한 505정은 목포항을 벗어날 때 해안선 가까이 근접하여 항해함으로써 박격포탄을 피할 수 있었다.

목포경비부는 7월 24일 15시를 기해 목포항에서 외해로 철수하였다. 해군본부는 7월 27일 해본작명갑 제76호로서 목포경비부에 서해안에서 경비 중인 제1정대, 제3정대 함정에 대한 보급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목포경비사령관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LST 단양호를 임시경비사령부로 지정하고 대흑산도 근해에서 함정 보급을 하면서 도서 및 연안에 출몰하는 적색분자를 색출하는 등 서·남해역에 대한 경비를 하였다.[41]

(3) 분석 및 평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적이 전차를 앞세우고 목포에 도달할 당시 목포항에는 해군 수송선 1척과 경비함정 2척이 있었다. 적과 대전할 만한 지상군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목포지구의 상황을 생각해볼 때 적소적시에 병력과 화력의 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군산에서 목포로 철수한 한국해병대는 적이 목포에 도달하기 3일전에 이미 여수로 이동하였고, 목포항의 제3정대 함정들도 외해로 출동하여 해상경비에 임하였기 때문에 목포지역은 공백상태가 되었다. 또한 대전 부근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던 한국육군과 미24사단 및 25사단도 그들의 지연전선을 대전-대구-부산으로만 연결할 것이 아니라 서남부에도 국지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더라면 적의 남진

대열을 제지하는데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병력과 화력이 분산된 원인은 지휘계통에 있어 적절한 조치와 절차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육·해·공군의 제반작전을 총지휘하는 통합기구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해 원만한 합동작전이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철수였지만 지휘부에서 목포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전력을 투입했더라면 부산과 같이 견고한 교두보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3) 여수 철수작전

(1) 참가 부대 및 함정

- 육군 전남편성관구사령부(사령관 : 소장 이응준)
- 해병대사령부(참모장 : 중령 김성은)
- PC-701함(함장 : 중령 최용남)
- 소형함정 : YMS-504, 512

(2) 작전 경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해군본부는 7월 15일 18시 05분 여수에 대기하고 있었던 교통부 대한해운공사 소속의 선박 LST에 여수 정부미(백미 12,709가마, 나락 20,423가마) 적재를 명령하였다. 그리고 7월 18일 13시 해본작명갑 제62호에 따라 여수에 있는 육군 전상 장병 600명을 마산까지 수송키 위하여 LST 1척을 여수로 파견하였다. 또한 해군본부는 7월 21일 해본작명갑 제68호에 의거 호남지구로부터 여수로 후퇴한 육군병력을 마산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FS 평택호를 여수로 출동시켰다. 같은 날 여수의 정부미를 마산으로 수송키 위하여 부산에 대기 중인 LST 조치원호를 출동시켰다.

장항, 군산, 이리 등지에서 99식 소총으로 고전하다 해로를 이용하여 목포로 철수한 해병대의 고길훈부대는 새로운 작전 수행과 신장비를 갖추기 위하여 7월

21일 18시 목포를 출발하여 다음날 08시 여수항에 도착하였다. 한편 해병대 참모장 김성은 중령이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제7중대를 지휘하여 FS 제천호 편으로 7월 22일 06시 제주항을 출발, 이날 18시 여수항에 도착하였다.

해병대는 제7중대(중대장: 중위 안창관)와 고길훈부대의 3개 중대를 통합하여 김성은 중령이 지휘하는 김성은부대를 편성하였다. 김성은부대의 병력은 371명이었다. M1소총 및 박격포 등이 FS 영등포호에 실려 여수에 도착하자 해병대는 이 장비들로서 무장을 갖추었다. 이때까지 M1소총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해병대원들은 FS 수송선 갑판 위에서 분해결합 및 사격술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작전준비를 하고 있던 아 해병대는 해군본부로부터 남원에 있는 육군 제7사단(사단장: 대령 민기식)과 합동작전에 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성은부대는 육군 제7사단에 배속되어 FS 영등포호에 적재중인 탄약과 군수물자를 철야로 양륙하여 열차에 옮겨 싣고 7월 23일 03시 여수를 출발하여 이날 10시 20분 남원에 도착하였다.

김성은부대는 7월 24일부터 남원, 함양지역에서 적과 전투를 하였다. 7월 27일 적의 1개 대대가 함양 동북방 4㎞까지 침공해 오자, 아 해병대는 산청으로 철수하라는 제7사단본부의 명령에 따라 7월 29일 07시 산청에 도착하였다. 해병대는 산청국민학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날 12시 20분 산청을 출발하여 16시 40분에 진주에 도착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월 30일 김성은부대는 한국육군 제7사단에서 미육군 제19연대로 배속이 변경되었다.

김성은부대는 진주의 만경산 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하동을 점령한 적 6사단의 예하 부대가 진주로 진격해 오자 이날 17시부터 적과 전투를 하였다. 그러나 전차를 앞세운 적의 주력부대가 7월 31일 06시에 진주를 점령함에 따라 김성은부대는 철수 명령을 받고 09시 30분에 진주를 철수하여 마산으로 향하였다.

적이 순천을 거쳐 여수로 진격하려는 기세를 보이자, PC-701함장 최용남 중령은 YMS-504정과 512정을 지휘하고 여수 해안을 봉쇄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에 대

한 검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701함은 순천과 남원에서 교전 중인 상황을 해군본부와 국방부에 연락하는 통신중계 역할도 수행하였다. 또한 YMS-504, 512정은 대전 지구에서 분산된 미 제24사단 소속의 병력 400명을 수습하여 부산까지 수송하였다.

지상의 전세가 점차 악화되자 PC-701함장 최용남 중령은 해군본부에 전황을 보고하는 동시에 여수로 철수하는 아군 부대의 해상철수를 위해 수송함정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해군본부는 LST 조치원호 및 안동호를 포함한 8척의 수송함선을 파견하였다.

순천까지 적이 침입하자 여수시민들은 제주도와 부산 등지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한국해군은 7월 24일 13시 10분 LST에 정부물자를 적재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물자를 적재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해군장병들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해군본부는 전남편성관구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육군병력 철수를 위해 선박 2척(FS 원주호, 제천호)을 추가로 여수항으로 출동시켰다.

7월 27일 06시 30분 순천에서 아군의 저지선을 넘은 적이 여수 북항부두의 고지를 점령하였고, 그들의 선두가 시내에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PC-701함은 곧바로 정부미를 적재한 LST 충주호를 출항시키고, 이날 07시부터 아 병력이 편승하는 LST와 수송선에 대한 엄호와 대기 중인 선박을 방어하기 위해 여수 북항으로부터 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적의 집결지에 대하여 3인치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러한 지원하에 전남편성관구사령관은 차량과 군수품을 포함한 예하부대원을 LST 문산호에 편승시키고, 7월 27일 07시 30분에 여수를 출항할 수 있었다. 당시 여수에 침입한 적의 무장은 900명의 병력과 122㎜ 야포 3문, 82㎜ 박격포 12문, 중기 20정으로 추정되었다. 적은 출항하는 LST 수송선을 향해 사격을 가했으나 아측은 아무런 손실도 없었으며, PC-701함은 철수부대의 엄호를 위해 적의 집결지에 함포사격을 하였다. 08시 30분 모든 함정은 적의 사격권에서 벗어났다.

YMS-512정은 하동에서 후퇴한 미군부대 1개 중대를 편승하여 7월 28일 12시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FS 원주호 등 수송함들은 후퇴한 육군병력을 비롯한 전쟁

물자를 여수에서 편승 또는 적재하여 마산, 진해, 부산 등지로 수송하였다. 여수철수작전 기간 중 수송함선에 의해 여수로부터 수송된 내역은 <표 7-2>와 같다.[42]

수송작전에 참가한 LST, FS함선들은 병력을 비롯하여 군수물자의 수송에 역점을 두어 아군의 지상작전에 기여하였다.

해군 수송함선을 이용하여 진해와 부산 등지로 이동한 아군은 전열을 가다듬어 호남지구작전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한국해군은 전투능력이 마비된 여수지구의 경찰로부터 소총을 회수하여 진해의 해군신병훈련소로 보냈다.

<표 7-2> 해상수송 실적(1950. 7. 24~7. 27)

수송 함정	병력 및 수송 물자	수송구간	수송일시	비고
LST 조치원호	국고금 5억원, 광목 1만필, 백미 16,000가마, 군복 4,000점, 차량 5대, 군인 및 가족 103명	여수-부산	7.24, 20:00	
LST 안동호	제7사단 병력 1,630명, 백미 2,380가마, 설탕 67톤, 차량 17대, 실탄 2톤, 광목 8,000필, 휘발유 130드럼, 연초 2화차, 다이야 60개, 피복 2화차, 탄약 1화차, 벼 8,000가마	여수-마산	7.25, 15:30	
FS 충주호	벼 1,500가마, 보리 230가마, 김 360상자, 식용유 12드럼, 우유 1통, 경찰병력 11명	여수-진해	7.27, 08:00	
FS 여주호	벼 2,000가마, 김 1,000상자	여수-부산	7.26, 21:00	
FS 제천호	광목 30필, 보리 50가마, 김 100상자, 휘발유 10드럼	여수-부산	7.27, 08:00	
FS 원주호	육군 제15연대 병력 및 군수물자	여수-부산	7.27, 08:00	
FS 천광호	육군 제15연대 병력 및 군수물자, 광목 8화차	여수-진해	7.27, 08:00	
LST 문산호	이응준 소장 외 600명, 차량 30대	여수-진해	7.27, 08: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여수를 점령한 적 제6사단은 남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침공을 계속하여 7월 31일에는 하동, 진주에 이르렀으며, 유엔군은 미 제25사단을 주축으로 하여 이곳의 방어에 들어갔다.

(3) 분석 및 평가

해상수송 능력의 확보는 지상군의 전열재편과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한다. 한국해군이 군산, 목포, 여수 등에서 수행한 아군 병력 철수와 정부미를 비롯한 중요 군수물자의 반출 및 수송작전이 아군의 전열재편과 사기 앙양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특히 병력이 열세한 아군이 안전하게 철수하는 것은 적군에게 동수의 손실을 가한 것 못지 않게 아군의 전투력을 보존해 주는 효과와 함께 아군의 사기를 앙양하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군이 정부미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반출함에 따라 적에게 한국의 전쟁물자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여 차후 작전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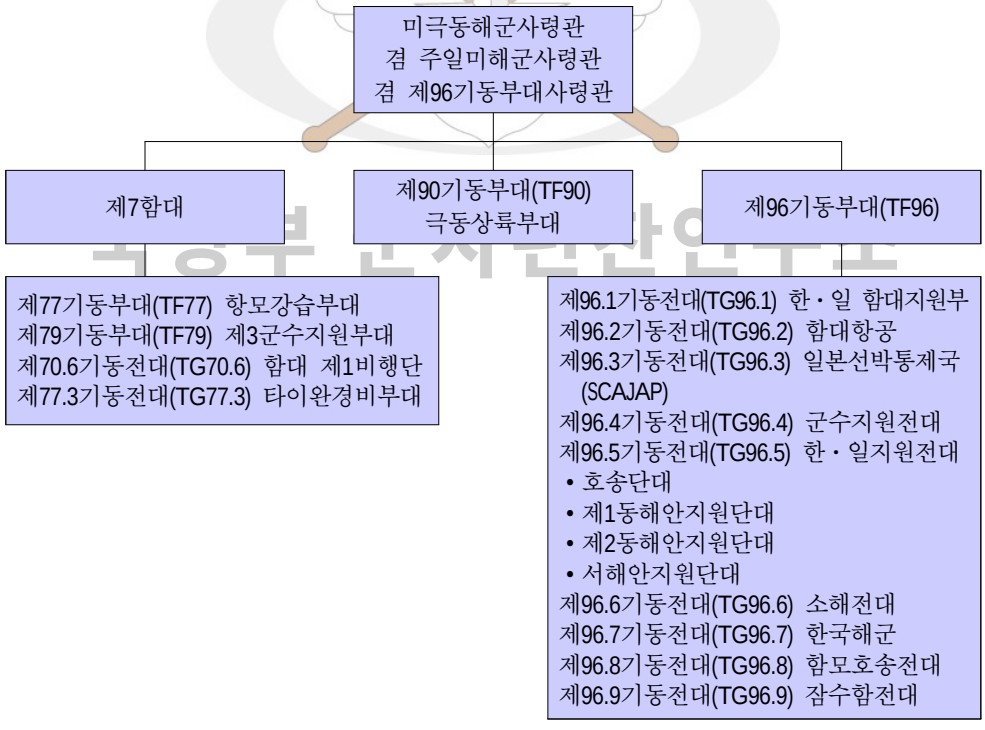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유엔해군 작전

1. 부대 편성 및 운용

7월 3일 미극동해군으로부터 시달된 작전명령 제8-50에 의해 7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미극동해군 예하의 기동조직이 편성되었다. 이 기동조직은 유엔해군의 임무가 증대되고, 전력이 증강됨에 따라 7월 21일 미극동해군 예하의 기동조직이 일부 재편되었다.[43]

<표 7-3> 미극동해군의 기동편성(1950. 7. 21~9. 11)



기동조직의 주요 변경내용은 제7함대의 제77.7기동전대(TG77.7: 지원전대)가 제79기동부대(TF79: 제3군수지원부대)로 변경되었고, 제77.3기동전대(TG77.3: 타이완 경비부대)가 신편되었다.

제96기동부대(TF96) 예하의 제96.5기동전대(TG96.5)는 전력이 증강되면서 명칭과 조직이 변경되었다. 즉 동해안지원전대에서 한·일지원전대로 변경되면서 제96.5기동전대 예하에 호송단대, 제1동해안지원단대, 제2동해안지원단대, 서해안지원단대 등 4개 단대로 편성되었다. 2개의 동해안지원단대 중 1개 단대는 하트만(Charles C. Hartman) 제독의 지휘 하에 헬레나(Helena)함과 제111구축함분대가 배속되었으며, 다른 1개 단대는 히긴스(J. M. Higgins) 제독의 지휘 하에 톨레도(Toledo)함과 제91구축함분대가 배속되었다. 또한 제이(Jay) 대령 예하에 4척의 프리게이트함이 배속되어 호송단대로 지정되었다. 제96.8기동전대(TG96.8)에 예속되었던 영연방함정들은 제96.5기동전대(TG96.5) 예하의 서해안지원단대로 편성되었다.

위와 같은 기동조직 재편에 따라 하트만 해군 소장이 지휘하는 제3순양함분대가 미국 서해안으로부터 증원된 첫 번째 부대로서 7월 23일 일본에 도착하였다. 이 중 헬레나함과 제111구축함분대는 요꼬스까에 도착하였고, 먼저 출발한 톨레도함은 이미 사세보항에 입항해 있었다.

하트만 제독이 미극동해군사령관에게 도착보고를 하자 미극동해군사령관은 하트만 제독에게 제96.5기동전대(한·일지원전대)의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헬레나함과 제111구축함분대는 즉시 요꼬스까를 출항하여 7월 25일 사세보에 도착하였다. 톨레도함, 앤드루스(William G. Andrews) 제독의 기함인 벨패스트(Belfast)함, 히긴스 제독의 기함인 주노(Juneau)함은 이미 사세보에 도착해 있었다.

조이(C. Turner. Joy) 제독, 하트만 제독, 히긴스 제독, 앤드루스(W. G. Andrews) 제독 그리고 그들의 참모들은 7월 25일 사세보에서 회의를 가졌다. 그들은 이 회의에서 재편성된 새로운 기동조직에 대한 임무와 차후 작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5인치 및 6인치 함포가 철근 콘크리트 교량에 대해 파괴 효과가 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다는 히긴스 제독의 보고에 따라 포격과 화력지원에 8인치 포를 장비한 중순양함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주노함을 제7함대로 파견하기로 하고, 대신 톨레도함이 히긴스 제독의 기함으로 지정되었다.

7월 23일 한·일지원전대의 지휘권을 인수받은 하트만 제독은 7월 26일 제3순양함분대와 제111구축함분대를 지휘하여 사세보를 출항, 포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 해역으로 출동하였다. 그러나 이 임무는 7월 26일 15시 미극동해군사령부로부터 헬레나함과 구축함을 지휘하여 타이완해협으로 항진하라는 명령을 접수함에 따라 중단되었다. 그런데 하트만 제독은 위도 상으로 15도나 떨어져 있는 각 함대에 속하는 2개의 기동전대를 지휘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하트만 제독은 미극동해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해역에서 작전중인 함정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톨레도함에 승함한 히긴스 제독에게 이양하고, 헬레나함과 구축함들을 지휘하여 타이완해협으로 항진하였다.

얼마 후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중장은 경순양함 주노함, 구축함 무어함, 매독스함 그리고 유조함 시마론함으로 구성된 제77.3기동전대(TG77.3: 타이완경비부대)를 하트만 제독이 지휘하는 전대와 교대하기 위해 타이완 근해로 파견하였다. 이 함정들은 타이완해협에서 5일간을 보내고 8월 1일 북상하여 8월 7일에는 북한 지역에 대한 포격을 개시할 수 있었다.

앤드루스 제독에게는 서해안에 대한 작전 책임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유엔해군의 감독 업무가 부여되었는데, 그는 이러한 감독 업무를 위해 사세보에 1척의 프리게이트함을 배치하여 행정본부로 사용하였다.

항공모함 복서(Boxer)함이 제5공군에 인도할 무스탕 전투기를 탑재하고 7월 23일 요코스카에 입항함으로써 함선으로서는 8일 16시간 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쿄만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는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항공모함 필리핀 시(Philippine Sea)함도 7월 6일 샌디에이고를 출항하여 하와이 근해에서 10일간의 교육훈련을 마친 후 8월 1일 버크너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쪽으로 항진하였다.

전투함 증강에 따른 군수지원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오스틴(Bernard L. Austin) 해군 대령이 지휘하는 제3지원전대 예하에 제31지원분대가 8월 1일 편성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분대는 사세보에서 군수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세력이 계속 증강될 계획이었다.

앤드루스 제독은 7월 초에 서해안지원전대에 대한 지휘를 맡았지만, 동부전선의 전투가 치열하였던 관계로 그의 예하 함정을 동해에 배치함으로써 서해에는 한국함정과 알라크리티함에 의해 작전임무가 수행되고 있었다. 7월 중순이후 증원 전력이 도착하고 제96.5기동전대가 재편됨에 따라 앤드루스 제독이 서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 대폭 증강되었다.

7월 21일부로 재편된 서해안지원단대에는 영국의 경순양함 자메이커함, 케냐함, 벨패스트함과 영국의 구축함 코삭크함, 콕케이드함, 채리티함, 오스트레일리아의 바탄함 그리고 네덜란드의 에베르트센(Evertsen)함을 두게 되었다. 7월 30일 캐나다의 트라이발(Tribal)급 구축함 캐유가(Cayuga)함, 아다바스칸함, 수(Sioux)함 등이 도착함에 따라 앤드루스 제독의 전력은 더욱 증강되었다. 이외에도 프랑스의 프리게이트함 1척과 뉴질랜드의 프리게이트함 2척이 8월 1일 한국해역에 도착하여 서해안지원단대에 합류하였다.

아울러 서해안지원단대는 코머스함과 함께 공창에서 수리를 마친 트라이엄프함이 8월 8일에 합류함으로써 독자적인 항공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서해안은 수로조건 때문에 대형 함정이 활동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는 관계로 트라이엄프함의 항공기가 매우 유용하게 운용될 수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참가 부대 및 주요 지휘관

○ 미 해군본부(해군참모총장: 대장 Forrest P. Sherman)
○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대장 Arthur W. Radford)
○ 미 극동해군(사령관: 중장 C. Turner. Joy)
○ 미 제7함대(사령관: 중장 Arthur D. Struble)

○ 영 극동해군(사령관: 대장 Sir Patrick Brind)
○ 영 극동해군(부사령관: 소장 W. G. Andrews)

3. 작전 경과

1) 해상봉쇄작전 및 함포지원

동부전선에서는 유엔함정들에 의해 적 침공로에 대한 포격이 연일 계속되었다. 한국해군은 동부전선에서 작전 중인 아 지상군과 원활한 협조를 위해 한국군 연락장교을 유엔함정에 각각 1명씩 배치시켰다. 그리고 1명의 포병장교가 히긴스 제독의 참모로 배속되었으며, 탄착수정을 위해 미 육군항공기가 사용되었다.

7월 14일에는 지상군으로부터 함포지원 요청이 없었는데, 이날 야간에 주노함은 울진 남쪽 도로상의 적의 트럭 불빛을 발견하여 몇 발의 사격을 가하였다. 7월 15일 미 경순양함 주노함과 구축함 드 헤븐(De haven)함은 북위 36도 34분에서 36도 52분까지 20마일에 이르는 영덕 부근의 해안도로에 함포사격을 가했다. 이날 포격에서 탄착수정을 위해 미 육군항공기가 처음으로 운용되어 정확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가운데 적 집결지와 포 진지에 대하여 총 645발의 5인치 포탄을 발사하였다. 또한 이날 야간에도 조명탄의 조명 아래 도로에 대한 포격을 실시하였다.

7월 16일에는 미 구축함 맨스필드(Mansfield)함이 가세하였으며, 제96.5기동전대(동해안지원전대)는 이날 북위 36도 30분에서 37도 15분까지 이르는 해역을 차단하고 해안도로에 총 173발의 포격을 가하였다.

7월 17일 제96.5기동전대의 기함인 주노함은 유류 수급을 위해 부산으로 향하였는데, 주노함에 승함한 기동전대장 히긴스 제독은 한국의 해군지휘관들과 회의를 가졌다. 주노함이 부산으로 떠난 이날 맨스필드함과 드 헤븐함은 400발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함포를 발사하였는데, 특별한 목표물을 향해 포격한 것이 아니라 적진으로 간주되는 산간과 해안도로에 대해 산발적으로 포격한 것이다. 이날 영국 경순양함 벨패스트함과 구축함 코삭크함도 해안포격 임무를 수행하였다.

7월 18일 제1기갑사단이 포항에 상륙한 이후 맨스필드함과 드 헤븐함은 삼척 근방의 해안도로에 대한 포격을 재개하였으며, 벨패스트함과 코삭크함은 38도선 해역을 초계하고 있었다. 부산에서 유류수급을 하고 동해로 복귀한 주노함은 7월 18일 오전 포항상륙작전에 대한 지원 임무로부터 해제되었으며, 구축함들은 주노함과 합류하기 위해 영덕으로 남하하였다.

이날 주노함과 구축함들은 합류한 후 7월 20일까지 북위 36도 17분과 36도 30분사이의 영덕 외해에서 임기표적에 대해 포격을 가했으며, 특히 영덕 계곡에 집결하여 전면공세를 취하고 있는 적세력에 대하여 집중포격을 가하였다. 이 포격에서 태풍 그레이스 때문에 탄착수정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었으나, 전투함 승조원들의 숙달된 포술능력에 의해 큰 전과를 거두었다. 2일간의 포격에서 약 1,300발의 포탄이 발사되었는데, 해안사격통제반(SFCP)의 관측에 의하면 400명 이상의 적군을 살상하고 적 통신소를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7월 18일 오후에는 미 해군과 영 해군장교 일행이 한국군 제3사단에 파견된 주한미군사고문단과 회합하고 통신망을 개선할 무선통신 장비를 전달하기 위해 상륙하였다. 이날 저녁 히긴스 제독은 새로운 전술을 고안했는데, 이것은 주력함이 연안에서 떨어져 작전하는 동안 구축함 1척이 야간에 연안을 따라 남북으로 항해하면서 표적을 탐색하고 공격할 가치가 있는 목표물에 포격을 가하는 것이다.

7월 20일 한국군 제3사단은 7월 21일에 영덕을 탈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영덕 전선에서는 적의 공세가 맹렬하게 계속되었으며, 반면에 아군은 정보가 빈약하였고, 통신수단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영덕을 방어하고 있는 미군 부대마저 미8군사령부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으니 전선을 사수하라”는 미8군사령관 워커 장군의 메시지는 주노함이 중계함으로써 겨우 영덕을 방어하던 부대에 전달되기도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 제3사단의 영덕탈환작전계획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던 포항상륙기동부대사령관 도일(James H. Doyle) 제독은 그의 예하인 제2상륙제대가 7월 21일 포항을 상륙한다는 계획이어서 영덕의 상황과 동부전선의 전황 등 전반적 작전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도일 제독은 단정을 해안으로 보내어 정보를 수집한 결과 제2상륙제대가 계획대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한국군 제3사단이 7월 21일 영덕을 탈환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주노함, 벨패스트함을 비롯한 구축함들은 7월 21일 06시부터 15분간 영덕의 적진을 포격한 후, 주노함에 의한 2발의 조명탄 발사신호에 따라 한국군 제3사단이 공격을 개시하여 09시 17분에 영덕을 탈환하였다. 주노함, 벨패스트함 그리고 구축함들은 한국군의 영덕탈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80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하였다. 이날 오후에 맨스필드함과 벨패스트함은 일본의 사세보로 귀항하였으며, 주노함은 스웬슨함, 히그비함과 같이 영덕 지역에 대해 계속 포격하였다.

7월 22일에도 주노함, 스웬슨함, 히그비함은 한국군이 진격할 수 있도록 포격을 계속하였으나, 대규모의 적이 공격을 가해 왔다. 아군은 통신마저 두절되고 기상이 불량하여 탄착수정 항공기도 이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포병관측장교를 비롯한 미군과 한국군은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영덕을 탈환한 기간이 일시적이었으나, 육·해군 연합작전으로 성공을 거둔 작전이었다.

7월 23일 아 지상군이 계속 남쪽으로 후퇴하는 가운데 화력지원의 임무는 구축함으로 이양되고, 히긴스 제독의 기함인 주노함은 사세보로 항진하여 7월 24일 오전 도착하였다.

제3순양함분대와 제111구축함분대를 지휘하여 7월 23일 일본에 도착한 하트만 제독은 한·일지원전대의 지휘권을 인수하고 7월 26일 오전 일찍 예하 세력을 이끌고 사세보를 출항, 한국해역에서 포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북상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 제독이 걱정하는 타이완해협으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어 즉각 중단되었다. 이에 한국해역에서의 작전지휘권은 톨레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함에 승함한 히긴스 제독에게 이양되었다. 히긴스 제독은 영덕 외해에 포진한 화력지원함들과 합류하도록 지시를 받고, 7월 26일 톨레도함에 승함하여 동해안에 도착하였다.

이때 포항에서는 수송함선의 마지막 제대가 하역작업을 거의 끝내고 있었다. 톨레도함이 동해에 도착함으로써 동해에서 포격임무를 수행 중이던 구축함과 이미 고립된 전장에 증원된 야전 포병대대 및 F-51 전폭기대대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적 지상군을 상대로 폭격하는 미 전투기들은 대구의 합동작전본부 및 포항비행장에 위치한 비행대대간 통신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동해안 작전은 별개의 전장이 되고 말았다. 이와는 반대로 동해에서 작전하는 유엔해군은 지휘부 및 타군 부대간 원활한 통신소통으로 그런대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7월 27일 중순양함 톨레도함은 주간에 적부대 집결지와 보급품 저장소 및 진지에 포격을 가하였고, 야간에는 조명탄으로 전선을 조명하면서 포격임무를 하였다. 이때부터 8인치 함포가 처음으로 북한군에게 사용되었다. 톨레도함은 탄약을 절약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함포지원사격을 하였는데, 포격임무를 11일간이나 계속하였다.

톨레도함, 맨스필드함, 콜레트함은 미 제24사단의 화력통제반과 항공관측기의 지원 하에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선 근해에서 실시한 함포사격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함포사격시 적의 탱크, 차량 등이 훌륭한 목표물이 되었으며, 해안 또는 항공 탄착관측이 매우 유용하였다. 그리고 전투함에서 발사한 조명탄은 지상에서 작전하는 포병부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구축함들은 하루씩 교대하여 영덕과 38도선 사이의 표적을 포격하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남북으로 왕복하면서 초계하였다. 히긴스 제독 지휘 하의 함정들은 해안으로부터 약 7,000야드까지 접근하여 단정으로 해안부대 연락요원을 교체하고, 전선에 공급할 군수품의 해상수송을 엄호하였다.

8월 1일 앤드루스 제독은 벨패스트함과 바탄함을 적이 해상보급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해주만에 접근시켜, 이곳을 엄호하는 적 해안포대를 포격하도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였다. 이때 미극동해군사령관은 서해안지원단대의 영국함정에게 주일해군항공대에서 발진한 탄착관측기의 지원 하에 서남쪽에 위치한 목포 지역을 포격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 포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목포수로는 조류가 강할 때 속도가 10노트 이상이 되고, 좁고 굴곡이 심한 수로를 통해 30마일을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침 포격 명령을 수명한 8월 1일 미극동공군으로부터 목포항에는 많은 대·소형 선박이 정박 중이라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따라서 앤드루스 제독은 그 다음날 구축함 콕케이드함과 코삭크함을 목포항으로 투입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구축함들은 목포항 부두와 철도 측선(側線)을 완전히 파괴하였지만, 정박중인 적 선박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미극동공군에서 발송한 전보는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를 입수한 1시간 후에 제6초계대대에서 발진한 넵튠 초계기의 관측보고에 의하면 목포항에는 침몰된 기선 1척 외에는 아무런 표적도 없었기 때문이다.[44]

이와 같이 유엔함정에 의한 임기표적에 대한 산발적인 포격과 아 지상군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함포사격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적의 진격속도를 지체시킴으로써 아측의 전선이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7월 말에 이르러 적의 공세가 약화되고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원산정유공장 폭격

7월 3일~7월 4일 평양과 해주에 대한 공습을 성공리에 마친 제7함대는 7월 10일부터 본격적인 항공작전에 돌입하였다. 아울러 제7함대 예하의 VP28기와 P4Y기를 주축으로 한 제1전투비행단이 괌도에서 오끼나와로 이동하였다. 이 항공기들의 주요 임무는 타이완 방위를 위한 정찰 활동이었다.

7월 16일 제77기동부대는 미극동해군사령부 작전명령 10-50에 의거 포항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동해로 항진하였다. 이 작전의 목표는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한 강습작전이었으나, 미7함대사령관 스트러블 제독은 적 지상군이 포항 북쪽 40㎞까지 남하하자 미 제1기갑사단의 포항상륙을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

7월 18일 04시 항공모함 밸리 포지함과 트라이엄프함은 호위함과 함께 포항 동북쪽 60마일 해상에 위치하여 포항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중전투초계(CAP)와 대잠탐색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7월 18일 05시 58분부터 포항에 대한 상륙이 행정상륙으로 개시됨에 따라 상륙기동부대사령관 도일 제독이 77기동부대 함재기들을 상륙작전지원 임무에서 해제하였다. 이에 스트러블 제독은 77기동부대를 북상시켜 북위 37도 이북과 동경 127 이동(以東)에 위치한 북한지역 표적들을 공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작전은 미극동공군사령관 스트래트메이어(Stratemeyer) 장군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제77기동기동부대가 북상하는 동안 항모 밸리 포지함은 북한지역에 대한 폭격준비를 완료하였으며, 표적은 평강, 원산, 흥남에 이르는 철도시설, 공장 및 비행장 등이었다. 7월 18일 09시에는 팬더기 7대가 원산항을 정찰하였는데, 원산시 동부의 굴곡된 해안선에 가동 중에 있는 원산정유소를 발견하였다. 정찰비행을 마친 후 이날 17시에 밸리 포지함이 스카이레이더(Skyraider) 11대와 코르세이어(Corsair) 10대를 발진시켰다. VA-55편대장 호드슨(N. D. Hodson) 소령이 지휘하는 스카이레이더기 11대는 각각 1,000파운드 폭탄 1개와 500파운드 폭탄 1개, 그리고 고속항공 로켓(HVAR) 2개를 장착하였으며, VF-53편대장 피트먼(W. R. Pittman) 소령이 지휘하는 코르세이어기 10대는 각각 로켓탄 2개와 20밀리 기관총을 무장하고 있었다. 항모를 이륙한 21대의 함재기들은 원산정유소 상공에 도착하자 먼저 코르세이어기들이 로켓탄을 발사하면서 좌회전으로 상승하자 이어서 스카이레이더기들이 급강하하면서 1,000파운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폭격기 편대는 다시 정유공장 상공을 뒤덮듯이 비행 간격을 유지하고 500파운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코르세이어기는 첫번째 로켓탄 공격으로 유류저장 탱크에서 솟아오르는 화염과 매연을 뚫고 다시 진입하여 기총사격을 가했다. 화염이 구름처럼 치솟는 가운데 공장시설은 계속적인 폭발을 일으켰다.

원산정유소 폭격을 마친 밸리 포지함의 함재기들은 7월 19일 평강과 함흥으로 출격하여 비행장, 철교, 교량 등을 파괴하였다. 함재기들은 2일 간의 출격에서 비행장 활주로 상에 있는 적 항공기 약 50대를 발견하여 이 중 절반 이상을 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괴하고 나머지 항공기에도 손상을 입혔으며, 4대의 기관차를 폭파시켰다. 반면에 적의 대공포화로 인하여 2대의 함재기가 격추되었는데, 조종사는 무사히 구출되었다.

7월 18일~19일 양일간에 걸친 원산, 평강, 함흥 출격에서 가장 기록적인 전과를 거둔 것은 역시 원산정유소 폭격이었다. VF-53편대장 피트먼 소령은 "해안전체가 불타고 있는 듯한 화염과 매연은 우리가 3,000피트 고도를 유지하며 항모로 귀환할 때 60마일 밖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원산정유공장은 4일 동안이나 불타고 있었으며, 조종사들에게는 뚜렷한 비행 참조점이 되었다. 이 정유공장의 피해는 아군이 나중에 북진하여 원산을 탈환하였을 때 공장 사장 조병규와 노무자 6명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정확히 밝혀졌다.

> "7월 18일 이전 5회에 걸쳐 유엔공군의 폭격이 있었으나 단지 3개의 폭탄이 유류탱크에 명중하였을 뿐 나머지는 인근 들판에 떨어져서 공장 가동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7월 18일 해군 함재기들의 공습에 의하여 공장내부 시설과 유류 저장탱크를 포함한 모든 지역을 불길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폭격이후 휘어진 철근과 부서진 벽돌투성이로 수라장이 된 공장은 전혀 가동할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다. 또한 12,000톤의 유류가 화염으로 산화하였으며,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는 시설은 하나도 없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정유공장은 소련과 북한간의 경제협정으로 1947년부터 소련인 기술자와 감독자가 상주해 왔으며, 연간 170만 배럴을 생산하는 북한에서 최대의 공장이었다. 이러한 전략적 표적에 대한 폭격은 유엔공군에서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동부전선의 긴박한 전황으로 인하여 미7함대의 함재기들에 의해 수행되었다.[45]

3) 근접항공지원

제96기동부대 함정의 동해안에 대한 함포지원과 제77항모기동부대의 북한지역 군사시설에 대한 강습작전은 북한군에게 예상치 않은 큰 타격을 주었다. 적에 비하여 화력과 병력이 열세한 아 지상군에게는 무엇보다도 항공지원이 필요하였

다. 더군다나 아 지상군이 계속 남쪽으로 밀려 전선이 부산 주변으로 압축됨에 따라 아 지상군으로부터 긴급항공지원 요청이 쇄도하였다.

7월 22일 항공모함 밸리 포지함은 군산 북서쪽 해상에 위치하여 함재기를 출격시켰다. 이날 스카이레이더기와 코르세이어기 편대가 미 제5공군 소속의 공중통제기의 통제 아래 왜관, 김천 지구로 출격하여 근접항공지원을 하였으며, 제트기들은 서울과 의정부로 이어지는 적의 보급로에 기총사격을 가하고 동시에 수원 근방의 집결지도 강타하였다. 그러나 함재기들이 지정된 주파수로 공중통제기와 교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7월 22일 출격은 별 성과가 없었다. 밸리 포지함은 이날 공격을 끝내고 유류수급과 재무장을 위해 작전해역에서 이탈하였다.

7월 23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 미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 제독, 미극동공군사령관 스트래트메이어 장군에게 긴급 전보를 타전하였다. 이 전보는 '근접 및 일반 지원용으로 해군 항공기의 운용 가능성에 대해 통보해 줄 것과 한국 서해안 지역에 항공지원이 긴급히 요구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미 제8군에서 미 제7함대에 긴급 항공지원을 요청한 것은 7월 23일 목포를 점령한 북한 제6사단이 진로를 동북쪽으로 돌려 부산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적은 주로 야간에 이동하여 교묘하게 부산쪽으로 신속히 진출하여 적과 부산과의 거리가 150마일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 구간에 적을 저지할 미 지상군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제7함대사령관은 워커 장군의 요청에 대해 항모기동부대가 연료 및 탄약의 재보급이 끝나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는 것과 함재기의 성공적 지원은 원활한 통신과 통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따라서 제77기동부대의 함재기는 인천상륙작전 때까지 2개월 동안 주로 근접항공지원 작전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에 수행한 근접항공지원 작전에서 해군·해병대와 육군·공군 간 작전교리상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즉 '근접항공지원'이란 우군부대에 근접한 적의 표적에 대하여 공중으로부터 공격하는 공·지 합동작전을 말하며, 제2차 세계대전 때 해군과 해병대에서 개발하고 발전시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접항공지원작전이 후에 공군과 육군에서 개발한 작전교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지상전선에는 해군함재기를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는 항공함포연락반(ANGLICO)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근접항공지원작전에 필수적인 적군과 아군 병력의 배치상황을 표시하는 지도의 좌표 사용, 통신기의 주파수 등에서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미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 제독은 지상군과의 원활한 통신과 항공기 통제를 위해 제1상륙기동전대에서 전방항공통제관(FAC) 경험이 있는 항공함포연락장교를 파견토록 하였다.

7월 24일 사세보에서 군수적재를 하고 있던 항모 밸리 포지함은 남서부전선의 전황이 급박하게 되자 서둘러 출항하였다. 도쿄의 미극동해군사령부는 기존 작전계획을 변경하고 군산-전주-남원-광주로 출격하여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실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지역은 이미 북한 제6사단에게 점령당한 상태였다. 이날 밤 남서부 전선을 지원하던 영국 항모 트라이엄프함은 서해로 항진하고, 밸리 포지함은 남해안으로 출동하였다.

7월 25일 08시 거문도 근해에 도착한 밸리 포지함은 함재기를 발진시켰으나 기대했던 전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함재기 조종사들은 통신회로의 혼잡으로 인해 항공통제관과 통신을 설정하지 못해 지상의 표적을 찾아 공격하기가 힘들었다. 그리하여 일부 함재기 조종사들은 상당한 시간 동안 통신 설정을 시도하다가 급기야 도로와 산간 소로를 따라 목표물을 찾아보는 실정이었다. 일부 조종사들은 이날 12시 화순-순천을 잇는 도로를 따라 이동 중인 적의 행군대열과 차량을 발견하고 공격을 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목표물을 찾지 못한 조종사들은 항공모함에 귀함하기 전에 안전을 위하여 장착했던 폭탄을 부득이 해상에 투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 제독은 7월 25일 출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급부대에게 보고하였다.

"금일 출격의 결과는 표적을 찾지 못해 매우 저조하였다. 단지 몇 대의 우마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와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 이외에는 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대체로 농촌 풍경은 평화로운 모습일 뿐이었다. 적 트럭 4대에 대해 기총소사 하였으나 연소하지 않았고, 다른 4대만이 파괴됐을 뿐이었다. 앞으로 계속되는 공습이 오늘과 같은 조건이라면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상군과의 적절한 통신이 이루어져야 만이 원만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함."

항모기동부대 함재기들은 7월 26일 오전에 근접항공지원을 위해 출격하였지만, 출격한 함재기들은 주요 도로상에 있는 적의 트럭 몇 대를 파괴하였을 뿐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합동작전본부(JOC)에서 권고한대로 대구 북서쪽으로 출격하여 북한 제2사단 및 제3사단의 남진대열을 찾아 나섰던 조종사들은 정확한 표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공·지 합동작전 절차에 따른 통신유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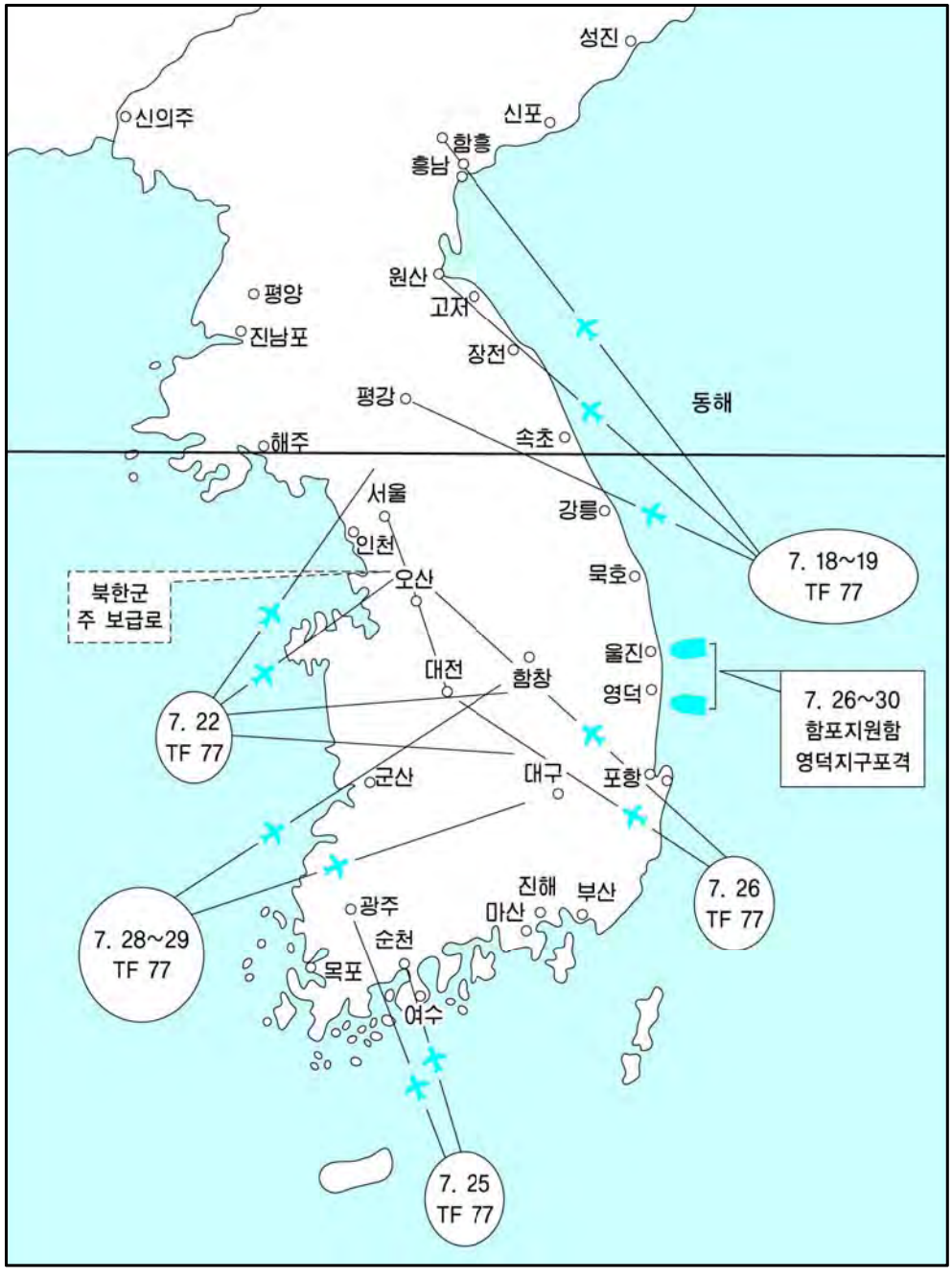
원활한 항공기 통제를 위해서는 다수의 항공기보다 4대로 구성된 1개 편대를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제77기동부대는 7월 26일 오후에는 스카이레이더기 4대를 출격시켰다. 전투기들은 양호한 통신소통에 힘입어 적이 활동하고 있는 영동 지역을 강타할 수 있었다. 이어서 코르세이어기 2개 편대(8대)가 출격하여 영동과 대전 사이에 집결한 적의 병력에 집중 공격을 가하여 적어도 1개 중대 규모의 적 병력을 사살하였으며, 여러 대의 차량을 파괴하였다. 이날 오후 공격을 마친 제77기동부대는 재급유를 위해서 작전 해역으로부터 이탈하였다.

7월 26일의 작전은 초기의 근접항공지원작전에 비하여 많은 진전이 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함재기의 공격 효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제5공군의 합동작전본부(JOC)도 7월 26일의 공격에 대하여 '매우 큰 가치가 있었다'고 표현하면서 장차 작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지원되는 모든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부연하였다.

7월 27일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 제독은 제5공군 합동작전본부와의 통신 상황을 개선하고 복잡한 통제절차를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게이트(Gate) 해군 소령을 합동작전본부가 있는 대구로 파견하였다. 게이트 소령은 합동작전본부와 함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7-2> 유엔해군의 함포사격·항공강습·근접항공지원(1950. 7. 18~7. 30)



간 직통 통신회로를 설정하고 합동작전본부 요원들에게 함재기의 능력과 제한요소 등을 설명하고, 지상군과 함재기 조종사들 간 통신 소통상의 문제점, 특히 표적의 위치산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는 표적의 위치 산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전방항공통제관이 그리드(Grid) 좌표로 표적의 위치를 구한 다음, 이를 다시 경위도로 환산하여 함재기 조종사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하였다.

재급유를 마친 제77기동부대는 7월 28일 목포 북서쪽 해상에 위치하여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재개하였다. 이날 프로펠러 항공기들이 출격하여 통제 상황이 다소 개선된 가운데 영동 주변과 함창 근방에서 적의 부대 집결지, 트럭 및 탱크에 대하여 집중 공격을 가하였다.

7월 29일 밸리 포지함의 함재기 편대는 남부에 있는 적의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순천-하동 지역에 집중공격을 가하였다. 이 편대는 20대 이상의 트럭과 2대의 탱크를 파괴하고 다수의 교량, 철도 및 차량에 피해를 주었다. 이날 작전이 끝난 후 제77기동부대는 군수적재를 위해 오키나와로 철수하였다.

7월 중 항모기동부대의 작전은 비록 군수문제로 인하여 작전 지속에 제한을 받았고, 항공기 통제에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근접항공지원작전이 제7함대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으나, 부산 지역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적의 공격을 둔화시키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월 29일 항공모함 복스(Boxer)함이 도착함으로써 제77기동부대는 그동안 손실한 항공기를 보충할 수 있었고, 8월 1일에는 항공모함 필리핀 시(Philippine Sea)함이 도착함으로써 전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제214, 제323 해병항공대를 탑재한 호위항공모함(CVE) 바둥 스트레이트함(Bodoeng Strait)함과 시실리(Sicily)함이 극동해역에 도착하여 8월 1일부터 부산교두보 주변 전선에 대한 본격적인 근접항공지원작전에 투입되었다.[46]

4) 미 해병여단 배치

6월 28일 미해병대사령관 케이트스(Clifton B. Cates) 대장은 함대해병대를 한국

전에 투입할 것을 미해군참모총장 셔만(Forrest P. Sherman) 대장에게 건의하였다. 3일 후인 7월 1일 셔만 제독은 미태평양함대사령관 래드포드(Arthur W. Radford) 대장에게 1개 대대상륙단 또는 1개 연대전투단을 이동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관해 문의하였다. 7월 2일 래드포드 제독으로부터 받은 회신에 의하면 1개 대대상륙단을 탑재시키는데 4일, 항해하는데 6일이 걸리며, 1개 연대전투단을 탑재하는데 6일, 항해하는데 10일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미해군참모총장은 즉시 미극동해군사령관에게 미극동군총사령관이 원한다면 1개 연대전투단을 보내겠다는 전문을 보냈다. 이 내용은 조이 제독을 통해 즉시 맥아더 장군에게 보고되었으며, 이들은 이러한 조치를 만족해 하면서 즉각 수용하였다. 따라서 미해군참모총장은 곧바로 제1해병사단에게 출동준비 명령을 내리고, 아울러 미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받고 미태평양함대사령관에게 적절한 항공세력과 함께 1개 연대전투단을 극동으로 이동시켜 미극동군총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 지시가 미태평양함대사령관 래드포드 제독에게 하달된 지 3일후 미태평양함대 해병대는 자체의 작전계획을 시달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제1해병임시여단(증강)이 캠프 펜드레톤의 제5해병연대와 엘토르의 제33해병비행단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제1해병사단의 부사단장 크레이그(Edward A. Craig) 준장이 제1해병임시여단을 지휘하게 되었으며, 제1해병비행단의 부단장 쿠쉬만(Thomas J. Cushman) 준장이 제1해병임시여단의 부여단장과 전방제대 비행단장을 겸하게 되었다.

출동명령을 받은 제1해병사단과 비행단 참모들은 제1해병임시여단 창설을 서둘렀다. 여러 부대를 편조해서 인가된 전시편성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업무는 출발 시점이 여름이었다는 사실과 군복무가 1951년 3월 이전에 끝나게 되는 중사급 이하의 병력을 잔류시켜 후송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얼마 후 중사 급 이하에 대한 잔류 및 후송조치가 취소되었지만, 모든 사병들이 해병대사령관의 조치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해병임시여단이 정식으로 창설된 7월 7일부터 캠프 펜드레톤의 해병대 기지와 연안의 각 기지로부터 차출된 인원은 전시편성 수준으로 보충되었다. 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급품과 장비도 펜드레톤과 캘리포니아 사막의 바스토우(Barstow) 보급창에서 집결지역으로 수송되어 왔다. 제1해병임시여단 장병들은 창설 및 출동 명령을 받고 기존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였으나, 여단의 이동계획은 지상병력과 비행단을 유지할 10일 간의 비축물자 준비로 인해 많은 차질을 빚었다. 첫 함선이 준비되었던 7월 9일에야 탑재계획이 수립되어 탑재가 개시될 수 있었다.

제1해병임시여단은 장교 132명, 사병 2,452명으로 편성된 제5해병연대의 보병세력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큰 구성요소는 포병으로서 장교 44명, 사병 474명으로 편성된 제11해병연대의 제1포병대대가 합류하였다. 이외에도 수송중대, 의무중대, 해안중대, 공병중대, 전차중대, LVT 중대, 통신대, 병기대, 근무대, 정찰대, 헌병대 및 상륙차량소대가 보충되었다. 그리고 제6관측대대가 보강되었는데, 이 대대는 OY 정찰기 8대, HO3S-1 헬리콥터 4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1해병임시여단의 항공세력은 제1해병비행단의 전방제대로서 제33해병비행단을 근간으로 하여 구성되었는데, 이 비행단은 F4U-4B기 총 48대로 편성된 2개 주간전투기대대와 F4U-5Ns기로 편성된 1개 야간 전투기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미태평양함대 소속의 상륙전부대사령관 대리인 맥인너니(Francis X. McInerney) 해군 소장이 해병여단의 해상수송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수송작전을 위해서 알래스카의 '배로 곶(Point Barrow)'으로 항해하려던 보급지원계획이 급히 변경되었으며, 샤프(Louis D. Sharp, Jr) 대령이 임시수송전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 모든 가용 함정이 수송전대에 집결한 결과 거의 충분할 정도로 수송능력이 확보되었다. 다만 일부 소형선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나, 현지에 도착하여 적 선박을 빼앗거나 아 지상군이 보유한 선박을 징발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여단 소속의 지상부대원들은 샌디에이고에서 샤프 대령이 지휘하는 제53.7기동전대 소속인 3척의 공격수송함인 조지 클라이머(George Clymer)함, 헨리코(Henrico)함, 피카웨이(Pickaway)함과 공격화물함인 하이트사이드(Whiteside)함, 알세인(Alshain)함 그리고 LSD 건스톤 홀(Gunston Hall)함, 포트 마리온(Fort Marion)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에 분산하여 탑승하였다. 비행단 인원과 장비는 터미널 섬(Terminal Island)에서 수송함인 제너럴 앤드슨(General A. E. Anderson)함과 공격화물수송함인 에이커나(Achernar)함에 그리고 항공기와 항공요원들은 바둥 스트레이트함에 탑재되었다. 출동명령을 받은 지 10일 후인 7월 12일 LSD들이 전차 및 LVT중대를 탑재하고 샌디에이고를 출항했으며, 7월 14일에는 나머지 수송함들이 출항하였다.

제53.7기동전대는 한국전쟁이 갈수록 치열했던 2주일 동안에 태평양을 횡단하여 계속 서쪽으로 항진하고 있었다. 샌디에이고를 출항한 후 어느날 LSD 포트 마리온함의 상갑판에 갑자기 해수가 덮쳐 다수의 탱크와 다량의 탄약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공격수송함인 헨리코함은 심각한 엔진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하기 위해 오클랜드(Oakland)로 회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헨리코함은 꼬박 3일간의 긴급수리를 마친 후 7월 18일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벗어나 제53.7기동전대에 합류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서쪽을 향해 항진하였다.

크레이그 장군과 쿠쉬만 장군은 행정적인 잔무를 처리하기 위해 남아 있다가 7월 15일 항공편으로 엘토로를 출발하여 7월 19일 일본 도쿄에 도착하였다. 미 태평양함대의 해병대사령관 세퍼드(Lemuel C. Shepherd, Jr.) 해병 중장은 이들보다 먼저 7월 7일 도쿄에 도착하여 7월 10일 맥아더 장군과 회의를 가졌다. 그들은 도쿄에서 미극동군총사령관과 회합하면서 해병여단의 배치계획을 알게 되었다. 맥아더 총사령관은 9월 중에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의 교통망을 장악하고 적의 병참선을 차단시키는 반격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맥아더는 완전한 제1해병사단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제1해병임시여단은 제1해병사단의 후속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일본에서 대기해야 할 상황이었다.

미극동군사령부에서는 제1해병임시여단의 지상부대를 사세보에 두고, 항공부대을 내해에서 동쪽으로 350마일 정도 떨어진 고오베 근처에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크레이그 장군은 맥아더 장군에게 해병여단의 지상부대 및 항공부대를 계속 통합된 상태로 유지할 것을 건의하였다. 맥아더 장군이 이러한 건의를 수용하자 크레이그 장군은 행정 및 교육훈련상의 문제점을 배제하기 위하여 모든 여단병력의 기지를 고오베와 오오사카 지역에 둘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도 7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3일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재가를 받게 되었다.

재가를 받은 이날 동부 및 서남부 지역의 긴급사태로 인해 미8군사령관이 미7함대의 항공지원을 긴급히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때문에 해병여단은 9월에 전개될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계속 일본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다. 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이 이미 낙동강 유역내까지 밀고 들어왔으며, 중부 전선에서는 적의 강력한 공격이 계속되었고, 서부전선에서는 북한의 측방 공격부대가 부산에서 불과 75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하동까지 진격해 왔다. 유엔군은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었다. 출동할 수 있는 모든 부대가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해병항공제대를 탑재한 함정은 이 부대를 양륙시키기 위해 고오베로 항해하던 중 해병여단의 지상병력을 부산에 상륙시키라는 명령이 7월 25일 제53.7기동전대에 하달되었다. 해병여단이 바로 전투에 투입된다면 비행전대도 신속하게 언제든지 작전에 참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했다. 미8군에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제15항모분대의 호위항공모함들은 서로 떨어져 있었다. 시실리함은 제33해병항공전대를 탑재하고 지상병력을 수송하는 수송함들과 함께 항해하고 있었다. 시실리함은 7월 20일 괌에 도착한 후 적 잠수함을 조우할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대잠전대 항공기를 양륙시키고 요코스카로 항진하여 7월 27일 도착하였다. 7월 31일에는 바둥 스트레이트함과 수송함들이 고오베에 입항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러블(R. W. Ruble) 제독은 휘하의 항공모함들이 도착하자 주일미해군항공사령관으로 임시로 업무를 보다가 비로소 그 나름대로의 야심적인 작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7월 31일 시실리함은 요코스카에 있는 러블 제독의 참모들을 편승시키고 동료함과 재합류하기 위하여 고오베로 향하였다. 시실리함은 그곳에서 지상요원, 예비부속품 및 제214해병전투기대대에 공급할 탄약을 싣고 8월 1일 오후에 구축함인 도일함과 키이스함을 상봉하기 위해 큐우슈 남단을 향해 출항하였다. 같은 날 오후 바둥 스트레이트함은 항공기를 이타미 공군기지로 보내기 위해 고오베로 출항하였다. 항공기 이륙작업은 그 다음날 완료되었는데, 그후 바둥 스트레이트함은 군수적재를 위해서 항구로 되돌아갔다.

8월 2일 반디에맨(Van Diemen) 해협에서 시실리함이 호위함들과 합류하고 있을 때 러블 제독은 바둥 스트레이트함에 승함하였다. 8월 3일 제214해병전투기대대의 코르세이어기가 이타미를 이륙하여 오후 일찍 시실리함에 착함하였다. 그리고 시실리함은 쓰시마해협을 향해 항진한 후 한국에 있는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공격기를 출격시켰다. 이날 분대사령관이 승함한 바둥 스트레이트함은 구축함인 엔디코트함과 토마스함의 호위를 받으며 이틀간의 전대 환기훈련[47]을 하기 위해 출항하였다. 한편 시실리함은 한국 서해안에 있는 표적을 강습하기 위해 서해로 진입하였다.

제15항모분대 소속 함정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공중과 지상간의 효과적인 협조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통신 및 통제 장비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다. 제2해병전술항공통제대대가 분리되었는데 대공방어반은 제513해병야간전투기대대의 기지인 이타미로 이동하였고, 항공지원반은 관측대대의 지상요원과 함께 LST에 승함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

8월 2일 제6해병관측대대 소속의 헬리콥터 4대와 관측기 4대가 일본에서 부산으로 왔고, 이들은 8월 4일에 진해로 이동하였다. 이날 지상병력이 탑승한 LST가 부산에 도착하였다.

한편 해병여단의 지상병력이 도착하고 있었는데, 제일 후미함이었던 수송함인 헨리코함이 도착하였다. 헨리코함은 8월 2일 오전 쓰시마해협에서 앞서 항해하던 제53.7기동전대의 다른 함정을 추월한 것이다. 오후에 해병여단을 탑재한 함정들이 부산에 입항하였다. 한국 전선에서는 시시각각으로 결정이 바뀌어질 정도로 전황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크레이그 장군은 거의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자기 부대의 행선지를 알게 되었다. 모든 병력이 이날 야간 내내 군수품을 양륙하여 부산기지사령부로 이동시켰다. 미해병여단은 8월 3일 07시에 미육군에서 마련한 수송편으로 남서부 전선으로 이동하여, 이날 저녁에 창원 서쪽 방어전선에 배치되었다.[4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분석 및 평가

1) 해상봉쇄작전 및 함포지원

유엔해군은 6월 29일 이후 한반도 해역에 대한 봉쇄작전 등을 통하여 해양통제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해양통제권을 바탕으로 아측은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유지하고 계획된 해군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인천상륙작전 시까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교두보를 방어하는데 모든 군사작전을 집중할 수 있었다.

우선 제96기동부대의 전투함들은 화력통제반과 항공관측기의 지원하에 북한 제5사단의 침공통로인 동해안 지역의 군사시설과 병참선에 대해 함포사격을 집중하였다. 특히 중순양함에 의한 8인치 함포사격은 남진하는 적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함포사격은 7월 18일 미 제1기병사단이 포항상륙작전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여 포항 및 부산교두보 등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유엔해군은 유엔의 지상군, 공군 등 간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유엔해군이 8월 1일 미극동공군으로부터 목포항에 다수의 적선박이 정박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8월 2일 2척의 구축함을 현장으로 출동시켰으나, 입수된 정보가 불확실하였던 관계로 구축함들이 적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사례라 볼 수 있다.

2) 원산정유공장 폭격

밸리 포지함의 함재기들은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원산의 정유공장, 평강과 함흥의 비행장, 철교, 교량 등을 파괴하였는데, 비행장 활주로 상에 있는 적 항공기 약 50대 중 절반 이상을 파괴하고 나머지 항공기에도 손상을 입혔으며, 4대의 기관차를 폭파시켰다. 특히 공군 전투기가 7월 18일 이전에 실시한 폭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에서 원산정유공장 가동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했는데, 함재기에 의한 원산정유공장에 대해 폭격은 공장 가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혀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에서 연간 170만 배럴을 생산하는 최대의 정유공장에 대한 폭격은 전략적으로 큰 성과가 있었다. 함재기들이 가동 중인 정유공장과 비행장을 파괴시킴으로써 북한의 전쟁지속능력은 물론 북한 공군의 제공능력을 약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함재기는 지상 활주로를 필요로 하는 공군전투기에 비해 기동성과 생존성이 높아 이 작전에서도 함재기의 유용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근접항공지원

적에 비해 화력과 병력이 열세한 아 지상군이 계속 남쪽으로 밀려 전선이 부산지역으로 압축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항공기 지원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77기동부대의 해군항공기도 인천상륙작전 때까지 2개월 동안 주로 지상군을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근접항공지원작전은 해군·해병대와 육군·공군 간 작전교리상에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합동작전본부에 파견된 게이트 해군 소령이 합동작전본부와 제7함대 간 직통 통신회로를 설정하고, 통제절차를 단순화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표적위치 산출방법은 전방항공통제관이 그리드(Grid) 좌표로 표적의 위치를 구한 다음, 이를 다시 경위도로 환산하여 함재기 조종사에게 통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제절차의 단순화가 공·지합동작전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투입된 해군함재기가 부산교두보 주변 전선에 대한 적의 공격을 둔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7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행한 작전에서 임무를 마치고 항모로 귀환하던

함재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가끔 있었다. 팬더(F9F) 제트기 2대, 코르세이어기 3대 그리고 B-29기 1대가 해상에 추락하였으나 제7함대 함정과 한국함정에 의하여 모두 구조되었다. 이 같이 한사람의 승조원도 버리지 않고 인명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휴머니즘(인도주의 정신)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며 본받을 만한 것이라 하겠다.

4) 미해병여단 배치

군은 상시 출동태세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미해병여단의 전투준비와 배치는 북한군이 부산교두보를 향해 압박해 오는 위기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전쟁 발발 3일 후인 6월 28일 미해병대사령관 케이트스(Clifton B. Cates) 대장이 함대해병대를 한국전에 투입할 것을 해군참모총장 셔만 대장에게 건의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서 미해군참모총장은 곧바로 제1해병사단에게 출동준비 명령을 내리고, 아울러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받고 태평양함대사령관에게 적절한 항공세력과 함께 해병대 전력을 극동으로 이동시켜 미극동군총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창설된 임시해병여단은 7월 12일 출항, 8월 2일 부산 입항, 8월 3일 한국전선에 배치할 수 있었다.

8월 1일 적은 사천, 진주, 거창, 김천, 상주, 함창, 영주, 진보, 영덕까지 이르렀고, 특히 서부전선에서 부산까지 미군전력이 미 배치되어 부산교두보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해병여단을 창원 서쪽 지역에 긴급히 투입한 것은 미해병대의 전투준비태세의 덕분이라 평가할 수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결과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해군작전은 북한군의 계속적인 남진으로 유엔해군이 포항, 부산 등 아측의 교두보를 지키기 위해 이미 확보된 해양통제권을 바탕으로 해상봉쇄작전를 비롯한 함포지원사격, 근접항공지원, 항공강습 등을 수행한 작전이다.

이 기간 중 유엔군은 부산으로 향해 압축해 내려오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한 포항상륙작전 등을 위하여 동부전선에 막대한 전투력을 투입하였다. 유엔해군도 주로 동해에서 해상봉쇄작전을 비롯해 아 지상군의 요청에 의거 함포사격과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적의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북한지역에 위치한 원산정유소 등 전략목표를 폭격하였다.

유엔해군은 남쪽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 유엔지상군과의 합동작전을 위해 북위 38도 이북 해상보다 이남에서 주로 작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해군은 동해의 북방 경비선을 북위 36도 40분에서 36도 25분으로, 서해의 북방 경비선을 북위 37도 10분에서 37도 00분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전쟁발발 이전부터 편성·운용해 온 바와 같이 제1정대, 제2정대, 제3정대, 훈련정대별로 책임해역을 분담하여 해상경비에 임하였다. 유엔해군은 북위 37도 이북 해상에서 작전토록 되어 있었으나, 아 지상군의 계속적인 후퇴와 포항상륙작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북위 37도 이남 해역에서 봉쇄작전, 근접항공지원, 함포사격 등을 실시하였다.

동부전선의 적이 제5사단을 주축으로 부산으로 향해 계속 압박해옴에 따라 유엔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1기병사단을 포항에 상륙시키는 등 많은 전투력을 동부전선에 투입하였다. 이 결과 서부전선의 북한군에 의해 군산, 목포, 여수 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등이 쉽게 점령당하고, 아측은 서부전선과 부산간 병력배치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행히 미해병여단이 8월 3일에 창원 서쪽에 배치됨으로써 부산 지역으로 진격해 오는 적을 저지시킬 수 있었다.

서해안에서 작전중인 한국해군은 북한 지상군의 진격과 연계하여 서해안에 침투를 시도한 적 선박 25척을 격침 또는 나포하였고, 아울러 아 지상군의 병력과 군수물자 이송 등 철수작전을 지원하였다.

해양통제권을 장악한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은 동·서·남해에 대한 봉쇄작전으로 적의 해상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적의 후방과 측방을 계속 압박하여 적의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켜 적의 진격속도를 지체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전투준비태세

이 기간 중 한국해군의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증강되었다. 한국해군은 전쟁발발 이전에는 전투함 1척(PC-701함)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7월 16일 PC함 2척, 7월 25일 PC함 1척이 진해항에 도착함에 따라 총 PC 4척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전투함들은 수심이 얕고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며 도서가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작전하기에 적합하여 PC-701함은 7월 18일부터, PC-702함은 7월 20일부터, PC-704함은 7월 29일부터 서해안에 투입되었다. 3인치 포가 장착된 이 전투함들은 한국해군의 중추 세력으로서 적 선박 검색 등 대소작전에 많은 활약을 하였다.

남한의 서남 방면까지 진격한 북한군이 부산쪽으로 진격하고 있었고, 서남방면에서 부산까지 미군병력이 미 배치된 상태에서 8월 3일 미해병여단이 창원 서쪽 방어지역에 배치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해병대의 전투준비태세가 잘 되어 있었던 덕분이었다. 6월 28일 미해병대사령관 케이

트스(Clifton B. Cates) 대장이 함대해병대를 한국전에 투입할 것을 해군참모총장 셔만 대장에게 건의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1해병사단과 비행단 참모들은 임시 해병여단 창설을 서둘렀다.

출동명령을 받은 지 10일 후인 7월 12일 제1해병임시여단의 전차 및 LVT중대를 탑재한 LSD함들이, 7월 14일에는 나머지 수송함들이 샌디에이고를 출항하였다. 8월 2일 부산에 도착한 제1해병임시여단은 8월 3일 창원쪽 방어 전선에 배치되었다.

제1해병임시여단는 제5해병연대의 보병세력을 주축으로 구성하였는데, 여기에 제11해병연대의 제1포병대대가 합류하고 OY 정찰기 8대, HO3S-1 헬리콥터 4대를 보유한 제6관측대대가 보강되었다. 제1해병임시여단의 항공세력은 제1해병비행단의 전방제대로서 제33해병비행단을 근간으로 하여 구성되었는데, 이 비행단은 2개 주간 전투기대대와 1개 야간 전투기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제1해병임시여단의 막강한 병력과 화력이 한국전선에 배치되어 유엔군의 전투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따라서 아 지상군이 적의 대규모 진격으로 계속 부산쪽으로 밀려 방어에 급급하던 차에 제1해병임시여단의 배치로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태세를 가일층 갖추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해양통제

해양통제는 원하는 공간에서 아군의 작전활동을 보장하고 적군의 해양사용을 저지하는 것이다. 특히 해양통제는 아측의 해상교통로 확보와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전쟁수행능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전쟁 초기 한국해군은 YMS, JMS 등 소해정이 대부분이었으나, 7월 중·하순경 PC 3척을 도입함으로써 연안에 이르기까지 해양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수심이 얕고 도서가 많은 서해안에서 남한과 북한의 함선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하

였다. 이러한 해양조건 하에서 언어소통이 원활한 한국함정이 적 선박들을 검색하고 나포·격침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기간중 한국함정이 무려 25척의 적 선박을 적발하여 격침 또는 나포한 것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전쟁 초기에는 유엔해군이 미극동지역의 해군세력이 충분하지 않아 완전한 해양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후 항공모함을 비롯한 전투함, 수송함 등을 한반도 해역에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해양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양통제권을 통하여 유엔해군은 전투함의 함포지원, 제1기병사단의 포항상륙작전, 제77기동부대의 근접항공지원, 항공폭격 그리고 제1해병임시여단 등을 바다로부터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었고, 미국·일본 등지에서 한국전장으로 병력과 군수 물자 등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유엔해군에 의한 해양통제권 확보는 6·25전쟁 발발부터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시까지 약 80일간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모든 군사작전을 집중할 수 있었고, 차후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지휘통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극동해군 예하의 기동조직이 7월 21일부로 재편되었는데, 이러한 조직 개편은 유엔군의 전황이 점차 불리해지고 다양한 전투임무가 추가됨에 따라 유엔해군의 전력이 증강되었기 때문이다.

전쟁 발발이후 해군본부가 수원, 대전, 부산으로 이전할 동안에도 한국해군은 해군지휘부·경비부·기지·정대·함정 간 지휘공백 없이 통신소통을 비롯한 지휘통제체제를 잘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해군본부가 수원, 대전으로 이전할 때 지휘 공백을 우려해 한국해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진해통제부사령관에게 위임하고, 대전에 설치된 해군본부가 작전지휘를 할 수 있는 통신 등 제반

시설을 갖추게 된 7월 8일에 진해통제부로부터 작전지휘권을 환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적의 침입이 어려운 진해통제부는 제2의 작전지휘소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지휘통제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제독은 전쟁발발 당시 미국에 체류해 있었기 때문에 해군의 총수가 부재중이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손원일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해군총참모장 대리로 김영철 대령을 임명함으로써 전쟁 발발 후에도 해군의 지휘체계가 혼란이 없이 운용되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PC 편대와 함께 7월 16일 진해에 도착한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은 그 다음날 10시 40분에 부산에 위치한 해군본부에 도착하여 해군총참모장 대리인 김영철 대령으로부터 해군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았다.

적에 비해 화력과 병력이 열세한 아 지상군이 계속 남쪽으로 밀려 전선이 부산지역으로 압축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근접항공지원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제77기동부대의 해군항공기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근접항공지원에 전념하게 되었다.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초기에는 해군·해병대와 육군·공군 간 작전교리의 차이점으로 지휘통제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해군 및 해병대에서 개발하고 발전시킨 근접항공지원작전이 그 후에 공군 및 육군에서 개발한 작전교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당시 지상전선에는 해군함재기를 유도할 수 있는 항공함포연락반(ANGLICO)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필수적인 적군과 아군 병력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의 좌표 사용, 통신기의 주파수 등에서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7함대사령관은 함재기와 지상군간의 원활한 통신 및 통제를 위해 제1상륙기동전대에서 항공함포연락장교를 파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제7함대사령관의 명에 의해 대구에 위치한 합동작전본부에 파견된 게이트(Gate) 해군 소령이 제7함대와 합동작전본부간 직통 통신회로를 설정하고, 항공기 통제절차 단순화를 위해 전방항공통제관이 그리드(Grid) 좌표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적의 위치를 구한 다음, 이를 다시 경위도로 환산하여 함재기 조종사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적용시켰다.

이 결과 유엔군은 지·해·공 합동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지휘통제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이로써 해군 함재기가 8월 1일부터 부산교두보 주변 전선에 대한 본격적인 근접항공지원작전에 투입됨으로써 적의 공격을 둔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집필 : 임성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 (註)

1) 해군본부,『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p. 160-165.
2)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62-69.
3)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69.
4) 해군본부,『해군편제사』, 1992 참조.
5)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69.
6)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72.
7)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72.
8) 해군본부,『해군편제사』, 1992, pp. 958-960.
9)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73.
10)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73-74.
11)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76.
12)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78-84.
13)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79; 해군본부,『해군편제사』, 1992, p. 7.
14)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82.
15)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83.
16)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93.
17)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94.
18)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96-97.
19)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99.
20) 해군본부,『해군편제사』, 1992, p. 7.
21) 해군본부,『해군편제사』, 1992, p. 7;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01.
22)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01.
23)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98-1.
24)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62-107.
25)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62.
26) 해군본부,『대한민국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52-59.
27)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98-1.
28)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62-107.
29)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71.
30)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참조.
31)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73-74.
32) 해군본부,『대한민국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70-77.
33)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85-93.
34)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99-100.
35)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101-102.
36)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06.
37) 해군본부,『대한민국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70-77.
38)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98-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39)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p. 62-107.
40) 해군본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104.
41) 해군본부,『대한민국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77-80.
42) 해군본부,『대한민국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80-83.
43) 해군본부,『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 161.
44) 해군본부,『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p. 158-165.
45) 해군본부,『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p. 146-148; 해군본부,『해전사』, 1976, pp. 41-43.
46) 해군본부,『해전사』, 1976, pp. 43-65; 해군본부,『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p. 141-157.
47) 정기수리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항해나 작전을 하지 않았던 함정이 수리후에 저하된 전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환기훈련이라 한다.
48) 해군본부,『해전사』, 1976, pp. 65-68; 해군본부,『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pp. 165-16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8 장 공군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한국공군 작전
제 3 절	유엔공군 작전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전쟁초기에 북한군의 압도적인 공세로 전선이 점차 남하하자 한국공군은 수원을 경유, 대전으로 이동하여 주둔하게 되었다. 공군본부는 대전에 주둔하면서 각 부대별로 이동한 예하부대 병력을 수습하여 원대로 복귀시키고, 정찰비행대와 근무부대를 창설하는 등 예하부대를 재편성함으로써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 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계속된 공세로 대전까지 압박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공군본부는 7월 13일 대구로 이동하였다. 전선남하에 따른 잦은 이동으로 혼란스러운 부대의 지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공군본부는 7월 19일 근무부대를 후방사령부로 개편하였다. 그 후 예하 기지부대에 대한 지휘통제가 원활해짐으로써 공군본부는 7월 27일 후방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업무를 공군본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한편, 통신대와 기상대를 창설하여 비행단 작전을 위한 후방지원업무에 주력하였다.

한편, 비행단은 F-51전투기를 인수한 이후 북한군에 대한 대지공격을 감행하다가 7월 12일부터 4일 동안 기상악화로 출격을 중단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미 극동공군으로부터 로켓탄을 보급 지원받아 F-51전투기에 장착함으로써 대지공격 작전에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산-평택-성환 일대와 단양-충주-문경 지역에 이르기까지 작전지역을 확대하였고, 7월 하순에는 논산-군산-광주 일대와 영주 등지로 출격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당시 비행단이 출격기지로 사용하던 대구기지에는 한국공군의 교육훈련 및 작전지원을 위해 미 제5공군으로부터 파견된 바우트-원(Bout-one)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비행단은 헤스(Dean E. Hess) 소령이 지휘하는 바우트-원 부대로부터 훈련 및 작전 지원을 받는 한편 이들과 함께 출격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미 제5공군 전방사령부가 한국으로 이동하고 7월 24일에는 대구기지에 제5공군 전방제대의 작전체제

공군본부 군사편찬연구소

가 구축되자 한국공군 비행단은 대구기지를 미 제5공군에게 인계하고, 바우트-원 부대와 함께 7월 27일 사천기지를 경유하여 7월 30일까지 진해기지로 이동하였다.

같은 시기에 정찰비행대는 대전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7월 14일 김천으로 이동하여 단양-음성-청주-공주-부여-대전 일대에 대한 적정을 정찰하였다. 그 후 북한군이 추풍령을 넘어 진격을 계속하자 7월 26일 의성으로 이동하여 정찰활동을 계속하였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각 군의 예산을 삭감해 왔고, 이 여파로 미 극동공군도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병력과 장비 등이 감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한된 전력으로 한국에서의 전쟁과 극동방위를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극동공군은 한반도에서의 효과적인 전술항공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극동공군 예하의 전력으로 전술부대를 재편성하는 한편, 부족한 병력과 장비의 증원을 미 공군본부에 긴급 요청하였으며, 미 공군은 극동공군에 F-51전투기 145대, 전략폭격기 전대 및 기타 전술부대 등을 즉각 지원하였다.

미 제5공군사령부는 한국에서의 전술항공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과 가까운 일본의 전방기지에서 작전을 전개하였으나, F-80전투기의 항속거리 문제로 난항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상군의 전황까지도 어렵게 되자, 한국 내의 비행기지에 전개하여 작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1] 포항, 대구, 수영기지 순으로 활주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작하였다. 미 제5공군은 7월 10일 대구기지에서 제51전투비행대대를 창설하여 7월 15일부터 전투출격을 개시하였으며, 활주로 공사는 7월 18일 착공하였다. 포항기지는 7월 12일부터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작하여 단계별로 공사가 완료되자 7월 16일 제40전투요격대대가 전개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미 제5공군은 이다즈께(Itazuke)기지에서 제6132전술항공통제전대를 편성하여 7월 14일 대구에 전개시키는 한편, 미 제8군사령부로부터 합동작전본부(JOC: Joint Operations Center) 공지작전과에 근무할 육군장교를 충원 받음으로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지합동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 제5공군은 7월 23일 전방사령부를 대구로 전개시키고, 합동작전본부와 인접한 곳에 전술항공통제본부(TACC: Tactical Air Control Center)를 설치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전술항공통제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음은 물론,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술항공작전을 수행하였다.

한편 해군 제7함대 항공전력이 한국전선에 참전하게 되자 미 극동공군은 한반도에서의 항공작전을 단일화된 지휘 및 통제체제 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극동군사령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고, 극동군사령부는 극동공군사령관에게 항공작전에 관한 조정통제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극동군사령부는 7월 14일 사령부 내에 목표분석단[2]을 설치하여 공군과 해군의 항공력 운용에 관한 조언, 목표분석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임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목표분석단이 임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과 경험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극동공군은 극동군사령부 내에 목표선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극동군사령부는 극동공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7월 22일 목표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북한군의 보급수송차단을 위한 후방차단작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극동군사령부 목표선정위원회는 7월 24일 B-29중폭격기 2개 전대를 후방차단작전에 투입하고 나머지 1개 전대는 미 지상군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7월 26일 맥아더 사령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극동공군 폭격사령부는 7월 27일부터 북한지역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게 되었고, 7월 30일에는 북한 내의 5개 전략목표지역 가운데 하나인 흥남화학공업단지에 대한 제1차 전략폭격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계속되는 전략폭격으로 북한의 산업시설에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한국공군 작전

1. 부대 철수 및 재정비

공군은 북한군의 공세로 인한 전선이동에 따라 수원을 경유하여 대전으로 철수하였다. 공군은 대전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미 공군으로부터 10대의 F-51전투기 인수와 더불어 전투능률을 배가하기 위해 김포지구경비사령부를 해체하고, 정찰비행대 및 근무부대를 창설하는 등 공군본부 예하에 비행단, 정찰비행대 및 근무부대(항공기지사령부, 공군사관학교, 보급창, 공군병원, 헌병대)로 재편성함으로써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였다.[3]

그러나 북한군 제3보병사단과 제105전차사단 주력이 평택-천안-조치원을 경유하여 7월 13일 금강지역의 대평리까지 진격하였다. 금강지역에 도달한 북한군은 금강 도하를 시도하였지만 다행히 유엔지상군의 화력에 의해 저지되었다.[4] 그러나 계속되는 적의 압박으로 대전까지 위협받게 되었고, 공군은 시시각각 변하는 전선 상황에 따라 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전에 주둔한지 15일만에 또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따라서 공군의 각 부대는 대구로 이동하였으며, 공군본부는 각 부대별 이동에 따른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고, 본부를 중심으로 한 지휘체제를 확립하면서 차기작전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업무의 정상화를 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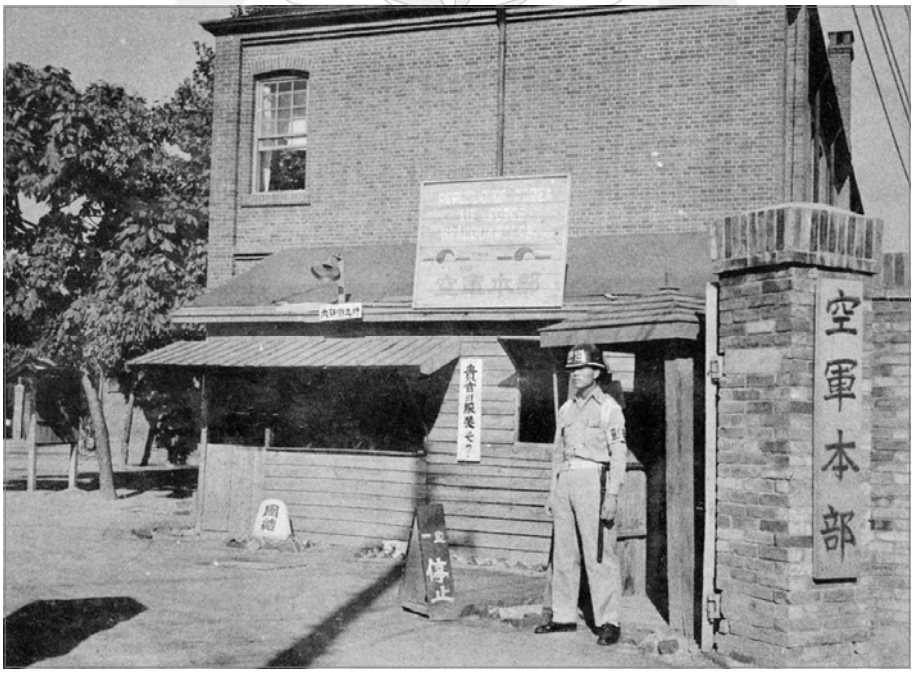
이 기간 중 공군본부를 비롯한 각 부대별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대전사범학교 부속 초등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공군본부는 7월 13일 대구로 이동을 결정하였다.[5] 공군본부는 우선 선발대 85명(장교 20명, 사병 65명)을 작전국장 박원석 소령 지휘 하에 열차 편으로 대구중학교로 이동하게 하였으며, 이틀 후인 7월 15일에는 잔무처리를 끝마친 잔여병력 78명을 인사국장 한용현 중령 지휘

하에 트럭 편으로 대구공업고등학교로 이동하게 하였다.[6]

공군병원 역시 7월 15일 대구시내로 이동하였고,[7] 헌병대와 기지부대도 헌병대장 김득룡 중령의 지휘 하에 이날 대구로 이동하였으며, 대구에 도착한 헌병대는 대구역에 본대를 설치하고, 대구와 김해 및 수영기지에 헌병을 파견하여 기지경비를 하도록 조치하였다.[8]

한편, 대구기지 활주로 확장공사를 위해 미 공군 제822항공공병대대와 제919항공공병정비중대의 통신소대가 7월 16일 대구에 도착하여 대구공업고등학교 사용을 요청하였다.[9] 이에 한용현 중령의 지휘로 이동한 병력은 미 공군 항공공병부대에게 주둔지를 인계하고 7월 18일 대구효성여자중학교로 이동하였으며, 앞서 대구중학교로 이동한 공군본부 선발대 병력도 대구효성여중학교로 합류하였다.

공군은 그 동안 전선이 남하할 때마다 각 부대별로 이동하여 대전, 대구, 군산, 광주 등 여러 기지에 분산 전개하게 되었고, 각 부대별 이동에 따른 혼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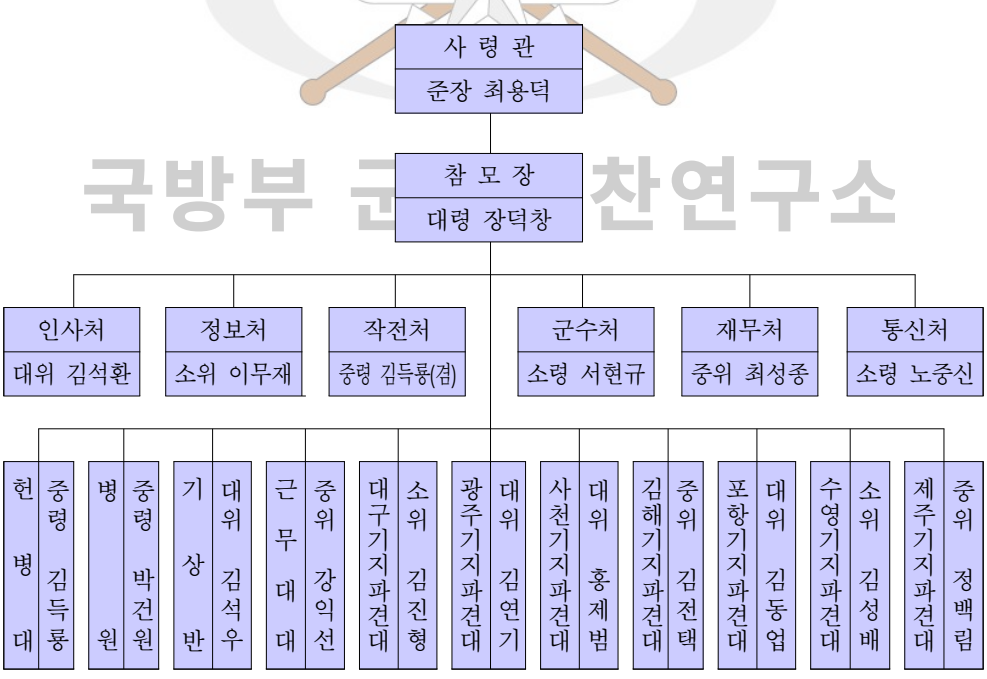
공군본부(대구효성여중, 1950. 7. 18)

으로 본부를 중심으로 한 지휘체제를 확립하지 못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구로 이동한 공군본부는 이 무렵부터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자체정비에도 주력할 수 있었다.

7월 8일 대구기지에서 창설된 근무부대(부대장: 최용덕 준장) 예하에는 항공기지사령부, 공군사관학교, 보급창, 공군병원, 헌병대가 있었고, 항공기지사령부는 대전, 군산, 대구, 광주, 사천, 김해, 제주 등 7개 기지를 운용하고 있었다.[10] 공군본부는 우선 지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7월 19일 근무부대를 후방사령부(사령관: 최용덕 준장)로 개편하는 한편, 예하 항공기지사령부를 해편하여 각 기지부대를 후방사령부에서 직접 지휘하도록 하였다.[11] 그리고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공군사관학교를 잠정해편하고, 사관생도들을 각 기지부대로 파견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군산기지 파견대를 7월 22일까지 사천기지로, 광주기지 파견대는 7월 24일까지 김해기지로 각각 이동시켰다.(<표 8-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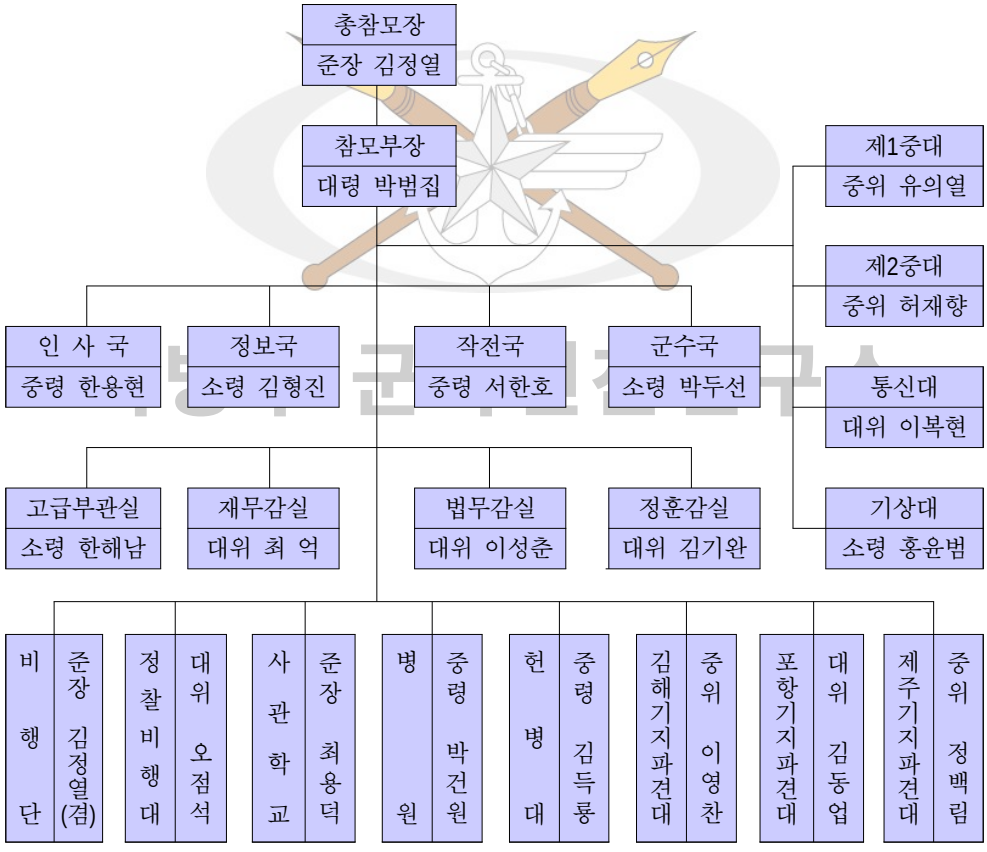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8-1> 공군 후방사령부 조직 편성도(1950. 7. 23)



또한 공군본부는 차기 비행단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 공군의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부대개편 내용을 보면, 후방사령부를 해편하여 그 예하부대를 공군본부 직할부대로 편성하였고, 이의 모든 업무를 본부에서 직접 지휘 및 통제하는 한편, 통신대[12]와 기상대[13]를 창설하였다. 이어서 전시 군수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7월 28일 보급창을 해편하여 군수국에 통합(공군본부 작전명령 제22호)하는 등 공군본부가 비행단 및 정찰비행대 작전에 대한 원활한 후방지원을 위해 후방지원부대를 직접 지휘 및 통제하게 되었다.[14](<표 8-2> 참조)

<표 8-2> 공군 조직 편성도(1950. 7. 28)



이러한 조직개편은 공군본부가 그 동안 부대이동으로 관장하지 못했던 비행단 작전을 공군본부가 직접 통제하고 항공작전에 대한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15]

한편, 7월 2일 미 공군으로부터 10대의 F-51전투기를 인수한 비행단은 대구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미 제5공군사령부는 한국에 전방기지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7월 23일 로우(Curtis R. Low) 대령이 지휘하는 전방부대를 대구기지에 전개시켰다. 물론, 사전에 김정렬 총참모장이 파트리지(Earle E. Partridge) 미 제5공군사령관과 협의를 통해 대구기지 사용을 권유했었다.[16] 따라서 비행단장을 겸직한 김정렬 총참모장은 대구기지를 미 공군에게 이양하면서 한국공군 비행단이 전개할만한 사천, 김해, 수영, 포항 등 여러 비행기지 가운데 사천기지로 이동을 결정하였다. 김정렬 총참모장은 우선 강화익 중위를 책임자로 한 선발대를 편성하여 유류와 식량 등 군수품을 가지고 가게 한 다음, 7월 27일 6대의 T-6건국기를 직접 지휘하여 사천기지로 이동하였다.[17]

사천기지에 도착한 김정렬 총참모장은 지상부대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진주군청으로 갔다가 육군 영남편성관구사령부 인사참모인 정래혁 소령으로부터 "채병덕 장군이 오늘 오전 하동에서 전사하여 시신을 군청에 모셔 놓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군 제6사단은 호남지역을 거쳐 7월 26일 경남 하동을 점령하였고, 7월 27일 오전에는 소재에서 채병덕 소장이 지휘하는 영남편성관구사령부와 미 제29연대가 적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채병덕 소장이 전사하였던 것이다.[18]

김정렬 총참모장은 이 지역 전황이 매우 위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동계획을 변경하여 곧바로 진해기지로 이동한 후 7월 28일 "대구기지에 남아 있는 비행단 병력은 진해기지로 이동하라"는 비행단 작전명령 제1호를 하달하였다.[19]

비행단은 작전명령에 따라 김기옥 중위가 지휘하는 제1제대 64명이 이날 20시에 진해기지로 이동하여 숙소 및 급양시설을 준비하였고, 제2제대 300명이 7월 29일 24시에 허영걸 대위 지휘 하에 이동하여 기지시설을 확보하였다.[20] 비행부대가 이동한 후 서무갑 소령이 지휘하는 후방제대는 7월 30일 잔여병력과 장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들을 트럭에 싣고 진해기지로 이동함으로써 비행단 이동을 완료하였으며, 한국공군 비행단이 진해기지로 이동할 때 한국공군을 지원하던 헤스(Dean E. Hess) 소령이 이끄는 작은 규모의 파견부대도 함께 이동하였다.[21]

미 제5공군사령부는 6월 27일 F-51전투기로의 기종 전환훈련이 미흡한 한국공군 조종사의 훈련과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트-원」(Bout-one)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헤스 소령 이하 장교 9명과 사병으로 잠정 편성된 부대를 6월 30일 대구기지에 파견하였다. 「바우트-원」부대는 7월 2일 10대의 F-51전투기를 몰고 대구기지에 도착한 한국공군 조종사들과 합류하여 대지공격작전을 전개해 왔다. 그 후 7월 23일 대구기지에 로우 대령이 지휘하는 제5공군 전방부대가 전개하게 되었다. 이때 로우 대령은 미 제5공군사령부로부터 한국에 새로운 제6002전술지원비행단 창설을 위해 한국에 파견된 미 공군의 모든 부대를 통합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로우 대령은 이와 같은 통합지침에 따라 헤스 소령이 지휘하는 「바우트-원」부대를 해편하여 예속하였으며, 헤스 소령을 작전장교로 임명하고 아울러 한국공군에 지원된 F-51전투기를 회수하였다.[22]

이러한 상황에서 헤스 소령은 김정렬 총참모장과 면담 후 팀버레이크(Edward J. Timberlake) 제5공군 부사령관을 만나 「바우트-원」부대 해체와 한국공군에 지원된 F-51전투기 회수는 한국공군의 자존심과 사기 그리고 한국공군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한국공군의 전투기와 조종사들을 자신에게 일임하여 다른 지역에서 훈련과 함께 다시 전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23] 아울러 「바우트-원」부대의 본래 목적인 한국공군 교육훈련에 부합하도록 미 공군 편제상 기 편성된 제6146기지부대에 자신의 부대를 흡수하여 부대명칭을 제6146기지부대로 사용할 것과 병력을 충원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24]

이에 팀버레이크 장군은 헤스 소령의 요구를 수락하고 한국공군용 전투기를 다시 인계하는 한편 장교 1명과 사병 30명을 헤스 소령에게 배속하고, 7월 31일 제6146기지부대를 정식 창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부대에게 한국공군에 대한 전투비행훈련과 통신, 무장, 정비, 보급지원, 비상기지 확보 및 전투 등의 기본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제6146기지부대는 계속해서 한국공군의 지원부대로 활동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게 되었다.[25]

또한 7월 8일 대전에서 창설된 정찰비행대는 전선의 남하에 따라 7월 14일 김천 간이비행장으로 이동하였고[26], 정찰비행대 전력 중 T-6건국기 2대는 김천기지에서의 이착륙이 곤란하여 이날 대구기지로 이동하였으며,[27] 7월 26일 정찰비행대는 김천에서 의성으로 이동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기간 중 공군은 본부가 중심이 되어 부대를 재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부대를 개편함으로써 각 부대에 대한 지휘체제 확립은 물론, 비행단 작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항공작전 지원조직을 강화하고 본부에서 직접 통제하였다.

2. 항공작전

1) 비행단(F-51전투기) 작전

한국공군 비행단은 미 공군으로부터 F-51전투기를 인수하여 규모는 작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전투기를 운용하게 되었다. 비록 전투기 인수 당시 한국공군 전투조종사들의 기종 전환훈련은 미흡하였으나, 전투조종사들이 오직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야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대구기지에서 맹활약을 해왔다. 그들은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수원, 평택, 천안 등 경부간선 도로를 따라 북한군의 보급품 집적소 4개소와 차량 9대를 파괴하고, 적 병력 약 140여명을 살상하는 전과[28]를 올렸음은 물론, 북한군의 빠른 진격속도를 지연시키는데 일조하였다.

한편, 7월 9일 밤 북한군 주공축선의 제3사단, 제4사단, 제105전차사단은 미 제24사단이 천안을 포기하자 그 여세를 몰아 7월 11일 조치원과 공주방면으로 진격함으로써 7월 12일 조치원을 점령하였다.[29] 그러나 이날부터 4일 동안은 계속해서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단은 출격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비행단은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기상악화로 비행활동을 중지하는 동안 보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된 로켓탄을 F-51전투기에 장착하는 등 차후 출격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30] 그리고 김정렬 총참모장 겸 비행단장은 7월 13일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이 한국 전황 파악을 위해 대구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헤스 소령이 지휘하는 「바우트-원」부대 조종사들을 편대장으로 한 한·미 연합출격 문제에 대해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의 동의를 받았고, 기상이 호전된 7월 16일 이후부터 「바우트-원」부대와 한·미 연합으로 항공작전을 수행하였다.[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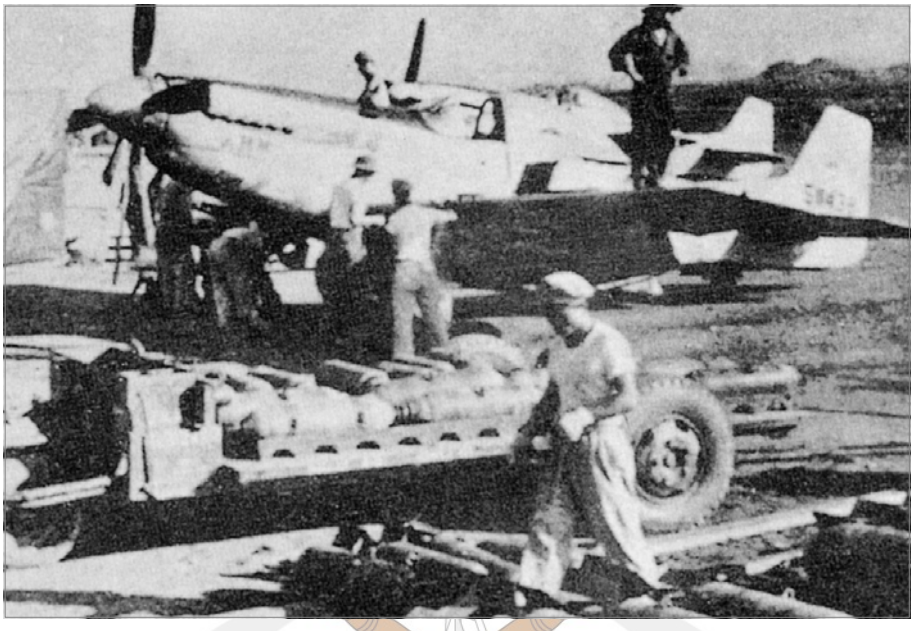
7월 16일 오후부터 기상이 회복되자 14시에 4대의 전투기가 성환 지역으로 출격하여 북한군 병력, 차량행렬 및 탄약집적소 등을 공격하였고, 이어 7월 17일에는 기상이 고르지 못하여 출격을 중지하다가 구름이 걷히자 오후에 4대의 전투기로 경북 영덕지역까지 진격한 북한군 제5사단 병력과 충주지역에서 기동 중인 적 대열 및 연료집적소 등을 공격하였다.

7월 18일에는 5대의 전투기가 소백산맥을 넘어 남하하는 북한군과 한국군 제6사단이 교전 중인 충주-문경, 단양-문경 지역으로 출격하여 북한군 병력, 전차, 트럭, 포병진지 등을 공격하였다.

7월 19일부터 4일 동안 기상이 악화되어 한국공군은 출격을 중지하였고, 유엔공군은 출격횟수를 현저히 줄였다. 이에 북한군 제3사단, 제4사단 및 제105전차사단 등은 7월 19일 유엔 및 한국공군의 전투기 공습이 현저히 줄어들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대전에 대한 전면공격을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였으며, 항복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투하하고 보급품과 병력을 전선으로 이동시키는 등 움직임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결국 7월 20일 북한군에 의해 대전과 영덕이 점령되었다.[32]

한국공군 비행단은 기상이 회복되는 7월 23일 오후부터 다시 출격을 재개하였다. 이날 6대의 전투기가 대전과 논산 지역으로 출격하여 북한군의 병력집결지로 판단되는 건물과 연료집적소, 포병진지 등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7월 24일에는 4대의 전투기가 영주 지역으로, 7월 25일에는 4대의 전투기가 신녕 지역으로, 7월 26일 오후에는 4대의 전투기가 영주-군산-광주 지역으로 출격하여 북한군을 공격하였다.[3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구기지에서 출격준비 중인 F-51전투기

이 기간 중 비행단 전투비행부대는 총 31회 출격하였으며, 종합전과(파괴/살상) 현황은 <표 8-3>과 같다.[34]

그 후 비행단은 7월 27일 주한 미 제5공군(FAFIK: Fifth Air Force in Korea)에 대구기지를 인계하고 사천기지를 경유하여 진해기지로 이동하였으며, 7월 31일까지 부대이동에 따른 정비를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8-3> 한국공군 전투기 작전 종합전과(1950. 7. 14~7. 31)

타격 목표	파괴/살상	타격 목표	파괴/살상
트럭	14대	탄약집적소	6개소
전차	3대	연료집적소	4개소
진지(포병진지 등)	9개소	보급품집적소	4개소
건물	5개소	병력	160명 추정

당시 진해기지는 과거 일본해군에서 사용하던 비행장으로 2,750피트(약 833미터)의 활주로와 항공기 격납고, 그리고 몇 개의 막사가 있었으나, 1945년 8월 15일 이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버려둔 상태였다. F-51전투기는 최소 3,200피트(약 970미터) 이상의 활주로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훈련기지로는 부적합하였다. 반면에 김해기지에는 전투기가 훈련하기에 충분한 콘크리트 활주로가 있어 전투기 훈련이 가능한 상태였다.[35]

따라서 비행단 전투조종사들은 8월 1일부터 진해기지를 모기지로 하고 훈련기지인 김해기지를 왕복하며 미 제6146기지부대의 교관들로부터 전투기 비행훈련과 정비교육 등을 받았다.

2) 정찰비행대 작전

대전기지에서 창설된 정찰비행대[36]는 충주-음성-진천-천안-온양-평택-안양-시흥 일대의 적정을 정찰하는 한편, 북한군의 지배하에 있거나 피난하는 국민을 고무시키기 위해 전단을 살포하였으며, 지휘관 항공수송과 전·후방 간 긴급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천안과 조치원을 경유하여 진격해 온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은 7월 14일 오전 금강 북단에서 방어하고 있는 미 제24사단 예하 부대들을 격파하고, 이날 밤 공주를 점령하였다.[37] 북한군이 대전부근까지 남진하여 대전기지의 위협이 예상되자 정찰비행대는 김천으로 이동하여 국도를 활주로로 이용하면서 종전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날 T-6기 2대는 김천 국도에서의 이·착륙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F-51 비행부대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구기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정찰비행대는 L-4기 2대와 L-5기 2대 등 총 4대의 경항공기로 정찰임무를 수행하였다.[38]

북한군은 7월 20일 대전을 점령한 후 남진을 계속하여 7월 31일에는 김천까지 진격함으로써 피·아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정찰비행대는 김천에서 단양-음성-청주-공주-부여-대전 일대의 적정을 정찰하여 그 결과를 지상군에게 전파하면서 작전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풍령을 넘어 김천지역을 위협하자 정찰비행대는 7월 26일 의성으로 이동하여 의성초등학교 운동장을 기지로 사용하면서 동부전선 일대를 비롯한 영월-제천-괴산 등지와 영주-예천-문경 일대에서 낙동강을 도하하려는 북한군을 정찰하는 한편, 대구-신녕-영덕-안동 간의 작전연락 및 지휘관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정찰비행대가 수행한 정찰, 전·후방 간 연락, 전단살포 임무 등은 지상군과 공군작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정찰비행대는 비행단이 대구기지에서 진해기지로 이동한 뒤에도 의성에서 8월 3일까지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황의 변화에 따라 신녕-대구-영천 등으로 이동하면서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정찰비행대가 실시한 임무현황은 <표 8-4>와 같다.

<표 8-4> 정찰비행대 작전 종합(1950. 7. 14~8. 3)[39]

작전기지 명	정찰임무	연락임무
김천(7. 14~7. 26)	258회	25회
의성(7. 26~8. 3)	59회	18회
계	317회	43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유엔공군 작전

1. 항공작전을 위한 지휘체제 확립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공군과 해군 항공전력이 참전하게 되었으나, 항공작전의 지휘통제가 단일화되지 않음으로써 종심이 짧고 정면이 좁은 한반도 전선에서의 전투비행시 비행안전상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군마다 독자적인 목표선정과 항공작전으로 효과적인 항공력 운용이 어려웠다.[40]

이를 해소하기 위해 스트레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7월 8일과 7월 10일 2회에 걸쳐 해군 항공기가 한국에서 작전시 이를 극동공군사령관 통제 하에 두게 할 것을 극동군사령부에 건의하였다. 그 결과, 7월 11일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과 조이(C. Turner. Joy) 극동해군사령관, 해·공군 관련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알몬드(E. M. Almond) 극동군사령부 참모장 집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극동공군사령관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사령관이 지시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전 항공기를 지휘 및 통제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해군과 그 밖에 지상기지의 모든 항공기가 포함되나 해군정찰 및 대잠전 등의 해군임무 지원작전은 제외한다. 그리고 극동해군사령관은 극동군사령관이 지시한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항공기를 지휘통제 한다"라고 합의하게 되었다.[41]

극동군사령부의 합동전략계획 및 작전단(JSPOG: 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은 위의 내용에 대한 추가조정 없이 7월 15일 원안대로 명령서를 기안하여 알몬드 참모장의 서명을 받아 발표하였다. 그러나 발표된 명령서의 내용에는 목표지역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을 극동군사령부의 목표분석단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극동공군사령관에게 주어진 「조정통제」 권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여된 것이 별로 없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에 앞서 알몬드 소장은 7월 14일 극동군사령부의 목표분석단에 정보참모부 선임장교 1명을 단장으로, 그리고 합동전략계획 및 작전단의 해·공군 장교 각 1명과 작전참모부 장교 1명을 임명하여 잠정적인 기구로 운영하게 되었다. 목표분석단은 일일 상황에 따라 공군과 해군의 항공력 운용을 조언하며, 점 목표와 지역목표 건의, 가용항공력의 활용방안 제시, 목표분석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책임을 부여받음으로써 권한이 매우 광범위하였다.[42]

이에 따라 목표분석단은 7월 16일 광범위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첫 회의를 개최하였고, 다음 날 목표분석단의 책임한계를 규정하는 기초문에서 "근접항공지원의 공격목표 선정은 제5공군사령관과 제8군사령관의 협조 하에 수행한다. 그리고 적 후방목표에 대해서는 극동공군 목표위원회와 극동군 목표분석단에서 선정 및 공격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고 합의함으로써 이날부터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43]

목표분석단은 7월 19일 극동공군에 B-29중폭격기의 첫 번째 공격목표로 22개의 공격목표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 공격목표들은 거의 모두가 전선 주변의 철도와 교량들이었다. 그러나 극동공군의 목표전문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표분석단이 목표선정 실무에 정통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목표분석단이 7월 17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선정한 1, 2급의 주요 공격목표 총 220개 중에서 약 20%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미육군 측지부대에서 제작한 지도(1 : 250,000)가 실제와 차이가 많았고, 독도(讀圖)에도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아직 건설되어 있지 않은 설계상의 철도가 실제 운행되고 있는 철도로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가 하면, 파괴해도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교량도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소하천을 큰 강으로 잘못 식별한 것이었다. 그 후 목표분석단은 항공정찰사진에 근거를 둔 정확한 지도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부여된 주요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충분한 경험을 갖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다.[44]

이에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7월 19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 알몬드 참모장 등이 모인 회의에서 "목표선정에 있어서 의견 불일치와 그릇된 목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정으로 작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극동공군에는 잘 조직된 목표부를 두고 있으므로 목표에 대한 문제는 이들 전문가들이 훌륭하게 취급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모두가 극동공군사령관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나, 극동군사령부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45]

극동공군사령관은 7월 21일 다시 맥아더 사령관에게 극동군사령부 내에 목표선정위원회(Target Selection Committee)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이 서한에서 스트레트메이어는 "목표선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극동군사령부 참모차장 힉키(Doyle O. Hickey)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극동군사령부 정보부장 윌로우비(C. A. Willoughby) 소장, 극동공군 부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nd) 소장, 그리고 극동해군사령관이 임명하는 극동해군 대표 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모든 목표를 건의하는 임무를 이 목표선정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하며, 이미 설치된 극동군과 극동공군사령부의 목표선정부서는 상급인 목표선정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맥아더 사령관은 7월 22일 극동군사령부 내에 목표선정위원회의 설치를 승인하고, 이 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로 북한군의 보충병 및 보급품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후방차단작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목표선정위원회는 7월 24일 적의 병참수송을 차단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웨이랜드 장군은 지상전 상황이 위태롭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군이 전선으로의 병력보충과 보급품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북한 후방지역을 포함한 포괄적인 후방차단작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힉키 장군은 B-29중폭격기 2개 전대를 후방차단작전에 투입하고, 나머지 1개 전대를 잠정적으로 미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계속할 것을 제안하였다. 윌로우비 장군도 B-29중폭격기의 후방차단작전 계획을 38선 이북에 집중하도록 제안하는 등 이러한 제안에 모두 동의하는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회의를 마쳤다.

맥아더 사령관은 7월 26일 목표선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승인하고 지침으로 하달하였다. 이와 같이 극동공군은 이를 통하여 확인된 많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극동공군 폭격사령부에서는 포괄적인 후방차단작전 계획에 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극동공군의 전력증강 및 부대 재편성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4월에 발행된 미 공군성의 상반기 보고서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군 예산 삭감에 따른 48개 비행단의 병력 및 장비 등의 감축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1949년 말부터 1950년 초까지의 병력감축으로 1950년 6월 말 기준, 미 공군병력은 총 411,277명 선으로 감소되었으며, 이 병력은 전시체제에서의 최고 병력수준인 총 2,411,294명의 18%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46]

미 극동공군도 예외가 아니었다. 해외에 파견된 미 공군부대 중 가장 큰 규모인 극동공군도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상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되었다.[47] 이에 따라 극동공군도 예하의 제314, 제315항공사단과 B-26경폭격기 1개 대대가 감축됨으로써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관할지역을 방호하기에도 불충분할 정도로 전력이 빈약한 상태에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4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스트레트메이어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당시 한국전 참전과 일본방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5공군사령관으로 하여금 한국전선에 8개 전투비행대대를 운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전력으로는 일본방위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한국에서의 효율적인 항공작전 전개를 위해 예하 전술부대들을 재편성하고 부족한 항공전력 및 전술부대를 증강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였다.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의 전력증강 요구에 따라 미 공군은 7월 7일 극동공군의 전력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대전개 계획안을 미 합동참모본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 극동으로의 증원부대 전개를 추진하였다. 미 공군은 우선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의 상륙작전시 공정작전에 필요한 제314병력수송비행전대를 극동에서의 잠정적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시켰고, 제162전술정찰대대, 야간사진정찰대 및 제1위치측정항로표식대에 대한 이동을 지시함으로써 7월 12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랭레이(Langley) 공군기지에서 극동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49] 그리고 이 증원부대 전개계획에는 제437병력수송비행단과 제452폭격비행단(B-26경폭격기)도 포함되었으나, 이 비행단들은 미 공군 예비군 소속이었기 때문에 극동에 배치하기에 앞서 현역에 편입하여 약 60일간의 보수교육이 필요하였다.

또한 미 공군은 극동공군의 항공전력 소요에 대한 지원을 위해 주 방위 공군부대로부터 확보한 F-51전투기 145대와 L-5경항공기 8대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알라메다(Alameda) 공군기지로 보내어 항공모함 복서(Boxer)호에 선적하도록 하였다. 이들 항공기를 선적한 항공모함 복서호는 7월 15일 출항하여 8일 동안 태평양을 횡단 후 7월 23일 일본에 도착하였으며, 극동공군 군수사령부는 기사라즈(Kisarazu) 항에서 항공기를 인수하여 다찌가와(Tachikawa)기지로 이동시켰다.

제3폭격비행단은 F-51전투기로 기종을 전환하게 될 조종사들이 다찌가와기지에 있는 F-51전투기를 속히 인수하여 한국 전선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존슨기지에 F-51전투기 보수교육과정을 개설, 운용하였다.[50] 미 본토로부터 증강된 F-51전투기는 한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2개 전투비행대대에 보충되었고 이어서 필리핀 클라크(Clark)기지에서 전개한 제18전폭전대와 제67전폭대대에 공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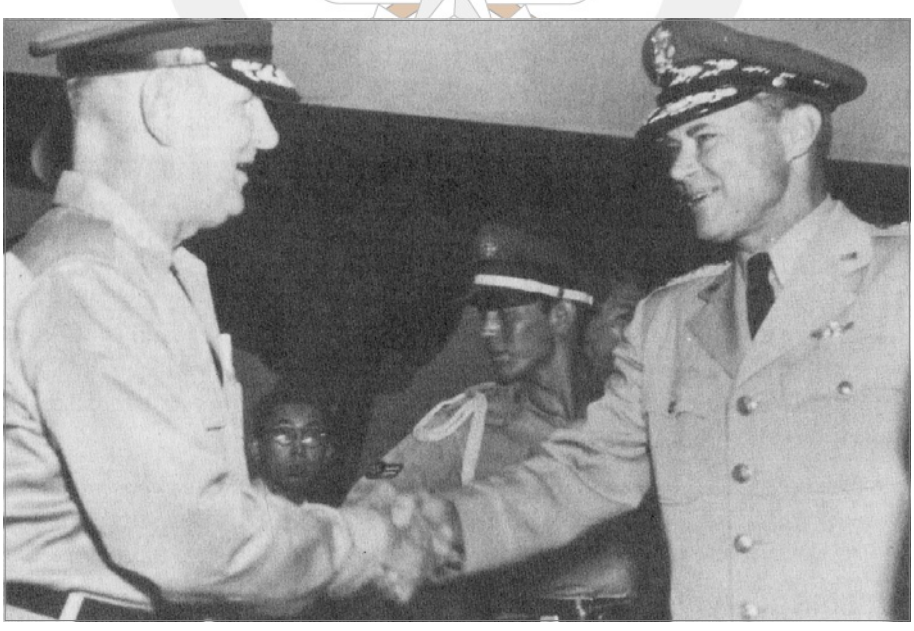
개전 당시 극동공군은 인가병력 39,975명에 보유병력이 33,625명으로 평시 인가병력의 90%수준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실제 보유병력은 그 이하 수준이었다.[51] 따라서 극동공군 예하의 각 전술부대들은 항공공병, 항법사, 통신사, 폭격사수, 기관포사수, 무장사, 항공사진판독 등의 특수전문분야 병력이 크게 부족하여 전투력을 발휘하기에 불충분한 상태였다. 따라서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전술부대의 병력을 전시 인가수준으로 충원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미 공군은 극동공군의 병력증원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역 및 예비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을 동원하였지만, 이 시기에 증원된 병력 대부분은 새로 전개되어 온 증원부대 병력이었다.

미 공군도 극동공군이 필요로 하는 특수전문분야 병력을 단시일 내에 모두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술부대 병력들은 전투임무수행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다.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특히 항공공병병력 확보를 위해 이미 7월 5일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미 공군참모총장에게 요청한 바 있었고, 7월 14일 반덴버그 미 공군참모총장이 워싱턴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동경을 방문[52]한 자리에서도 항공공병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면서 "만약 우리가 전력을 갖춘 항공공병부대를 보유했더라면 한국에서의 작전은 지난 7월 7일 대구나 부산에서 이미 착수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항공공병병력 확보에 매우 열정적이었다.

미 공군은 7월 14일부터 항공편으로 870명의 항공공병병력을 극동공군에 공수하였고, 이후 극동공군은 7월 26일 1,237명의 항공공병병력을 추가 요청하였으나 미 육군성의 지원불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3]



반덴버그 공군참모총장(우측)과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1950. 7. 13)

한편, 극동공군은 전선으로 유입되는 북한군 병력과 보급물자를 차단하기 위해 7월 18일 정보 및 작전부서 대표로 구성된 목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군의 주 보급로인 철도 및 도로 차단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한국전선의 상황변화에 따라 미 공군의 증원부대 전개계획과는 별도로 다른 기능부대들이 필요하게 되어 이에 대한 소요를 제기하였다. 극동공군은 제5공군의 사진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개 정찰기술대대를 요구하였고, 이에 미 공군은 7월 19일 랭레이기지에 있는 제363정찰기술대대를 이다즈께(Itazuke)기지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시기에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7월 14일 한국에서의 전술항공작전을 전담할 제5공군 전방사령부와 본부대대를 잠정적으로 창설하였다.[54] 그 후 파트리지는 7월 18일 한국 전선에서 임시적인 통신 및 통제시설을 사용해서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 공군에 제502전술항공통제전대 소속의 제2무선중계대대와 제934통신대대, 제3903레이다폭격기록대대에서 3개 전자폭격통제반을 요구하였으며, 미 공군은 7월 28일 이 요구를 승인하였다.[55]

한편 미 합동참모본부는 극동에 배치된 B-29중폭격기 3개 전대만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전략폭격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미 합참이 7월 29일 전략폭격에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B-29중폭격기 2개 전대를 30일간 극동공군 폭격사령부에 잠정 파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전략공군사령부는 이날 즉시 제15공군 소속의 제98폭격전대와 제2공군 소속의 제307폭격전대를 신속한 이동을 위해 대기시켰으며, 이들 2개 중폭격기 전대는 모든 전개준비를 마치고 8월 1일부터 이동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극동공군은 한국전선에서 효과적인 항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예하 전술부대들을 재편성하고 부족한 전력들을 보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최대의 공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전술부대의 한반도 전개 및 작전

미 극동공군은 한국전선에 대한 효율적인 항공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예하 전술부대를 재편성하는 한편 한국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일본의 이다즈께(Itazuke)와 아시야(Ashiya)기지를 중심으로 전술부대를 이동시켜 전방기지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원거리인 한국전선에서 수행하는 실제 임무시간이 불과 15~20분을 넘지 못하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극동공군은 궁여지책으로 보조연료탱크를 추가 장착하는 등의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야 비로소 항속거리 단축과 효율적인 항공작전 수행을 위한 대책으로 한국의 비행장을 확장하여 전방기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마침내 7월 11일 한국에 제1건설사령부를 창설하여 한국군 공병부대를 이에 배속하고 그 지휘권을 제5공군사령부에 위임하였다.[56]

당시 김포와 수원기지 등을 상실한 상태에서 제5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비행장은 포항(K-3), 대구(K-2), 수영(K-9) 등이었으나 그나마 상태가 좋지 않아 활주로 확장공사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제5공군사령부는 전방사령부의 시설참모인 슈메이커(William S. Shoemaker) 중령의 수영 및 포항비행장 시찰결과에 따라 한국의 비행장 개발을 결정하였고, 제5공군의 지시에 따라 제802항공공병대대 A중대가 오끼나와(Okinawa)의 나하(Naha)항에서 LST편으로 출항하여 7월 10일 밤 포항비행장 앞 영일만에 도착하였다. A중대의 일차적 임무는 활주로용 철판(PSP: Pierced Steel Plank)을 이용하여 4,500피트의 기존 활주로를 5,000피트로 500피트를 더 확장하고, 유도로 1개소와 F-51전투기 주기장 27개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57] A중대는 영일만에 선적장비를 하역한 다음 7월 12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7월 15일 포항기지 활주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어서 노반공사를 시작하여 7월 19일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다.[58]

제802항공공병대대 A중대가 포항기지로 이동할 무렵 방공포부대도 함께 이동하였으며, 7월 11일에는 공군헌병대와 OSI(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 및 전술지

원 병력이, 7월 13일과 14일에는 약 400여 명의 공군병력이 포항기지로 이동하였다.[59] 또한 제5공군은 7월 10일 아시야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35전투요격전대 소속의 제40전투요격대대에게 F-51전투기로 기종전환을 지시하였고, 아울러 포항기지에 전개할 예정인 전투비행대대의 병참지원을 위해 7월 14일 제6131기지대를 편성하였다. 그 후 제40전투요격대대는 7월 16일 포항기지로 이동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60]

이에 앞서 제5공군사령부는 7월 6일 작전부대를 지원할 제6002기지대대를 사세보(Sasebo)에서 긴급 편성하여 부산으로 이동시켰고, 부산에 도착한 제6002기지대대는 대구기지로 이동하였다.[61] 이어 7월 10일에는 대구기지에서 「바우트-원」부대로부터 차출한 미 공군병력과 제13공군 소속 제12전폭대대를 모체로 편성된 「달라스」대대를 통합하여 제51전투비행대대를 창설하였고, 7월 15일부터 작전을 개시하였다.[62]

한국에서 두 번째 확장공사 대상 비행장은 대구기지였다. 당시 대구기지에는 콘크리트 건물 2동과 목조건물 1동이 있었고, 잔디와 자갈로 만들어진 4,800피트 활주로는 여기 저기 구덩이가 많이 파여 있는 상태였다. 극동공군은 대구기지 활주로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 오끼나와에 있는 제822항공공병대대를 대구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하고, 여기에 제919항공공병정비중대의 통신소대도 함께 이동하도록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극동공군은 제822항공공병대대에게 대구기지의 항공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잔디와 자갈로 되어 있는 기존 활주로를 최단 시일 내에 보수하는 것과 기존 활주로 보수 후에는 그 옆에 다른 5,000피트 PSP활주로를 추가로 건

대구기지 활주로 PSP 포장작업

설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임무지시에 따라 제822항공공병대대는 7월 13일 정오까지 병력의 대부분을 상선에 승선 완료하고, 남은 병력과 장비는 7월 22일 소형선박 3척에 선적하여 오끼나와를 출발하였다. 제822항공공병대대 A중대는 7월 16일 부산항에 도착, 대구로 이동하여 7월 18일부터 활주로 보수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후속부대는 7월 30일 도착하여 공사에 합류하였다.[63]

미 항공공병부대의 활주로 확장공사로 서서히 비행장의 모습이 드러나자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F-51전투기야말로 한국기지에서 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종이라고 판단하고, 전구에 재고로 남아있던 F-51전투기를 대구기지에서 창설한 제51전투비행대대와 포항기지로 전개한 제40전투요격대대에 공급하였다. 그리고 다른 전술비행부대를 한국에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미 본토로부터 F-51전투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제5공군은 7월 23일 미 본토로부터 145대의 F-51전투기가 도착하자, 7월 30일 일차적으로 존슨기지에서 기종전환 보수교육을 이수한 조종사들을 한국에서 작전 중인 2개 전투비행대대에 보충함으로써 제51 및 제40전투비행대대의 보유 항공기는 각각 25대 선으로 증강되었다. 그 다음은 필리핀에서 존슨기지로 이동하여 대기 중인 제18전폭전대와 제67전폭대대에 공급하여 7월 30일 아시야기지로 이동하게 하였으며, 제18전폭전대 본부는 8월 3일 대구기지로 이동하였다.[64] 제18전폭전대는 제67전폭대대를 기종전환 즉시 대구기지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대구기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이동을 유보하고 당분간 아시야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공지합동작전 교리상 전술공군사령부를 야전군사령부와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야전군 지휘소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유보하고 있었다. 그 후 미 제8군사령관으로 임명된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이 7월 13일 대구에 주한 미 제8군 지휘소를 설치하고 한국에 전개하여 작전 중인 미 지상군에 대한 지휘권을 인수한 다음 지휘소를 주한 미 제8군사령부(EUSAK: Eighth United States Army in Korea)로 명명하였다. 그러자 제5공군사령관은 제5공군을 2개의 사령부로 나누어 전방사령부는 한국전선에서의 전술항공작전을 담당하고, 후방사령부는 나고야

(Nagoya)에서 일본영공방위와 병참지원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7월 14일에는 이다즈께기지에서 제5공군 전방사령부의 본부대대를 편성하였다.[65]

대구시내의 선교회 계통의 학교에 통신시설과 숙소가 마련되자 제5공군 전방사령부는 7월 23일 이다즈께기지에서 대구기지로 이동하여 7월 24일 00시를 기해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7월 24일부로 제5공군전방사령부를 주한 미 제5공군사령부(FAFIK: Fifth Air Force in Korea)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극동공군의 주요 사령부로 격상시켰다.

또한 제5공군은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통제 및 경보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7월 14일 이다즈께기지에서 잠정적으로 제6132전술항공통제전대를 편성하여 대구로 이동시켰으며, 전술항공통제전대는 대구에 도착하자 합동작전본부(JOC)와 인접한 곳에 전술항공통제본부(TACC)를 설치하고, 한국에서 작전 중인 멜로우(Mellow) 통제소 및 전술항공통제반(TACP: Tactical Air Controll Party)을 인수하였다. 이때까지도 한국에는 경보 및 통제를 위한 레이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술항공통제본부의 주요 임무는 합동작전본부의 전투작전과에서 필요로 하는 전술항공임무 지시를 무선으로 연락하는 일이었다.

이와 같이 미 극동공군은 한국의 비행기지를 확장하는 한편 예하 전술부대를 재편하여 대구와 포항기지에 전개, 운영함으로써 한국전선에서의 효율적인 항공작전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항공작전

1) 제공작전

극동공군은 절망적인 지상군 전황에도 불구하고 전쟁 초기부터 북한공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제공작전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 왔다. 이에 따라 극동공군은 6월 29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지역에 있는 비행기지를 폭격하여 활

주로는 물론 많은 항공기들을 파괴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북한공군은 잠시 소강상태로 있다가 전술을 바꾸어 점령지의 비행장을 보수하여 전방기지로 활용하면서 공격을 재개하였다.

북한공군은 지상군이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하자 김포비행장을 전방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7월 5일부터 활주로를 복구하는 동시에 전술부대를 이동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부대의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항공사단 추격기연대 제3대대 제1중대가 6월 20일 평양을 출발하여 평강비행장을 경유, 7월 9일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고, 항공사단 습격기연대 제3중대는 3월 중순 연포비행장을 출발, 원산비행장에서 대기하다가 7월 25일 김포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그 밖에 평양에 있던 항공사단 본부가 7월 7일 기차 편으로 개성을 경유하여 서울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항공사단 제25경비부(헌병대)가 사리원을 경유하여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으며, 항공사단 제3기술대대가 7월 15일 원산비행장을 출발하여 기차 편으로 용산역에 도착한 다음 자동차 편으로 7월 16일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다. 또한 항공사단 제3대대 사격중대는 6월 26일 원산비행장을 출발하여 평강비행장에 머물다가 7월 말경 김포비행장으로 이동하였고, 항공사단, 제877군부대 및 제3기술대대 병력 80명이 7월 20일 원산비행장을 출발, 철원을 경유하여 7월 24일 김포에, 그리고 7월 중순경 평강비행장에 있던 공병대대와 기술대대의 일부병력이 강릉기지로 이동하였다.[6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7월 13일 북한군 제2사단의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하던 YAK전투기 3대가 청주지역에서 전투 중인 아군을 공습하였고, 항공지원을 받은 적은 이날 자정 무렵에 청주를 점령하였다. 7월 14일에는 YAK전투기 2대가 임무중인 B-26경폭격기를 공격하여 그 중 1대를 격추하였으나, 곧 이어 아군 전투기 편대에 의해 YAK기들이 격추되었다. 7월 15일에는 YAK전투기 2대가 조치원부근 상공에서 목표를 공격중인 B-26경폭격기 4대를 공격하여 그 중 1대는 큰 피해를 입고 대전에 불시착하였다.[67]

제5공군은 7월 초부터 북한공군기가 김포비행장에 위장 전개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전술기 조종사들의 목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7월 14일 F-80전

투기 편대는 김포기지를 공격하여 이미 그 곳에 전개해 있던 YAK전투기 2대와 대공포 진지 등을 파괴하였다.[68]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북한공군의 공격재개를 염려하여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에게 항공역량의 일부를 제공임무에 투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특히 북한공군이 김포기지에 YAK전투기를 전개하여 아군에게 위협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잠재적 위협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였다. 이에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7월 15일 제5공군 전폭기들을 출격시켜 김포기지에 위장, 분산되어 있는 북한공군기들을 공격함으로써 YAK전투기 2~3대를 파괴하였고, 폭격사령부에서는 B-29중폭격기 3대를 발진시켜 김포기지 활주로를 파괴하였다.[69]

전방기지에서 출격한 북한공군기들은 아군 전투기들의 연료가 다 소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는데 이들의 전술을 파악한 제5공군 전방항공통제관(FAC: Forward Air Controller)과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러한 북한공군의 단거리 기습공격으로부터의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합심하여 대처하였다. 즉 아군 전투기가 임무지역에서 목표를 공격하고 있을 때 지상에 있는 전방항공통제관이 공지무선통신기로 북한공군기의 출현을 알려주고 연료와 무장이 소모되기 이전에 적기가 있는 곳으로 유도하여 공격하게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제8전폭전대 조종사들은 전선에서 7월 17일 YAK기 1대를, 7월 19일에는 대전근교에서 YAK기 3대를 격추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F-80전투기 1대가 YAK기에 의해 격추되었다. 7월 20일에는 제19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기관포사수가 적기의 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사격을 가하여 적기 2대를 격추시켰으며, 이날 18시 15분에는 F-80전투기 편대가 무장정찰임무 중에 대전부근 금강 북쪽 상공에서 YAK전투기 2대를 공격하여 그 중 1대를 격추하였다.[70]

한편 7월 18일에는 미 해군 제77특별기동대의 함재기들이 평양비행장에 2차례의 공격을 가하여 적 항공기 14대 이상을 파괴하고, 부근에 위장 분산시킨 다른 13대에 손상을 입혔다. 이 함재기들은 7월 19일 동해안의 북한 비행장들을 폭격하여 연포비행장에서 적기 15대를 파괴하고, 다시 선덕비행장에서 3대를 파괴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또한 사진정찰기들은 38선에 가까운 평강의 풀밭에 급조된 활주로와 그 주변에 나뭇가지를 덮어 위장해 놓은 적기 25대를 발견하였다. 제8전폭전대의 F-80 전투기 7대는 7월 19일 15시경 평강비행장을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폭격하였고, 이 폭격으로 적의 쌍발폭격기 1대와 전투기 14대를 파괴하고 다른 적기 7대를 파손시켰다.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제77특별기동대에서 시작한 이 작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7월 20일 B-29중폭격기 14대를 지상군 지원임무에서 전환시켜 평양과 온정리 비행장의 활주로 및 분산되어 있는 기지 시설물들을 파괴하였다.[71]

극동공군의 공습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북한공군은 7월 20일 이후 남아 있는 전술기들을 더 이상 공격에 투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유엔공군이 한국 전역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7월 20일에 이르러 극동공군의 우선적 임무인 제공권의 확보는 유엔공군의 큰 부담이나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유엔공군의 제공권 장악은 한국전쟁에서의 많은 불가사의 중에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만약, 북한이 현대적인 공군력을 보유했더라면 한국에서의 전세, 즉 육·해·공군의 모든 면에서 사정이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하였다.[72]

2) 후방차단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후방차단작전은 전선으로 적 병력 및 보급품의 이동을 방해, 지연, 또는 파괴하는 모든 항공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73]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도 "주요 교량을 차단하는 것이 미 극동공군의 최고 목표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7월 9일 북한군 제4사단 및 제105전차사단이 천안 일대에서 방어하고 있는 미 제21보병연대와 한국군 2개 보병연대를 격파하고 천안을 점령하는 등[74] 미 제24사단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극동군사령부 참모들은 "모든 항공력을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집중해야 하고, 후방차단작전도 적의 후방이 아닌 전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목표선정은 극동군사령부 목표분석단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미 제24사단만으로는 적의 기갑

부대에 대항할 수 없다는 판단과 극동군사령부 참모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극동공군에게 평양, 원산 및 서울 조차장에 대한 폭격계획을 취소하고 모든 B-29중폭격기를 지상군 근접항공지원작전에 투입하도록 지시함으로써[75] 극동공군은 사전에 계획한 폭격계획을 취소하고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주력하였다. 그 후 7월 13일 맥아더 사령관은 안성-제천 축선으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아울러 금강방어선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극동공군사령관에게 음성-장호원-제천 및 장회리 일대의 철도분기점, 교량 및 기타 목표에 대한 B-26경폭격기 및 B-29중폭격기의 공격을 집중하도록 지시하였다.[76]

극동공군은 7월 13일 폭격사령부의 제22 및 제92폭격전대 소속 B-29중폭격기 55대를 극동전개 이후 첫 임무로 원산지역에 투입하여 정유공장, 철도조차장 및 병력집결지 등에 대한 레이더유도폭격을 실시하였다.[77] 이 임무가 끝나자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전선에서 아군부대에 대한 북한군의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공격을 집중하도록 지시하였고,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는 후방차단작전의 비중을 줄이고 지상군지원을 위한 전선의 목표물 폭격에 집중하였다.

폭격으로 불타고 있는 원산정유공장(1950. 7, 13)

폭격 후 파괴된 원산정유공장(1950. 7. 13)

제5공군은 B-26경폭격기 등 전술기들을 투입하여 주요 교통로를 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제5공군은 B-26경폭격기 조종사들에게 목표지역에서의 폭격시 저고도에서 폭격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B-26경폭격기 조종사들은 5,000-5,500피트 높이의 산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형상 저고도에서의 폭격은 비행안전에 위험이 따르며, 저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로켓탄을 발사하기 위해 잠시 수평비행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적의 대공포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5공군은 조종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투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교량을 차단하는 경우 비교적 큰 교량은 B-26경폭격기 4대 또는 6대를 1개 편대로 하여 집중 폭격하도록 하고, 소교량과 철도의 지선(支線)은 2대 또는 3대를 1개 편대로 하여 활공(滑空)폭격하도록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폭격사령부는 7월 22일 나남, 평양 및 원산지역에 B-29중폭격기 22대를 투입하여 나남의 탄약고와 창고, 평양의 병력집결지 및 원산정유소를 폭격하였고, 다음 날에는 18대를 투입하여 평양지역 병력집결지 등 목표를 폭격하였다.[78] 그러나 이러한 간헐적인 후방차단작전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여 북한군의 증원병력 및 보급물자의 전선유입을 차단할 수도 없었고, 더더욱 북한군을 전선에서 고립시킬 수도 없었다.

한편 미 제8군사령부는 북한군의 병력과 보급물자가 전선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달라고 극동공군에게 요청하였다. 당시 극동공군의 정찰기들은 청진에서 흥남에 이르는 철도조차장과 철도주변에 가득 쌓여있는 병참물자, 그리고 동해안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대규모 철도수송차량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군이 이미 신의주-서울, 원산-서울 간의 철도를 복구해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7월 22일 서울 상공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북한군이 한강복선철교 한쪽에 판자를 깔고 열차 및 차량으로 병참수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군은 한강인도교 바로 옆에 부교를 가설하여 밤에만 사용하고, 낮에는 해체하여 한강제방 어딘가에 숨겨두고 있었으며, 보급물자의 대부분은 트럭을 이용하여 남쪽 전선으로 수송하고 있었다.[79] 이처럼 극동공군이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주력하고 있는 동안 북한군은 38선 이북의 안전한 교통로를 이용하여 병력 및 보급물자를 서울지역으로 수송하였으며, 서울지역에서는 다시 각 전선으로 수송하였다.[80]

7월 22일 극동군사령부 내에 목표선정위원회가 설치되자 극동공군은 그동안 근접항공지원작전에 투입된 B-29중폭격기 활동의 모호한 점을 지적하면서 폭격기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바른 후방차단작전 계획수립을 요구하였다.[81] 당시 극동공군은 극동군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전쟁발발 한 달이 지난 이때까지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후방차단작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82]

이러한 요구를 접수한 극동군사령부 알몬드(Edward M. Almond) 참모장은 7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4일 저녁 목표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밤늦게까지 적의 후방차단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힉키(Doyle O. Hickey) 소장과 윌로우비(Charles A. Willoughby) 소장은 "한·미 지상군이 북한군 9개 사단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교전지역에 모든 B-29중폭격기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웨이랜드(Otto P. Weyland) 극동공군부사령관은 "북한군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수송망을 이용하여 전선으로 병력 및 보급품 지원을 계속하는 한 유엔지상군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목표선정위원회는 적의 후방지역을 강타하여 북한군 9개 사단이 12개 혹은 15개 사단으로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포괄적인 후방차단작전 계획수립은 물론, B-29중폭격기 2개 전대를 근접항공지원작전에서 전환시켜 38선 이북에 대한 후방차단작전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목표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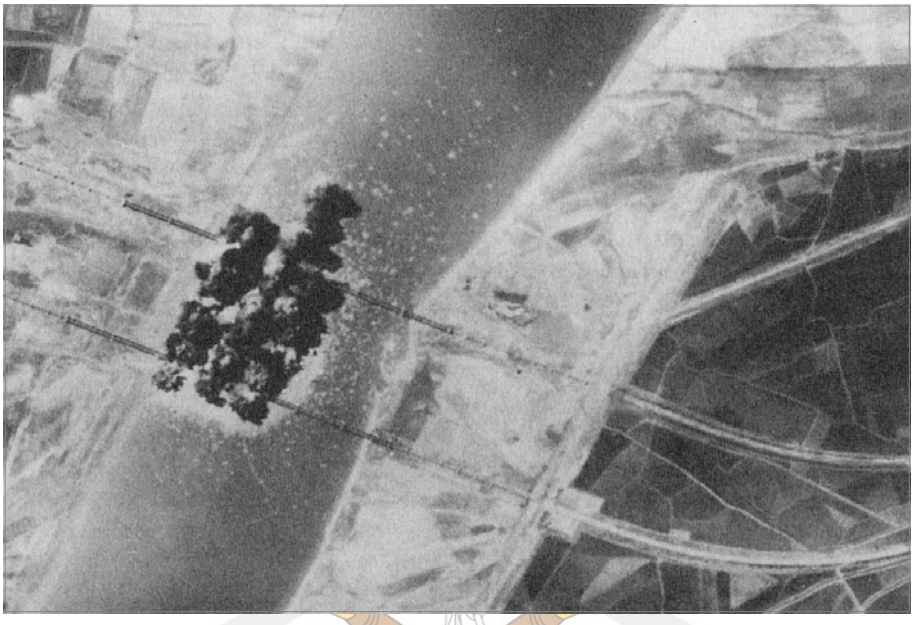
힉키 소장은 웨이랜드 극동공군부사령관의 주장에 설득되어 "B-29중폭격기 2개 전대를 후방차단작전으로 전환하고 1개 전대는 잠정적으로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자"라고 제안하였으며, 윌로우비 소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B-29중폭격기의 후방차단작전 계획은 38도선 이북지역에 집중시키도록 하자"라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에 모두 동의함으로써 회의는 순조롭게 끝났다. 7월 26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이 건의안을 승인하면서 B-29중폭격기 2개 전대를 투입하여 수원-강릉선 이북의 주요 교통중심지, 철교 및 보급소 등을 파괴하도록 지시하였다.[83]

폭격사령부는 7월 27일 B-29중폭격기 8대를 출격시켜 평양지역의 교량과 병력집결지를 정밀 폭격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29중폭격기가 항법장치 및 경보장치 결함으로 목표지역인 평양을 지나 대련으로 비행했고, 소련전투기 1대와 조우했으나 다행히 교전은 없었다. 이에 폭격기 조종사는 항법장치의 결함을 발견하고 즉시 기수를 돌려 평양으로 비행하여 평양조차장 등을 폭격하였다.[84]

다음 날 폭격사령부는 B-29중폭격기 15대를 출격시켜 7대는 평양의 북한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B-29중폭격기에 의해 파괴되는 평양철교(1950. 7. 27)

병력집결지를 폭격하였으며, 나머지 8대는 북한지역 내의 주요 교량, 병력집결지 및 통신시설 등을 폭격하였다. 7월 29일에는 B-29중폭격기 8대를 출격시켜 평양 북쪽 철도 및 교량 등에 1,000파운드와 2,000파운드 GP폭탄 53톤을 투하하였다.[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 이 제안이 승인되기 8일 전인 7월 18일, 극동공군은 정보 및 작전부서 대표로 구성된 목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맥아더 사령관으로부터 건의안이 승인되자 극동공군은 북한군이 38선 이북지역의 수송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후방차단작전 계획을 즉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평양, 함흥, 원산 및 서울 등 주요 차단지점과 모든 간선철도, 그리고 트럭 수송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평양, 함흥 등 교통요충지를 연결하는 주요 교량을 파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극동공군의 정보와 작전부서는 서울 이북지역에 대한 차단작전에 이 개념을 적용하기로 하고 차단목표 선정작업을 시작하였다. 정보참모는 목표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 목표를 파괴하면 북한군의 이동과 병참 수송이 과연 차단될 것인지를 검토하였고, 작전참모는 이 목표에 대한 공격시 관련되는 부차목표물도 동시에 파괴함으로써 적의 병참수송에 어려움을 배가시킬 수 있는 목표를 선정하였다.[86]

극동공군은 7월 27일까지 치밀한 철도차단작전계획을 완성하였으며, 7월 30일에는 도로차단계획을 완성하였다. 이 계획에는 적의 후방으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수송되는 적의 병력과 보급물자를 차단하기 위한 대동강철교와 평양조차장, 함흥철교와 함흥 및 원산 조차장, 서울조차장과 한강 및 양수리 철교 등이 포함되었다.[87]

극동공군은 7월 28일 후방차단작전 시행을 위해 제1차 목표목록을 예하 부대에 하달하였으며, 폭격사령부는 8월 2일 제1차 목표목록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44개에 달하는 철교 및 교량 등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기본목표, 부차목표 및 예비목표로 분류하였다. 44개의 목표 중 13개는 남한지역에, 나머지 31개는 북한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폭격사령부에게 44개 목표에 대한 후방차단작전 임무를 부여하고, 해군 제7함대에게는 한강철교 등을 파괴하는데 참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제5공군에게는 8월 3일 37도선과 38도선 사이를 통과하는 적의 수송선 파괴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과 오도넬 폭격사령관은 서울지역에서의 차단작전에 대한 임무를 조정하여 B-29중폭격기들은 서울의 철도조차장과 한강철교를 파괴하기로 하였고, 제5공군 전술기들은 한강에 설치된 적의 부교를 파괴하기로 하였다.[88]

이와 같이 극동군사령부 목표선정위원회와 극동공군 목표계획위원회의 조치로 B-29중폭격기들은 근접항공지원작전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인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후방차단작전에 제5공군은 1,640소티, 폭격사령부는 241소티를 투입하였다.[8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근접항공지원작전

(1) 전술항공통제체제 구축 및 작전수행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미 공군이 참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5공군사령부는 한국 전선에 전술항공통제반(TACP : Tactical Air Control Party)을 전개시켜 공지합동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상황이 급진전되어 미 제24보병사단이 한국전선에 급박하게 투입되자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한국 내에 전술항공통제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7월 5일 대전에 합동작전본부(JOC: Joint Operations Center)를 설치하였다.[90] 그러나 합동작전본부는 공지작전과에 육군 측 병력이 충원되지 않았고 공군병력으로 구성된 전투작전과와 이다즈께기지에 있는 제5공군 전방사령부 간의 통신상태 불량 등의 불비한 여건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한편 북한군 지도부는 방어선에 배치된 유엔지상군을 격멸하기 위해 7월 12일 전선지역에 병력을 집중하여 제3사단과 제6사단을 대전방향으로, 중부전선에서는 제12사단과 제15사단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제1사단을 충주지역으로, 그리고 제6사단과 합동작전을 하도록 제603모터사이클연대를 천안지역으로 재배치하였고,[91] 7월 13일에는 중부전선의 음성과 충주지역, 서부전선의 천안과 대전 사이에서 유엔지상군을 강하게 압박하였다.[92] 이때 합동작전본부 전투작전과 머피(John R. Murphy) 중령은 대전기지의 위협이 예상되어 7월 12일 전투작전과의 일부 병력과 장비들을 대구로 철수시켰고, 7월 13일에는 T-6기(일명 Mosquito) 공중통제반도 대구로 철수시켰다.

미 제8군사령관에 보임된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은 7월 13일 대구에 미 제8군 지휘소를 설치하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지상군에 대한 지휘권을 인수한 다음 지휘소를 주한 미 제8군사령부라 명명하였다.[93] 주한 미 제8군사령부가 설치되자 워커 사령관은 합동작전본부의 공지작전과에서 근무할 G-2 항공장교와 G-3 항공장교를 임명, 파견하였다. 이때부터 비록 100% 충원되지 못한 상태였지만 제5공군과 제8군의 협조기구인 합동작전본부가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기 시작하였다.[94]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7월 14일 한국에서의 통제 및 경보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잠정기구로 제6132전술항공통제전대를 이다즈께기지에서 편성하고, 리(Joseph D. Lee) 대령에게 지휘하도록 하였다. 리 대령은 일본의 영공방위부대에서 병력과 장비를 차출하여 즉시 대구로 이동하였으며, 합동작전본부 인근에 전술항공통제본부(TACC : Tactical Air Control Center)를 설치하고 멜로우 통제소를 비롯한 한국에 있는 모든 전술항공통제반을 인수한 다음 주한 미 제8군의 부대확장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전술항공통제반을 제공 및 운용하는 등 본격적인 전술항공통제임무를 수행하였다.[95]

북한군은 7월 16일 대전을 포위 공격하기 위해 대전의 북쪽과 북서쪽에 집결한 병력과 전차를 대전 방향으로, 제3사단을 대평리에서 유성 남동쪽으로, 제4사단을 공주에서 논산 및 금산 방면으로 각각 이동시켜 공격을 개시하였다.[96] 이에 대전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합동작전본부의 주력은 이날 대구기지로 이동하였으며, 머피 중령과 합동작전본부 잔여병력은 7월 19일 미 제24사단의 마지막 병력이 대전을 철수하는 저녁까지 전술항공통제 및 유도임무를 수행하다가 대구로 이동하여 본대와 합류하였다.[97]

전술항공통제본부의 전방항공통제관(FAC: Forward Air Controller) 중에는 미 본토에서 별도로 충원된 병력도 있으나 대부분은 제5공군의 각 전술부대에서 3주 동안 잠정 파견된 전투조종사들이었다. 특히 칼튼(Merrill H. Carlton) 소령이 지휘하는 T-6기 공중통제반의 활약은 전술항공작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으나 이들이 활동하였던 초기 3주 동안은 비공식 조직으로 운용되었으며, 그 후 8월 1일 주한 미 제5공군사령부 직할부대인 제6147전술통제대대로 정식 창설되어 대구에서 작전을 계속하면서 적의 목표에 항공공격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합동작전본부의 눈 역할을 하였다.[98]

7월 하순, 미 제8군은 장교와 하사관들을 제6147전술통제대대에 관측요원으로 파견하였다. 이들 관측요원들은 T-6기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육군 측의 의견을 공군의 항공통제활동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T-6 통제기는 한 번 출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면 약 3시간 동안 전투지역 상공에서 체공하며 정찰내용을 고주파무선통신기로 전술항공통제본부에 보고하였다. T-6 통제기가 대구의 전술항공통제본부와의 거리가 멀어 통신이 안 될 경우 제6147전술통제대대는 대구와 중간지점 상공에 다른 T-6 통제기를 체공시켜 통신중계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장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도 경험 있는 공군장교들을 해군 제7함대의 제77특별기동대와 제8군의 각 부대에 파견하여 연락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제5공군사령부는 제8군과 협조 하에 전술항공통제체제를 구축하고, 구축된 각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군병력 배치, T-6 통제기 운용방법 개선 및 지상군과 제7함대에 공군연락장교 파견 등 한국 전선에서의 성공적인 공지합동작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2) 근접항공지원작전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7월 10일 북한군이 중부전선의 안성-제천 축선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고 미 제24보병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에게 미 지상군 추가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제5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중부전선으로 남하한 북한군이 음성과 충주 지역에서 유엔지상군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하자 맥아더 사령관은 7월 13일 많은 북한군이 중부지역으로 집결하게 되면 전선 상황이 비관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에게 이 지역 전선일대의 철도분기점, 교량 및 기타 목표에 대하여 B-26경폭격기 및 B-29중폭격기를 최대한 집중, 폭격할 것을 지시하였다.[99]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이 중부전선에 관심을 표명하는 동안 북한군은 7월 13일 조치원 지역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가해왔으며, 이 지역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던 유엔지상군은 공주지역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100] 이와 같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전선에서 아군부대의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주저항선에 항공역량을 우선적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집중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제5공군은 이날 전선으로 유입되는 병력 및 보급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B-26경폭격기 18대를 투입하여 서울지역 교량을 폭격하였으며, 다른 전술기들은 서부와 중부전선의 접전지역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유엔지상군을 근접 지원하였다.[101]

이날 저녁 오도넬(Emmett O'Donnell) 폭격사령관은 제5공군 T-6통제기의 유도하에 제92폭격전대 소속 B-29중폭격기 10대가 전선의 목표를 공격할 계획을 급히 마련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B-29중폭격기 10대는 7월 14일 요꼬다(Yokota) 기지를 9분 간격으로 이륙하여 그 중 8대가 엔젤로 통제소(Angelo Control Station)로부터 중부전선인 청주지역 부근의 목표를 할당받아 T-6기 공중통제관의 유도 하에 전투지역의 교량, 도로, 철도 교차점 등에 대해 성공적인 폭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임무에 투입된 B-29중폭격기 여러 대가 임무지시를 받기 위해 한꺼번에 무선접촉을 시도함으로써 무선통화의 폭주를 야기하였고, 엔젤로 통제소의 전술항공통제관은 임무항공기를 목표로 유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제92폭격전대는 이제까지 9분 간격으로 이륙하던 것을 30분 간격으로 이륙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제92폭격전대는 7월 15일 김포비행장에 북한공군 YAK전투기가 전개해 있다는 정보에 따라 통제소의 유도로 B-29중폭격기 3대가 김포기지를 폭격하였으며, 다른 B-29중폭격기 8대는 청주 부근의 북한군 병력집결지, 철도터널 입구 1개소와 철교 2개소를 파괴한데 이어 원주 조차장을 폭격하였다.[102]

한편 북한군은 7월 15일 공주를 점령하고, 대전방면 주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공주 동쪽 7마일 지점에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며, 유엔지상군은 대평리 지역에서 유엔공군의 효과적인 항공지원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적의 측면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후퇴가 불가피하였다.[103]

7월 중순부터 한국으로 전개하여 대구와 포항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제5공군 제51전투비행대대와 제40전투요격대대의 F-51전투기들은 위험했던 이 시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 비행대대들은 대전의 전술항공통제본부와 유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공지원 요구시 즉각 출격하였다. F-51전투기들은 초기에 테르밋으로 충전된 500파운드 폭탄과 밀집된 병력 및 탱크에 효과적인 네이팜탄을 사용하였다. 당시 소련제 탱크는 무한궤도에 양질의 고무가 붙어 있어 네이팜탄이 탱크에 명중되지 않고 가까이 떨어져도 그 화염으로 쉽게 불붙어 파괴되었다.[104]

7월 16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의 특별명령에 따라 극동공군은 서부 및 중부전선의 목표를 폭격하기 위해 폭격사령부의 제19 및 제22폭격전대 B-29중폭격기 47대와 폭격기 엄호를 위해 제5공군 F-80전투기들을 출격시킴과 동시에 다른 전술목표를 폭격하기 위해 제92폭격전대 B-29중폭격기 8대를 출격시켰다. 서울과 충주 등으로 출격한 B-29중폭격기들은 F-80전투기의 엄호 하에 서울 철도공작창과 철도차량, 병력집결지 등의 목표들을 폭격하였다.

특히 제92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들은 엔젤로 통제소에서 지시한 적 병력집결지 등의 목표와 공주 부근의 도로 교차점에서 적 탱크 6대를 공격하였고, 이어서 조치원 조차장과 연료저장소 등을 폭격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92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3대가 중부전선의 목표인 단양-풍기 부근 도로의 위치를 잘못 파악하여 안동지역에 오폭함으로써 아측 민간인 2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였다.[105] 다음 날 제92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6대는 엔젤로 통제소에서 목표를 할당받고 제천, 안성 및 원주의 철도조차장을 폭격하는 동시에 인근 지역 교량 2개소를 파괴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금강 남안으로 도하한 북한군 제3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은 7월 17일 제4사단과 함께 남쪽으로 공격을 개시하였고,[106] 이들의 강력한 공격으로 유엔지상군의 방어선은 점점 남쪽으로 밀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엔공군은 조치원과 대전 사이의 금강을 따라 적 전차와 차량을 중점적으로 폭격하였다. 중부전선의 북한군은 7월 18일 유엔지상군 통신시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문경지역으로 이동하였고, 또 다른 북한군은 단양-영주를 거쳐 예천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지점은 안동-함창 간 도로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107]

전략폭격이 주 임무인 B-29중폭격기가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는 목표를 육안

으로 식별하여 공격하는 것은 공군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전략폭격기를 비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었다. 목표에 대한 별다른 정보도 없이 엔젤로 통제소의 구두지시나 비행 중 항공지도에서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지식을 근거로 10,000 피트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폭격기 승무원들은 거의 식별되지도 않는 목표물에 대한 폭격이 성공하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7월 18일 맥아더 사령관에게 B-29중폭격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전력의 낭비일 뿐이라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B-29중폭격기의 운용은 사전에 면밀히 계획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08]

이에 앞서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극동군사령부 목표분석단의 첫 회합이 있은 다음 날인 7월 17일 한국에서 적용할 항공지원절차를 마련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미 제8군사령관이 제5공군사령관에게 항공지원을 요청하면 제5공군은 보유 항공기를 최대한 동원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그 요청이 제5공군의 능력범위 이상이면 제5공군사령관은 극동공군사령관에게 보고하여 폭격사령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목표식별, 공격시간, 통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5공군사령관과 폭격사령관이 직접 협조하여 조정하도록 하였다.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7월 17일 이 제안을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고하였고, 맥아더는 이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극동군사령부가 소외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였으나 그날로 미 제8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제공을 위해 스트레트메이어의 제안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맥아더 사령관이 전술목표와 전략목표에 대한 B-29중폭격기 운용을 극동공군사령관에게 지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맥아더 사령관은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에게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전장의 고립화를 목적으로 38선과 폭격선 사이의 지역에 B-29중폭격기를 대량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명령을 하달하였다.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맥아더의 명령서한을 7월 19일 접수하였는데, 이 명령서한에는 전선에서 60마일 후방의 태안-삼척을 연결하는 선과 폭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 사이에서 발견되는 적의 병력집결지와 주요 교통시설 등에 B-29중폭격기의 공격력을 집중시키라는 내용과 함께 극동군사령부 목표분석단에서 선정한 도로 교차점 및 교량 등 19개의 공격목표도 첨부되어 있었다. 당시 극동군사령부 목표분석단은 B-29중폭격기의 목표선정 권한, 목표지역설정 권한, 공격 우선순위 결정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극동군사령부 목표분석단에서 선정한 교량목표는 잘못된 지도에서 발췌한 것으로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여하튼 당시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극동군사령부 목표분석단에서 제시한 목표를 공격하도록 오도넬 폭격사령관에게 목표리스트를 보냈다. 폭격기 승무원들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항공사진도 없이 도로교차점이나 교량 등 특정목표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교량의 대부분은 작은 것이었고 B-29중폭격기 1대 또는 2대가 목표지역에 가서 탑재된 폭탄의 일부만으로 교량 1개소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맥아더 사령관이 B-29중폭격기를 지상군 지원임무로 제한시킨 7월 24일까지 극동공군은 항공전력의 대부분을 38도선과 전선 사이의 목표물만을 폭격함으로써 58개소의 교량을 파괴하였고, 31개소의 교량을 파손시켰다.[109](<상황도 8-1> 참조)

북한군 제6사단의 일부병력이 7월 19일 장항지역을 장악하였고, 이 지역에서 방어하던 한국군은 군산으로 후퇴하였다. 또한 북한군은 이날 대전공격을 앞두고 논산지역에 최대한의 병력을 집결시킴과 동시에 제3사단과 제105전차사단 등의 전열을 재정비하며 대전공격 준비를 완료하고, 한편으로는 항복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투하하였다.[110]

제5공군은 이날 F-51전투기와 F-80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전공격을 위해 집결하고 있는 북한군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극동공군이 모든 항공역량을 전선에 집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 새벽 적 제4사단은 대전 서쪽 방향에서, 적 제3사단은 북서쪽 방향에서, 적 제105전차사단은 북동쪽 및 북쪽에서 대전공격을 개시하여 이날 대전을 점령하였으며, 유엔지상군은 이날 자정에 대전을 포기하고 대전 남동쪽으로 후퇴하였다.[1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황도 8-1> 미 극동공군에 의해 파괴 또는 파손된 교량목표(1950. 7. 26)

이날 북한군 제4사단의 후속부대인 제6사단은 온양, 장항을 경유하여 이리(現 익산)을 점령하였다. 제5공군에서도 이날 출격한 F-51전투기 31대와 F-80전투기 79대 가운데 대부분의 전력을 중·서부전선에 있는 유엔지상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북한군은 대전을 점령한 후 유엔지상군의 낙동강 방어선을 와해시키기 위한 제4차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주공부대는 대전-김천-대구 방면으로 진출하고, 조공부대는 서부전선에서 마산-창녕-대구 방면으로,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는 함창-안동 일대에서 유엔지상군을 각개 격파한 후 서부전선에서 진출한 부대와 협동으로 영천-포항 선으로 진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북한해군에게는 해안방어 강화와 유엔지상군 상륙저지를 위해 기뢰를 부설하도록 하고, 유엔공군 전술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주요 보급 수송로에 저격무기와 대공화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112]

군산지역에서 방어하고 있던 한국군 병력은 7월 21일 적의 공격을 받고 목포로 후퇴하였으며, 북한군은 7월 22일 군산을 장악하여 서해안지역의 보급물자 공급과 추가병력 증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113]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7월 22일 일본 이타미(Itami)기지에서 대기 중인 제1해병비행단 선발대(제33해병비행전대)를 극동해군의 통제 하에 있도록 지시하였다.[114] 그러나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이날 제1해병비행단이 특수작전을 지시받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육상기지 작전일지라도 제5공군사령관의 통제 하에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해병비행대대 가운데 하나인 VMF(N)-513대대는 전천후 F4U-5N콜세어기로 구성된 야간전투기 대대였는데, 이 대대는 이다즈께기지에서 제5공군 제8전폭비행단과 함께 제5공군의 조정통제를 받으며 야간공격임무에 들어갔다. 제5공군은 일일작전명령에 이 해병비행대대의 임무도 명시하였고, 해병비행대대 조종사들도 임무를 마치면 제5공군에 임무결과를 보고하였다.[115]

제5공군은 7월 23일 악전고투하고 있는 한국군 제10연대가 전면에 있는 북한군을 격퇴할 수 있도록 F-80전투기 13대, F-51전투기 13대, B-26경폭격기 1대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출격시켜 근접항공지원을 함으로써 한국군 제10연대가 북한군을 격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116]

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 제5사단과 이들의 남진을 저지하는 한국군 간에 크고 작은 공방전이 계속되었는데, 당시 포항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제5공군 제40전투요격대대의 F-51전투기들은 매일 30-40여회를 출격하여 적 제5사단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군 제3사단 제23연대와 제22연대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하였다. 이날 전투에 미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소속 제1대대 포병전력이 지원되었으며, 유엔해군은 함포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군 2개 연대와 제7기병연대 제1대대는 적 제5사단의 기습공격으로 인한 전투에서 병력이 반으로 줄었고 대부분의 무기가 손실되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적 제5사단은 영덕에서 방어선을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 전선이 고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북한군 제5사단은 이 무렵 유엔지상군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느라 약 2주일간 공세를 중단하면서 대치하고 있었다.[117]

중·서부전선에서의 북한군은 7월 23일 전주와 정읍으로부터 각각 남쪽과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적 제4사단은 남원과 진안에서 고창과 진주 방면으로 진격 중이었고, 적 제3사단은 대전-영동 도로와 금산-진안 도로에서 미 제24사단에 이어 투입된 제1기병사단을 계속 압박하고 있었으며, 적 제2사단은 영동과 함창 북동쪽에서 미 제25사단과 대치중에 있었다.[118]

한편 미 제8군사령부는 7월 23일 북한군이 호남지역으로 우회하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갖고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에게 긴급히 극동해군 제7함대의 제77특별기동대도 제8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다.[119] 맥아더 사령관은 해군 제77특별기동대에게 7월 25일부터 군산, 전주, 남원 및 광주 일원의 군사목표를 공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해군 함재기에게 이 지역에 대한 독점적 작전권을 부여했으며, 해군 함재기들이 작전지역에서 제5공군과 접촉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도 호남지역으로 우회하는 북한군이 미 제8군 방어선의 좌측방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동공군의 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든 전력을 투입한 상태에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제77특별기동대의 지상군 근접항공지원을 환영하였다.[120]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7월 24일 제8군사령부로부터 해군 제77특별기동대 함재기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한반도 서남부에서 작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극동공군은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도 해군 함재기의 지상군 근접항공지원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주한 미 제5공군과는 협의도 없이 이 문제를 결정해 버렸다.

제77특별기동대는 합동작전본부와 접촉할 수 있는 통신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락장교도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재기 조종사들이 낯선 지역에서 적의 목표를 발견하여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다. 예상대로 함재기 조종사들은 7월 25일 서남부로 출격하여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제5공군이나 제77특별기동대 어느 쪽도 임무성과에 대해서는 서로가 불만이었다.

항공모함 벨리 포지(Valley Forge)호 함재기 조종사 2명이 7월 25일 저녁에 합동작전본부를 방문하여 낮에 있었던 자신들의 근접항공지원작전에 대한 불만토로와 함께 함재기도 제5공군이 작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합동작전본부 전투작전과 소속 장교가 함재기 조종사들에게 호출부호와 근접항공지원절차 등을 알려주자 함재기 조종사들은 자신들도 합동작전본부의 통제하에 제8군의 모든 전선에 근접항공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함재기 조종사들은 대구를 떠나면서 제77특별기동대가 7월 26일 매회 12-16대 수준으로 4차례에 걸쳐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7월 26일 아침에 워커 제8군사령관으로부터 해군 제77특별기동대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항공지원절차를 무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제8군의 해군 함재기 지원요청도 모두 제5공군을 통해서 요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해군 제77특별기동대는 7월 26일 합동작전본부에서 전날 있었던 공군과의 비공식 합의에 따라 4차례에 걸쳐 60여대의 함재기를 출격시켜 유엔지상군에 대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출격할 때마다 합동작전본부에 미리 보고했고 임무지역 상공에서 목표에 대한 공격을 유도해 주는 T-6공중통제기의 전방항공통제관에게도 연락함으로써 임무를 만족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121]

워커 제8군사령관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계속해주기를 원하였으나,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해군 제7함대사령관은 T-6 공중통제기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지만 해군 함재기와 육상기지 전술기를 모두 유도하기에는 T-6공중통제기의 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전선에서의 통제 및 유도임무의 실제적인 해결방법으로 AD급강하폭격기에 탑승한 해군측 통제관이 T-6기 전방항공통제관과 합동으로 3-4시간 동안 전선 상공에서 체공하며 통제 및 유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해군 함재기가 오면 해군 또는 공군의 공중통제기가 소속을 가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쪽에서 그들을 목표로 유도하였고, 공격이 끝나면 해군 함재기는 공군 공중통제기와 함께 임무지역을 이탈하며 공격결과를 구두로 보고하였다. 제77특별기동대는 7월 29일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제8군을 지원하였다.[122]

한편 서부전선에서는 7월 25일 북한군 제4사단 연대규모 병력이 목포에 진입하였고, 사단규모의 후속부대는 남원에 주둔하였다. 그리고 적 제3사단은 대전과 영동 사이에서 활동 중에 있으며, 대전에 있던 차량부대는 군산 주변에 집결하였다. 또한 적의 일부부대가 서남지역으로부터 마산과 부산 방면을 향해 이동 중에 있으며, 운봉, 구례, 하동은 이미 적에게 점령된 상태였다.

중부전선에서는 북한군이 문경과 함창 지역에서 잠시 공격을 중단하고 문경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이 영덕을 봉쇄하고 포위함에 따라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유엔지상군은 후퇴가 불가피 하였으며, 적 증원병력이 영덕에서의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삼척으로부터 남쪽으로 이동 중에 있었다.

이에 따라 미 제25사단 연대소속 부대가 북한군의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진주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연대 병력은 처치(John H. Church) 장군의 명령에 따라 구미와 왜관에 주둔하였으며, 미 제25사단의 3개 연대는 영동과 함창 북동쪽 지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제1기병사단은 영동 북동쪽과 서쪽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며, 한국군 제1사단은 함창으로 이동지시를 받았다.

미 제29보병연대 제1, 3대대는 부산에 상륙하여 미 제24사단 소속 연대전투단(RCT)과 함께 진주로 이동하였다. 이때 제5공군은 공주, 무주, 청주, 제천, 문경, 영동, 황간 등의 지역에 B-26경폭격기 20대, F-51전투기 12대 및 F-80전투기 62대를 투입하여 유엔지상군을 지원하였다.[123]

폭격사령부는 7월 26일 적의 보급수송을 저지하기 위해 B-29중폭격기 15대를 출격시켜 38선 부근의 철로, 도로, 교량 등을 폭격하였으며, 제5공군은 서울, 무주, 남원, 단양, 지공리 등지에 전술기들을 출격시켜 지상군을 지원하였다.[124]

당시 북한군은 전선지역에 보급품 지원과 병력 증원을 위해 남쪽으로의 진격속도를 늦추었지만 여러 곳에서 격렬한 전투는 계속되었다. 목포와 여수를 점령했던 북한군이 7월 27일 하동, 함양, 안의 등에 위치해 있었고, 미 제1기병사단은 영동서쪽 5마일 지점에서 적의 집중공격을 받고 있었으며, 한국군은 함창북쪽 6마일, 안동북쪽 10마일, 예천, 강구 등에서 적과 교전하였다.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이날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에게 지속되는 북한군의 물자 재보급을 저지하기 위해 주간 및 야간 정찰활동을 증가하도록 지시하였다.[125]

북한군은 7월 29일 병력증원을 위해 예비사단인 제13사단을 상주지역으로, 제8사단을 예천지역으로 투입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안동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옹천으로 이동하였다. 한국군 제1, 제6, 제8사단 및 수도사단 등은 함창-예천-안동 지역에서 완강한 방어를 하였으나, 북한군은 한국군의 강력한 저항을 극복하고 영주와 안동을 차례로 점령하였다.[126]

서부전선에서 승승장구했던 북한군은 전차와 병력을 하동지역에 집결시킨 후 전차를 선두로 유엔지상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진주로부터 7마일 부근까지 접근하였고, 황간 지역에서는 적의 강력한 공세가 계속되어 유엔지상군의 방어선 곳곳이 뚫리게 되었다. 또한 김천남쪽 15마일 지점에서는 북한군 병력과 게릴라들이 민간인 복장으로 가장하여 활동하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이들은 대구에서 황간까지의 아군 보급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었다.[1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군은 7월 30일 황간을 점령하였고, 이 지역에서 방어하던 유엔지상군은 황간동쪽 3마일까지 후퇴하였다. 또한 이날 한국군이 방어하고 있는 함창지역을 북한군이 장악할 가능성이 보이자 극동공군은 B-29중폭격기 8대와 제5공군 전술기 등을 투입하여 이 지역 일대를 초토화시켰다.[128]

한편 거창을 공격한 북한군 제6사단은 7월 30일 거창으로부터 7마일 떨어진 곳에서 미 제34연대를 지원한 제21연대를 공격 중이었으며, 피난민으로 가장한 북한군 약 1,500명이 미 제21연대가 위치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또 다른 흰 옷을 입은 약 400여명의 적이 김천남쪽 지례마을로 집결하고 있었다.

진주방면으로 진격 중인 북한군 제4사단은 진주에서 약 7마일 떨어진 곳에서 미 제29연대 제3대대의 지원을 받은 제19연대(RCT)를 집중 공격하였다. 위기에 처한 아 지상군을 구하기 위해 워커 제8군사령관은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에게 진주 지역에 항공전력 집중을 요구하였다.[129] 제5공군은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적 병력 약 200여명을 살상하는 등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하였고, 이에 힘입은 미 제19연대는 진주로 진격하는 적을 저지하였으나, 결국 그 다음 날 미 제19연대는 부산을 목표로 한 적의 공격에 밀려 진주에서 후퇴하게 되었다.[130]

제5공군은 7월 30일 함창, 상주, 황간, 영동, 거창, 안의, 하동, 진주 등지의 북한군을 공격하였으며, 특히 황간 지역에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수행하던 F-80전투기 편대는 T-6공중통제기의 유도 하에 황간 동북방 약 2마일 지점에서 로켓탄과 기총으로 적 제2사단 야포 8문과 다수의 차량을 파괴하였고, 이어 T-6공중통제기는 영동 동북방에서 적 병력 약 2,000여명을 발견하고 다른 F-80전투기를 유도하여 북한군을 공습하게 하였다.[131] 제5공군은 7월 31일에도 북한군과의 공방전이 이루어지는 안동, 예천, 상주, 황간, 영동, 거창, 여수, 진주, 사천 등의 전선에서 유엔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극동공군은 악전고투하고 있는 유엔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전력을 집중하였으며,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근접항공지원작전에 호주공군을 포함하여 제5공군 전술기 2,335소티와 폭격사령부 B-29중폭격기 119소티를 투입하였다.[1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 지상군에 대한 제5공군의 근접항공지원작전

4) 전략폭격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미 공군참모총장은 1950년 7월 3일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에게 "적 후방의 근원파괴와 차단작전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떤 전술작전도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하였다.[133]

미 공군 지휘관들은 북한의 군사, 산업, 정치 및 경제체제를 전략 폭격하는 것이 한국전쟁에서 결정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북한의 산업시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전쟁수행에 크게 기여한 적이 있음을 상기하였다.[134] 그러나 당시 미국정보기관의 수집정보로는 북한의 산업잠재력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기여했던 것과 같은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 공군은 항공정찰로 확인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북한의 전

쟁수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산업시설을 가능한 한 조기에 파괴해야 하며, 아무런 장애 없이 북한 야전군을 지원하는 산업시설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반덴버그 미 공군참모총장이 7월 3일 전략공군사령부 예하의 제15공군 소속 제22 및 제92폭격전대를 미 극동공군에 파견 승인[135]함으로써 2개 폭격전대가 극동으로 이동을 명령받자 전략공군사령부 정보부에서는 북한 내의 전략목표를 선정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북한에는 평양, 원산, 흥남, 청진, 나진의 5개 주요 산업지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북한의 산업시설은 평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었다.[136]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자 병참중심지였다. 만주 심양의 병기창 다음가는 아시아 제2의 평양병기창에서는 소총, 자동화기, 탄약, 포탄, 수류탄, 폭탄, 지뢰 및 군용차량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평양역은 철도조차장과 공작창이 있어서 차량수리 및 제작을 하고 있었고, 구(舊) 소화(昭和)항공기 공장과 조병창의 항공기부는 북한공군기를 정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대한 화물집하장이 있는 평양은 보급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원산은 주요 항구이자 철도 중심지이며, 정유공장이 있었다. 원산항 남단의 조선정유소는 연간 25만 톤을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이었고, 원산 북쪽 5마일 지점에 위치한 조선석유회사는 대형 석유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원산항 부두는 대형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원산역은 한반도 3대 철도 중의 하나이자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큰 기관차 공장이 있었다.

흥남 일대에는 극동 제일의 화학 및 경금속 생산 공장이 있었다. 흥남 교외에는 조선질소비료공장을 비롯하여 조선질소화약공장 및 본궁(本宮)화학공장 등이 있었다.

청진은 2개의 항구, 철도공작창, 일본철강공장, 삼릉(三菱)철강회사 등이 있었다. 그리고 동해안 북단의 나진은 소련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60마일 거리에 있는 해군기지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 연료저장시설과 철도공작창이 있어 북한과 소련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13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에는 이 5개 산업단지 외에도 또 다른 전략목표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었다. 서해안 대동강 어귀에 있는 진남포는 항구도시로 대형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생산하는 조선이연(理硏)금속공장과 동, 아연을 생산하는 일본광산회사의 제련소와 진남포 강철공장이 있었다. 그리고 동해안의 성진 금속공장에서는 고급 철강재가 생산되고 있었다.

한국을 강점했던 일본은 당시 화학 및 경금속산업시설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북한지역에 세계 유수발전소 중의 하나인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수풍에는 전력생산규모가 30만 킬로와트(Kw)인 세계 제4위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동부지역에는 산악경사면 저지대에 댐을 건설하고 댐에 저수된 물을 배수구를 통하여 수문에 연결된 발전소로 보내어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수력발전소가 동부에 부전, 장진, 허천, 부령 및 금강산의 5개 발전소가 있었다.[138]

정보장교들에 의해 북한의 산업이 전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은 미 전략공군사령부는 곧 목표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통상적으로 목표 우선순위의 결정은 적의 전쟁수행능력을 먼저 파괴하는 것이므로, 첫 번째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완제품공장이나 일반 공장을 대상으로 하며, 세 번째는 기본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 내의 5개 주요 산업단지는 비교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략공군사령부 정보부장은 목표별 폭격보다는 지역별 폭격이 더 유리하다고 건의하였다. 모든 목표가 인접되어 있으므로 개별 목표에 산발적으로 폭격하기 보다는 지역 내의 목표들을 몇 차례의 집중폭격으로 완전 파괴할 수 있었다.

전략공군사령부에서는 북한지역의 전략목표에 소이탄을 사용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소이탄을 사용한다면 주요 산업목표는 물론 주변의 부수공장들도 파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략공군사령부는 소이탄 사용이 한국의 제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2대의 B-29 중폭격기를 1개 편대로 편성하여 1대는 목표지역에 소이탄을 투하하고 다른 1대는 산업시설에 파열폭탄을 투하하는 정밀폭격으로 계획하였으며, 이 계획을 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동공군의 오도넬(Emmett O'Donnell) 폭격사령관에게 보냈다. 그리고 오도넬 폭격사령관은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에게 이 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였다.[139]

폭격사령부는 제22 및 제92폭격전대가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미 본토에서 가데나기지와 요꼬다기지로 각각 이동[140]을 완료하자 7월 13일 이들 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55대를 원산지역의 정유공장과 철도조차장 등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폭격에 투입하였다.[141] 그 후 오도넬 폭격사령관이 평양 철도조차장 등의 목표를 폭격하기 위한 두 번째 폭격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유엔지상군이 위기에 처하자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의 전력을 지상군 지원임무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B-29중폭격기를 지상군 지원임무에 투입하는 동안 극동공군 목표과에서는 전략폭격작전의 기초 작업을 추진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전략공군사령부에서는 적성국가에 대한 목표목록을 작성하였는데 한국은 이 목표목록에서 제외되었다. 그 대신 전략공군사령부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작성된 목표목록에서 남한지역에 159개, 북한지역에 53개의 목표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극동공군 목표과에서 이를 작전정보로 활용하여 7월 25일 북한지역에 대한 목표목록을 완성하였다.[142]

한편, 미 합동참모본부는 전략폭격이 지연됨에 따라 초조해지기 시작하였다. 실질적으로 북한군이 폭격을 받지 않은 산업시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병참지원을 받고 있는 한 유엔지상군이 전선에서 북한군을 격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북한의 산업은 냉전 당시 소련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흥남화학공업단지에서는 소련의 원자력 계획에 사용될 토리움(Thorium)과 방사성물질의 주원료인 모나자이트(Monazite)를 가공 생산하여 소련에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흥남화학공업단지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이 화학공업단지에 대한 특별공격을 승인하는 한편, 유엔지상군에 대한 B-29중폭격기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에게 당부하였다.[143]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7월 21일 폭격사령부에게 흥남의 화학공업단지에 대한 폭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조선질소비료공장, 조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질소화약공장 및 본궁화학공장 등의 목표에 2개 중폭격기전대를 투입하여 3일 간격으로 육안폭격을 감행함으로써 적이 공장들을 보호할 틈이 없도록 신속하게 공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에는 많은 애로가 있었다. 한반도의 여름철 우기에 대한 기상예보는 3일에 한 번 적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지시대로 목표를 단시간 내에 공격해야 한다면 폭격사령부로서는 레이더 조준폭격과 육안폭격을 병행해서 사용해야만 하였다.

폭격사령부 작전장교들이 극동공군에서 작성한 흥남지역의 목표목록철을 검토한 결과 이 목표목록철에 포함된 석판인쇄 도형이 폭격기 승무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보장교가 괌의 문서보관소에서 시효가 지난 목표물 도해철을 찾아내었으며, 이 도해철에는 북한지역 내의 목표물에 관한 주해가 첨부된 사진이 들어 있었다.

폭격사령부는 여기에서 나온 사진과 제31전략정찰대대에서 얻은 유사한 항공사진을 참고하여 작전계획을 세우고 브리핑 자료로 사용하였다. 제31전략정찰대대가 레이더 영상사진을 촬영하고 제548정찰기술대대가 사진을 추려 레이더 목표목록에 대한 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작전준비가 진행되었다.[144]

흥남폭격을 계획하는 첫 단계에서 작전장교들은 흥남의 3개 공장이 레이더 화면상에 육지와 수면이 구분되는 지점에 몰려있어 레이더 공격목표로는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조선질소화약공장이 가장 좋은 목표였다. 작전계획관들은 폭격기 승무원들이 가능한 한 정확한 육안폭격을 해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의 동해안은 짙은 구름이 끼는 경우가 많아 결국은 레이더 폭격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폭격임무는 제22 및 제92폭격전대가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작전계획관들은 흥남지역의 지리조건을 고려하여 세 가지 폭격방법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폭격기 대대가 종대대형으로 육안 폭격하는 대대단위 폭격방법, 둘째는 대대단위 레이더 조준 폭격방법, 셋째는 각 항공기가 개별적으로 폭격하는 방법이었다. 폭격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임무수행 직전에 목표지역을 사전 정찰하기로 한 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지휘관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145)

폭격사령부의 면밀한 계획과 폭격기 승무원들의 노련한 기술로 흥남지역의 조선질소화약공장에 대한 최초 출격이 7월 30일 09시 54분에 개시되었다. 일명 「Nannie Able」작전이라 불리는 이 폭격작전에는 제22 및 제92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47대가 투입되었으며, 이들 중폭격기들이 출격하여 V자 대형으로 흥남의 목표지역 상공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목표상공에 검은 구름이 덮여 있었다.

따라서 B-29중폭격기의 선도대대가 APQ-13레이더로 조준폭격을 개시하자 공장 중심부에서 큰 화염이 올라와 구름을 주변으로 밀어내게 되었고, 구름이 일시적으로 벗겨진 틈을 이용하여 후속대대들은 레이더폭격과 육안폭격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흥남 질소화약공장에 5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는 B-29중폭격기(1950. 7. 30)

B-29중폭격기들이 북한지역 산업목표 중의 하나인 흥남질소화약공장에 약 500톤의 폭탄을 투하한 결과 이 공장의 30%를 완전 파괴하고 약 40% 정도에 심한 손상을 입혔다.[146] 폭격사령부는 8월에도 흥남의 화학공업단지를 비롯하여 북한의 산업목표에 대한 전략폭격을 계속하였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7월 31일 북한의 산업목표에 대한 대규모 전략폭격이 매우 바람직하였다는 견해를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냈으며, 더 이상 지체 없이 항공작전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반덴버그 미 공군참모총장에게 극동에서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2개 중폭격기 전대를 추가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극동에 새로 파견하는 2개의 중폭격기전대로 평양의 2개 군수공장, 철도조차장과 공작창, 흥남의 3개 화학공장, 원산의 정유공장, 철도조차장 및 수리창, 나진의 해군연료저장탱크 등 북한의 산업목표 파괴를 원하였다.[1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통합 전투력 발휘를 위한 지휘 및 편성의 문제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볼 때 6·25전쟁은 통합된 미 군사력을 시험한 최초의 전쟁이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극동군사령부에 대해 통합된 단일 지휘관이 그의 휘하에 있는 3군의 능력과 제약을 충분히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통합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체의 합동참모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를 겸한 극동군사령부는 합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전쟁을 이끌었다.

당시 전쟁을 수행하면서 야기된 대부분의 문제는 각 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만일 극동군사령부에 합동참모기구가 있어 사령관의 지휘결심 이전에 충분히 심의하고 검토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합동참모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항공력은 전술항공작전 및 목표에 대한 공격 등에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다.[148]

실제로 미 육군과 공군에서 인가된 공지합동작전에 관한 교리를 육군장교 대부분이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 미 육군은 1946년 8월에 공지합동작전교리를 제정하여 야전교범 31-35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1950년 7월 중순, 주한 미 제8군사령부의 기간장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조사한 결과 이들 장교 중 2명만이 교범을 읽었고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었다.[149] 더욱이 극동군사령부의 참모들도 마찬가지였으며, 항공작전의 절차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이 극동공군의 항공작전을 무리하게 지휘함으로써 항공작전 운용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의 건의로 7월 22일 극동군사령부에 목표선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원회를 설치하였고,[150] 맥아더 사령관이 7월 26일 목표선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락함과 동시에 이를 지침으로 하달함으로써 극동군사령부가 전구공군을 통제하기 위한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목표선정위원회는 극동군사령부, 극동공군 및 극동해군을 균등하게 대표하는 합동기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았으나 6주간에 걸친 운용기간 동안 즉석 협의결정을 통하여 예하 항공부대들을 통제하였던 것이다.

7월 말 뒤늦게 마련된 즉석 협의절차로 인하여 혼란만 거듭해 온 극동에서의 지휘계통이 어느 정도 질서를 찾게 되었으나 이러한 즉석 타협만으로는 결코 단일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전구지휘체제의 결함으로 6·25전쟁 발발초기부터 항공력의 완전한 가동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1개월 이상이나 포괄적인 후방차단작전의 계획과 수행이 지연되었으며, 미 제8군의 생존에 중요했던 그 시기에 항공작전의 효율성을 상실하고 혼란을 야기했던 것이다.

만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이 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대로 합동참모기구를 설치, 운영하였더라면 보다 효율적으로 항공전력을 운용하였을 것이다. 맥아더 사령관은 1950년 10월 10일 웨이랜드 장군에게 보낸 서한에서 "육·해·공군이 단일 합동사령부에 의해 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군 대표가 적절한 비례로 구성된 합동참모기구를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였다.[151]

이와 같이 극동군사령부가 합동참모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쟁결과에 비극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북한공군력의 기반이 매우 약하고 규모도 작았기 때문에 비극을 면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작전임무별 분석

1) 제공작전

제공권은 조종사, 항공기 및 소모적인 많은 노력 등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러

야만 비로소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극동공군은 이 기간 동안에 북한공군을 어렵지 않게 격멸함으로써 한반도 상공에 대한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조기에 제공권을 확보한 것은 유엔군에게 커다란 이점이 되었다. 우선 북한공군의 공습을 우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상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었던 반면에 북한군은 유엔공군의 공격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기동 및 전투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또한 북한 전역에 대한 군사목표를 공격하는 폭격기들을 호위하는 전투기를 지상군지원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되었으며, 비무장인 수송기들의 공수지원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비록 극동공군이 압록강에 이르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제공권을 장악하였다고는 하지만 국경 너머에 있는 만주지역은 성역으로 침범할 수 없는 상황이 됨으로써 오히려 극동공군의 제공권에 제약이 되었다. 6·25전쟁 발발 이래 한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온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은 국지적인 한국전쟁이 한국영토 밖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려는 기본방침을 세워두고 있었다. 에치슨(Dean Acheson) 미 국무장관은 "우리 정책의 기조는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또한 세계대전으로의 확대를 막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애틀리(Clement R. Attlee) 영국 수상은 "극동에서의 전쟁은 한반도에 국한되어야 하며 아시아의 주요 전역에 대부대를 투입함은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란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라고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으로 제한하려는 정책으로 한국 내의 군사작전은 많은 정치적, 군사적 제한을 가져왔는데, 그 제약이란 마샬(George C. Marshall) 미 국방장관의 말처럼 군사적인 목적에 정치적 필요성이 가미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마샬 장관은 이 제한조치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유엔과의 관계에 혼란을 없애고 동맹국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제한조치의 상당부분은 유엔공군력을 사용하는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한국전쟁 초기에 만주와 시베리아 접경지역에 적의 성역이 생기

게 되었고 이후로도 이 제한조치는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152] 유엔군사령부는 인접된 공산권 국경을 공중 침범하지 않도록 제한조치를 수시로 규정하여 적용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유엔공군 조종사들이 특별한 허가 없이 월경하지 않도록 압록강 이남에 인위적인 제한선을 설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항공작전을 한반도 내에서만 국한시키려는 이러한 정치적, 군사적 제한조치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된 적에게 유엔군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강력한 공군력을 만주에 건설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153]

2) 후방차단작전

극동공군은 '전술공군이 전장에 대한 제공권을 장악하는 임무 다음으로 잘 계획된 후방차단작전(Interdiction)을 수행함으로써 지상군의 성공적인 작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후방차단작전은 아 지상군과 적이 전선에서 근접전을 벌이게 한 다음 적이 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전술공군기로 적의 병력, 물자, 장비 등의 모든 잠재력이 전선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아 지상군이 전선에서 항상 최대의 전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후방차단에 필요한 목표정보를 토대로 작전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계획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지속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시기에 극동공군은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격의 용이성과 효과 측면에 대해 첫째는 적이 전선으로 투입되는 도중에 집결되어 있어 공격이 용이하며, 둘째는 전선의 적측 배후에서 한층 더 많은 병력과 보급품을 파괴함으로써 적의 전투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극동공군 장교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예외 없이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공군력을 매우 가치 있게 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 육군장교들이 후방차단작전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154]

이에 대해 웨이랜드 극동공군부사령관은 "우리의 유용한 전술항공력과 중폭격

기의 역량이 처음부터 잘 짜여진 후방차단작전 계획에 따라 운용되었더라면 전장에서의 전반적인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극동공군이 7월 한 달 동안의 간헐적인 후방차단작전으로 북한군의 진격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155] 그러나 전투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근접항공지원작전이 요구되었던 시기에 서울 북쪽으로부터 북한군의 병참수송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은 북한군이 이득을 보게 된 것이다.[156]

3) 근접항공지원작전

전술공군의 임무에는 전통적인 3대 임무인 제공작전, 후방차단작전 및 근접항공지원작전이 있다. 그 중에서도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동작전에 투입되는 타군과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신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제5공군은 그러한 문제로 한국전선에서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첫째, 한국 전선에서의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위한 육군 및 해군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7월 18일 미 제8군이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명시한 지시문을 발표하였다. 이 지시문에는 한국 내의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요청은 미 제8군사령관이 제5공군사령관에게 직접 요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지시문에는 미 제8군이 제5공군과 극동군사령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는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미 제8군이 미 제7함대 제77특별기동대의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하는 절차는 누락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북한군이 서남부 지역으로 우회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미 제8군이 7월 23일 극동군사령부에게 해군 제77특별기동대에도 근접항공지원을 하도록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이 해군 제77특별기동대도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수행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나타나게 되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다. 이 조치는 한국 전선에서의 전술항공통제임무를 수행하는 파트리지 제5공군 사령관과는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되었으며, 다만 미 제8군으로부터 해군 함재기가 7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한반도 서남부에서 독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었다.

당시 해군 제77특별기동대는 합동작전본부와 접촉할 통신망도 없었고, 연락장교도 파견되어 있지 않는 등 근접항공지원작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결국 7월 25일 제77특별기동대는 서남부 지역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함재기도 작전지역 내에서는 제5공군 조종사들과 동일한 작전절차를 적용받아야 하며 멜로우 통제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날 해군함재기 조종사들은 같은 지역에 대한 작전에서 제5공군의 작전절차에 따라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 제8군이 해군 함재기의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특별한 절차가 누락된 것은 물론이고, 맥아더 사령부가 해군 함재기들이 전선지역에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5공군 전술항공통제관과 접촉을 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양해하거나, 공군기와 해군 함재기 간에 서로의 작전 관할구역을 침범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157]

둘째, 대구와 일본의 전술기지 간에 통신상태가 불량하였다. 주한 미 제5공군은 부산과 일본 간의 해저통신을 사용하였으나 만족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뚜렷한 해결방법도 없었다.

따라서 일본의 전방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5공군 예하 전술부대는 매일 일일 공중대기계획에 따라 통상 15분 간격으로 2대의 항공기를 체공시켜 전술항공통제본부와 무선중계를 하였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 출격한 전술기가 목표를 할당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대구상공에서 체공하며 무선중계를 하거나 전술항공통제본부의 목표지시를 기다리기 위해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15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전략폭격작전

미 극동공군은 1950년 7월 초부터 이미 북한군이 군수물자의 대부분을 유엔공군력의 영향권을 벗어난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반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있었다.[159] 그리고 북한지역에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전력의 중요한 일부를 담당했던 산업시설이 있었고, 그 곳에서 많은 군수물자들이 생산되어 전선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따라서 극동공군은 전선에 있는 북한군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급품, 탄약, 병기 등 모든 형태의 지원을 차단하고 그 근원을 파괴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7월 30일 실시한 흥남화학공업단지의 조선질소화약공장에 대한 전략폭격은 비록 전쟁이 발발한 후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었으나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한반도 여름날씨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과 전략폭격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애로 등을 극복하고 흥남화학공업단지에 대한 제1차 전략폭격작전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경험은 그 후 계속된 북한지역에 대한 전략폭격작전에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작전계획 수립에도 좋은 전례가 되었다.[160]

(집필 : 이준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 (註)

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4.
2)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12. 극동군사령부는 1950년 7월 14일 사령부 내에 목표분석단을 설치하고 G-2의 선임 장교를 단장으로 하고 합동전략계획 및 작전단(JSPOG: 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 단장이 지명하는 소속 해·공군장교, G-3가 지명하는 작전장교 등을 각각 1명씩 임명하여 겸무하도록 하였다. 목표분석단의 임무는 그날그날의 상황에 따라 공군과 해군의 항공공격력 운용 조언, 점 목표와 지역목표의 건의, 가용항공력의 협동적 활용방안 제시, 목표분석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이다. 목표분석단은 7월 16일 최초 회합을 개최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아울러 「6·25전쟁사」 제3권, p. 766의 "한편 극동군사령부는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이 항공작전 지휘권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기 4일 전인 7월 4일에 목표분석단을 신설하였으며…"를 위 관련근거에 따라 "한편 극동군사령부는 7월 14일에 목표분석단을 신설하였으며…"로 정정한다.
3) 공군은 전쟁이 발발하자 김정렬 총참모장 주관으로 6월 27일 공군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공군 행동방침을 결정하였으며, 그 결정에 따라 이날 김포기지 사수를 위해 최용덕 준장을 지휘관으로한 김포지구경비사령부를 편성하고 공군본부를 비롯한 기타 부대는 각 부대별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공군본부는 이날 수원으로 철수했다가 다음날인 6월 28일 다시 대전으로 이동하여 주둔하게 되었다. 김포지구경비사령부는 역부족으로 김포기지를 사수하지 못하고 6월 28일 수원으로 철수한 후 7월 6일 해체되었다. 김포지구경비사령부에 편성되지 않은 공군사관학교, 항공기지사령부, 보급창, 헌병대, 공군병원 등 김포 주둔부대 잔여병력은 6월 27일 수원으로 철수하여 다시 대전을 비롯한 군산, 대구, 광주기지 등에 분산 주둔하였으며, 7월 8일 대구기지에 최용덕 준장을 지휘관으로한 근무부대를 창설하여 항공기지사령부, 공군사관학교, 보급창, 공군병원, 헌병대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T-6 및 L-형 항공기로 구성된 비행단은 6월 27일 수원기지로 이동한 후 T-6기와 L-형 항공기를 분리하여 작전하기로 결정, T-6기는 6월 28일 대전기지로 이동하여 작전을 수행하였고, L-형 항공기는 수원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7월 1일 대전기지로 이동하여 T-6기와 합류하였으며, 이들 경항공기를 주축으로 7월 6일 정찰비행대를 창설하였다. F-51전투기 10대(미 공군으로부터 7월 2일 인수)로 구성된 비행단 주력은 대구기지에 주둔하며 작전을 전개하였다.
4)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43.
5)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15. 공군본부는 6월 28일 수원에서 대전으로 이동하여 대전여자중학교에 주둔하다가 7월 7일 주둔지를 미군에게 이양하고 대전사범학교부속 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6) 공군본부, 위의 책, p. 106.
7) 공군본부, 위의 책, p. 375. 공군병원은 전쟁발발 직후 6월 26일 김포에 야전병원을 설치, 운영하다가 6월 27일 대전을 경유하여 7월 7일에는 제2육군병원으로 전개, 의료 업무를 수행하다가 7월 13일 공군본부가 대구로 철수하는 시기에 맞추어 대구로 이동하였다.
8) 공군본부, 위의 책, p. 115, p. 3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1979, p. 901. 헌병대는 수원으로 철수한 후 7월 5일 평택으로 이동하였고, 다시 온양, 공주 등을 거쳐 대전으로 이동하였다. 헌병대는 대전으로 이동한 후 낙오병을 수습하여 기지를 경비하다가 공군본부의 이동

과 함께 7월 15일 대구로 이동하였다. 또한 헌병대는 7월 25일 대구 팔공산에 잠복한 빨치산을 소탕하고자 김삼룡 대위가 14명의 대원들과 함께 출동하여 이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다음날 무사히 복귀하였다. 7월 29일에는 김삼룡 대위가 30명의 대원들과 함께 비행단 주력이 전개하는 진해기지 경비를 위해 파견되었다. 공군본부는 7월 31일 한정된 병력에 비해 임무가 과중한 헌병대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대구기지대대 병력 16명과 공군본부 병력 51명을 헌병대에 편입시켰다.

9) 공군본부, 『UN공군사(상)』, 1975, p. 4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10. 미 공군 제822항공공병대대와 제919항공공병중대는 대구기지 활주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7월 16일 부산항에 도착, 대구로 이동하였으며, 7월 18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1979, p. 901.
11)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15.
12) 위의 책, pp. 396-398. 전쟁 초기에 항공기지사령부 예하에 있었던 통신중대는 7월 5일부터 공군본부와 행동을 같이 하였고, 대구로 이동한 후 7월 15일 항공기지사령부에 원대복귀 하였다. 그 후 공군은 7월 27일 조직개편시 통신운용의 통일성과 기동성을 갖춘 통신기구가 요구됨에 따라 후방사령부에 편성되었던 통신중대를 공군본부 직속 통신대로 확대 개편하여 공군 통신대로 새롭게 발족하게 되었다. 기구가 확대 개편된 통신대는 7월 30일 비행단과 함께 진해기지로 이동하였다.
13) 위의 책, p. 403. 전쟁 초기에 항공기지사령부 예하에 있었던 기상반은 통신중대와 더불어 대구로 이동하여 7월 15일 항공기지사령부에 원대복귀 하였다. 그 후 7월 27일 공군본부 작전명령 제40호에 따른 조직개편시 후방사령부를 공군본부에 통합시킴으로써 기상반은 공군본부 직속 기상대로 확대 개편되었다.
14) 위의 책, 1991, pp. 127-128.
15) 위의 책, 1991, p. 116.
16)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 117; 공군본부, 『UN공군사(상)』, 1975, p. 46. Robert F. 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04. 미 제5공군사령관 파트리지 소장은 7월 13일 한국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기지에 도착하였다. 김정렬 총참모장이 한국공군의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국공군과 미 제5공군에서 대구기지에 파견된 미 공군조종사와의 연합출격문제, 그리고 제5공군의 한국기지로의 전개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며, 파트리지 소장은 한·미 연합출격을 허락하였으나 한국기지로의 전개문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제5공군은 항속거리를 단축하고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대구, 포항, 수영기지 등의 활주로를 확·포장하기로 결정하고, 7월 16일 항공공병부대를 대구로 이동시켜 7월 18일부터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7월 23일 제5공군 전방부대가 대구기지에 전개하였다. 미 극동공군은 7월 24일 대구기지로 전개한 제5공군 전방부대를 주한 미 제5공군(FAFIK: Fifth Air Force in Korea)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7)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p. 280-281. 당시 김정렬 총참모장은 진해기지를 사용할 수 없는 비행장으로 생각했고, 유엔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천기지가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여 직접 사전정찰을 한 후 이동을 결정하였었다.
18)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 118.
19)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 281;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p. 128-129.
20)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29.

21) Dean E. Hess, *Battle Hymn,* 1956, p. 111;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p. 280-289.
22) Dean E. Hess, 위의 책, pp. 107-108.
23) 위의 책, pp. 109-110.
24)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 119.
25) Dean E. Hess, *Battle Hymn*, 1956, pp. 109-111;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129. 한국전쟁기간 동안 헤스 소령이 지휘하던 「바우트-원」부대와 제6146기지부대는 한국공군 비행단 지원을 위해 비행단과 함께 행동하는 등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미 제6146기지부대는 한국공군 지원활동을 계속하다가 1951년 5월 이후에 공식적인 「한국공군고문단」(Korean Advisory Group)으로 명명되었다.
26)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 276. 공군은 지상군부대와 긴밀한 합동작전을 위해 중남부지역의 중심인 김천에 간이비행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공군본부 한해남 소령이 1950년 7월 5일 김천읍장을 설득, 전시동원령에 의한 인원 및 장비 등을 동원하여 군, 관, 민이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김천읍 평화동에 위치한 김천읍-대전 간 국도(김천역 광장)에 길이 450m, 넓이 60m의 간이비행장을 건설하였다.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1979, p. 892.
28)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 98.
29)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42;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 98.
30)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p. 124.
31)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2002), pp. 220-221. 위의 책, pp. 123-124. Dean E. Hess, *Battle Hymn,* 1956, p. 86. 헤스 소령이 지휘하던 「바우트-원」부대 조종사들은 제5공군으로부터 어떠한 전투출격도 허락받지 못하여 전투에 개입할 수 없었으나, 이근석 대령이 전사한 사고 이후 한국공군과 같이 교육과 실전을 겸하여 출격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제5공군으로부터 미 공군 조종사가 한국공군 전투기로 출격할 수 없으며, 한국공군의 전투출격은 그들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연합출격을 중지하였다. 그 후 김정렬 총참모장이 7월 13일 파트리지 제5공군사령관과의 협의로 다시 7월 16일부터 연합출격을 할 수 있었다.
32)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p. 42-43.
33) 공군본부, 『전투요보(1950-1951)』, 2002, pp. 23-29.
34) 위의 자료, pp. 23-29.
35)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pp. 129-130.
36) 정찰비행대(비행대장: 오점석 대위)는 1950년 7월 6일 대전기지에서 조종사를 포함한 100명의 병력과 항공기 7대(2/T-6, 2/L-5, 3/L-4)로 창설되었다.
37)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p. 41-42.
38)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 89.
39)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p. 125.
4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49.
41)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12.
4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50-51.
43)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51-52.
45)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13.
4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69.
47) 공군본부 역,『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p. 24.
4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58.
49)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17. 위의 책, pp. 70-71.
50)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위의 책, p. 111.
51)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3.
52) 공군본부 역,『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p. 70. 반덴버그 미 공군참모총장은 7월 13일 07:00에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여 이날 15:00에 이다즈께기지를 출발, 한국전선을 시찰한 후, 7월 14일 워싱턴으로 출발하였다.
5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72.
54)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5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71.
56)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18.
5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5.
58)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19.
59) 공군본부 역,『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p. 72, p. 119.
6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5. 이 무렵 제35전투요격전대 본부와 예하 제39전투요격대대는 7월 중 아시야기지에서 F-80C 전투기로 한국 전선에 대한 작전을 계속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 제41전투요격대대는 존슨기지에서 일본방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61)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19.
6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5.
63) 위의 책, p. 110.
64) 위의 책, p. 111.
65) 위의 책, p. 104.
66) 공군본부,『항공전사: 한국전쟁』, 1989, pp. 108-110.
6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9.
68)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Daily Intelligence Summary 1950.7.13-7.19.*
6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9.
70) 공군본부 역,『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p. 72, p. 80.
7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01.

72) 위의 책, p. 103.
73) 위의 책, p. 125.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35. 1943년 7월에 제정된 미 공군 야전교범 100 -20에 의하면 후방차단작전은 전술공군의 제2의 임무로써 적군을 전장에서 고립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성공적인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차단계획을 수립하고 계속적인 공격을 통해 전장으로 통하는 모든 교통로를 차단해야 한다.
74)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40.
75)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p. 22-23, p. 35.
76) 위의 책, p. 3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2.
77)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78) 위의 자료.
7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25.
80)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37.
81) 위의 책, p. 37.
82) 위의 책, p. 35.
8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54-55, p. 126.
84) 공군본부 역,『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p. 72, p. 86.
85)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미 전략공군사령부 수집정보.
8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26.
87)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37.
8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26.
89)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90)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25.
91)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41.
92)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9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51, p. 103.
94) 위의 책, p. 104.
95) 위의 책, p. 1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6)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97)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25.
9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06.
99) 위의 책, pp. 91-92.
100)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101) GHQ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Daily Intelligence Summary 1950.7.13-7.19.*
10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92-93.
103)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10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5.
105)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106)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42.
107)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10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p. 93-94.
109) 위의 책, pp. 93-94.
110)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42.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111) 위의 책, pp. 42-43. 위의 자료.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97.
112)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p. 126.
113)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114) 위의 자료.
115) 위의 자료.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21.
116)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47.
117)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43; 공군본부 역, 『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p. 120. 미 전략공군사령부 수집정보.
118) 미 전략공군사령부 수집정보.
11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14.
120) 위의 책, p. 1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1) 위의 책, p. 118.
122) 위의 책, p. 118.
123) 미 전략공군사령부 수집정보.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124) FEAF, 위의 자료.
125) 위의 자료.
126) 위의 자료.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p. 48.
127)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128) 미 전략공군사령부 수집정보.
129)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19.
130) 미 전략공군사령부 수집정보.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131)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47.
132)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133)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81.
134)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83.
135) 위의 책, p. 46.
136) 위의 책, p. 183.
137) 위의 책, p. 184.
138) 위의 책, p. 184.
139) 위의 책, pp. 184-185.
140) 위의 책, p. 74. FEAF,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AG No. 20459.
141) 위의 자료.
142)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86.
143) 위의 책, p. 186.
144) 위의 책, p. 188.
145) 위의 책, p. 190.
146) 위의 책, p. 190. 미 전략공군사령부 수집정보.
147) 위의 책, p. 187. 미 합동참모본부는 8월 15일 상기한 전략목표 이외에 청진의 철도조차장과 공작창, 진남포의 동철주물공장과 삼용산업공장, 성진의 철도창과 연료저장소 등, 함흥과 해주의 철도창을 추가하였다.
148) 위의 책, p. 693.
149)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50) 목표선정위원회가 설치되자 스트레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목표분석단에서 공군이 필요로 하는 목표를 목표선정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으나 목표분석단의 표적분석능력이 너무 빈약하여 8월 2일부터는 업무가 중단되었다. 결국 목표의 식별 및 개발임무의 대부분이 극동공군의 목표위원회(FTC: Formal Target Committee)로 다시 넘어오게 되었으며, 마침내 제5공군과 폭격사령부의 대표를 포함하여 확대된 극동공군 목표위원회가 사실상 전구의 기본적인 목표선정기관이 되었다. 이 위원회는 공격해야 할 주요목표를 선정하고 극동군사령관 및 극동공군사령관이 승인한 기본계획에 합치되는 목표대상에 대한 항공작전을 계획하였다.

151)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55.

152) 위의 책, p. 41.

153) 위의 책, p. 694.

154) 위의 책, p. 700.

155) 러시아연방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5, 목록 918795, 문서철 122, pp. 303-305. 슈티코프 북한주재 소련대사가 1950년 7월 15일 15:30분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 의하면, 당시 김일성은 "미 공군의 도시 및 산업시설물 파괴와 북한군에 대한 끊임없는 공습 때문에 북한군의 진격이 억제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15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25.

157) 위의 책, pp. 114-115.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1952, p. 28.

158) USAF Historical Division, 위의 책, p. 28.

159) 위의 책, p. 81.

160)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9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9 장 총 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1 절	준비태세 측면
제 2 절	전쟁지도 측면
제 3 절	작전 및 전술적 측면

제 1 절 준비태세 측면

1. 국군의 준비태세

국군은 유엔군과 더불어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번다"는 지연작전의 방침에 따라 북한군을 지연시키고 있었으나 1950년 7월 12일 금강-소백산맥선까지 철수하여 큰 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러나 아군은 미약하나마 이 선에서 인접부대 간에 협조된 방어선을 형성하여 계획적으로 적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육군본부는 국군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해 우선 해체된 사단을 재건하고 각 지구의 편성관구를 신설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이와 아울러 이화령~조령~죽령 일대로 물러난 국군 제6·제8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가 어려워지자 또 다른 군단사령부를 창설하고자 했다. 육군은 7월 12일 함창에서 국군 제2군단을 창설하고 제6·제8사단을 그에 배속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때부터 육군은 2개 군단체제로 지휘체제를 정비하고 소백산맥 일대에서, 금강변의 미군과 함께 지연작전을 전개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은 2개 군단으로 지연전을 치르던 중 미 제1기병사단과 제25사단 등 미군 2개 사단이 추풍령을 중심으로 상주~영동지역에 투입되자 한·미군의 전선을 조정하여 국군이 상주 동쪽의 중부 및 동부전선을 방어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미 한·미간의 작전협의를 거쳐 전선의 조정과 개편작업을 준비해 온 국방부는 7월 20일을 기하여 지금까지 병력손실이 심한 국군 제2사단을 해체하는 한편 새로이 2개 군단, 5개 사단 체제로 제2차 재편성을 단행하였다.

육군은 제2군단장 김백일 준장을 다시 육본참모부장으로 복귀시키고, 제1군단 부군단장 유재흥 준장을 제2군단장에 임명함과 동시에 제1군단에 제1·제3사단을, 제2군단에 제6·제8사단을 배속하고 수도사단을 예비로 하는 지휘체제로 개

편을 단행하였다. 동시에 국군 제1군단은 작전지역을 미군에게 인계하고 사령부를 의성으로, 수도사단과 제17연대는 안동으로, 그리고 제1사단은 춘양으로 각각 이동시켰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제1군단이 동부와 동해안에서, 제2군단이 중동부에서 적을 저지하면서 조기에 반격작전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전선 상황이 급변하여 이동명령에 따라 제1군단사령부와 예하사단이 전선으로 계획대로 이동하지 못하였다. 또한 제1군단이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2개 사단을 통제하는 데는 극심한 지휘통신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7월 24일부로 다시 육군의 지휘체제를 재조정하여 제1군단이 수도사단과 제8사단을 지휘하여 영주~안동축선을, 제2군단이 제1사단과 제6사단을 지휘하여 문경~함창~상주축선을 방어하도록 하고, 동해안의 제3사단은 육군의 직접지휘 하에 두고 북한군의 공격을 계속 저지하였다.

2. 미군의 준비태세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미 제24사단 예하부대들이 천안-조치원 부근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채 물러나자, 북한군을 효과적으로 지연시킬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였다. 그는 마침내 미 제24사단에게 금강방어선에서 적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아울러 새로 투입될 미 제1기병사단으로 하여금 서부전선의 방어임무를 인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소백산맥 방어선에서 한국군의 방어선이 돌파될 경우를 상정하여 미 제25사단을 급히 상주 부근으로 투입하였다.

경부국도축선에 위치한 미 제24사단은 북한군 제3·제4사단의 공격을 맞이하여 제34연대가 천안전투에서 큰 손실을 입고 공주 방향으로 철수하였고, 제21연대가 전의전투에서 분산되어 조치원에서 철수하여 7월 12일에는 금강을 건너 금강 남안을 연하여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딘 소장은 그 이전부터 금강을 한강 이남지역에서 방어에 가장 유리한 지형으로 판단하고, 이곳에 사단의 전 역량을 투입하기로 결심하고 작전을 구상하였다. 이에 7월 13일에 신예 제19연대를 대평리 정면에 투입하고,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제34연대를 공주 정면에 투입하여 전방방어지역을 편성하고, 제21연대를 예비로 하였다. 그러나 금강방어선에서의 미 제24사단은 제대로 방어력을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붕괴되었다. 제21연대는 예비로서 대전비행장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전의-조치원 전투에서 피해가 너무 극심하여 투입되지 못하였다.

이어 사단은 대전 서쪽 외곽에 남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갑천을 연하는 방어선에서 적의 진출을 지연시키고자 하였으나, 가용부대가 부족하여 이미 공주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제34연대에 대전방어라는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사단장은 전투능력을 고려하여 7월 19일 오후에는 대전에서 철수할 복안을 세웠으나,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으로부터 7월 20일까지는 지탱하라는 요지의 명령을 받아 철수시기를 연장시켰다.

이에 대전방어에 투입된 제34연대는 7월 19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북한군 제3, 제4사단의 협공을 받아 예하 대대들과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대전 후방의 퇴로가 차단되었다. 그러나 사단장 및 제34연대장은 예하 대대들이 전방진지에서 이미 철수한 상황과 후방의 퇴로가 차단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수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제34연대와 지원포병, 사단 직할부대 일부 병력은 이미 퇴로가 차단된 가운데 철수를 감행하면서 많은 인명과 장비의 손실을 입었고 사단장이 실종되는 전대미문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미 제1기병사단은 7월 22일 제일 먼저 도착한 제8기병연대를 영동 북서쪽의 4번국도 방향과 남서쪽의 무주 방향 도로에 각각 1개 대대씩 배치하여 적의 전진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5기병연대는 영동 동쪽에 예비진지를 점령하게 하였다. 7월 23일에 미 제8기병연대는 경부국도 방향에서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정면공격을 포병화력의 효과적인 운용으로 잘 저지하였으나, 24일에 무주방향에서 북한군의 우회공격을 저지하는데 실패함으로써 후방도로가 차단되었다. 뒤늦게 미 제5기병연대 일부부대를 투입하여 차단된 도로를 개통하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시도하였으나 큰 손실을 입은 채 실패하였다. 7월 22일 포항으로 늦게 상륙한 사단의 후발대인 제7기병연대가 25일에 영동 동쪽 부근에 도착하여 제8기병연대가 점령하기로 되어 있는 지연진지를 점령하였다. 따라서 4번 국도를 따라 북측은 제7기병연대, 남측은 제5기병연대가 방어진지를 점령하여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미 제1기병사단이 7월 25일 영동에서 철수할 시점에 낙동강을 연하여 방어작전을 수행하기로 작전복안을 수립하고, 7월 26일에 철수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미 제1기병사단은 사단사령부를 김천으로 이동시키고 예하연대는 김천으로 통하는 3개 도로망을 통제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하였다.

그 후 기병사단은 북한군의 전차를 동반한 공격을 포병과 항공지원을 받아 적 전차 대부분을 파괴하는 등 격퇴시켰으며 낙동강을 건너 왜관으로 집결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이 기간 중에 미군들은 근접항공지원과 포병화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군의 전차, 차량, 보급품, 지휘소 및 밀집병력을 공격하여 북한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이제 국군과 유엔군은 새로운 방어선에서 계속적의 공격을 지탱해 내면서 공세이전의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절 전쟁지도 측면

한국정부는 지연작전 시기 어느 정도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국가위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들이 전쟁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군사력 열세를 내부의 결속과 더불어 미군과 유엔 등 외부의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부는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입법, 사법부 등은 각 부서별로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각 부처 간의 관계와 역할 분담, 군의 행정기관(검찰·경찰)에 대한 통제 등에 주력하였다. 대통령은 유엔과 미국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외교 조치를 전개하였고,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들은 수원,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전쟁지도를 수행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국회에서는 비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교·정치·군사·정보·군수 등 각 분야에 걸쳐 긴급 조치를 추진하였다.

정부 각 부처는 대전으로 이동한 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쟁물자의 긴급수송에 협조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였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수반되는 대민 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기간 중 국방부는 육군본부에 민사부를 설치하여 계엄사령부를 통해 군사작전 및 치안유지에 필요한 민군간의 긴밀한 협조와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내무부, 검찰 및 경찰이 전시기구로 전환하여 후방치안을 위해 노력하였다. 경찰은 내무부 및 치안국의 지휘통제 하에서 후방지역의 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일부가 전선에서 군을 지원하여 방어하면서 치안을 유지하였고, 후방에서도 치안유지와 피난민 철수통제 임무 등을 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군을 지원하여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검찰청에서는 각 지검에 긴급지시하여 국민보도연맹의 조직점검과 아울러 반공계몽의 선봉에 서게 하여 이탈을 예방하거나 재전향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재무부는 예금지불을 제한하여 군사비 조달을 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 피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였다. 체신부는 대전 체신청을 중심으로 전신전화 시설을 보수 유지하면서 군 통신망으로서의 활용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군수 관련 기구와 부서들은 전시동원이나 징발 계획을 체계화하지 못해 임시방편적 조치로 상황에 따라 징발, 동원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초기혼란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지연작전 시기 군수 관련 기구들과 부서들은 점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시작하였고 어느 정도 지원체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의 발족으로 미 극동군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로서 국군을 지원하는 모든 유엔군을 통합지휘하게 되었다. 아울러 제8군사령부도 1950년 7월 13일부터 대구에서 지상군 작전을 직접 담당하는 군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다음날 한국정부는 지휘권을 통일을 위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

그동안 국군은 육·해·공군별로 이미 미군의 각 군과 연합작전을 실질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당시로서는 국군의 중추인 육군본부가 13일 대구로 이전하여 다음날 미 제8군사령부 인접에 개소하여 합동회의를 가짐으로써 사실상 이때부터 국군도 극동군의 각 구성군과 통합작전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맥아더 원수는 이 시기 전투부대의 긴급 증원을 미 본국에 수차례 요청하는 한편, 전선의 급격한 악화로 자신의 상륙작전계획을 변경하여 주일미군 3개 사단을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 맥아더 장군이 증원 요청한 기본사항은 주일 4개 사단의 완전편성과 미 본토로부터 제2사단의 즉각적 증원, 그리고 전투지원부대의 증원 등이었다.

이에 대한 미 본토에서의 조치는 합동참모본부가 제2사단의 지원을 약속한데 이어,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대장과 공군참모총장 반덴버그 대장이 7월 14일 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8군 및 극동군사령부를 방문한 후인 19일에 주일 4개 사단의 완전 편성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증원부대의 규모를 파악한 맥아더 원수는 새로운 상륙작전계획을 완성시켰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금강방어선에서 적을 방어하기로 결심하고 제8군사령부 지휘소 개소와 함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로써 미 제24사단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미 제25사단은 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부전선의 한국군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워커 장군의 상황판단과 달리 실제 전황은 중부의 국군보다 서부의 미 제24사단이 더욱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워커 중장은 낙동강 상류 북쪽일대에 연대별로 나누어 진출시켰던 미 제25사단을 상주 부근으로 급히 투입시켜 국군 제1사단과 연결시킴으로써 상주~김천선에서 미 제1기병사단과 협조된 작전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포항으로 상륙한 미 제1기병사단은 7월 19일부터 영동으로 진출하고, 미 제24사단은 김천·군위·의성 등 3개 지역에 집결하여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한편 서남부지역에 대한 대책을 구상중인 워커 장군은 새로이 미 제24사단장으로 임명된 처치 소장에게 김천~진주선 측방을 엄호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처치 소장은 재편성중인 사단을 7월 24~26일간 거창~진주선으로 축차 전개시켰다. 그러나 곧 워커 장군은 전황의 악화로 부득불 현 전선을 다시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마침내 7월말 전 부대를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시켜 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절 작전 및 전술적 측면

1. 지상 작전

금강방어선에서 미 제24사단은 7월 14일~16일간 2개 사단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대전 부근까지 철수하게 되었다. 이어 19일 3개 방향으로 접근한 북한군을 맞이하여 방어하였으나 다음날 역시 영동 북쪽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국군은 보은~유곡리~영주~영덕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시켰으나 결국 소백산맥선이 돌파되는 위기에 처하여 함창~점촌~예천선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은 대전전투에서의 실책에 대해 7월 19일 저녁에 부대를 대전에서 철수시키지 못한 점, 사단수색중대를 제34연대에 배속조치한 점 등이 지휘조치상의 실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금강방어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작전적인 차원에서 대전 방어의 의의가 반감되었고,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고수방어를 할 만큼 적합한 지역이 아니었다. 다만 제1기병사단의 전개시간을 얻고자함이 목적이라면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지연전을 수행해야 했다.

또한 사단수색중대의 지휘권을 제34연대장에게 넘겨줌으로써 당초 그가 구상한 복안과는 달리 연대장은 그 중대를 논산가도로 전환 배치하여 금산가도 및 대전후방을 차단하려는 적정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대전방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연대장으로 하여금 지휘의 단일화와 현지 적정수집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배속 전환조치 자체는 타당하였지만, 금산가도 일대에서의 적정과 사단수색중대의 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침을 하달해야 했다.

이러한 전술적 실책에도 불구하고 경부가도축선에서 지연작전을 전개한 미 제24사단·25사단·제1기병사단은 북한군에게 많은 피해를 강요하면서 가장 중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 시기에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켰다. 특히 미 제24사단은 후속부대인 미 제25보병사단, 제1기병사단의 전개시간을 보장하고, 북한군의 작전 지속능력을 감소시켜 낙동강방어선에서 조기에 작전한계점에 도달시키는데 기여했다.

또한 미군의 지연작전은 국군의 사기 앙양과 재편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군이 소백산맥선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것도 미 지상군이 증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의 연속적인 패배는 미군 장병들에게 패배의식을 갖게 했다. 전투 경험이 부족한 미군 초급간부 및 병사들은 북한군의 측후방 공격만 있으면 단결력을 상실하고 탈출만을 생각하게 했다. 이는 전장에서의 주도권 상실로 차후 작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소백산맥선 지연작전은 7월 14일 이후 국군 2개 군단 4개 사단(수도·제1·제6·제8사단)이 소백산맥 방어선을 형성하여 기계화 부대를 동반한 북한군 제2군단 예하 5개 사단(제1·제8·제12·제13·제15사단)과 제1군단 예하 제2사단 등 총 6개 사단의 공격을 16일간 방어하여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작전이었다.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전투는 국군의 전력증강 속도와 북한군의 진격 속도 사이에서 벌어진 시간과 공간의 확보를 위한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7월 말까지 북한군의 손실을 보면 미 육군부 통계에는 37,500명이었으나 포로 심문에 의하면 58,000명이었고 이는 대부분 국군에 의한 손실이었다. 화포와 장비는 1/3 이하로 전차는 30대로 각각 감소되었다.

반면 국군은 수도사단과 제2사단이 청주-고은리선에서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3일간 지연시키고, 제1사단과 제17연대가 화령장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을 기습 공격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더욱이 경부축선과 더불어 주요 축선 중의 하나인 3번 도로 상에서 제6사단이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해 지연전을 전개하고 시의적절하게 제1사단이 증원되면서 북한군의 함창-대구 진출을 저지하고 미군 담당지역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었다. 또한 비록 안동교에서 뜻하지 않게 많은 병력 손실을 입었지만 제8사단도 풍기-안동 간에서 계획된 진지를 점령해 나가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 북한군 제12사단과 제8사단의 공격을 보름간 저지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벌겠다는 국군의 지연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간 중 미군 2개 사단이 추가로 증원되고 국군도 점차 부대 정비와 전력 증강이 이루어져 낙동강선에 최후 방어선을 형성하고 이후 공세 이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소백산맥선에서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아군 지휘부는 호남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무렵 북한군은 제6사단이 호남지역을 석권한 다음 마산방향으로, 북한군 제4사단이 안의~거창방면으로 기동하여 미 제8군의 서측과 후방을 위협하고 있었으나, 미 제8군은 북한군 제6사단의 기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어 이때까지도 서남부방면에 북한군 2개 사단이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워커 장군은 뒤늦게 전선 서측이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적정을 비로소 파악하고 즉시 당시 대전 방어전투에서 큰 피해를 당해 재편성중인 미 제24사단을 서남방에 전용 배치하도록 조치하였다. 육군본부도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전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을 영남 서부지역으로 급파하여 적을 저지하도록 했으나, 그것은 임기응변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해·공군 작전

유엔 해군은 유엔 지상군과의 통합작전을 위해 38도 이북 해상보다 이남에서 주로 작전하였고, 한국 해군은 동해의 북방 경비선과 서해의 북방 경비선을 변경하여 제1정대·제2정대·제3정대·훈련정대 별로 책임 해역을 분담하여 해상경비에 임하였다. 유엔해군은 북위 37도 이북해상에서 작전토록 되어 있었으나, 국군 지상군의 계속적인 후퇴와 포항상륙작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북위 37

도 이남 해역에서 봉쇄작전, 근접항공지원, 함포사격 등을 실시하였다. 동해는 미 함정, 서해는 영연방 함정들에 의해 작전이 수행되었다.

미 극동해군은 함정 규모가 계속 증강되자 효율적 작전지휘를 위해 7월 21일부로 예하의 기동조직을 재편성하였다. 특히 제96기동부대 예하에 있는 제96.5기동전대(동해안지원전대)를 한·일지원전대로 명칭을 바꾸고, 예하에 호송단대·제1동해안지원전대·제2동해안지원전대·서해안지원전대를 두었다. 제96.7기동전대(TG 96.7)는 변동 없이 한국해군 함정으로 구성되었다.

한국함정들이 비록 화력은 약했지만 미 해군의 대형전투함이 수행할 수 없는 연안 작전, 즉 소해작전, 소형선박 검색 등을 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유일하게 한국해군에서 건조된 PG-313(충무공함)은 전쟁발발 시부터 7월 31일까지 시종일관 서해에 배치되어 작전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특기할만하다.

그리하여 지연작전 기간 중 유엔해군은 포항, 부산 등 아군의 교두보를 지키기 위해 이미 확보된 해양통제권을 바탕으로 해상 봉쇄 작전을 비롯한 함포지원사격, 근접항공지원, 항공강습 등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유엔해군은 주로 동해에서 해상봉쇄작전을 비롯해 국군 지상군의 요청에 의거 함포사격과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적의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북한지역에 위치한 원산정유소 등 전략목표를 폭격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해양통제권을 장악한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은 동·서·남해에 대한 봉쇄작전으로 적의 해상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적의 후방과 측방을 계속 압박하여 적의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키고 적의 진격속도를 지연시켰다. 서해안에서 작전중인 한국해군은 북한 지상군의 진격과 연계하여 서해안에 침투를 시도한 적 선박 25척을 격침 또는 나포하였고, 아울러 아 지상군의 병력과 군수물자 이송 등 철수작전을 지원하였다.

한편 유엔 및 한국 공군도 지연작전 기간 중 더욱 활발한 작전을 수행하였다. 극동공군은 전쟁 초기부터 공중우세 속에서 북한군 병력, 전차, 야포, 차량 등의 이동목표와 철도, 도로, 교량 등 교통망에 대해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였다. 유엔공군은 제5공군과 호주 공군의 제77대대로써 근접항공지원을 수행하였으며, 전

선이 점차 정리됨으로써 더욱 작전을 확대하였으며, 한국공군도 미군으로부터 로켓탄을 지원 받아 작전지역을 확대하며 대지공격작전을 전개하였다.

미 제5공군사령부는 한국의 비행기지에 주둔할 계획을 갖고, 포항, 대구, 수영기지 순으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 제5공군은 대구기지에 제51전투비행대대를 창설하여 7월 15일부터 출격을 개시하였으며 포항기지는 7월 12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제40전투요격대대를 전개시켰다.

제5공군은 7월 14일 제6132전술항공통제전대를 대구에 전개하는 한편, 미 제8군사령부로부터 합동작전본부(JOC) 공지작전과에 근무할 육군 장교를 충원 받아 공지합동작전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어 전방사령부와 본부대대를 확정하여 7월 23일 대구로 전개하였고, 전술항공통제전대가 합동작전본부 옆에 전술항공통제본부(TACC)를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술항공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미 극동공군은 해군 제7함대 항공 전력이 참전함에 따라 단일화된 통제체제를 통해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극동군사령부에 건의함으로써 항공작전에 관한 조정통제 권한을 부여 받았다. 극동군사령부는 7월 14일 목표분석단을 설치하여 공군과 해군의 항공력 운용에 관한 조언, 목표분석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미 극동군사령부는 7월 22일 목표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북한군의 보급수송차단을 위한 후방차단 작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목표선정위원회는 7월 24일 B-29중폭격기 2개 전대를 후방차단작전에 투입하고 나머지 1개 전대는 미 지상군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극동공군 폭격사령부는 7월 27일부터 북한지역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게 되었고, 북한 내의 5개 전략목표지역 가운데 하나인 흥남화학공업단지에 대한 제1차 전략폭격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계속되는 전략폭격으로 북한의 산업시설에 큰 피해를 주었다.

(집필 : 양영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 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연 표
2. 국군 작전명령

1. 연 표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7. 14 (금)	국 내	•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 전선시찰 • 적 제1·제15·제5사단, 중부전선 우측에서 남하 • 공주 부근에 포진한 미 제34연대, 전선에서 결전 • 함창·안동에 진출한 적, 예천을 향해 남진 중 • 미 해군, 삼척~울진 사이 군사시설 포격 • 영국함대, 한국 서해안에서 작전(인천 부근에서 적 연안 포격) • 국군, 연풍 탈환 • 육군본부, 대구로 이동 • 한국공군 정찰비행대, 김천 이동 • 미 제5공군, 제6131기지대 편성(포항) • 미 제5공군 제6132전술항공통제전대, 대구 이동
1950. 7. 15 (토)	국 내	• 4천여 명의 적이 포병 엄호 아래 금강을 야간도하 기도 • 백성욱 내무장관 사임, 후임에 조병옥 임명 • 한국공군 본부본대, 대구 이동 • 미 제5공군 제802항공공병대대, 포항기지 활주로 확장공사 완료 • 미 제5공군 제51전투비행대대, 대구기지에서 작전개시
	국 제	• 미 제1해병, 한국 증원 위해 미국을 출발
1950. 7. 16 (일)	국 내	• 미군, 금강 방어선 붕괴로 후퇴 • 적, 문경 점령 • 호주 공군, 금강유역의 적 공격 • 정부, 대전에서 대구로 이전 • 미 제5공군 제40전투요격대대, 포항기지 이동 및 작전 • 미 폭격사령부 제92폭격전대(B-29), 안동지역 오폭
1950. 7. 17 (월)	국 내	• 미군, 적의 포위를 피하기 위해 대전을 포기 • 적, 금강 하류를 도하해 강경·논산에 침입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7. 18 (화)	국 내	• 미 증원군 제1기병사단, 포항상륙에 성공 • 유엔해군, 동해안의 도로시설 포격 • 미 제5공군 제822항공공병대대, 대구기지 활주로 확·포장 공사 개시 • 한국공군 본부, 대구 효성여중으로 이동
	국 제	• 미군 당국, 북한군에 소련 군사고문 배치 확인 • 미 극동공군, 목표계획위원회 설치
1950. 7. 19 (수)	국 내	• 적, 이리 점령 • 적 일부 예천에 침입 • 적, 영덕 점령 • 한국공군, 항공기지사령부 해편 및 근무부대를 후방사령부로 개편
	국 제	• 미 공군, 랭레이기지의 제363정찰기술대대 극동으로 이동지시
1950. 7. 20 (목)	국 내	• 유엔군, 대전비행장에서 새로운 로켓포로 적 전차 7대 파괴 • 적, 전주 점령 • 유엔공군, 평양·원산·연포 등 맹폭격 • 유엔함재기, 적 군사시설 맹폭격 • 서울-인천 간의 철도 폭파 • 유엔공군, 한국 전역에서 제공권 확보
1950. 7. 21 (금)	국 내	• 국군, 예천 탈환 • 미 제24사단, 대전 방어선에서 후퇴
	국 제	• 미, 예비역 해병대원에 현역 복귀령 • 미 극동공군사령관, 극동군에 목표선정위원회 설치 건의
1950. 7. 22 (토)	국 내	• 딘 소장, 대전지구에서 20일 이후 행방불명 • 유엔해군 영덕을 포격, 국군 오후에 영덕 탈환 • 국군 해병대, 남원으로 진격 • 비상시 향토방위령 공포 • 전라남북도에 계엄령 선포 • 미 폭격사령부 B-29중폭격기, 나남, 평양 및 원산지역 폭격
	국 제	• 맥아더 사령관, 목표선정위원회 설치 승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7. 23 (일)	국 내	• 적, 광주 점령 • 대전~영덕지구에서 격전 • 미 제1기병사단, 대전전선에서 적 탱크부대 병력 분쇄 • 적 기갑부대, 순천 부근 진출 • 미 제5공군 전방사령부, 대구기지로 이동
	국 제	• F-51전투기 145대와 L-5기 8대를 선적한 항공모함 복서(Boxer)호 일본 도착
1950. 7. 24 (월)	국 내	• 적 대전, 군산 및 광주지구에 병력증강 • 적, 목포에 침입
	국 제	• 유엔한국위원회장, 자유수호를 위하여 침략배제에 공동투쟁할 것을 역설
1950. 7. 25 (화)	국 내	• 전선에 출동 중인 적 사단은 제1, 2, 3, 7, 8, 15사단 외 제5사단의 일부 • 미·영 연합함대 함재기, 광주지구의 적 전선 목표 공격 • 북한공군 습격기연대 제3중대, 김포비행장으로 이동
	국 제	• 유엔군 총사령부 도쿄에 정식 설치 • 터키·영국, 한국에 지상군 파견 결정
1950. 7. 26 (수)	국 내	• 미 제1기병사단, 영동·영주에서 철수 • 적, 여수 점령 • 한국공군 정찰비행대, 의성 이동
	국 제	• 유엔사무총장, 유엔군의 성공만이 3차대전 방지책이라고 천명
1950. 7. 27 (목)	국 내	• 적, 하동 점령 • 적 3개 사단, 영동 동쪽에서 대공세 • 채병덕 소장, 하동에서 전사 • 계엄 하에서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 및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공포 • 한국공군, 조직개편 단행(후방사령부 해편, 통신대 및 기상대 창설) • 한국공군 비행단, 진해기지로 이동 개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7. 27 (목)	국 제	• 트루먼 대통령, 12억 달러의 군사원조안에 서명 후 세계 자유국가의 안전보장과 대미침략 불허 선언
1950. 7. 28 (금)	국 내	• 유엔군 영동지구에서 반격 개시 • 적 선봉대, 거창에 침입 • 해군, 서해안에서 적 수송수단 12척 격침 • 한국공군, 보급창 해편 및 군수국에 통합 • 미 폭격사령부 B-29중폭격기 15대, 평양지역 등 폭격
1950. 7. 29 (토)	국 내	• 적 영덕 재점령 • 미 제1기병사단 황간 철수 • 미 공군, 남서전선의 적을 저지하기 위하여 거창·안의에 출격
	국 제	• 인도, 야전병원 파견 통고 • 미 합참, B-29중폭격기 2개 전대 극동파견 결정(지시)
1950. 7. 30 (일)	국 내	• 미 제1기병사단, 김천 남서쪽 13㎞의 지례 탈환 • 적, 거창 점령 • 미 제24사단장에 처치 소장 임명 • 유엔한국위원회 대구에서 전체 공개회의 개최 • 한국공군 비행단, 진해기지 이동완료 • 북한공군 항공사단 제3대대 사격중대, 김포비행장 이동 • 미 폭격사령부 B-29중폭격기 47대, 흥남 조선질소화약공장 전략폭격
	국 제	• 미 재한 유엔군에 협력치 않는 국가에 대하여 마샬플랜 원조 중지를 결정 • 미 극동공군, 철도차단(7. 27) 및 도로차단 작전계획 수립
1950. 7. 31 (월)	국 내	• 현재 전선은 진주 남서, 함양의 서쪽 교외, 거창 동쪽 11㎞, 김천 서쪽 6㎞, 함창 북서쪽 6㎞, 예천 북쪽 1㎞, 영덕 교외를 연하는 선임. • 적, 합천 점령 • 미 증원군, 제2보병사단·제1해병사단·제5연대전투단 한국 상륙 • 적 예천으로 재침입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 국군 작전명령

부록 제 6 호

作戰命令 第41號 1950. 7. 13

1. 가. 敵은 鳥致院~淸州, 延豊~丹陽線에서 壓迫을 加하고 있음.
나. 我第 1 軍團 및 各第 1 線師團 그리고 美軍은 此敵에 대하여 兵力의 集結을 기다려 强力한 遲延戰을 展開하고 있음.
2. 가. 軍은 戰略的見地에 依하여 X日 X時 陸軍本部 및 一部 後方部隊를 大邱 및 金泉에 移動하려 함.
나. 移動開始의 日時는 別命함.
3. 가. 隷下 各該當 各部隊長은 別紙移動計劃表에 依하여 兵力을 移動하라.
나. 大邱 및 金泉에 이르면 先發將校의 指示에 依하여 所定의 集結地에 部隊를 收容하여 爾後의 行動을 準備하라.
4. 行政命令 參照
5. 가. 通信監은 直接 附與한 命에 依하여 通信網(有無線)을 架設하라.
나. 指揮所(陸軍本部)의 通信 金泉(1110—1470)

陸本作命 第41號 附錄

移動計劃表—建制順序

1. 第 1 砲兵團……大邱
2. 對戰車砲兵隊團……大邱
3. 兵器大隊……大邱
4. 通信大隊……大邱
5. 兵站團……大邱
6. 陸軍本部……大邱
   가. G-2, G-3, 通信監室……金泉
   나. G-2, G-3, 通信監室을 除外한 各局監室……大邱
7. 大田地區補給廠……大邱
8. 第 2 陸軍病院…… 大邱
9. 衛生材料廠……大邱
10. 援護隊……大邱
11. 新兵教育隊……倭舘
12. 永登浦學院……大邱
13. 工兵團……大邱
14. 施設管理團……大邱
15. 野戰醫務團……大邱
16. 軍樂學校……大邱
17. 靑年防衛隊顧問團……大邱
18. 金部隊……金泉

19. 李部隊……大邱
20. 憲兵司令部 一部는 金泉, 一部는 大邱

부록 제 7 호

作戰命令 第42號 1950. 7. 12 24. 00

軍隊區分

軍團 第 2 軍團長 大領 金白一
參謀長 大領 姜英勳

第 6 師團

第 8 師團(第25聯隊 1 個大隊編入)

地圖 大韓 1 : 25000

1. 가. 日日情報 參照
나. 美空軍과 我空軍은 美軍과 我軍의 作戰을 掩護하고 있다.
다. 第 1 軍團과 美第24師團은 全兵力의 集結을 기다려 强力한 遲延戰을 展開하고 있다.
라. 東海岸一帶는 美第25師團이 此方面에 侵入한 敵을 阻止하고 있다.
2. 가. 軍은 第 1 軍團 西側의 師團을 整齊하여 統一된 戰力으로 敵의 南下를 所要日間 阻止한다.
나. 第 1 軍團과의 戰鬪地境線은 第 1 軍團과 第 6 師團 戰鬪地境線으로 한다. (作戰訓令 第 7 號 透明圖 參照)
3. 가. 第 2 軍團長은 頭書 軍隊區分에 記載된 部隊를 統合指揮하여 强力한 遲延戰을 實施하여 別命時에 最後抵抗線까지 達하여 此를 死守하라.
나. 第 6 師團은 第 2 軍團 指揮下에 들어가라.
다. 第 8 師團은 第25聯隊 1 個大隊를 編入시켜 第 2 軍團의 指揮下에 들어가라.
라. 第25聯隊 第 1 大隊는 第 8 師團 指揮下에 들어가라.
4. 行政事項 後達함
5. 通信連絡은 從前과 同一함

부록 제 8 호

國本一般命令(陸) 第14號 1950. 7. 1

1. 1950. 7. 12. 00. 01附로 第 2 軍團 司令部를 創設하여 步兵第 6 師團, 第 8 師團을 이에 編入한다.
2. 步兵第25聯隊 第 1 大隊를 1950. 7. 13. 00. 00附로 步兵 第 8 師團에 改編入한다.

부록 제 9 호

作戰命令 第44號 1950. 7. 16 22. 00

1. 가. 敵은 我軍의 猛攻으로 脆弱되어 分散混亂狀態에 있으나 繼續 南侵을 企圖하고 있음.
나. 我軍은 聯合軍과 緊密한 協同下에 猛反擊을 加하고 있음
2. 軍은 戰鬪地境線을 變更하여 次期作戰을 有利하게 指導하려 함.
3. 가. 關係 各軍團長 및 師團長은 別紙 附錄 第 1 透明圖와 如히 擔當戰鬪地境內에 防禦陣地를 占領하라.
나. 各部隊長은 1950. 7. 17. 12. 00까지 配備完了하고 即時 其現況을 報告하라.

다. 戰鬪地境線上은 左側部隊가 擔當하라.

부록 제 9 호

作戰命令 第47號 1950. 7. 16 24. 00

1. 가. 敵主力의 一部는 聞慶에 侵入 繼續 南下를 企圖中임.
   나. 第6師團은 此敵에 대하여 猛烈한 反擊을 加하고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하여 此戰鬪를 支援하려 함.
3. 第1軍團長은 隷下 師團中 步兵第17聯隊를 明朝 06. 00까지 咸昌에 到着시켜 第2軍團長은 前記兵力을 統合指揮하여 軍豫備隊로 使用하라.
4. 省略
5. 連絡 및 報告는 有線과 傳令을 併用하라.

부록 제10호

作戰命令 第51號 1950. 7. 18 17. 00

1. 가. 槐山에 集結한 敵은 我聯合空軍의 猛爆으로 分散脆弱되어 混亂狀態이나 繼續 南進을 企圖, 其一部兵力은 2隊로 分進 南下中임.
   나. 第2軍團은 現在 咸昌에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시켜 南下하는 敵을 捕捉 攻擊하려 함.
3. 가. 第1軍團長은 隷下 首都師團을 立石里(1088—1533)에 轉進시켜 槐山方面으로 敵을 壓迫 前進시켜라.
   나. 首都師團長은 隷下 部隊를 院坪里(1073—1525), 新月里(1076—1532) 經由 立石里(1088—1532)에 進出 當面의 敵을 攻擊 槐山方面으로 進出하라.
   다. 攻擊 前進에 있어서 特히 第6師團長과 連絡을 緊密하게 하라
   라. 師團 前進에 있어서는 梯團隊形으로 하라.
4. 省略
5. 出發時間 및 到着完了時間을 有無線을 通하여 緊急히 報告하라.

부록 제11호

作戰命令 第52號 1950. 7. 19 11. 00

1. 가. 敵은 我軍의 猛攻으로 脆弱混亂狀態이나 繼續 南侵을 企策中임
   나. 我軍은 到處에서 猛烈한 反擊으로 强力한 遲延戰을 展開中임.
2. 軍은 一部兵力을 補充하려 함.
3. 가. 第1新兵教育隊(倭館) 및 第5新兵教育隊(永同) 新兵을 第1軍團에 補充한다.
   나. 第1, 5新兵教育隊長은 隷下 新兵을 報恩 第1軍團에 補充하라.
   다. 第1軍團長은 所要 兵力을 第1, 5, 新兵教育隊長으로부터 補充을 받어 戰鬪力을 强化하라.
   라. 第1軍團長은 補充받은 兵力을 即時 陸本에 報告하라.
4. 가. 第1軍團長은 所要의 初度補給을 請求하라.
   나. 輸送은 第1軍團長이 擔當하라.
   다. 第1軍團長은 人員把握 即時로 報告하라.

5. 報告. 連絡은 有無線通信에 依하라.

부록 제12호

作戰命令 第53號 1950. 7. 19 12. 00

1, 省略

2. 軍은 現在 陸, 海, 空軍 및 警察에서 實施中인 無線鑑聽所 事務를 陸海空軍總司令部에 設置하여 其運營에 萬全을 期하려 함.

3. 가. 陸軍情報局長은 現在 實施中인 海軍, 空軍 및 警察의 各 無線鑑聽要員과 所要의 機材를 徵收하여 7월 19일 17. 00限 大邱 現總司令部內 中央情報蒐集所에 設置하고 此를 統合指揮하라.

나. 海軍, 空軍 및 警察은 無線鑑聽要員과 所要의 機材를 陸軍情報局長에게 差出하여 其 掌握下에 들어가라.

4. 無線鑑聽所 設置後 情報局長은 狀況報告를 提出하라.

5. 設置完了하면 有無線을 通하여 直時 報告하라.

부록 제13호

作戰命令 第54號 1950. 7. 19 16. 00

1. 省略

2. 軍은 諸行事에 對備코저 國防部에 軍樂隊를 配屬코저 함.

3. 가. 首都師團 軍樂隊는 7月 20日 12. 00까지 國防部 政訓局에 到着하여 政訓局長의 指揮에 들어가라.

나. 首都師團長은 隷下 軍樂隊 要員 및 裝備를 7月 20日 12. 00까지 國防部政訓局長에 配屬하고 其 結果를 陸本에 即時 報告하라.

4. 省略

5. 前과 同一함.

부록 제14호

作戰命令 第55號 1950. 7. 19 16. 00

1. 가. 敵은 我第2軍團 正面으로 猛烈한 南侵을 企圖하고 있음.

나. 聯合軍의 一部는 今夜부터 第1軍團地區로 移動增援된다 함.

2. 軍은 一部 兵力을 移動시켜 聯合軍과의 協同作戰을 緊密하게 하려 함.

3. 가. 第1軍團長은 別紙 第1에 依據하여 隷下 首都師團 및 野戰砲兵 1個中隊를 移動시켜 第2軍團長에게 配屬하는 同時에 第17聯隊를 統合指揮하여 化寧場地區로 南下하는 敵을 捕捉 殲滅하라.

나. 第2軍團長은 前項의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南下하는 敵을 殲滅하고 我聯合軍의 移動을 掩護하라.

4. 가. 移動後 補給擔當

(1) 首都師團司令部……安東 軍補給所

(2) 第8聯隊……安東 軍補給所

(3) 第18聯隊……安東 軍補給所

(4) 砲兵1個中隊……安東 軍補給所

(5) 第1聯隊……尙州 軍補給所

나. 輸送은 自隊가 擔當하라.

5. 가. 首都師團長은 移動間 傳令 및 有線으로서 第1軍團司令部와 第2軍團司令部 그리고 隷下 聯隊와 連絡하고 一切의 無線電波 發射를 禁하라.

나. 首都師團長은 移動完了後 直時 第2軍團司令部와 有線網을 構成하여 連絡하고 無線電波 發射禁止는 上級司令部의 此後 指示에 依하여, 또는 接敵時에 限하여 解除한다.

다. 第2軍團長은 首都師團 移動完了함과 同時에 新首都師團의 指揮所 位置를 直時 有線으로 報告하라.

라. 第2軍團司令部와 陸軍本部 間의 連絡은 從前과 같이 實施하라.

◎ 別紙 #1(作命第55號)

備考 :

1. 首都師團은 第2軍團地境內에 駐屯間 第2軍團長의 指揮下에 들어가라.
2. 第17聯隊는 第1軍團地境內에 駐屯間은 第1軍團長의 指揮下에 들어가라.

別紙 #1(作命第55號)

部隊名	現位置	移動先地	移動完了日時	移動經路	摘要
首都師團司令部 및 第8聯隊	報恩(1070—1513)	安東(1169—1524)	7.20. 08.00	化寧場(1093—1508) 尙州(1114—1504) 折項, 佛里基場 醴泉(1143—1535)	安康(1169—1524) 北쪽 및 東西側占領
第18聯隊	報恩(1270—1513)	醴泉(1143—1535)	7.20. 12.00	化寧場~尙州~折項~佛里基場~醴泉	醴泉(1143—1535) 北쪽高地占領
第1聯隊	報恩(1093—1508)	咸昌(1116—1524)	7.20 08.00	化寧場~尙州~咸昌(1116—1524)	店村~茅田里 線을 占領
第17聯隊	化寧場(1093—1508)	化寧場(1093—1508)	現在化寧場地區에 在함		東飛嶺里(1092—1513) 地區를 占領하여 南下하는 敵에 대하여 警戒
第1軍團砲兵1個中隊	報恩(1070—1513)	醴泉(1143—1535)	7.20. 12.00	主로 醴泉地區에 位置 首都師團 作戰에 協助하라.	

부록 제15호

作戰命令 第56號 1950.7.19 20.00

1. 省略
2. 軍은 一部 部隊를 解編하여 原隊復歸시키려 함.
3. 가. 陸本作命 第40號에 依하여 編成된 金秉俊部隊는 此를 解體하는 同時에 其要員은 各各 舊所屬部隊에 即時 原隊復歸하라.

나. 陸軍少領 金秉俊은 部隊解體와 아울러 其 結果를 陸本에 報告하라.

4. 가. 個人裝備 및 補給品은 携帶하라.

나. 部隊裝備品은 兵站團에 返納하라.

다. 輸送은 鐵道를 利用하되 所要貨車를 大邱鐵道輸送官에게 申請하라.
라. 金部隊長은 部隊裝備品 返納後 狀況報告書를 提出하라.
마. 金部隊長은 復歸하는 原所屬隊別 人員統計를 人事局에 提出하라.

부록 제16호

作戰命令 第57號 1950. 7. 20 01. 10

1. 가. 敵情은 別紙 情報附錄 第3表 參照
나. 美軍 및 聯合軍은 全幅的으로 我軍을 支援하고 있음.
다. 我軍의 配置現況은 別紙 第4表 參照
2. 軍은 一部 部隊의 改編 및 配備를 變更 次期攻勢移轉의 準備를 하려함.
3. 가. 首都師團은 現任務를 계속 수행하면서 安東(1169—1524)地區로 移動하여 將次 軍의 豫備隊가 된다.
나. 第17聯隊는 現位置에서 現任務를 完遂하면 安東(1169—1524)地區로 移動할 準備를 하라.
(1) 移動은 別命함.
(2) 安東(1169—1524)地區로 移動完了 即時 首都師團에 配屬함.
다. 第2師團은 下記에 의하여 解編함.
(1) 美第25師團이 到着하면 即時 任務를 交代함.
(2) 第5, 第20聯隊는 斗坪里(1067—1519)로 移動後 第1師團에 配屬함.
(3) 第16聯隊는 榮州(1158—1555)에 移動하여 第8師團에 配屬함.
(4) 第22聯隊는 大邱(1157—1440)에 移動後 第3師團에 配屬함.
(5) 第2師團司令部 및 直轄 各特別部隊는 大邱(1157—1440)에 移動後 陸本에 配屬함.
라. 第1師團(第 5, 20聯隊包含)은 美第25師團과 任務交代後 春陽(1186—1569)으로 移動하여 次期攻勢移轉 準備에 萬全을 期하라.
마. 獨立機甲聯隊(現永同에 在함)은 大邱(1157—1440)에 移動하여 第3師團에 配屬함.
바. 第3師團(第 22, 獨立機甲聯隊 및 第 1, 第2獨立大隊, 永登浦學院 包含)은 現在 線에서 敵의 南侵을 徹底히 阻止하라.
사. 第6師團은 現任務를 繼續 遂行하는 同時에 攻擊移轉 準備에 萬全을 期하라.
아. 第8師團(第16聯隊 및 第25聯隊의 1個大隊 包含)은 現任務를 繼續 遂行하는 同時에 攻勢移轉 準備의 萬全을 期하라.
자. 第1軍團本部 및 直轄各部隊는 義城(1166—1497)으로 移動 第6, 第8師團을 統合指揮하여 攻勢轉移 準備에 萬全을 期하라.
차. 陸軍本部는 本命令의 完全 實行後 義城(1166—1497)으로 移動을 準備함.
카. 西海地區 戰鬪司令部는 美軍의 左側面의 警護 및 管下의 敵遊擊隊 殲滅戰을 繼續하라. 國立警察은 主로 補給線의 保護 및 警備를 實施하는 同時에 國內의 共匪 및 東海岸 敵遊擊隊 殲滅戰을 繼續함.
4. 別途 行政命令 下達함
5. 別紙 附錄 第1表 參照.

別紙 附錄 第1表(作命 第57號)

軍隊區分

1. 第1軍團 軍團長 少將 金弘壹
가. 第1師團 師團長 大領 白善燁

(1) 第 5 聯隊
(2) 第11聯隊
(3) 第12聯隊
(4) 第13聯隊
(5) 第20聯隊

나. 第 3 師團 師團長 准將 李俊植
(1) 第22聯隊
(2) 第23聯隊
(3) 獨立機甲聯隊
(4) 獨立第 1 大隊
(5) 獨立第 2 大隊
(6) 永登浦學院

2. 第 2 軍團 軍團長 准將 劉載興
가. 第 6 師團 師團長 大領 金鍾五
(1) 第 2 聯隊
(2) 第 7 聯隊
(3) 第19聯隊

나. 第 8 師團 師團長 大領 李正一(成佳)
(1) 第10聯隊
(2) 第16聯隊
(3) 第21聯隊
(4) 第25聯隊의 1 個大隊

3. 陸本直轄 軍豫備隊
가. 首都師團 師團長 准將 金錫源
(1) 第 1 聯隊
(2) 第 8 聯隊
(3) 第18聯隊
(4) 第17聯隊

나. 第 1 砲兵團
다. 對戰車砲兵團
라. 陸軍通信大隊
마. 陸軍工兵團
바. 陸軍兵器大隊
사. 陸軍兵站團
아. 醫務大隊
자. 陸軍援護隊
차. 陸軍軍樂隊
카. 各陸軍新兵教育隊
타. 各陸軍病院
파. 各地區補給廠
하. 陸軍被服廠
거. 陸軍衛生材料廠

너. 陸軍施設管理所
더. 陸軍療養院

부록 제17호

作戰命令 第58號 1950. 7. 20 17. 00

1. 西海岸을 南進하는 敵은 今 20日 裡里 및 全州에 侵入 繼續하여 南侵을 企圖中임.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하여 該敵의 南進을 阻止, 攻擊하려 함.
3. 가. 陸軍少領 金秉俊은 隷下 兵力을 引率, 南原에 進出하여 西海岸地區 戰鬪司令官의 指揮下에 南下하는 敵을 요격섬멸 하라.
   나. 西海岸地區 戰鬪司令官은 前記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當面의 敵을 攻擊하라.
4. 가. 一切의 個人, 部隊裝備品을 携帶하라.
   나. 輸送은 自動車 輸送을 하되 所要車輛을 軍需局長에게 申請하라.
5. 移動完了 即時로 有無線을 利用 陸本에 報告하라.

부록 제18호

作戰命令 第59號 1950. 7. 20 20. 00

1. 省略
2. 軍은 一部兵力을 補充하려 함.
3. 가. 陸本施設管理所長은 將校 1 名 士兵40名을 第 1 工兵團에 配屬하라.
   나. 第 1 工兵團長은 前記 兵力을 統合하여 將校 4 名 士兵 100名을 第 2 軍團長에게 配屬하라.
4. 省略
5. 配屬完了後 即時 有無線으로 陸本에 報告하라.

부록 제19호

作戰命令 第60號 1950. 7. 20 21. 00

1. 省略
2. 軍은 一部 兵力을 原隊復歸시키려 함.
3. 가. 第 1 軍團長은 軍團編成時 派遣된 兵站團 少領 全逸在以下 將校 15名, 士兵 385名을 1950. 7. 21 24. 00까지 原隊復歸시키라.
   나. 兵站監은 上記 兵力을 統合指揮하라.
4. 省略
5. 連絡報告는 有無線을 利用하라.

부록 제20호

作戰命令 第61號 1950. 7. 20 23. 00

1. 가. 西海岸으로부터 南進하는 敵主力의 一部는 全州에 侵入 任實方面으로부터 南侵을 企圖하고 있음.
   나. 我陸軍의 小數兵力과 警察은 南下하는 敵을 邀擊交戰中임.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시켜 南下하는 敵을 阻止 强力한 遲延戰을 展開하려 함.
3. 가. 全南編成管區司令官은 隷下 兵力 500名을 南原에 急派 西海岸地區戰鬪司令官의 指揮를 받도록 하라.
나. 慶南編成管區司令官은 步兵 完全 1個大隊를 編成하여 即時 南原에 急進시켜 西海岸地區 戰鬪司令官의 指揮를 받도록 하라.
다. 西海岸地區 戰鬪司令官은 前記兵力을 統合指揮하여 南下하는 敵을 阻止 强力한 遲延戰을 展開하라.
4. 가. 一切의 個人裝備品을 携行하라.
나. 輸送은 自隊가 擔當하되 自動車輛을 利用하라.
다. 編入後 西海戰鬪司令官은 後方報告를 提出하라.
5. 連絡報告는 有無線을 利用하라.

부록 제21호

作戰命令 第62號 1950. 7. 21 21. 15

1. 省略
2. 軍은 次期 作戰을 準備하기 爲한 再編 및 整備를 目的으로 一部 部隊를 轉進시키려 함.
3. 가. 第1軍團長은 別紙 透明圖의 線까지 1950. 7. 21夜暗을 利用하여 轉進하라.
나. 第1軍團長은 轉進中 右側의 第6師團 및 左側의 美軍 第1機甲師團과 協助, 連絡을 積極取하라.
4. 省略

부록 제22호

作戰命令 第64號 1950. 7. 23 13. 00

1. 가. 豊基(1149—1560)地區로부터 分散南下한 敵의 主力은 榮州(1158—1555) 西南쪽으로 繼續南侵을 企圖中이며 榮州 西南쪽 豆田里의 我第10聯隊는 此敵에 包圍當하고 있음. 敵은 戰車5臺, 砲4門을 裝備하고 있음.
나. 榮州 東北쪽은 友軍第21聯隊가 布陣하고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하여 此敵을 擊滅하려 함
3. 가. 首都師團長은 隷下 第18聯隊로 하여금 即時 該地區의 敵을 殲滅하라.
(1) 第18聯隊는 一部兵力을 殘置시키고 主力을 即時 泉香洞—長水—大村—寒村洞—南院 街道로 豊基地區에 突入하여 榮州(1156—1555)西北地區로부터 豊基地區로 逃走를 豫測되는 敵의 退路를 遮斷하는 同時에 榮州, 豊基 街路를 東南進하는 敵을 其後方으로 부터 攻擊을 實施하라.
(2) 首都師團長은 第18聯隊의 移動完了와 同時에 有無線 또는 傳令에 依하여 陸軍本部에 報告하라.
나. 第8師團長은 隷下 第10聯隊 및 第21聯隊로하여금 增援된 第18聯隊와 緊密한 協同作戰으로 徹底히 敵을 殲滅케 하라.
4. 輸送은 自隊가 擔當하되 自動車輛을 利用하라.
5. 報告連絡은 有無線과 傳令을 併用하라.

부록 제23호

作戰命令 第65號 1950. 7. 24 15. 00

1. 敵의 一部는 湖南地區로 南下 全羅南北道를 攪亂시킨後 慶尙道로 侵透할 企圖임.
2. 軍은 後續美軍部隊의 到來時까지 現在 位置를 確保하려 함.
3. 가. 陸軍少將 李應俊은 美軍 1個聯隊 到着時까지 隷下 陸軍部隊 및 海軍 警察을 統合指揮하여 順天—南原間 鶴口 西北쪽 國道上 5 km의 要點 및 鶴口 西쪽 樹裏峙 및 順天 南쪽 伊沙川과 國道間의 橋梁等 要點을 確保하라.

   나. 陸軍大領 閔機植은 隷下 陸海軍 및 警察을 統合指揮하여 雲峰 西쪽要點 및 求禮北쪽 要點을 確保하라.

   다. 兩部隊는 共히 對戰車 阻止를 爲하여 對戰車壕 및 橋梁 破壞, 其他 方策을 다하라.
4. 省略
5. 報告는 有無線을 通하여 隨時로 하라.

부록 제24호

作戰命令 第66號 1950. 7. 24 24. 00

1. 省略
2. 軍은 侵透한 敵을 殲滅하고 1950. 7. 25 05. 00를 期하여 攻勢移轉하려 함
3. 가. 尙州에 集結中인 第1師團은 1950. 7. 24 夜間을 利用하여 咸昌(1116—1523)에 前進하여 19500. .25 05. 00를 期하여 咸昌一帶의 敵을 掃蕩하고 一擧 聞慶을 奪取占領하라.

   나. 第6師團은 現位置를 固守하여 第1師團과 協同하여 聞慶을 占領하라.
4. 行政事項은 後達함.
5. 有無線을 利用하여 連絡하라.

부록 제25호

戰命令 第67號 1950. 7. 24 21. 00

1. 省略
2. 軍은 1950. 7. 25을 期하여 攻勢에 移轉하려 함.
3. 가. 第1軍團長은 隷下 第8師團 및 首都師團을 統合指揮하여 1950. 7. 26 05. 00를 期하여 榮州를 攻擊占領한後 一擧 豊基를 占領하라.

   나. 第2軍團長은 隷下 師團을 統合指揮하여 作命第66號에 依한 隷下 各師團의 任務를 繼續 遂行하라.

   다. 第3師團長은 1950. 7. 25 05. 00를 期하여 盈德을 攻擊 占領한後 一擧 寧海를 占領하라. 各師團再編은 戰鬪間에 實施하라. 細部事項은 別途 指示함.
4. 行政命令 第8號 參照
5. 報告連絡은 有無線을 利用하라.

부록 제26호

作戰命令 第68號 1950. 7. 24 24. 00

1. 가. 情報附錄 第2表 參照.

나. 美軍 및 聯合軍 陸海空軍은 全面的으로 我軍을 支援하고 있음.
다. 我軍의 配置狀況은 附錄 第3表 參照
2. 軍은 侵透한 敵을 擊滅하고 攻擊移轉하려 함.
3. 가. 尙州에 集結中인 第1師團長은 隷下 第 11, 第 12, 第 13, 第 5, 第20聯隊를 咸昌에 前進시켜 1950. 7. 25 05. 00를 期하여 咸昌一帶의 敵을 掃蕩하고 一擧 聞慶을 攻擊 占領하라.
나. (1) 首都師團長은 隷下 第17聯隊를 醴泉(1143—1534)으로 移動시켜 醴泉方面으로 南侵을 企圖하는 敵을 阻止하라.
(2) 第1聯隊는 即時 安東에 移動하여 當面의 敵南侵을 阻止하라.
(3) 首都師團長은 隷下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攻擊準備에 萬全을 期하라.
다. 第1軍團長은 首都師團을 統合指揮하라.

부록 제27호
作戰命令 第69號 1950. 7. 25 13. 00
1. 光州에 侵入한 約2個大隊의 敵은 羅州, 木浦로 向하고 其一部는 和順, 經由 筏橋로 向하고 있음. 昨24日 午前中 淳昌으로부터 南原에 侵入한 約1個大隊 以上의 敵의 一部는 求禮로, 또 一部는 雲峰으로 向하고 있음. 全州로부터 任實로 向하는 兵力不詳의 敵은 今日中 南原으로 侵入할것임.
2. 軍은 一部兵力을 急派하여 該敵을 擊破 光州를 確保하려함.
3. 陸軍大領 閔機植은 隷下部隊 및 吳德俊部隊를 統合指揮하여 咸陽으로부터 南原의 敵을 擊破하여 南原~谷城~光州에 前進 該地帶를 確保하라.
以下省略

부록 제28호
作戰命令 第70號 1950. 7. 25 16. 00
1. 가. 敵의 一部는 湖南地區로 南下 全南北道를 攪亂시킨後 慶尙道로 侵透할 企圖임.
나. 我軍은 該敵의 侵透를 阻止하여 目下 猛烈한 遲延戰을 展開하고 있음.
2. 軍은 該地區의 敵을 阻止猛攻하여 徹底히 殲滅하려 함.
3. 가. 陸軍少將 蔡秉德은 李應俊部隊와 閔機植部隊를 統合指揮하여 此를 捕捉하여 殲滅하라.

부록 제29호
作戰命令 第71號 1950. 7. 25 19. 00
1. 가. 敵은 我軍의 猛烈한 攻擊展開로 因하여 各地區에서 後退하고 있음.
나. 我軍은 猛攻을 加하여 熾烈한 攻擊戰을 展開하고 있음.
2. 軍은 隷下 部隊에 對戰車砲를 補充하려 함.
3. 가. 第1軍團長은 別紙 對戰車砲 補充計劃에 依하여 隷下部隊에 對戰車砲를 補充完了하라.
나. 陸軍對戰車砲兵團長은 別紙 對戰車砲 補充計劃表에 依하여 即時 各各 補充 完了하라.
다. 第 1. 第 2. 軍團長, 第3師團長 및 對戰車砲兵團長은 補充을 爲한 移動, 出發到着 그리고 補充完了時에는 其結果를 即時 陸本에 報告하라.
4. 省略
5. 連絡 및 報告는 有無線 또는 傳令으로 하라.

對戰車砲 補充計劃(別紙)

部 隊 名	現 在 數	所 要 數	不 足 數	補充可能數	補充後의 數
第1軍團司令部	10				10
首 都 師 團	5	15	10	軍團에서보충 10	15
第 8 師 團	12	15	3		12
第2軍團司令部					
第 1 師 團	4	15	11	陸本에서 6	10
第 6 師 團	7	15	8	陸本에서 3	10
第 3 師 團	6	10	4	陸本에서 4	10

備考

1. 第1軍團 隷下部隊의 對戰車砲는 現在 軍團本部 直屬 對戰砲部隊로서 充當할것.
2. 第2軍團 및 第3師團의 補充對砲는 陸本對砲團에서 編成 補充함.
3. 對戰車砲兵團에 殘留對砲 9門은 何時라도 出動할수 있게끔 出動準備를 完了하여 待機할 것.
4. 補充完了日은 1950.7.26 24.00

부록 제30호

作戰命令 第72號 1950.7.25 23.00

1. 河東方面에 南下한 敵은 約 1個大隊이며 裝甲車 若干이 南下하였음.
2. 軍은 該敵을 河東線에서 阻止하려 함.
3. 蔡秉德 少將은 旣受領 任務를 完遂하는 同時에 隷下部隊를 指揮하여 河東에 至하여 河東 昆陽經由 泗川—固城(小路)街道方面으로 侵入하는 敵을 亦是 殲滅하라.
4. 裝甲車 攻擊으로 石油瓶(揮發油 充滿)을 製造使用하라.
5. 戰鬪指揮所 位置를 報告하라.

부록 제31호

作戰命令 第73號 1950.7.27 12.00

1. 가. 敵은 我軍의 猛烈한 攻擊으로 因하여 前進 頓挫狀態에 있음.
   나. 我軍은 敵을 捕捉하여 熾烈한 攻擊戰을 展開하고 있음.
2. 軍은 聯合軍과의 戰鬪地境線을 決定하려 함.
3. 가. 聯合軍과의 戰鬪地境은 別紙附錄 第1表 透明圖를 參照하라.
   戰鬪地境線
   (1067—1540)～(1070—1535)～(1078—1530)
   (1030—1528)～(1090—1525)～(1100—1520)
   (1110—1517)～(1120—1516)～(1125—1515)
   (1130—1512)～(1140—1503)～(1150—1496)
   (1157—1493)～(1165—1495)～(1165—1480)
   (1167—1470)～(1190—1450)을 連한 線

나. 第1軍團과 第2軍團의 戰鬪地境은 陸本訓令 第11號 別紙附錄 第2表(透明圖)의 首都師團과 第1師團의 戰鬪地境과 同一함.

다. 第1軍團과 第3師團의 戰鬪地境은 陸本訓令 第11號 別紙附錄 第2表(透明圖)의 第8師團과 第3師團과의 戰鬪地境과 同一함.

4. 變更없음

5. 連絡 및 通信은 有無線과 傳令에 依하라.

부록 제32호

作戰命令 第74號 1950. 7. 27 11. 00

1. 가. 別紙 陸本情報報告 參照

나. (1) 我陸軍은 今 7月 27日 05. 00를 期하여 攻勢로 移轉함.

(2) 第3師團은 鳥浦洞—錦湖洞線으로부터 攻擊을 開始함.

(3) 第1軍團은 金光里—平恩里—川本里線으로부터 攻擊을 開始하여 10. 00 現在 月呼里—五加里—新川里—龍床里線까지(榮州 南쪽 10粁地點) 進出하였음.

(4) 第2軍團은 安龍里—孔坪里—虎溪里—若泉里線으로부터 攻擊을 開始하여 08. 00現在 外於里(聞慶 前方 5粁)線까지 進出하였음.

(5) 美軍은 我軍과 呼應하여 深川—龍岩里線으로부터 靑山里(報恩 東쪽 15粁)—沃川線까지 進出하였음.

2. 軍은 閔機植部隊로서 南原을 確保하려 함.

3. 陸軍大領 閔機植은 隷下部隊를 指揮하여 雲峰—南原街道를 前進하여 南原을 占領 確保하라.

以上省略

부록 제33호

作戰命令 第75號 1950. 7. 27 12. 00

1. 가. 敵은 我軍의 猛烈한 反擊으로 因하여 前進이 頓挫되고 있음.

나. 我軍은 攻擊을 開始하여 敵을 擊退하고 있음

2. 軍은 一部 對戰車砲兵을 移動하려 함.

3. 가. 對戰車砲兵團長은 隷下 對戰車砲 4門을 即時 浦項(1233—1462)으로 移動시켜 第3師團長으로부터 差出하는 對戰車砲兵力(人員)으로 對戰車砲中隊를 編成하여 第3師團長에게 配屬하라.

나. 第3師團長은 隷下 對戰車砲兵力(4門編成의 人員)을 浦項(1233—1462)에서 陸軍對戰車砲兵團長에게 差出하여 對戰車砲兵團長으로 하여금 對戰車砲中隊를 編成케 하고 配屬된 對戰車砲中隊를 統合指揮하라.

다. 對戰車砲中隊의 編成 責任은 對戰車砲兵團長에게 있으며 編成 및 配屬完了는 7月 28日 12. 00까지로 한다.

4. 變更없음.

5. 連絡 및 通信은 有無線 또는 傳令에 依하라.

부록 제34호

作戰命令 第76號 1950. 7. 27 13. 00

1. 가. 敵은 我軍의 猛攻으로 前進이 頓挫되고 있음.

나. 我軍은 攻擊을 開始하여 敵을 擊滅하고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統合하여 湖南地區에 侵透한 敵을 阻止 殲滅하려 함.
3. 가. 閔機植大領은 吳德俊部隊 및 管下 海兵隊, 警察隊를 統合指揮하여 全北地區(山淸, 居昌, 陜川 咸陽地區 包含)의 敵을 徹底히 殲滅하라.
나. 張斗權大領은 李映奎部隊 및 全南地區 管下 海兵隊, 警察隊를 統合指揮하여 全南地區 및 晋州 以東 慶南地區의 敵을 阻止殲滅하라.
4. 省略
5. 連絡 및 通信은 有無線 또는 傳令에 依하라.

부록 제35호

作戰命令 第78號 1950. 7. 27 23. 00

1. 가. 敵은 我軍의 猛烈한 反擊으로 前進이 頓挫되고 있음.
나. 我軍의 攻擊開始以來 各地區에서 敵을 殲滅 進擊하고 있음.
2. 軍은 攻擊移轉을 契機로 하여 一部 戰鬪地境을 變更하려 함.
3. 가. 戰鬪地境은 別紙附錄 第1表 透明圖를 參照하라.
나. 第1軍團 및 第3師團은 變更된 別紙 戰鬪地境에 依하여 隣接部隊와 相互 緊密한 連絡下에 攻擊進出에 萬全을 期하라.
다. 第1軍團 및 第3師團 以外의 其他 部隊는 變更없음.
4. 省略
5. 連絡 通信은 有無線 또는 傳令에 依하라.

부록 제36호

作戰命令 第76號 1950. 7. 28 12. 00

1. 가. 西海岸地區로 侵入한 敵의 一部는 河東方面으로부터 晋州 馬山方面으로 侵透를 企圖하고 있음
나. 我軍 및 美軍은 泗川方面에서 該敵을 邀擊하고 있음(透明圖 參照)
2. 軍은 一部 兵力을 移動하여 該敵을 徹底히 殲滅하려 함.
3. 가. 第1軍團長은 隷下 首都師團 第17聯隊를 即時 馬山에 移動하라.
나. 第17聯隊長은 隷下兵力을 即時 馬山에 移動시켜 侵入하는 敵을 徹底히 捕捉掃蕩하라.
다. 第17聯隊長 및 美軍先任顧問官은 在晋州 美軍部隊長과 連絡 協助하라.
라. 第17聯隊長은 部隊 出發時間 및 馬山 到着豫定時間을 報告하라.
마. 第17聯隊長은 部隊 到着後 即時 報告하라.
4. 가. 軍補給廠 및 支援擔當

補給所	位置	支援擔當	軍補給所運用部隊
晋州補給所	(1108—1355)	湖南地區 全部隊 및 陸軍指揮下에 作戰中인 警察隊, 17R ※ 海兵隊는 馬山基地司令官에게 請求할 것	變更없음

나. 後送 및 醫療 ; 變更없음
다. 輸送 ; 變更없음

라. 勤務 ; 變更없음

마. 第3補給品(燃料)은 返納된 空드람罐과 交換 補給을 實施하라.

5. 가. 首都師團長은 第17聯隊의 現有通信機材 一切를 携行케 하라.

나. 移動開始로 부터 移動完了間 無線使用을 一切 禁한다.

다. 移動完了後는 即時 下記에 依하여 有無線通信을 實施하라.

(1) 無線

(가) 陸軍本部와 第1軍團間의 2所1系通信을 第17聯隊를 加하여 3所1系로 한다. 即,

陸軍本部 TOK
第1軍團 TEF } 周波數—4430KC
第17聯隊 PAK

(나) 第17聯隊 管下用으로 下記와 같이 割當함으로 適實再割當 使用하라.

周波數—4180KC, 4300KC

呼出符號—NB1, MC2, LD3, KE4, JE5 CM8

(2) 有線

通信中樞線은 다음과 같다.

大邱○—玄風○—昌寧○—馬山○

라. 通信方法—常時通信

마. 交信開始—移動完了 即時 呼出하라.

바. 其他 詳細한 것은 最近 下達된 通信規定에 依하라.

부록 제37호

作戰命令 第81號 1950. 7. 29 10. 00

1. 가. 安義(1070—1408)에 侵入한 敵은 居昌(1090—1416)을 威脅하고 있으며 咸陽(1072—1395)에 侵入한 一部主力은 山淸(1087—1383)을 指向하여 繼續 侵入을 企圖하고 있음.

나. 我軍은 美軍과 協同하여 該敵의 前進을 阻止 熾烈한 殲滅戰을 展開하고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하여 該敵을 擊滅하려 함

3. 가. 閔機植大領은 隷下 部隊를 指揮하여 山淸(1087—1383)~丹城(1095—1368)~三嘉(1112—1383)~陜川(1115—1402)를 經由하여 即時 居昌(1090—1416)에 移動後 當地의 美軍部隊와 緊密한 協同作戰으로 該敵을 徹底히 殲滅하라.

나. 出發 및 到着時間을 陸本에 報告하라.

4. 省略

5. 連絡 및 通信은 有無線 또는 傳令을 併用하라.

부록 제38호

作戰命令 第82號 1950. 7. 29 10. 00

1. 가. 敵遊擊隊는 八公山 周邊에 侵透하여 後方攪亂을 企圖하고 있음.

나. 我軍은 攻擊을 開始하여 敵을 捕捉中이며 八公山에는 我軍 求登浦學院 및 特攻隊가 配置되고 있음.

2. 軍은 兵力을 統合하여 該敵을 徹底히 殲滅하려 함.

3. 가. 治安局長은 警察1個大隊를 八公山에 派遣하여 第3師團에 配屬시켜 八公山 山嶽 1192高地(11

67.5—1456)를 占領確保하라.

나. 靑年防衛團長은 靑年防衛隊 1個大隊를 普賢山(1194—1475)에 派遣하여 第3師團에 配屬 普賢山 1124高地를 占領確保하라.

다. 第3師團長은 警察 1個大隊와 靑防1個大隊를 統合指揮하여 該地區를 占領 確保하고 敵을 徹底히 殲滅하라.

4. 給養에 關하여는 第3師團長이 擔當하며 作戰命令 第79號 第4項 行政事項을 參照하라.

5. 連絡 및 報告는 有無線 또는 傳令에 依하라.

부록 제39호

作戰命令 第83號 1950.7.29 16.00

1. 가. 敵은 我軍의 猛攻으로 因하여 前進이 頓挫狀態에 있음.

나. 我軍은 攻擊을 開始하여 敵을 殲滅하고 進擊中임.

2. 軍은 一部兵力을 補充하려 함.

3. 가. 各師團長 및 倭館 第1新兵教育隊長, 慶山第5新兵教育隊長은 別表에 依하여 即時 隷下 新兵을 編入, 統合指揮하라.

나. 陸本作命 第52號에 依한 第1, 第5新兵教育隊의 第1軍團 編入은 此를 取消한다.

4. 가. 輸送은 鐵道를 利用하되 所要車輛은 軍需局에 申請하라.

나. 各師團長은 編入된 新兵의 名簿를 作成하여 報告하라.

5. 連絡 및 報告는 有無線과 傳令을 併用하라.

別表(陸本作命 第83號)

師團補充中隊 人員補充割當表

題目 / 補充할 師團補充中隊名	補充할 人員	人員差出部隊名	備考
1軍團 首都師團 補充中隊	400	倭館 第1新兵教育隊	
1軍團 第8師團 補充中隊	400	〃	
2軍團 第1師團 補充中隊	400	〃	
2軍團 第6師團 補充中隊	400	〃	
第2師團補充中隊	400	第1新兵教育隊(倭館) 第5新兵教育隊(慶山)	167名 233名
計	2,000		

부록 제40호

作戰命令 第84號 1950.7.29 17.00

가. 敵은 我軍의 攻勢移轉으로 因하여 前進이 頓挫되고 있음.

나. 我軍은 攻勢移轉 以來 猛烈한 攻擊戰을 展開하여 敵을 擊滅하고 있음

2. 軍은 新兵教育隊를 靑年防衛隊에 編入시키려 함.

3. 가. 下記 各級指揮官은 隷下 新兵을 現在의 位置에서 靑年防衛隊에 引繼完了後 旣成 將兵은 大邱防衛司令部에 編入하라.

教育隊 所在地表

題目 / 部隊區分	所在地	指揮官 階級	指揮官 姓名
全北編成管區司令部	晋州	准將	李亨根
第1新兵教育隊	晋州	中領	朴炫洙
第2新兵教育隊	固城	中領	俞海濶
全南編成管區司令部	馬山	少將	李應俊
第3新兵教育隊	馬山	中領	李白雨
第5新兵教育隊	馬山	中領	金炳徽
第8新兵教育隊	釜山	中領	孫熙善
第9新兵教育隊	馬山	中領	李祐成
第1兵器大隊	釜山	大尉	金鳳柱

(1) 第5新兵教育隊長은 作命 第83號에 依한 人員以外의 殘餘人員을 編入시키라.

(2) 第1兵器大隊長은 釜山地區에서 編入補充된 新兵 200名을 靑防隊에 編入하라.

나. 關係 各級指揮官은 編入 移動完了後 即時 其結果를 陸軍本部에 報告하라.

4. 現 各教育隊長은 靑年防衛隊에 一切의 部隊裝備品을 引繼하고 引繼引受官의 共同作成의 報告書를 軍需局長에게 提出하라.

5. 連絡 및 通信은 有無線과 傳令을 併用하라.

부록 제41호

作戰命令 第85號 1950. 7. 29 19. 00

1. 가. 慶南地區에 侵入한 敵은 繼續侵透를 企圖하고 其 一部主力은 居昌(1090—1416)을 向하여 我軍의 正面을 壓迫하고 있음.

나. 我軍은 美軍과 協同하여 該敵의 前進을 阻止 熾烈한 殲滅戰을 展開하고 있음.

2. 軍은 一部兵力을 增援하여 該地區의 敵을 徹底히 殲滅하려 함.

3. 가. 居昌(1090—1416)에 現任하는 閔機植 大領은 管下 軍警을 統合指揮하여 安義(1080—1409), 咸陽(1072—1395), 雲峰(1052—1086)線을, 南原(1038—1382)方面에 對하여 猛攻하여 即時 南原을 占領 確保하라.

나. 劉升烈 大領은 湖南地區로 부터 後退하여 釜山에 現在하는 全兵力(李暎奎中領의 指揮)을 統合하여 即時 晋州地區에 進出케 하여 張斗權 大領 指揮下에 蓮坪(1098—1352), 荷泉(1074—1341), 順天(1048—1328), 求禮(1946—1357)地區線에 대하여 攻擊, 順天~求禮地區를 占領 確保하라.

4. 作戰命令 第68號 別紙 行政事項 및 作命 第79號 變更 第1을 參照하라.

5. 連絡 및 通信은 有無線과 傳令을 併用하라.

부록 제42호

作戰命令 第86號 1950. 7. 29 21. 00

1. 省略

2. 軍은 一部兵力을 美第24師團에 配屬하려 함.
3. 가. 第17聯隊長은 即時 德岩里(1115—1415)에 到着後 美第24師團長에게 配屬하라.
   나. 美第24師團에서 德岩里(1115—1415)에 案內將校를 派遣할 것임.
4. 가. 輸送은 美第8軍에서 派遣한 自動車輛에 依하라.
   나. 德岩里 到着後 美軍에서 補給을 擔當할것임.
5. 가. 通信樞線은 大邱～狹川街道임
   나. 德岩里 到着까지 有線使用을 禁한다.
   다. 通信規定을 適用하라.

부록 제43호

作戰命令 第87號 1950. 7. 30 12. 00

1. 省略
2. 軍은 一部兵力을 補充하려함.
3. 가. 第7新兵教育隊長은 隷下 新兵 750名을 第2軍團에 補充한다.
   나. 第2軍團은 前記 新兵을 第6師團에 補充하라.
   다. 第6師團長은 前記 兵力을 統合指揮하라.
4. 가. 大邱軍補給所는 所要 補給品을 支給하라.
   나. 第7新兵教育隊長은 鐵道輸送을 實施할 것이며 所要車輛을 軍需局長에게 申請하라.
5. 報告 및 連絡은 有無線을 併用하라.

부록 제44호

作戰命令 第88號 1950. 7. 30 15. 00

1. 別紙情報 附錄 參照
2. 軍은 一部兵力을 臨時 配屬하려함.
3. 가. 第1軍團長은 隷下, 首都師團 第18聯隊를 第2軍團長에 臨時 配屬하라.
   나. 第2軍團長은 前記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現第18聯隊 正面의 敵을 徹底히 攻擊 殲滅하라.
   다. 第18聯隊長은 現位置에서 南侵을 企圖하는 敵을 阻止 殲滅하라.
4. 省略
5. 第18聯隊는 保有한 有無線機材 一切를 第2軍團과 結系하여 그의 指示를 받으라.

부록 제45호

作戰命令 第88號 1950. 7. 30 18. 00

1. 가. 敵第5師團의 主力은 盈德으로 南侵 繼續 南進을 企圖하였으나 我軍의 猛攻으로 敗走하고 其主力의 一部를 兄弟峯, 九岩山, 普賢山等地로 分散 侵透하여 我後方 攪亂을 企圖하고 있음.
   나. 我第3師團은 該敵을 捕捉하여 猛攻中임.
2. 軍은 一部兵力을 配屬하려 한다.
3. 가. 第1砲兵團長은 隷下 75粍 曲射砲 2個中隊를 第3師團長에게 配屬하라.
   나. 第3師團長은 前記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當面의 敵을 捕捉擊滅하라.
   다. 第1砲兵團長은 前記 兵力을 1950. 7. 31 12. 00까지 浦項에 到着케하라.

4. 가. 第3師團長은 配屬된 砲兵에 대한 補給一切을 擔當하라.
나. 配屬砲兵의 諸般 報告는 第3師團을 經由 浦項補給所에 提出하라.
5. 第3師團과의 通信連絡 機材一切는 自隊에서 負擔하고 諸元一切는 第3師團長의 指示를 받으라.

부록 제46호

作戰命令 第89號 1950. 7. 31 09. 00

1. 가. 第1軍團 正面의 敵은 昨夜以來 安東 北쪽 約8粁 半程里~下台場線까지 進出하고 其一部는 安東~醴泉 道路上 新安洞(安東 西쪽 15粁), 水碑洞(醴泉 東南쪽 8粁)附近에 南下하여 我第1, 第2軍團連絡線 遮斷 및 第1軍團 左側 背後를 威脅 企圖하고 있음.
나. 我首都師團 第1聯隊는 新安洞附近에서 第1, 第2軍團 中間地區에 進出한 敵과 接觸中임.
2. 軍은 一部兵力을 配屬하려 함.
3. 가. 第1軍團長은 1950. 7. 31 09. 00附로 隷下 首都師團 第18聯隊를 第2軍團長에게 配屬하라.
나. 第2軍團長은 1950. 7. 31附로 前記兵力을 統合指揮하여 現第18聯隊 正面의 敵을 徹底히 攻擊殲滅하라.
다. 第18聯隊長은 現位置에서 南侵을 企圖하는 敵을 阻止 殲滅하라.
4. 省略
5. 首都師團長은 第18聯隊로 하여금 同部 保有 通信機材 一切를 携行하고 此期間中 第2軍團長의 指示를 받도록 하라.

부록 제47호

作戰命令 第90號 1950. 7. 31 10. 00

1. 가. 聞慶, 籠岩方面에서 咸昌, 尙州, 方面으로 南下하는 敵의 一部는 院洞(1109—1532), 魚龍山(1115—1524)을 거쳐 咸昌(1115—1524)을 向하고 主力은 九味里(1110—1524)—柿岩(1109—1523)—柯亭里(1107—1521) 거쳐 尙州(1114—1504)로 向하고 있음. 槐山(1077—1552) 方面에서 立石洞을 거쳐 尙州로 向하는 敵第15師團 主力은 籠岩 附近에서 敵第13師團 主力과 合流된듯 함.
나. 我軍은 該敵을 捕捉하여 猛烈한 攻擊戰을 展開하고 있음.
2. 軍은 第2軍團에 兵力을 補充하려 함.
3. 가. 中央訓練所長은 別表에 依하여 隷下 兵力으로서 第2軍團에 兵力을 補充하라.
나. 第2軍團長은 不足兵力을 別表에 依하여 中央訓練所長으로 부터 引受 補充하라.
4. 移動間의 給養은 中央訓練所長이 擔當하라.
5. 第2軍團長은 所要되는 通信機材를 陸軍本部에 申請하라.

別表(作命 第90號)

項目 / 移動安了日時	移動人員	移動先部隊및位置	移動出發部隊및出發地	移送責任官	備考
7. 31. 24. 00	500	第2軍團, 義城	中央訓練所, 大邱	中央訓練所長	
8. 1. 24. 00	500	〃	〃	〃	
8. 2. 24. 00	500	〃	〃	〃	
8. 3. 24. 00	500	〃	〃	〃	

8. 4. 24.00	500	〃	〃	〃	
8. 5. 24.00	500	〃	〃	〃	
8. 6. 24.00	500	〃	〃	〃	
8. 7. 24.00	500	〃	〃	〃	
8. 8. 24.00	526	〃	〃	〃	
合 計	4,526				

備考 1. 移動補充兵力(新兵)의 裝備補充은 中央訓練所長이 擔當함.
2. 移動 先地到着까지의 一切는 中央訓練所長에게 責任이 있음.
3. 中央訓練所長은 移動前까지 所要教育을 完了시켜 移動할 것임.

부록 제48호

作戰命令 第91號 1950. 7. 31

1. 가. 附錄(2) 情報
나. (1) 第1機甲師團, 一添附 作戰透明圖(附錄 3)에 表示된 線을 防禦하며 金泉(1111—1469)을 警戒할 것. 敵의 東南 移動을 阻止할것.
(2) 美第25師團一添附 作戰透明圖에 表示되어 있는 線을 防禦하며 敵의 東南移動을 制止하여 韓國軍과 緊密한 連絡을 取할것. 美軍第25師團 및 韓國軍(1個增援大隊만)의 主力移動을 掩護하여 준다.
(3) 美第24師團(—), (第29聯隊戰鬪部隊, 韓國軍第17聯隊 및 閔部隊를 包含) 添附 作戰透明圖에 表示되어 있는 線을 防禦하며 敵의 東南移動을 制止한다.
(4) 美國軍페리部隊一盈德附近에 있는 韓國軍을 繼續하여 支援하고 盈德~浦項(1230—1460) 道路로 移動하는 敵을 制止한다.
(5) 聯合軍航空軍一繼續하여 戰略的空中支援을 한다.
(6) 聯合軍海軍一繼續하여 海空支援을 한다.
2. 가. 韓國軍은 敵의 東南移動을 制止하면서 作戰透明圖에 表示되어 있는 線을 繼續 防禦한다.
나. 防禦線一附錄 (3) 作戰透明圖
3. 가. 第1軍團
(1) 偵察을 하고 1950. 7. 31과 8. 1間의 夜陰을 利用하여 作戰透明圖에 表示되어 있는 線上 選定陣地로 移動하라.
(2) 敵의 南下를 制止하라.
(3) 洛東江 以南의 新位置에 移動한 後에는 第18聯隊를 統合指揮하라.
(4) 新陣地에 到着하게 되면 1個聯隊의 豫備軍을 再編成하라.
나. 第2軍團
(1) 偵察을 하고 1950. 7. 31과 8. 1時의 夜陰을 利用하여 作戰透明圖에 나타나있는 線上의 選定陣地에 移動하라.
(2) 敵의 南下를 制止하라.
(3) 新位置에 到着後 第18聯隊를(第1軍團) 原隊에 復歸시키라.
(4) 洛東江 南側에 到着後 第6師團을 豫備師團으로 再編成하라.
다. 第3師團 現作戰任務를 遂行하라.

(1) 諸部隊는 積極的으로 偵察을 實施하여 敵情을 把握하라.
(2) 割當區域以外의 諸移動은 該部隊本部에서 調整할것임.
(3) 隣接部隊와 連絡을 緊密히 取할것.
(4) 其他 移動은 此本部의 命令이 있어야함.

4. 가. 兵站 및 基地被支援部隊
(1) 義城(1160—1490)에는 第1 및 第2軍團本部와 特攻隊 首都師團, 第8師團 第1師團 機甲聯隊 軍直轄 特別部隊等이 있다.
X作戰部隊
第1彈藥中隊, 第3彈藥中隊(—), 兵站中隊, 野戰輕整備中隊(—), 第51通信大隊派遣隊, 工兵中隊(—), 醫務廠派遣中隊, 野戰倉庫小隊
(2) 浦項(1232—1461)에는 第3師團(—) 軍直轄特別部隊가 있다.
X作戰部隊 第3師團特別隊
(3) 大邱(1158—1430)에는 韓國軍本部와 軍直轄特別部隊가 있다.
X作戰部隊
第1兵器大隊, 其他廠中隊, 兵站廠中隊, 通信廠中隊
(4) 軍需兵站基地의 支援을 받고 있는 其他部隊

나. 後送 및 病院
(1) 首都病院—蔚山(1230—1400)
(2) 第1病院—馬山(1160—1350)
(3) 第2病院—大邱(1158—1430)
(4) 第3病院—亭州(1200—1400)
(5) 第5病院—釜山(1205—1350)
(6) 陸軍療養所—密陽(1174—1394)

다. 輸送
(1) 영기동(1140—1500)線 以後는 通行 危險.
(2) 道路
(가) 大邱 및 浦項間 道路는 兩便通行을 할 수 있다.
(나) 大邱, 義城間의 大移動時는 片側通行은 다음과 같다.
1. 1時間以上을 要하는 輸送은 南大邱 終末驛에나 北義城 終末驛에서는 하지 않을것.
2. 每哩 50臺以上의 車輛이 縱으로 密集하여서는 않됨.
3. 速度는 每時 15哩를 超過하지 말것.
4. 此本部에서는 移動을 徹底하게 調整할것.
(다) 各部隊는 兵站基地로부터 部隊의 軍需品集積所까지 輸送機關 供給을 責任진다.
(라) 工兵은 義城으로부터 第2軍團에 이르는 補給路를 干先 整備할것.
(마) 第2軍團은 咸昌(1115—1524)—尙州(1114—1504)—洛東江(1123—1497)—복송동(1134—1457)에 이르는 道路를 01.30까지 優先的으로 使用한다.

라. 勤務
(1) 兵器
(가) 中隊整備中隊, 義城(1160—1490)에 있는 第1, 第2軍團.
(나) 各師團으로부터 自動車整備中隊에 後送한 使用不可能한 兵器材料는 即時로 自動車整備中隊로부터 大邱重自動車整備中隊에 後送할것.

마. 第3種器材(揮發油)—交換時에는 空도람罐을 가지고 가야한다.

바. 兵器廠이 1950.7.31 01.00에 慶州에 設置하였음.

사. 兵器廠(第2種 및 第4種)—양천(1218—1437)에 1950.8.3 06.00에 設置한다.

5. 現作戰信號는 그대로 實施한다.

가. 通信軸—義城(1166—1497)~新寧(1176—1460)~大邱(1158—1439)

나. 電話 또는 傳令으로 直接 上級司令部(CP)에 繁速히 連絡傳達事項을 報告하여야 한다.

※ 此作戰命令은 電話 또는 無線으로 傳하여서는 않되며 連絡將校가 持參하여함.

◎附錄 #1(作命 第91號)

軍隊區分

第1軍團 陸軍少將 金弘壹

第8師團 陸軍大領 李正一(成佳)

第10聯隊, 第16聯隊, 第21聯隊

首都師團 陸軍准將 金錫源

第1聯隊 第18聯隊(洛東江 安全 移動에 따름)

第2軍團 陸軍准將 劉載興

第1師團長 陸軍准將 白善燁

第11聯隊, 第12聯隊, 第13聯隊

第6師團長 陸軍大領 金鍾五

第2聯隊, 第7聯隊, 第19聯隊

軍直轄

第3師團 陸軍准將 李俊植

機甲聯隊, 第22聯隊, 第23聯隊

◎附錄 #2(陸本作命 第91號)

敵軍 情報要約

咸昌 西北方地帶에는 砲 및 戰車로 裝備한 約 2個師團이 有함.

此地帶에서의 敵線은 (1105—1515)近處로부터 (1114—1535)에 沿하는 線이다. 敵은 此地域에 걸처 72時間에 亘하여 强力한 攻擊을 加하여 왔다. 敵은 南進함으로서 我軍防禦를 破裂하고 美軍과 國軍間을 遮斷하려고 企圖한다. 敵은 其地域에 있어서 繼續하여 强力한 攻勢로 나오는것같이 보임.

醴泉北方地區(1140—1536) 一帶로부터 安東地區(1174—1533)에 걸처 一帶에는 三個師團이 있음. 이것은 敵軍의 强力한 攻勢를 表示함. 敵은 醴泉을 防禦하는 國軍을 制壓하려는 充分한 戰鬪力을 保持하고 있으며 醴泉東쪽 및 榮州와 安東間道路西쪽에 있어서 强力한 戰鬪力을 準備함으로서 安東方面에 侵攻을 企圖中임.

敵兵 800名으로서 (1160—1535)近方 및 南쪽까지의 侵攻이 報告되었다.

敵은 洛東江 東쪽에 若干의 小部隊를 移動하였다. 全地域은 强烈한 迫擊砲射擊을 받었으며, 4~6台의 戰車가 (1147—1540), (1160—1545), (1173—1535)에 있음을 報告받었다.

敵軍은 只今 言及한 全地域에 걸처 强力한 制壓戰을 繼續할 것으로 보임.

盈德地區—盈德市 防禦 敵兵力은 約 2個聯隊로 推測됨. 不確實한 情報에 依하면 敵은 物, 人兩面으로 支援을 받고 있다고 함.

約 2,000名의 兵力이 盈德을 向하여 (1115—1515)近處北쪽 및 西北쪽 道路에서 移動하고 있다고 함. 敵은 盈德市에 대한 强力한 防禦를 繼續할 것으로 보임.

부록 제49호

作戰命令 第92號 1950. 7. 31 22. 00

1. 省略

2. 軍은 西部地區 戰鬪部隊의 軍隊區分을 變更하려 함.

3. 가. 陸軍少將 李應俊은 別表 軍隊區分에 依한 兵力을 統合指揮하여 現在線으로부터 敵의 東進을 制止하며 侵入하는 敵을 捕捉殲滅하라.

나. 西部地區 戰鬪司令官은 日報樣式에 依하여 隷下部隊의 兵力裝備 및 配置現況을 此命令 受領後 24時間內에 陸本에 報告하라.

4. 省略

5. 가. 指揮所 位置를 報告하라.

나. 各種報告는 有無線으로 實施하되 暗號 및 陰語를 使用하라.

別表(作命 第92號)

軍隊區分

西部地區戰鬪司令官 陸軍少將 李應俊

參謀長 陸軍大領 張斗權

部隊長 閔(機植)部隊

吳(德俊)部隊

李(暎)部隊

海兵隊

金(龍)部隊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참고문헌

1. 公刊資料 및 1차 史料

1) 國文 1次 資料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關聯 證言資料.
國防部特命綴, 1949~1950.
국사편찬위원회,『북한관계사료집』제16권, 1989.
『조선일보』·『부산일보』.
陸軍本部 作戰命令, 1949~1950.
陸本一般命令, 1948~1950.
陸本特別命令, 1948~1950.
將校 任官序列名簿.
將校 自歷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國文 公刊資料

강원도,『江原道史 : 역사편』, 강원일보사, 1995.
공군본부 정보국,『북괴 공군』, 1951.
空軍本部,『空軍25年史 1948~1972』.
空軍本部,『空軍發展略史』第1卷, 1954.
空軍本部,『空軍史 1945~1953』第1輯, 1991.
공군본부,「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공군본부,「전투요보(1950-1951)」, 2002.
공군본부,『항공전사(한국전쟁)』, 1989.

공군본부,『UN공군사』, 1975.
공군분부,『6・25전쟁 증언록』, 1989.
국토통일원,『북괴 인물』, 1971.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전투사 : 오산－대전전투』, 1993.
國防軍史硏究所,『한국전쟁』(상), 1995.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建軍史』, 2002.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 영웅』, 2003.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①, 2001.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②,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①, 20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작전』②, 200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③, 200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38도선 初期戰鬪 : 西部戰線篇』, 198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38도선 初期戰鬪 : 中東部戰線篇』, 198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국방사』 제1집, 198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丹陽－義城戰鬪』, 198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제1권, 19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 지연작전기(1950. 7. 5~1950. 7. 31)』 제2권(개정판), 19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안강・포항전투』, 19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충주－점촌전투』, 1992.
국방부 정훈국,『한국전란 1년지』, 1951.
國防部,『國防關係法令 및 例規集』, 1950.
國防部,『國防部史』 第1輯, 1954.
경찰청,『경찰50년사』(서울: 경찰사편찬위원회, 1995).
內務部 治安局,『한국경찰사』, 1973.
내무부 치안국,『한국경찰사』 Ⅱ, 1977.
陸軍本部,『陸軍發展史』(上), 1969.
陸軍本部,『북괴군 특수부대』, 1989.
陸軍士官學校,『陸軍士官學校 30年史』, 197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보병제3사단,『백골사단역사』, 1980.
보병 제6사단,『청성역사(1948. 6. 14～1977. 12. 31)』, 1978.
보병 제7사단사령부,『칠성약사(1949. 6. 10～1969. 12. 31)』, 1970.
북한연구소,『최신 북한인명사전』, 1996.
육군교육사령부,『전장기능별 운용개념(개념530)』, 2005(미발행).
육군본부 정보참모부,『공비연혁』, 1971.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1군단 전투상보』(41), 198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1연대 전투상보」(42), 198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수도사단 포병, 제1사단, 제11연대 전투상보』(43), 1986.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법무부,『한국교정사』, 1987.
육군본부,『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1956.
육군대학,『북괴군 공격전술』, 1979.
육군본부, 교육참고 7-7-1『전장사례연구(1)』, 1983.
육군본부, 교육참고 7-7-2『전장사례연구(2)』, 1985.
육군본부, 교육참고 7-7-6『전장사례연구(3)』, 1987.
육군본부, 교육참고 7-7-8『전장사례연구(4)』, 1988.
陸軍本部,『北傀의 6·25 南侵分析』, 1970.
육군본부,『戰史』 제7집, 1952.
육군본부,『한국전쟁 재조명』, 1993.
육군포병학교,『포병학교 발자취』, 1963.
전병규,『6·25와 천안』, 인문당, 1988.
합동참모본부,『한국전사』, 교학사, 1984.
합동참모본부,『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04.
해군본부 군사연구실,『존안자료 함적부』.
해군본부 작전참모부,『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해군본부,『대한민국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대한민국해군사』(행정편), 1954.
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대한민국해군사』(작전편), 1954.
해군본부,『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海軍本部,『海軍30年史 1945~1975』, 1978.
해군본부,『해군작전사 개설, 1950. 6~1951. 6』 제1집, 2002.
해군본부,『해군편제사』 제1권, 1970.
海兵隊司令部作戰敎育局,『海兵史』 제3집, 1958.
해군본부,『해병약사』, 1985.

3) 國文 證言 및 回顧錄

6·25 참전 증언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미발간).
강기천,『강기천 회고록, 나의 인생 여로』, 계몽사, 1995.
具範模 譯,『맥아더 회고록』, 한림출판사, 19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Ⅰ, 2003.
김상덕·김완식,『7일간의 한강방어』, 국방군사연구소, 1998.
김성칠,『역사 앞에서』, 창작과 비평사, 1993.
박경석,『오성장군 김홍일』, 서문당, 1984.
박경석,『육사생도 2기』, 홍익출판사, 2000.
류형석 편저,『6·25참전소년병 참전수기』, 6·25참전소년병전우회, 2005.
신현준,『노해병의 회고록』, 가톨릭출판사, 1989.
유성철,「나의 증언」,『한국일보』, 1990.
유재흥,『격동의 세월 : 전 국방부장관 유재흥 회고록』, 을유문화사, 1994.
유현종,『백마고지 : 김종오 장군 일대기』, 을지출판공사, 1985.
육군본부,『의장 안병범』, 1989.
육군본부,『이성가 장군 참전기 영천대회전』, 1995.
李應俊,『自敍傳 回顧 90年 1890-1981』, 汕耘紀念事業會, 1982.
李亨根,『軍番 1번의 외길 인생』, 중앙일보사, 1993.
임부택,『낙동강에서 초산까지』, 그루터기, 1996.
임부택,『압록강아 말해다오』, 인물연구소, 1974.
정일권,『정일권 회고록 :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6.
조갑제,『이용문 장군 평전 : 젊은 거인의 초상』, 샘터, 1988.
한 신,『신념의 삶 속에서』, 명성출판사, 19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北韓 1次 史料 및 公刊資料

『인민군 전투일지』(1950. 6. 26～7. 27).
김일성, 『김일성 선집』 제12권, 조선노동당출판사.
북한사회과학원, 『조선전사』 제24권～제27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북한해군 원산작전기지, 「작전직일관 아침보고서」(1950. 5. 1～9. 28).
조선중앙통신사편, 『해방후 10년일지』, 1955(미간행).
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1-52년편, 1953.
허종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3.

5) 國外 資料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DOCU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KOREA Ⅰ(1948-1950),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資料叢書 1, 1996.
FEC ATIS Research Supplement Interrogation Reports, North Korean Forces Issue No.3, *North Korean Guerrilla Operation to 30 September 1950* (1950. 11. 15), SN.1582.
FEC,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1952(Unpublished)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50,* vol.7, *Korea,* 1976.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2권, 200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역, 『미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 (상), 199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제16집, 1997.
大韓民國 外務部, 『韓國戰爭 關聯 蘇聯 極秘外交文書』 (1-4권), 1994.
徐東九 譯, 『美國務省 外交文書가 벗긴 6·25秘錄 : 韓半島의 긴장과 美國』, 대한공론사, 1977.
소련군 총참모부, 『조선에서의 전투일보, 1950. 6. 25～1951. 12. 31』.
8086th AU(FEC), Military History Detachment,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1956 (Unpublished).
Staff Section Report. G-1, GHQ, FEC, 1 January-31 October 1950.
The New York Times.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Test of War: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USGPO : 1988), p. 31.

U.S. House,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Background Information on Korea*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0).

2. 2次 資料 및 單行本

1) 國內資料

김광수, 「한국전쟁 중 북한군의 기갑운용 연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김남식, 『남로당연구』, 돌베게, 1984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1.

김창순, 『북한15년사』, 지문각, 1961.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92.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박갑동, 『한국전쟁과 김일성』, 바람과 물결, 1990.

박홍규, 『UN』(서울: 형성사, 1991).

볼코고노프 저, 韓國戰略問題硏究所 역, 『스탈린』 세경사, 1993.

서경석, 『전장감각』, 샘터, 1999.

안천, 『남침유도설 해부』, 교육과학사, 1993.

예프게니 바자노프·나딸리아 바자노프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7.

육철식, 『강동정치학원』, 행림출판사, 1998.

이호재, 『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법문사, 1988.

임 은, 『북한 김일성 왕조비사 : 김일성 정전』, 한국양서, 1982.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戰爭記念事業會, 『韓國戰爭史』 1-6, 1991~1993.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고려원, 1990.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1973.

韓國弘報協會, 『韓國動亂』, 197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韓豹頊,『韓美外交 요람기』, 중앙일보사, 1984.
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戰火 속의 대사관』, 한섬사, 1980.
허남성・이종판,『韓國戰爭의 眞實』, 國防大學院, 2002.

2) 國外 資料

Appleman, Roy E., *U. S. Army in the Korean Army : South to the Naktong to the Yalu,* Washington, D. C. : GPO, 1961.

Futrell, Robert 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61.

George M. McCune, *Korea Toda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N. Y. : The Free Press, 1968.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 June 24-30*, 1950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1.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1972, USGPO.

Kathryn Weatersby,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New Documentary Evidenc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2, No.4 (Spring 1995)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Roy K. Flint, *T. F. Smith and 24th Division, (Ed.)Charles E. Heller and William A. Stoff, America's First Battle(1776-1965)* (Univ. Press of Kansas: 1988).

Susan Matura Translation, *Khrushchev Remembers*, 1970.

Truman, Harry S., *Memoirs* : *Year of Decisions*, Garden City, N. Y. : Doubleday & Co., 1955.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朱榮福,『朝鮮人民軍の南侵と敗退』, ユリア評論社,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찾아보기

ㄱ

가덕도 39
가데나기지 696
가장동 237
가천리 528
갈령 243, 265
갈미봉 307
감토봉 520
갑천 111
강경 443, 446, 450
강경경찰서 450
강구 398
강릉기지 670
강영훈 375
강은덕 264
강진 480
강태민 388, 400, 407
강화익 652
거리고개 236, 238
거제도 46
거창 506, 514
게이(Hobert Raymond Gay) 44, 194
경들저수지 278
경제협조처(ECA) 41
계룡산 80
계엄령 15, 18, 425
계원리 243
고근홍 326, 332
고급부관감실 54
고길훈 425, 429, 438, 446, 450, 466, 579, 595, 599, 605
고부 465
고은리 244, 250
고창 474
고흥반도 478
곡성 485
공군병원 648, 649, 650
공군본부 645, 648, 650, 651, 652
공군사관학교 55, 648, 650
공주 76, 84, 90, 96
공지작전과 646
곽성범 247
광양 490
광주 468, 476
광주기지 파견대 650
광주병원 471
괴산 235, 253
교통부 36
구례 485, 487
국방부 15, 36
국사봉 239, 280
국회 39
군무국 52
군사원조 59
군산 4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산경비부 438
군산기지 파견대 650
군산기지 573, 579, 590, 594, 596, 598, 602
군산비행장 449
군산항 447, 449
군수국 651
궁인철 379
권동찬 237, 370
권빈리 528
권태순 338
그로미코(Gromyko) 20
금강 73, 76, 90, 673
금강교 80, 91
금곡리 256, 269
금성교 80, 91
기사라즈(Kisarazu)항 663
기상대 645, 651
길전식 415
김광철 358
김기영 255
김기옥 652
김기주 261
김덕준 237, 238, 246
김덕해 376
김동빈 276, 371
김동증 379
김두일 376
김득룡 649
김무정 319
김문수 471
김백일 30, 33, 34, 289, 375
김병화 425, 462, 429, 457, 499, 535, 555
김병휘 429, 489
김봉문 387
김석원 238, 244, 247, 252, 353, 416
김성 288, 297
김성빈 326
김성은 425, 429, 466, 499, 535, 557, 606
김순기 326, 378
김안일 305
김양춘 289, 296
김영근 288
김용기 291, 296
김용배 292, 326, 349
김용주 429, 444, 463, 499, 535, 546
김용한 297
김웅 496
김응권 429
김응조 353
김익렬 468
김인호 388, 405
김일성 89, 129, 169
김장근 288
김재명 280
김점곤 269
김정렬 652, 653
김정희 303
김제 456, 457
김종갑 254
김종순 388, 392
김종오 286, 296, 302, 305, 311, 489, 492
김종원 388, 392, 398
김준 496
김진위 276, 278
김창덕 387
김책 223
김천 간이비행장 654
김천 194, 646
김치규 256
김택수 297
김포비행장 670
김포지구경비사령부 648
김한덕 291, 298
김해기지 650, 6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김현기 427, 496, 533
김홍일 30, 235, 244, 251, 261, 272, 344, 354, 407
김희요 280
김희준 247, 257, 273, 496, 527, 550

ㄴ

나고야(Nagoya) 668
나용수 377
나주 468
나하(Naha)항 666
낙동강 175, 197, 201, 687
낙정리 283
남로당 51
남원 468, 482
남원경찰서 460
남원역 481
남일초등학교 244, 248
남호동 395
내무부 15, 36, 46
내성천 324, 343
내평리 551
네루(Nehru) 20, 21
노근리 191
노재현 388, 403
논산 138, 146
농림부 36
농암리 274

ㄷ

다찌가와(Tachikawa)기지 663
달라스대대 667
담양 476
대구 16
대구공업고등학교 649
대구기지 645, 650, 652, 654
대구역 649
대구중학교 648, 649
대구효성여자중학교 649
대동강철교 678
대전 15, 32, 48, 149
대전기지 646
대전비행장 74, 118, 124, 130, 133
대전사범학교 부속 초등학교 648
대전역 161
대전지구보급창 56
대전지방법원 16
대전천 79
대전형무소 56
대탄동 402
대평리 90, 105, 108, 121, 245
대한전신전화공업주식회사 60
덕가산 254
덕곡동 396
덕암리 523, 529
던햄(Lelant R. Dunham) 142, 145
동경 664
동관리 259, 260
동산 456
두전동 342
딘(William F. Dean) 28, 73, 89, 122, 164, 177, 202, 521, 681

ㄹ

랜드럼(Eugene M. Landrum) 27
랜트론(Newton W. Lantron) 497
랭레이(Langley) 공군기지 663, 665
로간(Logan) 117
로우(Curtis R. Low) 652, 653
루시(Michael J. Lousey) 575
리(Joseph D. Lee) 68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리(Robert Rhea) 497, 535
리(Trygve Lie) 23, 25

ㅁ

마구평리 104
마달령 126, 133, 156, 160, 207
마산 46
마샬(George C. Marshall) 702
마송리 238
마이켈리스(John H. Michaelis) 558
말리크 18
망일산 522, 527, 528
망전산 327, 333
망진산 553, 554, 557
매정동 396
맥그레일(Thomas M. McGrail) 106, 118, 158, 497, 535, 556
맥린(Allen D. Maclean) 393
맥아더(Douglas MacArthur) 24, 26, 28, 30, 172, 197, 521, 647, 659
맥포교 79
머피(John R. Murphy) 679
멜로우(Mellow) 통제소 669
멜로이(Guy S. Meloy) 108
명당산 523
모트(Harold W. Mott) 497, 535, 538
목포 476
목포경비부 573, 574, 579, 582, 600, 603, 604
목표계획위원회 665, 677
목표분석단 647, 659, 684, 685
목표선정위원회 647, 661, 675, 701
몬테스클로스(Montesclaros) 95, 106, 118, 149, 167
무어(Ned D. Moor) 497, 535, 545, 550, 558
무주 184
무초 15, 30, 43
묵호경비부 573, 578, 584
문경 286, 288, 296, 300
문경초등학교 288
문용기 400
문용채 371
문형태 238
미 공군본부 646
미 공군성 662
미 군사고문단 48
미 극동공군 645, 646, 647
미 극동공군 목표과 696
미 극동공군사령부 25
미 극동군사령부 25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ADCOM) 28
미 극동해군사령부 25
미 대사관 39
미 육군 측지부대 660
미 육군부 25, 664
미 정찰비행대 645, 646, 648, 654, 658
미 제12전폭대대 667
미 제15공군 694
미 제162전술정찰대대 663
미 제18전폭전대 663, 668
미 제19연대 91, 95, 105, 204, 205, 692
미 제19폭격전대 671
미 제1기병사단 127, 175, 181, 199, 200, 688, 691
미 제1해병비행단 687
미 제21연대 170, 207, 672, 692
미 제22폭격전대 683
미 제24사단 73, 84, 130, 170, 200, 654, 672, 679
미 제25사단 180, 197, 200, 688, 690
미 제27연대 180, 199, 205
미 제29연대 652, 692, 691
미 제307폭격전대 66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미 제314병력수송비행전대 663
미 제314항공사단 662
미 제315항공사단 662
미 제31전략정찰대대 697
미 제33해병비행전대 687
미 제34연대 74, 87, 104, 130, 206, 692
미 제35전투요격전대 667
미 제363정찰기술대대 665
미 제3903레이다폭격기록대대 665
미 제3기술대대 670
미 제3폭격비행단 663
미 제40전투요격대대 646, 667, 668, 682, 688
미 제437병력수송비행단 663
미 제452폭격비행단 663
미 제502전술항공통제전대 665
미 제51전투비행대대 646, 668, 682
미 제52포병대대 112, 114, 123
미 제548정찰기술대대 697
미 제5공군 전방사령부 645, 647, 669
미 제5공군사령부 653, 669
미 제5기병연대 179, 183, 184, 188, 190
미 제6002기지대대 667
미 제6002전술지원비행단 653
미 제6131기지대 667
미 제6132전술항공통제전대 646, 669, 680
미 제6146기지부대 653, 657
미 제6147전술통제대대 680
미 제63포병대대 84, 93, 98, 100, 124, 156, 208
미 제67전폭대대 663, 668
미 제77특별기동대 671, 681, 689, 704
미 제7기병연대 188, 190, 197, 688
미 제802항공공병대대 666
미 제822항공공병대대 667, 668
미 제8군사령부 23, 25, 28, 29, 668, 675, 679
미 제8기병연대 179, 182, 184, 187, 192
미 제8전폭전대 671
미 제919항공공병정비중대 649, 667
미 제92폭격전대 682, 683
미 제934통신대대 665
미 제98폭격전대 665
미 합동참모본부(JCS) 22, 24, 25, 662
미 항공기지사령부 648, 650
미 항공사단 제25경비부 670
미 제7함대 647, 681
미동산 239, 240
미룡동 449
미원 235, 237, 237
민기식 33, 425, 437, 442, 461, 462, 467, 490, 503, 535
민병권 288, 296
민사부 35

ㅂ

바우트-원(Bout-one) 부대 645, 646, 653
박기병 280, 321, 370, 371, 428
박기석 395
박노규 290
박노봉 319
박도경 415
박무열 388
박배근 370
박성철 238, 273, 285
박승진 359
박승희 496
박영섭 326
박영식 307
박영철 359
박용실 408
박용학 379
박원석 64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박익균 410
박재열 388
박정덕 387
박정채 288
박종병 398
박종희 371
박치옥 326
박현수 429, 499, 535, 541, 550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664, 693
반변천 386
방원철 372
방호산 427, 496, 533
배동걸 456, 469
배상록 372
백기천 388, 398
백남권 438
백남수 379
백남원 277
백두산호 493
백선엽 237, 264, 265, 272, 274, 283, 320
백성욱 16
밸리 포지(Valley Forge)함 575, 619, 621, 622, 625, 631, 689
법무감실 54
법무부 15
병역법 54
보건부 36
보급창 648, 650, 651
보문산 145, 147
보은 235, 239, 243, 251, 253
보챔프(Charles E. Beauchamp) 104, 131, 137, 143, 168, 497, 516, 525
복서(Boxer)호 663
본궁(本宮)화학공장 694
봉곡리 96
봉무산 244
봉암리 478
봉화 328
봉황산 260, 261
부강리 244
부산경비부 582
부산군수사령부 56
부산극장 39
부산지구 보급창 60
부운령 274
부흥리 237, 240
북한군 제105전차사단 75, 170, 176, 201, 648, 657, 672, 683
북한군 제107전차연대 129
북한군 제1군단 89, 129, 425, 426, 431
북한군 제203전차연대 129
북한군 제2사단 192, 670
북한군 제3사단 74, 75, 87, 105, 122, 176, 185, 201, 683, 648
북한군 제4사단 74, 84, 96, 657, 672, 687
북한군 제5사단 655, 688
북한군 제603모터사이클연대 679
북한군 제6사단 427, 652, 685
북한군 최고사령부 516
불정산 317
VMF(N)-513대대 687
블라디보스톡 694
블루 하트(Blue heart) 계획 28
비봉산 387
B-26경폭격기 662, 670
B-29중폭격기 647, 660, 695

ㅅ

사세보(Sasebo) 667
사천 532
사천기지 646, 650, 652
사회부 36, 46
산제리 5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산청 519
삼계동 402
삼례 451, 456, 457
삼릉(三菱)철강회사 694
삼천포 490
상곡리 255
상달리 253
상주 254, 256, 273
생도 2기생 55
생현동 333
서무갑 652
서봉교 380
서정학 292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 33, 167, 425, 445, 449, 457, 459, 460, 465, 467
선덕비행장 671
섬진강 480
성무봉 250
세바르체 39
세천터널 160, 162, 168
소련 706
소화(昭和)항공기 공장 694
손석민 487
손원일 575, 578, 589, 638
송계초등학교 257, 266
송기종 297
송호림 246, 254, 260, 263, 497, 525
쇠고개 532, 540, 544
수도전기통신기기제작소 60
수동 519
수풍 695
숙성산 529
순창 468
순천 480
순흥 328
슈메이커(William S. Shoemaker) 666
스미스(Charles B. Smith) 123
스미스(David H. Smith) 94
스탈린(Josep V. Stalin) 20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612, 616, 618, 621, 623, 690
스트레톤(Charles. W. Stratton) 497, 535
스트레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659, 662, 684
스티코프 48
습격기연대 670
신관리 88
신기리 237
신성리 447
신성모 16, 32, 46, 238, 462, 475, 536
신염 410
신월리 486
신율리 553
신탄진 79
신태영 33, 429, 456, 441, 442, 462, 465, 509
신현준 431, 475
신현홍 269

ㅇ

아시야(Ashiya)기지 666, 667, 668
아이리스(Harold B. Ayres) 138, 145, 167, 497
안광영 276
안동 324, 343, 350
안동교 325, 357, 359
안동준 469
안동철교 357
안영호 359
안의 509, 514, 515
안태갑 371
알라메다(Alameda) 공군기지 663
알몬드(Edward M. Almond) 659, 6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애치슨(Dean G. Acheson) 20, 21, 702
애틀리(Clement R. Attlee) 702
앤드루스(William G. Andrews) 611, 612, 617, 618
야간사진정찰대 663
YAK전투기 99, 109, 133, 670
양성식 400
양중호 288, 305
양학모 377
어룡산 310, 312, 315
엄봉림 255
엄학섭 357
에머리치(Rollins S. Emmerich) 393
AD급강하폭격기 690
APQ-13레이더 698
F-51전투기 645, 648, 652, 663
F-80전투기 646, 670, 685
F4U-5N콜세어기 687
엔젤로 통제소 682
L-5기 657, 663
L-4기 657
M-26(Pershing) 550
여산 451
여수항 468
여자의용군 56
연포비행장 670, 671
연풍 290
염정태 388, 400, 401
영강 274, 304, 307
영광 468, 476
영남편성관구사령부 652
영덕 385, 391, 395
영동 126, 172, 176
영만리 456
영암 479
영양 405
영일만 666
영일비행장 391
영주 325, 326, 337, 339
영주교 341
영해 391
예천 342
오끼나와 668
오덕준 부대 480, 482
오덕준 425, 429, 468, 499, 509, 535
오도넬(Emmett O'Donnell) 678, 682, 696
오명환 330
오스틴(Austin) 24
오십천 395, 402
오익경 254
오정산 312
오진우 387, 406
옥녀봉 307, 313
옥산동 446
옥천 182, 187
온정리 비행장 672
옹천 341
옹천초등학교 343
왕휘 387
왜관교 45
외자관리청 59
요꼬다(Yokota)기지 682, 696
욕지도 478
용곡리 240
용대리 459
용두리 486
용산동 333
용안 450
용암산 333
용유리 254
용평초등학교 248
우교붕 379
우덕수 245, 371
운봉 481, 501, 5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운봉고개 503
울진 386
웅포 443, 453
워커(Walton H. Walker) 16, 26, 43, 76, 89, 126, 170, 177, 180, 197, 202, 283, 393, 559, 668, 679
원근호 377
원산비행장 670
원산정유소 675
원용덕 441, 442, 443, 453, 460, 462
원전 518
원전동 538, 549
월산리 490
월출산 479
월포동 529
웨이랜드(Otto P. Weyland) 661, 676
웰링턴(Wadlington) 157, 158, 162
윈스테드(Winstead) 110, 115
윌로우비(Charles A. Willoughby) 49, 661, 676
윌슨(Wesley C. Wilison) 497, 535
유고슬로비아 19
유곡리 314, 315, 320
유등천 79
유성 112, 126, 131, 141
유수리 549
유승렬 392
유엔 안보리 제3차 결의 2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 23, 25, 679
유엔군사령부(UNC) 23, 25, 26
유엔군통합사령부 24, 28
유엔한국위원단 15, 16
유재흥 34, 274, 281, 311, 320, 375
유진오 38
유창훈 259, 372
유해준 429, 499, 535
유흥수 388, 405, 408, 411, 414
육군병참학교 56
육군보병학교 55, 444, 445
육군본부 29
육군종합학교 55
육석렬 443
윤명운 395
윤춘근 246, 312
윤태현 326, 329
은석표 471
은척산 282, 283
은형원 356
의성 646, 654, 658
의성초등학교 658
이경용 379
이계순 297
207고지 398, 401
208고지 398
이관수 254, 497, 525
이권무 437, 496, 520
이규환 377
이남호 292, 298
이다즈께(Itazuke)기지 646, 665, 666, 669
이동호 248
이두황 282
이룡 438
이리 443, 445, 454
이리경찰서 446
이만호 288, 292
이명수 401
이목리 237
이무중 269
이백우 429, 471
이붕직 388, 411, 415
이상학 376
이성가 325, 332, 334, 335
이성오 379
이성준 296
이소동 388, 40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승만 15, 16, 30
이안천 277
이영각 379
이영규 425, 429, 463, 480, 481, 485, 556
이영제 400
이용구 330
이용준 371
이우팽 330
이운산 290
이원춘 415
이유성 468
이을설 238
이응준 428, 429, 446, 469, 477, 487, 489, 533
227고지 120, 121
이인리 103
이일수 247
이재민 35
이전동 409
이종찬 33, 468
이주근 297
이주일 281, 375
이준식 33, 388, 392, 395, 398, 399, 402, 407,
이진암 297
이집트 19
이창권 289
이창률 326
이철룡 259
이타미(Itami)기지 687
이현진 251, 438
이형근 469, 490
이형석 18, 33, 429, 469, 475
이형주 260
이홍진 349
이화령 292
이후진 427, 496, 533
이희권 246
익산 451
인도 19
인민위원회 19
인사국 53
인천경비부 573, 579, 594, 599, 602
일본철강공장 694
181고지 398, 399, 401
189고지 139, 146
임부택 288, 292
임수일 313
임시수용소 39
임시조치법 37, 40
임실 460, 463, 482
임익순 340
임충식 346
임해민 427, 496, 533
입법부 16

ㅈ

작약산 281
작전지휘권 23, 29, 30, 58
장개석 22
장경석 333
장면 15
장성 472, 474
장수 465
장신리 455
장암리 247, 248
장인걸 388, 400
장자동 266, 269
장좌동 558
장철부 388, 410
장촌리 326
장춘권 245, 371
장태명 55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장항 443, 446
장홍 480
전남편성관구사령관 490
전략공군사령부 694
전방항공통제관(FAC) 671, 680, 690
전술항공통제반(TACP) 669, 679
전술항공통제본부(TACC) 647, 669, 680
전술항공통제소 155
전시동원령 18
전우영 497
전자열 272
전자폭격통제반 665
전주 편성관구사령관 441
전주 451, 457, 469
점촌 286, 304, 315
정곡리 551
정균환 333
정래혁 538, 652
정성봉 450
정세진 414
정순기 326, 332
정승화 245
정영홍 280
정오경 288
정육지 438
정읍 459, 472
정일권 30, 462
정훈감실 53
제1건설사령부 666
제1야전의무단 61
제1육군병원 61
제1포로수용소 57
제2육군병원 61
제822항공공병대대 649
JMS-305정 574
조경학 247, 371
조국전선 18
조규영 329
조달진 377
조령 296
조문종 377
조병옥 16, 47
조봉 281, 313, 317
조선석유회사 694
조선이연(理硏)금속공장 695
조선질소비료공장 694
조선질소화약공장 694, 706
조시형 471, 474
조영구 372
조이(C. Turner. Joy) 611, 621, 626, 659
존슨(Louis A. Johnson) 21
존슨기지 668
주노(Juneau)함 611, 612, 614, 616
주막동 276
주왕산 409
주흘산 297
죽령 326
GP폭탄 677
지례 194, 195
진남교 310
진보 386, 405
진보초등학교 407
진주 532
진주군청 652
진해기지 646, 652, 653, 657

ㅊ

차균섭 387
창락초등학교 326
창평리 509
채명신 328
채병덕 499, 505, 533, 535, 536, 538, 539, 541, 546, 550, 6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처치(John H. Church) 497, 521, 532, 535, 690
천등산 348
천안 48, 88
청송 405, 414
청안 253
청주 235, 244
최갑중 338
최경록 237, 238, 246
최고인민위원회 19
최광 289
최덕신 358
최병묵 291, 297
최병순 276, 280
최석 388
최석락 275, 280
최영성 469
최영희 274, 276, 277, 428
최용덕 650
최용진 296
최인덕 496, 520
최현 250
최홍식 377
추격기연대 670
추정리 237
춘양 242
충무공함 574, 591, 592

ㅋ

카친(Alfred G. Katzin) 28
칼튼(Merrill H. Carlton) 680
캐슬러(George D. Kessler) 336
콜리어(William A. Collier) 27
콜린스 25
클라크(Clark)기지 663
킨 49

ㅌ

타이페이 22
태인 465
테르밋 683
톨레도(Toledo)함 611, 612, 616, 617
트루먼(Truman) 21, 24
T-6건국기 652, 654
T-6공중통제기 690, 692
팀버레이크(Edward J. Timberlake) 653

ㅍ

파머(Charles D. Palmer) 44, 178, 179, 206
파트리지(Earle E. Partridge) 652
팔령산 298
팔령재 504, 512
84고지 116
편성관구사령부 52, 428, 442, 469
평강비행장 670
평거동 556
평양병기창 694
평택 32
평해 387
포항 385
포항경비부 573, 574, 578, 582, 587, 589
포항기지 646
폭격사령부 647, 671, 673
풍기 324, 325
풍기초등학교 325
프랭키원(Frankiwan) 515
피난민 35, 36, 38
필리핀 시(Philippine Sea)함 612, 625

ㅎ

하갑청 4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동 518, 532, 544, 652
하동대교 489
하트만(Charles C. Hartman) 611, 612, 616
한강복선철교 675
한강인도교 675
한국전기통신공업주식회사 61
한국지원협조위원회 23
한용현 648, 649
한일래 427, 496, 533
함병선 277, 288
함안 519
함양 511
함양우체국 509
함열 451
함창 235, 274, 281
함창중학교 275, 306
함평 476
함흥철교 678
합동작전본부(JOC) 646, 647, 669, 679
합동전략계획 및 작전단(JSPOG) 659, 660
합천 506, 519
해군사관학교 55
해남 479, 480
해양대학 446
허영걸 652
허현 371
허형순 388, 398
헌병대 648, 649, 650
헤스(Dean E. Hess) 645, 653
헬레나(Helena)함 611, 612
현학봉 289
호서남초등학교 306
호주공군 692
홀리데이(San C. Holliday) 515
홍순봉 478
홍인출 443
화개장 533, 537
화령장 236, 253
화령초등학교 255
화림산 396
화산리 506, 510, 512, 515
화순 468, 477, 479
황간 175, 188, 191, 194
황강 520
황기상 357
황등 451, 455
황명 388
황석 289
황의철 376
황장재 408
황종구 313
황한준 400
회인 235
효촌리 247, 248
후생감실 54
흥남질소화약공장 699
흥남화학공업단지 647, 706
히긴스(J. M. Higgins) 611, 612, 614, 615, 616, 617
힉키(Doyle O. Hickey) 661, 6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